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555-13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최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안재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최혜선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애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출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머리말

최근 몇 년간 보육정책은 그 양이나 내용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더 확대함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한층 더 다양해졌다. 2009년 하반기부터 전액지원대상 50% 확보와 더불어 중앙정부 수준에서 저소득층 0, 1세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육비용 지원 방식 전달체계로는 전자카드형태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추진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교사수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보육비용 지원 방식의 하나로 기존의 시설별 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서울시는 2009년 3월부터 민간개인과 가정 등 민간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인건비 형태로 보조하는 유사 공공시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대상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증가되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충분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다

보육·교육 수요 및 부모의 요구도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은 보육·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가 된다. 수요자의 보육·교육 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됨에 따라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육아시설의 확충,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등 인력의 공급,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지속적인 보육·교육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수요자 지향적이고 지역, 시설, 계층간 형평성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 대상 아동을 둔 가정의 자녀육아실태, 지역, 아동연령, 아동특성 등에 따른 보육·교육 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기초자료 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전국 차원의 보육·교육 실태조사 실시가 요구된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두 번째 조사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현황과 요구 등을 파악하여 보육 수요율을 추정하고 보육 등 관련 정책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조사 연구는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 책임 하에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조사 실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맡아주었다. 조사표 개발 과정에서부터 조사원 교육, 조사관리, 조사자료 분석, 보고서 집필 등 전체 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수행, 보고서 집필을 위한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총괄(서문희)

조사기획 및 조사관리(이연희)

표본 선정 및 가중치 산출(손창균)

제1장 서론(서문희)

제2장 영유아보육사업 현황(서문희)

제3장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서문희)

제4장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김은설, 서문희, 최혜선)

제5장 미취학아동 서비스 이용 및 요구(최진, 최혜선, 서문희, 김은설)

제6장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조애저)

제7장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안재진)

제8장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욕구(김유경)

제9장 보육정책 관련 인지 및 의견(최혜선, 서문희)

제10장 수요 추정(서문희)

제11장 정책제언 및 맺는 말(연구진 전체)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지도원과 조사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표본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산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창균 박사와 조사 실무를 맡아 조사관리, 자료 오류수정을 위해 애써 준 이연희 팀장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관리팀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끝으로 본 보고서를 읽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목 차

요 약	1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조사방법	22
3. 보고서 구성 및 용어의 정의	36
II. 영유아보육사업 현황	40
1.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40
2. 보육시설 환경 요인	52
3. 보육비용 지원	62
III.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75
1. 가구의 특성	75
2. 부모의 특성	87
3. 아동 특성	98
4. 소결	101
IV.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103
1.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103
2. 자녀의 양육자	118
3. 자녀양육 소요 비용	142
4. 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취업	153
5. 소결	167
V. 미취학아동 서비스 이용 및 요구	170
1.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170

2. 보육·교육기관 이용 행태	173
3.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207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250
5.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	277
6.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및 앞으로 이용 의사	294
7. 소결	323
VI.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326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326
2. 혈연인에 의한 지원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332
3. 비혈연인에 의한 지원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357
4. 소결	374
VII.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376
1.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376
2.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379
3. 개별교육 이용과 비용	400
4. 소결	418
VIII.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욕구	420
1.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욕구	420
2.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	438
3. 보육시설 및 공부방 이용 및 욕구	461
4. 소결	464
IX. 보육정책 관련 인지 및 의견	466
1.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련 의견	466
2. 보육·유아교육비 지원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472
3.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484
4. 소결	497

X. 수요 추정	499
1. 보육시설 이용 수요	499
2. 유치원 이용 수요	505
3. 소결	510
XI. 정책제언 및 맺는 말	511
1. 정책 제언	511
2. 맺는 말	519
참고문헌	521
부 록	523
부록 1. 조사 지역	
부록 2. 시·군·구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과 이용률	
부록 3. 조사표	

표 목 차

〈표 I-2-1〉	가구조사 내용	24
〈표 I-2-2〉	아동조사 내용	25
〈표 I-2-3〉	표본추출단계	27
〈표 I-2-4〉	3개 권역별 비례배분에 의한 층별 표본 배분 현황	28
〈표 I-2-5〉	지역별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표본 및 완료 현황	30
〈표 I-2-6〉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31
〈표 I-2-7〉	지역별 가구 최연소 아동의 연령 및 학년	31
〈표 I-2-8〉	지역별 연령 및 학년별 아동수	32
〈표 II-1-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41
〈표 II-1-2〉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42
〈표 II-1-3〉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42
〈표 II-1-4〉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자 수(2008)	43
〈표 II-1-5〉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4
〈표 II-1-6〉	시·군·구 인구대비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 및 이용률	45
〈표 II-1-7〉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분포	45
〈표 II-1-8〉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7
〈표 II-1-9〉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8
〈표 II-1-10〉	보육아동 연령 분포	49
〈표 II-1-11〉	보육아동 출생순위 분포	50
〈표 II-1-12〉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 비율과 수	51
〈표 II-2-1〉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소유 형태	53
〈표 II-2-2〉	보육시설 종사자 수	54
〈표 II-2-3〉	시·도별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른 시설 비율	55
〈표 II-2-4〉	시설장 학력 분포	56
〈표 II-2-5〉	보육교사 자격 및 학력 분포	57
〈표 II-2-6〉	보육교사 임용시기 분포	58
〈표 II-2-7〉	2005~2009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2009. 8. 17)	59
〈표 II-2-8〉	2005~2009 평가인증 참여시설 및 인증시설 지역별 분포(2009. 8. 17)	60

〈표 II-2-9〉	기타 보육환경 실태	61
〈표 II-3-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63
〈표 II-3-2〉	보육비용 구성	65
〈표 II-3-3〉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액	65
〈표 II-3-4〉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66
〈표 II-3-5〉	서울시 각 구의 추가 수납액 기준	67
〈표 II-3-6〉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68
〈표 II-3-7〉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2006~2008	69
〈표 II-3-8〉	보육료 지원 건 수: 2006~2008	70
〈표 II-3-9〉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2009.4)	71
〈표 II-3-10〉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5~2009	72
〈표 II-3-11〉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09	73
〈표 II-3-1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9	74
〈표 II-3-13〉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9)	74
〈표 III-1-1〉	아동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76
〈표 III-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77
〈표 III-1-3〉	아동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78
〈표 III-1-4〉	아동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78
〈표 III-1-5〉	아동 가구의 주택소유 특성	79
〈표 III-1-6〉	아동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80
〈표 III-1-7〉	지역별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	80
〈표 III-1-8〉	모 취업여부별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	82
〈표 III-1-9〉	영유아 모의 취업여부별 소득 수준	82
〈표 III-1-10〉	가구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83
〈표 III-1-11〉	가구규모별 초등학교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	83
〈표 III-1-12〉	지역별 아동 가구의 월평균 지출수준	84
〈표 III-1-13〉	모 취업여부별 아동 가구의 지출수준	85
〈표 III-1-14〉	가구규모별 가구의 지출수준	86
〈표 III-2-1〉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7
〈표 III-2-2〉	초등학교 이하 아동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8
〈표 III-2-3〉	아동 부모의 건강 특성	89

〈표 III-2-4〉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90
〈표 III-2-5〉	아동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91
〈표 III-2-6〉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위치 및 근무형태	93
〈표 III-2-7〉	초등학생 이하 아동 부모의 종사상 위치 및 근무형태	94
〈표 III-2-8〉	최연소 아동구분별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95
〈표 III-2-9〉	최연소 아동구분별 근로부모의 월평균소득	96
〈표 III-2-10〉	아동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97
〈표 III-2-11〉	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	97
〈표 III-2-12〉	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시 정부에 바라는 점	98
〈표 III-3-1〉	지역별 아동의 성별	99
〈표 III-3-2〉	지역별 아동과 가구주와의 관계	99
〈표 III-3-3〉	출생순위	100
〈표 III-3-4〉	지역별 아동의 건강상태	101
〈표 IV-1-1〉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양육지원 기관 수	104
〈표 IV-1-2〉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수	104
〈표 IV-1-3〉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105
〈표 IV-1-4〉	초등학생 연령별 이용하는 양육지원 기관 수	105
〈표 IV-1-5〉	초등학생 연령별 이용하는 개인서비스 수	106
〈표 IV-1-6〉	초등학생 학년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106
〈표 IV-1-7〉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07
〈표 IV-1-8〉	초등학생 아동구분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109
〈표 IV-1-9〉	아동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영유아)	110
〈표 IV-1-10〉	아동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초등학생)	111
〈표 IV-1-11〉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	112
〈표 IV-1-12〉	유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113
〈표 IV-1-13〉	초등학생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114
〈표 IV-1-14〉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115
〈표 IV-1-15〉	취업모의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연령 1월 1일 기준)	116
〈표 IV-1-16〉	모취업상태별 취업모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	117
〈표 IV-2-1〉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118

〈표 IV-2-2〉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119
〈표 IV-2-3〉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취학아동	120
〈표 IV-2-4〉	최연소 아동 연령별 부모 이외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122
〈표 IV-3-1〉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143
〈표 IV-3-2〉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145
〈표 IV-3-3〉	보육·교육 비용 지불 아동 비율	146
〈표 IV-3-4〉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146
〈표 IV-3-5〉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147
〈표 IV-3-6〉	미취학 아동의 월 보육·교육 비용 평균	148
〈표 IV-3-7〉	초등학생 학년별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150
〈표 IV-3-8〉	취학 아동의 월 보육·교육 비용 평균	151
〈표 IV-4-1〉	최연소 자녀 구분별 부모의 자녀돌보기 분담	153
〈표 IV-4-2〉	영유아 가구 남편과 자녀돌보기 분담 방식	154
〈표 IV-4-3〉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비동거 친인척	155
〈표 IV-4-4〉	영유아 가구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비동거인	156
〈표 IV-4-5〉	최연소 자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응답자 자택 간 거리 ..	157
〈표 IV-4-6〉	영유아 가구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응답자 자택 간 거리 ..	157
〈표 IV-4-7〉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158
〈표 IV-4-8〉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159
〈표 IV-4-9〉	영유아 가구 보육정보센터 제공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159
〈표 IV-4-10〉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취업모의 자녀 양육관련 애로사항	160
〈표 IV-4-11〉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모의 미취업 이유	161
〈표 IV-4-12〉	출산과 양육 위해 경제활동 중지이유 및 유무	162
〈표 IV-4-13〉	출산과 양육 위해 경제활동 중지 유무 및 이유: 미취학 아동	163
〈표 IV-4-14〉	출산과 양육 위해 경제활동 중지 유무: 취학 아동	164
〈표 IV-4-15〉	경제활동 그만둔 때	165
〈표 IV-4-16〉	경제활동 그만둔 때: 미취학 아동	166
〈표 IV-4-17〉	경제활동 그만둔 때: 취학 아동	167
〈표 V-1-1〉	보육·교육기관 이용아동 특성	172

〈표 V-1-2〉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아동 모 취업 특성	173
〈표 V-2-1〉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의 비교	174
〈표 V-2-2〉	지역별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의 비교	174
〈표 V-2-3〉	영/유아별 거주지와 이용기관 위치 비교	175
〈표 V-2-4〉	거주지와 이용 기관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176
〈표 V-2-5〉	지역별, 영/유아별 타 행정구역 기관 이용 이유	177
〈표 V-2-6〉	기관별 주변환경 특성	177
〈표 V-2-7〉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 이유	179
〈표 V-2-8〉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이유	180
〈표 V-2-9〉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 변경 의향	180
〈표 V-2-10〉	영·유아별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 변경 의향	181
〈표 V-2-11〉	이용기관별 변경 의향 내용	181
〈표 V-2-12〉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 시기	182
〈표 V-2-13〉	현재 이용기관 이용지속 기간	183
〈표 V-2-14〉	기관 이용 요일 유형	184
〈표 V-2-1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요일 유형	185
〈표 V-2-16〉	기관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186
〈표 V-2-17〉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평일 이용시간	187
〈표 V-2-18〉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초과 빈도	188
〈표 V-2-19〉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관련 의견	188
〈표 V-2-20〉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189
〈표 V-2-21〉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189
〈표 V-2-22〉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190
〈표 V-2-23〉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191
〈표 V-2-24〉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192
〈표 V-2-25〉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의견	193
〈표 V-2-26〉	보육시설 오전 운영시간을 공식화할 경우 이용 의향	194
〈표 V-2-27〉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195
〈표 V-2-28〉	지역 및 운영주체별 유치원 이용 시간	196
〈표 V-2-29〉	아동구분 및 모 취업여부별 유치원 이용 시간	196
〈표 V-2-30〉	기관 운영 주체별 등·하원 방법	197

〈표 V-2-31〉	기관 운영주체별 등·하원차량 교사 동승여부	198
〈표 V-2-32〉	기관 운영 주체별 보육·교육기관차량이용 이유	199
〈표 V-2-33〉	기관 운영 주체별 등·하원 소요 시간	199
〈표 V-2-34〉	제 특성별 보육시설 차량이용 이유	200
〈표 V-2-35〉	운영 주체별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202
〈표 V-2-36〉	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203
〈표 V-2-37〉	제 특성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204
〈표 V-2-38〉	가구소득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204
〈표 V-2-39〉	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205
〈표 V-2-40〉	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선택시 평가인증의 영향	205
〈표 V-2-41〉	운영 주체별 유치원 및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이유	206
〈표 V-3-1〉	운영주체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1순위)	207
〈표 V-3-2〉	운영 주체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종합)	208
〈표 V-3-3〉	운영주체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종합)	209
〈표 V-3-4〉	제 특성별 시설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210
〈표 V-3-5〉	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여부 및 빈도	211
〈표 V-3-6〉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213
〈표 V-3-7〉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부모서비스 도움된다는 비율 및 5점 정도	215
〈표 V-3-8〉	기관유형별 만족한다는 비율 및 5점 척도	216
〈표 V-3-9〉	기관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및 5점 척도	217
〈표 V-3-10〉	보육시설 기관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비교	218
〈표 V-3-11〉	보육시설 기관유형별 도움정도(5점 평균)	219
〈표 V-3-12〉	제 특성별 보육시설 도움정도(5점 평균)	220
〈표 V-3-13〉	유치원 기관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및 5점 척도	221
〈표 V-3-14〉	반일제이상 학원 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비교	222
〈표 V-3-15〉	취약보육의 이용	223
〈표 V-3-16〉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	223
〈표 V-3-17〉	긴급 상황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224
〈표 V-3-18〉	아이가 아플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225
〈표 V-3-19〉	취약보육의 필요성	226
〈표 V-3-20〉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의 필요성	227

〈표 V-3-21〉 제 특성별 야간보육의 필요성	228
〈표 V-3-22〉 제 특성별 24시간보육의 필요성	228
〈표 V-3-23〉 제 특성별 휴일보육의 필요성	229
〈표 V-3-2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시 보육시설 이용 의사	230
〈표 V-3-25〉 특별활동 종류 수	231
〈표 V-3-26〉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주체별 특별활동 실시 및 종류 수	232
〈표 V-3-27〉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종류 실시 비율	233
〈표 V-3-28〉 시설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234
〈표 V-3-29〉 기관별 특별활동 평균 이용시간	234
〈표 V-3-30〉 특별활동 외부강사 비율	235
〈표 V-3-31〉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236
〈표 V-3-32〉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237
〈표 V-3-33〉 영어 월평균 이용비용	238
〈표 V-3-34〉 보육시설 특별활동 지역별 평균비용	239
〈표 V-3-35〉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비용	240
〈표 V-3-36〉 특별활동 만족도(5점 평균)	241
〈표 V-3-37〉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242
〈표 V-3-38〉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242
〈표 V-3-39〉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제 특성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243
〈표 V-3-40〉 유치원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243
〈표 V-3-41〉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찬성 이유	244
〈표 V-3-42〉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이유	244
〈표 V-3-43〉 제 특성별 보육시설 특별활동 적정 비용	245
〈표 V-3-44〉 유치원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이유	246
〈표 V-3-45〉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추가비용 반대 이유	247
〈표 V-3-4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반대이유	247
〈표 V-3-47〉 유치원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반대이유	248
〈표 V-3-48〉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248
〈표 V-3-49〉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249
〈표 V-3-50〉 제특성별 건강검진 비용	249

〈표 V-4-1〉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실태	250
〈표 V-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이유	251
〈표 V-4-3〉	보육료·교육비 감면아동의 감면액수	252
〈표 V-4-4〉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253
〈표 V-4-5〉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254
〈표 V-4-6〉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256
〈표 V-4-7〉	아동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교육비	257
〈표 V-4-8〉	아동연령별 기관별 월평균 보육·교육비	257
〈표 V-4-9〉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교육비	258
〈표 V-4-10〉	보육시설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259
〈표 V-4-11〉	아동 연령 및 시설유형별 전체 아동 월평균 보육 비용	261
〈표 V-4-12〉	보육비용 미지원 아동 연령별, 시설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262
〈표 V-4-13〉	보육시설 유형별 및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263
〈표 V-4-14〉	제 특성별 보육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보육 비용	264
〈표 V-4-15〉	설립주체 및 지원여부별 유치원 월평균 교육비	266
〈표 V-4-16〉	연령 및 설립주체별 전체 아동 유치원 교육비	266
〈표 V-4-17〉	제 특성별 유치원 월평균 교육비	267
〈표 V-4-18〉	연령 및 설립주체별 교육비 미지원 아동 유치원 교육비	268
〈표 V-4-19〉	유치원 설립주체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269
〈표 V-4-20〉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270
〈표 V-4-21〉	반일제이상 학원 종류별 월평균 비용	271
〈표 V-4-22〉	연령 및 반일제이상 학원 종류별 월평균 학원 비용	271
〈표 V-4-23〉	제 특성별 월평균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272
〈표 V-4-24〉	보육·교육비 부담 인식	273
〈표 V-4-2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274
〈표 V-4-26〉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 정도	275
〈표 V-4-27〉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276
〈표 V-4-28〉	제 특성별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277
〈표 V-5-1〉	기관유형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278
〈표 V-5-2〉	5점 평균 기관별 이용 만족도	279
〈표 V-5-3〉	기관별 이용 만족도 변화(2004, 2009)	280

〈표 V-5-4〉	보육시설 만족도 백분율 분포	281
〈표 V-5-5〉	보육시설 만족도 백분율 분포(비용)	282
〈표 V-5-6〉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비교(2004, 2009)	283
〈표 V-5-7〉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284
〈표 V-5-8〉	보육시설 제 특성별 만족도 5점 평균	285
〈표 V-5-9〉	유치원 만족도 백분율 분포	286
〈표 V-5-10〉	유치원 이용 만족도 변화(2004, 2009)	287
〈표 V-5-11〉	유치원 제 특성별 만족도 5점 평균	288
〈표 V-5-12〉	선교원 만족도 백분율 분포	289
〈표 V-5-13〉	반일제이상 학원(영어) 만족도 백분율 분포	290
〈표 V-5-14〉	반일제이상 학원(미술 등) 만족도 백분율 분포	290
〈표 V-5-15〉	기관별 개선사항(1순위)	291
〈표 V-5-16〉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주체별 개선사항(1순위)	292
〈표 V-5-17〉	기관별 개선 요구 사항(복수응답)	293
〈표 V-6-1〉	최초 이용 기관(반일제이상)	295
〈표 V-6-2〉	최초 이용기관별 기관 최초 이용 이유	296
〈표 V-6-3〉	제 특성별 기관 최초 이용 이유	297
〈표 V-6-4〉	최초 기관 이용 월령	298
〈표 V-6-5〉	미취학 아동의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299
〈표 V-6-6〉	미취학 아동의 최초 이용 기관별 최초 이용 월령	300
〈표 V-6-7〉	미취학 아동의 기관 최초 이용 이유별 최초 이용 월령	300
〈표 V-6-8〉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1순위)	301
〈표 V-6-9〉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2순위)	302
〈표 V-6-10〉	자녀 연령대별 모의 취업상태	303
〈표 V-6-11〉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개인서비스 (1순위)	304
〈표 V-6-12〉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개인서비스(2순위)	304
〈표 V-6-13〉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중단 경험 유무	305
〈표 V-6-14〉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중단 이유	306
〈표 V-6-15〉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중단 경험 유무	307
〈표 V-6-16〉	제 특성별 유치원 중단 이유	308
〈표 V-6-17〉	지역, 연령별 앞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의사	310

〈표 V-6-18〉	보육시설 추가 이용 시기	311
〈표 V-6-19〉	보육시설 이용 희망자의 보내고 싶은 시설 형태	313
〈표 V-6-20〉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이유	314
〈표 V-6-21〉	연령별 유치원 추가 이용 시기	315
〈표 V-6-22〉	유치원에 다니겠다고 보내고 싶은 유치원 형태	316
〈표 V-6-23〉	국·공립 유치원 선호 이유	317
〈표 V-6-24〉	지속이용 예상 기간	318
〈표 V-6-25〉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319
〈표 V-6-26〉	향후 지속이용 예상기간	319
〈표 V-6-27〉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320
〈표 V-6-28〉	유치원 향후 지속이용 예상기간	321
〈표 V-6-29〉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321
〈표 V-6-30〉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지속 이용 예상기간	322
〈표 V-6-31〉	연령별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322
〈표 V-6-32〉	양육수당 제공시 보육시설 지속 의향	323
〈표 VI-1-1〉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아동 수와 비율	327
〈표 VI-1-2〉	아동구분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327
〈표 VI-1-3〉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328
〈표 VI-1-4〉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혈연인이 돌보는 총 아동 수	329
〈표 VI-1-5〉	아동구분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제공자	330
〈표 VI-1-6〉	아동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331
〈표 VI-1-7〉	지역 및 모 취업별 영유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332
〈표 VI-2-1〉	아이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	333
〈표 VI-2-2〉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	334
〈표 VI-2-3〉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	334
〈표 VI-2-4〉	모취업의 영유아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가족이나 친인척	335
〈표 VI-2-5〉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36
〈표 VI-2-6〉	영유아 특성별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37
〈표 VI-2-7〉	초등학생 특성별 혈연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37
〈표 VI-2-8〉	영유아 취업모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38
〈표 VI-2-9〉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339

〈표 VI-2-10〉 영유아 특성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340
〈표 VI-2-11〉 초등학생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340
〈표 VI-2-12〉 영유아 특성별 취업모의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341
〈표 VI-2-13〉 혈연인이 주로 돌보는 장소	342
〈표 VI-2-14〉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특성별 혈연인이 주로 돌보는 장소	342
〈표 VI-2-15〉 취업모의 영유아 혈연인 보육시 주로 돌보는 장소	343
〈표 VI-2-16〉 아이를 맡긴 장소와 집과의 거리	344
〈표 VI-2-17〉 영유아 및 초등학생 특성별 아이를 맡긴 곳과 집과의 거리	345
〈표 VI-2-18〉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이를 데려오는 주기	346
〈표 VI-2-19〉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영유아를 데려오는 주기	346
〈표 VI-2-20〉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취업모의 영유아를 데려오는 주기	347
〈표 VI-2-21〉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348
〈표 VI-2-22〉 영유아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349
〈표 VI-2-23〉 취업모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350
〈표 VI-2-24〉 서비스제공자별 비용 지불시 비용 분포와 평균	351
〈표 VI-2-25〉 연령구분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비용	352
〈표 VI-2-26〉 비용 지불하는 경우 평균 비용	352
〈표 VI-2-27〉 취업모 영유아의 제 특성별 비용 지불하는 경우, 평균 비용	353
〈표 VI-2-28〉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354
〈표 VI-2-29〉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355
〈표 VI-2-30〉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356
〈표 VI-2-31〉 취업모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356
〈표 VI-3-1〉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	358
〈표 VI-3-2〉 영유아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	358
〈표 VI-3-3〉 초등학생을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	359
〈표 VI-3-4〉 소개 경로	360
〈표 VI-3-5〉 영유아 돌봐주는 비혈연인의 소개 경로	360
〈표 VI-3-6〉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361
〈표 VI-3-7〉 영유아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자녀양육경험 및 자격	361

〈표 VI-3-8〉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62
〈표 VI-3-9〉	영유아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62
〈표 VI-3-10〉	아동의 연령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363
〈표 VI-3-11〉	영유아 특성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364
〈표 VI-3-12〉	초등학생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364
〈표 VI-3-13〉	아동연령별 주로 돌보는 장소	365
〈표 VI-3-14〉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장소	365
〈표 VI-3-15〉	자녀 돌보는 비혈연인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빈도 및 대처방안 ..	366
〈표 VI-3-16〉	영유아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의 빈도 ..	367
〈표 VI-3-17〉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368
〈표 VI-3-18〉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368
〈표 VI-3-19〉	(지불하는 경우) 지불금액 평균 액수	369
〈표 VI-3-20〉	아동 연령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액수	370
〈표 VI-3-21〉	영유아와 초등학생 비용 지불시 평균 액수	370
〈표 VI-3-22〉	현재 자녀를 돌보는 사람(비혈연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371
〈표 VI-3-23〉	영유아를 돌보는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372
〈표 VI-3-24〉	영유아의 특성별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373
〈표 VII-1-1〉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378
〈표 VII-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380
〈표 VII-2-2〉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이용 수	381
〈표 VII-2-3〉	시간제 학원 이용 미취학 아동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382
〈표 VII-2-4〉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이용	383
〈표 VII-2-5〉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384
〈표 VII-2-6〉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385
〈표 VII-2-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주당 총 이용시간	387
〈표 VII-2-8〉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분야별 프로그램 이용 시간	388
〈표 VII-2-9〉	취학여부에 따른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	389
〈표 VII-2-10〉	아동 연령별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	390
〈표 VII-2-11〉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별 이용비용	391

〈표 VII-2-12〉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392
〈표 VII-2-13〉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이용비용,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비교 ..	393
〈표 VII-2-14〉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특성별 이용비용	394
〈표 VII-2-15〉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가구특성별 프로그램별 월 평균 이용비용 ..	395
〈표 VII-2-16〉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396
〈표 VII-2-17〉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	397
〈표 VII-2-18〉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	398
〈표 VII-2-19〉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교육내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	399
〈표 VII-2-20〉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비용에 대한 만족도	399
〈표 VII-3-1〉	전체 아동의 연령별 개별교육 이용 현황	400
〈표 VII-3-2〉	이용하는 총 개별교육 프로그램 수 분포	402
〈표 VII-3-3〉	미취학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 현황	403
〈표 VII-3-4〉	개별교육 이용 미취학 아동의 기타 서비스 이용 현황	404
〈표 VII-3-5〉	초등학생의 개별교육 이용 현황	405
〈표 VII-3-6〉	개별교육 이용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이용 현황	406
〈표 VII-3-7〉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종류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407
〈표 VII-3-8〉	전체 아동의 개별교육 종류별 프로그램 이용 수	408
〈표 VII-3-9〉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연령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408
〈표 VII-3-10〉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409
〈표 VII-3-11〉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주당 총 이용시간 분포	410
〈표 VII-3-12〉	아동연령, 지역 및 모 취업별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	411
〈표 VII-3-13〉	가구소득별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	411
〈표 VII-3-14〉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분야별 프로그램 이용 시간	412
〈표 VII-3-15〉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연령별 이용비용	413
〈표 VII-3-16〉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414
〈표 VII-3-17〉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특성별 이용비용	415
〈표 VII-3-18〉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특성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416
〈표 VII-3-19〉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417
〈표 VIII-1-1〉	아동, 모취업상태 및 가구소득별 귀가 후 시간 보내는 방법	421
〈표 VIII-1-2〉	초등학생 기관 이용 수	423

〈표 VIII-1-3〉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424
〈표 VIII-1-4〉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부모대리 비중	426
〈표 VIII-1-5〉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에서 아동능력 개발 비중	426
〈표 VIII-1-6〉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의 만족도(5점 척도)	427
〈표 VIII-1-7〉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의 불만족 이유	429
〈표 VIII-1-8〉	방과후 가정 내 돌봄자	430
〈표 VIII-1-9〉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1순위	432
〈표 VIII-1-10〉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2순위	433
〈표 VIII-1-11〉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선호비율(종합)	434
〈표 VIII-1-12〉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435
〈표 VIII-1-13〉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2순위)	436
〈표 VIII-1-14〉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순위 종합	438
〈표 VIII-2-1〉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여부	439
〈표 VIII-2-2〉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당 횟수	440
〈표 VIII-2-3〉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당 총 시간	441
〈표 VIII-2-4〉	특기적성 프로그램 내용(종합)	442
〈표 VIII-2-5〉	특기적성 프로그램 월비용	443
〈표 VIII-2-6〉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5점 척도)	444
〈표 VIII-2-7〉	특기적성 프로그램 평균 만족도(5점 척도)	445
〈표 VIII-2-8〉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446
〈표 VIII-2-9〉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1순위	447
〈표 VIII-2-10〉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2순위	448
〈표 VIII-2-11〉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종합	449
〈표 VIII-2-12〉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451
〈표 VIII-2-13〉	모 취업여부별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451
〈표 VIII-2-14〉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1일 이용시간	452
〈표 VIII-2-15〉	방과후 보육에서 부모대리 비중	453
〈표 VIII-2-16〉	방과후 보육에서 아동능력 개발 비중	454
〈표 VIII-2-17〉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월비용	455
〈표 VIII-2-18〉	방과후 보육 전체 만족도(5점 척도)	456
〈표 VIII-2-19〉	방과후 보육 만족도 평균(5점 척도)	456

〈표 VIII-2-20〉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458
〈표 VIII-2-21〉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용할 의향	459
〈표 VIII-2-22〉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용 희망 시기	460
〈표 VIII-3-1〉	학년별 보육시설·공부방 이용 취학아동 분포	461
〈표 VIII-3-2〉	보육시설·공부방 이용 취학아동 특성	462
〈표 VIII-3-3〉	보육시설·공부방 방과후 이용시간	462
〈표 VIII-3-4〉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 비용	463
〈표 VIII-3-5〉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 만족도 비교	464
〈표 VIII-3-6〉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의 불만족 이유	464
〈표 IX-1-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467
〈표 IX-1-2〉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보육시설 일반적 설치	467
〈표 IX-1-3〉	최연소 자녀 보육시설 일반적 설치	468
〈표 IX-1-4〉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유치원 일반적 설치	469
〈표 IX-1-5〉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유치원 일반적 설치	469
〈표 IX-1-6〉	최연소 자녀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 이용 아동 연령 및 모의 취업	470
〈표 IX-1-7〉	최연소 자녀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 비용	471
〈표 IX-1-8〉	최연소 자녀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 교사	471
〈표 IX-1-9〉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가 많다는 비율 ·	471
〈표 IX-1-10〉	영유아 가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가 많다는 비율	472
〈표 IX-2-1〉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473
〈표 IX-2-2〉	영유아 가구의 교육비 감면 인지 및 수혜 여부	474
〈표 IX-2-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의 보육료 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여부	476
〈표 IX-2-4〉	보육료 및 교육비 정부지원 수혜자의 가정경제 영향 여부	477
〈표 IX-2-5〉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가정경제 영향 여부	478
〈표 IX-2-6〉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가정경제 영향 여부	478
〈표 IX-2-7〉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가정경제 영향에 대한 인식	479
〈표 IX-2-8〉	두자녀 이상 이용 시 보육료·교육비 감면 가정경제 영향 여부 ···	479
〈표 IX-2-9〉	장애아 무상보육 가정경제 영향 여부	480

〈표 IX-2-10〉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연령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 의견	481
〈표 IX-2-11〉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용의 적정 정부 부담 비율 의견	481
〈표 IX-2-12〉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 연령 구분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적정 비율 의견	482
〈표 IX-2-13〉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적정 비율 의견	483
〈표 IX-3-1〉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건강검진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484
〈표 IX-3-2〉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 표준보육과정 인지 여부	485
〈표 IX-3-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인지 여부	487
〈표 IX-3-4〉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아동 연령구분별 양육수당 지급 인지 여부	488
〈표 IX-3-5〉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양육수당 지급 인지 여부	488
〈표 IX-3-6〉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아동 연령구분별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 여부	489
〈표 IX-3-7〉	초등학생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490
〈표 IX-3-8〉	영유아 가구가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491
〈표 IX-3-9〉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492
〈표 IX-3-10〉	영유아 가구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493
〈표 IX-3-1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494
〈표 IX-3-12〉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의향	494
〈표 IX-3-13〉	제특성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의향	495
〈표 IX-3-14〉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의향	495
〈표 IX-3-15〉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보육시설 여름 방학 운영에 대한 의견 ..	496
〈표 X-1-1〉	보육시설 새로 다닐 시점 분포	500
〈표 X-1-2〉	지역별 동일연령 및 1년 이내 추가 이용 비율	500
〈표 X-1-3〉	지역별 아동구분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501
〈표 X-1-4〉	연령별 아동구분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504

〈표 X-1-5〉	지역별 아동구분별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504
〈표 X-1-6〉	지역별 아동구분별 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505
〈표 X-2-1〉	유치원 추가 이용희망 연령(1월 1일 기준)	506
〈표 X-2-2〉	지역별 동일연령 및 1년 이내 추가 이용 비율	506
〈표 X-2-3〉	지역별 아동구분별 영유아 유치원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507
〈표 X-2-4〉	연령별 유치원 추가수요 규모	509
〈표 X-2-5〉	지역 및 연령별 유치원 추가수요 규모	509

그 립 목 차

[그림 I-2-1]	조사 절차	22
[그림 I-2-2]	조사 추진 일정	23
[그림 II-1-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7
[그림 II-1-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48
[그림 IV-2-1]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24
[그림 IV-2-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124
[그림 IV-2-3]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25
[그림 IV-2-4]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26
[그림 IV-2-5]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126
[그림 IV-2-6]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27
[그림 IV-2-7]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28
[그림 IV-2-8]	1세 아동의 일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	128
[그림 IV-2-9]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29
[그림 IV-2-10]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30
[그림 IV-2-11]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130
[그림 IV-2-12]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31
[그림 IV-2-13]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32
[그림 IV-2-14]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133
[그림 IV-2-15]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33
[그림 IV-2-16]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34
[그림 IV-2-17]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135
[그림 IV-2-18]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35
[그림 IV-2-19]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136
[그림 IV-2-20]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137
[그림 IV-2-21]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137
[그림 IV-2-22]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	139
[그림 IV-2-23]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	139
[그림 IV-2-24]	취업모 자녀의 일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	140

[그림 IV-2-25]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	141
[그림 IV-2-26]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	141
[그림 IV-2-27]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	142
[그림 IV-3-1]	비용지불 영유아의 가구소득별 보육·교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150
[그림 V-1-1]	기관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171
[그림 V-3-1]	취약보육 종류별 필요성, 현재이용, 이용할 의사 비교	230
[그림 V-4-1]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254
[그림 V-4-2]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순비용과 추가비용 비교: 2004, 2009	260
[그림 V-5-1]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비교(2004, 2009)	283
[그림 VI-1-1]	이용형태별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329
[그림 VI-3-1]	영유아 비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373
[그림 VII-1-1]	아동 연령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	377
[그림 VIII-1-1]	가구소득수준별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422
[그림 VIII-1-2]	방과후 프로그램 필요 이유	425
[그림 VIII-1-3]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순위 종합	437
[그림 VIII-2-1]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종합(중복)	450
[그림 X-1-1]	보육시설 추가이용 희망률 비교	501
[그림 X-1-2]	2009년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정수요율	503
[그림 X-1-3]	2004년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정수요율	503
[그림 X-2-1]	유치원설 추가이용 희망률 비교	507
[그림 X-2-2]	2009년 유치원 이용률과 수요율	508
[그림 X-2-3]	2004년 유치원 이용률과 수요율	508

부 록 표 목 차

〈부표 I-1〉 조사지역	525
〈부표 II-1〉 2009년 시·군·구별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과 이용률 ...	532

요 약

1.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추진되는 조사로, 보육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역, 아동연령, 소득수준, 모의 취업 등 가정 및 아동특성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수요자의 선호도 등 요구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를 산출함.
 - 보육·교육 비용 수준과 이에 대한 부모 부담 정도 파악, 지역별, 연령별 보육·교육 수요율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지원 기준 및 사업량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만족도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전국 단위의 각종 보육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공식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비교 자료로도 활용함.

2. 조사방법

- 조사는 판별조사,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의 순으로 실시됨.
 - 판별조사로 조사대상여부를 파악하고, 초등학교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가구 조사와 아동조사를 실시함. 아동조사는 아동개별 조사임.
- 조사표 구성
 - 판별조사표: 가구원 연령 및 조사대상 아동 여부

- 가구조사표: 가구원 특성, 가구의 제 특성, 보육·교육 및 정책 관련 의견 등
- 아동조사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보습학원 이용, 현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현재 개별/그룹지도 또는 학습지 활용 교육, 초·중학생 방과후 보육·교육 이용 및 요구 등

□ 조사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지도원 29명, 조사원 87명으로 전체 116명
 - 조사지도원은 조사지역 행정지원과 주민 협조 지원 등 대외업무와 조사된 조사표 검토 및 관리를 담당하고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지시에 따라 조사 실시
- 조사 기간: 2009. 3. 10 ~ 5. 2
 - 2009. 3. 10 ~ 4. 9 기간 동안 18개 팀을 운영하여 162개 조사구 조사
 - 2009. 4. 3 ~ 5. 2 기간 동안 11개 팀을 운영하여 95개 조사구 조사
- 표본규모: 전국 257개 조사구, 조사구당 평균 60가구로 총 약 15,000가구
- 표본추출 방법: 조사구를 3개 층으로 층화하여 추출
- 응답자는 아동의 모 등 아동 주 양육자

3. 조사 결과 및 처리

□ 조사완료율

- 가구조사 대상 15,583개 가구 중 14,732개 가구를 조사하여 조사 완료율 94.5%
- 총 4,901가구에서 7,455명 아동 조사
 - 영유아가 있는 2,554가구에서 3,303명 영유아 조사
 - 초·중학생 아동이 있는 2,347가구에서 4,152명의 초·중학생을 조사함

□ 자료처리

- 가중치는 2005년 인구총조사 조사구대비 조사구 추출 확률, 조사구 당 가구수, 아동수 대비 조사 완료수로 가구 및 아동 자료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
- 자료 오류 수정 후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

II. 보육 현황

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

- 2008년 12월 현재 33,499개소의 보육시설에 113만 5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영유아 해당 아동의 40.1%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전체 아동의 61.8%임.
 -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제한적이며,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이 시설수와 이용 아동수 모두 높음.
-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51.4%이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40.8%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나 공급률과 이용률 모두 울산시가 가장 낮고 제주도가 가장 높음.

□ 보육아동 특성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만2세가 가장 높고 다음이 3세임.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시설 이용률이 높음.
-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가 58.0%, 둘째아 33.0%, 셋째아 이상이 9.1%임.
- 보육 아동 중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총 23,058명으로 보육아동의 3.6%임.

2. 보육시설 환경

□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의 건물 소유형태는 52.2%가 자가, 17.8% 전세, 24.2%가 월세임.
- 보육인력은 2008년 12월 현재 보육교사 139,060명, 시설장 포함 172,559명, 간호(조무)사 745명, 영양사 613명, 취사부 및 조리사 10,815명임.
-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중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보육시설은 28.9%인 8,339개소이며, 보육시설장의 학력은 전문대졸이 과반수 이상임.

-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1급이 과반수를 조금 넘으며, 학력은 고졸 13.5%, 전문대졸 67.6%, 대학졸 17.6%, 대학원졸 1.3%로 전문대졸이 2/3를 차지함. 보육교사의 80.5%가 임용기간이 2년 4개월 이하임.
-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은 2009년 8월 현재 14,031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41.9%임.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80%를 넘고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은 30% 수준임.

3. 보육비용 지원

□ 보육비용 지원

-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건비 지원과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방과후보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별 지원이 있음.
-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게 기본보육료를 지원함. 2009년 현재 지원금은 0세 35만원, 만1세 16만9천원, 만2세 11만2천원임.
- 보육료 지원은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등임.
 - 차등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은 2008년 말 기준 59만 2천여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61.7%임.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은 2009년 7월부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함.

□ 보육재정

-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보육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5년 1조 3229억원, 2007년 2조 2866억원, 2009년 3조 5738억원임.
-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 특수사업 소요 예산 역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시·도 사업비 3780억원, 시·군·구 사업비 1327억원임. 각각 국고사업비의 10.6%, 3.7%로 모두 14.3%임.
- 2009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5조 4000억 규모로 GDP 대비 0.53%임.

Ⅲ. 조사 주요결과

1. 아동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의 취업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99명이며, 가구형태는 한 부모 가구가 4.9%이고 확대가족 13.5%이며,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0.5%임. 읍·면이 3세대 이상 가구가 19.3%,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1.8%로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297만 2천원으로, 분포는 150만원 미만인 14.2%, 600만원 이상이 7.2%임.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314만원임.
 - 지역별 영유아가구 소득은 대도시 321만원, 중소도시 286만원, 읍·면 260만원으로 읍·면 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월 평균 소득이 낮음.
 - 취업모 가구가 380만 5천원, 미취업모 가구 253만 7천원임.
 -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40만원으로 99만원 이하가 4.1%, 100~149만원이 12.5%임.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까지 전체를 보면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52만 5천원임.
 - 지역별 영유아 가구 지출은 대도시 253만 7천원, 중소도시 234만 4천원, 읍·면 217만 4천원으로 조사되어,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평균 지출이 낮음.
 - 취업모 가구가 286만 8천원, 미취업모 가구 216만 3천원임.
 - 아동 모의 취업률은 대체로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데, 최연소자녀가 취학전보다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 모의 취업률이 낮음.
 - 최연소아동이 0세아인 어머니는 24.7%이며, 영아와 유아가 각각 29.9%, 44.9%로 영유아인 모의 취업률은 35.8%임.

- 최연소 아동이 초등학생인 모의 취업률은 51.8%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48.6%, 고학년은 55.0%로 차이를 보임.
- 취업한 아동모의 근로시간은 평균 8시간이며, 영유아 취업모의 월소득은 146만 5천원으로 집계됨.
- 영유아 가구 중 3.5%의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임. 지역별 결혼이민자 가구 비율은 읍·면 6.9%, 중소도시 3.2%, 대도시 2.4%임. 초등학생은 지역별로 각각 4.6%, 1.6%, 1.4%가 결혼이민자 가구임.
-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8.7%, 둘째아 40.5% 셋째아 9.8% 순임.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총괄

-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는 영유아의 연령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및 선호도, 소득계층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차이, 방과후 돌봄 지원 요구,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비용 부담,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다자녀 가구 부담을 과제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가구소득수준별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
 - 영아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율이 각각 40.3%, 11.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거조부모는 소득수준이 500만원이 넘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소득수준 600만원 이상은 29.2%로 150만원 미만 5.6% 및 3.8%와 비교됨.
 -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아기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 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실제 이용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실제 0세 영아는 보육시설보다는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한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이 더 높음.
 - 취학아동을 방과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모가 53.4%로 가장 높지만, 형제자매가 11.6%이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8.6%임.
 - 영유아가 있는 가구당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33만5천원으로

로 가구소득 대비 14.1%임. 아동가구 전체로는 평균 33만2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로, 이는 2004년 평균 26만7천원, 소득대비 비율 10.8%와 비교됨.

-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적지만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큼을 나타냄.
 - 가구당 아동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큼을 나타내어 자녀수를 고려한 비용 지원 방식이 적절함을 시사함.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동수 1명이 10.1%, 2명이 15.6%, 3명이상 18.3%로, 1명에 비해 2명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증가함.
-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영유아의 평균은 189,600원이고, 비용지불 영유아 평균은 270,300원임.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각각 6.4%, 9.2%임
- 영아는 53.1%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10만원 이하가 17.6%를 차지하지만 5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비율도 6.5%임.
 - 유아는 5~20만원 사이에 1/3 정도가 분포하고 50만원 이상은 11.5%임.
 - 초등저학년은 10~35만원 사이에 거의 60% 정도가 분포하며, 고학년은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취업에 지장이 있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영유아를 둔 경우 과도한 직장일이 30.9%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임.
 -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57.8%,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30.3%이고, 유아는 각각 52.1%, 23.4%임.
 -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6%로 2004년 조사의 취업중단 비율 38.4%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음. 그러나 중단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46.9%로 가장 높았음.

3. 미취학아동 서비스 이용 및 요구

-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보육·교육기관의 이용과 육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미취학 아동 중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아동의 기관 이용 시기 역시 빨라졌음.
 -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경험은 영아 33.7%, 유아 97.8%로 2004년 조사는 영아 15.7%, 유아 88.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 최초 이용시기는 평균 30.0개월로, 2004년 실태조사 결과 41.4 개월과 비교할 때, 1년 가까이 단축되었음.
 - 아동의 기관이용 이유와 처음 이용하는 시기와 기관의 유형 및 기관 이용 이유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바,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음.
 - 대체로 만 1세 미만까지의 이용 1순위 기관은 보육시설이지만, 6개월 미만부터 문화센터 등의 기타 사설기관도 소수 이용하고 만 2세 이상부터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기타 특기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만 3세 이상부터 유치원 이용도 증가하고 만 5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이 이용 1순위 기관이 됨.
 - 일반적으로 취업모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음.
 - 주된 이용이유로 취업모는 보육시설 이용이 부모대리 보호가 51.9%인 반면 미취업모는 71.8%가 아동 발달임.
 -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 및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고 조사되었으나, 보육시설 선택 시에는 집과의 거리를 우선하는 반면,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을 선택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우선함.
 - 기관장이 강조하는 내용은 인성지도가 주류이나 여기에 덧붙여 보육시설장은 안전한 보호에, 유치원장은 균형있는 발달 또한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사됨.
 - 보육시설 이용 시간은 9시간 이상 이용 비율이 취업모 자녀 39.7%인 반면 미취업모 자녀는 7.2%이며,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도 취업모 아동이 평균 8시간 38분으로 미취업모 자녀보다 1시간 41분이 길.

-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2004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음.
 - 2004년에 비하여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문 등의 정보와 자녀 발달 평가에 대해서 통지해주거나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제공 주기는 다소 짧아졌음.
-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 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2004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3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2004년 5.9%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으며,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음.
 -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유아 부모와 읍·면 지역, 취업모 및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음.
- 부모 부담 비용의 두드러진 변화는 반일제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임. 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보육료·교육비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제도권 이외 기관 이용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영어 등 특별프로그램 중심의 반일제 학원 및 기타 기관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임.
 - 기관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3만 2천원, 추가비용 6만 5천원으로 총 19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7%임. 2004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은 월 평균 3만원 정도가 늘어났음.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율은 2004년 8.3%에서 2009년에는 다소 낮아졌음.
 -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1만 4천원, 추가비용 5만 4천원으로 총 16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4%임.
 - 전액지원 아동의 37.4%, 감면아동 66.4%, 비용 미지원 아동의 79.9%가 부모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낌.
 - 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는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2.4%가량 감소하였음.

- 보육·교육기관 만족도는 2004년 조사에 비해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장, 교사, 실내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와 급간식, 안전 관리 등 제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였음.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임.
 -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보육시설 3.68점, 유치원 3.72점, 미술학원 3.60점임. 보육시설 이용자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음. 유치원은 비용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였음.
 - 보육시설 운영 주체별 만족도 점수 평균은 부모협동보육시설 4.40점, 직장보육시설 3.98점, 기타법인보육시설 3.93점, 가정보육시설 3.81점, 국공립보육시설 3.73점, 사회복지법인시설 3.71점, 민간보육시설 3.61점 순임.
- 부모의 개선 요구 사항은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보육시설은 비용 21.5%, 주변환경 17.0%, 시설 설비 14.4%임.
 -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은 개선 사항으로 주변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였으나 민간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비용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 국공립 유치원은 시설설비와 주변환경을 지적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큼.
- 보육시설 이용시 국공립시설 선호비율은 38.9%로 2004년 56% 수준보다 감소하였음. 아동이 어릴수록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2004년 조사에서와 같음.
 -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는 비용 요인이 가장 크고 대도시, 미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 및 가정시설은 중소도시와 취업모에게서 높음.
- 취약보육의 필요도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나 휴일보육을 제외하고는 2004년도에 비하여 소폭 감소되었음.
 - 필요하다는 비율은 시간제 보육 52.8%, 야간보육 34.9%, 휴일보육 23.4%, 24시간 보육 11.4%임.

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개인양육서비스는 주된, 또는 보조적인 양육지원 기능을 함.
 - 영아는 17.1%가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며, 유아는 0.8%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임. 2004년과 비교하여 단독이용비율이 감소하고 기관 병행 이용이 증가하였음.
-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유로는 영아는 어려서 기관 적용에 힘들까 봐가 72.8%로 가장 높으나 유아는 어려서가 26.7%이고 이외 비용부담이 20.0%로 비교적 높음. 그러나 유아의 비용부담 이유는 2004년 62.3%에 비하여 크게 감소함.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가 비용부담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부모 등 혈연에게 맡긴다는 것임.
 -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기타를 제외하고는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임.
-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 25.5%, 부정기적으로 지불 4.5%, 현물 지급 2.0%이고, 68.0%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 혈연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비용은 평균 284,800원으로 2004년 247,400원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음.
 - 비혈연인에 의한 보육 비용은 영아 55만 5천원, 유아 33만7천원으로 2004년 영아 55만 5천원, 유아 27만원에 비하여 유아가 다소 증가하였음.
- 혈연인에 의한 보육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들이 정책과제가 됨을 나타냄.
 -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척도로 각각 3.8, 4.0점으로 비용이나 시간 만족도 4.4점, 4.3점보다 낮음.
 - 비혈연인 보육 만족도는 5점 척도로도 성실성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이용시간이 4.0점이며,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이 각각 3.9점, 3.7점이고, 비용과 전문성은 각각 3.5점, 3.4점임.

- 비혈연인을 알게 된 경위가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43.0%로 가장 많고, 평소 알던 사람 30.1%, 지역신문·인터넷 광고가 12.9%이고 인력전문기관 소개도 11.8%임. 2004년에 비하여 주변의 소개가 감소하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였음.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의 수월성을 위하여 이용자와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연계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5.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 아동의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의 이용률은 증가함.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이용률과 이용시간,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더 길고 이용비용도 더 높은 양상을 보임.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시간제 기관 및 개별교육 비율은 미취학 아동 32.8%, 취학아동 85.6%로,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시간제 기관이나 개별교육을 이용함. 미취학 아동은 개인지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취학아동은 시간제 기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 시간제 기관 이용아동 비율은 미취학 아동 12.8%, 취학아동 75.8%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영아들은 대부분 시간제 기관만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유아들은 대다수가 시간제 기관과 반일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음.
 - 프로그램별로는 영아기에는 영유아 전문 프로그램, 유아기와 초등저학년 때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종합보습 등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함.
 - 시간제 교육의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길었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이용시간이 더 길었음.
 - 이용 중인 시간제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3.5~3.7점(5점 만점) 정도인데,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고, 강사와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개별교육은 영아의 91.7%가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으나, 유아와 초등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음. 개별교육 종류의 대다수는 학습지이고, 그 외에 비율은 5~6%에 불과함.

-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음. 개별교육은 미취학 아동의 90% 이상과 초등학생의 80% 가량이 다른 반일제 기관이나 시간제 기관과 병행하여 이용하며, 이용시간은 초등학교학년, 초등저학년, 영유아 순으로 길었으며, 취업모의 자녀들이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주당 14분 더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교육 및 시간제 비용은 연령별 편차가 큼.

- 시간제 기관의 이용비용은 영아가 평균 5만6천원, 유아는 10만원, 초등저학년은 19만원, 초등고학년은 23만원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많았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평균 9만9천원 정도인데, 영아와 유아는 각각 5만6천원, 6만6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의 평균 비용은 10만원 이상이었음. 도시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으며, 가구소득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음.

6.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초등생 부모의 56.4%는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나 12.8%의 아동만이 이용하고 있음.
 - 반면,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에 대해서는 39.7%만 선호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68.5%가 이를 이용하고 있음.
- － 초등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99.0%가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은 40.4%이며, 주당 평균 시간은 3.18시간이고, 월 평균 비용은 3만 2천원임. 이는 2004년도 조사에 비해 이용시간은 0.28시간 늘어났으나 비용은 3천원이 높아졌음.

- 저소득 가정은 비용부담으로, 중산층 가정은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
- 2004년 조사에서 3.9%에 그치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실시 비율이 51.9%로 높아졌지만 해당 아동의 이용률은 8.9%에서 4.4%로 감소하였음. 방과후보육 미참여 이유로 비용부담이 비교적 많고, 아이가 거부한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주로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과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 귀가 후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방과후 다니는 기관 없이 집에 있는 아동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비율이 높음.
 -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용할 의향 역시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보충활동과 숙제지도에 대한 요구 정도 또한 높음.
 -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낙인감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는 운영 방법 모색이 필요함.

7. 보육정책 관련 인지 및 의견

□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및 보호자의 의견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일반 보육시설, 또는 질 높은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4년 대비 감소하여서 정책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아직 영유아 가구의 36.7%는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20.8%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함.
 - 유치원은 44.4%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며 21.5%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함.
- 부모들은 다수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용 아동 연령, 모의 취업특성, 비용, 프로그램, 교사 면에서 다수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음.
 -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약간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차이가 있다는 응답과 많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 없다는 응답보다는 많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음. 없다는 응답 비율은 항목별로 아동연령 차이 19.6%, 이용 아동 모의 취업 특성 차이 31.5%, 이용 비용 차이 15.6%, 교사 차이 27.7%임.

-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소득계층별 보육료·교육비 감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초·중·고등학생 이하 가구의 11.7% 정도이지만,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33~38% 수준이고, 장애아 무상보육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5%임.
- 비용지원 수혜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혜자인 경우 영아 기본보조금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국민들의 양육비용 지원 요구 및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음. 영유아의 경우 정부가 90% 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 내외에서 30% 수준으로 10%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고, 반면에 40~60%는 2004년 조사에서는 과반수이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30% 수준으로 낮아졌음.
 - 그러나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가계지출 대비 적정 비율은 64.4%가 10% 이하이고 20%이하가 응답가구의 87.4%임. 2004년과 비교해 보면 5% 미만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유사한 수준임. 이는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의 지출은 아동 보육·교육 몫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함.
-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으로 가장 바라는 바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확대 41.4%로 가장 많고, 양육비 현금 지원이 18.3%이며, 국공립시설 확충은 12.4%임. 2004년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국공립시설 확충은 영유아 가구 17.8%에서 12.4%로 감소하였음.
-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응답은 5% 수준에 불과함. 초·중·고등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의 60.6%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를 선호한 비율은 5.5%이었음.
 - 2004년도 조사결과 대비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50% 수준에서 60% 수준을 증가하고 자율화 찬성 비율은 15%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음.
 - 보육시설 이용자의 64.9%가 표준보육과정은 전혀 모르며, 평가인증은 보육

시설 이용부모의 24.6%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유아가구는 건강검진제도에 대하여 43.1%만이 잘 알며, 79.1%가 양육수당제도를 잘 모르며, 아이돌보미는 60.4%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
-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42.0%는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의사가 있으며, 38.5%는 보육시설 방학에 반대함.

8. 수요추정

□ 보육시설 수요추정은 다음과 같음.

- 보육시설 추가 이용 비율은 영아는 비교적 높고 유아는 매우 낮음.
- 동일 연령에서 보육시설을 새로이 이용할 확률은 0세아 3.4%, 1세아 5.6%, 2세아 3.6%이며, 유아의 경우도 만3세아 1.2%, 만4세아 0.6%, 만5세아 0%임.
 - 이 비율은 2004년 조사 결과인 0세아 3.1%, 1세아 5.7%, 2세아 19.8%와 비교하여 0, 1세는 유사하지만 2세는 크게 낮아졌고, 만3세아 14.5%, 만 4세아 5.4%, 만 5세아 0.4%에 비하여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으며, 4세아도 많이 낮아졌음.
- 1년 이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0세아 7.7%, 1세아 9.0%, 2세아 6.3%이며, 유아는 3세아 1.8%, 4세아 0.8%로 미미한 수준임. 이 역시 2004년 결과와 비교하면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음.
- 1년 이내 추가수요와 현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율을 추정하면 전체 44.1%임.
 - 영아와 유아가 44.1%. 44.3%로 동일한 수준이며, 지역적으로 대도시 40.9%, 중소도시 45.4%, 읍·면 50.0%임.
- 미충족 수요 아동수를 2009년 기준으로 영아는 106,476명, 유아는 11,201명으로 모두 116,885명으로 추정됨.

□ 유아교육 수요추정은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 이용희망률은 동일연령 0.9%, 1년이내 1.8%로 매우 낮음. 2004년은 1년내 이용희망률 18.9%, 동일연령이용희망률 14.4%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임.

- 1년이내 추가수요와 현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율을 추정하면 전체 40.2%임.
- 2008년 12월 주민등록 각 세별 추계인구를 적용하여 유아교육 추가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하면 2009년 현재 25,000명 정도가 수요 요구 미충족으로 추정됨.

IV. 정책제언

□ 각 장에서 설명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중단하며,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 등의 애로가 있음.
- 바람직한 양육서비스는 아동발달 각 단계별로 영아기에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취학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학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실제 이용도 이에 근접하여 연령별 차별적 접근이 요구됨.
-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일하는 여성의 보육 및 지원 욕구 충족이 필요하고 취약보육은 필요성 발생 빈도가 간헐적이어서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원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은 유사하고, 아직도 비용 부담 때문에 기관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으며,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져서 재정지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됨.
- 기관 이용 만족도는 다소 상승하였는데, 비용 이외에 시설설비와 주변환경 개선 요구가 높으며, 기관 선호도를 고려하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위하여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구됨.
- 특별활동은 2004년에 비하여 이용 아동수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와 소요 비용도 증가하여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 유아의 보육수요는 대부분 충족되었고 앞으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어 준비가 필요하고, 보육 공급 부족 지역에 국공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국공립시설의 시설설비나 환경개선 노력도 필요함.

- 초등학생 부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충족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강화되어야 함.
- 일반 아동부모들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조사의 배경

2008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3,499여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13만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을 중심으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수를 계속 확대한 결과, 2009년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재정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 4천억원 규모의 보육예산이 2009년 현재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년간 급격한 보육사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육대상아동을 둔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점검 및 정책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수요자의 보육·교육 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됨에 따라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육아시설의 확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등 질 높은 인력의 공급,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지속적인 보육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더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므로 예산의 규모도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지원은 규모나 대상이 확대될 뿐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도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 수준에서 저소득층 0, 1세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보육비용 지원방식 전달체계로는 전자카드형태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추진되었다. 즉, 그동안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보육시설 운영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자 관점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모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수당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보육비용 지원 방식의 하나로 기존의 시설별 지원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2009년 3월부터

민간개인과 가정 등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로 인건비 형태로 보조하는 유사 공공시설인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가 이러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방식에 적극 관심을 갖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정책은 다양성이 증가될 전망이므로,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증가되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충분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다.

보육·교육 수요 및 부모의 요구도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은 보육·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리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된다. 수요자의 보육·교육 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됨에 따라 이러한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육아시설의 확충,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등 인력의 공급,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지속적인 보육·교육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수요자 지향적이고 지역, 시설, 계층간 형평성 있는 보육·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 대상 아동을 둔 가정의 자녀육아실태, 지역, 아동연령, 아동특성 등에 따른 보육·교육 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기초자료 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전국 차원의 보육·교육 실태조사가 당위성을 갖는다.

이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다. 2004년 1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부 및 지방정부는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 5년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하고 있다.

보육실태조사는 이미 2회 실시된 바 있다. 200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전국 표본 200개 조사구 약 12,000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연령별, 지역별 보육 수요율을 산출하여, 중기 영유아 보육 수요율을 34.1%로 산정하는 등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첫 번째 전국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¹⁾ 중기 보육수요율을 39.4%로 추정하는 등 기초자료를 생산하

1) 2년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보육업무가 2004년 6월 12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부가 새로운 정책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국정과제 대통령 보고회에서 발표('04. 6. 11)한 「육아지원정책방안」을 구체화

여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부각된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2009년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매 5년마다 실시하기로 명시된 이후 두 번째 실태조사로서, 기본적 보육 관련 국가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육·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정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보육대상 아동을 둔 가정의 자녀육아실태, 지역, 아동연령, 아동특성 등에 따른 보육수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요자 지향적이고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증가되는 보육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질 높은 보육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조사 목적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수요자의 다양한 보육·교육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이용,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책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자료는 정부가 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지향의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아동연령, 소득수준, 모의 취업 등 가정 및 아동특성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및 수요자 지향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산출한다.

둘째,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 정도, 지역별, 연령별 보육·교육 수요율 등 확대되는 보육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지원 기준과 사업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셋째, 육아관련 각종 제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만족도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또한 보육과 보육 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한다. 이는 유치원과 학원 등 관련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및 제도

하여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이 보고 자료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음. 이에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4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별도로 실시되었고, 표준 보육·교육 단가 산출 연구가 추진되었음.

운용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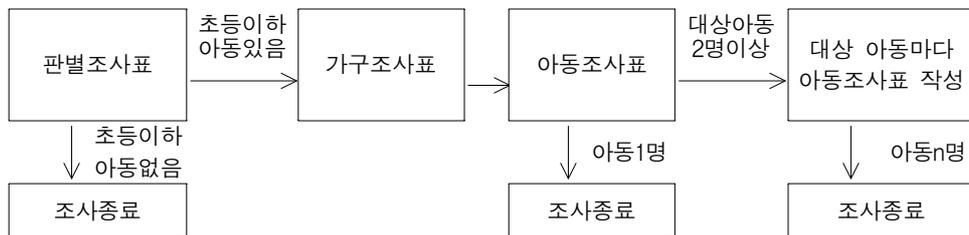
넷째, 전국 단위의 각종 보육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공식통계 자료를 확보한다. 향후 보육·교육정책 수립 및 각종 육아관련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이는 각종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국제비교 자료로도 활용한다.

2.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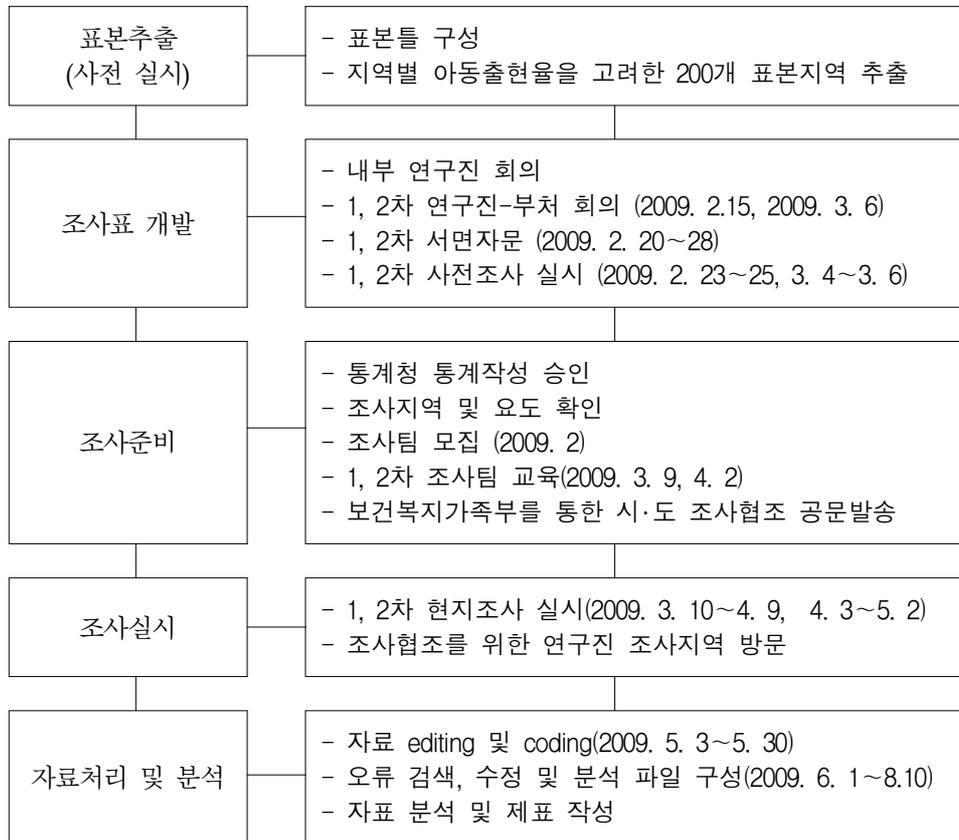
가. 조사 절차 및 구성

조사는 판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된다. 판별조사의 주 목적은 조사 지역에 위치한 가구 내에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매우 간단하게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와 만 연령을 기록하여 가구원 중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없으면 조사를 종료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으면 본 조사를 하며, 본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구분된다.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아동조사를 실시한다. 아동조사는 아동별로 실시하므로 가구내 해당 아동수만큼 반복하여 실시한다. 가구조사나 아동조사의 응답자가 동일하고, 특히 조사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반복되는 조사로 조사시간이 길고 응답자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조사는 각 조사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유의하도록 하였다.



[그림 1-2-1] 조사 절차



[그림 1-2-2] 조사 추진 일정

나. 조사 내용

1) 판별조사

전국 15,000개 전체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유아, 초등학생 등 연령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아동유무 등 간단한 사항을 조사하였다.²⁾

이 판별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이다. 표본추출상

2) 이 조사 자료를 명부로만 정리하고 각 조사표는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음.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아동이 있으나 조사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 가구 확인이 필요하다.

2) 가구조사

조사표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이를 모두 포함하되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의 수가 없도록 하였다. 조사표는 연구진, 자문위원 및 관련 부처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한 수정·보완 이외에도 지도원이 하루 동안 현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오류를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1〉 가구조사 내용

구분	비고
I. 가구원 특성	- 이름, 대상 아동과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월평균수입, 자산상태 저축, 건강상태,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여부 등
II. 가구의 주택, 경제 등 제 특성	- 가구규모, 세대구성, 가구유형, 보육대상 아동 수 - 집의 형태, 집의 소유형태 - 가구의 주 수입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 취업 경력 및 특성, 취업시간, 소득 - 육아 지원 가능 친인척 인근 거주 여부, 애로사항 등
III. 아동 부모 특성	- 아이와 부모의 동거형태 및 이민자여부 추가 - 취업중단 및 양육 어려운 이유
IV. 보육·교육에 관한 의견	- 대상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신규 정책 인지도 -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관련 정보 제공처 질문 -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부부간 양육 역할분담 - 아이돌보미 인지 및 이용 경험
V. 다문화 가정	- 이민자 부모 특성 - 자녀 양육 어려움, 정책 요구
VI.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보육·교육이용	- 보육 및 교육 비용 총액, 가구소득 대비 비중, 자녀양육비 대비 비중

조사는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 보육·교육에 관한 의견, 다문화가정 여부 파악,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보육·교육 이용 실태의 여섯 개의 장

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원의 특성으로는 가구원의 성명, 최연소 아동과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및 졸업여부,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월 수입,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고,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가구원수, 보육대상 아동 수, 집의 유형, 집의 소유, 주 수입원, 월평균 가구 소득, 월 평균 지출액 등을 조사하였고, 보육 정책 인지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부모의 특성, 다문화 가정 여부를 파악하였고, 각 아동별 23종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을 조사하였다.

3) 아동조사

아동 조사표는 보육·교육 이용 경험, 미취학 아동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현재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육구, 특기교육학원 및 보습학원 이용,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활용 교육 이용, 아동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방과후 보육의 여덟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과거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방과후보육 등 보육·교육 기관별 이용 경험을 조사하고, 이어서 현재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종류를 30분 단위로 조사하고, 기관 및 개별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자), 이용 사유, 이용 기간, 이용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부모서비스, 특별활동 관련사항,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미취학 아동이 향후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 이용 의사를 월 단위로 조사하였다. 이외에 특기교육 등 교육 중심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조사하고,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 및 요구를 조사하고, 끝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 및 프로그램 이용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표 1-2-2〉 아동조사 내용

구분	비고
I. 보육 교육 이용 경험	- 낮시간 동안 주로 돌보는 사람 - 출산·양육 위한 경제활동 중단여부, 중단시기 및 이유 - 최초 이용기관, 최초 기관이용 시기, 최초 기관이용 이유 - 보육시설 이용 중단 여부 및 중단 이유, 유치원 이용 중단 여부 및 중단 이유
II. 미취학 아동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 평일 하루 30분 단위 개인 서비스 및 기타 교육이용 실태

(표 I-2-2 계속)

구분	비고
III. 미취학 아동 현재 보육 또는 교육 기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이용기관, 기관과 거주지와의 관계, 소재지 다른 이유 - 기관 이용 이유 - 현재 기관 이용시작 시기, 이용기간, 기관선택시 중요한 점, 중요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 이용일, 이용시간, 초과보육 경험, 시간 만족도, 희망 이용시간, - 입학금, 월 보육료, 기타비용, 가구소득 대비 기관비용 비율거주지와 소재지, 비용 감면여부, 감면 이유, 감면 액수, 기관 비용 부담정도, 좋은 교육기관에 추가비용 의사, 월 추가부담금액 - 교육기관 등원 방법, 교육기관 하원 방법, 기관차량 이용시 교사동승 여부, 보육기관 차량 이용 이유, - 특별활동 종류, 프로그램 수, 이용시간, 총 비용, 시설설비 수준, 강사수준, 교육수준, 만족도 - 부모 및 가정 서비스 및 도움되는 정도
IV 미취학 아동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이용 계획, 선호하는 유형 및 이유 - 취약보육 필요성, 이용경험, 이용의사
V. 전체 아동 특기교육학원 및 보습학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프로그램 수, 이용시간, 총 비용, 시설설비 수준, 강사수준, 교육수준, 만족도
VI. 전체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활용 교육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수, 이용시간, 비용
VII. 전체 아동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이유, 장소, 집과의 거리, 빈도,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 비혈연 연결 경로, 결혼상태 및 자녀 양육 유무, 자격 여부,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 만족도
VIII. 초등학교 이하 자녀의 방과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생 자녀 방과후 이용기관, 이용 이유, 비용, 만족도 및 이유 - 평일 낮 돌보는 사람, 적절한 방과후 보육장소 의견 - 학교 특기적성활동 실시 및 이용 여부, 비용, 만족도 - 학교 방과후 보육 실시 및 이용 여부, 비용, 만족도 등

다. 표본 추출³⁾

1) 모집단 정의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09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고,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90%의 조사구이다.

3) 본 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은 사전에 별도의 용역과제로 수행함. 손창균(2009).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조

2) 표본규모

표본의 규모는 전국 257개 조사구로 조사구당 약 60가구를 조사하며 조사구내 아동가구를 파악하여 조사함으로써 총 5,000 가구를 조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⁴⁾ 이는 아동 보육수요율을 40%로 상정할 경우 허용오차 0.01318을 만족하는 규모로서 다음의 산식으로부터 계산된다.

$$n = \frac{t_{\alpha/2}^2 PQ}{d^2}$$

여기서 d 는 목표허용오차, P 는 모비율, $Q=1-P$ 이다.

3)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전국보육실태조사는 가구단위 조사로서 조사 관리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 및 가구를 1차 및 2차 추출 단위로 고려하였다. 층화기준은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동부, 읍·면부로 구분하여 층화하고, 전국의 만 0~6세 이하의 아동 분포에 따라 표본을 층별로 비례배분하여 추출하였다. 조사구내 가구는 계통추출 방법으로 추출하였다(표 I-2-3 참조).

〈표 I-2-3〉 표본추출단계

표본추출단위	층화 변수	표본추출방식	표본수
조사구	1)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동부와 읍·면부) 2) 조사구유형	확률비례추출	257조사구
가구	- 조사구 내 가구	계통 추출	15,000가구

4) 층별 표본규모의 결정

표본규모는 전국에서 257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조사구 내에서 60가구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가구수가 60가구 이상은 계통추출하도록 하고, 60가구 이

4) 2004년 조사는 200개 조사구에서 12,000가구가 목표이었으나 2009년 조사는 출산수준의 저하로 조사대상 아동 확보를 위하여 표본가구수를 확대하였음.

하는 추가 조사구를 확장하도록 한다.

추출된 표본조사구는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110개, 중소도시 103개, 읍·면 44개이며, 주택특성별로는 주택 등 일반 조사구가 105개, 아파트 조사구가 152개이다. (표 I-2-4 참조).

〈표 I-2-4〉 3개 권역별 비례배분에 의한 층별 표본 배분 현황

단위: 개소

권역	표본조사구(비례배분)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57	105	152
대도시	110	50	60
중소도시	103	35	68
읍·면	44	20	24

5) 표본의 대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확정된 조사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2009년 현재 신도시 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특성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라. 현지방문조사 실시

1) 조사준비 절차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전문조사원이 담당하였다. 인원은 지도원 29명과 조사원 87명으로 전체 116명이었다.

조사는 3월과 4월 2차에 걸쳐서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므로 조사원 교육도 2회 실시하였다. 제1차 교육은 2009년 3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고, 제2차 교육은 2009년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었다. 교육 자료는 조사 목적과 조사표 각 문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조사지침서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이외에 양·음력 환산표, 가구명부, 조사지역 요도 등 현지조사에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⁵⁾

5) 제2차 조사원 교육에서는 제1차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좋은 사례로 활용되었음.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팀을 4명으로 구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은 현지에서 조사한 조사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조사지역에 머무는 동안 가구를 재방문하여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하므로 지도원이 조사 완료된 조사표를 해당지역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원 3명이 가장 적당한 규모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중에서 팀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방에서의 조사기간도 전체 조사기간의 한 달을 넘기 때문에 조사원의 이동, 숙박 등을 고려할 때 조사팀당 4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현지 조사는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차로 2009년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18개 팀이 운영되어 162개 조사구를 조사하였고, 2차로 2009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11개 팀을 운영하여 95개 조사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각 시·도 및 조사구 관할 시·군·구에 조사 협조를 요청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조사에 사용할 조사표를 조사 협조공문과 함께 미리 조사구 관할 동·읍사무소에 우송하여 보관토록 하였다. 조사구에 도착한 지도원과 조사원은 먼저 관할 동·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인수하고 조사구 요도를 복사하여 통·반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가구수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이 끝나면 지도원은 통반장을 방문하여 조사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에게 조사지역을 할당하였다.

조사원은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도원은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사표 문항의 응답결과를 점검하고 누락사항이 발견되거나 조사표상의 논리가 맞지 않을 경우 재방문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가구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도원에 의한 조사지도 이외에 연구진에 의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 주요 지도·감독 내용은 조사지역 확인 및 조사지역 내 가구의 증감상태 파악, 조사 내용 중 보육·교육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이었으며, 이외에 지도원과 조사원의 원만한 관계, 조사팀과 조사지역 행정기관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요청 등이다.

3) 현지조사 결과

주어진 257개 표본조사구에서 실제로 현지 조사한 결과 조사구 내의 총 가구수는 15,583가구이었으며, 이 중에서 가구는 14,732가구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257개 표본조사구 전체적인 가구조사 완료율은 94.5%이다.⁶⁾ 대도시의 동이 95.2%이고 기타 시의 동이 94.4%이며 읍과 면이 각각 90.7%, 96.2%이다. 읍에서 가장 조사 완료율이 낮았다.

그 결과 4,901가구에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초등학생 이하 아동수는 모두 7,455명이다.

〈표 1-2-5〉 지역별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표본 및 완료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조사구	가구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수	
		2005년 센서스 가구수	조사가구수	완료율	가구	아동
대도시의 동	110	6,607	6,288	95.2	2,044	3,021
기타 시의 동	104	6,398	6,042	94.4	2,069	3,172
읍	24	1,417	1,285	90.7	503	814
면	19	1,161	1,117	96.2	285	448
계	257	15,583	14,732	94.5	4,901	7,455

〈표 1-2-6〉은 시·도별 조사가구 완료율, 응답 가구 및 아동수를 나타낸다. 가구조사 완료율은 강원, 전북, 경남이 9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낮았다. 조사된 가구 및 아동수는 4,901가구 7,455명이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2,044가구 3,021명, 중소도시 2,069가구 3,172명, 읍·면 788가구 1,262명을 조사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각각 1,218가구 아동 1,832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조사된 가구의 최연소 아동 연령 및 학년 특성은 〈표 1-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유아 가구가 2,554가구, 초등학생 가구가 2,347가구이다.⁸⁾ 영유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2009년 출생아를 포함하여 최연소 아동연령이 0세아인 가구 625가구, 1세아 가구 530가구, 2세 409가구, 3세아 344가구, 4세아 319가구, 5세아 317가구이다. 초등학생 가구는 학년별로 최연소아가 1학년 365가구, 2학년 399가구,

6) 완료율은 조사가구수(원조사+확대조사)/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로 14,681/15,523 = 94.6%임.

7)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특별시 및 광역시 동부는 대도시, 각 도 동부는 중소도시, 읍부 및 면부는 읍·면으로 표기하였음.

8) 이는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이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지역별로 수치가 달라짐.

3학년 409가구, 4학년 410가구, 5학년 359가구, 6학년 405가구이다(표 1-2-7 참조).

〈표 1-2-6〉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단위: 가구, 명, %

구 분	조사 완료			응답 가구 및 아동							
	조사대상 (A)	조사완료 (B)	조사완료율 (B/A*100)	가구조사				아동조사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15,583	14,732	94.5	4,901	2,044	2,069	788	7,455	3,021	3,172	1,262
서울	2,872	2,681	93.4	852	852	-	-	1,249	1,249	-	-
부산	1,067	1,042	97.7	317	293	-	24	470	434	-	36
대구	778	729	93.7	245	225	-	20	352	328	-	24
인천	842	855	101.5	271	271	-	-	404	404	-	-
대전	410	401	97.8	162	162	-	-	260	260	-	-
광주	484	438	90.5	144	144	-	-	210	210	-	-
울산	353	352	99.7	117	97	-	20	168	136	-	32
경기	3,803	3,627	95.4	1,218	-	1,045	173	1,832	-	1,554	278
강원	554	489	88.3	203	-	136	67	307	-	200	107
충북	480	450	93.8	158	-	124	34	255	-	198	57
충남	606	550	90.8	186	-	85	101	286	-	129	157
전북	695	620	89.2	210	-	159	51	359	-	267	92
전남	488	506	103.7	167	-	121	46	263	-	188	75
경북	797	781	98.0	241	-	147	94	370	-	231	139
경남	1,240	1,096	88.4	374	-	216	158	606	-	341	265
제주	114	115	100.9	36	-	36	-	64	-	64	-

〈표 1-2-7〉 지역별 가구 최연소 아동의 연령 및 학년

단위: 가구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0세	276	261	88	625	1학년	174	139	52	365
1세	208	235	87	530	2학년	161	175	63	399
2세	152	174	83	409	3학년	162	165	82	409
3세	130	154	60	344	4학년	172	180	58	410
4세	128	137	54	319	5학년	154	152	53	359
5세	136	140	41	317	6학년	185	156	64	405
소계	1,044	1,102	418	2,554	소계	1,008	967	372	2,347

주: 연령은 1월 1일 기준이며, 총계에는 연령 미상 포함됨.

〈표 1-2-8〉 지역별 연령 및 학년별 아동수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0세	283	267	89	639	1학년	256	242	89	587
1세	231	254	91	576	2학년	243	288	103	634
2세	200	222	105	527	3학년	283	281	144	708
3세	196	231	89	516	4학년	307	330	125	762
4세	198	226	88	512	5학년	274	311	117	702
5세	204	233	86	523	6학년	338	287	134	759
계	1,318	1,435	550	3,303	계	1,701	1,739	712	4,152

주: 연령은 1월 1일 기준이며, 총계에는 연령 미상 포함됨.

<표 1-2-8>은 지역별 연령별로 실제로 조사된 아동수를 나타낸다. 영유아 연령은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2009년 출생아를 포함하여 영아 1,742명, 유아 1,561명으로 영유아 총 3,303명이고, 초등학생은 4,152명으로 총 7,455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유아는 대도시 1,318명, 중소도시 1,435명, 읍·면이 550명이고, 초등학생은 각각 1,701명, 1,739명, 712명이다.9)

마. 조사자료 처리 및 분석

조사표는 오른쪽에 마련된 부호화 난에 응답결과를 기록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완료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현지에서 지도원에 의해 오류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호화에 대한 확인 작업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부호화가 완료된 조사표는 전산화 작업이 실시되었고, 전산화된 조사자료는 조사전문가에 의해 자료의 정확도를 검사하여 자료를 수정하는 세척 작업(data cleaning)이 실시되었다. 자료세척 과정에서는 문항간 논리적 모순 여부와 최소, 최대값이 범주 안에 있는지 여부를 주로 점검하여, 조사, 부호화와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전산화된 자료의 수정 작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가구 및 아동단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층화하여 표본 조사구 지역적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본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조사구의 추출확률을 기준으로 기본가중치를 부여하고, 2차로 조사구 내에서 가구조사 완료율과 아동조사 완료율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역별 가구수 및

9) 가중치 미부여이고, 가중치를 부여하면 지역별로 수치가 달라짐.

인구수에 따라 조정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었다.

바. 조사결과 추정

1) 가중치 계산

각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 규모에 따라 모집단 층으로부터 추출된 단위들의 추출확률(p_{hij} : sampling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_{hij} = p_{hi} \times p_{hj(i)} = \frac{n_h}{N_h} \times \frac{m_h}{M_{hi}} = \frac{n_h m_h}{N_h} \times \frac{1}{M_{hi}}$$

비례배분 하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가중치(w_{hS} : sampling weight)는 다음과 같다.

$$w_{hS} = \frac{1}{p_{hij}} = \frac{N_h}{n_h m_h} \times M_{hi}$$

2) 특성별 추정

가) 전국 아동 수 총계 추정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전국 아동 수 총계(\hat{Y})는 다음과 같다.

$$\hat{Y}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그리고 전국 아동 수 총계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var(\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여기서 $h = 1, 2, \dots, L$: 층을 나타내는 첨자

$i = 1, 2, \dots, n_h$: h 층 내의 집락을 나타내는 첨자

$j = 1, 2, \dots, m_{hi}$: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

n_h : h 층의 1단계 표본 집락수(표본조사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표본 집락의 표본 가구수

$n = \sum_{h=1}^L n_h$: 표본 집락 총수(표본 조사구 총수)

$m = \sum_{h=1}^L \sum_{i=1}^{n_h} m_{hi}$: 총 표본 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의 가중치

y_{hij} : h 층의 i 번째 집락 내의 j 번째 관찰치

f_h : h 층의 조사구 추출률

또한, 전국 아동 수 총계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Y}) = \frac{\sqrt{\text{var}(\hat{Y})}}{\hat{Y}} \times 100 (\%)$$

나) 각 특성별 아동 수 총계 추정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각 특성별(권역별) 아동 수 총계(\hat{Y}_h)는 다음과 같다.

$$\hat{Y}_h =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그리고 각 층별 아동 수 총계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text{var}(\hat{Y}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또한, 각 층별 아동 수 총계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Y}_h) = \frac{\sqrt{\text{var}(\hat{Y}_h)}}{\hat{Y}_h} \times 100 (\%)$$

다) 아동의 보육수요율 추정

전국 아동의 보육수요율(R)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hat{R}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x_{hij}}$$

여기서 y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보육서비스 수요 아동수
 x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아동수

그리고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의 잭나이프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var_j(\hat{R}) = \frac{1}{k(k-1)} \sum_{\alpha=1}^k (\hat{R}_\alpha - \hat{R})^2$$

여기서 \hat{R}_α 는 α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값으로 추정한 비 추정값
 \hat{R} 은 k 개의 그룹에 대한 비추정량의 평균

또한, 전국 아동 보육수요율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R}) = \frac{\sqrt{var_j(\hat{R})}}{\hat{R}} \times 100 (\%)$$

라) 각 층별 아동보육수요율(R_h)의 추정치

$$\hat{R}_h = \frac{\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i=1}^{n_h} \sum_{j=1}^{m_{hi}} w_{hij} x_{hij}}$$

그리고 각 층별 아동보육 수요율의 잭나이프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var_J(\hat{R}_h) = \frac{1}{k_h(k_h - 1)} \sum_{\alpha=1}^{k_h} (\hat{R}_{\alpha h} - \hat{R}_h)^2$$

여기서 k_h 는 h 층에서 k 개의 그룹을 의미하며, $\hat{R}_{\alpha h}$ 는 h 층의 α 번째 추정치를 제외한 비추정치이고, \hat{R}_h 는 h 층에서 k 개의 그룹에 대한 비추정의 평균이다.

또한, 각 층별 아동 보육 수요율의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widehat{CV}(\hat{R}_h) = \frac{\sqrt{var_J(\hat{R}_h)}}{\hat{R}_h} \times 100 (\%)$$

3. 보고서 구성 및 용어의 정의

가. 분석틀 및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현황 및 요구를 파악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먼저 정부의 보육과 교육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자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총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각각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하여 현황과 요구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타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끝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적 주제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보육·교육과 관련하여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된 지역, 아동연령, 가구 소득 수준, 모의 취업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본 보고서는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보육실태조사 실시배경, 조사목적, 조사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제2장은 우리나라 보육·교육의 사업 현황으로 사업의 개요,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 규모를 알아보았다. 특히 e-보육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보육의 공급과 수요 등 기본 통계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가구 및 아동 등 가구원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동가구의 제 특

성은 일반가구와 다르기 때문에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특성 자체가 중요한 정책 자료로 요청된다. 제4장은 조사대상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가구 및 아동 1인당 총 비용, 주 양육자, 모의 취업과 양육 등 전반적 이용 실태를 총괄적으로 다루었다. 제5장은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욕구를 다루었으며, 제6장은 기타 혈연, 비혈연에 의한 개인 자녀양육지원서비스 등 이용, 비용 등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7장은 일반학원, 개별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이용 등을 다루었다. 제8장 취학아동의 초등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의 특기적성 등 방과후 보육·교육 이용과 욕구 실태를 다루었다. 제9장은 주제별로 조사된 보육·교육 관련 정책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0장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기초로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추가 이용수요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1장에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나. 용어의 정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보육·교육」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다. 보육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살피는 대리양육의 의미가 강하며, 제도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제도화된 수단에 의한 보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더 범주가 좁아진다. 그러나 본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 조사에서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전반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보육은 양육지원 및 대리양육 서비스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제도권 보육을 의미하는 협의로 사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교육도 제도권에서의 교육 이외에 아동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외 본 보고서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 출생 후 만6세 미만 아동을 의미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미취학아동과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음. 연령 기준일은 보육시설 입소 연령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1월 1일로 하였음.
- 영아: 출생 후 36개월 미만 아동을 의미함.
- 유아: 36개월 이상 만6세 미만 아동을 의미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36개월 이상 취학전 아동을 모두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전체로 영유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1월 1일 기준으로 만6세가 취학 시점이지만 부모가 취학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만6세 이상아도 다수 포함됨.

- 취학전 아동: 취학전 1년의 만5세 이상 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임. 만6세 이상아도 다수 포함됨.
- 보육·교육 기관: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관」이라는 용어는 「개인」에 대비되는 개념임. 보육시설과 유치원과 같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뿐 아니라, 학원, 선교원 등 사설 및 미인가 기관도 포함됨.
- 반일제이상 학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아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으로 주로 영어학원, 유아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을 표방하고 있음. 반일제이상 학원 이외에 일반학원으로의 기능도 함.
- 일반학원: 주로 피아노, 서예, 보습과 같이 특정한 종류의 교육을 위하여 주로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학원으로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많이 이용하고 유아도 이용함.

다. 조사의 한계점

본 조사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이다. 본 조사가 갖는 한계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조사구가 작성된 시점과의 차이가 거의 4년이 넘어서 표본이 그 동안의 지역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국조사는 표본 조사구가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기준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인구센서스와 조사시점과의 시간 동안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느냐에 따라 대표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조사 표본은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구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분포가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조사시점이 3~4월임에 따른 제약이 있다. 대부분의 보육·교육기관의 정규 프로그램들이 3월에 시작되지만 신규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아들은 낯씨가 따듯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3월초부터 다닌 경우에도 대체로 초반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적응기간이 끝난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국 표본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자료나 세분화된

자료의 생산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본 조사 대상은 전국 15,000가구이지만 조사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은 7,455명으로 지역별 통계의 생산에 한계가 있고, 보육시설 이용 영아 등 특정한 특성별로 세분화하면 빈도의 수가 매우 작아져 특이한 경우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의 활용가치는 크지만 지방정부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II. 영유아보육사업 현황

제2장에서는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부분 조사 자료 분석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보육사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e-보육시스템에 수록된 보육시설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기본적 보육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이용자 조사로 보육이 중심이지만 이용 현황은 보육시설 이외 유치원 등 아동과 부모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제2장에서도 보육 이외에 유아교육 현황을 부분적으로 함께 언급하고자 하였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고,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치원의 종일제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과 교육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영유아보육법 제2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여섯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보육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시·군·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국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 설치에 인가제이다. 또한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보육시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절에서는 이러한 보육시설 설치와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공급과 이용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어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육시설 공급과 이용

1) 보육시설 및 아동 규모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현재 33,49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13만 5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영유아만으로는 영유아 해당 아동의 40.1%이다.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보육시설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대다수로 2008년 12월 현재 민간개인보육시설이 13,300개소로 39.7%이고 가정보육시설이 15,525개소로 46.3%이다(표 II-1-1 참조).

〈표 II-1-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비율)	(100.0)	(5.5)	(4.4)	(2.9)	(39.7)	(46.3)	(1.0)	(0.02)

보육 아동은 2008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2만 3천명 정도로 10.9%이고 법인 및 법인의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약 16만 7천명으로 14.7%인데 비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보육시설 61만 6천명과 가정보육시설 21만명으로 모두 82만 6천명인 72.7%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2008년 1월에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수준은 저조하다.

〈표 II-1-2〉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비율)	(100.0)	(10.9)	(10.0)	(4.7)	(54.2)	(18.5)	(1.5)	(0.02)

한편, 유치원은 2008년 현재 전국 8,344개원이 설치되어 53만 8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유치원 53.7%, 사립유치원 46.3%로 국공립유치원이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418,694명이 사립유치원 이용자로 전체 원아의 77.9%에 해당된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면지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여 저렴한 교육비로 농어촌 저소득가정 유아의 유치원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의 상당수는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로 설치되어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07년			2008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공립	4,448	6,646	118,422	4,483	6,789	119,128
사립	3,846	17,214	423,128	3,861	17,778	418,694
전체	8,294	23,860	541,550	8,344	24,567	537,822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33만 1천명 중 37.7%, 유아는 전체 유아 141만 3천명 중 보육시설 42.3%, 유치원 38.0%로 총 80.3%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명 중 61.8%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보육시설은 만2세아가 242,324명, 55.3%로 가장 높다(표 II-1-4 참조).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의 이용률이 높는데, 모의 취업률이나 육아휴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자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유아는 상당수가 학원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하므로(제4장 참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은 9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OECD의 권장 이유인 학교준비도 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4>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자 수(2008)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¹⁾ (A)	보육시설 (B)	유치원 (C)	소계(B+C)	비율(B/A)	비율 (B+C/A)	최연소자녀기준 모취업률 ²⁾ (2009)
0세	446,738	99,245	-	-	22.2	-	24.7
1세	445,796	160,320	-	-	36.0	-	29.2
2세	438,576	242,324	-	-	55.3	-	39.2
0~2세 소계	1,331,110	501,889	-	-	37.7	-	29.9
3세	448,625	229,424	99,499	328,923	51.1	73.3	44.4
4세	475,449	192,668	184,178	376,846	40.5	79.3	44.8
5세	489,413	175,323	254,145	429,468	35.8	87.8	46.0
3~5세 소계	1,413,487	597,415	537,822	1,135,237	42.3	80.3	44.9
0~5세 소계	2,744,597	1,099,304	537,822	1,637,126	40.1	59.7	35.8

주: 1) 인구수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임.

2) 보육 공급과 이용의 지역 차이

가) 시·도 차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은 지역마다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시·도 단위 보육공급과 이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1-5>는 2008년 시·도 단위의 보육시설 설치 통계 자료와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인구 대비 보육시설 정원 비율로 시·도 단위 보육공급률을 산출한 결과이다.

전국적으로 이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51.4%이고 보육시설 이용률은 40.8%이다. 공급률은 시·도별로는 울산시가 42.1%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75.7%로 가장 높다. 이용률 역시 울산시가 33.7%로 가장 낮고 제주도가 62.8%로 가장 높다.

〈표 II-1-5〉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A)	보육정원(B)	보육현원(C)	공급률(B/A)	이용률(C/A)	정원충족률
전체	2,782,972	1,429,105	1,135,502	51.4	40.8	79.5
서울	523,287	227,882	190,310	43.5	36.4	83.5
부산	157,882	78,431	62,760	49.7	39.8	80.0
대구	127,920	71,012	56,392	55.5	44.1	79.4
인천	154,506	67,425	55,884	43.6	36.2	82.9
광주	87,243	57,457	44,159	65.9	50.6	76.9
대전	89,887	44,971	35,692	50.0	39.7	79.4
울산	67,142	28,262	22,652	42.1	33.7	80.2
경기	733,284	341,281	267,518	46.5	36.5	78.4
강원	78,474	46,672	36,859	59.5	47.0	79.0
충북	85,787	54,219	41,559	63.2	48.4	76.7
충남	117,283	63,326	49,228	54.0	42.0	77.7
전북	98,863	72,320	55,978	73.2	56.6	77.4
전남	98,313	63,925	50,663	65.0	51.5	79.3
경북	138,585	82,392	63,010	59.5	45.5	76.5
경남	188,721	102,436	80,371	54.3	42.6	78.5
제주	35,793	27,094	22,467	75.7	62.8	82.9

주: 보육정원 및 보육현원 중에는 초등학교생이 일부 포함됨.

나) 시·군·구 차이

<표 II-1-6>은 시·군·구 단위 전체 보육 공급률과 보육과 교육의 이용률의 평균 및 최대치, 최저치를 나타낸 것이다.¹⁰⁾

보육 공급률을 보면 전체 232개 시·군·구 중 아동수 대비 보육정원을 나타내는 보육 공급률은 최대 117.7%, 최소 21.9%로 시·군·구에 따라서 95.8%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전체 이용률은 최대 76.8%, 최소 19.4%로 큰 격차가 있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아도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공급률과 이용률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공급률과 이용률이 모두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시 강서구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이며, 인천시 옹진군도 공급률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섬지역이 낮은 경향이 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하여 보면 0~5세아 기준 전체 보육과 교육 이용률의 전국 시·군·구 평균은 62.1%인데 최대는 117.3%이고 최소는 37.8%이다.

10) 보육시설 정원이 영유아 구분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고, 유아교육 통계에서도 정원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공급률은 보육시설 전체 통계 생산만 가능함.

〈표 II-1-6〉 시·군·구 인구대비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 및 이용률

단위: %

구분	전국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55.9	(13.7)	117.7	21.9
이용률				
0~2세 보육시설	34.3	(7.5)	57.6	13.4
3~5세 보육시설	48.4	(11.5)	92.4	24.9
0~5세 보육시설	42.6	(9.1)	76.8	19.4
0~5세 유치원·보육시설	62.1	(9.5)	117.3	37.8

〈표 II-1-7〉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분포

단위: 시·군·구

구분	30이하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0이상	전체
전체	1	26	53	71	42	30	5	3	1	232
서울	0	8	9	6	2	0	0	0	0	25
부산	0	2	5	5	2	1	0	0	1	16
대구	0	0	0	7	0	1	0	0	0	8
인천	0	2	7	1	0	0	0	0	0	10
광주	0	0	0	1	2	2	0	0	0	5
대전	0	0	3	1	1	0	0	0	0	5
울산	0	2	2	1	0	0	0	0	0	5
경기	0	7	8	9	4	3	0	0	0	31
강원	0	1	4	7	3	3	0	0	0	18
충북	0	0	2	2	3	4	1	0	0	12
충남	0	0	3	8	1	2	1	1	0	16
전북	0	0	2	3	5	2	1	1	0	14
전남	0	1	1	5	8	5	2	0	0	22
경북	1	0	4	9	7	2	0	0	0	23
경남	0	3	3	6	4	4	0	0	0	20
제주	0	0	0	0	0	1	0	1	0	2

다음은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시·군·구 단위에서 보육 공급 수준 백분률 분포를 나타낸다. <표 II-1-7>을 보면 공급률 최다 빈도는 51~60%로 71개 시·군·구, 다음은 41~50%로 53개 시·군·구가 분포하며, 다음이 61~70%로 42개 시·도이다. 공급이 과소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급률 30% 미만인 지역은 1개 시·군·구이고 공급률 31~40%는 26개 시·군·구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각각 8

개, 7개 시·군·구가 분포한다. 한편 공급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아동인구 대비 정원수가 71~80%는 30개 시·군·구이고 90%가 넘는 곳이 총 4개 지역이다. 공급률 30% 미만인 지역은 경북 울릉군이고, 인구 대비 정원수가 71% 이상인 시·군·구가 많은 시도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이며, 특히 공급률이 90%가 넘는 지역은 부산시 강서구,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제주 서귀포시이다.

<표 II-1-8>은 시·도별 시·군·구 보육공급률과 이용률 평균을 나타낸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평균 81.6%를 나타낸다. 제주도는 두 개 자치시가 각각 72.5%, 90.8%로 1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수 대비 과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은 공급률이 평균 60%가 넘는 지역은 광주, 충북, 전북, 전남으로 63~66%에 분포한다. 이들 자치 시·군·구 평균 공급률이 60%가 넘는 지역인 광주, 충북, 전남은 표준편차가 9~11%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전북은 최저치가 40.1%로 낮은 지역이 있으나 최고 92.4%로 표준편차는 15.9%로 가장 크다.

시·군·구 단위 이용률은 평균 42.6%이다. 시·군·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62.9%이다. 이외는 전북이 50.1%로 그 다음으로 높고, 울산, 인천이 가장 낮아서 33~34% 정도를 나타낸다. 보육 이용률 역시 공급과 마찬가지로 동일 시·도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크다. 특히 부산과 전북이 표준편차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보육 공급 대비 이용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77.2%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이 80%를 넘고 그 이외 시·도는 70~79%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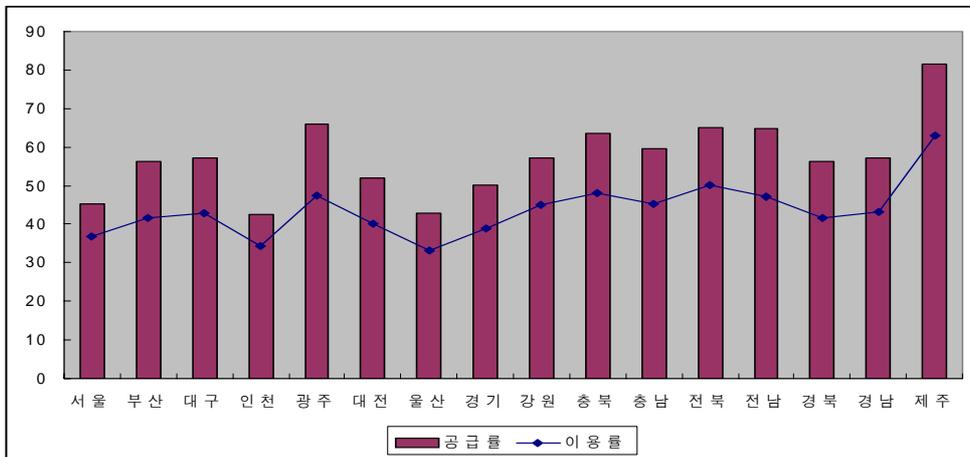
다음 <표 II-1-9>와 [그림 II-1-2]는 시·도별 시·군·구 국공립보육시설 공급률과 이용률 평균을 나타내는데, 공급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6.9%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별 편차가 크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국공립시설 공급률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구 평균이 11.5%이고 강원, 경북의 시·구 평균은 10%를 넘는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대전, 울산으로 구 평균이 각각 2.1%, 2.0%, 2.9%이다.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은 평균 5.9%인데, 이 역시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서울만 구가 평균 10%를 넘고 다음이 강원으로 8.7%이고, 경북과 부산이 8% 수준으로 비교적 높으며, 대구와 대전은 구 평균이 2%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II-1-8〉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시·군·구)

구분	공급(인구 대비 정원 비율)				이용(인구 대비 현원 비율)				정원충족률	(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전체	55.9	13.7	21.9	117.7	42.6	9.1	19.4	76.8	77.2	(232)
서울	45.3	9.2	32.7	67.6	36.9	6.9	27.3	53.3	81.7	(25)
부산	56.3	19.3	37.3	117.7	41.8	11.2	30.0	76.8	75.6	(16)
대구	57.1	8.6	51.5	78.2	43.0	7.9	38.0	62.4	75.1	(8)
인천	42.6	4.9	31.5	50.2	34.4	4.0	25.6	40.9	80.8	(10)
광주	66.0	9.2	54.8	78.9	47.5	5.0	41.1	54.6	72.3	(5)
대전	52.0	7.0	43.4	61.1	40.0	4.7	34.2	45.0	77.1	(5)
울산	42.8	4.9	38.5	51.1	33.2	2.5	30.9	37.3	77.8	(5)
경기	50.3	11.6	34.2	76.4	39.0	7.8	28.4	54.8	78.1	(31)
강원	57.2	12.0	37.0	77.4	45.1	8.0	32.9	62.6	79.7	(18)
충북	63.4	10.8	48.1	85.4	48.1	7.3	38.6	62.9	76.2	(12)
충남	59.7	13.3	43.9	90.6	45.4	7.2	34.4	61.0	77.0	(16)
전북	65.1	15.9	40.1	92.4	50.1	10.5	34.5	72.1	77.9	(14)
전남	64.7	11.0	39.1	85.1	47.0	7.8	31.0	66.5	73.2	(22)
경북	56.1	11.4	21.9	72.9	41.6	8.5	19.4	50.7	74.7	(23)
경남	57.3	13.0	33.5	77.9	43.3	8.7	28.1	57.8	76.3	(20)
제주	81.6	13.0	72.5	90.8	62.9	4.0	60.1	65.8	77.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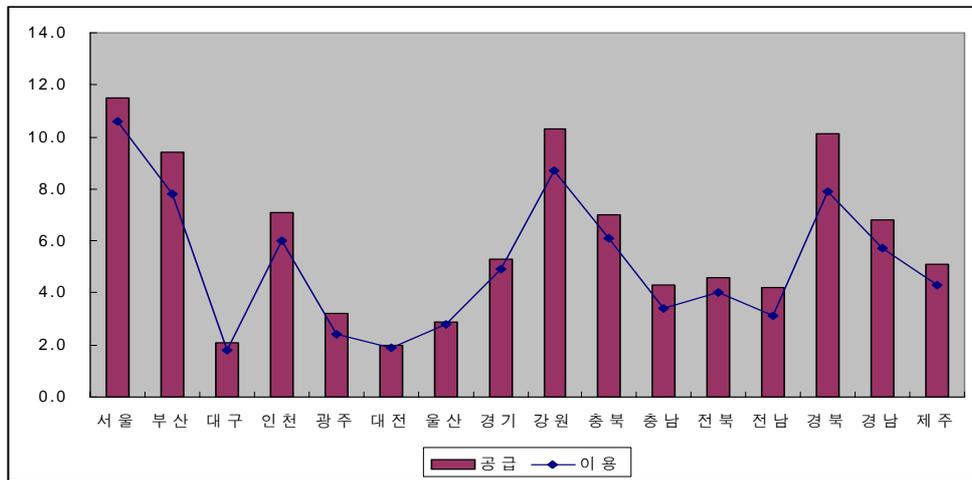


[그림 II-1-1] 시·도별 시·군·구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표 II-1-9〉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시·군·구)

구분	공급(인구 대비 정원 비율)				이용(인구 대비 현원 비율)				정원 충족률	(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전체	6.9	6.1	-	32.1	5.9	5.1	-	26.4	86.0	(232)
서울	11.5	5.8	5.0	31.1	10.6	4.9	4.9	26.1	93.3	(25)
부산	9.4	6.3	2.0	23.4	7.8	5.0	1.7	17.9	84.1	(16)
대구	2.1	1.6	0.7	5.0	1.8	1.5	0.6	4.4	83.0	(8)
인천	7.1	6.0	1.5	19.3	6.0	5.0	1.5	17.1	88.3	(10)
광주	3.2	1.2	2.2	5.2	2.4	1.0	1.5	4.0	76.4	(5)
대전	2.0	1.6	0.2	4.5	1.9	1.4	0.2	4.1	93.2	(5)
울산	2.9	1.0	1.3	4.0	2.8	1.0	1.2	3.7	95.8	(5)
경기	5.3	3.4	1.2	14.7	4.9	3.2	1.1	14.5	93.3	(31)
강원	10.3	8.2	2.4	32.1	8.7	6.9	2.0	26.4	84.7	(18)
충북	7.0	5.7	-	21.3	6.1	4.9	-	18.1	87.2	(12)
충남	4.3	3.0	-	9.9	3.4	2.2	-	6.8	82.1	(16)
전북	4.6	3.9	-	12.7	4.0	3.7	-	11.7	83.9	(14)
전남	4.2	5.0	-	15.8	3.1	3.6	-	13.2	76.9	(22)
경북	10.1	8.7	-	29.6	7.9	6.5	-	19.9	80.2	(23)
경남	6.8	4.6	1.0	21.3	5.7	4.3	0.6	20.0	83.1	(20)
제주	5.1	4.1	2.2	8.0	4.3	3.0	2.2	6.4	89.3	(2)



[그림 II-1-2] 시·도별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시·군·구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공급 대비 이용 비율인 정원충족률은 전국이 86.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 울산, 경기도가 90%를 넘고 광주와 전남은 77% 수준에 머문다.

나. 보육 아동 특성

1) 연령분포

<표 II-1-10>은 보육시설 단위 시·도 및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별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다.

<표 II-1-10> 보육아동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방과후	계	(수)
전체	5.1	13.7	23.6	21.7	18.6	14.6	2.7	100.0	(1,100,998)
시설유형									
국공립	1.4	9.1	19.5	23.1	24.3	20.3	2.3	100.0	(128,049)
법인	1.6	8.9	20.5	24.3	22.7	19.0	3.0	100.0	(108,326)
법인외	1.4	7.9	18.6	22.9	23.0	19.2	7.0	100.0	(52,803)
민간개인	2.3	8.5	21.5	25.8	21.9	16.8	3.2	100.0	(589,886)
직장	1.7	12.9	22.2	26.0	22.1	13.9	1.2	100.0	(18,449)
가정	18.8	36.0	34.9	6.9	1.7	1.1	0.6	100.0	(201,965)
부모협동	0.9	5.9	21.1	23.1	25.3	22.2	1.5	100.0	(1,520)
시·도									
서울	4.7	13.1	22.7	21.1	18.7	14.9	4.8	100.0	(185,333)
부산	4.6	12.7	24.9	22.6	17.1	13.7	4.4	100.0	(59,497)
대구	3.7	11.7	24.2	26.2	18.9	12.2	3.1	100.0	(53,440)
인천	4.9	13.4	24.1	22.2	18.8	14.7	1.9	100.0	(54,488)
광주	5.7	13.9	20.9	20.3	19.3	18.4	1.5	100.0	(41,885)
대전	6.5	16.9	27.1	21.5	15.4	11.5	1.1	100.0	(35,272)
울산	3.6	13.9	29.5	25.7	15.9	10.1	1.3	100.0	(22,185)
경기	6.4	14.8	23.7	21.0	18.4	14.2	1.5	100.0	(262,461)
강원	2.7	11.4	22.0	22.9	21.9	17.4	1.7	100.0	(36,254)
충북	3.4	11.7	21.8	22.2	21.2	18.1	1.6	100.0	(40,135)
충남	3.6	12.0	22.7	23.1	20.8	16.2	1.6	100.0	(48,894)
전북	6.0	14.3	20.4	18.4	18.4	17.2	5.3	100.0	(53,168)
전남	4.8	13.1	21.1	20.5	20.4	18.4	1.7	100.0	(48,437)
경북	4.6	13.1	24.6	22.8	17.9	13.0	4.0	100.0	(60,489)
경남	5.4	15.0	26.3	21.7	16.3	12.3	3.0	100.0	(77,055)
제주	4.8	17.1	22.3	22.3	20.6	11.8	1.1	100.0	(22,005)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만2세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3세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영아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이용아동 중 89.7%가 영아이고 유아의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만5세아는 인건비 지원 시설 이용률이 높다.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이 만5세아 비율이 높아서, 농어촌의 만5세아 이용비율이 높음을 나타냈다.

2) 출생순위

다음 <표 II-1-11>은 보육시설 단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생순위 특성을 나타낸다.

<표 II-1-11> 보육아동 출생순위 분포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계	단위: %(명)
					(수)
전체	58.0	33.0	9.0	100.0	(1,103,990)
시설유형					
국공립	59.8	32.2	8.0	100.0	(128,647)
법인	59.1	31.7	9.2	100.0	(109,202)
법인의외	56.9	32.9	10.2	100.0	(52,931)
민간개인	60.1	31.5	8.4	100.0	(591,043)
직장	65.7	29.9	4.5	100.0	(18,458)
가정	49.5	38.5	12.0	100.0	(202,181)
부모협동	58.4	37.5	4.1	100.0	(1,528)
시·도					
서울	61.1	31.1	7.8	100.0	(185,930)
부산	59.0	34.1	6.9	100.0	(59,704)
대구	57.4	34.7	7.9	100.0	(53,694)
인천	57.4	32.1	10.5	100.0	(54,610)
광주	56.5	33.0	10.5	100.0	(41,995)
대전	56.7	33.1	10.2	100.0	(35,332)
울산	59.5	32.2	8.3	100.0	(22,255)
경기	57.9	33.6	8.5	100.0	(263,024)
강원	57.9	32.7	9.4	100.0	(36,309)
충북	60.6	30.3	9.1	100.0	(40,218)
충남	60.0	31.6	8.4	100.0	(48,996)
전북	53.4	34.0	12.6	100.0	(53,306)
전남	55.6	32.1	12.3	100.0	(48,628)
경북	57.7	33.7	8.6	100.0	(60,651)
경남	55.9	35.0	9.1	100.0	(77,305)
제주	50.4	35.5	14.1	100.0	(22,033)

전체적으로는 첫째아가 58.0%, 둘째아 33.0%, 셋째아 이상이 9.0%이다. 이 비율은 시설유형별로 보면 영아가 많은 가정보육시설이 첫째아의 비율이 낮고, 둘째아 이상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시·도별로는 제주, 전북, 전남의 셋째아 이상 비율이 14.1%, 12.6%, 12.3%로 높고 인천, 광주와 대전이 10% 이상이다.

3)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비율과 수를 시·군·구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아동수로 보면 2009년 4월 현재 보육 아동 중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은 총 23,058 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는 61,700 명이므로 이들 대비 37.4%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이 비율은 2008년 12월 기준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시설 이용 비율 40.1%에 미치지 못한다.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이 보육시설에 평균 99명이 있고, 최대는 경기도 안산시에 415명이 있고, 최소는 경북의 울릉군에 1명이 있다.

〈표 II-1-12〉 시·군·구 단위 보육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 비율과 수

단위: %(명)

구분	아동비율				아동수					시·군·구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총수	
전체	3.6	2.9	0.6	13.2	99.4	71.8	1	415	23,058	232
강원	3.7	2.0	0.8	7.6	51.2	40.2	14	153	921	18
경기	1.8	0.7	0.3	4.1	136.4	102.2	6	415	4,229	31
경남	4.6	3.3	0.9	11.3	95.9	64.9	30	275	1,918	20
경북	5.0	3.3	0.9	13.2	73.1	61.6	1	251	1,682	23
광주	1.7	0.4	1.1	2.2	134.4	85.2	44	249	672	5
대구	1.7	0.7	1.0	2.8	116.5	95.8	12	325	932	8
대전	1.7	0.5	1.1	2.3	115.0	20.1	81	134	575	5
부산	1.8	0.7	0.9	3.1	63.6	38.3	14	148	1,017	16
서울	1.7	0.7	0.6	3.2	118.7	53.5	37	286	2,968	25
울산	1.9	0.2	1.6	2.1	84.4	18.5	67	105	422	5
인천	2.2	1.1	1.2	4.1	97.0	74.2	9	196	970	10
전남	5.9	2.9	1.3	13.2	80.5	41.7	32	179	1,772	22
전북	6.9	4.2	1.4	13.1	117.4	72.4	27	295	1,643	14
제주	1.4	0.3	1.2	1.6	145.0	70.7	95	195	290	2
충남	5.1	2.6	1.9	12.5	124.9	90.0	24	362	1,998	16
충북	4.9	3.2	1.5	10.9	87.4	66.2	27	270	1,049	12

보육아동 비율로는 3.6%인데, 시·도별로 시·군 평균은 전북이 6.9%, 전남 5.9%, 충남 5.1%, 경북 5.0%이다. 최대는 13.2%이다.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모두 최대가 10%를 넘었으며, 보육아동의 10%를 넘는 곳은 13곳으로 모두 군 지역이다.

2. 보육시설 환경 요인

보육시설 환경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으로 건물 소유형태를 알아보려고 하였고, 인적환경으로 시설장과 보육교사, 보육서비스의 질적 환경으로 평가인증 및 기타 운영 특성을 제시하였다. 자료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e-보육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이다.

가. 건물 소유 형태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등 개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건물의 소유형태를 알아보았다.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개인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운영계획서, 자격증명서,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계획서,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시설은 보육료의 일부를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¹¹⁾ 교사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고, 상당수가 환경 자체가 쾌적하기 어렵고 시설 투자부분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므로 보육환경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II-2-1>을 보면 수집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중 52.2%가 자가이고 17.8%가 전세, 24.2%가 월세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시설에 비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자가 비율이 6.3% 포인트 높다. 자가가 아닌 경우, 가정보육시설은 전세,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월세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자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42.9%이고, 경기, 강원, 서울이 50% 미만이다. 특히 서울은 가정 및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월세 비율이 거의 40%에 이른다. 제주도는 자가 비율이 50% 수준이지만 월세 비율 역시 27.8%로 비교적 높

11) 2008년부터 재무회계규칙에서 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로 수입의 10%를 사용할 수 있음.

은 편이다.

〈표 II-2-1〉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소유 형태

단위: %(개소)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미상	계	(수)
전체	52.2	17.8	24.2	5.8	100.0	(28,830)
시설유형						
민간	48.7	14.5	31.1	5.7	100.1	(13,170)
가정	55.0	20.6	18.4	6.0	100.0	(15,660)
시도						
서울	46.9	12.4	39.3	1.4	100.0	(4,550)
부산	63.2	16.4	18.9	1.5	100.0	(1,357)
대구	59.0	12.5	18.8	9.7	100.0	(1,227)
인천	50.7	12.0	23.7	13.6	100.0	(1,495)
광주	65.0	17.0	16.4	1.6	100.0	(923)
대전	57.0	10.6	20.6	11.8	100.0	(1,217)
울산	42.9	17.9	12.7	26.5	100.0	(559)
경기	45.3	22.2	27.9	4.6	100.0	(8,953)
강원	46.3	9.4	30.1	14.2	100.0	(627)
충북	62.8	10.9	22.6	3.7	100.0	(775)
충남	54.0	25.1	17.1	3.8	100.0	(1,072)
전북	70.3	13.6	9.3	6.8	100.0	(1,179)
전남	54.9	26.6	14.4	4.1	100.0	(772)
경북	57.9	14.2	17.2	10.7	100.0	(1,475)
경남	57.0	26.8	10.7	5.5	100.0	(2,304)
제주	58.3	13.6	27.8	0.3	100.0	(345)

나. 보육인력

1) 보육인력 규모

2008년 12월 현재 전국의 보육교사 수는 139,060명으로 시설장을 포함하면 172,559명이다. 이외 간호(조무)사 자격자가 745명이고 영양사가 613명이며 취사부 및 조리사가 10,815명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중복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취사부와 조리사 배치는 국공립과 법인, 직장 시설에는 대체로 배치되어 있으나 민간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일부만이 배치되어 있다. 민간개인시설은 시설수가 13,100여개소가 넘는데 비하여 취사부와 조리사는 4,792명으로 시설수 대

비 35.7%이고, 가정보육시설은 그 수가 15,500여개소가 넘는데 비하여 취사부와 조리사는 830명으로 보육시설 수 대비 5.3%에 불과하다(표 II-2-2 참조).

〈표 II-2-2〉 보육시설 종사자 수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단위: 명	
					취사부 및 조리사	기타
전체	33,499	139,060	745	613	10,815	4,087
국공립	1,826	12,398	111	74	2,194	720
법인	1,458	11,583	110	80	1,747	661
법인의외	969	5,255	55	42	890	479
민간개인	13,306	68,729	432	366	4,772	1,890
가정	15,525	38,530	3	2	830	279
직장	350	2,341	45	45	354	48
부모협동	65	224	-	4	28	10

2) 시설장 특성

가) 시설장과 대표자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성으로 대표자와 시설장의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였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이외의 시설의 설치자는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하여 제15조로 규정된 설치 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으면 된다.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 조항만 있고, 이외 자격에 대한 기준이나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1인이 설치하여 운영 가능한 시설의 수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누구라도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많은 수의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보육시설 시설장이면서 다른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대표자가 되어 실제로 두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설치자이고 운영자가 시설장인지도 사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¹²⁾

<표 II-2-3>은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 중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시설의 규모와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전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중 28.9%인 8,339개소의 시설장과 대표자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다. 민간보육시설은 36.3%, 가정보육시설은

12) 이는 초기 개인 설치자는 시설장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설치자가 별도의 시설장을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에 대하여 정책적 대응은 없었음.

22.7%로 민간개인보육시설이 비율이 좀 더 높다. 지역별로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시설 비율은 차이가 있다. 민간보육시설 중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시설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전북으로 비율이 높고 제주가 13.4%로 가장 낮다. 가정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편인데, 지역별로 경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5.7%로 가장 낮다.

〈표 II-2-3〉 시·도별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시설장과 대표자가 다른 시설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민간·가정 전체		민간		가정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28.9	(8,339)	36.3	(4,781)	22.7	(3,558)
서울	32.4	(1,472)	40.5	(927)	24.1	(545)
부산	31.0	(420)	37.5	(303)	21.3	(117)
대구	25.8	(316)	27.7	(192)	23.3	(124)
인천	31.8	(476)	43.0	(300)	22.1	(176)
광주	26.2	(242)	35.7	(124)	20.5	(118)
대전	21.2	(258)	24.1	(99)	19.7	(159)
울산	21.8	(122)	25.0	(89)	16.3	(33)
경기	30.7	(2,753)	40.8	(1,396)	24.5	(1,357)
강원	23.0	(144)	22.7	(83)	23.3	(61)
충북	19.4	(150)	25.7	(102)	12.7	(48)
충남	26.9	(288)	36.2	(189)	18.0	(99)
전북	25.9	(305)	42.9	(198)	14.9	(107)
전남	22.9	(177)	33.0	(118)	14.3	(59)
경북	29.6	(436)	34.9	(283)	23.1	(153)
경남	32.2	(742)	34.7	(346)	30.3	(396)
제주	11.0	(38)	13.4	(32)	5.7	(6)

나) 시설장 학력

다음 시설장 특성으로 시설장 학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현재 시설장의 학력은 고졸 13.6%, 전문대졸 53.4%, 대학졸 22.2%, 대학원졸 10.8%로 전문대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로는 가정보육시설 원장의 20.5%가 고졸로 고졸 비율이 다른 보육시설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직장보육시설 원장들의 학력이 타 시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시설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 대졸자 비율도 높지만 고졸자 비율도 높은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보육시설 원장들의 고졸 비율이 높는데, 이는 이 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원 이상자 비율은 서울이 16.5%로 가장 높다.

〈표 11-2-4〉 시설장 학력 분포

단위: %(개소)

구분	고졸	전문대 졸	대학졸	대학원 이상	계	(수)
전체	13.6	53.4	22.2	10.8	100.0	(30,830)
시설유형						
국공립	14	33.8	27.6	37.2	100.0	(1,818)
법인	4.5	43.3	25.3	26.9	100.0	(1,366)
법인외	7.2	41.5	27.4	23.9	100.0	(928)
민간개인	9.5	56.1	22.6	11.8	100.0	(12,492)
가정	20.5	56.0	20.4	3.1	100.0	(13,816)
직장	0.8	29.0	21.2	49.0	100.0	(345)
부모협동	13.8	47.8	33.8	4.6	100.0	(65)
시도						
서울	13.2	47.9	22.4	16.5	100.0	(5,116)
부산	8.5	53.8	26.2	11.5	100.0	(1,544)
대구	11.0	54.3	23.6	11.1	100.0	(1,380)
인천	21.0	49.0	21.2	8.8	100.0	(1,470)
광주	8.4	56.1	23.2	12.3	100.0	(1,072)
대전	13.1	55.4	22.3	9.2	100.0	(1,256)
울산	14.0	55.1	22.2	8.7	100.0	(586)
경기	18.0	51.5	21.5	9.0	100.0	(8,499)
강원	8.5	61.7	22.1	7.7	100.0	(840)
충북	11.8	53.3	22.6	12.3	100.0	(908)
충남	14.5	53.6	21.5	10.4	100.0	(1,224)
전북	11.1	52.2	25.9	10.8	100.0	(1,416)
전남	8.9	60.9	19.5	10.7	100.0	(1,036)
경북	9.2	59.5	21.2	10.1	100.0	(1,658)
경남	10.6	59.9	20.7	8.6	100.0	(2,361)
제주	12.5	60.8	19.4	7.3	100.0	(464)

3) 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

e-보육시스템으로 자격이 파악된 보육교사는 2009년 현재 134,668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보육교사의 특성으로 자격과 학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중에서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를 조금 넘고 보육교사 2급이 34.6%이며 3급 교사가 14.0%이다.

〈표 II-2-5〉 보육교사 자격 및 학력 분포

단위: %(명)

구분	급수				학력				계(수)
	1급	2급	3급	계(수)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대학원졸	
전체	51.4	34.6	14.0	100.0(134,668)	13.5	67.6	17.6	1.3	100.0(131,835)
시설유형									
국공립	79.2	18.8	2.0	100.0(12,586)	5.9	67.3	25.0	1.8	100.0(14,410)
법인	73.3	23.4	3.3	100.0(11,194)	5.1	72.1	21.3	1.5	100.0(13,312)
법인의외	70.2	24.3	5.5	100.0(5,093)	8.9	67.2	21.8	2.1	100.0(5,824)
민간개인	47.2	38.1	14.7	100.0(66,234)	14.2	69.7	15.0	1.1	100.0(64,834)
직장	82.5	15.9	1.6	100.0(2,394)	2.7	56.8	37.7	2.8	100.0(2,711)
가정	38.1	39.9	22.0	100.0(36,950)	21.3	62.4	15.4	0.9	100.0(30,525)
부모협동	57.6	32.7	9.7	100.0(217)	11.4	58.4	27.9	2.3	100.0(219)
시·도									
서울	50.8	34.6	14.6	100.0(23,134)	14.5	64.1	19.6	1.8	100.0(22,908)
부산	57.7	32.4	9.9	100.0(7,515)	9.5	70.7	18.4	1.4	100.0(7,537)
대구	52.7	31.2	16.1	100.0(6,606)	11.2	70.0	17.5	1.3	100.0(7,018)
인천	48.4	38.6	13.0	100.0(6,751)	19.3	64.0	15.7	1.0	100.0(5,968)
광주	58.9	30.7	10.4	100.0(4,768)	10.8	66.8	21.2	1.2	100.0(5,123)
대전	49.0	37.9	13.1	100.0(4,679)	12.4	65.9	20.1	1.6	100.0(4,587)
울산	56.4	30.3	13.3	100.0(2,754)	12.4	69.6	17.4	0.6	100.0(2,805)
경기	44.2	38.0	17.7	100.0(33,780)	18.6	63.3	17.1	1.2	100.0(29,277)
강원	60.9	31.8	7.3	100.0(3,748)	8.8	77.4	13.2	0.8	100.0(4,053)
충북	53.4	36.4	10.3	100.0(4,298)	10.6	72.0	16.3	1.1	100.0(4,491)
충남	54.8	34.0	11.2	100.0(5,259)	12.1	68.5	18.1	1.3	100.0(5,155)
전북	57.0	30.2	12.9	100.0(6,324)	11.9	64.8	22.1	1.2	100.0(6,619)
전남	62.9	30.5	6.6	100.0(5,307)	8.6	74.7	15.6	1.1	100.0(6,058)
경북	55.4	31.7	12.9	100.0(7,266)	11.3	72.3	15.3	1.1	100.0(7,555)
경남	47.8	35.4	16.6	100.0(9,816)	10.5	71.2	17.3	1.0	100.0(9,655)
제주	60.5	28.3	11.2	100.0(2,663)	10.9	78.8	9.8	0.5	100.0(3,026)

보육시설 유형별로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82.5%, 국공립보육시설 교사의 거의 80%가 1급 교사이고, 법인, 법인의외 보육시설 교사도 73.3%, 70.2%의 교사가 1급 교사이다. 반면에 보육교사 3급은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교사의 22.0%가 3급 교사이다. 다음 지역별 차이는 1급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으로 62.9%이고 강원과 제주도가 각각 60% 수준이

다. 3급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도로 17.7%이다. 이 역시 경기도에 가정정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표 II-2-5 참조).

다음, e-보육시스템에 학력이 입력된 보육교사의 학력은 고졸 13.5%, 전문대졸 67.6%, 4년제대학졸 17.6%, 대학원졸 1.3%로 전문대졸이 2/3를 차지한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는 시설장 학력과 유사하다.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21.3%가 고졸로 고졸 비율이 다른 보육시설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다음이 민간개인시설로 14.2%가 고졸 학력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보육시설 교사의 고졸 비율이 높는데, 이는 시설장의 학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표 II-2-5 참조).

〈표 II-2-6〉 보육교사 임용시기 분포

단위: %(명)

구분	2007년 이후	2005~6년	2003~5년	2001~3년	2001년 이전	계(수)
전체	80.5	12.3	3.9	1.5	1.8	100.0(137,592)
시설유형						
국공립	64.1	16.1	8.6	4.2	7.0	100.0(12,844)
법인	64.8	19.2	7.3	3.7	5.0	100.0(11,504)
법인의외	64.3	17.6	8.3	4.4	5.4	100.0(5,239)
민간개인	82.7	11.9	3.4	1.1	0.9	100.0(67,782)
직장	74.7	16.3	5.1	1.8	2.1	100.0(2,436)
가정	89.5	8.6	1.3	0.4	0.2	100.0(37,567)
부모협동	73.2	18.2	6.8	1.8	0.0	100.0(220)
시도						
서울	77.1	13.5	4.8	2.1	2.5	100.0(23,716)
부산	81.7	11.9	3.8	1.1	1.5	100.0(7,605)
대구	82.3	11.4	3.3	1.4	1.6	100.0(6,767)
인천	84.9	10.7	2.5	0.8	1.1	100.0(6,827)
광주	79.2	13.1	4.2	1.7	1.8	100.0(4,934)
대전	84.2	11.2	2.7	0.9	1.0	100.0(4,741)
울산	81.0	12.4	3.9	1.4	1.3	100.0(2,802)
경기	84.3	10.8	2.8	1.1	1.0	100.0(34,381)
강원	74.7	13.8	5.5	2.3	3.7	100.0(3,850)
충북	77.1	13.6	4.8	2.3	2.2	100.0(4,428)
충남	79.1	12.3	4.6	1.9	2.1	100.0(5,376)
전북	78.3	12.9	4.8	1.9	2.1	100.0(6,441)
전남	73.2	16.4	5.2	2.2	3.0	100.0(5,541)
경북	80.9	12.1	3.5	1.6	1.9	100.0(7,455)
경남	82.2	11.9	3.5	1.2	1.2	100.0(10,013)
제주	67.8	16.6	7.5	3.9	4.2	100.0(2,715)

<표 II-2-6>은 보육교사의 현 보육시설 임용시기 분포이다. 전체적으로 임용시기가 파악된 137,592명 중 2007년부터 임용된 비율이 80.5%로 교사의 80.5%가 임용기간이 2년 4개월 이하이다.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는 가정과 민간개인시설 교사의 각각 89.5%, 82.7%의 임용시기가 2007년부터로 2년 4개월 이하이다. 국공립, 법인, 법인의 시설들의 비율은 64~65% 수준으로 대체로 유사하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들을 보이지 않지만, 제주도의 경우 2007년 1월부터가 67.8%로 유일하게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 평가인증

다음은 보육시설의 질적 환경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2009년 8월 현재 평가인증 현황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신청 건수와 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표 II-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 8월 현재 전체 33,499개 보육시설 중 41.9%인 14,031개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보육시설 설치 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이 80%를 넘고 가정과 민간개인 시설이 36~38% 수준이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21.5%로 가장 낮다.

보육시설 설치 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시설이 80%를 넘고 가정과 민간개인 시설이 30% 수준이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21.5%로 가장 낮다.

<표 II-2-7> 2005~2009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참여율, 인증률(2009. 8. 17)

단위: 개소, %

구 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전체(A)	1,826	1,458	350	15,525	65	14,275	33,499
참여(B)	2,005	1,905	267	12,034	55	12,818	29,084
참여율(B/A)	109.8	130.7	76.3	77.5	84.6	89.8	86.8
인증(C)	1,534	1,294	151	5,639	14	5,399	14,031
인증률(C/A)	84.0	88.8	43.1	36.3	21.5	37.8	41.9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법인외는 민간개인으로 분류함.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체포기,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내부자료

인증시설 비율은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69.4%로 가장 높고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도가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으며, 경기도가 27.2%로 가장 낮다(표

II-2-8 참조).

〈표 II-2-8〉 2005~2009 평가인증 참여시설 및 인증시설 지역별 분포(2009. 8. 17)

단위: 개소, %

지역	전체	참여시설		인증시설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5,600	5,255	93.8	2,303	41.1
부산	1,651	2,184	132.3	1,036	62.7
대구	1,426	1,175	82.4	676	47.4
인천	1,652	1,554	94.1	710	43.0
광주	1,096	1,518	138.5	719	65.6
대전	1,318	1,163	88.2	554	42.0
울산	609	605	99.3	337	55.3
경기	9,712	5,772	59.4	2,643	27.2
강원	885	1,113	125.8	614	69.4
충북	950	892	93.9	427	44.9
충남	1,344	1,067	79.4	486	36.2
전북	1,479	1,506	101.8	920	62.2
전남	1,054	1,165	110.5	611	58.0
경북	1,708	1,560	91.3	615	36.0
경남	2,539	2,127	83.8	1,135	44.7
제주	476	428	89.9	245	51.5
계	33,499	29,084	86.8	14,031	41.9

주: 1) 전체시설은 2008년 12월말 전국 보육통계(33,499개소)를 기준임
 2) 참여신청 시설 수는 신청 후 자진취소, 재신청 등의 이유로 중복 산정될 수 있음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내부자료

라. 기타 보육환경

기타 보육환경으로 보험 가입, 차량 및 운영위원회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보험 가입비율은 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가입 비율을 파악하였는데,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이 99% 이상이고 배상보험이 96.5%이다.¹³⁾ 시설유형별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배상보험 가입비율이 다소 낮다. 시·도별로는 배상보험이 충북과 경북이 가입비율이 다소 낮다(표 II-2-9 참조).

다음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 비율은 34.9%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비율은 26.3%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읍·면에 많이 분포하는 법인보육시설의 차량운행

13) 보육교사 4대 보험은 가입비율이 99% 이상이므로 제시하지 않음.

비율이 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법인외, 민간개인, 국공립 시설의 순이다. 직장보육 시설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71.5%, 전남이 66.7%로 차량운행 비율이 높고, 서울 등 대도시는 비교적 낮다. 이는 시설 유형의 분포 차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육시설 중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비율은 52.7%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이 97.1%, 99.2%인 반면에 가정 시설이 29.8%로 낮다. 시설유형별 차이의 주된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40인 이상 보육시설만 의무이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75.1%, 강원도 71.5%로 비율이 높고 경기도가 42.1%로 비교적 낮다.

〈표 II-2-9〉 기타 보육환경 실태

단위: %(개소)

구분	보험가입			차량운행		운영 위원회	(수)
	상해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차량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	99.3	99.2	96.5	34.9	26.3	52.7	(33,506)
시설유형							
국공립	99.8	99.6	98.9	31.5	24.5	97.1	(1,848)
법인	100.0	99.9	98.6	65.0	63.0	99.2	(1,453)
법인외	99.4	99.5	96.4	56.4	51.2	93.2	(954)
민간개인	99.7	99.7	97.5	49.4	40.0	64.6	(13,170)
가정	98.9	98.7	95.1	19.7	10.6	29.8	(15,660)
직장	99.2	99.4	97.5	7.9	8.8	85.3	(354)
부모협동	100.0	97.0	92.5	4.5	1.5	82.1	(67)
시도							
서울	99.3	99.3	96.7	22.5	14.5	55.4	(5,535)
부산	99.9	100.0	99.7	54.0	24.4	53.4	(1,639)
대구	99.7	99.7	96.2	27.8	20.0	49.2	(1,432)
인천	99.7	99.6	97.5	21.3	18.4	56.3	(1,649)
광주	99.9	99.7	97.9	37.0	17.6	57.8	(1,102)
대전	99.3	99.0	94.4	29.6	12.3	46.8	(1,328)
울산	99.5	99.7	97.7	50.4	43.8	56.6	(617)
경기	99.3	99.1	97.4	24.7	18.9	42.1	(9,677)
강원	99.1	99.2	94.3	55.2	50.5	71.5	(877)
충북	99.2	99.0	92.3	44.6	37.9	62.2	(970)
충남	99.4	99.0	95.9	44.1	40.0	60.8	(1,341)
전북	98.4	98.4	93.9	40.7	34.4	60.5	(1,470)
전남	99.5	99.7	98.0	66.7	57.8	75.1	(1,074)
경북	99.2	98.8	92.7	52.0	48.2	56.8	(1,721)
경남	99.2	99.1	96.3	48.1	36.3	55.2	(2,587)
제주	99.2	99.0	94.5	71.5	67.1	50.7	(487)

3. 보육비용 지원

제3절에서는 보육비용 지원의 내용과 지원방법을 검토하고 이어서 보육예산 규모를 제시하였다.

가. 보육비용 지원

우리나라의 육아 비용 지원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비용 지원, 농어민 자녀 보육·교육 및 육아 비용 지원, 양육수당등 현금 지원, 조세지원 등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비용 지원이다.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보조금 지원과 부모 보육료 지원인 부모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육재정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이외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기능보강비는 설치비, 개보수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고,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모두 보육시설 운영, 즉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이다. 영유아 보육법은 다양한 형태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별 지원, 기본보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보조금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체로 유아교사는 인건비의 30%, 영아전담교사는 80%를 지원하고,¹⁴⁾ 추가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이외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되고,

14)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이러한 지원은 시설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개소당 연간 50~120만원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는 1998년부터 민간보육 시설에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표 II-3-1 참조).

〈표 II-3-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분	지원내용	
국 공 립 및 법 인 등 시 설	40인 이상 시설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추가지원: 농어촌,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중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40인 미만 시설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방과후 16~20명 보육 시 인건비 50%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장애아 통합 시설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아전담시설 (2004년 이전 지정 및 국고보조 신축비 지원)	-원장(18명 이상)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별도 편성 : 보육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시·도 지사 지정)	-원장(6개반 이상),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인건비 80%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민간 가정 보육 시설	일반보육시설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 통합시설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24시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직장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또는 1인당 월 100만원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지방정부 중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한 시·도는 서울시와 부산시이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시가 권장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민간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받으면 국공립시설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¹⁵⁾

부산시도 '09년에 민간·가정보육시설 10~20개소를 선발하여 국공립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 공보육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9년 공보육시설로 확정된 시설은 민간보육시설 14개소, 가정보육시설 4개소로 총 18개소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육시설에서는 부산시로부터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인건비 지원 조건은 국공립과 동일한 보육료 수납,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1호봉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 종사자 전원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 운영 등이다.

2) 민간시설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¹⁶⁾ 비용수준도 2006년 이후 증가하였다. 한편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그 동안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지원은 아동별로 하므로 부모 보조금의 성격을 갖지만,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며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는데,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러한 성격은 강화되었다.

15)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시설환경 및 보육과정, 안전과 보육인력 등의 기본평가 통과, 시간연장형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급식관리 지침 준수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 서울시 보육시설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이 기본 조건임. 또한 이들 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종사자 전원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퇴직급여 제도 운영,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 수납 등이 요구됨.

16)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되었음.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고, 동시에 부모 부담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낮추어 통일하였음. 2009년부터는 기본보조금을 기본보육료로 명칭을 수정함.

〈표 II-3-2〉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49	104	69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보육료	350	308	254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보육비용	599	412	323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3) 부모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다음으로 <표 II-3-3>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다. 영아는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보육료 상한선이 정부 지원단가로 통일되었다. 유아 보육료 상한선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표 II-3-3〉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상한액

단위: 천원

시도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만3세	만4세이상	만3세	만4세이상
서울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이상: 172,000	243	238	243	238
부산		237	216	263	243
대구		232	214	245	240
인천		237	222	270	258
광주		229	212	245	239
대전		235	215	260	260
울산		232	254	219	244
경기		267	245	270	270
강원		225	213	247	247
충북		243	218	270	264
충남		232	217	258	248
전북		230	208	230	208
전남		230	222	249	246
경북		237	212	258	242
경남		234	254	235	246
제주		216	209	239	239

〈표 II-3-4〉 시도별 기타 비용 수납 한도액

단위: 원

시도별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서울	50,000 이내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결정 ○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임 불가	
부산	연 80,000	연 90,000	월 70,000
대구	연 75,000	연 90,000	월 80,000
인천	국고보조시설 70,000 (직장보육시설포함) 민간보육시설 100,000 (부모협동포함) 가정보육시설 100,000	국고보조시설(직장보육시설포함) 월 50,000 민간보육시설(부모협동포함) 월 80,000 가정보육시설 월 80,000 - 종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40인 이상 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 - 군구에서는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고려하여 군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도 결정 가능	
광주	70,000(1회) (재원아 20,000(1회))	연120,000	행사비: 연 50,000 기타 필요경비: 월 80,000
대전	90,000	건당 12,000 (년 144,000)	월 60,000
울산	81,000 (재원아 22,000)	실비수납 (년 18회 이내)	원 70,000
경기	100,000	시·군에 위임	시·군에 위임
강원	70,000 (재원아 20,000)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충북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호자의 협의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도록 결정 ○ 단, 40인 이하시설은 부모회를 거쳐 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결정		
충남	○ 입소료(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불가피한 경비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한다. ※ 단, 정원 40인 미만 시설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전북	50,000 (재원아 20,000)	시 월 100,000 군 월 80,000	시 월 90,000 군 월 90,000
전남	연 80,000	연 120,000	월 80,000(3과목 이내)
경북	연 80,000	1회 20,000	보호자와 협의하여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
경남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제주	50,000	연 50,000	월 60,000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등을 추가로 수납하는데, 시·도별 실태는 <표 II-3-4>에 제시된 바와 같다. 16개 시·도 중에서 충북, 충남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고, 서울시는 시·군·구에 위임하고, 경기도는 입소료 이외의 비용을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경상북도는 특기적성비만을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 지역은 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표 II-3-5>는 서울시 각 구가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상한액을 책정한 액수이다.

<표 II-3-5> 서울시 각 구의 추가 수납액 기준

단위: 원

구	입소료	연간 현장학습비	월 특기적성비
강남구	최초 입소시 50,000원 이내	240,000	150,000 이내(5과목 이내)
강동구		150,000	60,000 이내(과목당)
강북구		180,000	150,000
강서구		200,000	90,000
관악구		150,000	90,000
광진구		200,000	140,000이내 (학부모와 협의 결정)
구로구		250,000	90,000
금천구		150,000	80,000
노원구		170,000	80,000
도봉구		일반아 150,000 방과후 75,000	일반아 80,000 방과후 45,000
동대문구		150,000	학부모와 협의(동의서 징구)
동작구		180,000	180,000
마포구		180,000	50,000
서대문구		180,000	60,000
서초구		150,000	150,000
성동구		200,000	100,000
성북구		150,000	70,000
송파구		월 30,000 이내	150,000 이내
양천구		180,000	90,000
영등포구		200,000	110,000
용산구		180,000	90,000
은평구		만3세미만 180,000 만3세이상 200,000	90,000
종로구		200,000	80,000
중구		180,000	80,000
중랑구		150,000	80,000

나) 보육료 지원

부모 보육료 지원은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무상보육 및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보육료 차등 지원을 보면, 정부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은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고, 17) 2009년 7월부터는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09년 6월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하고, 하위소득 50%를 초과하고 60%까지는 기준단가의 60%, 하위소득 60%를 초과하고 70%까지는 기준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가족 소득 기준으로 각각 258만원, 339만원, 436만원이다(표 II-3-6 참조).

〈표 II-3-6〉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6	2009. 7.부터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10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100(하위소득 50%)
	70%까지	-	-	-				60(하위소득 60%)
5층	100%까지	-	-	-	-	20	30	30(하위소득 70%)
6층	130%까지	-	-	-	-	-	-	-

무상보육으로는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

17)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음. 2006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100%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100%, 3층에 80%, 4층에는 60%, 5층에는 30%를 지원하였음.

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¹⁸⁾ 2009년 현재에는 보육아동 7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소득인정액 4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의 20%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현재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 등 부모 보육료 지원은 유아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수는, 차등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의 2008년 말 기준으로 59만 2천여명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1.7%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0세아의 비율이 다소 낮다(표 II-3-7 참조). 이는 보육시설 이용 0세아의 부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맞벌이가 많아서 지원 소득기준 범주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3-7〉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 2006~2008

단위: 명, %

구 분	차등보육료						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이상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9,245	160,320	242,324	229,424	192,668	36,198	960,179
보육료 지원 아동수(B)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19,653	592,256
보육료 지원 비율(B/A)	53.5	62.0	62.8	63.2	63.8	54.3	61.7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61,318	920,371
보육료 지원 아동수(B)	34,985	78,245	141,917	154,957	139,376	37,356	586,836
보육료 지원비율(B/A)	50.8	63.8	63.9	65.1	67.2	60.9	63.8
2006년							
전체 보육 아동수(A)	46,351	102,473	201,111	221,529	219,974	50,292	841,73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21,947	56,654	108,054	122,188	120,265	34,759	463,867
보육료 지원 비율(B/A)	47.3	55.3	53.7	55.2	54.7	69.1	55.1

차등보육료 이외 만5세아, 두자녀 이상 기관 이용시 지원, 장애아 무상 등 보육료

18)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건수는 영유아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에 3만 4천건이었으나 2008년 12월 기준으로 73만건으로, 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64.3%이다(표 II-3-8 참조).

〈표 II-3-8〉 보육료 지원 건 수: 2006~2008

단위: 건, %

구분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지원	두자녀 이상	장애아	총계
2008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5,323	-	-	1,135,502
보육료 지원 건수(B)	592,256	122,858	(108,500)	15,644	730,758
비율(B/A)	61.7	70.1	-	-	64.3
2007년					
전체 보육 아동수(A)	920,371	179,562	-	-	1,099,933
보육료 지원 건수(B)	586,836	145,303	(109,599)	17,615	749,754
비율(B/A)	63.8	80.9	-	-	68.2
2006년					
전체 보육아동수(A)	841,730	198,631	-	-	1,040,361
보육료 지원 건수(B)	463,867	139,031	(63,745)	14,093	616,991
비율(B/A)	55.1	70.0	-	-	59.3

주: 보육료 지원은 건수이므로 아동 대비 비율 해석상 주의를 요함. ()는 중복지원임.

다음 <표 II-3-9>는 e-보육시스템에서 환산한 2009년 4월 현재 보육아동의 보육료 지원유형별 백분율을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전체 101만 아동 중 42.4%가 지원을 받지 않고 57.6%가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인데, 비율로는 2층 및 만5세아가 1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과 민간개인, 법인의 보육시설이 보육비 지원아동이 많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오히려 낮다. 시·도별로는 전북, 전남, 경북, 대구, 부산의 지원 아동이 70% 수준인데 비하여 서울은 45% 수준이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의 농·어업인 가구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이다.¹⁹⁾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추가하여 각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셋째아 이상 자녀, 부산시는 둘째 자녀 이상

19) '06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도입, 보육시설 미이용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였고, '08년부터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함.

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표 II-3-9〉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사유 백분율 분포(2009.4)

단위: %(명)

구분	일반	1층	2층	3층	4층	5층	두자녀	만5세아	장애아	동립부 지원	계	(수)
전체	42.4	3.5	16.4	8.1	9.2	8.0	(8.5)	10.9	1.4	0.1	100.0	(1,009,654)
시설유형												
국공립	47.1	3.1	13.0	6.7	7.8	7.2	(6.1)	12.8	2.3	-	100.0	(120,798)
법인	32.8	3.8	18.8	8.5	9.0	7.6	(8.1)	14.8	4.4	0.2	100.0	(100,356)
법인의외	41.6	4.8	17.2	7.2	7.9	6.5	(6.8)	13.2	1.4	0.2	100.0	(49,328)
민간개인	37.6	3.7	17.5	8.7	9.9	8.5	(7.8)	13.1	0.9	0.1	100.0	(544,560)
직장	88.6	0.4	1.8	1.1	2.1	3.5	(2.3)	2.3	0.2	-	100.0	(18,029)
가정	54.3	2.7	15.5	8.1	9.5	8.3	(13.4)	0.8	0.8	0.0	100.0	(174,987)
부모협동	86.5	0.1	2.3	1.5	2.6	2.7	(2.4)	3.2	1.1	-	100.0	(1,491)
시도												
서울	54.9	3.7	12.7	6.0	6.7	5.7	(5.6)	9.0	1.3	-	100.0	(175,513)
부산	32.4	5.3	18.3	9.9	11.0	9.4	(9.3)	11.8	1.9	-	100.0	(54,132)
대구	29.3	4.1	22.8	10.5	11.0	9.3	(8.9)	10.6	2.3	-	100.0	(48,904)
인천	41.0	3.3	16.4	8.1	9.8	8.2	(8.3)	11.9	1.3	-	100.0	(49,862)
광주	34.3	4.0	13.8	11.0	11.1	8.2	(11.1)	15.4	1.9	-	100.0	(37,329)
대전	40.5	3.3	17.1	9.9	10.1	8.4	(10.3)	9.6	1.1	-	100.0	(31,688)
울산	49.3	2.2	10.8	7.5	10.6	10.6	(8.7)	6.5	2.5	-	100.0	(20,302)
경기	51.7	2.1	11.7	6.9	8.7	8.1	(8.3)	9.7	1.1	-	100.0	(241,117)
강원	34.3	3.5	19.2	9.0	10.1	8.8	(8.7)	13.9	1.0	0.2	100.0	(33,143)
충북	34.9	3.2	19.0	8.5	10.1	8.9	(8.9)	14.3	1.0	0.1	100.0	(36,637)
충남	40.3	3.5	17.1	8.0	9.2	8.5	(8.6)	12.0	1.2	0.2	100.0	(44,768)
전북	28.3	5.5	26.8	8.6	8.3	6.7	(9.1)	14.4	1.2	0.2	100.0	(48,446)
전남	30.4	4.2	23.9	9.0	8.8	6.8	(9.5)	14.9	1.7	0.3	100.0	(43,963)
경북	30.9	4.1	22.3	9.6	10.6	9.6	(9.3)	10.8	2.0	0.1	100.0	(55,004)
경남	35.6	3.3	18.6	9.0	11.2	10.2	(11.3)	10.0	1.6	0.1	100.0	(68,519)
제주	40.8	3.9	19.4	10.0	8.8	6.0	(9.3)	8.8	1.4	0.9	100.0	(19,976)

주: 두자녀 지원은 중복지원임.

한편, 부모보육료 지원 방식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는 형태에서 2009년 9월부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차등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시설로 직접 비용이 이전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36조²⁰⁾에 명시된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구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정부지원에 대한 수혜체감도가

20)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낮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정부지원 대상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많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과 관련된 각종 규제 생산 및 관리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에 직접 지원하던 전달방식을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전환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아이사랑포털(부모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통합정보시스템과 함께 구축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는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나. 보육 재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정책의 확대로 보육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되었다. <표 II-3-10>은 2005년 이후 중앙정부의 항목별 보육사업 예산이다.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국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은 1조 3229억원, 2006년은 1조 7236억원, 2007년은 2조 2866억원, 2008년은 2조 9916억원이며 2009년에는 3조 57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3-10>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 정부 예산: 2005~2009

단위: 백만원

내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596,865	672,563	554,824	658,368	753,082
	차량운영비	2,944	8,100	8,210	8,429	9,893
	교재교구비	22,559	24,546	22,000	21,896	22,609
	기본보조금	-	-	306,303	530,472	-
	소계	622,368	705,209	891,337	1,219,165	785,584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365,848	590,840	897,452	1,254,762	2,109,618
	5세아 무상보육	163,363	274,490	280,901	262,783	281,906
	장애아무상보육	31,274	61,043	71,543	66,577	105,602
	두자녀보육료	13,447	19,606	47,059	98,594	172,116
	소계	1,182,853	1,631,582	1,296,956	1,682,716	2,669,242
보육시설 기능 보강		120,291	67,189	83,263	65,197	41,978
인프라 구축 등 기타		6,383	5,237	15,100	24,615	8,205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	-	-	68,802
계		1,322,974	1,723,614	2,286,656	2,991,693	3,573,811

주: 국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시·도 및 시·군·구 특별사업 예산은 제외된 것임.

2009년도 보육예산 중 22.0%인 7855억원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고 74.7%인 2조 6692억원이 보육료 지원금이다. 또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보육사업이 실시된 1990년 이후 보육사업 예산의 증가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의 확대도 관계가 있으나 그 보다는 보육료 지원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보육예산 이외에 각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사업 실시에 따라 소요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산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시·도 사업비 3780억원, 시·군·구 사업비 1327억원이다. 이는 각각 국고사업비의 10.6%, 3.7%로 모두 14.3%이다. 국고사업 예산 대비 특수사업 비용 비율은 2008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이나 그 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21)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 분담금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3-11>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5~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 사업비(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 사업비(C/A)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주: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관련 자료.

<표 II-3-12>는 2009년도 보육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지방과 중앙정부의 재원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 추정 예산 4조 900억원 중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의 41.4%를 분담하고 시·도가 27.7%, 시·군·구가 30.9%를 분담하고 있다.

<표 II-3-13>은 2009년도 보육, 유아교육, 농어민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세 부처의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총 예산은 5조 4000억 규모로 GDP 대비 0.53%이다.

21) 2003년과 2004년에는 20% 이상이었음.

〈표 II-3-12〉 시·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9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			계
	중앙	시·도	시·군·구	
국고지원사업	1,692,919	938,729	938,729	3,570,377
시·도 사업	-	193,527	193,527	387,054
시·군·구 사업	-	-	132,662	132,662
계	1,692,919	1,132,256	1,264,918	4,090,093
(비율)	(41.4)	(27.7)	(30.9)	(100.0)

〈표 II-3-13〉 보육·유아교육 및 농업인 양육비 지원 예산(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지방비	계	GDP 대비 비율
보육	1,692,919	2,397,174	4,090,093	0.389
유아교육	120	1,235,323	1,235,443	0.121
농업인양육비	40,648	40,648	81,296	0.008
계	1,733,687	3,673,145	5,406,832	0.528

주: 2009년 GDP는 200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2009년 예산 중 양육수당 예산은 제외됨.

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제3장은 가구조사와 아동단위 결과에 기초한 아동 가구와 부모, 아동 등 가구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이하 가구와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가구의 특성을 다루었으며, 제2절에서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및 근로 특성을 제시하고, 제3절에서는 아동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1. 가구의 특성

조사 대상 전체 14,800여 가구 중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는 4,898가구이다. 가장 어린 자녀가 영유아인 영유아 가구가 2,548가구이고, 가장 나이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인 가구가 2,350가구이다. 영아가 있는 가구가 30.7%이고 유아가 있는 가구가 30.8%이다.

초등학교 이하 보육·교육 대상 아동을 둔 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모 취업 등이 이러한 연령대의 아동이 없는 가구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절에서는 이들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영유아와 초등학교의 발달과 대상 정책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 가구 규모 및 가구원 구성

1) 가구 규모

본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지역 중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규모는 평균 3.99명으로²²⁾ 4명인 가구가 4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3명인 가구가 32.0%, 5명 가구 16.3%, 6명 이상 7.4%의 순이다. 이러한 가구규모는

2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혈연가구의 가구원수 평균은 3.4명임. 그러나 본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이므로 단독 가구, 부부가구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평균 가구원 수가 높음. 이렇듯, 조사대상자가 전체인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대상자 특성은 전체 인구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서 읍·면은 5명가구가 22.5%, 6명 이상 11.5%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높고 마찬가지로 평균도 읍·면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아동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가구원수								
2명	1.1	1.4	0.5	1.1	2.6	2.1	1.6	1.9
3명	34.4	32.5	24.8	32.0	27.8	26.1	23.9	26.5
4명	44.4	43.0	40.7	43.2	47.9	48.3	42.5	47.2
5명	13.9	16.3	22.5	16.3	15.9	17.5	22.1	17.5
6명	6.2	6.7	11.5	7.4	5.8	6.0	10.0	6.9
평균	3.91	3.96	4.27	3.99	3.95	4.00	4.20	4.01
(표준편차)	(0.92)	(0.94)	(1.12)	(0.97)	(0.91)	(0.91)	(1.07)	(0.94)
아동수								
1명	45.9	42.8	37.7	43.3	56.4	53.0	49.6	54.0
2명	47.4	46.9	47.8	47.3	39.8	40.7	41.2	40.4
3명 이상	6.7	10.3	14.5	9.4	3.8	6.3	9.2	5.7
영아								
없음	40.6	42.4	41.7	41.5	69.9	69.3	69.2	69.6
1명	52.7	52.1	53.4	52.6	26.7	27.8	28.2	27.4
2명 이상	6.7	5.5	4.8	5.9	3.4	2.9	2.5	2.1
유아								
없음	43.7	39.5	39.2	41.3	71.5	67.7	67.9	69.5
1명	51.5	54.0	52.5	52.6	26.1	28.8	27.7	27.4
2명 이상	4.8	6.5	8.3	6.0	2.4	3.5	4.4	3.1
초등학생								
없음	68.8	68.3	62.8	67.6	34.8	36.4	33.2	35.2
1명	28.2	25.6	28.7	27.3	47.5	43.8	44.8	45.7
2명 이상	3.0	6.0	8.5	5.1	17.7	19.8	21.9	1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25)	(4,898)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 규모는 영유아가구보다는 약간 높아서 평균 4.01명이다. 가구수별 분포는 4명인 가구가 47.2%로 가장 많고, 다음이 3명인 가구가 26.5%, 5명 가구 17.5%, 6명 이상 6.9%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영유아가구와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여서 읍·면은 5명가구가 22.1%, 6명 이상 10.0%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높고 평균도 4.2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2004년 조사와 비교하면 4명인 가구가 5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3명인 가구가

22.8%, 5명 가구 15.8%, 6명 이상 5.9%의 순과 비교하여 4인가구가 감소하고 3인가구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2) 가구형태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는 한부모 가구가 4.9%이고 확대가족이 13.5%이다.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0.5%이고 읍·면이 1.8%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읍·면은 3세대 이상 가구가 19.3%로 대도시 13.2%, 중소도시 11.3%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표 III-1-2 참조).

초등학생 이하 전체로 가구의 형태를 보면 영유아 가구에 비하여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4%, 한부모 가구가 8.8%로 영유아 가구만 보았을 때보다 비율이 높다.

〈표 III-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부+자녀	82.2	83.0	72.9	81.1	78.7	79.4	71.4	77.7
한부모+자녀	4.2	5.4	5.8	4.9	8.8	8.9	8.4	8.8
3세대 이상	13.2	11.3	19.3	13.5	11.7	10.4	16.4	12.0
(한)조부모+자녀	0.4	0.2	1.8	0.5	0.8	1.1	3.6	1.4
친인척+자녀	-	0.1	-	-	-	0.2	0.1	0.1
기타	-	-	0.2	-	-	-	0.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3) 동거 가구원

조사대상 가구의 부모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보면, 영유아 가구로는 부 비동거 3.6%, 모 비동거 2.6%이고, 친조부모 동거는 조모는 10.6% 조부는 6.5%가 동거하며, 외조부모 동거는 외조모는 4.8%, 외조부는 2.2%가 동거한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이 부의 비동거 비율이 높고, 조부모, 특히 친조모의 동거 비율이 19.3%로 현저하게 높다(표 III-1-3 참조).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로는 부 비동거 7.1%, 모 비동거 4.8%로 영유아 가구보다 부모 비동거 비율이 높고, 조부모 동거는 친조모는 11.1%, 친조부는 6.2%가 동거하

며, 외조부모는 외조모 4.3%, 외조부 2.0%가 동거하여 영유아가구보다 동거 비율이 낮다. 지역적으로는 영유아가구만 보았을 때와 동일하게 읍·면이 모의 비동거 비율이 높고, 조부모, 특히 친조모의 동거 비율이 19.5%로 높다.

〈표 III-1-3〉 아동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96.7	96.4	95.2	96.4	93.1	92.9	92.2	92.9
모	98.3	97.5	95.0	97.4	96.3	95.5	91.8	95.2
친조부	6.4	3.7	12.8	6.5	6.0	4.2	11.3	6.2
친조모	9.7	7.9	19.3	10.6	9.5	9.3	19.5	11.1
외조부	2.0	1.9	3.4	2.2	2.1	1.9	2.3	2.0
외조모	4.6	4.7	5.3	4.8	4.6	4.1	3.9	4.3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나. 주택 특성

1) 주택형태

영유아 가구의 주택 형태는 단독 27.8%, 아파트 52.4%이고, 연립주택 1.3%, 다세대주택 16.5%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단독주택은 읍·면에, 아파트는 중소도시에서 비율이 높다(표 III-1-4 참조). 아동 가구 전체로도 단독주택 비율이 약간 높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표 III-1-4〉 아동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단독주택	26.6	25.5	36.1	27.8	26.6	27.6	39.0	29.1
아파트	46.4	61.3	47.8	52.4	48.4	59.0	43.4	51.5
연립주택	0.3	3.0	0.5	1.3	0.4	3.8	0.6	1.6
다세대	24.0	9.2	13.3	16.5	21.4	9.0	13.7	15.5
영업용 건물 내	2.7	1.0	2.1	2.0	3.2	0.8	3.3	2.3
기타	-	-	0.2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2) 주택소유여부

영유아가구의 거주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44.2%, 전세 32.8%이고, 전월세 14.5%, 사글세 1.6%이다. 지역별로는 자가 비율이 읍·면이 다소 높다. 한편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소유만으로 보면 약 9%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지만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무주택 비율은 46.8%이다(표 III-1-5 참조).

초등학생 이하 가구는 거주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48.8%, 전세 28.9%이고, 전·월세 14.2%, 사글세 1.9%이다. 지역별로는 영유아가구와 마찬가지로 자가비율은 읍·면이 다소 높다.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곳에서 전·월세를 사는 비율도 9% 수준으로 유사한데, 무주택 비율은 42.2%로 영유아만 보았을 때보다 낮다.

〈표 III-1-5〉 아동 가구의 주택소유 특성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거주주택형태								
자가	41.1	43.1	54.6	44.2	45.8	48.0	59.2	48.8
전세	37.0	34.2	18.6	32.8	33.9	29.4	14.4	28.9
전·월세	14.3	15.2	13.5	14.5	13.8	15.8	11.8	14.2
사글세	1.1	1.9	2.5	1.6	1.2	1.8	3.9	1.9
기타	6.5	5.6	10.8	6.9	5.3	5.0	10.7	6.2
주택소유								
거주 주택소유	41.1	43.3	55.0	44.3	45.8	48.0	59.2	48.8
타 주택 소유	10.3	8.7	5.5	8.9	10.7	8.6	5.2	9.0
비소유	48.6	48.0	39.5	46.8	43.5	43.4	35.6	4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 중 2.3%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읍·면이 도시보다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서로 비율이 높아진다. 초등학생 전체 가구로는 3.4%로 영유아 가구보다 비

율이 높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아동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급여 대상	1.7	2.7	3.0	2.3	2.9	4.0	3.6	3.4
비급여	98.3	97.3	97.0	97.7	97.1	96.0	96.4	9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2) 소득 수준

가) 지역별 소득수준

〈표 III-1-7〉은 지역별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평균 297만 2천원이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 전체로는 314만1천원이다.

〈표 III-1-7〉 지역별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99만원 이하	4.2	5.4	6.2	5.0	5.2	6.0	6.8	5.8
100~149만원	8.8	9.2	10.3	9.2	7.7	8.5	10.9	8.6
150~199만원	15.4	16.9	19.3	16.6	12.9	14.7	17.0	14.3
200~249만원	13.6	14.8	17.9	14.9	12.1	14.1	18.3	13.9
250~299만원	12.3	13.6	9.9	12.4	11.2	12.5	9.4	11.3
300~349만원	12.2	13.2	14.4	12.8	13.3	13.4	11.9	13.0
350~399만원	5.6	5.9	7.6	6.1	6.6	6.9	7.8	6.9
400~499만원	10.5	9.9	7.1	9.7	11.7	10.5	7.5	10.6
500~599만원	6.9	5.7	4.8	6.1	7.7	6.8	5.8	7.0
600만원 이상	10.5	5.4	2.5	7.2	11.6	6.6	4.6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평균	321.0	286.1	260.3	297.2	340.5	299.4	274.7	314.1
(표준편차)	(208.8)	(175.3)	(139.0)	(187.1)	(234.7)	(186.8)	(191.8)	(212.4)

영유아가구는 월 평균 150만원 미만인 14.2%, 150~199만원이 16.6%, 200~249만원이 14.9%로 150~249만원 사이에 31.5%이며, 249만원 이하가 45.7%이다. 500만원 이상이 13.3%이며, 600만원 이상이 7.2%이다. 지역별로는 지역규모별로 월 평균 소득이 낮아서, 대도시 321만원, 중소도시 286만원, 읍·면 2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7 참조).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는 월 평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314만천원으로 150만원 미만이 14.4%, 600만원 이상이 8.6%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40만원, 중소도시 299만원, 읍·면 275만원으로 영유아 가구에 비하여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7 참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2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은 각각 347만 6천원, 329만 9천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본 조사의 아동들 둔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나) 모 취업여부별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별로 아동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취업모의 소득수준은 전체 평균은 381만원 수준이고 표준편차는 225만원으로 편차가 크며, 모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는 월평균 소득과 표준편차가 각각 254만원, 143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모부재인 가구는 월 평균소득 99만원 이하는 18.5%에 달한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차이는 127만원이다(표 III-1-8 참조).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로 보면 취업모 가구의 소득 월평균 370만 6천원이고 미취업모 가구는 280만원 수준이며, 모부재 가구는 168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차이는 90만원으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산출했을 경우보다 격차가 낮아졌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가구소득 차이는 영유아 가구가 초등학생 전체 가구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현상은 영아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영아 보육비용을 포함한 기대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른 모의 취업률의 증가가 주로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의 취업 비율 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및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표 III-1-8〉 모 취업여부별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취업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부재	전체
99만원 이하	3.5	5.4	18.5	5.1	3.8	5.5	26.5	5.8
100~149만원	6.4	10.3	21.5	9.2	6.9	8.8	21.4	8.6
150~199만원	8.7	21.0	21.5	16.6	10.2	17.4	18.5	14.3
200~249만원	10.1	17.6	16.9	14.9	10.6	16.4	15.5	13.9
250~299만원	10.6	13.8	6.2	12.4	10.4	12.7	4.7	11.4
300~349만원	12.6	13.2	6.2	12.8	12.9	14.0	4.6	13.1
350~399만원	6.7	5.9	3.1	6.1	7.9	6.3	3.8	6.9
400~499만원	15.9	6.2	4.6	9.6	13.7	8.6	2.9	10.6
500~599만원	10.5	3.8	-	6.1	9.7	5.4	0.8	7.0
600만원 이상	15.0	2.8	1.5	7.2	13.9	4.9	1.3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11)	(1,568)	(65)	(2,455)	(2,128)	(2,533)	(238)	(4,899)
평균	380.5	253.7	187.1	297.2	370.6	280.3	168.4	314.1
(표준편차)	(224.9)	(143.3)	(121.1)	(187.1)	(239.3)	(179.4)	(113.4)	(212.4)

한편, 다음 <표 III-1-9>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아동 개인을 단위로 모의 취업상태별 가구소득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소 숫자상의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 가구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III-1-9〉 영유아 모의 취업여부별 소득 수준

단위: %(명)

구 분	~99 만원	100~ 149만원	150~ 199만원	200~ 249만원	250~ 299만원	300~ 349만원	35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만원~	전체
전체	4.8	9.2	17.0	15.0	12.4	12.9	6.3	9.4	6.1	6.9	100.0(3,304)
모취업	3.4	6.3	8.8	10.2	10.8	12.1	6.6	15.4	10.9	15.5	100.0(1,113)
미취업	5.2	10.3	21.0	17.5	13.5	13.6	6.2	6.4	3.8	2.5	100.0(2,116)
모부재	16.0	22.7	25.3	16.0	5.3	4.1	5.3	4.0	-	1.3	100.0(7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다)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영유아가 있는 가구 전체의 평균은 297만2천원인데, 가구규모별로는 2인 가구가 평균 110만3천원, 3인 가구가 평균 283만1천원, 4인 가구가 평균 297만 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빈도 분포로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150만원 이하가 13.1%이다(표

III-1-10 참조).

〈표 III-1-10〉 가구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X^2(df)$
99만원 이하	46.7	5.4	3.7	4.8	4.8	5.0	190.4(36)**
100~149만원	26.7	9.7	9.4	7.7	6.4	9.2	
150~199만원	10.0	19.7	15.2	17.8	10.6	16.6	
200~249만원	13.3	15.7	15.4	13.0	11.7	14.8	
250~299만원	-	11.8	14.0	12.8	6.9	12.4	
300~349만원	3.3	11.2	13.7	14.3	14.9	12.9	
350~399만원	-	5.4	6.7	4.1	10.6	6.1	
400~499만원	-	8.8	9.5	11.3	11.7	9.7	
500~599만원	-	5.7	5.6	7.7	8.0	6.1	
600만원 이상	-	6.6	6.8	6.5	14.4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0)	(814)	(1,101)	(415)	(188)	(2,548)	
평균	110.3	283.1	297.4	309.0	360.3	297.2	
(표준편차)	(64.9)	(179.9)	(181.1)	(198.1)	(212.3)	(187.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표 III-1-11〉 가구규모별 초등학교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X^2(df)$
99만원 이하	42.3	8.0	3.8	4.0	3.4	5.8	460.6(36)**
100~149만원	22.5	11.1	7.5	7.1	5.0	8.6	
150~199만원	16.2	17.3	12.4	15.4	12.5	14.3	
200~249만원	9.0	14.3	14.5	12.6	13.7	13.9	
250~299만원	2.7	10.5	12.3	12.0	8.4	11.2	
300~349만원	6.4	11.0	14.6	12.7	13.5	13.1	
350~399만원	-	5.3	7.5	6.3	11.8	6.8	
400~499만원	-	8.6	11.3	12.7	11.2	10.6	
500~599만원	0.9	6.5	7.3	8.4	6.5	7.1	
600만원 이상	-	7.4	8.8	8.8	14.0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	(1,297)	(2,310)	(859)	(321)	(4,898)	
평균	124.7	286.8	326.5	329.0	359.7	314.1	
(표준편차)	(83.7)	(200.9)	(218.4)	(208.0)	(212.0)	(212.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326만5천원으로 산출되어, 영유아가구보다 평균 29만1천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I-1-11 참조).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우리나라 4인 가구의 명목소득 각각 396만 7천원, 377만 4천원과 비교하면,²³⁾ 영유아 가구는 물론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에 비하여 월평균 소득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2) 지출

가) 지역별 지출수준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40만원으로 소득과의 차이는 57만원이다. 분포는 150~199만원, 200~249만원이 각각 20.9%, 20.4%로 가장 많다. 한 달 지출액은 99만원 이하가 4.1%, 100~149만원이 12.5%이다(표 III-1-12 참조).

〈표 III-1-12〉 지역별 아동 가구의 월평균 지출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99만원 이하	3.4	4.8	4.3	4.1	4.1	5.0	5.5	4.7
100~149만원	11.3	12.6	15.5	12.5	9.7	10.9	13.6	10.8
150~199만원	21.1	19.1	24.7	20.9	16.7	17.6	24.0	18.3
200~249만원	19.8	20.4	21.7	20.4	18.0	20.1	20.8	19.3
250~299만원	12.8	16.4	11.9	14.0	13.3	15.7	11.4	13.8
300~349만원	12.9	11.5	11.4	12.1	15.4	13.3	11.4	14.0
350~399만원	5.4	5.4	4.3	5.2	6.0	5.7	4.8	5.7
400~499만원	7.4	5.4	4.4	6.2	9.3	6.8	5.0	7.5
500~599만원	3.3	3.1	0.9	2.8	4.0	3.2	2.3	3.4
600만원 이상	2.6	1.3	0.9	1.8	3.5	1.7	1.2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5)	(977)	(436)	(2,548)	(2,242)	(1,831)	(815)	(4,898)
평균	253.7	234.4	217.4	240.1	269.6	243.0	227.1	252.5
(표준편차)	(164.4)	(109.1)	(103.7)	(136.5)	(164.8)	(115.3)	(131.0)	(143.4)

23) 1/4분기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468,256원, 3인 가구는 3,446,545원임. 아동가구는 1인 가구가 없으므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평균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지역별로는 대도시 253만 7천원, 중소도시 234만 4천원, 읍·면 217만 4천원으로 조사되어,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평균 소득이 낮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까지 전체를 보면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52만 5천원으로 영유아 가구보다 12만 4천원 정도 높아 소득과의 격차는 62만원 정도이다. 분포는 150~199만원, 200~249만원이 각각 18.3%, 19.3%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269만 6천원, 중소도시 243만원, 읍·면 227만 1천원으로 조사되어, 영유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평균 지출이 낮다(표 III-1-12 참조).

나) 모 취업여부별 지출수준

모의 취업여부별로 아동가구의 지출 수준을 보면 영유아 취업모 가구의 지출수준은 전체 평균은 286만 8천원 수준이고 표준편차가 177만 8천원으로 편차가 크며 모가 미취업인 경우는 각각 216만3천원, 98만 1천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가구의 평균 가구 지출은 차이는 70만 5천원이다. 모부재 가구는 99만원 이하가 19.4%로 비율이 높다(표 III-1-13 참조).

〈표 III-1-13〉 모 취업여부별 아동 가구의 지출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99만원 이하	3.4	3.9	19.4	4.2	3.3	3.9	25.8	4.7
100~149만원	6.9	15.3	22.4	12.5	7.8	12.0	26.7	10.8
150~199만원	12.7	25.5	25.4	20.9	13.8	21.8	19.9	18.3
200~249만원	19.3	21.2	14.9	20.4	18.5	20.5	12.7	19.3
250~299만원	14.6	14.0	6.0	14.0	14.1	14.3	5.9	13.8
300~349만원	15.2	10.4	10.4	12.1	16.5	12.5	7.3	14.0
350~399만원	9.0	3.3	-	5.2	7.6	4.6	0.2	5.6
400~499만원	10.4	3.9	-	6.1	10.3	6.0	0.4	7.6
500~599만원	5.1	1.5	-	2.8	4.8	2.5	0.4	3.4
600만원 이상	3.4	1.0	1.5	1.8	3.3	1.9	0.4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13)	(1,573)	(67)	(2,553)	(2,128)	(2,532)	(236)	(4,896)
$X^2(df)$	271.6(18)**				509.2(18)**			
평균	286.8	216.3	162.4	240.1	281.0	238.1	150.4	252.5
(표준편차)	(177.8)	(98.1)	(71.6)	(136.8)	(163.8)	(121.7)	(77.1)	(14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다) 가구규모별 지출수준

가구 규모별 가구 지출 수준을 보면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4인 가족이 평균 241만8천원으로 산출되었고,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4인 가족이 평균 261만9천원으로 산출되었다(표 III-1-14 참조).

〈표 III-1-14〉 가구규모별 가구의 지출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chi^2(df)$
영유아가구							
99만원 이하	48.3	5.8	2.1	4.1	2.7	4.2	269.8(36)**
100~149만원	20.7	15.0	13.0	8.2	7.4	12.5	
150~199만원	17.3	26.4	19.3	19.2	11.1	20.9	
200~249만원	6.9	20.7	21.9	18.1	17.0	20.4	
250~299만원	-	10.4	16.0	16.4	14.4	14.0	
300~349만원	3.4	10.5	11.9	14.0	16.5	12.1	
350~399만원	-	3.6	5.3	6.7	9.6	5.2	
400~499만원	-	4.7	5.7	7.7	11.7	6.1	
500~599만원	-	1.8	3.0	3.4	5.3	2.8	
600만원 이상	3.4	1.1	1.8	2.2	4.3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9)	(816)	(1,099)	(415)	(188)	(2,547)	
평균	115.1	215.0	241.8	260.7	312.2	240.1	
(표준편차)	(57.9)	(102.7)	(116.1)	(134.8)	(276.4)	(136.5)	
초등학생이하 아동가구							
99만원 이하	36.9	8.2	2.4	2.5	1.6	4.7	608.3(36)**
100~149만원	34.2	15.3	9.5	6.4	6.3	10.8	
150~199만원	13.5	23.4	16.7	17.2	13.1	18.2	
200~249만원	8.1	19.0	20.6	18.5	16.9	19.3	
250~299만원	2.7	9.9	15.9	15.2	15.3	13.9	
300~349만원	2.8	12.1	14.4	15.6	17.1	13.9	
350~399만원	-	3.7	6.0	7.2	9.7	5.7	
400~499만원	0.9	4.5	8.4	9.9	10.0	7.6	
500~599만원	-	2.6	3.5	4.2	5.3	3.4	
600만원 이상	0.9	1.3	2.6	3.3	4.7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	(1297)	(2310)	(856)	(320)	(4894)	
평균	121.6	218.0	261.9	276.1	305.7	252.5	
(표준편차)	(61.3)	(117.2)	(139.3)	(136.4)	(228.3)	(14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2. 부모의 특성

가. 부모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서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모가 부재인 경우를 제외한 아동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표 III-2-1〉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7.3	8.5	10.0	8.2	21.0	20.7	22.4	21.1
30~34세	32.7	31.7	27.4	31.4	42.3	43.1	38.9	42.0
35~39세	41.9	40.2	38.9	40.7	30.5	28.8	30.5	29.8
40~44세	14.8	15.5	18.4	15.7	5.4	6.4	7.3	6.1
45세 이상	3.3	4.2	5.3	4.0	0.8	1.2	0.9	1.0
평균(표준편차)	35.7(4.5)	35.8(4.7)	36.2(5.2)	35.8(4.7)	33.0(4.3)	33.1(4.9)	32.9(4.9)	33.0(4.5)
결혼상태								
미혼	-	0.2	0.2	0.1	0.2	0.2	0.2	0.2
유배우	97.3	97.1	95.5	96.9	96.6	96.5	94.1	96.2
사별·별거·이혼	2.7	2.6	4.3	3.0	3.2	3.2	5.6	3.6
학력								
무	-	-	-	-	-	0.2	0.2	0.1
초	0.2	0.6	1.4	0.6	0.4	0.9	1.4	0.8
중	1.7	2.3	6.0	2.7	2.0	2.2	4.5	2.5
고	35.7	38.5	48.3	38.9	40.1	43.6	53.2	43.7
3년대	14.1	16.7	14.0	15.1	16.9	22.3	21.0	19.7
4년대	40.2	36.4	27.4	36.6	36.0	28.0	17.5	29.8
대학원 이상	8.1	5.4	2.9	6.1	4.7	2.7	2.1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1)	(943)	(420)	(2,475)	(1,119)	(952)	(424)	(2,495)

<표 III-2-1>은 조사대상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먼저 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35.8세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결혼상태는 96.9%가 유배우 상태이며,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교육정도는 대학 이상이 57.8%, 고등학교 수준은 38.9%이며, 중학 이하는 3.3%이다. 학력은 읍·면지역은 대학 이상이 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읍·면이 도시보다 배우자 부재 비율이 비교적 높다.

영유아 모의 특성으로, 연령은 71.8%가 30대로 평균 33.0세이며, 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차이는 거의 없다. 결혼상태는 96.2%가 유배우 상태이며 학력은 고등학교가 43.7%로 가장 많고 52.9%가 대학 이상인데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4년제 이상 학력 비율이 높다. 읍·면이 배우자 부재 비율이 5.6%로 비교적 높다(표 III-2-1 참조).

<표 III-2-2> 초등학교 이하 아동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3.9	5.0	5.4	4.6	11.5	11.9	13.0	11.9
30~34세	18.7	19.1	17.6	18.7	26.3	28.0	26.7	27.0
35~39세	33.5	34.1	34.3	33.9	38.9	37.6	35.7	37.9
40~44세	31.1	28.6	26.9	29.4	18.5	17.3	19.2	18.2
45세 이상	12.8	13.3	15.7	13.5	4.8	5.2	5.3	5.0
평균(표준편차)	38.6(5.4)	38.5(5.5)	38.7(5.7)	38.6(5.5)	35.9(5.1)	35.7(5.2)	35.6(5.6)	35.8(5.3)
결혼상태								
미혼	-	0.1	0.1	0.1	0.1	0.1	0.1	0.1
유배우	94.6	94.9	91.9	94.2	93.5	93.2	93.4	93.4
사별·별거·이혼	5.3	4.8	8.1	5.7	5.6	7.6	6.4	6.0
학력								
무	-	0.1	-	-	-	0.2	0.1	0.1
초	0.6	1.2	2.3	1.1	0.4	1.3	1.7	1.0
중	2.8	3.0	7.7	3.7	2.5	3.6	6.6	3.6
고	37.6	43.2	53.0	42.3	47.0	50.0	57.4	49.8
3년대	12.3	14.4	11.9	13.0	13.6	17.6	16.1	15.5
4년대	38.7	32.4	22.5	33.6	32.8	24.9	16.0	27.1
대학원 이상	8.0	5.8	2.5	6.3	3.6	2.5	2.1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7)	(1,731)	(788)	(4,656)	(2,166)	(1,763)	(774)	(4,703)

<표 III-2-2>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영유아가구만 보았을 때보다 부모의 연령은 높고 학력은 낮으며 유배유율은 낮다. 먼저 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38.6세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결혼상태는 94.2%가 유배우 상태이며 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교육정도는 대학 이상이 52.9%이다. 학력은 읍·면지역은 고졸 비율이 높고 대학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모는 연령이 평균은 35.8세이다. 결혼상태는 93.4%가 유배우 상태이며, 학력은 고등학교가 49.8%로 가장 많고 대학이상이 45.6%인데,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4년제 이상 학력 비율이 높다(표 III-2-2 참조).

2) 건강 특성

영유아 가구 부모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부는 96.3%가 이상이 없고 1.8%가 장애, 1.8%가 질병, 그리고 0.1%가 질병과 장애가 있다고 하였고, 모는 전체 중 장애가 있다는 비율은 0.7%, 질병이 있다 1.4%로 2.1%만이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초등학생이하 전체 가구로 보아도 영유아 가구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아동 부모의 건강 특성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아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장애	0.8	2.4	2.9	1.8	1.2	2.5	2.7	1.9
질병	1.5	2.2	1.4	1.8	1.8	2.6	1.4	1.9
장애 및 질병	0.3	0.2	-	0.1	0.3	0.1	0.1	0.2
양호	97.4	95.2	95.7	96.3	96.7	95.2	95.8	9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1)	(944)	(419)	(2,474)	(2,134)	(1,724)	(787)	(4,645)
모								
장애	0.4	1.2	0.7	0.7	0.5	1.1	0.7	0.7
질병	1.8	0.9	1.4	1.4	2.0	1.7	1.9	1.9
장애 및 질병	-	0.1	-	0.5	-	0.2	0.1	0.1
양호	97.8	97.8	97.9	97.8	97.5	97.0	97.3	9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1)	(954)	(425)	(2,498)	(2,167)	(1,761)	(772)	(4,700)

나.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1) 모의 취업

아동 모의 취업률²⁴⁾을 최연소아동 중심으로 보면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29.9%, 유아인 경우는 44.9%로 최연소아동이 영유아인 모의 취업은 35.8%로 조사되었고, 최연소 아동이 초등학생인 모의 취업률은 51.8%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48.6%, 고학년은 55.0%로 차이를 보인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최연소 아동의 모						전체 아동의 모				
	취업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2004년	취업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전체	43.5	51.7	4.8	100.0	(4,900)	-	41.9	53.9	4.2	100.0	(7,446)
연령구분1											
미취학	35.8	61.6	2.6	100.0	(2,548)	35.1	33.7	64.0	2.3	100.0	(3,303)
초등학생	51.8	40.9	7.3	100.0	(2,350)	51.6	48.3	45.9	5.7	100.0	(4,152)
연령구분2											
영아	29.9	69.0	1.1	100.0	(1,563)	26.8	28.8	70.2	1.0	100.0	(1,743)
유아	44.9	50.2	4.9	100.0	(984)	42.6	39.1	57.2	3.7	100.0	(1,559)
초저	48.6	44.7	6.7	100.0	(1,176)	47.6	43.8	51.3	4.9	100.0	(1,929)
초고	55.0	37.2	7.8	100.0	(1,176)	55.5	52.3	41.3	6.4	100.0	(2,223)
연령/학년											
미취학											
0세	24.7	75.3	-	100.0	(628)	20.2	24.4	75.6	-	100.0	(640)
1세	29.2	69.3	1.5	100.0	(528)	24.5	27.5	71.0	1.6	100.0	(575)
2세	39.2	58.6	2.2	100.0	(340)	35.9	35.6	62.7	1.7	100.0	(528)
3세	44.4	52.1	3.5	100.0	(317)	43.5	37.2	60.1	2.7	100.0	(516)
4세	44.8	49.5	5.7	100.0	(322)	40.1	39.6	56.3	4.1	100.0	(512)
5세	46.0	48.4	5.6	100.0	(492)	44.9	40.7	55.1	4.2	100.0	(523)
초등학생											
1학년	43.8	50.8	5.4	100.0	(368)	43.1	38.7	57.1	4.3	100.0	(362)
2학년	48.9	44.6	6.5	100.0	(397)	44.8	44.4	49.9	5.7	100.0	(391)
3학년	52.9	39.3	7.8	100.0	(410)	51.2	47.5	47.7	4.8	100.0	(400)
4학년	50.4	40.8	8.8	100.0	(409)	47.1	47.9	45.8	6.3	100.0	(410)
5학년	58.2	32.6	9.2	100.0	(359)	57.9	53.8	39.1	7.1	100.0	(367)
6학년	56.7	37.4	5.9	100.0	(409)	55.1	55.3	38.7	6.1	100.0	(405)

24) 학생은 미취업으로 분류하였음.

아동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율은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

한편으로 전체 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아동이 영아인 경우 모는 28.8% 유아의 모 39.1%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은 33.7%로 조사되었고, 초등학생 모의 취업률은 48.3%로 전체 여성취업률²⁵⁾과 유사한 수준이다.

2) 부모의 직종

<표 III-2-5>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부모의 취업여부와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부모 취업여부 및 직종을 나타낸다.

먼저 영유아 가구의 부의 직업은 무직 4.9%와 학생 및 군인 0.2%. 모름, 무응답 0.4%를 제외한 94.5%가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표 III-2-5> 아동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영유아 가구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3.1	2.2	1.0	2.3	0.4	0.1	0.2	0.3
전문가	10.5	7.2	3.3	8.0	6.0	4.0	3.3	4.8
기술공 및 준전문가	8.5	14.2	6.4	10.3	5.9	5.9	7.0	6.1
사무종사자	23.3	23.2	20.2	22.7	13.3	9.7	9.2	11.2
서비스종사자	10.1	8.8	6.9	9.1	5.5	5.5	4.5	5.3
판매종사자	11.9	7.0	5.7	9.0	4.4	3.4	3.3	3.8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0.4	0.6	9.0	1.9	0.1	0.2	3.3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1.6	14.6	15.0	13.3	1.0	0.4	0.5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4	7.6	14.3	9.2	0.3	0.7	0.2	0.4
단순노무종사자	6.3	7.7	8.8	7.3	2.0	3.8	4.5	3.1
학생, 재수생, 군인	0.2	0.2	0.2	0.2	0.1	0.1	0.5	0.2
주부	-	-	-	-	59.8	65.4	60.3	62.0
무직	5.1	5.0	4.0	4.9	0.6	0.5	1.1	0.7
직업군인	0.2	1.3	4.4	1.4	0.2	0.1	0.2	0.1
모름, 무응답	0.4	0.2	0.6	0.4	0.4	0.2	1.9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2)	(943)	(420)	(2,475)	(1,118)	(953)	(426)	(2,497)

25) 2009년 4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임(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표 III-2-5 계속)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5.2	3.0	1.4	3.7	0.6	0.1	0.1	0.3
전문가	9.6	6.5	3.3	7.4	5.5	4.1	3.1	4.6
기술공 및 준전문가	9.0	11.9	6.1	9.6	5.8	6.5	5.9	6.1
사무종사자	22.0	22.2	17.1	21.2	12.6	10.2	10.4	11.3
서비스종사자	9.5	9.1	6.8	8.9	7.8	8.3	9.5	8.3
판매종사자	11.6	8.4	7.9	9.8	7.2	6.8	5.3	6.7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0.2	0.8	7.9	1.7	0.0	0.3	3.5	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2.3	14.6	16.0	13.8	1.2	1.2	0.9	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3	8.5	15.0	9.5	0.6	1.0	0.6	0.8
단순노무종사자	6.3	7.6	9.0	7.3	4.0	6.0	7.6	5.3
학생, 재수생	0.1	0.1	0.1	0.1	-	0.1	0.3	0.1
주부	-	-	-	-	53.4	53.9	49.9	53.0
무직	4.7	5.3	3.3	4.7	0.9	0.6	1.0	0.8
직업군인	0.2	1.2	4.9	1.4	0.1	0.1	0.1	0.1
모름, 무응답	1.0	0.9	1.3	1.0	0.3	0.8	1.8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4)	(1,724)	(787)	(4,645)	(2,167)	(1,761)	(772)	(4,700)

이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22.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3.3%,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3%,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대 순서이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모의 경우는 주부, 무직이 62.7%이고 군인 및 학생, 모름, 무응답을 제외한 36.5%가²⁶⁾ 경제활동에 종사하는데, 이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11.2%, 기술공 및 준전문가 6.1%, 서비스종사자 5.3%, 전문가 4.8%, 판매종사자 3.8%이다.

다음, 초등학생 이하 전체 가구 부모의 취업여부 및 직종을 보면, 부의 직업은 무직 4.7%와 군인 및 학생 0.1%. 모름, 무응답 1.0%를 제외한 94.2%가 경제활동에 종사한다. 이들의 직종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21.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13.8%, 판매종사자 18.7%, 이외 기술공 및 준전문가 9.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5%, 서비스종사자 8.9%의 순서이다. 어머니의 경우는 45.5%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무종사자 11.3%, 서비스 종사자가 8.3%, 판매종사자 6.7%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술공 및 준전문가 6.1%이다.

26) 모부재는 비율 산출에서 제외되어 취업모 비율보다 다소 높음.

3) 종사상의 위치 및 근무형태

<표 III-2-6>은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의 위치와 근무형태를 나타낸다. 먼저 부는 59.9%가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14.8%가 자영업자, 7.1%가 일용근로자이다. 79.0%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10.5%가 불규칙한 출퇴근근무자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모는 19.4%가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3.6%가 자영업자이며, 5.5%가 임시근로자이고 3.6%가 자영업자이다. 무급종사자는 3.6%이다. 응답자의 28.2%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4.2%가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며 0.9%는 재택근무자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 거주자도 농어민 비율은 부 8.5%, 모 3.2%에 불과하다.

<표 III-2-6>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위치 및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종사상 위치								
자영업자	12.8	13.3	23.0	14.8	2.6	3.6	6.2	3.6
고용주	5.7	3.8	3.2	4.6	0.6	0.4	0.2	0.5
상용근로자	60.7	62.7	51.7	59.9	22.7	17.6	14.5	19.4
임시근로자	5.7	5.4	3.9	5.3	5.8	4.9	6.0	5.5
일용근로자	7.3	6.2	8.7	7.1	2.9	3.4	3.7	3.2
무급가족종사자	0.1	0.1	1.1	0.3	3.9	3.0	4.4	3.6
무직 군인 학생	5.2	5.0	4.4	5.0	59.8	64.7	60.8	61.8
모름, 부재	2.7	3.5	3.9	3.1	1.6	2.5	4.1	2.4
근무형태								
규칙적 출퇴근	81.4	80.6	69.2	79.0	30.5	26.9	24.9	28.2
불규칙 출퇴근	10.5	9.4	12.9	10.5	4.9	3.4	4.2	4.2
재택근무	-	0.7	1.1	0.5	0.6	1.1	1.2	0.9
농어민	0.4	0.7	8.5	1.9	0.1	0.3	3.2	0.7
무직	5.2	5.0	4.4	5.0	59.7	64.7	61.0	61.8
모름, 부재	2.5	3.5	3.9	3.1	1.6	2.5	4.1	2.4
휴직중	-	0.1	-	-	2.6	1.1	1.4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31)	(975)	(435)	(2,541)	(1,131)	(975)	(435)	(2,541)

다음 <표 III-2-7>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부모의 종사상의 위치와 근무형태를 나타낸다. 부는 응답자의 54.0%가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17.4%가 자영업자, 7.3%가 일용근로자이다. 76.6%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10.8%가 불규칙한 출퇴근근무자라

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모는 20.0%가 전일제 상용근로자이고, 8.9%가 임시근로자, 4.7%가 일용근로자이며 4.6%가 자영업자이다. 무급종사자는 4.4%이다. 응답자의 35.1%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5.2%가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며 1.6%는 재택근무자로 조사되었다.

〈표 III-2-7〉 초등학교 이하 아동 부모의 종사상 위치 및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종사상 위치								
자영업자	15.0	16.5	25.7	17.4	4.0	4.5	6.6	4.6
고용주	7.2	4.5	4.1	5.7	1.1	0.7	0.6	0.9
상용근로자	55.6	55.7	45.7	54.0	21.3	19.6	17.1	20.0
임시근로자	4.6	5.3	4.0	4.8	9.1	8.7	8.7	8.9
일용근로자	7.0	6.4	10.4	7.3	4.2	5.5	4.6	4.7
무급가족종사자	0.2	0.1	0.8	0.2	4.0	4.0	6.6	4.4
무직 군인 학생	4.6	5.1	3.3	4.5	52.7	52.6	48.1	51.9
모름, 부재	5.8	6.4	6.0	6.1	3.6	4.5	7.8	4.6
근무형태								
규칙적 출퇴근	79.5	76.7	68.2	76.6	35.3	35.5	33.7	35.1
불규칙 출퇴근	9.7	10.4	14.4	10.8	5.6	5.1	4.4	5.2
재택근무	0.2	0.5	0.8	0.5	1.6	1.5	2.2	1.6
농어민	0.2	0.8	7.3	1.6	0.0	0.3	3.3	0.7
무직	4.6	5.1	3.3	4.5	52.6	52.5	48.0	51.8
모름, 부재	5.8	6.4	6.0	6.0	3.6	4.5	7.8	4.6
휴직중	-	0.1	-	-	1.3	0.6	0.7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42)	(1,831)	(815)	(4,898)	(2,242)	(1,831)	(815)	(4,898)

4)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

먼저 부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9.6시간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52.1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은 최연소 아동 구분이나 지역 등 가구 특성별로 별 차이가 없다(표 III-2-8 참조).

취업모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43.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0시간보다 많다. 하루 및 주당 근로시간은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로도 큰 차이 없이 각각 7.9~8.1시간 및 42.1~44.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모의 근로시간은 지역별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

에 시간제 근로 비율이 낮다는 점과도 같은 결과이다.

〈표 III-2-8〉 최연소 아동구분별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부			모		
	하루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하루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수)
전체	9.6 (2.1)	52.1 (14.8)	(4,351)	8.0 (2.2)	43.5 (14.8)	(2,086)
연령구분1						
미취학	9.6	52.4	(2,335)	7.9	42.3	(868)
초등학생	9.5	51.8	(2,017)	8.0	44.4	(1,219)
연령구분2						
영아	9.6	52.3	(1,456)	7.9	42.1	(425)
유아	9.6	52.5	(875)	7.9	42.5	(442)
초저	9.6	52.3	(1,016)	8.0	43.8	(572)
초고	9.5	51.4	(1,001)	8.1	44.9	(47)
지역						
대도시	9.6	52.5	(1,994)	8.0	43.3	(953)
중소도시	9.6	52.1	(1,614)	8.1	43.8	(775)
읍·면	9.4	51.3	(744)	8.0	43.6	(358)

주: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F/t 값 제시 생략함.

5) 취업 부모의 근로소득

〈표 III-2-9〉는 취업한 부모의 근로소득수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의 경우 근로소득은 평균 261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남자 전 직종 월 평균 근로소득 252만 7천원과 유사하다. 최연소 자녀의 연령별로는 영아 237만 7천원, 유아 245만 9천원, 초등학교 저학년생 280만원, 초등학교 고학년생 290만 2천원의 순서로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높아진다. 대도시일수록 소득이 높아져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한 모의 경우 근로소득은 월 평균 134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우리나라 여자 전 직종 월 평균 근로소득 168만 1천원²⁷⁾에 비하여 낮다. 취업모의 근로소득은 지역별로는 부의 소득과 같은 현상을 보였으나, 최연소 자녀의 연령별로는 부의 소득과는 달리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앞의

27)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자료임.

가구소득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영아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는 영아 보육비용을 포함한 기대임금보다 실질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후 보육비용의 저하와 더불어 기대임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취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최연소 아동구분별 근로부모의 월평균소득

단위: 만원(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F/t	평균	(수)	F/t
전체	261.8 (161.9)	(4,351)		134.9 (119.3)	(2,086)	
연령구분1						
미취학	241.8	(2,335)	8.8**	146.5	(868)	-3.7**
초등학생	285.1	(2,017)		126.7	(1,219)	
연령구분2						
영아	237.7	(1,456)		158.4	(422)	
유아	245.9	(878)	14.3**	135.2	(442)	7.5**
초저	280.0	(1,016)		128.7	(569)	
초고	290.2	(988)		125.0	(644)	
지역						
대도시	284.8	(1,994)		153.5	(953)	
중소도시	254.8	(1,614)	25.2**	125.4	(775)	25.2**
읍·면	225.2	(744)		105.8	(35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 결혼이민자 부모

1) 결혼이민자 부모 특성

다음 <표 III-2-10>은 조사대상 아동 부모가 결혼이민자인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영유아 가구 중 3.5%가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이었다. 초등학생 가구까지 확대해 보면 그 비율은 각각 2.1%, 0.2%로 낮아진다.²⁸⁾

지역별로는 영유아는 모가 결혼이민자인 비율이 읍·면 6.9%, 중소도시 3.2%, 대도시 2.4%이고, 초등학생은 각각 4.6%, 1.6%, 1.4%로 지역적 편차가 있다.

28) 가구수로는 영유아 가구는 각각 89가구, 6가구이고 초등학생 이하까지 포함하면 각각 106가구, 10가구임.

조사된 영유아 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3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으로 29.7%, 필리핀 8.8%, 일본 7.9%이다. 그러나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면 베트남 30.8%, 중국 27.2%, 일본 14.4%, 필리핀 9.4%로 일본 비율이 증가한다(표 III-2-10 참조).

〈표 III-2-10〉 아동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단위: %(가구)

구 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0.4	0.1	-	0.2	0.3	0.1	0.4	0.2
모	2.4	3.2	6.9	3.5	1.4	1.6	4.6	2.1
(수)	(1,133)	(975)	(434)	(2,542)	(2,242)	(1,831)	(815)	(4,898)

2) 애로 및 요구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을 언어소통능력, 경제적 상황, 양육방식 갈등,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선입견, 외모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 돌보는 사람 없음, 학습지도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된 7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상황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학습지도, 양육방식의 갈등이며, 가장 어려움이 적은 것이 외모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이다. 그러나 외모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도 9.5%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어려움도 29.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1〉 결혼이민자 가구 자녀양육 관련 애로사항

단위: %(가구)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없음	전혀 없음	계(수)
언어소통능력	9.5	31.9	15.4	21.6	21.6	100.0(116)
경제적 상황	24.8	45.3	17.1	4.3	8.5	100.0(117)
양육방식 갈등	12.0	27.4	19.6	26.5	14.5	100.0(117)
선입견	11.3	20.0	14.8	40.0	13.9	100.0(115)
외모로 인한 사회적 적응 어려움	4.3	5.2	7.7	50.0	32.8	100.0(116)
돌보는 사람 없음	7.8	21.7	11.4	36.5	22.6	100.0(115)
학습지도	21.9	29.8	8.8	22.8	16.7	100.0(114)

<표 II-2-12>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에 바라는 바를 조사한 것인데,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구 모두 양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가정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구가 차이를 보인다. 영유아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무상 요구가 높고 다음이 한글 언어 교육을 요구한다.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에, 초등학생 가구는 본국어로 된 보육·양육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고, 한국 언어 교육, 육아 상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2-12> 다문화 가정 자녀 양육시 정부에 바라는 점

단위: %(명)

구분	양육비 지원	한글 언어 교육	교사 파견	육아 상담·정보 제공	본국어 보육·양육 자료	통역 서비스	보육시설·유치원 무상이용	또래 자조모임 기회	계(수)
전체	33.6	16.4	5.2	8.6	6.9	0.9	22.4	6.0	100.0(116)
연령구분 1									
영유아	33.7	15.9	5.3	6.2	3.2	1.1	27.4	7.4	100.0(95)
초등학생	35.0	20.0	5.0	15.0	25.0	-	-	-	100.0(20)
연령구분 2									
영아	40.0	15.4	1.5	4.7	1.5	1.5	27.7	7.7	100.0(65)
유아	20.0	16.7	13.3	10.1	6.7	-	26.7	6.7	100.0(30)
초등 저학년	33.3	-	8.4	25.0	33.3	-	-	-	100.0(12)
초등 고학년	33.3	44.4	-	11.2	11.1	-	-	-	100.0(9)

주: 1) 빈도수 분포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보기 중에 가시도우미 파견이 있었으나 응답자가 없어서 표에서 삭제함.

3. 아동 특성

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다음은 보육·교육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아동연령대별로는 영유아 44.3%, 초등학생 55.7%이다. 앞서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출산력 저하의 영향을 반영하여 연령이 낮아지면서 대체로 아동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영유아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자 51.7%, 여자 48.3%로 조사되었고, 영유아의 성별은 남 51.2%, 여 48.8%로 조사되었다(표 III-3-1 참조).

아동과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주의 자녀가 96.7%를 차지하고 있고 손자는 친손자 2.0%, 외손자 1.0%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가구주의 손자라는 비율이 도시보다 다소 높다. 읍·면은 영유아의 3.3%, 초등학생의 4.9%가 가구주의 친손자이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가구와 전체 가구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표 III-3-2 참조).

〈표 III-3-1〉 지역별 아동의 성별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아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남자	52.6	50.3	49.8	51.2	52.5	51.9	49.2	51.7
여자	47.4	49.7	50.2	48.8	47.5	48.1	50.8	4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19)	(1,435)	(551)	(3,304)	(3,018)	(3,176)	(1,262)	(7,456)

〈표 III-3-2〉 지역별 아동과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가구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자녀	97.2	97.1	94.9	96.8	97.6	97.0	93.6	96.7
가구주의 형제자매	-	-	0.2	-	-	-	0.1	-
가구주 형제자매의 자녀	-	0.2	-	0.1	0.1	0.1	0.2	0.1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0.1	-	0.1	-	0.1	-	0.1
친손자녀	1.8	1.1	3.3	1.7	1.5	1.4	4.9	2.0
외손자녀	0.8	1.5	1.6	1.2	0.7	1.3	1.3	1.0
기타 친족	0.2	-	-	0.1	0.1	0.1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19)	(1,435)	(551)	(3,304)	(3,018)	(3,176)	(1,262)	(7,456)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8.7%, 둘째아 40.5% 셋째아 9.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구분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첫째아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조금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대도시로 갈수록 첫째아의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셋째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수준은 높아질수록 둘째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표 III-3-3 참조).

〈표 III-3-3〉 출생순위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계	(수)	X ² (df)
전체	48.7	40.5	9.8	0.8	0.1	100.0	(7,455)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49.5	39.4	9.9	1.1	0.1	100.0	(3,302)	5.9(5)
취학아동	48.0	41.4	9.7	0.7	0.2	100.0	(4,152)	
연령구분2								
영아	49.8	38.3	10.4	1.4	0.1	100.0	(1,743)	24.1(12)*
유아	49.2	40.7	9.4	0.5	0.2	100.0	(1,559)	
초등저학년생	46.5	41.4	11.1	0.8	0.2	100.0	(1,929)	
초등고학년생	49.4	41.3	8.4	0.8	0.1	100.0	(2,224)	
지역								
대도시	50.4	41.1	8.1	0.4	0.0	100.0	(3,018)	48.5(8)**
중소도시	48.2	40.4	10.1	1.1	0.2	100.0	(3,175)	
읍·면	46.0	39.3	13.1	1.2	0.4	100.0	(1,262)	
모 취업여부								
취업	45.7	41.5	11.4	1.2	0.2	100.0	(3,120)	47.1(8)**
미취업	50.5	40.1	8.7	0.5	0.1	100.0	(4,022)	
부재	55.1	35.7	7.3	1.0	1.0	100.0	(3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0.2	35.7	11.1	2.8	0.2	100.0	(414)	55.1(36)*
100~149만원 이하	49.9	38.8	9.3	1.8	0.2	100.0	(627)	
150~199만원 이하	50.6	37.2	11.3	0.6	0.2	100.0	(1,086)	
200~249만원 이하	49.4	39.7	9.8	0.9	0.3	100.0	(1,044)	
250~299만원 이하	49.2	41.9	8.4	0.5		100.0	(866)	
300~349만원 이하	47.8	41.6	9.5	0.9	0.2	100.0	(997)	
350~399만원 이하	45.8	43.5	9.6	1.0	0.1	100.0	(520)	
400~499만원 이하	48.1	41.9	9.7	0.3		100.0	(773)	
500~599만원 이하	45.7	43.0	10.7	0.4	0.2	100.0	(523)	
600만원 이상	47.9	42.8	8.4	0.7	0.2	100.0	(6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나. 아동의 건강 특성

초등학생 이하 전체 대상 아동의 건강 및 질병 상태는 97.9%가 이상이 없고 0.7%가 장애, 1.3%가 질병, 그리고 0.1%가 질병과 장애가 있다고 하여 전체 아동 중 2.1%의 아동이 질병 또는 장애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만 분리해서 보면 98.4%가 양호하고 1.6%가 장애나 질병이 있다(표 III-3-4 참조).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재가 장애인 출현율은 0~4세 0.42, 5~9세 0.65, 10~14

세 0.89로(변용찬 외, 2006), 본 조사 결과 장애가 있다는 비율도 이러한 수치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III-3-4〉 지역별 아동의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아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장애	0.9	0.3	0.7	0.6	0.7	0.9	0.5	0.7
질병	0.8	1.0	1.1	0.9	0.8	0.8	0.7	1.3
장애 및 질병	-	0.1	-	0.1	0.1	0.1	0.1	0.1
양호	98.3	98.6	98.2	98.4	98.4	98.2	98.7	9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19)	(1,435)	(551)	(3,304)	(3,018)	(3,175)	(1,262)	(7,455)

4. 소결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소득수준과 지출, 모의 취업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부의 연령은 평균 35.8세, 모는 평균 33.0세이다.

둘째, 영유아 가구의 가구형태는 한 부모 가구가 4.9%이고 확대가족이 13.5%이다. 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적으로는 0.5%이고 읍·면이 1.8%로 타 지역보다 다소 높다. 읍·면은 3세대 이상 가구가 19.3%로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영유아 가구 중 3.5%가 모가 결혼이민자이며 0.2%는 부가 결혼이민자이고, 지역별로는 읍·면 6.9%, 중소도시 3.2%, 대도시 2.4%이다. 초등학생은 지역별로 각각 4.6%, 1.6%, 1.4%가 결혼이민자 가구이다.

셋째,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297만 2천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2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은 각각 347만 6천원, 329만 9천원과 비교하여 보면 아동을 둔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분포상으로 150만원 미만이 14.2%이고 150~249만원 사이에 31.5%이며, 249만원 이하가 45.7%이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월 평균 소득이 낮다. 대도시 321만원, 중소도시 286만원, 읍·면 2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는 월 평균 소득 수준은 월 평균 314만천원이다.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40만원으로 150~199만원, 200~249만원이 각

각 20.9%, 20.4%로 가장 많다. 한 달 지출액은 99만원 이하가 4.1%, 100~149만원이 12.5%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253만 7천원, 중소도시 234만 4천원, 읍·면 217만 4천원으로 조사되어,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평균 지출이 낮다. 초등학교가 있는 가구까지 전체를 보면 월 평균 지출은 평균 252만 5천원이다.

넷째, 부채를 포함한 전체 아동가구 중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은 최연소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29.9%, 유아인 경우는 44.9%로 영유아인 모의 취업은 35.8%로 조사되었고, 최연소 아동이 초등학교생인 모의 취업률은 51.6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48.6%, 고학년은 55.5%로 차이를 보인다. 아동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나타내는데, 한 가지 지적할 점은 5세아보다 초등 1년생 어머니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이다.

다섯째, 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8.7%, 둘째아 40.5% 셋째아 9.8% 순이다.

IV.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제4장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과 요구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단위는 아동 및 아동 가구이다. 제1절에서는 아동단위로 보육 및 유아교육 등 각종 서비스 이용 비율을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자녀의 주 양육자 및 관련 의견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평일 자녀를 돌보는 주체를 1시간별 단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제3절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가구 및 아동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제4절에서는 아동의 주 양육자인 모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지원, 취업 관련 애로 등을 분석하였다.

1.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본 조사에서는 부모 이외에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학원,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 등 9개 기관과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 등 4가지 유형의 혈연과 탁아모, 베이비시터와 같은 육아전문파견 인력과 파출부와 같은 기타 비혈연 인력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용여부를 파악하였으며²⁹⁾, 개별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및 기타 등을 조사하여, 총 21종류의 자녀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과 일반학원의 차이는 제1장 용어정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시간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학원을 의미하며, 일반학원은 피아노나 미술처럼 특정한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주로 시간제로 이용하는 학원이다. 학교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보습학원도 일반학원에 포함하였다. 동일한 하나의 학원에서 대상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구분이다.

29) 탁아모는 아동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주로 이웃, 주변사람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소개 받으며, 베이비시터는 베이비시터회사를 통하여 소개 받아 주로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파출부는 아동 돌보기보다는 가사 일이 우선인 가정 고용인임.

가. 이용하는 기관 및 개인 서비스 수

1) 영유아

<표 IV-1-1>은 미취학아동이 이용하는 기관과 개인서비스 수를 나타낸 것이다. 보육·교육 서비스 중 학습지, 개별 및 그룹지도는 제외하였다. 이를 보면 미취학아동의 경우 33.7%는 아무 곳도 다니지 않지만 57.7%의 아동은 1종의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8.1%가 두 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용하는 비율과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이 높아진다.

한편 개인서비스는 74.2%는 이용하지 않지만 25.5%의 아동이 한 가지 종류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고 0.3%의 아동이 두 가지 이상 개인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는 유아보다는 영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표 IV-1-2 참조).

<표 IV-1-1>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양육지원 기관 수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없음	60.0	4.4	89.4	55.7	28.8	8.5	3.7	1.2	-	33.7
1가지	39.4	78.3	10.6	43.8	69.6	85.9	81.3	67.9	75.0	57.7
2가지	0.6	16.3	-	0.5	1.6	5.2	14.6	28.6	25.0	8.1
3가지 이상	-	1.0	-	-	-	0.4	0.4	2.3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43)	(1,559)	(641)	(576)	(527)	(516)	(512)	(524)	(8)	(3,303)

<표 IV-1-2> 영유아 연령별 이용하는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수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없음	72.3	76.4	70.3	73.1	73.6	78.5	76.0	74.5	87.5	74.2
1가지	27.4	23.4	29.2	26.7	26.0	21.3	24.0	24.9	12.5	25.5
2가지	0.3	0.2	0.5	0.2	0.4	0.2	-	0.6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43)	(1,559)	(641)	(576)	(527)	(516)	(512)	(523)	(8)	(3,303)

<표 IV-1-3>은 기관과 개인서비스 중복이용 여부를 나타내는데, 미취학 아동의 49.9%는 기관만 다니고 16.3%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며, 9.5%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24.3%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용은 영아와 유아의 큰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개인서비스만 이용한다는 비율이 영아 17.1%, 유아 0.8%이고, 미이용도 영아는 42.9%, 유아 3.6%이다.

<표 IV-1-3> 영유아 연령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29.4	72.8	8.0	32.3	52.5	71.7	72.7	74.2	49.9
기관+개인	10.6	22.8	2.6	12.0	18.8	19.8	23.6	24.6	16.3
개인서비스	17.1	0.8	26.9	14.9	7.5	1.7	0.4	0.4	9.5
미이용	42.9	3.6	62.5	40.8	21.2	6.8	3.3	0.8	2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43)	(1,560)	(640)	(576)	(528)	(515)	(512)	(531)	(3,302)

2) 초등학생

취학아동의 학습지, 개별 및 그룹지도를 제외하고 이용하는 기관의 수를 보면 10.6%는 아무 곳도 안 다니지만 56.7%의 아동은 1종의 기관서비스를 이용하고 30.2%가 두 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구분별로는 2학년과 3학년이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학년의 경우는 이용하는 가지 수가 많은 비율도 가장 높다. 미이용 비율은 1학년과 6학년이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높다(표 IV-1-4 참조).

<표 IV-1-4> 초등학생 연령별 이용하는 양육지원 기관 수

단위: %(명)

구분	학년 구분		학년						전체
	저학년	고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없음	10.0	11.1	12.6	8.8	8.8	10.6	9.8	12.7	10.6
1가지	54.9	58.3	55.1	52.2	57.1	56.3	57.4	61.2	56.7
2가지	31.9	28.7	29.4	35.4	31.1	30.6	30.8	24.8	30.2
3가지 이상	3.2	1.9	2.9	3.6	3.0	2.5	2.0	1.3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29)	(2,223)	(588)	(634)	(707)	(762)	(702)	(758)	(4,151)

한편 개인서비스는 초등학생의 85.2%는 전혀 이용하지 않지만 14.8%의 아동이 한 가지 종류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이용 비율은 초등 저학년이 17.9%로 12.1%인 고학년에 비하여 5.8% 포인트가 높다.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학년 별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지만 3학년과 4학년의 차이가 비교적 높아서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냈다. 두 가지 이상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극소수이다(표 IV-1-5 참조).

〈표 IV-1-5〉 초등학생 연령별 이용하는 개인서비스 수

단위: %(명)

구분	학년 구분		학년						전체
	저학년	고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없음	82.0	87.9	81.1	82.2	82.6	86.6	86.5	90.4	85.2
1가지	17.9	12.1	18.9	17.6	17.3	13.4	13.5	9.6	14.8
2가지	0.1	-	-	0.2	0.1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29)	(2,223)	(587)	(635)	(707)	(762)	(702)	(758)	(4,151)

〈표 IV-1-6〉은 기관과 개인서비스의 중복이용 여부를 나타내는데, 초등학생의 75.9%는 기관만 이용하고, 13.6%는 기관과 개인을 모두 이용하고, 1.3%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며 9.3%는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다.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관 이용비율은 학년에 높아지면서 높아지고 개인서비스와 기관서비스 중복 이용 비율에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특기교육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6〉 초등학생 학년별 양육지원 기관 및 개인서비스 중복 이용

단위: %(명)

구분	학년 구분		학년						전체
	저학년	고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관	73.6	77.8	70.0	75.1	75.4	77.2	77.8	78.3	75.9
기관+개인	16.4	11.2	17.4	16.1	15.8	12.2	12.4	9.1	13.6
개인서비스	1.6	0.9	1.5	1.7	1.6	1.2	1.1	0.5	1.3
미이용	8.4	10.1	11.1	7.1	7.2	9.4	8.7	12.0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29)	(2,223)	(587)	(635)	(707)	(762)	(702)	(758)	(4,151)

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

1)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가) 영유아

<표 IV-1-7>은 영유아 아동연령별로 이용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을 나타낸다. 연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먼저 영유아의 기관 이용률을 보면 보육시설 41.3%, 유치원 19.4%, 선교원 0.6%, 반일제이상 학원 2.3%, 일반학원 6.6%로 조사되었다.

<표 IV-1-7>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33.5	49.9	8.2	30.5	61.9	60.6	49.2	39.5	41.3
유치원	0.5	39.4	-	-	1.7	23.6	40.6	53.8	19.4
선교원	0.1	1.0	-	-	0.2	1.4	1.2	0.8	0.6
반일제이상 학원	0.1	4.5	-	0.2	0.2	4.3	5.1	4.2	2.3
특기 및 보습 학원	0.2	13.5	-	0.3	0.4	3.1	9.6	27.1	6.6
지역아동센터 등	0.3	1.2	-	0.2	0.8	0.6	1.0	2.1	0.8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8.5	4.4	4.1	13.3	7.8	3.9	5.1	4.2	6.5
개인 양육지원	27.7	23.6	31.3	26.9	26.4	21.5	24.0	24.9	25.8
동거 조부모	9.8	8.0	10.1	9.8	10.1	7.8	7.8	8.7	9.1
비동거 조부모	13.8	11.4	16.3	13.3	12.1	11.5	12.0	11.7	12.8
동거 친인척	0.5	0.7	0.4	0.5	0.4	0.2	1.0	0.8	0.5
비동거 친인척	2.0	1.8	1.7	1.4	2.7	0.8	2.5	1.9	1.8
동거 비혈연	0.3	0.1	0.7	0.3	-	0.4	0.2	-	0.3
육아전문과견인력	0.5	0.2	0.9	0.2	0.6	0.2	0.2	0.2	0.4
기타 비혈연	1.6	1.5	1.9	2.1	1.1	1.0	1.2	2.9	1.7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2.7	3.7	0.7	3.0	4.0	4.3	3.5	3.5	3.1
예체능 방문	0.1	1.0	-	-	0.4	0.4	1.0	1.5	0.5
과외	-	0.7	-	-	-	0.4	0.6	1.2	0.3
학습지(방문포함)	7.1	42.3	0.9	5.2	15.6	29.4	44.5	52.7	24.2
기타(인터넷 포함)	0.1	0.1	-	-	0.4	0.2	0.2	-	0.1
(수)	(1,744)	(1,559)	(535)	(576)	(528)	(516)	(512)	(523)	(3,179)

주: 중복응답 결과임. 0세아의 경우 2009년 출생아는 제외함.

개인서비스는 동거조부모 9.1%, 비동거조부모 12.8%, 비혈연은 2.4%로 조사되었다. 학습지 이용은 24.2%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2004년 조사에 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제도권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 비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비용보다 낮았음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과 수준 확대³⁰⁾로 인하여 제도권 기관으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동구분 및 연령별로 각 서비스 주체의 이용 비율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영아를 보면 기관서비스는 보육시설 33.5%이고, 비공식 보육이 27.7%로 기관이용률이 높다. 이는 기관 이용률보다 조부모 등 비공식부문 이용자가 많았던 2004년 조사와 비교된다. 혈연의 경우 조부모는 동거조부모 9.8%, 비동거 조부모 13.8%로 모두 23.6%로 보육시설보다는 낮다. 그러나 0세아는 여전히 조부모 등 비공식 서비스 이용비율이 31.3%로 보육시설 이용률 8%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 친인척은 동거 친인척 0.5%, 비동거 친인척 2.0%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비혈연으로는 육아전문과견인력이 0.5%이고 기타 1.6%로 모두 2.1%이다. 학습지도 이용률이 7.1% 수준이다(표 IV-1-7 참조).

유아는 기관 이용률이 보육시설 49.9%, 유치원 39.4%, 선교원 1.0%, 반일제이상 학원 4.5% 일반학원 13.5%로 조사되었다. 혈연은 동거조부모 8.0% 비동거조부모 11.4%이고 비혈연은 1.8%이다. 42.3%의 유아가 학습지를 사용하고 있다(표 IV-1-7 참조).

나)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학원 이용률이 72.5%이고, 학습지 41.5%, 초등학교 방과후 38.7%이다. 혈연은 동거조부모 7.7%, 비동거 조부모 5.2%로 조사되었다. 동거조부모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동거조부모는 비율이 낮아진다(표 IV-1-8 참조).

<표 IV-1-8>의 아동 학년별 차이를 보면 학년이 높아지면서 보육시설,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과 학습지 이용은 줄어들고 과외 비율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학년은 그 이후 학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1.9%,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6.0%라는 점이다.

30) 중앙정부 보육예산은 2004년 4000억원 수준에서 2009년 1조 7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표 IV-1-8〉 초등학교 아동구분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학년구분		학년						전체
	초저	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등	1.1	0.3	1.9	1.0	0.6	0.5	0.4	0.1	0.7
특기및 보습학원	72.0	72.9	66.6	72.9	75.7	74.1	73.1	71.4	72.5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4.0	0.9	6.0	4.6	2.0	1.3	1.0	0.5	2.4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40.1	37.6	36.2	44.6	39.2	38.6	40.0	34.3	38.7
지역아동센터 등	7.0	6.3	7.7	7.4	6.2	7.5	7.4	4.2	6.7
문화센터 등 시설기관	4.2	3.5	4.3	3.6	4.7	3.0	3.0	4.4	3.8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8.1	7.2	7.1	8.5	8.6	7.2	8.1	6.5	7.7
비동거 조부모	7.2	3.5	6.8	7.7	7.1	4.2	4.1	2.2	5.2
동거 친인척	0.6	0.3	1.2	0.2	0.4	0.1	0.4	0.1	0.4
비동거 친인척	1.6	0.7	3.2	0.8	1.1	1.3	0.1	0.5	1.1
동거 비혈연	0.2	-	0.2	0.3	0.1	-	0.1	-	0.1
기타 비혈연	0.4	0.4	0.3	0.5	0.3	0.5	0.4	0.1	0.4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1.3	0.3	1.4	0.6	1.8	0.8	-	-	0.7
예체능 방문	3.9	3.9	3.2	3.9	4.5	5.1	4.4	2.1	3.9
과외	5.9	9.5	4.8	4.7	7.9	9.7	9.2	9.6	7.9
학습지(방문포함)	46.6	37.0	51.8	45.7	43.0	40.9	38.5	31.7	41.5
기타(인터넷 포함)	0.9	1.4	0.2	1.4	1.1	1.6	0.7	1.8	1.2
(수)	(1,929)	(2,223)	(588)	(635)	(707)	(762)	(703)	(759)	(4,15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선교원과 육아전문파견인력은 응답자가 없어서 삭제함.

2) 지역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가) 영유아

〈표 IV-1-9〉는 영유아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별 이용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영유아 전체로 보면 읍·면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읍·면 지역은 보육시설 이용률이 45.5%로 도시지역 38.3%, 42.8%보다 높고 반면에 반일제이상학원 이용률은 도시에 비하여 낮고, 유치원은 지역별로 유사한 수준이며, 특기보습 학원 이용 비율은 읍·면이 중소도시보다는 낮으나 대도시와는 유사하다.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은 동거 조부모에 의한 비율이 읍·면이 10.9%로 대도시 9.9%, 중소도시 7.4%에 비하여 높으나 비동거 조부모에 의한 비율은 도시가 현저하게 높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표 IV-1-9〉 아동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영유아)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30.1	35.4	37.2	47.6	50.3	54.0	38.3	42.8	45.5	41.3
유치원	0.5	0.3	1.5	40.3	38.5	39.2	19.4	19.2	20.2	19.4
선교원	0.2	-	-	1.0	1.3	0.4	0.6	0.6	0.2	0.6
반일제이상 학원	0.3	-	-	6.3	4.1	1.5	3.2	2.0	0.8	2.3
특기 및 보습 학원	0.3	0.1	0.1	12.5	14.9	12.1	6.1	7.4	6.0	6.6
지역아동센터 등	0.6	0.3	-	2.5	0.4	0.4	1.5	0.4	0.2	0.8
문화센터 등 시설기관	9.8	8.8	4.5	6.8	3.6	0.8	8.4	6.2	2.6	6.5
개인 양육지원										25.8
동거 조부모	11.3	7.4	12.3	8.3	7.4	9.4	9.9	7.4	10.9	9.1
비동거 조부모	17.1	13.4	6.7	14.9	9.6	8.3	16.1	11.5	7.5	12.8
동거 친인척	0.9	0.3	-	0.8	0.7	-	0.9	0.5	-	0.5
비동거 친인척	2.6	2.3	0.4	2.2	2.0	0.4	2.0	2.2	0.4	1.8
동거 비혈연	0.5	0.3	-	0.3	-	-	0.4	0.1	-	0.3
육아전문과견인력	0.6	0.6	0.4	-	0.3	0.4	0.3	0.4	0.4	0.4
기타 비혈연	1.8	1.0	3.0	2.5	0.7	1.5	2.1	0.9	2.3	1.7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2.0	3.7	1.5	4.3	3.8	2.3	3.1	3.7	1.9	3.1
예체능 방문	0.2	0.1	-	1.2	1.2	-	0.6	0.6	-	0.5
과외	-	-	-	1.3	0.3	0.4	0.6	0.1	0.2	0.3
학습지(방문포함)	7.4	7.7	5.2	43.6	43.4	36.5	24.6	25.4	20.8	24.2
기타(인터넷포함)	0.3	-	-	-	0.1	0.4	0.2	0.1	0.2	0.1
(수)	(715)	(744)	(285)	(603)	(691)	(265)	(1,318)	(1,435)	(550)	(3,179)

주: 중복응답 결과임. 2009년 출생아 제외함.

나) 초등학생

〈표 IV-1-10〉은 초등학생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비율을 나타낸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의 이용 비율은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낮으며, 그 대신에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이용률은 현저하게 높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이용 비율은 읍·면이 53.4%인데 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37.9%, 33.6%이다. 동거조부모에 의한 지원서비스 비율은 도시와 읍·면이 유사하지만, 비동거조부모에 의한 보육비율은 읍

·면이 3.8%로 대도시 6.2%, 중소도시 4.8%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교육 서비스 중 학습지는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

〈표 IV-1-10〉 아동구분별 지역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초등학생)

단위: %(명)

구분	초 저학년			초 고학년			초등생 전체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1.6	0.9	0.3	0.2	0.4	-	0.8	0.8	0.1	0.6
특기·보습 학원	74.1	70.7	69.9	77.4	71.0	66.5	75.9	70.9	68.1	72.5
초등 방과후보육	3.6	3.3	6.8	0.7	1.2	0.8	2.0	2.2	3.7	2.4
초등 방과후교실	39.4	35.5	53.0	36.7	31.9	53.7	37.9	33.6	53.4	38.7
지역아동센터 등	8.2	6.9	4.5	6.5	6.5	5.9	7.3	6.7	5.2	6.6
시설기관	5.1	3.9	2.4	4.0	2.9	3.5	4.5	3.4	3.0	3.8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8.7	7.1	9.2	7.3	7.3	6.9	7.9	7.2	8.0	7.7
비동거 조부모	9.7	6.2	3.9	3.2	3.7	3.7	6.2	4.8	3.8	5.2
동거 친인척	0.6	0.7	-	0.2	0.4	-	0.4	0.6	-	0.4
비동거 친인척	2.8	1.0	0.3	1.2	0.5	0.3	1.9	0.7	0.3	1.1
동거 비혈연	0.4	0.1	-	0.1	-	-	0.2	0.1	-	0.1
기타 비혈연	0.6	0.2	-	0.8	0.2	-	0.7	0.2	-	0.4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1.4	1.2	1.5	0.2	0.2	0.5	0.8	0.7	1.0	0.7
예체능 방문	4.4	4.7	0.9	5.1	3.1	2.9	4.8	3.9	2.0	3.9
과외	6.8	5.8	4.2	12.6	8.2	5.3	9.9	7.1	4.8	7.9
학습지(방문포함)	49.6	47.7	37.2	38.3	38.5	30.1	43.5	42.8	33.4	41.4
기타(인터넷포함)	0.8	1.2	0.3	1.6	1.5	0.5	1.2	1.4	0.4	1.2
(수)	(781)	(812)	(336)	(919)	(928)	(376)	(1,700)	(1,740)	(712)	(4,152)

주: 중복응답 결과임.

3)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가) 영유아

〈표 IV-1-11〉에서는 가구소득별로 영아와 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아는 보육시설, 비동거 조부모, 비혈연의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율이

각각 40.3%, 11.1%로 높아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거조부모는 소득수준이 500만원이 넘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소득수준 400만원 이상이 25~29%로 150만원 미만 5.6% 및 3.8%와 비교된다.

〈표 IV-1-11〉 영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1월 1일 연령 기준)

단위: %(명)

구 분	~99	100~ 149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40.3	42.7	32.6	30.0	27.1	29.6	27.4	28.5	31.9	27.7	41.3
유치원	-	-	0.6	0.4	1.4	0.9	0.9	0.7	-	-	0.6
선교원	-	-	-	-	-	0.4	-	-	-	-	0.1
반일제이상 학원	-	-	-	-	-	-	-	-	-	1.7	0.1
특기 및 보습 학원	-	-	-	-	-	-	-	0.7	1.1	1.7	0.2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	-	0.5	0.9	0.9	0.7	-	0.8	0.3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	1.3	3.9	8.8	9.7	11.1	11.9	10.4	14.9	10.1	8.0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1.1	9.5	3.6	6.9	7.7	10.6	10.3	11.1	19.1	24.4	9.7
비동거 조부모	5.6	3.8	10.0	9.9	11.6	12.4	17.1	29.2	24.5	29.2	13.9
동거 친인척	-	-	-	0.7	-	-	0.9	2.1	2.1	-	0.5
비동거 친인척	2.8	2.5	1.2	1.5	1.0	1.8	0.9	2.1	3.2	4.2	1.8
동거 비혈연	-	-	-	-	-	-	0.9	-	-	3.3	0.3
육아전문과견인력	-	1.3	-	-	0.5	0.4	-	-	1.1	4.2	0.6
기타 비혈연	-	-	0.9	0.4	1.0	1.3	-	2.8	4.3	9.2	1.6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1.4	1.3	2.1	2.2	1.4	0.9	2.6	5.6	3.2	5.0	2.4
예체능 방문	-	-	0.3	-	-	-	-	0.7	-	-	0.1
과외	-	-	-	-	-	-	-	-	-	-	-
학습지(방문포함)	2.7	4.5	6.3	6.2	9.2	7.1	4.3	10.4	6.5	6.7	6.7
기타(인터넷 포함)	-	-	-	-	-	-	0.9	0.7	-	-	0.1
(수)	(72)	(158)	(331)	(274)	(207)	(226)	(117)	(143)	(94)	(119)	(1,741)

유아 역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소득수준과 관계 있음을 나타내는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육시설은 이용률은 감소하고 유치원, 학원의 이용비율은 증가한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60%를 넘는 반면에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그 절반 수준인 31.5%에 불과하다. 반대로 유치원은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유치원 이용률이 30% 내외이지만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58.6%로 증가한다.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특기 및 보습학원, 그리고 학습지 이용은 소득수준

이 높아지면서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개인 서비스 중 조부모의 지원은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경우에 이용비율이 크게 증가한다(표 IV-1-12 참조).

〈표 IV-1-12〉 유아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 분	~99	100~ 149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65.5	64.4	62.0	50.5	50.7	42.3	46.7	42.8	36.7	31.5	49.9
유치원	33.3	27.4	27.4	41.4	38.3	47.0	39.6	42.2	45.9	58.6	39.4
선교원	-	-	1.3	1.8	3.0	0.5	1.1	0.6	-	1.8	1.2
반일제이상 학원	2.4	0.7	1.7	2.7	2.0	5.5	8.8	6.6	15.6	7.2	4.6
특기 및 보습 학원	10.7	8.2	7.9	8.6	13.4	17.4	16.5	16.3	20.4	23.4	13.5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1.2	1.4	0.9	0.5	0.5	1.5	2.2	1.2	1.8	4.5	1.3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2.7	2.2	3.2	4.0	5.0	7.8	7.8	5.5	7.2	4.4	4.4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4.8	4.8	6.6	5.0	5.5	3.5	7.8	14.5	13.8	20.7	8.0
비동거 조부모	10.7	6.2	4.4	8.6	13.9	10.4	14.3	11.4	18.5	27.0	11.4
동거 친인척	-	0.7	-	-	-	1.5	1.1	1.8	1.8	0.9	0.7
비동거 친인척	2.4	2.1	0.9	1.4	3.0	1.0	1.1	2.4	1.9	4.5	1.9
동거 비혈연	-	-	-	-	-	-	-	-	-	1.8	0.1
육아전문과건인력	-	-	-	-	0.5	-	-	-	-	1.8	0.2
기타 비혈연	1.2	-	1.3	-	0.5	0.5	3.3	-	7.3	7.2	1.6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	1.4	0.9	1.8	2.5	5.0	5.6	4.8	11.1	8.1	3.7
예체능 방문	-	-	-	-	0.5	0.5	-	0.6	2.8	8.1	1.0
과외	-	-	-	0.5	0.5	1.5	-	0.6	1.8	2.7	0.7
학습지(방문포함)	26.2	30.1	42.4	35.1	50.7	51.7	45.1	40.4	48.1	45.9	42.2
기타(인터넷 포함)	-	-	-	-	-	0.5	1.1	-	-	0.9	0.2
(수)	(84)	(146)	(229)	(222)	(201)	(201)	(90)	(166)	(109)	(111)	(1,559)

나)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경우는 일반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이용률이 소득수준과 정비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보육이나 방과후교실 이용은 소득과 반비례함을 나타낸다. 지역아동센터 중 공공기관은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이 두드러진다. 비공식 보육으로는 동거조부모에 의한 비율은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비동거조부모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비율을 보인다. 한편 개인교육은

조사된 유형 모두 가구소득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원 이용과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초등학생 사교육 기회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표 IV-1-13 참조).

〈표 IV-1-13〉 초등학생 소득수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 분	~99	100~ 149	150~ 199	200~ 249	250~ 299	300~ 349	350~ 399	400~ 499	500~ 599	600~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등	0.4	0.6	1.7	1.1	0.2	-	0.9	0.8	0.3	0.5	0.6
특기 및 보습 학원	33.2	52.8	57.7	68.6	75.9	82.3	81.1	82.5	90.0	88.3	72.5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6.3	5.9	2.1	2.6	2.2	1.9	0.6	1.5	1.6	1.3	2.4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44.0	36.4	37.4	38.7	39.3	41.2	39.7	38.8	38.9	33.6	38.7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20.3	13.7	8.4	6.2	3.7	3.3	4.2	5.2	3.4	4.8	6.6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1.6	2.8	2.5	2.9	2.0	3.0	5.1	6.0	6.2	6.9	3.8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5.1	7.8	6.9	6.9	10.3	5.9	4.2	8.2	10.0	10.8	7.6
비동거 조부모	2.7	4.7	3.1	2.6	5.5	5.8	2.2	8.2	5.3	11.9	5.2
동거 친인척	0.4	0.6	0.2	0.2	0.2	0.7	0.3	0.6	-	0.3	0.4
비동거 친인척	-	1.2	1.9	0.9	1.3	1.2	1.0	0.2	1.6	1.9	1.2
동거 비혈연	-	-	-	0.2	-	-	-	-	-	1.1	0.1
육아전문파견인력	-	-	-	-	-	-	-	-	-	-	-
기타 비혈연	-	0.3	-	0.2	-	-	-	-	0.3	3.2	0.4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	0.3	0.4	0.4	1.1	0.3	1.3	0.2	0.9	3.4	0.8
예체능 방문	0.8	0.6	0.2	0.5	3.5	3.7	4.5	4.7	9.7	13.5	3.9
과외	3.9	3.4	5.5	4.0	6.4	7.5	10.6	9.1	16.2	14.8	7.9
학습지(방문포함)	16.8	23.0	35.0	38.9	41.7	43.9	46.2	52.2	57.3	52.1	41.5
기타(인터넷 포함)	1.6	0.6	1.3	1.6	0.9	0.3	0.6	2.2	0.6	1.6	1.2
(수)	(256)	(322)	(525)	(548)	(456)	(572)	(312)	(463)	(321)	(377)	(4,152)

4) 모 취업여부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가) 영유아

〈표 IV-1-14〉에서는 영아, 유아 및 영유아 모의 취업상태별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를 나타낸다.

영유아 전체로 보면 취업모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대체로 높다. 보육시설 이용은 취업모 자녀와 미취업모 자녀가 각각 51.2%, 33.5%으로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

녀보다 17% 포인트 이상 높고, 유치원도 취업모 자녀가 22.4%로 미취업모 자녀 16.9%보다 높다.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 이용도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취업모 아동은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가 각각 17.0%, 25.7%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각각 4.0%, 5.9%에 머문다. 다만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이용은 미취업모의 이용 비율이 높다.

그런데 영아와 유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취업모 51.3%, 미취업모 23.0%, 모 부재 66.7%로 조사되었고, 유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취업모 51.1%, 미취업모 48.0%, 모 부재 66.7%로 영아에 비하여 미취업모의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아에 비하여 보편화된 유아의 기관 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IV-1-14 참조).

〈표 IV-1-14〉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영아			유아			영유아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51.3	23.0	66.7	51.1	48.0	66.7	51.2	33.5	66.7	41.3
유치원	0.2	0.7	-	40.8	39.2	27.6	22.4	16.9	21.1	19.4
선교원	-	0.1	-	1.1	1.0	-	0.6	0.5	-	0.6
반일제이상 학원	0.4	-	-	4.6	4.7	-	2.7	2.0	-	2.3
특기 및 보습 학원	0.4	0.1	-	15.4	12.2	13.8	8.6	5.2	10.5	6.6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0.4	0.2	-	1.0	1.5	-	0.7	0.8	-	0.8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4.8	9.4	-	3.1	5.4	1.7	3.9	7.7	1.3	6.5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9.7	5.2	22.2	14.7	2.4	25.9	17.0	4.0	25.0	9.1
비동거 조부모	29.9	7.3	11.1	22.3	3.9	12.1	25.7	5.9	11.8	12.8
동거 친인척	1.2	0.2	-	1.3	0.1	3.4	1.3	0.1	2.6	0.5
비동거 친인척	4.0	0.9	-	3.0	1.0	1.7	3.4	0.9	1.3	1.8
동거 비혈연	0.6	0.1	-	0.3	-	-	0.4	-	-	0.3
육아전문과견인력	1.6	0.2	-	0.5	-	-	1.0	0.1	-	0.4
기타 비혈연	4.4	0.2	11.1	3.1	0.2	5.2	3.7	0.2	6.6	1.7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2.6	2.5	-	3.3	4.3	-	3.0	3.2	-	3.1
예체능 방문	-	0.2	-	1.1	0.9	-	0.6	0.5	-	0.5
과외	-	-	-	0.2	1.0	1.7	0.1	0.4	1.3	0.3
학습지(방문포함)	7.0	6.7	-	41.6	44.8	8.8	26.0	22.8	6.7	24.2
기타(인터넷 포함)	0.4	-	-	0.2	0.1	-	0.3	-	-	0.1
(수)	(468)	(1,078)	(17)	(441)	(491)	(48)	(909)	(1,569)	(65)	(3,179)

다음 <표 IV-1-15>에서는 취업모의 영유아만을 선별하여 연령별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이용률을 제시하였다. 0세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14.7%이고 조부모가 총 57.0%이고, 친인척이 4.9%이며 비혈연이 11.2%로, 보육시설 보다는 개별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1세가 되면 보육시설 이용은 55.3%로 크게 증가하지만 혈연·비혈연에 의한 개별적 서비스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여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육아지원전문 파견 인력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 2세는 79.3%의 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3세 등 연령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은 점차 감소하고 유치원 이용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

<표 IV-1-15> 취업모의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연령 1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14.7	55.3	79.3	68.4	49.0	38.1	51.9
유치원	-	-	0.5	21.7	41.7	56.0	22.6
선교원	-	-	-	0.5	1.5	1.4	0.6
반일바 이상 학원	-	0.6	0.5	4.7	6.4	2.8	2.7
특기 및 보습 학원	-	0.6	0.5	4.2	12.7	27.3	8.6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	-	-	-	-	-	-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	-	-	-	-	-	-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	-	1.1	-	-	2.8	0.7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2.8	8.2	3.7	1.6	3.9	4.2	4.0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9.0	20.1	20.1	17.4	13.2	13.4	16.9
비동거 조부모	38.0	31.6	22.8	23.8	23.0	21.8	26.0
동거 친인척	1.4	0.6	1.1	0.5	2.5	0.5	1.1
비동거 친인척	3.5	3.8	4.8	2.1	3.4	3.2	3.5
동거 비혈연	2.1	0.6	-	1.1	0.5	-	0.6
육아전문파견인력	3.5	0.6	0.5	0.5	0.5	0.5	0.9
기타 비혈연	5.6	5.7	3.2	1.6	2.9	5.1	3.9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0.7	3.8	3.2	4.2	3.4	2.8	3.1
예체능 방문	-	-	-	0.5	1.0	1.4	0.5
과외	-	-	-	-	0.5	0.5	0.2
학습지(방문포함)	-	5.7	13.8	28.6	46.1	48.4	26.1
기타(인터넷 포함)	-	-	1.1	0.5	-	-	.3
(수)	(142)	(159)	(189)	(190)	(204)	(216)	(1,100)

나) 초등학생

<표 IV-1-16>은 초등학생 모의 취업상태별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여부보다는 모의 부재가 서비스 이용 비율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먼저 기관을 보면 보육시설, 방과후보육,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서비스는 모부재 아동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학원은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73~75%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취약계층인 모 부재 아동의 이용 비율은 47.5%로 크게 떨어진다. 개인서비스는 취업모 및 모부재 아동의 이용비율이 미취업 모의 이용 비율보다 높다. 한편 교육은 학습지 이용은 미취업모 자녀가 47.9%로 취업모 자녀 38.4%보다 높다. 모부재 아동의 학습지 이용비율은 15.2%로 낮은 수준이다.

<표 IV-1-16> 모취업상태별 취업모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 분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전체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취업	미취업	부재
기관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1.6	0.6	2.1	0.2	0.2	2.1	0.7	0.4	2.1
특기 및 보습 학원	75.5	71.4	46.3	74.3	74.8	48.3	74.8	73.0	47.5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5.1	2.5	10.6	0.9	0.7	3.5	2.6	1.6	6.3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41.8	38.3	44.2	38.6	37.2	31.5	40.0	37.8	36.6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7.5	6.3	11.6	6.4	4.4	18.3	6.8	5.3	15.6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3.2	5.5	-	3.3	4.1	0.7	3.2	4.8	0.4
개인 양육지원									
동거 조부모	12.1	3.5	20.2	10.2	2.8	10.6	11.0	3.2	14.4
비동거 조부모	12.7	2.3	9.5	5.8	0.7	2.8	8.7	1.5	5.5
동거 친인척	0.8	0.1	3.2	0.5	-	-	0.6	0.1	1.3
비동거 친인척	2.3	1.1	2.1	0.9	0.4	0.7	1.5	0.8	1.3
동거 비혈연	0.5	-	-	0.1	-	-	0.2	-	-
기타 비혈연	0.7	0.1	-	0.4	0.3	0.7	0.5	0.2	0.4
개인교육									
교재교구 방문	1.5	1.2	-	0.4	0.1	-	0.9	0.7	-
예체능 방문	2.6	5.5	-	2.3	6.5	-	2.4	6.0	-
과외	5.8	6.3	3.2	9.2	10.5	6.3	7.8	8.3	5.0
학습지(방문포함)	42.4	52.5	21.3	35.4	43.0	11.2	38.4	47.9	15.2
기타(인터넷 포함)	1.3	0.7	-	1.6	1.1	1.4	1.5	0.9	0.8
(수)	(572)	(525)	(79)	(647)	(437)	(92)	(1,219)	(962)	(171)

2. 자녀의 양육자

가. 낮시간 돌보는 사람

1) 아동연령별 낮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기관)

보육·교육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낮시간 동안 가장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어머니가 60.0%, 기관 11.8%, 친조부모 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1 참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모 68.4%, 기관 14.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학아동은 모 53.4%, 형제자매 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학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8.6%로 높다.

아동의 연령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영아일수록 모와 외조부모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초등고학년일수록 부와 형제자매, 친조부모의 비율이 높아져 차이를 나타냈다. 고학년 아동의 경우 낮 시간동안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가 상당수인 25%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학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스스로 보호능력이나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거나 성인 없이 아이들끼리 지내는 경우에 대한 안전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2-1〉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기관	없음	계	(수)	X ² (df)
전체	1.9	60.0	6.9	0.6	8.1	4.8	0.2	0.9	11.8	4.8	100.0	(7,450)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1.2	68.4	1.0	0.5	6.7	6.2	0.2	1.3	14.4	0.1	100.0	(3,302)	743.7(9)**
취학아동	2.4	53.4	11.6	0.7	9.1	3.7	0.3	0.5	9.7	8.6	100.0	(4,153)	
연령구분2													
영아	0.9	74.9	0.4	0.3	5.6	6.7	0.1	1.6	9.5	0.0	100.0	(1,741)	na
유아	1.5	61.2	1.8	0.6	8.0	5.8	0.2	1.0	19.8	0.1	100.0	(1,560)	
초등저학년생	2.3	59.4	9.4	1.0	9.0	4.5	0.3	0.7	8.1	5.2	100.0	(1,927)	
초등고학년생	2.4	48.4	13.4	0.4	9.3	3.0	0.2	0.3	11.1	11.5	100.0	(2,222)	

주: 양육자 중심의 질문으로, 다른 사람도움 없이 기관만 이용할 경우에만 기관으로 표시함.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가구 특성별 아동연령별 낮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구분하여 각각 지역별, 모취업여부별, 가구소득별로 낮 시간동안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지역, 모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비하여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이 어머니의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모두 대도시에서 높았다 (표 IV-2-2 참조).

〈표 IV-2-2〉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미취학 아동

단위: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부모의 형제 형제 자매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기관	없음	계(수)
전체	1.2	68.4	1.0	0.5	6.7	6.3	0.2	1.3	14.3	0.1	100.0(3,304)
지역											
대도시	1.4	65.8	0.7	0.3	8.3	7.7	0.2	1.6	13.9	0.1	100.0(1,319)
중소도시	1.0	70.2	1.5	0.7	5.6	5.9	0.1	1.1	13.8	0.1	100.0(1,435)
읍·면	1.6	69.6	0.7	0.2	6.2	3.8	0.2	1.1	16.5	-	100.0(550)
모 취업여부											
취업	2.0	22.9	2.9	1.0	16.1	17.8	0.4	3.7	33.0	0.2	100.0(1,112)
미취업	0.7	94.7	-	-	0.4	0.4	-	0.0	3.8	-	100.0(2,114)
부재	5.3	1.3	2.8	4.0	48.0	1.3	-	1.3	36.0	-	100.0(7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1	73.6	2.5	-	6.3	1.3	-	0.6	12.6	-	100.0(159)
100~149만원 이하	2.0	72.0	3.0	0.7	5.5	2.0	-	-	14.5	0.3	100.0(304)
150~199만원 이하	1.8	79.5	0.9	-	3.0	4.5	-	-	10.3	-	100.0(561)
200~249만원 이하	1.2	78.4	0.6	0.2	3.1	1.6	-	0.2	14.7	-	100.0(496)
250~299만원 이하	1.5	73.7	0.5	0.2	6.2	4.1	0.2	0.7	12.9	-	100.0(411)
300~349만원 이하	0.9	73.8	0.7	0.5	7.4	4.2	-	0.5	12.0	-	100.0(424)
350~399만원 이하	1.0	69.2	1.0	-	9.1	1.9	0.5	1.0	16.3	-	100.0(208)
400~499만원 이하	0.3	51.8	1.3	0.6	9.6	11.7	0.3	0.6	23.6	-	100.0(309)
500~599만원 이하	-	49.0	-	1.0	16.8	14.4	0.5	2.5	15.3	0.5	100.0(202)
600만원 이상	0.4	29.8	0.4	2.2	11.0	27.2	-	12.3	16.7	-	100.0(228)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모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미취업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돌본다는 비율이 94.7%로 대부분 어머니가 직접 자녀를 돌보았고, 모가 부재한 경우에는 친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모의 경우 3.8%만이 기관에 맡기는 반면, 취업모와 모가 부재한 경우에는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각각 33.0%, 3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V-2-2 참조).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나 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비혈연이 높다(표 IV-2-2 참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낮고 조부모나 비혈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취학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마찬가지로 대도시는 외조부모가, 읍·면 지역은 친조부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2-3 참조).

〈표 IV-2-3〉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취학아동

단위: %(명)

구분	부	모	아이의 형제 자매	부모의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기관	없음	계(수)
전체	24	53.4	11.6	0.7	9.2	3.7	0.3	0.5	9.7	8.5	100.0(4,152)
지역											
대도시	24	55.4	9.3	0.8	7.9	3.9	0.4	0.6	10.7	8.6	100.0(1,701)
중소도시	2.5	52.4	13.9	0.7	8.7	3.9	0.3	0.3	8.7	8.6	100.0(1,739)
읍·면	2.0	50.9	11.2	0.3	13.7	2.8	0.1	0.6	10.3	8.1	100.0(713)
모 취업여부											
취업	3.8	19.8	22.2	1.2	11.9	6.8	0.5	0.9	16.5	16.4	100.0(2,009)
미취업	0.3	95.5	0.4	-	0.5	0.2	-	-	2.9	0.2	100.0(1,907)
부재	6.3	-	10.5	2.1	55.9	6.3	0.8	1.3	7.6	9.2	100.0(23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7	50.2	9.0	1.2	13.3	3.1	-	-	10.6	5.9	100.0(255)
100~149만원 이하	2.5	50.6	9.4	0.9	12.8	4.8	0.9	0.3	7.5	10.3	100.0(320)
150~199만원 이하	4.6	57.3	11.3	1.1	6.1	3.4	0.2	0.2	7.4	8.4	100.0(524)
200~249만원 이하	3.5	57.8	8.4	0.2	9.5	2.0	0.5	0.5	8.4	9.1	100.0(548)
250~299만원 이하	0.4	57.5	11.6	0.4	8.1	3.8	0.2	-	9.9	8.1	100.0(456)
300~349만원 이하	1.4	57.9	14.0	0.5	7.7	3.9	0.3	0.2	8.0	6.1	100.0(572)
350~399만원 이하	1.0	51.4	16.0	0.3	8.9	0.7	-	-	11.5	10.2	100.0(313)
400~499만원 이하	0.6	51.5	11.9	0.6	9.3	4.6	-	-	12.9	8.6	100.0(464)
500~599만원 이하	3.1	52.8	9.4	0.6	9.1	5.0	0.3	0.3	10.6	8.8	100.0(320)
600만원 이상	0.8	39.9	14.1	1.1	10.8	6.1	0.3	3.2	12.5	11.2	100.0(376)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학교가 끝난 후에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다는 비율이 16.4%로 높고, 주로 형제자매가 돌본다는 비율도 22.2%에 달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나 아버지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경우 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39.9%로 다른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가구소득이 낮거나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모의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V-2-3 참조).

나. 아동 발달단계별 바람직한 주 양육자에 대한 의견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와 기관, 비공식 부문 등 모든 양육서비스 제공 주체 중 각 연령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양육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³¹⁾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발달 각 단계별로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영아기 및 영유아기에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전에는 유치원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기관이며,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만1세 미만이는 조부모가 66.8%이고 친인척 5.7%, 비혈연 2.7%이다. 기관은 가정 어린이집을 지정한 비율이 5.1%이고 일반 어린이집이 3.3%로 어린이집이 모두 8.4%이다. 부모 이외라고 명시하고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2%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시설이나 조부모의 비율이 다소 변화하지만 만1세까지는 유지된다. 만2세가 되면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지정한 비율이 27.2%로 증가하고 조부모 및 부모의 비율은 감소한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되어 만4세가 되면 조부모는 10% 이하, 부모는 3.1%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보육시설은 60.6%, 유치원은 25.1%로 증가한다.

취학전 만5세아는 76.3%가 유치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보육시설을 선택한 비율은 18.4%이다.

취학아동은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55.4%, 학원이 34.0%이고 고학년은 그 순위가 바뀌어서 학원을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기관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31) 주 양육자가 기관, 혈연, 비혈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관, 비혈연, 혈연의 순서로 우선순위에 따라 한가지만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표 IV-2-4〉 최연소 아동 연령별 부모 이외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만1세 미만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취학전 (만5세)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조부모	66.8	64.6	52.5	26.6	8.1	2.5	6.5	3.7
친인척	5.7	6.1	5.4	2.9	1.1	0.5	0.8	0.5
탁아모 등 비혈연인	2.7	2.9	2.7	1.5	0.5	0.2	0.5	0.2
어린이집	3.3	5.2	16.3	46.2	55.8	17.4	0.1	-
가정어린이집(놀이방)	5.1	7.2	10.9	9.7	4.8	1.0	0.2	-
유치원	-	-	0.2	4.4	25.1	76.3	0.2	-
선교원	0.2	0.1	0.2	0.6	0.9	0.7	0.2	0.1
(반일제)학원	-	-	-	0.2	0.6	0.8	34.0	57.4
방과후프로그램기관	-	-	-	-	-	-	55.4	36.8
기타	-	-	-	-	-	-	-	-
잘 모름	0.0	0.0	-	-	-	-	0.5	0.6
부모만 가능	16.2	13.9	11.8	7.9	3.1	0.7	1.6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898)	(4,898)	(4,898)	(4,898)	(4,898)	(4,898)	(4,898)	(4,898)

이러한 응답은 조사 방법에 차이에 따라서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2과 2004년 조사와도 같은 맥락으로, 부모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³²⁾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기관 이용을 보면 취학전에도 53.8%만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39.5%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1-7 참조). 또한 3세도 유치원을 23.6% 정도가 이용하는데 4.4%만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즉, 부모들은 접근성이나 비용부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각과는 다소 다르게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32) 2004년도 조사에서는 보기에서 부모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5% 이상이 있음. 이러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특정 항목의 비율이 높고 줄음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동일함.

33) 부분적으로는 연령 산출 방식에서도 비율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실제로 보육연령 3세는 36개월부터 47개월 아동인데 비하여 조사 시에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응답할 가능성 있음.

다.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다음은 평일 시간대별로 아동을 주로 돌보는 주체가 누구(어디) 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30분 단위로 실시되었으며, 서비스 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되는 서비스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기준일은 방문조사 전날인 평일이었다. 이를 그림에 제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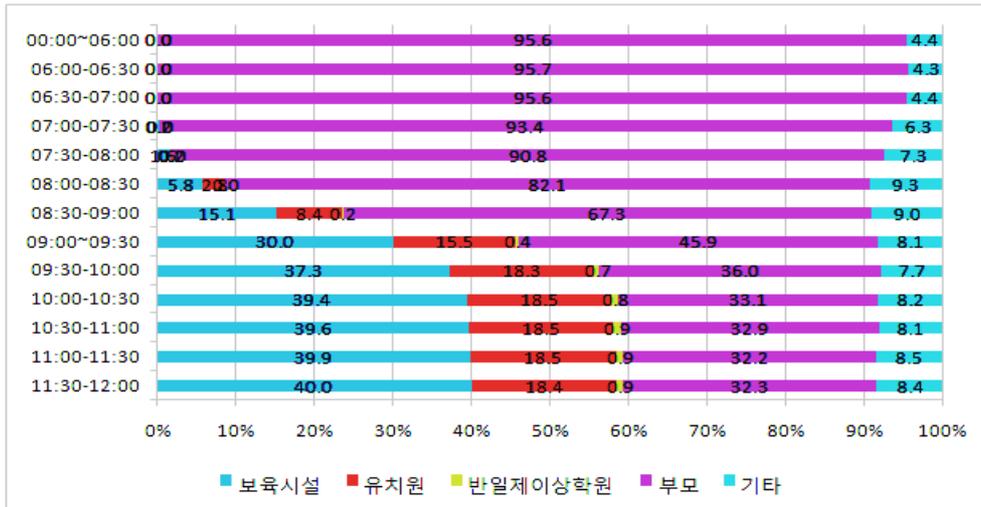
미취학 아동은 하루 동안 집에서 부모나 부모 외의 성인 즉 조부모, 비혈연 도우미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 기관에 가서 교사와 함께 지낼 수도 있다. 하루단위 시간으로 볼 때 영유아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림 IV-2-1]은 오전 0시부터 정오까지 반일의 영유아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전 7시 이전까지 95.6% 아동이 부모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4.4% 정도는 조부모나 비혈연, 친인척 등 부모 외 돌보아주는 사람 등 기타에 속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8시까지 90% 이상이 부모와 함께 있고 8시 이후가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5.8%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오후 12시까지 꾸준히 늘어나 11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최고 40%에 이르렀다. 유치원의 경우는 8시~8시 30분 사이에 2.8%가 이용을 시작하여 오전 동안 18.5%까지 이용 비율이 늘었고 반면 12시경 부모가 돌보고 있는 아동은 32.3%로 줄어들었다. 조부모 등 부모 외 돌보는 이와 같이 있는 비율은 8시~8시 30분 사이에 9.3%로 오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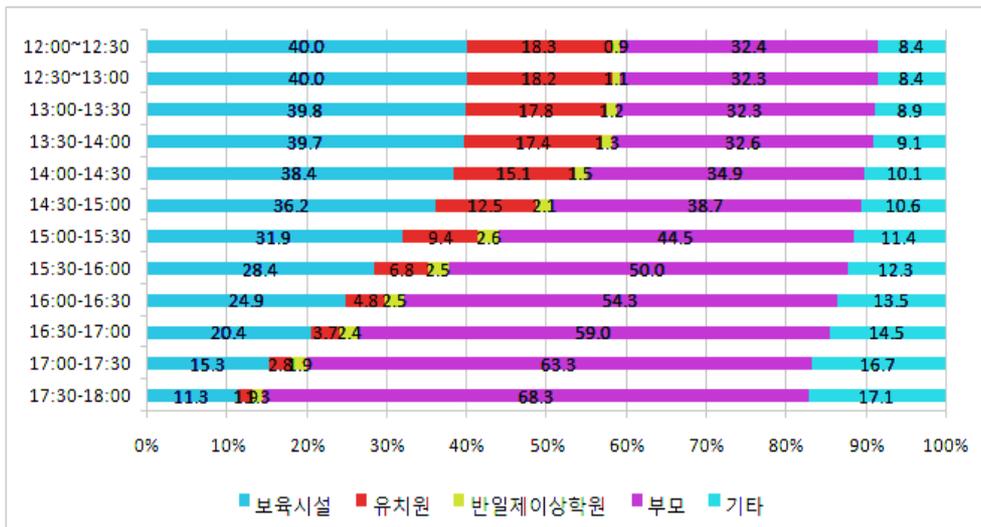
하루 중 오후 시간대의 영유아 기관이용 비율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기관이용이 줄어들고 부모 또는 기타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육시설은 3시 30분 이후가 되면서 이용률이 30% 이하로 떨어져 10%포인트 이상의 아이들이 3시 30분 이전에 귀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치원은 3시 이후 10%대 미만으로 줄었다. 반대로 3시 30분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50%이상으로 올라가고 부모 이외에 돌보는 성인이 같이 있는 경우 등 기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IV-2-2 참조).

영유아가 오후 6시 이후에 보육시설에 있는 경우는 6.4%이었고 8시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6시~6시 30분 사이 부모 외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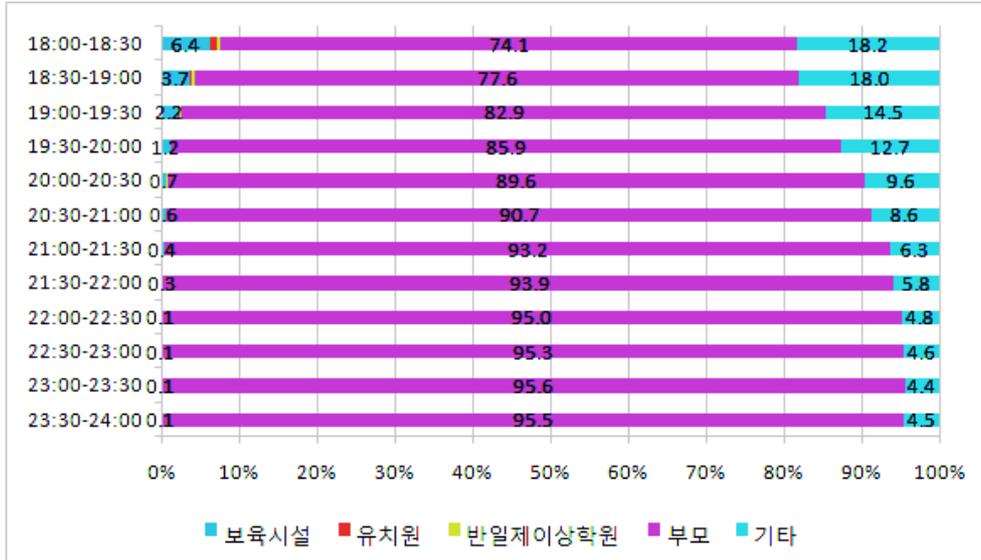
이용이 18.2%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 이후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나 밤 10시 이후에는 95% 이상의 안정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IV-2-3 참조).



[그림 IV-2-1]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그림 IV-2-3]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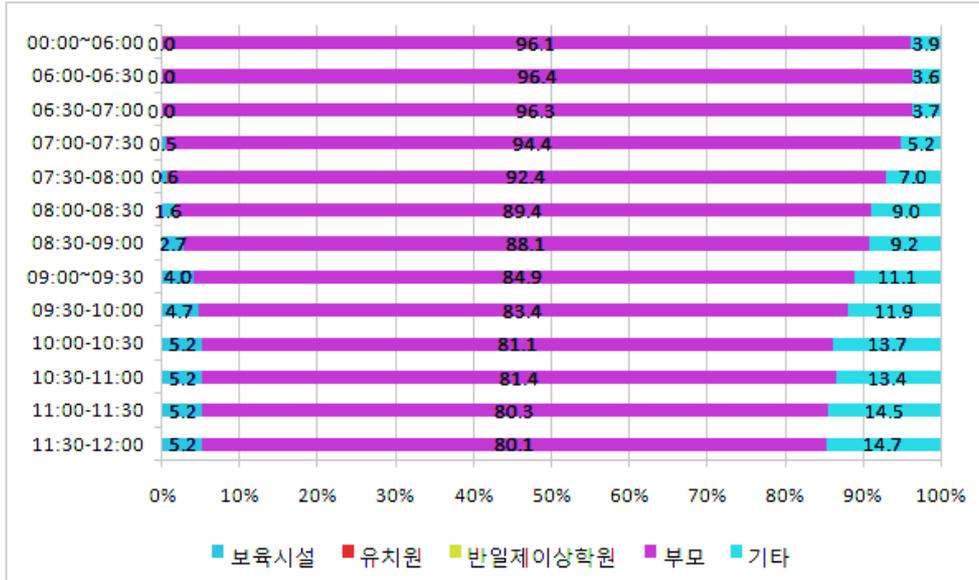
2) 연령별

다음은 각 연령별로 시간대별 이용하는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연령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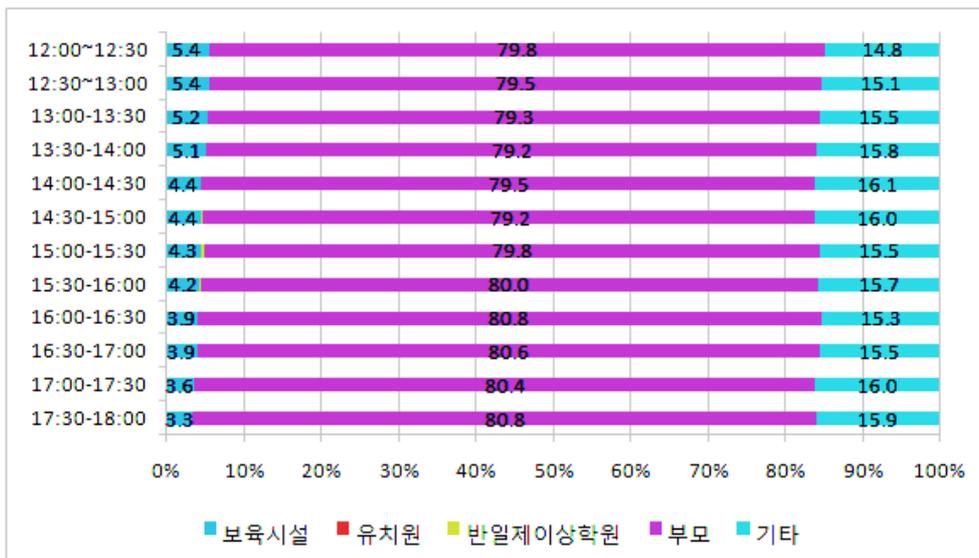
가) 0세 영아

다음 [그림 IV-2-4]는 0세 아동의 일일 시간 중 오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보여주고 있다. 오전 8시까지 90% 이상이 부모가 돌보며 9시30분까지 4% 정도의 0세 아동이 보육시설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오전동안 80% 이상 0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더불어 기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비율은 오전 동안 점차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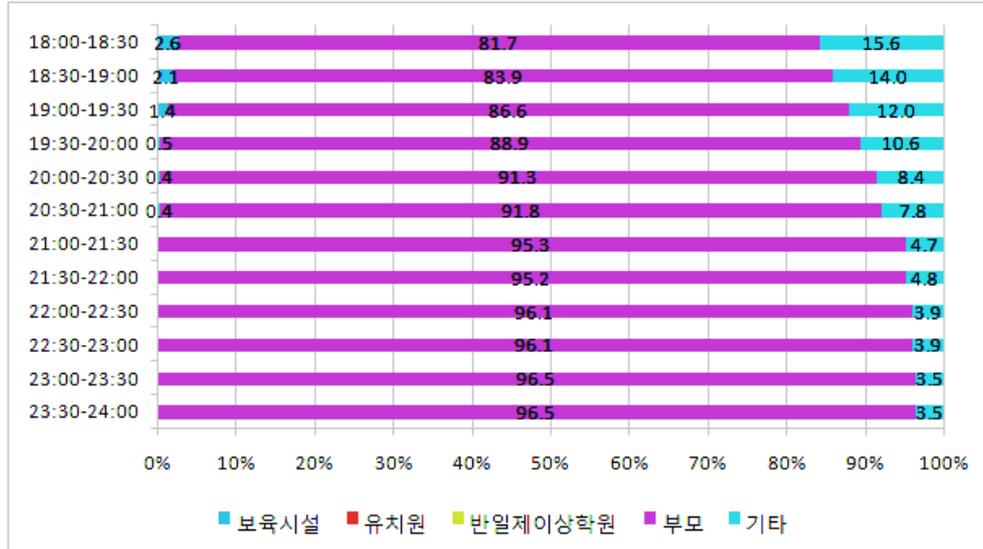
[그림 IV-2-5]와 [그림 IV-2-6]은 0세 아동의 오후 및 저녁시간의 보육·교육 이용을 나타낸다. 0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은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저녁 7시 30분 이후 거의 없어진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6시까지 80% 정도이다가 조금씩 비율이 높아져 8시 이후 90%를 넘었다.



[그림 IV-2-4]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5]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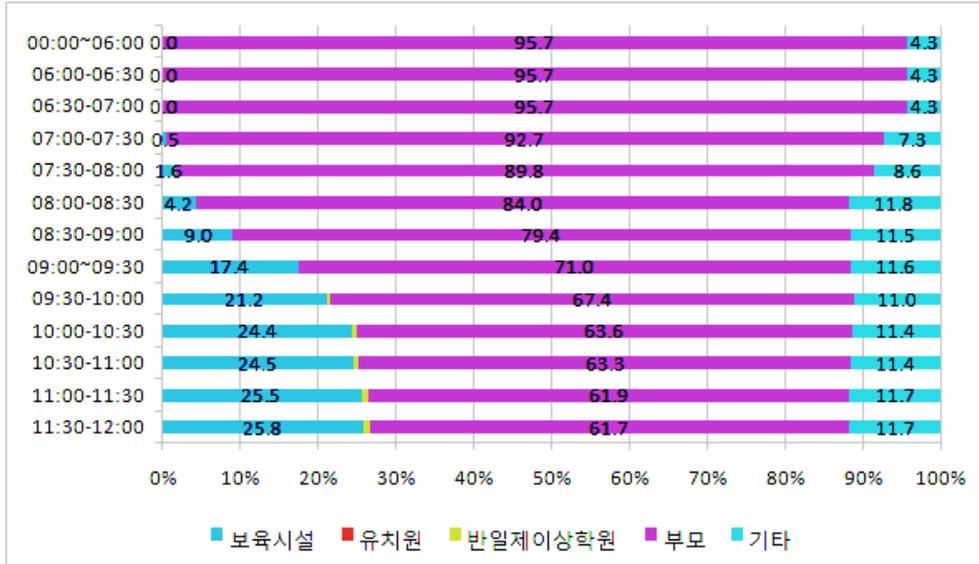


[그림 IV-2-6]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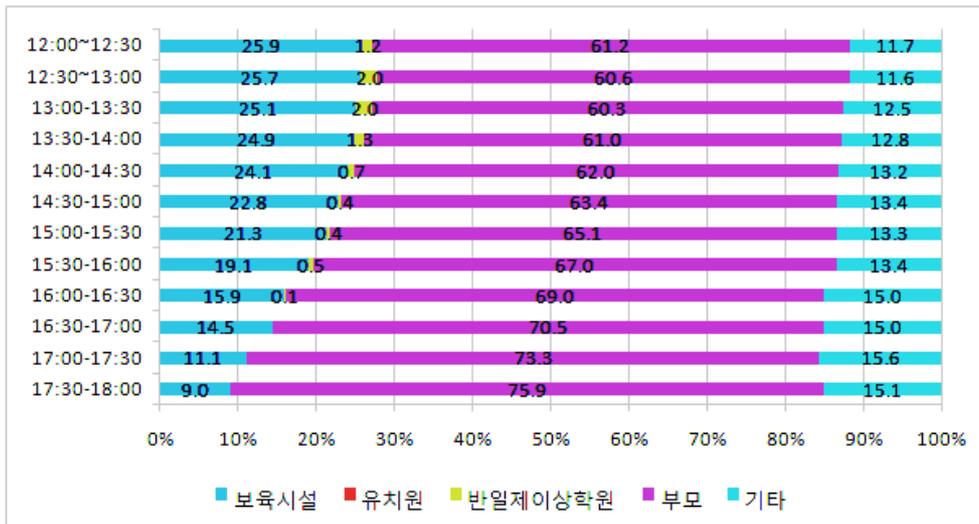
0세 아동의 경우 오후 2시 정도까지 5%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이후 4%대로 떨어지고 6시 이후는 2%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아 종일반을 정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을 짐작할 수 있다.

나) 1세 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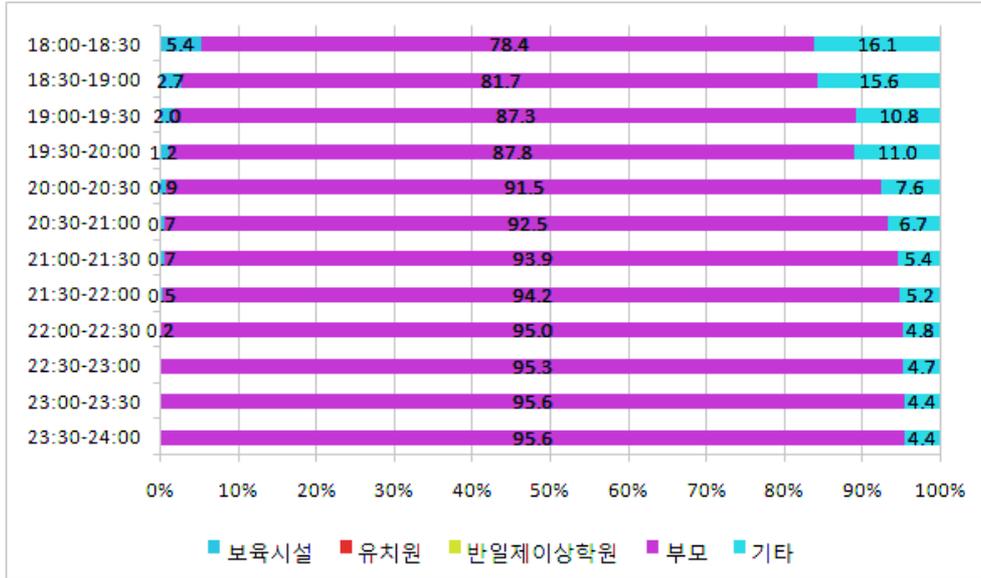
1세 영아의 하루 중 보육·교육 기관 이용 행태는 0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 오전 9시가 지나면서 17.4%의 1세아가 보육시설로 가고 이후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약 40% 아동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줄곧 60%대에 머문다. 그러다가 오후 4시 30분 이후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보육시설 이용을 중심으로 보면 1세 아동은 정오 무렵 25.9%가 보육시설에 있어 보육시설 이용에서 최고 비율을 보였다. 이후 시간부터 점차 보육시설에 있는 비율이 줄어든다. 대신에 부모나 기타 돌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 비율은 높아져 저녁 8시 이후가 되면 90% 이상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림 IV-2-7, 그림 IV-2-8, 그림 IV-2-9 참조).



[그림 IV-2-7]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8] 1세 아동의 일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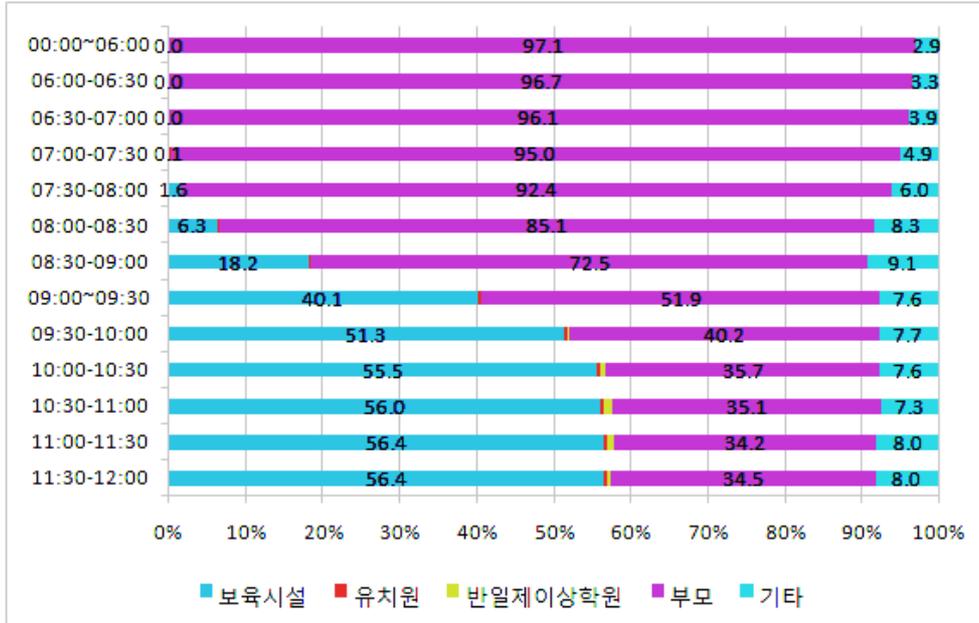


[그림 IV-2-9]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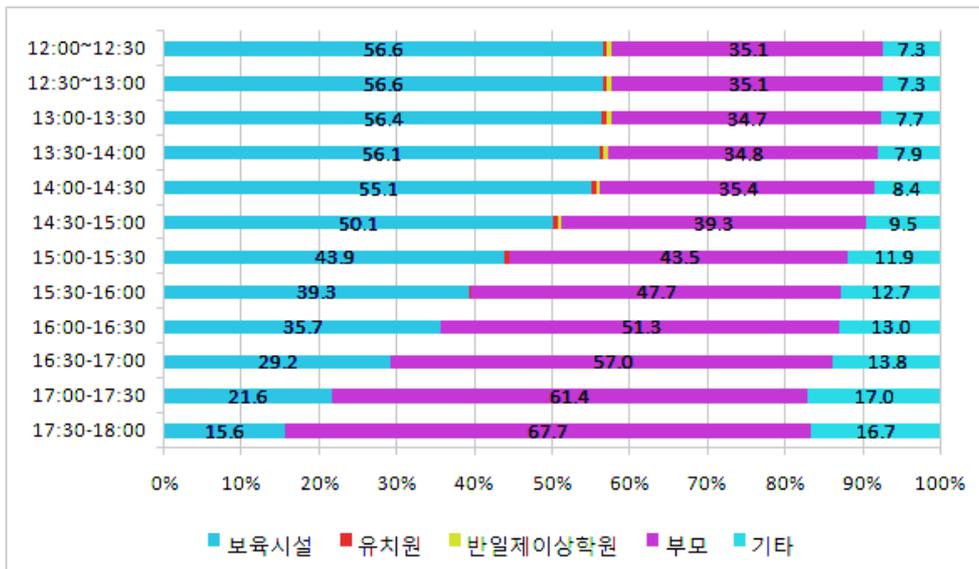
다) 2세 영아

[그림 IV-2-10]를 보면, 2세 아동의 경우 7시 30분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등장하고 있으며 오전 8시까지 90% 이상이 부모와 함께 있다. 그러나 8시 30분이 지나면서 보육시설에 가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11시에는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56.4%로 최고에 이르고 부모양육은 34.2%, 기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은 8.0% 정도로 나타난다.

오후부터 저녁 6시까지 2세아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 IV-2-11]을 보면, 3시정도 까지 55%이상의 2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그 이후는 다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시가 넘으면서 보육시설 이용은 급격히 줄고 오히려 기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다. 이는 기타 서비스에 조부모나 비혈연 도우미 등 아동을 보호하는 성인 개인의 비율도 포함되지만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이나 예체능 학원, 학습지 등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결과에 대한 한 가지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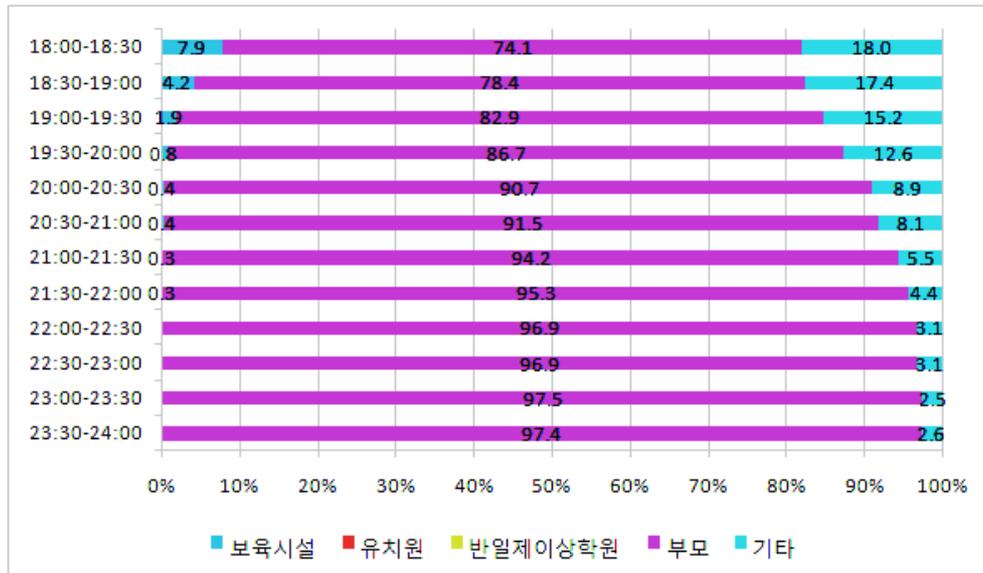


[그림 IV-2-10]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11]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그림 IV-2-12]는 저녁 6시 이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녁 8시 이후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시 30분 이후가 되어야 기타 서비스 이용비율이 5%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며 취침시간을 지나는 10시 이후에는 거의 97% 전후의 2세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다. 이 비율은 1세 아동의 경우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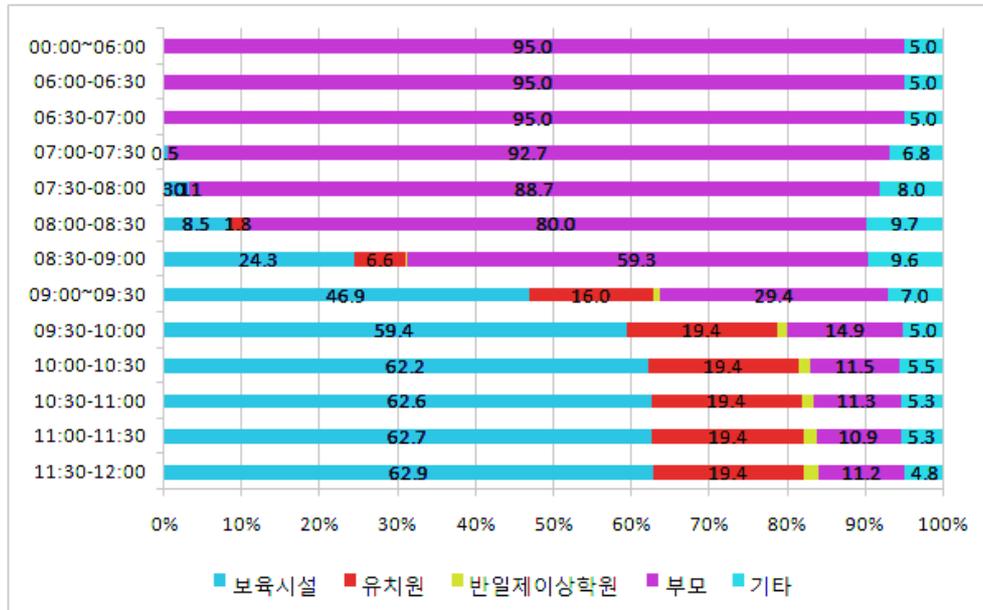


[그림 IV-2-12]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라) 3세 유아

[그림 IV-2-13]은 3세 아동의 하루 동안 시간대별 이용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경향이다. 2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이 연령부터 유치원 이용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 8시를 넘으면서 1.8%는 유치원으로 향한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난다. 8시 30분 이후 보육시설에 가는 아동이 급격히 많아지며 오전 10시경까지 거의 60%의 3세 아동이 보육시설에 있게 된다. 더불어 이 무렵 19.4%의 아동은 유치원에 있고 이전 연령과 차이나는 것은 부모가 돌보는 아동의 비율이 1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연령에 비해 기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율도 매우 낮다. 따라서 3세아의 80% 이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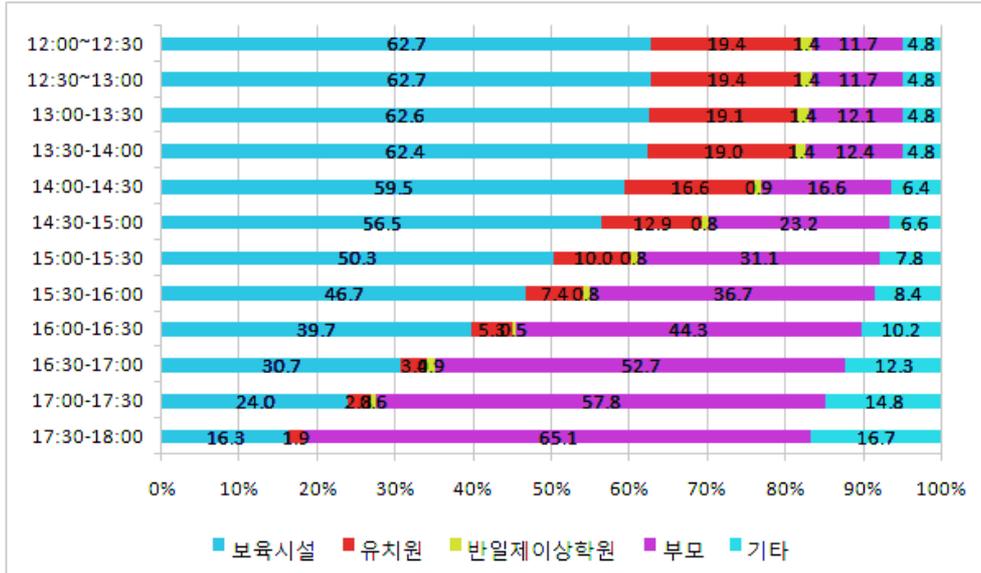
오전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보낸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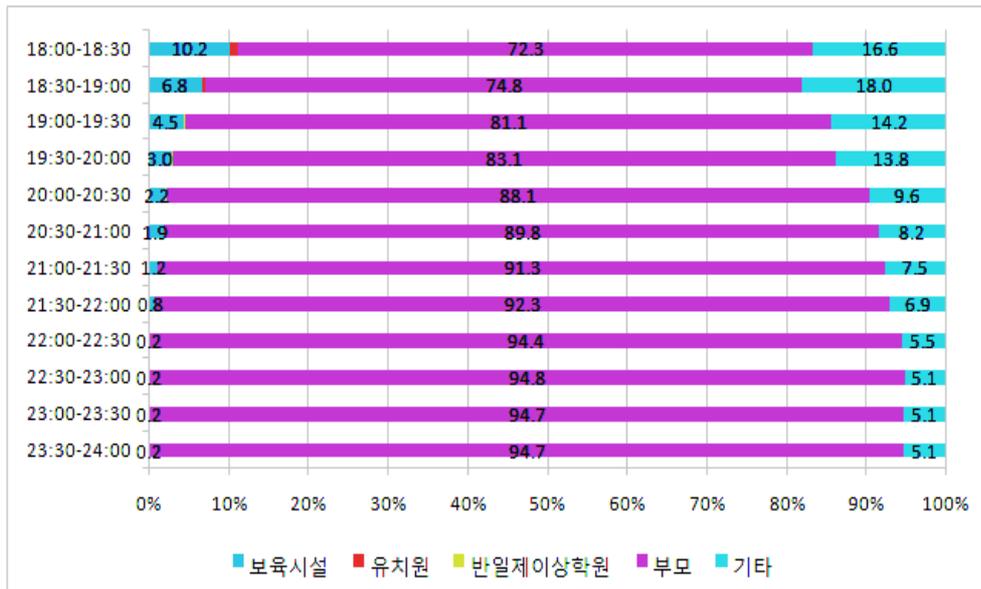
[그림 IV-2-13]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14]에서 볼 수 있듯이, 오후 2시를 넘으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있는 아동의 비율은 차츰 줄어들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면 보육시설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유치원 이용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부모가 보호하는 비율은 30%이상으로 차츰 높아지고 저녁 6시에 이르면 65% 이상이 되며 부모 및 주요 기관 이외 기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의 비율은 2세아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림 IV-2-15]는 6시 이후 자정까지 3세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경으로, 밤 9시 이후가 되어야 90%이상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세 아동이 8시 이후에 90%를 넘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더 늦은 시간까지 보육시설에 남아있는 아동이 많아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6시 이후 유치원 이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7시 이후는 완전히 없어지고 부모외 성인이나 기타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8시 이후가 되어야 10%이하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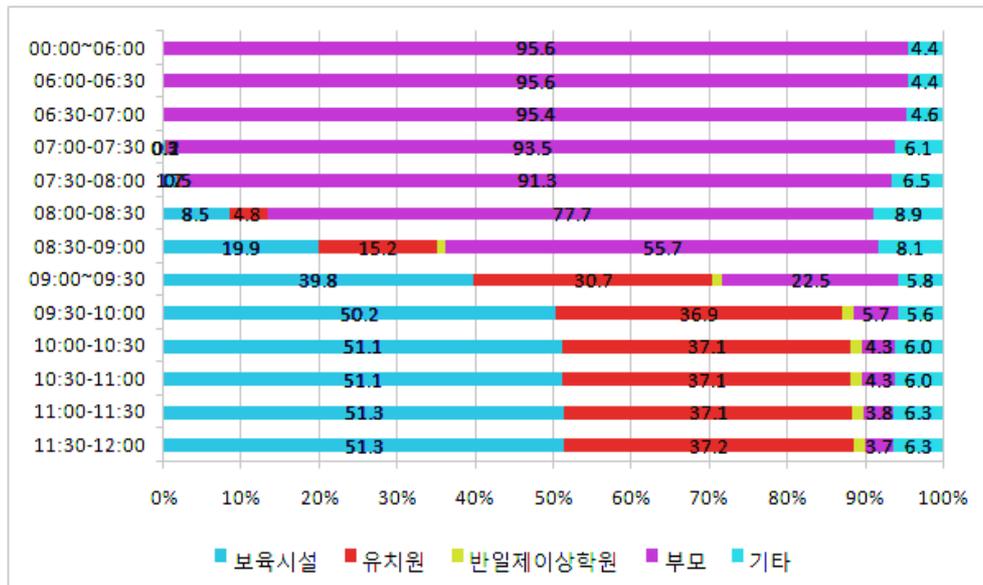
[그림 IV-2-14]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그림 IV-2-15]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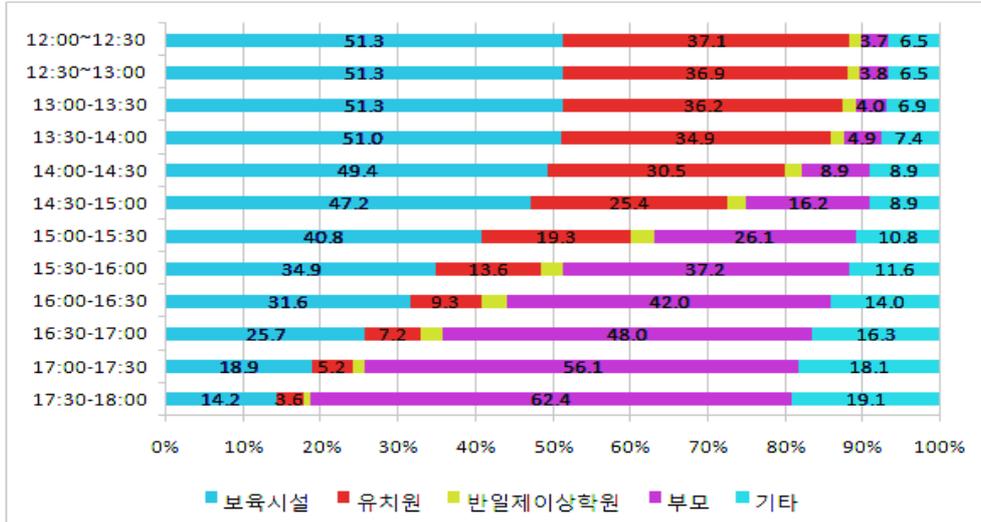
마) 4세 유아

4세 유아들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돌보는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IV-2-16]에서 알 수 있다. 전체 중 4.4%는 부모 외의 성인과 밤을 지내는 것으로 나와 있고 7시 30분 이후 보육시설에 가는 아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유치원은 30분정도 늦은 8시부터 4.8%로 뚜렷이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 10시까지 전체 4세의 50% 정도는 보육시설로, 37% 정도가 유치원으로 양분되어 등원하는 모습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이전 연령에 비해 10시 이후 부모와 함께 있는 아동의 비율은 3.7%까지 최소화되었으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 기타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 기타 서비스 이용 비율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일시적으로 약간 높다가 9시 이후 다시 줄어드는데 이는 이 시간이 부모의 출근시간대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인 등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낼 때까지 잠시 돌보는 경우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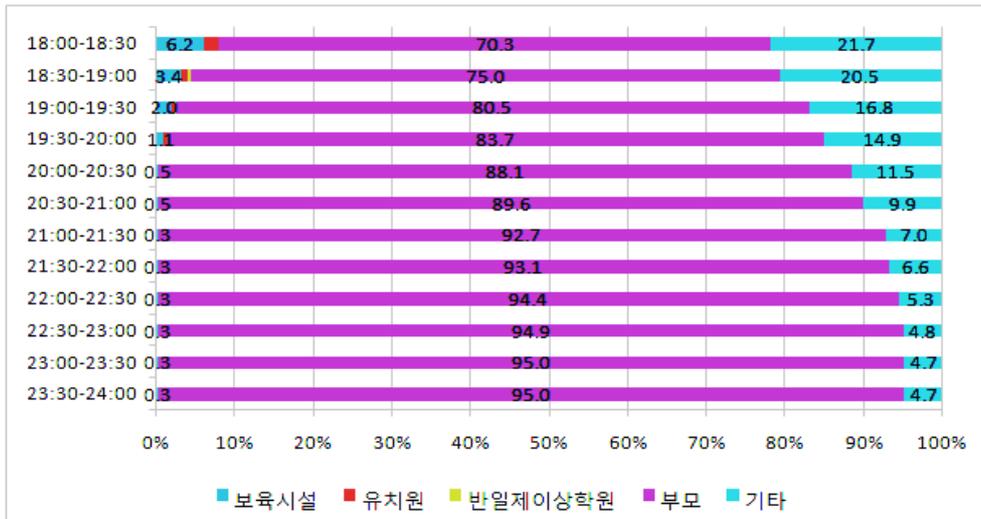


[그림 IV-2-16]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17]을 보면, 3세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시경까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많다가 그 이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V-2-17]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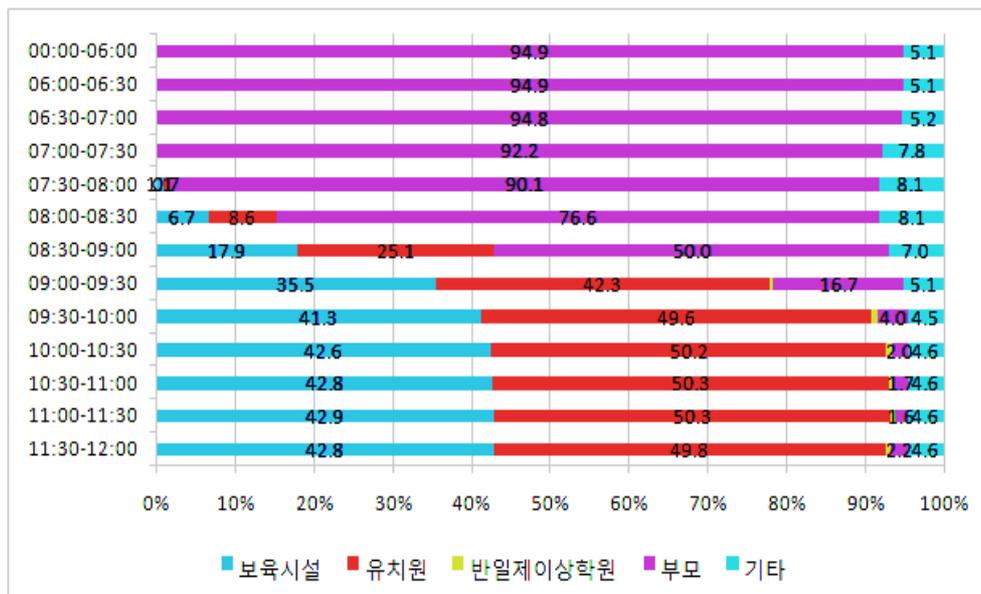
[그림 IV-2-18]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3세에 비해 4세는 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원 이용 비율이 근소하게 높다. 또한 아동이 기관으로부터 돌아오는 비율이 높은 2시 이후 부모 직접 보호와 기타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아지며 기타 서비스 이용 비율은 부모 퇴근시간인 저녁 6

시부터 7시 사이에 20% 정도로 최고치에 이른다(그림 IV-2-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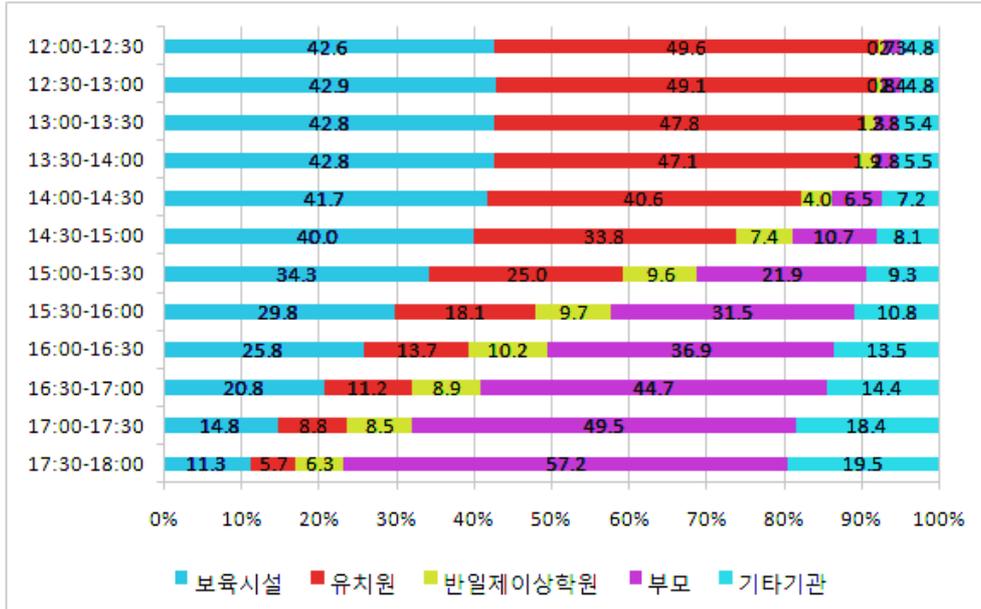
바) 5세 유아

[그림 IV-2-19]에서 알 수 있듯이, 5세 아동의 경우 이전 연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오전 8시 이후부터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보육시설보다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등원이 완료되는 오전 9시 30분 이후 보육시설은 43% 정도의 5세 유아가 이용하는 데 비해 유치원은 50% 이상이 다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 시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2%가 채 안되게 낮으며 기타 서비스 이용도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정오무렵 5세아는 92.6%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있으며 그 이외 학원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는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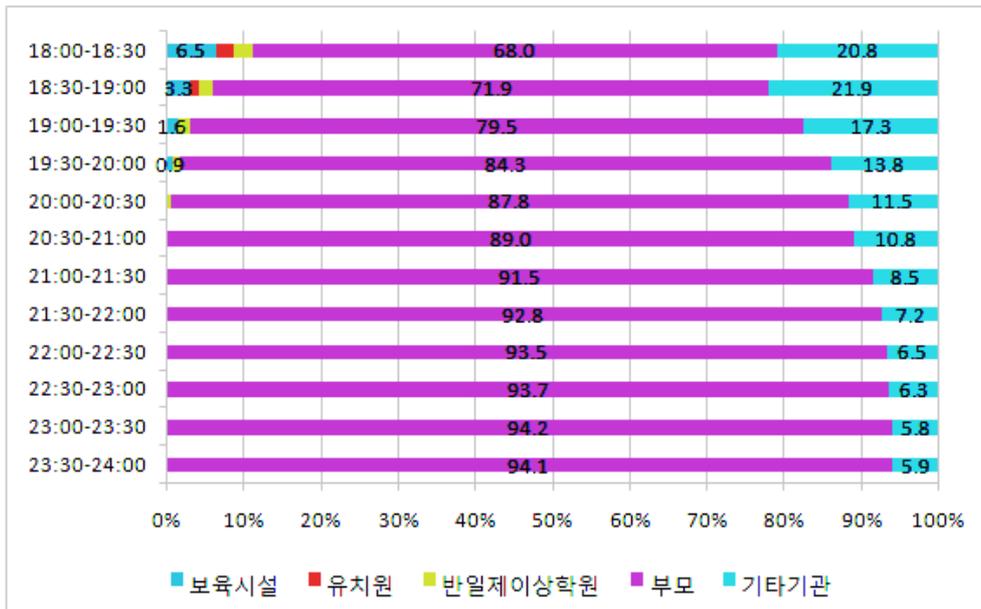


[그림 IV-2-19]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오후가 되면서 5세 아동들의 시간대별 기관이용과 돌보는 사람 비율 경향은 보다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2시 30분 정도까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 비율은 각각 40%까지 비슷하게 줄어든다(그림 IV-2-20 참조).



[그림 IV-2-20]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그림 IV-2-21]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이 시간 이후에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이 오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있던 5세 아동들이 오후 2시 이후 학원으로 일부 이동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학원 이용 비율은 차츰 높아져 4시 30분경 10%대에 이르고 그 이후 줄어들어 6시에는 6.3%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가 5세 아이를 직접 돌보는 비율은 5시 30분을 넘어서야 50%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후의 반일제이상 학원은 많은 수가 외국어 학원일 가능성이 높다.

5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 이용은 오후 7시에, 학원은 7시 30분에, 보육시설은 8시에 완전히 끝이 난다. 저녁 9시가 넘어야 90% 이상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모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부모의 성인과 밤을 보내는 아동이 5.9%정도로 이전 연령에 비해 조금 높다(그림 IV-2-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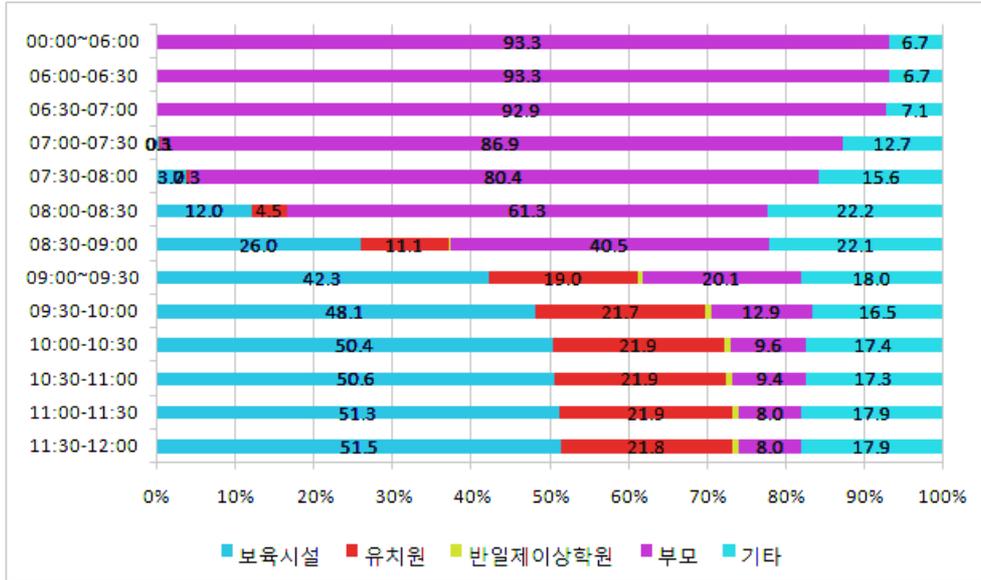
3) 취업여부별

가) 취업모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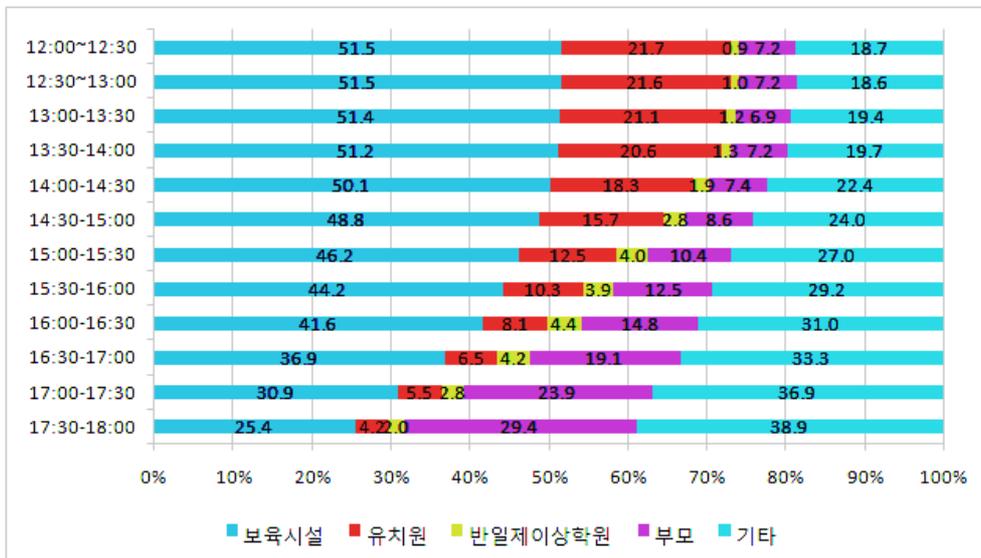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이른 시간 보육시설에 등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8시~8시 30분 사이 보육시설에 가는 아동의 비율은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전체 평균 5.8% 정도였으나(그림 IV-2-1 참조), 취업모 자녀는 같은 시간에 12.0%가 보육시설에 가고 4.5%가 유치원에 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동들의 기관이용 시작시간이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2-22 참조). 또한 부모 외 기타 성인이나 기관 이용 비율이 일반 평균보다 2배 가량 높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비율은 낮 12시의 경우 8%정도로 조사되어 아버지가 돌보거나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IV-2-23]과 [그림 IV-2-24]는 취업모 자녀의 오후 및 저녁시간 보육·교육 기관 이용 등을 보여준다. 일반 영유아 평균에 비해 보육시설을 6시 이후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조부모 등 부모외 기타 성인 및 기관이 돌보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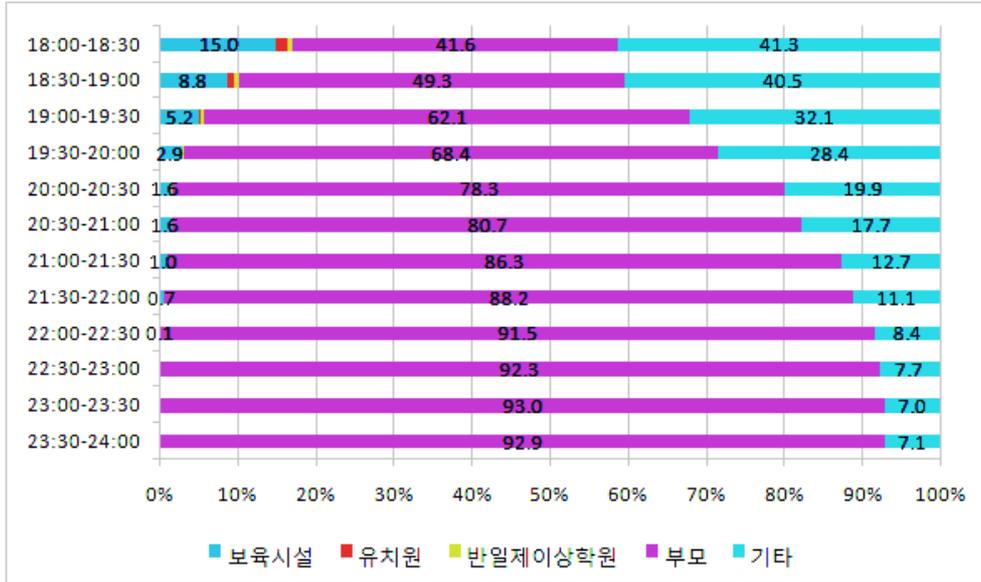
취업모의 귀가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저녁 8시경까지도 조부모, 비혈연 등 기타 성인이 돌보는 비율은 거의 30% 정도에 이른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늦은 시간은 10시 30분으로 상당히 늦은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밤 동안 6.7%의 아동이 부모외 성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2-22]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23]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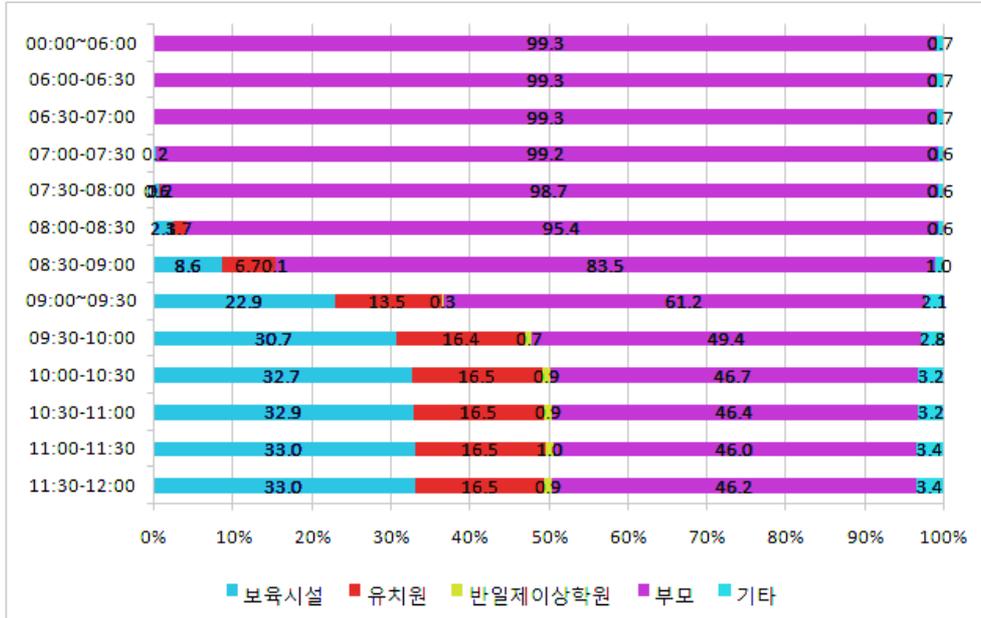
[그림 IV-2-24] 취업모 자녀의 일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나) 미취업모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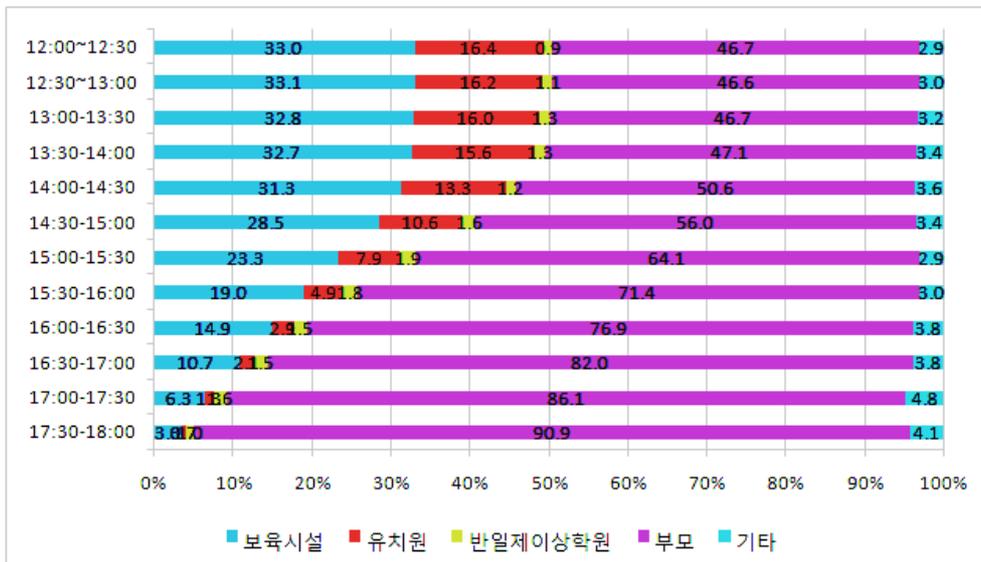
미취업모 자녀의 일일 기관 이용 및 돌보는 사람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모 자녀와는 상당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IV-2-25, 그림 IV-2-26, 그림 IV-2-27 참조).

먼저 아침에 기관 이용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은 편으로, 8시 30분과 9시 사이에 취업모 자녀는 26%가 보육시설에 있었던 데 비하여, 미취업모 자녀는 8.6%만이 보육시설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33% 정도로 낮은 편이고 유치원 이용 비율도 16%로 비교적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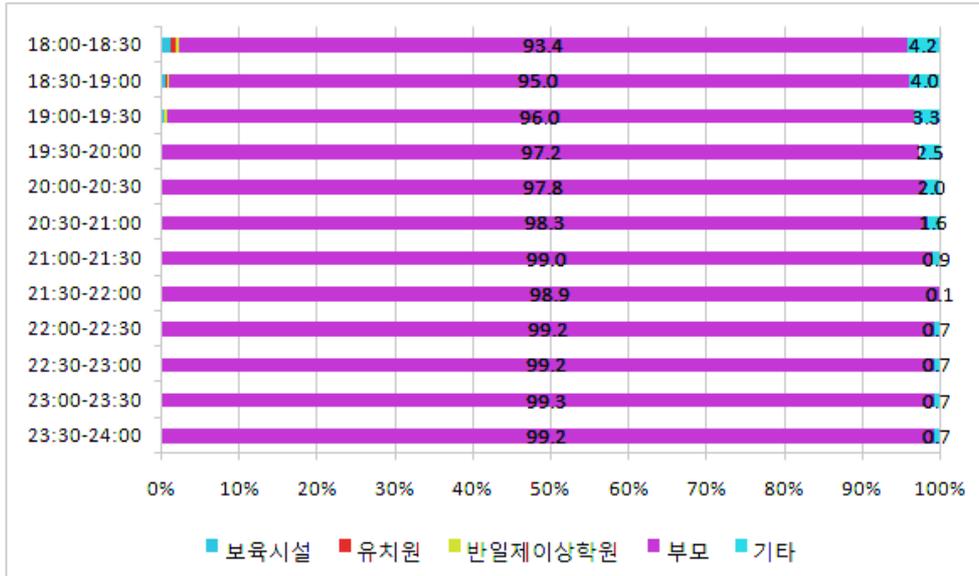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하원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6시 이후에도 기관에 남아 있는 아동이 거의 없다. 특히 미취업모는 오후 9시 이후 저녁과 야간시간에 타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0%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어 미취업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양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25]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00:00~12:00)



[그림 IV-2-26]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2:00~18:00)



[그림 IV-2-27]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18:00~24:00)

3. 자녀양육 소요 비용

제3절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 공식 기관은 물론, 학원 및 개인에 의한 비공식 부문 등 모든 형태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비용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가구당 보육·교육비용과 개별 아동 1인당 총 비용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³⁴⁾ 독립변수로 아동수, 지역규모, 모취업 및 소득수준을 사용하여 가구 및 부모 특성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 가구단위 비용

1) 영유아 가구

<표 IV-3-1>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구당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아

34) 각 서비스별 소요비용은 제4~7장에서 다루었음.

동수, 지역규모, 모 취업상태 및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335,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⁵⁾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4.1%이다.

〈표 IV-3-1〉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단위: 천원(명), %

구 분	통계값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F		
전체	335.0	366.4	0	3206		(2,547)	14.1
아동수							
1명	196.0	273.7	0	2348	161.6**	(1,102)	10.1
2명	429.5	376.1	0	3206		(1,204)	15.6
3명 이상	499.0	459.2	0	2849		(241)	18.3
지역규모별							
대도시	382.5	430.4	0	3206	26.1**	(1,135)	14.9
중소도시	323.6	316.7	0	2340		(977)	14.1
읍·면	236.9	248.9	0	1630		(436)	11.8
모취업별							
모취업	495.9	422.8	0	3206	154.3**	(911)	14.8
미취업	248.2	298.3	0	2639		(1572)	13.6
모부재	180.0	194.4	0	1367		(65)	12.0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131.4	174.0	0	1367	122.2**	(128)	23.0
100~149만원	142.7	142.5	0	808		(235)	16.0
150~199만원	170.0	188.8	0	1010		(423)	14.3
200~249만원	236.6	219.6	0	1139		(378)	14.5
250~299만원	292.2	246.1	0	1050		(316)	14.0
300~349만원	336.7	273.3	0	1524		(328)	12.7
350~399만원	385.5	296.6	0	1488		(155)	12.4
400~499만원	476.5	350.4	0	2004		(245)	12.5
500~599만원	675.6	484.5	0	2546		(155)	13.7
600만원 이상	859.0	634.4	0	3206		(183)	12.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아동수별로는 1명과 2명은 각각 196,000원, 429,500원으로 차이가 많지만 3명 이상은 499,900원으로 2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명은 10.1%이지만 2명, 3명 이상은 각각 15.6%, 18.3%로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382,500원, 중소도시 323,600원, 읍·면 236,900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도시가 14% 수준이고 읍·면 11.8%로 다소 높다.

35) 가구당 최대는 52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는 평균 495,900원, 미취업모 248,200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14.8%, 13.6%로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보다 약간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가구당 지출하는 아동 보육·교육 비용은 정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9만원 이하는 131,400원이고 100~149만원은 142,700원, 150~199만원은 170,000원, 200~249만원은 236,600원, 가구소득 250~299만원은 292,200원, 300~349만원은 336,700원, 350~399만원은 385,500원, 400~499만원은 476,500원, 500~600만원은 675,600원,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859,000원을 보육·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러한 비용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의 가구소득에서 보육·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3.0%로 산출되었고 이후는 16.0%부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츰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 기회가 가구의 소득수준, 즉 보호자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므로,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보육료, 교육비의 차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초등학교 이하 아동 가구

<표 IV-3-2>는 조사대상 전체로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당 아동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아동수, 지역규모, 모 취업상태 및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332,3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⁶⁾ 표준편차가 331,900원으로 매우 높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2.9%이다. 영유아가구와 비교하면 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다소 낮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아동수별, 지역, 모 취업 및 가구소득별수준별로는 영유아 가구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명은 9.6%, 2명 15.9%, 3명 이상 17.9%이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한다.

36) 가구당 최대는 52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IV-3-2〉 초등학교 이하 아동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단위: 천원(명), %

구 분	통계값				F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332.3	331.9	0	3206		(4,898)	12.9
아동수							
1명	227.4	247.3	0	2500	327.5**	(2,643)	9.6
2명	449.8	359.8	0	3206		(1,978)	15.9
3명 이상	494.1	459.3	0	2849		(277)	17.9
지역규모별							
대도시	379.2	382.7	0	3206	58.2**	(2,242)	13.4
중소도시	316.8	290.3	0	2340		(1,831)	13.0
읍·면	239.2	232.0	0	1630		(825)	11.1
모취업별							
모취업	402.2	360.3	0	3206	109.5**	(2,129)	12.6
미취업	291.1	302.7	0	2639		(2,533)	13.3
모부재	143.7	183.8	0	1367		(236)	11.9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104.1	144.4	0	1367	213.8**	(282)	21.2
100~149만원	142.1	141.5	0	808		(420)	15.6
150~199만원	183.8	182.7	0	1010		(700)	14.3
200~249만원	237.3	200.3	0	1139		(681)	13.5
250~299만원	285.5	223.5	0	1253		(556)	12.8
300~349만원	342.7	254.7	0	1524		(640)	12.2
350~399만원	375.4	264.7	0	1488		(337)	11.4
400~499만원	443.7	310.6	0	2004		(517)	11.2
500~599만원	592.8	416.6	0	2546		(345)	11.7
600만원 이상	737.9	535.1	0	3206		(420)	10.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아동 1인당 비용

보육·교육 비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 1인당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서 대상 아동 중 조사된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비율을 알아보았다. 영유아는 70.1%가 비용을 지불하고 29.9%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은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0세아 중에서는 20.9%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만5세가 되면 98.9%가 비용을 지불한다. 초등학교생은 90.7%가 비용을 지불하고 9.3%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은 영유아와는 반대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그 비율의

차이는 5%를 넘지 않는다(표 IV-3-3 참조).

〈표 IV-3-3〉 보육·교육 비용 지불 아동 비율

단위: %

영유아		초등학생	
연령	비율	학년	비율
전체	70.1	전체	90.7
0세	20.9	1학년	92.0
1세	49.5	2학년	92.1
2세	75.9	3학년	91.7
3세	92.4	4학년	91.1
4세	96.7	5학년	89.6
5세	98.9	6학년	88.3

〈표 IV-3-4〉는 연령구분별로 지불하는 금액 분포를 나타낸다. 영아는 53.1%가 지불하지 않고, 10만원 미만이 17.6%를 차지하지만 5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6.5%이다. 유아는 5~20만원 사이에 1/3 정도가 분포하고 50만원 이상은 11.4%이다. 초등저학년은 10~35만원 사이에 거의 60% 정도가 분포하며, 고학년은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3-4〉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단위: %(명)

연령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전체
미지불	53.1	4.0	8.1	10.3	18.4
49천원 이하	9.6	6.0	6.6	4.9	6.7
50~99천원 이하	8.0	11.4	11.4	7.5	9.4
100~149천원	4.9	11.5	12.8	9.4	9.6
150~199천원	3.0	11.8	13.2	10.2	9.6
200~249천원	2.8	9.4	11.6	13.6	9.8
250~299천원	3.2	9.6	9.1	9.7	8.0
300~349천원	3.6	8.6	7.4	10.0	7.5
350~399천원	2.6	6.7	5.7	6.0	5.3
400~499천원	2.7	9.6	6.9	8.6	7.0
500~599천원	2.8	3.9	2.9	4.3	3.5
600천원 이상	3.7	7.5	4.3	5.5	5.2
계(수)	100.0(1,743)	100.0(1,560)	100.0(1,929)	100.0(2,223)	100.0(7,453)

1) 영유아

영유아 1인당 지불하는 비용을 전체 아동과 비용 지불 아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아는 특히 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값은 크게 차이가 난다.

가) 전체 영유아

<표 IV-3-5>는 영유아 연령별로 지불하는 금액 분포를 나타낸다. 0세아는 79.1%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나 50만원 이상도 6.4%이다. 만1세아는 50.5% 정도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22.5%는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며 6.8%는 5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2세아는 24.1%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나, 15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비율은 36%로 늘어난다. 3세 유아는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며 50만원 이상도 9.1%인데, 4, 5세가 되면 높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40~45만원 미만이 10% 이상으로 증가한다.

<표 IV-3-5>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단위: %(명)

연령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미지불	79.1	50.5	24.1	7.6	3.3	0.8	29.9
49천원 이하	3.4	12.8	13.7	7.0	5.7	5.3	7.9
50~99천원	1.9	9.7	13.3	13.0	10.4	10.3	9.5
100~149천원	1.4	5.0	9.1	9.7	11.6	13.4	8.0
150~199천원	1.1	1.4	7.0	11.2	11.8	12.2	7.1
200~249천원	1.2	2.7	5.4	11.0	8.4	9.1	6.2
250~299천원	1.4	2.4	6.5	11.2	8.8	8.8	6.2
300~349천원	2.2	3.5	5.7	7.8	10.6	7.8	6.0
350~399천원	1.2	2.6	4.2	6.0	7.3	7.1	4.5
400~499천원	0.8	2.6	5.3	6.4	10.4	12.0	6.0
500~599천원	2.8	2.8	2.5	3.7	3.7	4.4	3.3
600천원 이상	3.6	4.0	3.2	5.4	8.0	8.8	5.4
계(수)	100.0(641)	100.0(576)	100.0(528)	100.0(516)	100.0(512)	100.0(531)	100.0(3,301)

<표 IV-3-6>은 비용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산출한 비용을 아동연령, 지역, 모의 취업 및 소득수준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미취학아동은 전체로 보면 아동 1인당 평균 비용은 189,500원이다. 표준편차가 234,600원으로 매우 크다. 이 비용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점차 증가되고, 표준편차도 점차 증가하다.

〈표 IV-3-6〉 미취학 아동의 월 보육·교육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

구 분	전체 영유아				비용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 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189.5	234.6	(3,303)	6.4	270.3	238.0	2348	(2,316)	9.2
연령									
0세	71.9	196.2	(640)	1.8	344.4	301.7	1300	(134)	8.6
1세	111.9	212.1	(576)	3.3	226.4	255.3	1580	(285)	6.7
2세	165.7	203.3	(528)	6.8	218.4	207.3	1555	(400)	7.7
3세	243.7	226.9	(516)	8.9	263.8	224.6	2348	(477)	9.5
4세	284.3	226.8	(512)	10.3	294.0	224.4	1751	(496)	10.7
5세	295.0	245.8	(531)	10.1	298.6	245.1	1900	(525)	10.2
F		103.5**		177.1**		11.1**			18.9**
지역규모별									
대도시	221.5	277.0	(1,318)	6.8	315.6	282.2	2348	(925)	9.8
중소도시	186.2	211.3	(1,435)	6.7	261.2	207.5	1555	(1,023)	9.4
읍·면	121.7	152.5	(550)	4.6	181.9	154.3	1256	(368)	6.9
F		36.1**		20.0**		44.5**			22.1**
모취업별									
모취업	310.5	285.7	(1,113)	8.6	345.6	280.5	2348	(1,000)	9.5
미취업	127.8	174.6	(2,114)	5.2	216.0	180.2	1900	(1,251)	8.9
모부재	134.6	163.4	(76)	7.8	157.1	166.3	1367	(65)	9.1
F		257.9**		80.4**		97.4**			2.3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79.9	126.6	(159)	10.4	118.3	138.6	1367	(107)	15.7
100~149만원	83.5	96.9	(304)	7.1	126.0	93.9	380	(202)	10.6
150~199만원	92.9	124.7	(562)	5.6	158.3	127.0	889	(329)	9.6
200~249만원	131.2	148.2	(496)	6.2	204.6	138.6	699	(318)	9.6
250~299만원	163.4	163.6	(410)	6.2	233.5	147.8	813	(287)	8.9
300~349만원	180.9	184.0	(425)	5.8	254.4	169.9	888	(303)	8.2
350~399만원	220.4	215.5	(207)	6.1	301.9	197.4	985	(151)	8.3
400~499만원	276.3	235.3	(310)	6.4	341.7	214.6	1350	(251)	7.9
500~599만원	389.6	335.4	(202)	7.4	465.8	314.5	2348	(169)	8.8
600만원 이상	512.6	394.3	(228)	6.9	586.0	366.9	1900	(199)	7.6
F		127.5**		6.8**		113.9**			12.9**
2004년 조사	157.6	174.8	(2,960)	6.4	235.0	165.4	1,440	(1,984)	9.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전체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평균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6.4%이고, 0세 아동이 1.8%로 가장 낮고, 연령이 증가하면

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다.

가구 및 모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이 각각 221,500원, 186,200원, 121,700원으로의 차이가 있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도 취업모가 310,500원으로 미취업모 127,800원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인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정적 관계를 보여서, 소득수준 99만원 이하는 79,900원인데 비하여 600만원 이상은 512,600원을 지출한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최고 10.4%이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금액은 많아지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6.2%까지 낮아진다(표 IV-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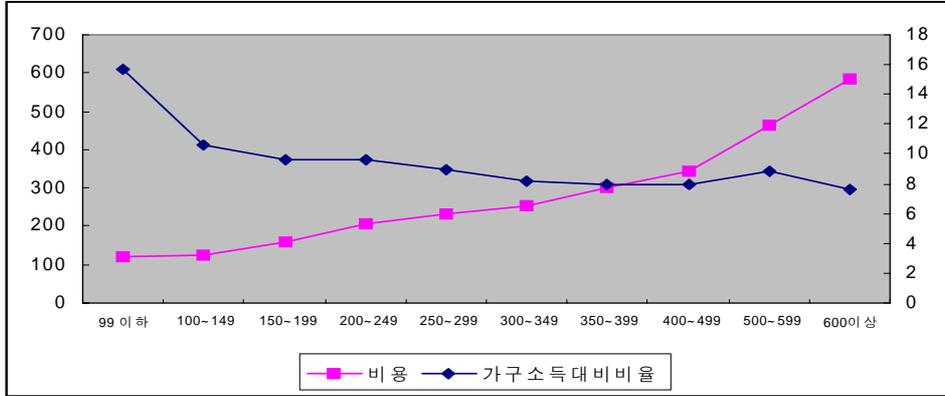
나) 비용 지불 영유아

한편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으로 한정하여 월 평균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1인당 비용은 270,300원으로 증가한다. 0~4세는 0세아가 가장 많고 이후 1~2세는 크게 낮아지고 다시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용도 점차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변형된 U자를 나타낸다(표 IV-3-6 참조).

0세아는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이 20% 정도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의 평균이 344,400원으로 가장 높고, 1세 226,400원, 2세 218,400원으로 점차 감소하다 3세 263,800원, 4세 294,000원, 만5세는 298,600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보육·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평균은 지불아동과 미지불아동을 합친 것과는 달리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전체가구 기준으로 9.2%이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10.2%까지 높아진다. 평균 9.2%는 2004년 9.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구 및 모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이 각각 315,600원, 261,200원, 181,900원으로의 차이가 있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도 취업모가 345,600원으로 미취업모 216,000원에 비하여 약 13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정적 관계를 보여서, 소득수준 99만원 이하는 118,300원인데 비하여 600만원 이상은 586,000원을 지출한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최고 15.7%이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금액은 많아지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7.6%까지 낮아진다.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절대액은 물론 소득 대비 비율도 높게 조사되었다(표 IV-3-6 참조).



[그림 IV-3-1] 비용지불 영유아의 가구소득별 보육·교육비용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2) 초등학생

가) 전체 초등학생

<표 IV-3-7>은 초등학생 학년별로 지불하는 금액 분포를 나타낸다. 전 비용 구간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은 금액 쪽 비율이 증가한다.

<표 IV-3-7> 초등학생 학년별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분포

단위: %(명)

연령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미지불	8.0	7.9	8.4	8.9	10.4	11.7	9.3
49천원 이하	8.8	5.8	5.5	4.5	5.4	4.6	5.7
50~99천원	15.1	11.2	8.4	8.9	8.0	5.7	9.3
100~149천원	12.9	12.8	12.5	9.7	10.1	8.4	10.9
150~199천원	15.3	12.1	12.5	11.2	10.7	8.8	11.6
200~249천원	9.7	13.6	11.8	13.9	13.0	14.2	12.8
250~299천원	8.7	9.5	8.8	10.1	8.6	10.1	9.4
300~349천원	7.0	6.9	8.1	10.0	10.0	9.9	8.7
350~399천원	3.7	6.0	7.1	5.0	6.5	6.5	5.9
400~499천원	4.3	7.3	8.8	8.4	8.3	9.0	7.8
500~599천원	2.4	3.3	3.0	4.5	3.4	5.0	3.7
600천원 이상	4.1	3.6	5.1	4.9	5.6	6.1	4.9
계(수)	100.0(587)	100.0(634)	100.0(707)	100.0(762)	100.0(703)	100.0(758)	100.0(4,152)

<표 IV-3-8> 취학 아동의 월 보육·교육 비용 평균

단위: 천원(명), %

구 분	전체 초등학생				비용 지불 초등학생				
	평균	표준 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239.0	198.1	(4,152)	7.9	263.4	191.8	2500	(3,766)	8.7
연령									
1학년	200.0	174.1	(587)	6.8	217.2	170.8	1100	(541)	7.4
2학년	228.4	193.2	(634)	7.7	248.1	188.8	1614	(584)	8.3
3학년	243.9	199.9	(707)	8.0	266.1	194.2	1490	(648)	8.8
4학년	245.2	185.9	(762)	8.3	269.0	177.5	1363	(694)	9.1
5학년	247.6	216.2	(703)	8.4	276.1	210.4	2500	(630)	9.3
6학년	259.2	207.8	(758)	8.0	293.8	197.0	1725	(669)	9.1
F		7.0**		4.4**		11.2**			6.6**
지역규모별									
대도시	284.2	231.1	(1,700)	8.6	307.6	225.0	2500	(1,571)	9.3
중소도시	222.7	170.6	(1,740)	7.8	245.1	162.9	1220	(1,581)	8.6
읍·면	170.5	141.3	(712)	6.6	197.5	133.4	790	(615)	7.6
F		91.7**		22.6		89.3**			14.8**
모취업별									
모취업	251.6	203.7	(2,007)	7.6	273.3	197.8	2500	(1,847)	8.3
미취업	242.9	193.2	(1,907)	8.5	263.1	187.4	1725	(1,761)	9.2
모부재	100.3	122.9	(238)	6.0	151.1	122.8	730	(158)	9.1
F		64.6**		17.5**		30.3**			8.1**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66.1	84.2	(256)	9.2	110.6	83.4	450	(153)	16.6
100~149만원	106.9	98.9	(322)	9.1	137.8	91.4	454	(250)	11.7
150~199만원	146.2	118.2	(524)	8.8	170.9	110.1	730	(449)	10.3
200~249만원	177.5	127.7	(548)	8.4	198.2	118.8	655	(490)	9.3
250~299만원	205.0	123.1	(456)	7.8	218.6	114.8	669	(427)	8.3
300~349만원	250.3	146.1	(572)	8.0	257.7	141.6	1,220	(556)	8.3
350~399만원	258.9	149.6	(312)	7.1	268.8	143.4	910	(301)	7.4
400~499만원	307.6	172.1	(463)	7.3	316.4	166.3	1,135	(450)	7.5
500~599만원	387.9	208.8	(321)	7.4	395.2	203.8	1,244	(315)	7.5
600만원 이상	483.3	307.3	(378)	6.1	486.1	306.0	2,500	(375)	6.1
F		218.5**		7.6**		167.5**			44.0**
2004년 조사	176.4	156.6	(3,448)	7.1	196.7	152.8	2,650	(3,092)	7.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이러한 경향은 평균으로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표 IV-3-8>을 보면 취학아동은 아동 전체로 보면 월 239,000원이다. 표준편차가 198,100원으로 매우 크다. 이 비용은 학년에 따른 증감은 1학년, 2학년, 3~5학년, 그리고 6학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체 취학 아동의 연령별 보육·교육 비용 평균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7.9%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다소 낮고 그 이후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평균 7.9%는 2004년 7.1%에 비하여 높아진 것이다.

가구 및 모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이 각각 284,200원, 222,700원, 170,500원으로서 차이가 있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보여서, 소득수준 99만원 이하는 66,100원인데 비하여 600만원 이상은 483,300원을 지출한다. 그러나 모의 취업상태별로도 취업모가 251,600원, 미취업모 242,900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최고 9.2%이고 최저 6.1%이다.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절대액은 많으나 소득 대비 비율은 다소 낮다(표 IV-3-8 참조).

나) 비용 지불 초등학생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으로 한정하여 보면 평균은 263,400원으로 24,000원 정도 증가한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217,200원, 6학년 293,800원으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비용도 점차 증가한다. 표준편차는 191,800원으로 여전히 아동간 격차가 크다(표 IV-3-8 참조).

보육·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취학 아동의 학년별 보육·교육 비용 평균은 전체가구 기준으로 8.7%로 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미취학 아동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보다 낮으며, 취학아동의 경우 전체아동과 비용 지불 아동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대비 비율이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 가구소득대비 비율 2004년에는 7.9%로 2009년이 0.8%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비용 지원이 확대된 영유아와는 다른 결과이다.

가구 및 모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이 각각 307,600원, 245,100원, 197,500원으로서 차이가 있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도 취업모가 273,300원, 미취업모 263,100원으로 취업모가 약 1만원 정도를 더 지불하는 것의 차이만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으면 비용도 많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서, 소득수준 99만원 이하는 110,600원인데 비하여 600만원 이상은 486,100원을 지출한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최고 16.6%이고 높은 계층은 최저로 6.1%이다.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절대액은 많으나 소득 대비 비율은 다소 낮은 것은 전체와 동일하다(표 IV-3-8 참조).

4. 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취업

가. 모의 자녀양육 지원

1) 부모간 역할 분담

2009년 실태조사에서는 부모와 그 이외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돌보기 역할분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IV-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가 함께 돌본다는 응답이 29.5%이고 22.0%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고 41.0%는 대체로 어머니가 돌보며 아버지가 주된 역할을 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표 IV-4-1> 최연소 자녀 구분별 부모의 자녀돌보기 분담

단위: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타인	전체	X ² (df)
전체	22.0	41.0	29.5	1.1	0.3	6.1	100.0(4,624)	
연령구분 1								
영유아	21.9	42.6	29.1	0.6	0.2	5.6	100.0(2,477)	20.4(5)**
초등학생	22.1	39.2	29.8	1.7	0.5	6.7	100.0(2,148)	
연령구분 2								
영아	21.2	43.7	29.6	0.3	0.1	5.1	100.0(1,534)	
유아	23.0	40.7	28.3	1.0	0.5	6.5	100.0(943)	35.7(15)**
초등저학년	22.9	38.7	29.6	1.7	0.2	6.9	100.0(1,077)	
초등고학년	21.4	39.6	30.2	1.6	0.7	6.5	100.0(1,0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막내 자녀 연령구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아버지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비율이 최대 초등고학년 2.3%로 매우 낮다. 부부가 함께 돌본다는 비율은 막내자녀 연령별로 거의 차이가 없이 30% 내외이다.

다음 <표 IV-4-2>는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 및 어머니 취업 특성별로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규모별로는 전적으로 부인이 본다는 비율이 읍·면이 17.7%로 도시 22~23%보다 비율이 낮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는 부부 이외의 사람이 돌본다는 비율이 11.4%이고 부부가 함께 돌본다는 비율이 39.8%로 미취업 24.2%보다 높다. 즉 취업한 모의 경우는 미취업모에 비하여 모가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돌보는 비율은 낮고 부부가 함께 돌보거나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

〈표 IV-4-2〉 영유아 가구 남편과 자녀돌보기 분담 방식

단위: %(명)

구 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타인	전체
전체	21.9	42.5	29.2	0.6	0.2	5.6	100.0(2,478)
지역규모별							
대도시	22.4	41.8	29.0	0.8	0.2	5.8	100.0(1,109)
중소도시	23.2	41.4	29.4	0.2	0.1	5.7	100.0(945)
읍·면	17.7	46.9	29.0	0.7	0.7	5.0	100.0(424)
모취업별							
모취업	13.9	33.2	39.8	1.5	0.2	11.4	100.0(871)
미취업	26.9	48.4	24.2	0.1	0.1	0.3	100.0(1,556)
모부재	2.0	22.0	-	-	6.0	70.0	100.0(50)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20.2	48.2	24.0	1.9	1.9	3.8	100.0(104)
100~149만원	24.2	40.0	31.2	-	-	4.7	100.0(215)
150~199만원	26.0	45.9	22.9	0.2	0.2	4.8	100.0(415)
200~249만원	23.9	45.4	27.2	0.5	-	3.0	100.0(368)
250~299만원	25.6	41.5	28.2	0.6	0.3	3.8	100.0(316)
300~349만원	18.1	45.1	31.6	0.3	0.6	4.3	100.0(326)
350~399만원	17.4	40.7	36.1	0.6	-	5.2	100.0(155)
400~499만원	21.6	40.0	29.0	0.4	-	9.0	100.0(245)
500~599만원	21.2	37.8	31.4	0.6	-	9.0	100.0(156)
600만원 이상	10.6	35.5	37.8	2.2	-	13.9	100.0(180)

2) 동거 가족 외 양육 지원

가) 지원자

다음은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인척 이외에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IV-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인척으로는 친정부모가 34.3%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이 부인의 형제자매 19.3%, 시부모 17.8%이며 비혈연으로는 이웃이 20.0%이다. 시부모의 경우 동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동거로 한정할 경우 비율이 낮을 수 있으나, 친정부모와의 비율 격차를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막내 자녀 연령구분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그 대신에 부인의 형제자매와 이웃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증가한다. 막내자녀가 영아인 경우 42.1%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는 26.0%로 감소한다. 대신에 부인의 형제자매와 이웃은 막내자녀가 영아인 경우 각각 16.4%, 13.9%이었으나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는 각각 26.2%, 24.3%로 증가하였다.

<표 IV-4-3>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비동거 친인척
단위: %(명)

구분	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형제자매	부인 형제자매	이웃	기타	전체	X ² (df)
전체	17.8	34.3	6.8	19.3	20.0	1.8	100.0(3,173)	
연령구분 1								
영유아	19.9	39.3	6.4	16.6	15.9	1.9	100.0(1,792)	92.0(5)**
초등학생	15.2	27.7	7.3	22.7	25.4	1.7	100.0(1,379)	
연령구분 2								
영아	19.5	42.1	6.2	16.4	13.9	1.9	100.0(1,131)	
유아	20.3	34.5	6.8	17.0	19.4	2.0	100.0(664)	115.9(15)**
초등저학년	15.1	29.2	7.8	19.5	26.3	2.0	100.0(733)	
초등고학년	15.2	26.0	7.1	26.2	24.3	1.2	100.0(64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음 <표 IV-4-4>는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 및 어머니 취업 특성별로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친정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42.3%로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높고 읍·면이 이웃을 지정한 비율이 23.7%로 14~15%인 도시보다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친정부모 비율은 취업모나 미취업모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고 시부모 비율이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가구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아주 높은 집단과 아주 낮은 집단이 그 중간 집단에 비하여 다른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수준이 150만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 시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27.5%, 24.3%로 상대적으로 높고 친정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22.5%, 31.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한편 소득수준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시부모 15.3%, 친정부모 51.4%로 시부모의 지정한 비율이 낮고 친정부모

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표 IV-4-4 참조).

<표 IV-4-4> 영유아 가구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비동거인

단위: %(명)

구 분	시부모	친정부모	남편 형제자매	부인 형제자매	이웃	기타	전체	X ² (df)
전체	19.9	39.3	6.5	16.6	16.0	1.7	100.0(1,793)	
지역규모별								
대도시	20.2	42.3	6.4	15.0	13.9	2.0	100.0(841)	24.6(10)**
중소도시	20.4	37.2	6.1	18.6	15.5	2.2	100.0(690)	
읍·면	17.2	34.7	7.6	16.4	23.7	0.4	100.0(262)	
모취업별								
모취업	25.9	39.3	5.7	15.7	11.1	2.3	100.0(649)	na
미취업	16.2	40.3	6.3	17.5	18.0	1.5	100.0(1,114)	
모부재	20.7	3.4	31.0		41.4	3.4	100.0(29)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27.5	22.5	8.8	22.5	17.5	1.2	100.0(80)	64.0(45)*
100~149만원	24.3	31.8	6.1	17.6	15.5	4.7	100.0(148)	
150~199만원	18.3	39.7	8.7	14.7	16.3	2.3	100.0(300)	
200~249만원	18.9	37.8	6.5	17.8	17.8	1.2	100.0(275)	
250~299만원	19.7	39.0	9.2	12.3	18.0	1.8	100.0(228)	
300~349만원	20.2	41.3	5.4	16.6	15.7	0.8	100.0(223)	
350~399만원	21.0	43.8	6.7	15.2	12.4	1.0	100.0(105)	
400~499만원	19.2	40.1	3.4	21.5	15.3	0.5	100.0(177)	
500~599만원	20.0	39.1	3.5	19.1	17.4	0.9	100.0(115)	
600만원 이상	15.3	51.4	4.2	13.9	10.4	4.8	100.0(14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나) 지원자 거주 거리

다음 <표 IV-4-5>는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거리를 이동에 필요한 시간으로 알아보았는데, 대체로 10분 정도가 41.7%로 다수이고 10~20분 15.9%, 20~30분 12.8%로 약 70% 정도가 30분 거리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막내 자녀 연령구분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나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육아 지원을 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중소도시나 읍·면에 비하여 다소 멀고, 취업한 모의 경우가 육아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10분 거리에 있다는 응답비율이 43.6%로 미취업모 37.5%보다 높다. 소득계층별로는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는다(표 IV-4-6 참조).

〈표 IV-4-5〉 최연소 자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응답자 자택 간 거리

단위: %(명)

구 분	10분 거리	10~20분 거리	20~30분 거리	30~1시간 거리	1~2시간 거리	2시간 이상	전체	X ² (df)
전체	41.7	15.9	12.8	12.5	8.8	8.3	100.0(3,168)	
연령구분 1								
영유아	40.2	16.6	13.5	12.9	9.3	7.5	100.0(1792)	9.7(5)
초등학생	43.6	15.1	12.0	12.0	7.9	9.4	100.0(1378)	
연령구분 2								
영아	37.1	17.1	13.7	14.1	9.9	8.1	100.0(1129)	33.6(15)**
유아	45.6	15.7	13.1	11.1	8.0	6.5	100.0(663)	
초등저학년	46.2	15.6	11.5	10.6	8.3	7.8	100.0(733)	
초등고학년	40.6	14.6	12.7	13.4	7.6	11.1	100.0(64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표 IV-4-6〉 영유아 가구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응답자 자택 간 거리

단위: %(명)

구 분	10분 거리	10~20분 거리	20~30분 거리	30~1시간 거리	1~2시간 거리	2시간 이상	전체	X ² (df)
전체	40.3	16.6	13.5	13.0	9.1	7.5	100.0(1791)	
지역규모별								
대도시	38.0	16.3	13.6	17.0	8.4	6.7	100.0(839)	31.7(10)**
중소도시	40.1	17.7	13.4	10.4	10.0	8.4	100.0(689)	
읍·면	47.9	14.4	13.7	6.5	9.9	7.6	100.0(263)	
모취업별								
모취업	43.6	15.4	14.9	11.9	8.5	5.7	100.0(649)	na
미취업	37.5	17.5	12.7	13.6	9.9	8.8	100.0(1113)	
모부재	70.0	6.7	13.3	10.0	-	-	100.0(30)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39.0	13.4	17.1	12.2	7.3	11.0	100.0(82)	32.5(45)
100~149만원	41.2	12.8	18.9	12.9	8.8	5.4	100.0(148)	
150~199만원	37.7	16.3	13.3	13.4	12.0	7.3	100.0(300)	
200~249만원	42.7	18.6	12.4	13.1	7.7	5.5	100.0(274)	
250~299만원	41.5	17.9	12.7	11.8	7.4	8.7	100.0(229)	
300~349만원	39.1	16.4	13.2	11.7	11.4	8.2	100.0(220)	
350~399만원	49.0	14.4	7.7	11.6	6.7	10.6	100.0(104)	
400~499만원	37.6	15.7	17.4	14.1	7.9	7.3	100.0(178)	
500~599만원	39.7	18.1	12.1	11.1	9.5	9.5	100.0(116)	
600만원 이상	37.1	17.5	11.2	16.7	10.5	7.0	100.0(14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3) 육아관련 정보 습득 경로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자녀 양육자가 육아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는 집안어른이 24.7%이고, 친구와 동료가 37.9%이며, 관련 사이트가 21.3%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구는 차이가 나타나 영유아 가구는 육아 관련 사이트가 29.1%로 초등학생 가구 12.9%에 비하여 비율이 높고, 초등학생 가구는 친구나 동료가 44.2%로 비교적 높다. 영아와 유아도 약간 차이를 보인다. 영아가 육아 관련 사이트가 33.9%로 가장 높고 유아는 친구나 동료가 36.5%로 가장 비율이 높다. 즉,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육아 관련사이트 이용은 감소하고 친구나 동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은 높아진다. 관련 서적을 통한 정보습득 비율은 8% 수준에 불과하다(표 IV-47 참조).

〈표 IV-4-7〉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단위: %(명)

구 분	집안 어른	친구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육아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기타	없음	전체	$X^2(df)$
전체	24.7	37.9	21.3	3.6	8.2	1.0	3.3	100.0(4,898)	
연령구분 1									
영유아	24.8	32.1	29.1	3.7	8.0	0.6	1.7	100.0(2,549)	249.0(6)**
초등학생	24.6	44.2	12.9	3.5	8.4	1.2	5.2	100.0(2,350)	
연령구분 2									
영아	24.5	29.3	33.9	2.9	7.9	0.5	1.0	100.0(1,565)	
유아	25.1	36.5	21.6	5.0	8.2	0.9	2.7	100.0(985)	332.2(18)**
초등저학년	23.2	43.8	15.2	3.8	8.8	1.1	4.1	100.0(1,176)	
초등고학년	26.1	44.5	10.5	3.2	8.1	1.3	6.3	100.0(1,17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IV-4-8〉은 영유아 가구에 한하여 제 특성별로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집안 어른을 지정한 비율이 28.2%로 다소 높고, 미취업모는 육아관련사이트를 지정한 비율이 32.6%로 다소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에서는 집안어른을 지정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고, 관련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13.3%로 다소 낮으며, 없다는 비율이 7%에 달하였다. 한편 관련 서적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IV-4-8〉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단위: %(명)

구 분	집안 어른	친구 동료	육아관련 사이트	육아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기타	없음	전체	X ² (df)
전체	25.7	33.6	25.7	3.7	8.0	0.3	3.0	100.0(2,548)	
지역규모별									
대도시	24.8	32.2	29.1	3.7	8.0	0.6	1.6	100.0(1,135)	16.3(12)
중소도시	24.4	31.0	30.2	3.2	9.1	0.5	1.6	100.0(977)	
읍·면	24.8	32.9	29.4	4.3	6.8	0.7	1.1	100.0(436)	
모취업별									
모취업	28.2	32.2	24.9	5.3	7.5	0.6	1.3	100.0(911)	224.5(12)**
미취업	22.2	32.4	32.6	2.7	8.7	0.3	1.1	100.0(1,572)	
모부채	38.1	25.4	4.8	4.8	1.6	3.1	22.2	100.0(63)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32.8	28.1	13.3	9.4	8.6	0.8	7.0	100.0(128)	na
100~149만원	27.5	31.8	25.8	4.2	6.4	0.9	3.4	100.0(236)	
150~199만원	28.1	38.9	23.1	1.9	3.8	1.1	3.1	100.0(424)	
200~249만원	24.6	34.7	31.7	3.2	5.3	-	0.5	100.0(378)	
250~299만원	20.9	33.9	26.9	4.4	12.0	0.6	1.3	100.0(316)	
300~349만원	19.1	33.0	36.7	2.1	8.5	0.3	0.3	100.0(330)	
350~399만원	21.8	32.7	35.3	1.9	8.3	-	-	100.0(156)	
400~499만원	24.4	25.6	34.6	3.7	11.0	0.4	0.4	100.0(246)	
500~599만원	20.9	24.8	35.3	5.9	11.1	0.7	1.3	100.0(153)	
600만원 이상	30.4	24.5	26.1	4.9	10.9	1.1	2.2	100.0(18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IV-4-9〉 영유아 가구 보육정보센터 제공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 분	자주 이용	가끔 이용	알고 있으나 미이용	잘 모름	전체	X ² (df)
전체	2.0	6.5	18.3	73.2	100.0(2,548)	
대도시	2.0	6.2	18.2	73.6	100.0(1,135)	9.9(6)
중소도시	1.6	8.0	18.9	71.5	100.0(977)	
읍·면	2.8	4.4	17.0	75.8	100.0(436)	

영유아 가구 중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육아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서 73% 이상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이용 및 인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표 IV-4-9 참조).

나. 자녀양육과 모의 취업

1) 취업 부모의 자녀양육 애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과도한 직장일이 34.6%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17.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16.4%,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0.5%이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해서 보면 영아는 상대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유아는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를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IV-4-10 참조).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인 모의 경우는 막내가 영유아인 경우에 비하여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나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나 애로사항은 줄어들었으나 초등 저학년의 경우 맡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5%로 막내가 유아인 어머니의 응답비율보다 높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보육이 유아보육보다 충족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막내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의 취업률이 입학전 자녀 모 취업률보다 낮은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표 IV-4-10〉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취업모의 자녀 양육관련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아이 맡기는 비용	맡고 맡길 곳 없음	근로시간과 시설시간이 다름	과도한 직장일	긴급상황시 도움받기 어려움	없음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6.4	17.2	10.5	34.6	5.4	15.9	-	100.0(2,082)	175.5(15)**
연령구분 1									
영유아	21.2	20.2	15.0	30.9	2.8	9.9	-	100.0(867)	113.1(5)**
초등학생	13.0	15.2	7.3	37.3	7.2	20.0	-	100.0(1,215)	
연령구분 2									
영아	20.7	23.5	12.0	31.8	2.1	9.9	-	100.0(425)	
유아	21.8	17.0	17.7	30.1	3.4	10.0	-	100.0(441)	175.5(15)**
초등 저학년	14.9	20.5	8.9	35.4	5.6	14.7	-	100.0(570)	
초등 고학년	11.3	10.4	5.8	39.0	8.7	24.8	-	100.0(646)	
지역규모									
대도시	15.9	16.1	10.3	37.1	6.0	14.6	-	100.0(951)	17.5(10)
중소도시	18.8	18.8	10.5	30.7	5.2	16.0	-	100.0(773)	
읍·면	12.6	17.4	10.9	36.4	4.2	18.5	-	100.0(3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2) 모의 미취업 이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57.8%,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가 30.3%이고, 유아는 각각 52.1%, 23.4%이다. 이러한 비율은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비율이 영아 7.1%, 유아 16.8%, 초등저학년 16.5%, 초등고학년 28.3%로 아동 연령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였다(표 IV-4-11 참조).

〈표 IV-4-11〉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모의 미취업 이유

단위: %(명)

구분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적당한 일자리 없음	자녀를 맡길 곳 없음	자녀양육·가사 전념	주위의 반대	건강상 이유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2.6	14.6	22.8	53.5	1.0	4.9	0.6	100.0(2,536)	285.8(18)**
연령구분 1									
영유아	1.7	10.2	28.2	56.1	0.8	2.4	0.6	100.0(1,570)	178.0(6)**
초등학생	4.1	21.9	14.0	49.6	1.3	8.8	0.5	100.0(960)	
연령구분 2									
영아	1.8	7.1	30.3	57.8	0.7	1.6	0.7	100.0(1,077)	
유아	1.6	16.8	23.4	52.1	0.8	4.6	0.7	100.0(495)	285.8(18)**
초등저학년	2.9	16.5	19.2	54.2	0.6	6.3	0.3	100.0(526)	
초등고학년	5.7	28.3	7.8	43.8	2.3	11.7	0.4	100.0(438)	
지역규모별									
대도시	2.6	14.6	22.8	53.6	0.9	4.9	0.6	100.0(2,531)	
중소도시	2.7	13.0	21.7	56.7	0.8	4.3	0.8	100.0(1,173)	22.5(12)*
읍·면	2.4	14.8	25.1	50.4	1.2	5.6	0.5	100.0(966)	
2004년 조사	2.6	19.1	20.7	52.0	0.8	4.8	-	100.0(392)	
2004년 조사	4.1	18.1	23.0	49.1	1.3	3.5	0.9	100.0(2,14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3) 모의 취업 중단

가) 모의 취업 중단 및 이유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 중단하였을 경우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응답가구 중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 취업중단 비율이 38.4%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결혼 후 출산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중단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46.9%로 가장 높고, 일이 많아 육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 32.7%로 다음으로 높았다. 수입보다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8.6%로 나타났다(표 IV-4-12 참조).

〈표 IV-4-12〉 출산과 양육 위해 경제활동 중지이유 및 유무

단위: %(가구)

구분	있다	중지 이유					계	(수)	$\chi^2(df)$
		수입보다 보육 비용 이 많음	믿고 맡길 곳 마땅치 않음	일이 많아 육아에 지장	성장 가능성 희박	기타			
전체	24.6	8.6	46.9	32.7	3.4	8.4	100.0	(1,751)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27.0	8.5	42.2	34.9	3.9	10.5	100.0	(870)	21.6(4)**
취학아동	22.6	8.7	51.6	30.4	3.0	6.3	100.0	(881)	
연령구분2									
영아	27.1	8.2	38.5	37.0	4.3	12.0	100.0	(465)	31.6(12)**
유아	27.0	8.9	46.4	32.8	3.5	8.4	100.0	(405)	
초등저학년생	24.1	8.4	51.6	30.1	2.5	7.4	100.0	(442)	
초등고학년생	21.3	8.9	51.8	30.8	3.4	5.1	100.0	(4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아동의 현재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27.0%, 취학아동은 22.6%로 자녀가 미취학아동인 경우 경제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더 높다.³⁷⁾ 취학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보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10%가량 높았다. 연령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면, 영아와 유아는 모두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는 27% 수준이었으나 취학아동은 초등고학년보다 초등저학년일 경우 경제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영아일수록 일이 많아 육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 높고, 초등고학년일수록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높았다. 취학아동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교후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표 IV-4-12 참조).

37) 여기서의 연령구분은 현재 연령이고 경제활동 중단 시점은 과거이므로 취업중단시 자녀 연령과는 차이가 있음.

다음은 현재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구분하여 가구 특성별로 모의 경제활동 중단 경험 및 이유를 살펴보았다. 막내 자녀가 미취학아동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지역보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농사 등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모취업여부에 따라서 취업모의 23.4%, 미취업모의 29.0%가 경제활동 중단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미취업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대상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모의 결혼 후 취업중단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취업모 33.9%, 미취업모 43.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사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면 재취업하기가 어려움을 여전히 보여줌을 알 수 있다(표 IV-4-13 참조).

〈표 IV-4-13〉 출산과 양육 위해 경제활동 중지 유무 및 이유: 미취학 아동

단위: %(가구)

구분	있다	중지 이유						계	(수)	X ² (df)
		수입보다 보육비용 많음	믿고 맡길 곳 마땅치 않음	일이 많아 육아에 지장	성장 가능성 희박	기타				
전체	27.0	8.5	42.2	35.0	3.9	10.4	100.0	(871)	-	
지역										
대도시	27.5	7.0	43.1	33.0	3.9	13.0	100.0	(355)		
중소도시	28.3	9.1	43.9	34.8	2.8	9.4	100.0	(396)	na	
읍·면	22.6	10.9	34.5	42.0	6.7	5.9	100.0	(119)		
모 취업여부										
취업	23.4	12.0	40.3	34.9	5.8	7.0	100.0	(258)		
미취업	29.0	7.0	43.0	35.0	3.1	11.9	100.0	(611)	13.0(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4.7	5.6	33.3	44.4	2.8	13.9	100.0	(36)		
100~149만원 이하	25.4	17.8	41.1	21.9	6.8	12.4	100.0	(73)		
150~199만원 이하	25.4	7.2	39.1	34.1	5.8	13.8	100.0	(138)		
200~249만원 이하	34.9	12.5	39.3	35.7	1.8	10.7	100.0	(168)		
250~299만원 이하	33.3	7.4	45.2	35.6	5.2	6.7	100.0	(135)		
300~349만원 이하	25.4	8.3	43.5	32.4	4.6	11.2	100.0	(108)	na	
350~399만원 이하	28.9	5.2	44.8	39.7	5.2	5.3	100.0	(58)		
400~499만원 이하	26.1	2.5	48.1	35.8	2.5	11.1	100.0	(81)		
500~599만원 이하	21.3	4.5	54.5	29.5	2.3	9.2	100.0	(44)		
600만원 이상	14.1	6.7	30.0	53.3	-	10.0	100.0	(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취업모의 경우 수입보다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가 12.0%, 미취업모 7.0%보다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소득 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중단 경험 비율이 거꾸로 된 U자형을 나타내었다. 가구소득별로 취업을 중단한 이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4-13 참조).

취학아동의 경우 지역이나 모 취업여부에 따라 모의 경제활동 중단 경험이나 중단했을 경우 이유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99만원 이하일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이 71.4%로 다른 소득 수준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가구일 경우 자녀를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알 수 있다(표 IV-4-14 참조).

〈표 IV-4-14〉 출산과 양육 위해 경제활동 중지 유무: 취학 아동

단위: %(가구)

구분	있다	중지 이유					계	(수)	X ² (df)
		수입보다 보육 비용 많음	믿고 맡길 곳 마땅치 않음	일이 많아 육아에 지장	성장 가능성 희박	기타			
전체	22.6	8.7	51.7	30.4	2.9	6.3	100.0	(881)	-
지역									
대도시	22.8	7.5	55.0	27.0	2.4	8.1	100.0	(371)	
중소도시	23.5	10.2	50.5	32.0	3.6	3.7	100.0	(384)	na
읍·면	19.9	7.1	46.0	35.7	2.4	8.8	100.0	(126)	
모 취업여부									
취업	22.3	7.9	49.0	32.4	3.1	7.6	100.0	(445)	
미취업	23.0	9.6	54.4	28.4	2.8	4.8	100.0	(436)	6.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1.6	4.8	71.4	11.9	-	11.9	100.0	(42)	
100~149만원 이하	15.4	14.6	39.0	29.3	-	17.1	100.0	(41)	
150~199만원 이하	22.5	13.9	50.9	25.9	0.9	8.4	100.0	(108)	
200~249만원 이하	26.0	11.5	48.1	31.3	5.3	3.8	100.0	(131)	
250~299만원 이하	21.5	8.4	48.4	34.7	5.3	3.2	100.0	(95)	
300~349만원 이하	21.8	8.2	44.3	34.4	4.1	9.0	100.0	(122)	na
350~399만원 이하	22.3	10.3	48.5	35.3	1.5	4.4	100.0	(68)	
400~499만원 이하	24.8	6.1	58.8	28.1	1.8	5.2	100.0	(114)	
500~599만원 이하	30.5	5.2	60.8	29.9	3.1	1.0	100.0	(97)	
600만원 이상	17.3	3.1	50.8	35.4	1.5	9.2	100.0	(65)	

주: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나) 취업중단 시기

경제활동을 그만둔 시기는 임신했을 때가 59.3%로 가장 높고, 출산후가 후 12.7%, 만 1~2세 7.9%, 만3세~취학전까지 7.7%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결과와 달리, 2004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제활동 중단시기가 임신 시점에 가장 높음은 동일하였으나 그 다음이 만3~5세일 때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하여 2009년 출산후가후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2004년 이후 출산후가 등의 사용이 활성화 되어 출산후가 후 복직하지 않고 그대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표 IV-4-15 참조).

〈표 IV-4-15〉 경제활동 그만둔 때

단위: %(가구)

구분	임신했을 때	출산 후	생후 6개월 이전	6개월 ~만1세 이전	만 1 ~2세 이전	만 3 ~취학 전까지	초등학교 입학 후	계	(수)	X ² (df)
전체	59.3	12.7	4.4	4.1	7.9	7.7	3.9	100.0	(1,755)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69.2	12.8	3.7	3.8	7.1	3.3	-	100.0	(872)	143.5(6)**
취학아동	49.7	12.6	5.2	4.1	8.6	12.1	7.8	100.0	(884)	
연령구분2										
영아	74.1	14.8	3.0	4.0	3.9	0.2	-	100.0	(467)	187.3(18)**
유아	63.5	10.6	4.4	3.7	10.9	6.9	-	100.0	(405)	
초등저학년생	51.1	11.5	5.2	3.9	8.8	13.3	6.2	100.0	(442)	
초등고학년생	48.3	13.8	5.2	4.1	8.2	10.9	9.5	100.0	(44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모의 경우 임신했을 때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응답비율이 69.2%로 취학아동 49.7%보다 2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 3~취학전까지는 취학아동 12.1%로 미취학아동 3.3%보다 높다. 영아가 임신했을 때의 비율이 높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만3~취학전까지, 초등학교 입학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자녀가 영아인 모의 경우 자녀가 만 3세 이후가 되면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04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 중단시기 응답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04년과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이 출산 이후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고비를 넘겨도 3세 이후 견디지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미취학 아동만 살펴보면, 지역이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 미취업의 경우 임신했을 때 71.9%로, 취업모 62.7% 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경제활동을 중단할 때에는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며 조정해 보기보다는 처음 임신했을 때부터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높다고 할 수 있다(표 IV-4-16 참조).

〈표 IV-4-16〉 경제활동 그만둔 때: 미취학 아동

단위: %(가구)

구분	임신했을 때	출산 후 휴가 후	생후 6개월 이전	6개월 ~만1세 이전	만1세 ~2세 이전	만3세 ~취학 전까지	계	(수)	X ² (df)
전체	69.1	12.8	3.7	3.9	7.2	3.3	100.0	(873)	
지역									
대도시	67.8	14.0	5.3	3.7	6.7	2.5	100.0	(357)	
중소도시	68.8	12.3	2.8	3.7	8.1	4.3	100.0	(397)	na
읍·면	73.9	10.9	1.7	5.1	5.9	2.5	100.0	(119)	
모 취업여부									
취업	62.7	18.8	4.2	5.5	6.9	1.9	100.0	(260)	
미취업	71.9	10.3	3.4	3.3	7.2	3.9	100.0	(612)	17.3(5)**
가구소득							100.0		
99만원 이하	83.3	2.8	-	-	13.9	-	-	(36)	
100~149만원 이하	80.8	8.2	1.4	4.1	4.1	1.4	100.0	(73)	
150~199만원 이하	75.4	8.7	5.1	3.6	6.5	0.7	100.0	(138)	
200~249만원 이하	71.6	11.2	4.7	4.2	6.5	1.8	100.0	(169)	
250~299만원 이하	63.7	13.3	2.2	3.0	11.9	5.9	100.0	(135)	
300~349만원 이하	63.6	18.7	3.7	3.7	5.6	4.7	100.0	(107)	na
350~399만원 이하	60.0	18.3	1.7	8.3	6.7	5.0	100.0	(60)	
400~499만원 이하	63.8	17.5	5.0	5.0	3.7	5.0	100.0	(80)	
500~599만원 이하	60.5	9.3	7.0	4.7	11.5	7.0	100.0	(43)	
600만원 이상	71.0	19.4	6.5	3.1	-	-	100.0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IV-4-17〉에서 볼 수 있듯이, 취학아동의 경우에도 미취학아동과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취학아동의 미취업모의 경우 만 3~취학전까지와 초등학교 입학후 경제활동을 그만두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머니의 취업률이 증가한 점으로 보아 자녀가 영아일 때는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다가 만 3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후까지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경향이래기 보다는 자녀가 일정 연령으로 성장한 후에 취업하여 다시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마땅한 일자리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자녀의 연령이 높아도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IV-4-17〉 경제활동 그만둔 때: 취학 아동

단위: %(가구)

구분	임신했을 때	출산 후 휴가 후	생후 6개월 이전	6개월 ~1세 이전	만1~2세	만3세~ 취학전 까지	초등 학교 입학후	계	(수)	X ² (df)
전체	49.7	12.6	5.2	4.0	8.5	12.1	7.9	100.0	(884)	
지역										
대도시	45.8	14.0	7.0	4.6	7.0	12.4	9.2	100.0	(371)	
중소도시	51.8	11.1	3.9	3.9	9.9	13.2	6.2	100.0	(386)	15.2(12)
읍·면	54.3	12.6	3.9	2.4	9.5	7.9	9.4	100.0	(127)	
모 취업여부										
취업	51.2	17.0	6.5	4.9	8.5	7.4	4.5	100.0	(447)	48.0(6)**
미취업	48.3	8.0	3.9	3.2	8.7	16.7	11.2	100.0	(4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5.8	7.0	14.0	2.3	9.2	7.0	4.7	100.0	(43)	na
100~149만원 이하	45.2	16.7	-	4.8	21.4	9.5	2.4	100.0	(42)	
150~199만원 이하	51.9	16.7	2.8	4.6	4.6	12.0	7.4	100.0	(108)	
200~249만원 이하	50.4	6.1	6.1	3.8	10.7	15.3	7.6	100.0	(131)	
250~299만원 이하	56.3	7.3	5.2	3.1	5.2	13.5	9.4	100.0	(96)	
300~349만원 이하	50.0	11.5	6.6	5.7	8.1	10.7	7.4	100.0	(122)	
350~399만원 이하	54.4	11.8	5.9	5.9	2.9	10.3	8.8	100.0	(68)	
400~499만원 이하	48.2	15.8	1.8	0.9	9.5	13.2	10.5	100.0	(114)	
500~599만원 이하	37.5	21.9	7.3	6.3	10.3	9.4	7.3	100.0	(96)	
600만원 이상	45.5	12.1	7.6	3.0	9.0	15.2	7.6	100.0	(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5. 소결

제4장에서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도, 소득계층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차이, 방과후 돌봄 지원의 필요,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비용 부담, 어머니의 취업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다자녀 가구 부담을 과제의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아의 기관이용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개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특히 조부모 의존율이 높고, 친정부모 의존율이 높다.

둘째, 우리나라 가정내 아동의 주된 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로, 아동 연령구분 및 모 취업별 차이는 거의 없다.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아기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 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실제 이용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0세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조부모 등 개인에 의한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기관 이용이 10% 미만인데 조부모 등 개인은 31% 수준이다. 개인양육서비스는 주된, 또는 보조적인 양육지원 기능을 한다. 영아는 17.1%가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며, 유아는 0.8%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이러한 태도나 실제 이용은 연령별로 육아지원서비스 공급의 정책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방과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음을 나타냈다. 주로 돌보는 사람은 미취학아동은 모 68.4%, 기관 14.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학아동은 모 53.4%, 형제자매 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학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8.6%로 비교적 높다.

넷째, 가구소득수준별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먼저 기관 이용은 보육시설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이 유치원은과 학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다. 개별적 서비스도 비동거 조부모, 비혈연의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어서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가 각각 40.3%, 11.1%로 비교적 높아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조부모는 소득수준이 500만원이 넘으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비동거 조부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비율이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서 소득수준 600만원 이상은 29.2%로 150만원 미만 5.6% 및 3.8%와 비교된다.

다섯째, 영유아와 초등학생 모두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줄어들지만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영유아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14.1%이고, 아동가구 전체로는 평균 33만2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로, 2004년 평균 26만7천원, 소득대비 비율 10.8%와 비교된다.

여섯째, 아동별 비용 부담 개별 차이가 크다. 각 아동을 단위로 보면 영아는 53.1%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이 17.6%를 차지하지

만 5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비율도 6.5%이다. 유아는 5~20만원 사이에 1/3 정도가 분포하고 50만원 이상은 11.5%이다. 초등저학년은 10~35만원 사이에 거의 60% 정도가 분포하며, 고학년은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영유아는 평균은 189,600원이고, 비용지불 영유아 평균은 270,300원이다.

일곱째, 가구당 아동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큼을 나타냈다.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는 14%인데, 아동수 1명이 10.1%, 2명이 15.6%, 3명 이상 18.3%로, 1명에 비해 2명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녀수를 고려한 비용 지원 방식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우리나라 어머니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취업에 지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영유아를 둔 경우 과도한 직장일이 30.9%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이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57.8%,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가 30.3%이고, 유아는 각각 52.1%, 23.4%이다. 응답가구 중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6%로 2004년 실태조사에서 취업중단 비율이 38.4%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는데, 그러나 중단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46.9%로 매우 높았다.

V. 미취학아동 서비스 이용 및 요구

제5장에서는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욕구를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각각 개별법에 의한 제도권 보육·교육기관으로 정부가 기관 인건비 또는 이용 아동 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반일반, 또는 종일반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미술학원, 영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기타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선교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문화센터 등의 사설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제1절은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루었고, 제2절은 네 가지 기관의 이용행태, 제3절에서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제4절은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제5절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개선 요구, 그리고 제6절은 과거 이용 경험 및 앞으로의 이용 의사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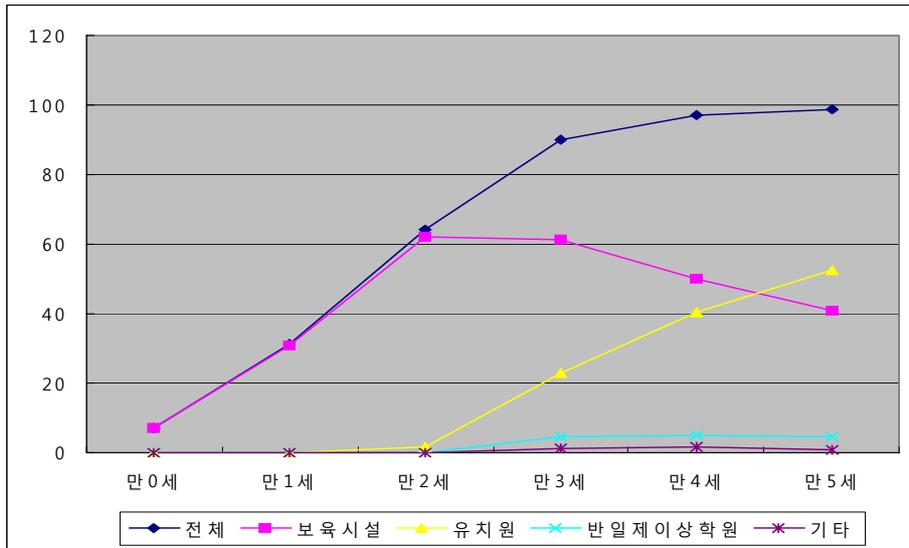
1.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 특성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

본 절에서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4가지 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총 2,050명이다.

[그림 V-1-1]은 아동 연령 기준을 1월 1일자로 환산하여 연령별 4개 기관 이용률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4개 기관 전체 이용률은 0세 7.0%, 만1세 31.1%, 만2세 64.2%, 만3세 90.1%, 만 4세 97.1%이며 만5세 98.9%이다. 이처럼 취학전 아동의 98.9%가 반일제이상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기관별 이용률의 전반적 경향은 보육시설은 만3세를 기점으로 떨어지며,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 5세까지 점차 증가한다. 반일제이상학원 이용률은 만3세에서부터 만5세까지 약 5% 정도를 유지하며 기타 기관은 2%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즉, 0세에서 만2세인 영아는 주

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취학연령으로 갈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V-1-1] 기관유형에 따른 연령별 이용률

나. 보육·교육기관별 이용아동 특성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이 특성은 다음 <표 V-1-1>과 같다. 보육시설 이용이 1,342명으로 65.5%, 유치원 이용이 612명 29.9%, 반일제이상학원 이용이 75명 3.7%이다.

4개 기관 이용 아동 특성을 비교한다면 보육시설은 취업모, 저소득, 읍·면지역 아동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유치원은 중소도시 미취업모 중위소득 아동이, 반일제이상 학원은 대도시 미취업모 고소득 아동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영아 41.1%, 유아 58.9%이고, 연령별로 만0세 3.4%, 만1세 13.3%, 만2세 24.5%, 만3세 23.6%, 만4세 19.1%, 만5세 15.9%로 만2세와 만3세가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거주아동이 44.9%로 가장 많고 대도시 36.6%, 읍·면지역 18.5%이다. 미취업모가 53.4%로 취업모 42.9%보다 많고 모

부재가 3.7%이다. 가구 소득별로는 100~199만원 계층 31.3%, 200~300만원 26.7%이며 99만원 이하 6.3%, 600만원 이상 4.9%이다.

〈표 V-1-1〉 보육·교육기관 이용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chi^2(df)$
아동구분						
영아	41.1	1.3	2.6	5.0	27.5	364.2(3)**
유아	58.9	98.7	97.4	95.0	72.5	
연령별						
0세	3.4	-	-	-	2.2	n.a
1세	13.3	-	1.3	-	8.7	
2세	24.5	1.3	1.3	4.8	16.5	
3세	23.6	19.3	30.7	33.3	22.7	
4세	19.1	33.8	34.7	38.1	24.2	
5세	15.9	44.9	32.0	23.8	25.2	
6세	0.2	0.7	-	-	0.4	
지역						
대도시	36.6	39.3	54.7	45.0	38.2	16.2(6)*
중소도시	44.9	43.1	40.0	50.0	44.2	
읍·면	18.5	17.6	5.3	5.0	17.6	
모 취업						
취업	42.9	39.7	38.7	40.0	41.8	n.a.
미취업	53.4	57.4	61.3	60.0	54.9	
모부재	3.7	2.9	-	-	3.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3	4.6	1.3	4.5	5.6	n.a
100~149만원	12.6	6.1	1.3	-	10.1	
150~199만원	18.7	10.3	6.7	18.3	15.9	
200~249만원	14.8	14.7	8.0	18.2	14.5	
250~299만원	11.9	13.1	5.3	31.8	12.2	
300~349만원	11.5	15.7	13.3	9.1	12.8	
350~399만원	5.8	5.7	10.7	4.5	5.9	
400~499만원	8.3	11.6	14.7	4.5	9.5	
500~599만원	5.2	7.9	24.0	-	6.6	
600만원 이상	4.9	10.3	14.7	9.1	6.9	
계(수)	100.0(1,342)	100.0(612)	100.0(75)	100.0(20)	100.0(2,050)	
총수(2,050)						-
대비 %	65.5	29.9	3.7	0.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으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영아 1.3%, 유아 98.7%이고, 연령별로 만2세 1.3%, 만3세 19.3%, 만4세 33.8%, 만5세 44.9%로 만4세와 만5세가 대부분이다. 지역별 분포는 중소도시 거주아동이 43.1%로 가장 많고 대도시 39.3%, 읍·면지역 17.6%이다. 미취업모가 57.4%로 취업모 39.7%보다 많고 모부재가 2.9%이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299만원 27.8%, 400~599만원 19.5%이며 600만원 이상 10.3%, 99만원 이하 4.6%, 으로 보육시설 취원아동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반일제이상 학원은 유아 97.4%이며 대도시에 54.7% 거주하며, 미취업모가 61.3%이다. 가구소득은 53.4%가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 속한다.

<표 V-1-2>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아동의 연령별 모의 취업여부이다. 두 기관 모두 미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다. 취업모 비율은 보육시설이 유치원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이다. 다만,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1세 아동의 경우, 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을 뿐 모든 연령에서 미취업모 자녀 비율이 높다.

<표 V-1-2>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아동 모 취업 특성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취업	미취업	부재	계(수)	취업	미취업	부재	계(수)
전체	42.9	53.3	3.8	100.0(1,325)	39.7	57.6	2.7	100.0(620)
0세	44.4	55.6	-	100.0(45)	-	-	-	-
1세	49.4	46.7	3.9	100.0(178)	-	-	-	-
2세	45.4	53.1	1.5	100.0(328)	11.1	88.9	-	100.0(9)
3세	42.0	54.2	3.8	100.0(312)	34.7	65.3	-	100.0(121)
4세	39.2	54.9	5.9	100.0(255)	40.9	56.7	2.4	100.0(208)
5세	39.1	55.6	5.3	100.0(207)	42.6	53.5	3.9	100.0(282)

2. 보육·교육기관 이용 형태

가. 이용 기관의 입지

1) 거주지와 이용기관의 행정구역

이용기관의 접근성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이용기관의 소재가 이용 영유아 가정의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행정적으로 동일한 동·읍·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시·군·구는 같더라도 읍·면·동은 다른 지역에 있는지, 혹은 아예 다른 시·군

·구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67.0%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33.0%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개별적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2.5%는 시·군·구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2-1 참조).

〈표 V-2-1〉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의 비교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같은 동·읍·면	68.7	64.6	53.8	72.2	67.0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	29.1	32.8	39.8	22.2	30.5
다른 시·군·구	2.2	2.6	6.4	5.6	2.5
계(수)	100.0(1,342)	100.0(611)	100.0(78)	100.0(18)	100.0(2,049)
$X^2(df)$			13.7(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표 V-2-2〉 지역별 거주지와 이용 기관 위치의 비교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대도시					
같은 동·읍·면	74.2	70.1	61.9	62.5	72.0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	22.1	24.9	35.7	25.0	23.9
다른 시·군·구	3.7	5.0	2.4	12.5	4.1
계(수)	100.0(492)	100.0(241)	100.0(42)	100.0(8)	100.0(783)
$X^2(df)$			6.7(6)		
중소도시					
같은 동·읍·면	57.8	49.2	45.2	77.8	55.0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	40.9	50.0	41.9	22.2	43.3
다른 시·군·구	1.3	0.8	12.9	-	1.7
계(수)	100.0(601)	100.0(264)	100.0(31)	100.0(9)	100.0(905)
$X^2(df)$			35.5(6)**		
읍·면					
같은 동·읍·면	84.7	89.8	50.0	50.0	85.6
같은 시·군·구내 다른 동·읍·면	14.1	8.3	50.0	-	12.7
다른 시·군·구	1.2	1.9	-	50.0	1.7
계(수)	100.0(248)	100.0(108)	100.0(4)	100.0(2)	100.0(362)
$X^2(df)$			36.4(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기관별로는 보육시설이 접근성이 비교적 높아 같은 동·읍·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68.7%인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행정구역이 다른 곳까지 가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아 동일 동·읍·면의 학원에 다니는 비율은 53.8%에 불과하다.

거주지내 이용기관 위치 여부를 지역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중소도시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관유형과 무관하게 전체 접근성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72.0%, 읍·면지역의 경우 85.6%가 동일 동·읍·면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55.0%만이 동일 동·읍·면 내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를 보아도 대도시는 74.2%, 농어촌 읍·면지역은 84.7%가 동일 동·읍·면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57.8%만이 동일 동·읍·면 시설을 이용하고 42.2%가 동일 동·읍·면 이외 지역 시설에 다니고 있다(표 V-2-2 참조).

이와 같은 분석을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에 비해 영아가 가까운 동일 행정구역내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영아의 경우에도 27.9%가 거주지 동·읍·면 외부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 이용기관도 상당한 수가 접근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아는 65.0%가 거주지와 동일한 동·읍·면에 위치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표 V-2-3 참조).

〈표 V-2-3〉 영/유아별 거주지와 이용기관 위치 비교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전체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전체
같은 동·읍·면	71.5	100.0	100.0	100.0	72.1	66.7	64.2	52.6	70.6	65.0
같은 시·군·구 내	26.3	-	-	-	25.8	31.1	33.1	23.5	23.5	32.3
다른 동·읍·면	2.2	-	-	-	2.1	2.2	2.7	5.9	5.9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8)	(2)	(1)	(563)	(790)	(603)	(76)	(17)	(1,487)
$\chi^2(df)$	na			10.7(6)						

주: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거주지 동일 동·읍·면 내 기관이용의 비율에 있어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과 취업하지 않은 가정 간에는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모인 경우 동일 동·읍·면 내 기관 이용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2) 거주지와 이용기관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가) 기관별 비교

이용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보다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가 45.3%로 가장 높았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3%, 기관이 거주지 근처거나 행정구역상의 구분에 따른 결과라는 응답 9.7%순이었다.

기관별 이유를 비교해 보면, 행정구역이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와 좋은 기관을 보내고 싶어서가 각각 37.1%로 동일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58.2%가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하고 24.4%가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고 답하여 기관별로 접근성이 떨어져 먼 지역까지 보내는 이유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V-2-4).

〈표 V-2-4〉 거주지와 이용 기관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

단위:%(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7.1	24.4	25.0	16.7	32.3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37.1	58.2	65.6	50.0	45.3
차량 운행을 해주어서	3.1	3.3	-	33.3	3.3
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11.0	8.0	6.3	-	9.7
기타	11.7	6.1	3.1	-	9.4
계(수)	100.0(418)	100.0(213)	100.0(32)	100.0(6)	100.0(669)
$\chi^2(df)$			51.7(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보육시설 지역별, 아동유형별 비교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하여 거주지와 행정구역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를 지역 및 영유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45.7%로 비교적 높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중소도시와 읍·면이 37% 수준으로 대도시보다 높다. 한편,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아가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는 응답비율이 40.2%로 영아 33.3%보다 높다. 그러나 영아도 상당수가 좋은 기관을 찾아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한다(표 V-2-5 참조).

〈표 V-2-5〉 지역별, 영/유아별 타 행정구역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			영유아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2.8	37.4	37.2	35.9	35.9	35.9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36.0	37.0	45.7	33.3	40.2	37.6
차량 운행을 해주어서	4.8	2.8	-	5.1	2.0	3.2
집근처이나 행정구역상 구분되어	12.0	12.2	5.7	9.0	13.1	11.5
기타	14.4	10.6	11.4	16.7	8.8	11.8
계(수)	100.0(125)	100.0(246)	100.0(35)	100.0(156)	100.0(201)	100.0(407)
$\chi^2(df)$		5.6(8)		10.7(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3) 이용기관의 주변환경

가) 기관 비교

〈표 V-2-6〉은 조사대상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 설치된 지역 주변환경은 나타난다. 이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주변 일반주택지역이 42.9%, 일반아파트 지역이 37.0%,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이 0.4%, 상가지역이 10.3%, 공장(단)지역 0.7%, 농어가지역이 6.6%, 공원·녹지지역 1.9% 등으로 나타난다.

〈표 V-2-6〉 기관별 주변환경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기관별				보육시설 지역별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일반주택지역	42.9	47.1	35.5	25.3	50.0	56.0	40.9	44.6
일반아파트지역	37.0	34.8	42.3	34.7	35.0	32.3	40.3	26.1
영구임대아파트지역	0.4	0.4	0.5	-	-	0.2	0.7	-
상가지역	10.3	9.1	9.5	38.7	15.0	10.3	10.8	2.4
공장(단) 지역	0.7	1.0	0.3	-	-	0.2	0.8	2.8
농어가지역	6.6	6.1	8.6	-	-	0.4	4.7	21.3
공원·녹지지역	1.9	1.3	3.1	1.3	-	0.4	1.5	2.8
기타	0.2	0.2	0.2	-	-	0.2	0.3	-
계(수)	100.0 (2,049)	100.0 (1,342)	100.0 (612)	100.0 (75)	100.0 (20)	100.0 (493)	100.0 (602)	100.0 (249)
$\chi^2(df)$				108.8(2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보육시설 주변지역을 보면 일반주택지역이 47.1%, 일반아파트 지역이 34.8%, 영구 임대아파트지역이 0.4%, 상가지역이 9.1%, 공장(단)지역 1.0%, 농어가지역이 6.1%, 공원·녹지지역 1.3% 등으로 전체 비율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 일반아파트지역을 주변으로 둔 비율에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유치원은 일반아파트지역에서 42.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는 특히 상가지역 주변에 많고 일반주택지역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2-6 참조).

나) 보육시설

보육시설 주변특성을 지역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도시에서 일반주택지역 주변이 56.0%로 가장 높고 일반아파트지역 32.3%, 상가지역 10.3%의 순이다. 중소도시에서는 일반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이 40% 정도로 유사하고 상가지역 10.8%이며, 읍·면 지역에서는 일반주택지역 44.6%, 일반아파트지역 26.1%, 농어가지역 21.3%이고 상가지역은 2.4%에 불과하다(표 V-2-6 참조).

나. 기관 이용 이유

1) 이용 이유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현재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27.5%, 전인적 발달 32.1%로 59.6%가 아동 발달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대리보호는 21.0%이다. 이외 초등학교 준비 9.7%, 같이 놀 또래 필요성 6.9%, 예체능 교육 2.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이유는 기관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보육시설 29.0%이고 유치원은 5.2%이며 학원이 8.0%의 순으로 기관유형 중 유치원이 대리보호 기능이 가장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에 유치원은 전인적 발달을 지적한 비율이 38.3%로 높고 초등학교 준비라는 비율이 21.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초등학교 준비라는 응답이 6.7%이지만, 예체능 특기교육의 비율이 22.7%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아서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등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예체능 특기교육임을 알 수 있다(표 V-2-7 참조).

〈표 V-2-7〉 현재 이용기관의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전인적 발달	28.5	38.3	42.7	40.0	32.1
초등학교 준비	4.5	21.4	6.7	15.0	9.7
예체능 특기교육	0.9	2.8	22.7	5.0	2.3
부모 대리보호	29.0	5.2	8.0	15.0	21.0
사회성 발달	29.0	26.0	17.3	10.0	27.5
같이 놀 아이 없음	7.7	5.9	1.3	10.0	6.9
기타	0.4	0.4	1.3	5.0	0.5
계(수)	100.0(1343)	100.0(611)	100.0(75)	100.0(20)	100.0(2,049)
$X^2(df)$			430.4(1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보육시설 이용 이유

보육시설 이용 이유를 아동연령 구분, 지역, 모취업여부별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표 V-2-8 참조).

먼저 보육시설 이용 이유에 있어 아동의 연령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유아와 영아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영아는 부모 대리보호가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성 발달 25.4%, 전인적 발달 22.1%이다. 이에 비해 유아는 부모 대리보호가 20.0%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전인적 발달 33.2%, 사회성 발달 31.4%로 발달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초등학교준비 목적도 7.6이었다.

2004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4년에 부모 대리보호가 영아 71.0%, 유아 34.3%와 비교하여 2009년에 영아는 30%포인트가, 유아는 거의 11%포인트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보육시설의 부모 대리보호 기능이 30% 이상으로 읍·면 22.1%보다 높아서 도시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은 전인적 발달 비율이 34.9%로 도시보다 높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취업모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이유로 대리보호가 51.9%, 전인적 발달이 20.7% 순이나 미취업모인 경우는 부모 대리보호는 9.8%에 지나지 않고 사회성 발달과 전인적 발달이 각각 36.4%와 35.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V-2-8 참조).

〈표 V-2-8〉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지역			모취업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인적 발달	22.1	33.2	26.9	27.3	34.9	20.7	35.4	21.6
초등학교 준비	-	7.6	4.7	3.8	5.6	4.0	4.2	13.7
예체능 특기교육	0.5	1.1	1.0	0.8	0.8	0.7	1.1	-
부모 대리보호	41.8	20.0	31.2	30.1	22.1	51.9	9.8	39.2
사회성 발달	25.4	31.4	28.7	31.4	23.7	20.3	36.4	23.5
같이 놀 아이 없음	9.4	6.3	7.5	5.8	12.0	2.3	12.3	2.0
기타	0.8	0.4	-	0.8	0.9	0.1	0.8	-
계(수)	100.0 (552)	100.0 (790)	100.0 (491)	100.0 (601)	100.0 (249)	100.0 (576)	100.0 (715)	100.0 (51)

주: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

2) 대리보호 인력이 있을 경우 기관 이용 의사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져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만일 집에서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기관이용에 어떤 변화를 둘 것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전체의 24.4%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68.8%는 그대로 보내겠다고 하였다(표 V-2-9 참조).

기관별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5.7%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68.1%는 그대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75.8%가 그대로 다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사례수가 적은 학원의 경우는 보육시설 등에 비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기관별 차이는 보육시설의 대리보호 기능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표 V-2-9〉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 변경 의향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아무 데도 보내지 않음	25.7	12.1	16.7	-	24.4
다른기관으로 옮김	6.2	12.1	16.7	-	6.8
현재 이용기관에 계속 보냄	68.1	75.8	66.6	100.0	68.8
계(수)	100.0(385)	100.0(33)	100.0(6)	100.0(3)	100.0(427)
$X^2(df)$			6.5(6)		

〈표 V-2-10〉 영·유아별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이용기관 변경 의향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아무 데도 안보냄	35.5	11.6	12.1	16.7	-	11.6
다른기관으로 옮김	4.3	9.6	12.1	16.7	-	10.1
현기관에 계속보냄	60.2	78.8	75.8	66.6	100.0	7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790)	(602)	(73)	(19)	(1,484)
$X^2(df)$	-			1.53(6)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경우 35.5%가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60.2%는 그대로 동일 기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유아는 아무데도 보내지 않겠다는 의견이 11.6%이고 78.8%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 유치원이나 학원에 비해 돌볼 사람이 있더라도 계속 동일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2-10 참조).

다음 <표 V-2-11>는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 옮길 생각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가 소수이기는 하나,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보육시설인 경우에 45.8%가 다른 보육시설로 가겠다고 하였으며 37.5%는 유치원으로 옮기기를 희망하였다. 16.7%는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일반학원 등 학원으로 옮기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V-2-11〉 이용기관별 변경 의향 내용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전체
다른 보육시설	45.8	-	-	37.9
다른 유치원	37.5	75.0	100.0	44.8
다른 반일제이상 학원	8.4	25.0	-	10.3
일반학원	8.3	-	-	6.9
계(수)	100.0(24)	100.0(4)	100.0(1)	100.0(29)

주: 빈도 분포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치 않음.

다. 현 이용기관 이용 시기

1) 최초 이용 시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아이가 몇 개월 때 처음 보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V-2-1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7.6개월에 현 기관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별로 보육시설은 30.7개월, 유치원은 51.2개월, 반일제이상학원은 48.3개월이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가장 어린 시기부터 이용하는 기관이며 다음이 학원, 그리고 유치원으로 볼 수 있다.

<표 V-2-12>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계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0.7	14.0 (134)	51.2	11.1 (612)	48.3	11.2 (75)	44.6	8.0 (21)	37.6	16.1 (208)
F	366.7*									
지역										
대도시	30.8	13.9 (42)	50.3	10.1 (241)	47.3	11.7 (41)	46.6	9.8 (9)	37.8	15.7 (78)
중소도시	30.6	14.1 (62)	52.2	11.3 (264)	49.3	10.6 (30)	43.9	6.0 (10)	37.7	16.5 (90)
읍·면	30.8	13.9 (29)	50.7	12.5 (108)	50.2	12.0 (4)	36.5	5.1 (1)	36.9	16.3 (32)
F	-		21		0.3		1.0		0.4	
연령										
영아	20.7	9.4 (52)	34.6	3.0 (8)	28.9	8.6 (2)	33.0	- (1)	21.0	9.5 (53)
유아	37.7	12.3 (79)	51.4	11.0 (63)	48.7	10.9 (74)	45.1	7.8 (19)	43.9	13.5 (147)
t	-27.2*		-0.44*		-2.3*		-		-	
모취업										
취업모	27.8	14.0 (56)	52.1	10.9 (24)	47.0	10.8 (29)	44.2	8.7 (8)	35.5	17.1 (87)
미취업모	32.7	13.5 (76)	50.0	11.0 (35)	49.0	11.5 (46)	44.9	7.8 (12)	38.9	15.1 (112)
모부재	35.2	14.0 (5)	62.0	8.7 (18)	-	- (7)	-	-	42.2	17.4 (6)
F	23.6*		11.7*		0.6		-		14.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하고, **는 $p < 0.01$ 을 의미하며, na는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고 아동 연령구분에 따라 보면 영아가 20.7개월에 현재 다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유아는 37.7개월에 이용을 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전체 평균을 보면 영아 21개월, 유아 43.9개월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35.5개월, 미취업모는 38.9개월에 현 기관을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보육시설 이용을 보면 취업모는 27.8개월, 미취업모는 32.7개월에 현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는 취업모 자녀가 52.1개월, 미취업모 자녀가 50.0개월에 다닌 것으로 조사되어, 보육시설은 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기가 빠르고 유치원은 미취업모 자녀의 이용시기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 시작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결과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시작 시기 조사이므로 모든 기관이용의 최초 경우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표 V-2-12 참조).

2) 현 이용기관 이용 기간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을 몇 개월째 다니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평균 11.4개월이었다(표 V-2-13 참조).

〈표 V-2-13〉 현재 이용기관 이용지속 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12.9	11.6	(1,342)	8.3	9.1	(612)	8.5	8.6	(75)	10.3	11.1	(20)	11.4	11.0	(2,050)
F	27.7**														
지역															
대도시	13.2	11.6	(492)	8.7	9.1	(241)	9.4	9.0	(41)	6.9	10.1	(9)	37.8	15.7	(782)
중소도시	12.6	11.4	(602)	8.1	9.0	(264)	7.7	7.9	(30)	11.9	11.3	(10)	37.7	16.5	(906)
읍·면	13.2	11.8	(249)	7.7	9.1	(108)	6.5	9.9	(4)	21.5	19.2	(1)	36.9	16.3	(362)
F	0.4			0.6			0.5			1.2			0.4		
연령															
영아	6.6	7.0	(552)	1.3	0.9	(8)	1.0	0.0	(2)	1.0	-	(1)	6.5	6.9	(563)
유아	17.3	12.1	(790)	8.4	9.1	(603)	8.7	8.6	(74)	10.7	11.1	(19)	13.2	11.7	(1,487)
t	-18.7**			-2.2			-7.7**			na			na		
모취업															
취업모	14.4	12.4	(576)	8.5	9.1	(243)	6.8	8.1	(29)	17.5	11.1	(8)	12.5	11.7	(857)
미취업모	11.6	10.6	(716)	8.4	9.1	(351)	9.6	8.8	(46)	5.1	7.9	(12)	10.5	10.2	(1,125)
모부재	14.7	12.9	(50)	3.3	6.2	(18)	-	-	(75)	-	-	-	11.7	12.6	(68)
F	9.8**			2.8			1.9			8.5			8.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기관별로는 보육시설이 12.9개월, 유치원이 8.3개월, 학원이 8.5개월로 보육시설을 꾸준히 이용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기관별로 구분하여 본 지역별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 구분에서 보면 보육시설에서 영아의 이용기간은 6.6개월이나 유아는 17.3개월로 차이를 보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이용기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취업모인 경우는 14.4개월, 미취업모는 11.6개월로 지속적 이용기간이 조사되어 취업모의 자녀가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기간이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주당 기관 이용 일수

일주일 중 기관을 이용하는 요일의 유형을 보면 89.7%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관에 다니고 있다. 9.8%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관을 이용하며 그 중 반 정도는 격주로, 나머지는 매주 토요일에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14〉 기관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월요일~토요일	5.8	2.1	2.7	-	4.5
월요일~토요일(토 격주)	4.9	6.9	-	-	5.3
월요일~금요일	88.5	91.0	97.3	100.0	89.7
불규칙 이용	0.8	-	-	-	0.5
계(수)	100.0(1,342)	100.0(612)	100.0(75)	100.0(20)	100.0(2,049)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매일 이용하는 것은 학원이 97.3%로 가장 높고 유치원이 91.0%, 보육시설이 88.5%로 나타났고, 월요일부터 매주 토요일까지 이용은 보육시설이 5.8%, 유치원 2.1%, 학원 2.7%였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매일 이용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소수이지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2-14 참조).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에 한하여 요일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V-2-15>와 같다. 이용아동의 연령유형별로 보면 영아가 유아보다 토요일 기관 이용비율이 높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매일 이용은 영아가 84.4%, 유아가 91.4%로 유아가 높은 것

으로 보인다. 읍·면지역과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매일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일주일동안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취업모의 경우 주말인 토요일 기관이용비율이 높다. 미취업모 자녀는 95.1%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모부재 아동의 경우는 토요일 기관이용비율이 21.6%로서 주말보육 이용이 매우 높고 간헐 이용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모부재 아동의 양육 어려움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표 V-2-15 참조).

〈표 V-2-1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지역			모취업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월~토요일	8.4	4.0	5.8	6.2	5.3	9.8	2.4	9.8
월~토요일(토 격주)	5.5	4.5	3.9	5.5	5.3	8.8	1.4	11.8
월~금요일	84.4	91.4	90.2	87.3	87.3	80.9	95.1	78.4
불규칙 이용	1.8	0.1	0.1	1.0	2.1	0.5	1.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790)	(491)	(601)	(249)	(576)	(715)	(51)

마. 평일 이용 시간

1) 기관별 이용시간 비교

가) 평일 등·하원 시각

본 조사에서는 아동의 평일 등원시각과 하원시각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편의상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시각과 집에 돌아오는 시각을 조사하였다.

평일에 아동이 기관에 등원하는 시각을 보면 가장 많은 37.4%의 아동이 8시 31분 이후부터 9시까지 등원하고, 다음이 9시 이후부터 9시 30분까지가 25.9%이며 8시부터 8시 30분이 20.3%이다.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도 8.0%이다. 등원시각의 기관별 차이는 8시까지 등원하는 아동의 비율이 보육시설 9.5%, 유치원 5.9%이고 그 이외 기관은 아주 소수이다(표 V-2-16 참조).

〈표 V-2-16〉 기관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등원시각						하원시각					
구분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	전체	구분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	전체
7:30까지	2.1	0.5	-	-	1.5	14:00까지	3.6	15.4	10.5	15.8	7.5
7:31~8:00	7.4	5.4	1.3	-	6.5	14:01~15:00	15.6	31.6	38.2	42.1	21.5
8:01~8:30	18.4	26.1	9.2	15.8	20.3	15:01~16:00	17.1	26.0	32.9	31.6	20.5
8:31~9:00	35.9	40.2	42.1	36.8	37.4	16:01~17:00	22.7	11.0	5.3	5.2	18.3
9:01~9:30	26.4	23.4	32.9	47.4	25.9	17:01~17:30	11.9	5.1	6.5	-	9.5
9:31~10:00	7.7	4.4	14.5	-	6.9	17:31~18:00	10.7	4.9	2.6	5.3	8.6
10:01 이후	2.1	-	-	-	1.5	18:01~19:00	13.0	5.4	2.6	-	10.3
						19:01 이후	5.4	0.7	1.3	-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4)	(61)	(7)	(2)	(204)	(수)	(134)	(61)	(7)	(2)	(204)

하원시각은 전체적으로는 오후 2시에서 3시, 3시에서 4시 사이에 집에 온다는 아동 비율이 각각 21.5%, 20.5%이고 18.3%는 4~5시 사이에 집에 온다. 오후 6시 이후는 14.1%이다. 기관별로는 보육시설은 가장 많은 18.4%의 아동이 오후 6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19.2%의 아동은 오후 3시 이전에 귀가한다. 유치원은 47.0%의 아동이 오후 3시까지 집에 돌아오고, 6시 이후에 온다는 아동은 6.1%이다. 학원은 48.7%가 오후 3시까지 집에 오고 6시 이후는 3.9%이다(표 V-2-16 참조).

나) 평일 이용시간

이와 같은 영유아의 집에서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산출하였다.³⁸⁾ 여기에는 가고 오는데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0.2%, 21.2%이고 9시간 이상은 18.1%이며, 평균 7시간 21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6분이다. 이는 2004년도 조사 결과인 평균은 6시간 42분에 비하여 40분 정도가 길어진 것이다. 이는 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 증가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38) 가정 사정 및 이동 거리에 따라서도 등원 및 하원시각이 달라지고, 이동시간이 포함되므로 기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참여 시간에 비해서는 길 것이지만,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

〈표 V-2-17〉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평일 이용시간

단위: %(명)

보육시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5시간까지	7.3	15.2	18.7	15.0	10.2
5~6시간까지	15.3	31.1	40.0	45.0	21.2
6~7시간까지	17.6	25.1	20.0	30.0	20.0
7~8시간까지	18.9	11.3	10.7	5.0	16.2
8~9시간까지	18.0	7.5	5.3	-	14.3
9~10시간까지	12.7	8.3	2.7	5.0	10.9
10~11시간까지	6.2	1.3	1.3	-	4.5
11시간 이상	4.0	0.2	1.3	-	2.7
계(수)	100.0(1,343)	100.0(611)	100.0(75)	100.0(20)	100.0(2,049)
평균이용시간	7시간 45분	6시간 37분	6시간 16분	6시간 7분	7시간 21분
표준편차	1시간 59분	1시간 33분	1시간 25분	1시간 5분	1시간 56분
F			65.8**		
2004년 조사	7시간 20분	5시간 51분	6시간 20분	6시간 14분	6시간 42분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기관별로 보면 이용시간은 보육시설이 가장 길고 기타 기관이 가장 짧다. 보육시설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7.3%, 15.3%이고 9시간 이상은 22.9%이며 11시간 이상도 4.0%이다. 평균은 7시간 45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9분이다. 유치원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5.2%, 31.1%이고 9시간 이상은 9.8%이며, 평균은 6시간 37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33분이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8.7%, 40.0%이고 9시간 이상은 5.3%이며, 평균은 6시간 16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25분이다.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은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5.0%, 45.0%이고 9시간 이상은 5.0%이며, 평균은 6시간 7분이고 표준편차는 1시간 5분이다(표 V-2-17 참조).

2004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특히 유치원의 평균 이용시간이 평균 45분 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평소의 이용과 달리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보육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질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75%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고 13.9%는 월 1회 미만, 7.6%는 월 2~4회, 3.3%는 주 2회 이상 이러한 일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은 30%가 이러한 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의 반은 월 1회 미만이고 8.9%는 월 2~4회이며 주 2회 이상은 4.5%이다(표 V-2-18 참조).

〈표 V-2-18〉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초과 빈도

단위: %(명)

보육시간	월1회미만	월 2-4회	주 2회 이상	없음	계(수)
보육시설	15.8	8.9	4.5	70.8	100.0(1,343)
유치원	10.3	5.2	1.0	83.5	100.0(611)
반일제이상 학원	12.0	4.0	2.7	81.3	100.0(75)
기타	5.0	5.0	-	90.0	100.0(20)
계(수)	13.9	7.6	3.3	75.2	100.0(2,049)

다) 이용시간 관련

등원 시각에 대한 만족은 등원시각은 86.5%가 만족하지만 13.6%는 불만으로 5.4%는 너무 이르다고 하는 반면에 8.2%는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너무 이르다가 4.9%이고 너무 늦다는 응답은 8.7%이다. 유치원은 각각 5.9%, 6.5%이며, 반일제학원도 너무 이르다는 응답과 너무 늦다는 응답이 9.3%, 12.0%로 의견이 다양하다.

하원 시각에 대한 만족은 69.5%가 만족하지만 27.5%는 너무 이르다고 하는 반면에 3.0%는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너무 이르다가 25.8%이고 너무 늦다는 응답은 3.2%이다. 유치원은 각각 30.4%, 2.8%이다.

〈표 V-2-19〉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보육시간	등원시각			하원시각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보육시설	86.4	4.9	8.7	71.0	25.8	3.2	100.0(1,343)
유치원	87.6	5.9	6.5	66.8	30.4	2.8	100.0(611)
반일제이상 학원	78.7	9.3	12.0	70.7	28.0	1.3	100.0(75)
기타	90.0	-	10.0	52.6	47.4	-	100.0(20)
전체	86.5	5.4	8.2	69.5	27.5	3.0	100.0(2,049)

2) 보육시설 이용시간

가) 등·하원 시각

<표 V-2-20>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연령구분과 모의 특성별로 평일 아동의 보육시설에 등원하는 시각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영아가 유아보다,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일찍 등원하는 아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2-20>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 분	연령구분		모 취업여부			전체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7:30까지	3.4	1.1	3.5	0.8	4.1	2.1
7:31~8:00	7.6	7.2	12.5	3.2	6.1	7.3
8:01~8:30	15.2	20.5	25.7	11.0	38.8	18.3
8:31~9:00	33.7	37.5	31.4	40.1	28.6	35.9
9:01~9:30	24.3	28.0	20.0	33.1	6.1	26.5
9:31~10:00	11.4	5.1	4.3	9.8	16.3	7.7
10:01 이후	4.4	0.6	2.6	2.0	-	2.2
계(수)	100.0(552)	100.0(790)	100.0(576)	100.0(714)	100.0(49)	100.0(1,342)
$X^2(df)$	54.0(6)**		153.6(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V-2-21>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단위: %(명)

구 분	연령구분		모 취업여부			전체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14:00까지	5.1	2.5	2.4	4.7	-	3.6
14:01~15:00	16.1	15.3	7.5	22.7	9.8	15.7
15:01~16:00	14.3	19.2	9.4	24.4	2.0	17.1
16:01~17:00	20.6	23.9	19.8	24.9	19.6	22.4
17:01~17:30	11.2	12.4	11.1	12.0	19.6	11.9
17:31~18:00	11.8	10.0	18.0	5.4	3.9	10.8
18:01~19:00	14.9	11.8	21.7	4.6	35.3	13.1
19:01 이후	6.0	4.9	10.1	1.3	9.8	5.4
계(수)	100.0(552)	100.0(790)	100.0(576)	100.0(714)	100.0(49)	100.0(1,342)
$X^2(df)$	16.3(7)*1		300.0(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시간으로는, 7시 30분까지 집에서 출발하는 아동은 전체적으로 2.1%에 불과한데, 영아가 3.4%로 유아보다 많으며 취업모 자녀가 3.5%이다. 8시까지로 확장해 보면 전체는 9.4%인데 영아가 11.0%, 유아 8.3%이고,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 16.0%, 미취업 4.0%이다(표 V-2-20 참조).

하원시각은 6시 이후가 영아 20.9%, 유아 16.7%로 영아가 다소 많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취업모 아동 31.8%, 미취업모 아동 5.9%이다, 모부재 아동의 경우는 45.1%가 6시 이후에 귀가한다(표 V-2-21 참조).

나) 평일 이용시간

<표 V-2-22>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지역, 아동연령 및 모 취업상태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다. 아동구분별로도 평균시간으로도 영아가 7시간 42분, 유아 7시간 48분으로 조사되어서 영아가 오히려 조금 짧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표 V-2-22〉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지역			아동		모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영아	유아	취업모	미취업	모 부재
5시간까지	8.0	7.1	6.1	12.1	3.9	3.6	10.5	5.9
5~6시간까지	15.1	16.8	12.1	12.8	16.9	8.0	22.0	3.9
6~7시간까지	16.9	17.4	19.4	16.8	18.2	9.9	24.3	9.8
7~8시간까지	16.9	18.3	24.7	16.6	20.6	17.0	21.1	9.8
8~9시간까지	18.2	18.5	16.6	16.5	19.1	21.8	14.9	19.6
9~10시간까지	15.3	10.1	13.8	11.8	13.3	21.7	4.7	21.6
10~11시간까지	6.1	6.8	4.9	8.9	4.3	10.2	1.7	23.5
11시간 이상	3.5	5.0	2.4	4.5	3.7	7.8	0.8	5.9
계(수)	100.0 (490)	100.0 (602)	100.0 (247)	100.0 (553)	100.0 (791)	100.0 (577)	100.0 (717)	100.0 (51)
평균이용시간	7시간 45분	7시간 46분	7시간 44분	7시간 42분	7시간 48분	8시간 38분	6시간 57분	9시간 16분
표준편차	1시간 55분	2시간 8분	1시간 45분	2시간 8분	1시간 53분	1시간 55분	1시간 31분	3시간 15분
F/t		0.1			-0.9		159.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그러나 이용시간 분포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영아

24.9%, 유아 20.8%로 영아가 4.1% 포인트가 높다. 또한 9시간이 넘는 비율도 영아는 25.2%, 유아 21.3%로 영아가 다소 높고 10시간 이상은 영아가 5.4%포인트가 높게 차이가 난다. 즉, 영아는 단시간 이용자와 장시간 이용자로 구분되는 비율이 모두 유아보다 더 높다고 하겠다. 표준편차가 영아는 2시간이 넘는다. 영아의 이러한 이용시간 양상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 이용시간 조사결과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본보조금 등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 아동 8시간 38분, 모부재 아동 9시간 16분이고 미취업모 아동은 6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6시간까지 이용한 비율이 취업모 11.6%, 미취업모 32.5%이고 9시간 이상은 취업모 39.7%, 미취업모 7.2%이고 모부재 아동은 50.0%이다(표 V-2-22 참조).

〈표 V-2-23〉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	전체
~5시간	2.8	3.4	7.5	7.6	18.3	-	-	7.3
5~6시간	12.5	18.8	13.2	17.0	9.5	3.8	25.0	15.3
6~7시간	20.4	17.9	26.4	17.9	10.3	7.7	-	17.6
7~8시간	26.9	29.2	18.9	16.7	11.9	3.9	50.0	18.9
8~9시간	19.4	20.5	20.8	17.5	18.3	3.8	25.0	18.0
9~10시간	12.0	5.1	7.5	14.1	7.1	38.5	-	12.5
10~11시간	3.2	5.1	1.9	5.5	15.9	19.2	-	6.2
11시간~	2.8	-	3.8	3.7	8.7	23.1	-	4.1
계(수)	100.0(216)	100.0(117)	100.0(53)	100.0(801)	100.0(126)	100.0(26)	100.0(4)	100.0(1,343)
평균 이용시간	7시간 51분	7시간 29분	7시간 28분	7시간 40분	7시간 57분	10시간 22분	7시간 30분	7시간 45분
표준편차	2시간 7분	1시간 26분	1시간 44분	1시간 53분	2시간 30분	2시간 21분	58분	1시간 59분
F	8.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이용하는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차이를 보면 평균시간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이 10시간 22분으로 다른 시설과 차이가 있으며,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로 7시간 57분이며 다음이 국·공립시설 7시간 51분 순이고, 법인 및 단체보육시설이 7시간 28~29분으로 비교적 짧다.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큰데,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표준편차가 2시간 21분이고 가정보육시설은 2시간 30분으로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표준편차는 분포를

반영한다. 이용시간 분포를 보면 가정보육시설이 6시간까지가 27.8%이고 9시간이 넘는 아동이 31.7%이며, 직장보육시설은 80.8%가 이용시간이 9시간을 넘는다. 이외 유형의 시설은 6~9시간에 아동비율이 분산 분포한다. 가정보육시설의 이용시간 양극화 현상은 앞에서 제시한 영아의 이용시간의 양극화 현상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V-2-23 참조).

다음 <표 V-2-24>는 아동 각 세별, 모 취업여부별로 이용시간을 산출한 것이다. 취업모의 0세아는 이용시간이 9시간 49분이고, 1세아는 9시간이고 그 이후 연령은 모두 8시간대에 분포하여 이용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이다.

미취업모의 아동은 대체로 6시간 40분에서 7시간 15분 사이에 분포하여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0세아의 표준편차가 거의 3시간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영아 중에서 이용시간이 3시간 정도의 단시간 이용자가 일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모부재 아동의 이용시간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어 상당수의 아동이 9시간 넘게 장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2-24 참조).

<표 V-2-24>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취업모 아동						
평균이용시간	9시간 49분	9시간	8시간 19분	8시간 39분	8시간 35분	8시간 33분
표준편차	1시간 45분	2시간 7분	2시간 1분	2시간 4분	1시간 41분	1시간 25분
(수)	(20)	(88)	(149)	(133)	(101)	(84)
미취업모 아동						
평균이용시간	6시간 41분	6시간 39분	6시간 51분	6시간 55분	7시간 2분	7시간 15분
표준편차	2시간 59분	1시간 45분	1시간 28분	1시간 28분	1시간 17분	1시간 15분
(수)	(25)	(83)	(175)	(171)	(140)	(122)
모부재 아동						
평균이용시간	-	7시간 20분	9시간 30분	9시간 5분	10시간 24분	9시간 1분
표준편차	-	3시간 1분	39분	1시간 40분	5시간 9분	1시간 38분
(수)	-	(7)	(5)	(12)	(15)	(11)
전체						
평균이용시간	8시간 6분	7시간 51분	7시간 34분	7시간 44분	7시간 50분	7시간 51분
표준편차	2시간 57분	2시간 18분	1시간 53분	1시간 57분	2시간 6분	1시간 30분
(수)	(45)	(178)	(329)	(317)	(256)	(217)
F/t	17.3**	29.6**	31.4**	40.6**	35.1**	2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 이용시간 만족도

보육시설 이용자의 시설 이용시간 만족도는 등원시각은 전체적으로는 86.5%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귀가 시간은 71.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2-25 참조).

〈표 V-2-25〉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보육시간	등원시각			하원시각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전체	86.5	4.8	8.7	71.0	25.8	3.2	100.0(1,343)
아동							
영아	83.5	5.4	11.1	68.1	28.8	3.1	100.0(551)
유아	88.6	4.3	7.1	72.9	23.8	3.3	100.0(790)
$X^2(df)$		9.8(2)**			5.4(2)		
지역							
대도시	87.0	5.3	7.7	72.6	24.2	3.2	100.0(492)
중소도시	87.0	5.1	7.8	69.6	27.2	3.2	100.0(602)
읍·면	83.9	2.9	13.3	71.4	25.8	2.8	100.0(249)
$X^2(df)$		9.6(4)*			1.4(4)		
모취업							
취업	85.8	4.7	9.5	70.1	26.7	3.2	100.0(576)
미취업	86.9	5.3	7.8	72.3	24.3	3.4	100.0(717)
모부재	88.0	-	12.0	62.0	36.0	2.0	100.0(50)
$X^2(df)$		4.5(4)			3.9(4)		
시설유형							
국공립	94.4	1.4	4.2	77.7	20.0	2.3	100.0(215)
법인	91.4	4.3	4.3	72.6	24.8	2.6	100.0(116)
법인외	83.0	5.7	11.3	77.4	22.6	-	100.0(53)
민간	84.8	5.1	10.1	68.8	27.3	3.9	100.0(801)
직장	80.2	7.9	11.9	66.7	29.3	4.0	100.0(126)
가정	88.5	7.7	3.8	76.9	23.1	-	100.0(26)
부모협동	100.0	-	-	100.0	-	-	100.0(4)
$X^2(df)$		na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등원 시간에 관하여 아동 보호자의 4.8%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반면에 8.7%가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응답자보다는 너무 늦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들의 특성별 분포를 보면 영아

부모가 11.1%로 유아 부모보다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읍·면에서 13.3%가 너무 늦다고 하여 도시보다 그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너무 늦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높았다. 시설유형별로는 법인외,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가 너무 늦다는 응답이 많았다.

귀가 시간에 대해서는 3.2%가 너무 늦다고 응답하였고, 25.8%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등원시간과는 달리 귀가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⁹⁾ 귀가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먼저 아동연령대별로는 유아보다는 영아가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약간 비율이 높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과 직장보육시설에서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타 유형의 시설에서 보다 많았다(표 V-2-25 참조).

<표 V-2-26>은 반일반인 오전 이용과 유치원의 연장제에 해당하는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이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이용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표 V-2-26> 보육시설 오전 운영시간을 공식화할 경우 이용 의향

단위: %(명)

구 분	오전 이용			2-3시까지 이용			전체
	있음	없음	잘 모름	있음	없음	잘 모름	
전체	16.9	79.7	3.4	56.8	39.8	3.5	100.0(3,303)
아동							
영아	22.4	73.6	4.0	62.4	34.4	4.2	100.0(1,743)
유아	10.7	86.6	2.7	50.4	46.9	2.6	100.0(1,559)
$X^2(df)$		88.5(2)**			63.8(2)**		
지역규모별							
대도시	16.9	80.2	2.9	54.8	41.8	3.4	100.0(1,317)
중소도시	17.8	78.0	4.2	56.6	39.5	3.9	100.0(1,436)
읍·면	14.7	82.8	2.5	61.9	35.7	2.4	100.0(551)
$X^2(df)$		8.7(4)			9.3(4)		
모취업별							
모취업	10.0	87.2	2.8	46.6	50.3	3.1	100.0(1,113)
미취업	20.8	75.4	3.8	62.2	34.0	3.8	100.0(2,114)
모부재	9.2	90.8		54.7	45.3		100.0(76)
$X^2(df)$		72.6(4)**			84.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39) 이들이 반드시 가정 사정 상 자녀를 가정에서 적절하게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대부분은 그러할 것으로 추정함.

이에 오전 이용에 대해서는 16.9%,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이용에는 56.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영아는 오전 이용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22.4%이고 2~3시까지 이용 의사는 62.4%이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도 10.0%는 오전 이용, 46.6%는 2~3시에 귀가하는 시간 유형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V-2-26 참조).

3) 유치원 이용시간

가) 등하원 시각

<표 V-2-27>은 모의 취업 특성별로 평일 유치원 등원 시각을 나타낸다. 8시까지 집에서 출발하는 아동은 전체적으로 5.9%인데 취업모 자녀가 8.2%이고 미취업모 자녀는 4.0%이다. 귀가시각은 6시 이후가 취업모 아동 9.8%, 미취업모 아동 3.4%이다.

<표 V-2-27>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각

단위: %(명)

구분	등원				구분	귀가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7:30까지	0.8	0.3	-	0.5	14:00까지	12.8	16.5	22.2	15.2
7:31~8:00	7.4	3.7	11.8	5.4	14:01~15:00	26.7	35.3	27.8	31.7
8:01~8:30	32.5	21.4	29.4	26.0	15:01~16:00	22.6	29.6	-	26.0
8:31~9:00	37.4	42.7	35.3	40.4	16:01~17:00	10.7	10.3	27.8	10.9
9:01~9:30	20.2	26.5	5.9	23.4	17:01~17:30	7.5	2.9	16.6	5.0
9:31~10:00	1.7	5.4	17.6	4.3	17:31~18:00	9.9	2.0	-	5.1
					18:01~19:00	8.6	3.1	5.6	5.4
					19:01 이후	1.2	0.3	-	0.7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243)	(351)	(17)	(611)	(수)	(243)	(351)	(17)	(611)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나) 평일 이용시간

<표 V-2-28>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세분화한 것인데 지역별로는 읍·면이 평균 7시간 1분으로 6시간 30분 정도인 도시보다 다소 높다. 이용시간 분포로도 큰 차이는 없으나 5시간 정도까지 비율은 도시가 높다. 이는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V-2-28〉 지역 및 운영주체별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명)

구 분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사립
5시간까지	15.7	17.1	9.3	17.6	14.3
5~6시간까지	34.3	32.3	20.4	17.7	35.7
6~7시간까지	24.0	24.0	29.6	29.7	23.5
7~8시간까지	10.3	8.0	22.2	20.3	8.4
8~9시간까지	5.0	9.9	8.3	10.1	6.7
9~10시간까지	9.5	6.8	9.3	4.1	9.7
10~11시간까지	1.2	1.9	-	0.7	1.5
11시간 이상	-	-	0.9	-	0.2
계(수)	100.0(242)	100.0(263)	100.0(108)	100.0(148)	100.0(463)
평균이용시간 (표준편차)	6시간 31분 (1시간 33분)	6시간 32분 (1시간 33분)	7시간 1분 (1시간 27분)	6시간 41분 (1시간 33분)	6시간 35분 (1시간 33분)
F/t	4.5			0.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공사립별로도 평균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포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 국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 이용시간이 5시간까지의 비율은 낮고 9시간 이상의 비율은 11.4%로 공립 4.8%보다 높다(표 V-2-28 참조).

〈표 V-2-29〉 아동구분 및 모 취업여부별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명)

구 분	아동		모 취업		
	영아	유아	취업모	미취업	모 부재
5시간까지	11.1	15.3	12.0	16.8	23.5
5~6시간까지	11.1	31.5	26.9	35.6	-
6~7시간까지	55.6	24.5	19.0	28.2	47.1
7~8시간까지	22.2	11.1	12.7	10.5	5.9
8~9시간까지	-	7.6	12.0	4.0	17.6
9~10시간까지	-	8.5	14.5	4.3	5.9
10~11시간까지	-	1.3	2.9	0.3	-
11시간 이상	-	0.2	-	0.3	-
계(수)	100.0(9)	100.0(603)	100.0(242)	100.0(351)	100.0(17)
평균이용시간 (표준편차)	6시간 34분 (59분)	6시간 37분 (1시간 33분)	7시간 3분 (1시간 44분)	6시간 17분 (1시간 19분)	6시간 55분 (1시간 32분)
F/t	-0.8		18.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아동구분별로는 영아는 조사 대상이 9명으로 별 의미가 없으나 이용시간이 유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취업모 7시간 3분, 모부재 아동 6시간 55분으로 미취업모 아동 6시간 17분보다 이용시간이 길다. 이용시간 분포로는 취업모의 17.4%는 9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한다(표 V-2-29 참조).

바. 등·하원 방법 및 시간

1) 보육·교육 기관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등·하원 방법은 <표 V-2-3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60.5%로 가장 많고,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28.0%, 가족이 자가용으로 아동을 데려다주는 경우가 8.5%이다. 아동 혼자서 걸어가거나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일부 있으며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경우는 없다.

<표 V-2-30> 기관 운영 주체별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해서	가족과 자가용 으로	가족과 대중교통 으로	혼자 대중교통 으로	자녀 혼자 걸어서	보호자와 걸어서	계	(수)
등원								
전체	60.5	8.5	0.7	-	2.3	28.0	100.0	(2,046)
보육시설	56.5	9.2	1.0	-	1.8	31.5	100.0	(1,341)
유치원	65.4	7.2	0.2	-	3.5	23.6	100.0	(609)
반일제학원	82.9	6.6	-	-	2.6	7.9	100.0	(76)
기타	95.0	-	-	-	5.0		100.0	(20)
하원								
전체	62.2	7.3	0.9	-	2.5	27.1	100.0	(2,043)
보육시설	58.0	8.4	1.1	-	1.7	30.8	100.0	(1,341)
유치원	66.9	5.9	0.7	-	4.1	22.4	100.0	(607)
반일제학원	89.3	2.7	-	-	2.7	5.3	100.0	(75)
기타	95.0	-	-	-	5.0		100.0	(20)
2004년								
등원	68.0	7.3	0.4	-	8.6	14.7	100.0	(1,608)
하원	69.7	6.0	0.5	0.1	9.2	13.5	100.0	(1,609)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등원시 기관별 차량이용 비율은 반일제이상 학원이 82.9%로 가장 높고 보호자와 함께 걸어서 간다는 비율은 보육시설이 31.5%로 가장 높다(표 V-2-30 참조).

2004년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등원 방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차량이용 비율이 줄어들고 걸어서 등원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가족과 걸어가는 비율은 2004년 14.7%에서 2009년 28.0%로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기관 차량이용 비율이 68.0%에서 60.5%로 다소 줄었다.

하원 방법은 등원 방법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등원 방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V-2-30 참조).

기관 등·하원시 보육시설 차량의 이용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아직까지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차량 안전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 안전을 위한 최소 조치 중 하나로 교사의 차량 동승여부가 중요한 사안이다. 보육사업안내에 수록된 차량안전체크리스트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탑승시킬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97.4%가 등·하원시 교사가 동승한다고 하였고 등원시에만 동승하는 경우가 1.1%, 하원시에만 동승하는 경우가 0.9%이며 교사 없이 차량을 운행한다는 경우는 0.5%이다(표 V-2-31 참조).

〈표 V-2-31〉 기관 운영주체별 등·하원차량 교사 동승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동승	등원시 동승	하원시 동승	동승하지 않음	계	(수)
전체	97.4	1.1	0.9	0.5	100.0	(1,316)
보육시설	97.2	1.6	0.8	0.4	100.0	(799)
유치원	96.9	0.7	1.2	1.1	100.0	(428)
반일제이상 학원	97.1	1.5	1.5	-	100.0	(68)
기타	100.0	-	-	-	100.0	(19)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다음 <표 V-2-32>는 아동이 보육 또는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차량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리상 걸어가기에는 멀어서 57.3%,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나 편해서가 20.5%이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나 차량이용이 안전해서 20.6%, 시간이 없어서 1.1%이다. 기관별로는 걸어가기 멀어서 차량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반일제이상학원이 64.7%로 가장 높고, 유치원 59.8%, 보육시설 55.4%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약 40%의 아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보육·교육 기관에 갈

수 있는 만큼 기관 접근은 수월하다.

〈표 V-2-32〉 기관 운영 주체별 보육·교육기관차량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걸어가기 에는 떨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나 편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나 안전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수)
전체	57.3	20.5	20.6	1.1	0.5	100.0	(1,314)
보육시설	55.4	21.8	21.2	0.9	0.8	100.0	(798)
유치원	59.8	19.1	19.4	1.7	-	100.0	(428)
반일제이상 학원	64.7	13.2	22.1	-	-	100.0	(68)
기타	61.1	22.2	11.1	5.6	-	100.0	(18)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다음은 차량을 이용하든, 걸어가는 집에서 보육·교육기관까지 등·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7분이며, 69.9%가 10분 이하, 20.4%가 11~20분, 7.3%가 21~30분, 2.4%가 31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V-2-33 참조).

〈표 V-2-33〉 기관 운영 주체별 등·하원 소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소요 시간					평균			
	10분 이하	11~20분	21~30분	31분 이상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
등원									
전체	69.9	20.4	7.3	2.4	100.0	(2,049)	11.71	8.9	4.9**
보육시설	72.4	18.0	7.0	2.6	100.0	(1,342)	11.28	8.8	
유치원	66.1	24.2	7.9	1.8	100.0	(611)	12.27	8.9	
반일제이상 학원	56.1	29.3	9.3	5.3	100.0	(75)	14.78	10.3	
기타	66.6	28.6	4.8	-	100.0	(21)	12.04	5.8	
하원									
전체	66.0	22.5	8.5	3.0	100.0	(2,051)	12.40	9.6	5.3**
보육시설	69.3	19.6	8.2	2.9	100.0	(1,343)	11.86	9.4	
유치원	61.1	27.5	8.5	2.9	100.0	(612)	13.21	9.9	
반일제이상 학원	49.3	32.0	14.7	4.0	100.0	(75)	15.26	9.9	
기타	50.0	40.0	5.0	5.0	100.0	(20)	13.63	8.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평균 소요 시간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평

균 시간이 가장 짧은 기관은 보육시설로 평균 11.3분이고, 유치원 12.3분, 반일제이상 학원 14.8분이다. 또한, 10분 이하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율은 보육시설 72.4%, 유치원 66.1%, 반일제이상 학원 56.1% 순이다.

하원시간은 등원시간보다 1분정도 더 소요되고 표준편차도 높다. 하원시 기관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노선에 따라 등원 때 보다 여러 지역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V-2-33 참조).

앞서 <표 V-2-30>에서 살펴본 등·하원 방법에서 자녀 혼자 걸어서 등·하원하는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51명인데, 이들의 등·하원 소요시간은 등원시간 6.53분, 하원시간 6.62분으로 나타났다.⁴⁰⁾

2) 보육시설 차량이용 이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역과 연령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연령구분에 따라서 영유아 모두 가장 큰 차량이용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이지만,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과 안전성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다. 영아는 26.7%가 걸을 수 있지만 편해서, 유아는 22.5%가 걸을 수 있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다(표 V-2-34 참조).

<표 V-2-34> 제 특성별 보육시설 차량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걸어가기 에는 멀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나 편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나 안전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수)
전체	55.4	21.8	21.2	0.9	0.8	100.0	(798)
아동							
영아	53.8	26.7	18.3	0.4	0.8	100.0	(251)
유아	56.1	19.6	22.5	1.1	0.7	100.0	(547)
지역							
대도시	41.4	32.9	24.1	0.8	0.8	100.0	(249)
중소도시	65.0	18.2	15.6	1.0	0.3	100.0	(391)
읍·면	53.8	13.3	30.4	1.3	1.3	100.0	(158)

40) 표 제시를 생략함.

대도시 지역 아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32.9%는 편해서 차량을 이용하고, 24.1%는 안전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다. 반면, 중소도시는 65.0%가 걸어가기에 멀어서 차량을 이용하며 편하거나 안전하기 때문은 18.2%와 15.6%로 상대적으로 낮다(표 V-2-34 참조).

사.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1) 기관별 비교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 현재의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용,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내용, 형제자매와 동시 취원, 아이의 적응, 운영시간, 교사, 특기교육, 차량이용, 시설환경, 주변 평판, 종교적인 이유 등 12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집과의 거리 26.7%, 프로그램 내용 16.1%, 주변 평판 15.7%, 비용 10.6%의 순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을 선택하였다. 2004년 조사 결과 역시 집과의 거리 21.9%, 프로그램 19.6%, 비용 9.9%, 주변의 평판 8.9%의 순이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도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집과의 거리와 주변 평판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은 다소 감소되었다.

선택이유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 부모는 집과의 거리 30.2%, 주변 평판 15.6%, 프로그램 내용 11.0%, 교사 9.2%, 비용 8.3% 순이다. 유치원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이 22.7%로 집과의 거리 21.7%보다 근소한 비율로 높으며, 주변의 평판 17.6%, 비용 14.1%이다.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는 프로그램 52.0%로 가장 높고 비용 14.7%, 집과의 거리 10.7%이다. 이처럼 보육·교육 기관 유형별로 기관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은 거리, 비용,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평가 등 4가지 요인이 주된 선택 이유인 데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근거리 여부, 유치원은 거리와 프로그램, 반일제이상 학원은 어떤 프로그램이나를 따져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기관 선택 이유는 이용하는 목적이나 기관이 수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 밖에 시설 환경 5.7%, 형제자매를 함께 보낼 수 있는지 4.6%이 기관 선택이유이며, 이미 아이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적응이 된 경우가 4.2%로, 일부 부모는 다니던 보육·교육기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도 이유가 있다(표 V-2-35 참조).

〈표 V-2-35〉 운영 주체별 보육·교육기관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비용	8.3	14.1	14.7	33.3	10.6
집과의 거리	30.2	21.7	10.7	4.8	26.7
프로그램 내용	11.0	22.7	52.0	19.0	16.1
형제자매와 함께	5.3	3.4	4.0	-	4.6
아이 적응	4.9	2.9	1.3	-	4.2
운영 시간	4.6	1.6	1.3	-	3.6
교사가 좋아서	9.2	5.6	5.3	19.0	8.1
특기교육	0.4	1.1	5.3	-	0.8
차량이용	0.8	0.7	-	-	0.7
시설환경	5.7	6.4	-	-	5.7
주변 평판이 좋아서	15.6	17.6	2.7	4.8	15.7
종교적 이유로	1.6	0.8	-	19.1	1.5
기타	2.4	1.4	2.7	-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42)	(612)	(75)	(21)	(2,047)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2) 보육시설 선택이유

부모가 현재의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를 시설 유형, 아동 연령과 거주지역, 아동의 취업여부와 가구소득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보육시설 유형별로 비중있는 선택 이유가 다소 차이가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취원 부모의 선택이유는 집과의 거리 21.5%, 비용 20.6%, 주변 평판 15.9%, 프로그램 내용 11.7%이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집과의 거리 23.3%, 비용 12.9%, 주변 평판 19.8%, 교사와 프로그램 내용 각각 9.5%이다.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은 주변 평판 29.6%, 프로그램 내용 22.2%, 집과의 거리 16.7%, 교사 7.4%이다. 민간보육시설은 집과의 거리 33.1%, 주변 평판 15.5%, 프로그램 내용 11.8%, 교사 8.6%, 비용 5.4%이다. 가정보육시설은 집과의 거리 44.1%, 교사가 좋아서 21.3%, 주변평판 10.2%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운영시간 29.4%, 비용 22.2%, 형제자매와 함께와 시설 환경 각각 11.1%, 집과의 거리와 프로그램 각각 7.4%이다(표 V-2-36 참조).

즉, 국공립 보육시설은 근거리와 비용, 사회복지법인은 근거리와 평판, 기타법인단체시설은 평판과 프로그램, 민간보육시설은 근거리와 평판, 가정보육시설은 근거리와 교사, 직장보육시설은 운영시간과 비용을 주된 선택이유로 들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이미 국공립보육시설로서의 인지도가 전제되어 있는 탓인지 거리와 비용을 주

되게 고려한 반면, 법인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모두 주변 평판이 중요한 선택이유가 된다. 영아 보육 비율이 높은 가정보육시설은 거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사에 대한 평가 또한 비중이 높다. 한편 직장의 비용 지원과 긴 운영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직장 보육시설은 이들 요인이 중요한 선택이유가 되고 있다.

〈표 V-2-36〉 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 법인 보육시설	기타법인 단체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부모협동	전체
비용	20.6	12.9	1.9	5.4	1.6	22.2	25.0	8.3
집과의 거리	21.5	23.3	16.7	33.1	44.1	7.4	-	30.2
프로그램 내용	11.7	9.5	22.2	11.8	1.6	7.4	25.0	11.0
형제자매와 함께	6.5	7.8	1.9	4.8	4.7	11.1	-	5.3
아이 적응	3.7	4.3	3.7	6.0	3.1	-	-	4.9
운영 시간	5.1	1.7	-	4.1	6.3	29.6	-	4.6
교사가 좋아서	4.2	9.5	7.4	8.6	21.3	3.7	50.0	9.2
특기교육	0.5	0.9	-	0.4	0.8	-	-	0.4
차량이용	1.9	0.9	-	0.5	1.6	-	-	0.8
시설환경	5.1	5.2	3.7	6.6	1.6	11.1	-	5.7
주변 평판이 좋아서	15.9	19.8	29.6	15.5	10.2	-	-	15.6
종교적 이유로	1.4	2.6	5.6	1.6	-	-	-	1.6
기타	1.9	1.6	7.3	1.6	3.1	7.5	-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6)	(54)	(800)	(127)	(27)	(4)	(1342)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보육시설 이용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는 보육시설 선택 이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영유아 모두 집과의 거리, 주변 평판, 프로그램 내용 등을 주되게 고려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선택시 유아 부모는 영아 부모보다 집과의 거리, 교사 비중은 낮고 프로그램 내용, 비용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을 둔다.

지역적 차이도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접근성과 평판 이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비중을 두고 선택하는 반면, 읍·면은 교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용 때문에 현재 시설을 보냈다는 부모는 읍·면보다는 중소도시, 대도시에 더 많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일차적으로 집과의 거리가 중요한 사항이나, 취업 또는 운영시간에 미취업모는 프로그램 내용에, 모부재인 경우는 주변 평판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한다(표 V-2-37 참조).

〈표 V-2-37〉 제 특성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			모취업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모취업	미취업	모부재
비용	6.7	9.5	10.2	8.8	3.6	8.2	8.1	13.7
집과의 거리	36.1	26.2	31.4	28.7	31.5	31.3	29.3	31.4
프로그램 내용	7.1	13.7	11.0	12.5	7.2	9.4	12.3	7.8
형제자매와 함께	6.9	4.0	3.7	5.8	7.2	5.6	4.9	5.9
아이 적응	3.4	5.9	5.1	4.3	6.0	4.5	5.6	2.0
운영 시간	4.7	4.6	4.5	5.5	2.8	7.5	2.2	3.9
교사가 좋아서	11.8	7.3	8.8	7.7	13.1	9.6	9.0	5.9
특기교육	-	0.8	0.4	0.5	0.4	0.3	0.7	-
차량이용	0.7	0.9	-	1.3	1.2	0.7	1.0	-
시설환경	4.2	6.8	6.1	6.0	4.8	5.4	6.2	3.9
주변 평판이 좋아서	14.3	16.6	14.7	15.3	18.3	13.4	17.3	19.6
종교적 이유로	1.6	1.8	1.8	0.8	3.2	1.0	2.1	2.0
기타	2.5	2.0	2.3	2.8	0.9	3.1	1.3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791)	(490)	(600)	(251)	(575)	(713)	(51)
$\chi^2(df)$	52.364(12)**		46.201(24)**			39.841(2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을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표 V-2-38〉 가구소득별 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체	99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350	350-400	400-450	500-600	600
		만원 이하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비용	8.3	16.7	8.9	9.2	6.1	10.0	11.0	5.2	4.5	5.7	3.0
집과의 거리	30.2	41.7	29.6	27.1	29.3	34.4	26.5	27.3	32.1	22.9	37.9
프로그램 내용	10.9	8.3	7.1	9.6	9.6	9.4	16.8	16.9	13.4	11.4	10.6
형제자매와 함께	5.3	1.2	1.8	10.8	7.6	3.8	2.6	1.3	6.3	4.3	6.1
아이 적응	5.0	1.2	5.3	5.2	4.5	3.1	8.4	5.2	8.9	2.9	1.5
운영 시간	4.6	3.6	5.9	4.8	4.5	4.4	3.2	1.3	5.4	5.7	7.6
교사가 좋아서	9.1	3.6	10.7	8.4	11.1	13.8	7.1	3.9	8.0	17.1	1.5
특기교육	0.5	-	-	1.2	0.5	-	0.6	-	-	1.4	1.5
차량이용	0.7	-	2.4	1.2	1.0	-	-	1.3	-	-	-
시설환경	5.7	2.4	3.6	5.6	6.1	3.8	5.2	7.8	8.9	10.0	9.1
주변 평판이 좋아서	15.6	19.0	17.8	13.9	15.2	15.0	13.5	24.7	10.7	15.7	18.2
종교적 이유로	1.6	1.2	4.7	1.6	2.5	-	0.6	-	0.9	1.4	1.5
기타	2.5	1.1	2.5	1.4	2.0	2.3	4.5	5.1	0.9	1.5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42)	(84)	(169)	(251)	(198)	(160)	(155)	(77)	(112)	(70)	(66)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로,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과 6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은 근거리 여부로 판단하는 부모가 많으며,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상위 소득계층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표 V-2-38 참조).

다음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운영되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표 V-2-39>는 평가인증제도 인지 및 시행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88.7%는 평가인증제도를 알고 있고, 55.1%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형별로 평가인증 받은 비율은 국공립 시설 76.7%, 직장 시설 72.0%로 높고, 가정보육시설 44.9%로 가장 낮다(표 V-2-39 참조).

<표 V-2-39> 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평가인증 받음	76.7	67.8	69.8	47.6	44.9	72.0	50.0	55.1
평가인증 받지 않음	2.3	1.7	7.5	10.0	25.2	8.0	-	9.3
평가인증 여부 모름	10.7	21.2	20.8	29.4	20.5	20.0	-	24.3
평가인증 제도 모름	10.3	9.3	1.9	13.0	9.4	-	50.0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5)	(118)	(53)	(801)	(127)	(25)	(4)	(1343)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표 V-2-40> 운영 주체별 보육시설 선택시 평가인증의 영향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많이 영향 있음	10.8	7.9	13.5	18.3	20.0	29.4	-	15.7
어느 정도 영향 있음	49.4	55.3	48.6	37.9	41.8	29.4	50.0	42.9
전혀 영향 없음	39.8	36.8	37.9	43.8	38.2	41.2	50.0	4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58)	(76)	(37)	(377)	(55)	(17)	(2)	(722)

<표 V-2-40>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게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여부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15.7%가 많은 영향, 42.9%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58.6%의 부모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반면, 41.4%는 시

설 선택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평가인증제도가 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는 민간보육시설 43.8%, 직장 보육시설 41.2%, 국공립 보육시설 39.8%, 가정보육시설 38.2% 등이다.

3) 유치원 등 선택 이유

유치원과 반일제이상학원의 선택 이유는 <표 V-2-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공립 유치원은 비용, 사립 유치원은 프로그램, 근거리 등이 주된 선택이유이며,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은 프로그램, 미술학원은 프로그램과 비용이 주된 이유이다

먼저, 유치원은 중 국공립 유치원 선택은 비용 49.7%이 가장 높고, 집과의 거리 및 주변 평판이 각각 10.2%이다. 사립 유치원 선택은 비용은 2.8%에 지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 27.4%, 집과의 거리 25.2%, 주변 평판 20.0%이다.

다음으로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은 프로그램 내용이 74.1%로 압도적으로 높고, 미술학원 역시 프로그램 39.6%가 주된 선택이유이다. 이용자가 대체로 고소득자인 영어학원은 비용을 고려한다는 경우가 없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용이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미술학원은 비용 또한 중요한 선택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표 V-2-41> 운영 주체별 유치원 및 반일제이상 학원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공립	사립	계	영어학원	미술학원	계
비용	49.7	2.8	14.1	-	22.9	14.7
집과의 거리	10.2	25.2	21.7	18.5	6.3	10.7
프로그램 내용	8.2	27.4	22.7	74.1	39.6	52.0
형제자매와 함께	8.2	2.2	3.4	-	6.3	4.0
아이 적응	2.0	3.2	2.9	-	2.1	1.3
운영 시간	-	2.2	1.6	-	2.1	1.3
교사가 좋아서	5.4	5.6	5.6	-	8.3	5.3
특기교육	-	1.5	1.1	7.4	4.2	5.3
차량이용	-	0.9	0.7	-	-	-
시설환경	5.4	6.7	6.4	-	-	-
주변 평판이 좋아서	10.2	20.0	17.6	-	4.2	2.7
종교적 이유로	-	1.1	0.8	-	-	-
기타	0.7	1.2	1.4	-	4.0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7)	(464)	(611)	(27)	(48)	(75)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3.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제3절에서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기관에서 기관의 장이 가장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부모 대상서비스는 어떠한지, 특기교육 실시 현황은 어떠한지, 건강검진을 하는지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가. 기관에서 강조하는 내용

기관장의 운영 방침을 보호자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관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보육·교육기관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기관의 장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부모에게 운영방침 또는 장점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균형있는 발달, 인성지도, 안전한 보호, 자유놀이 중심활동,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특별활동프로그램, 충분한 휴식, 기타 등 10가지 항목을 놓고 기관장이 강조하는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표 V-3-1〉 운영주체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2004년 조사
균형있는 발달	11.8	11.8	17.3	33.3	12.2	12.1
인성지도	50.6	68.6	36.0	47.6	55.3	55.0
안전한 보호	14.2	3.4	4.0	4.8	10.5	7.8
자유놀이 중심활동	7.6	4.3	9.3	-	6.6	6.6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	7.0	2.8	9.3	-	5.8	4.4
인지교육	3.5	4.3	13.3	4.8	4.1	5.0
부모자녀 관계	1.3	1.1	-	-	1.2	1.3
특별활동프로그램	3.3	3.6	9.3	9.5	3.7	7.2
충분한 휴식	0.6	-	-	-	0.3	0.4
기타	0.1	0.1	1.1	-	0.3	0.5
계(수)	100(1,341)	100(611)	100(75)	100(20)	100(2,047)	100(1,59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그 결과, <표 V-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성지도를 가장 강조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균형 있는 발달 12.2%, 안전한 보호

10.5%, 자유놀이 중심활동 6.6%이다. 2004년 조사 결과에 비해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 안전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관이 7.8%에서 10.5%로 다소 증가한 반면,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대해 7.2%의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것이 2009년 조사에서는 3.7%로 다소 감소하였다.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인성지도와 균형있는 발달 및 안전한 보호의 중요성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장의 강조사항은 기관별로 차이를 보인다. 보육시설은 안전한 보호가 28.8%로 다소 높고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가 19.5%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다소 높다. 유치원은 인성지도가 87.2%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매우 비율이 높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인성지도가 68.9%로 타 기관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인지교육이 23.5%로 매우 두드러지게 높다(표 V-3-2 참조).

〈표 V-3-2〉 운영 주체별 기관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종합)

구분	단위: %(명)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균형있는 발달	26.0	32.1	29.2	49.5	28.2
인성지도	70.1	87.2	68.9	79.3	75.3
안전한 보호	28.8	14.3	14.7	28.0	23.9
자유놀이 중심활동	24.8	20.9	24.6	11.5	23.5
식간식 포함 건강관리	19.5	11.6	14.3	8.0	16.8
인지교육	10.8	13.8	23.5	3.7	12.1
부모자녀 관계	4.3	5.9	-	8.1	4.7
특별활동프로그램	11.7	12.3	20.2	8.3	12.2
충분한 휴식	1.2	0.3	-	-	0.9
기타	0.5	0.5	1.7	-	0.6
(수)	(1,341)	(611)	(75)	(20)	(2,047)

주: 복수 응답임.

〈표 V-3-3〉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여 기관장이 강조하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시설장은 인성지도 이외에 안전한 보호, 자유놀이 중심활동,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 및 균형 있는 발달을 골고루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 법인보육시설은 자유놀이 중심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강조 비율이 다른 시설보다 다소 높다. 기타법인보육시설은 안전한 보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보육시설은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에 대한 강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아동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려서인지 안전한 보호와 자유놀이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유치원 역시 인성지도에 대한 강조는 다르지 않지만, 사립 유치원장은 특별 활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표 V-3-3 참조).

〈표 V-3-3〉 운영주체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종합)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국·공립	사립
균형있는 발달	21.1	25.9	24.4	28.8	19.9	18.9	-	36.8	30.6
인성지도	73.7	78.1	75.4	70.3	51.8	84.6	21.7	90.2	86.3
안전한 보호	29.8	25.9	40.1	25.0	48.1	25.8	78.3	17.6	13.2
자유놀이 중심활동	26.0	11.9	12.5	26.2	30.9	11.8	100.0	22.5	20.4
급간식 포함 건강관리	25.6	16.7	19.2	15.4	34.7	36.5	-	8.4	12.7
인지교육	7.7	13.6	12.9	12.9	1.1	2.9	-	14.5	13.6
부모자녀 관계	3.3	3.8	5.6	4.5	4.3	7.9	-	4.9	6.3
특별활동프로그램	7.2	19.9	7.1	13.7	4.2	-	-	2.9	15.3
충분한 휴식	1.4	2.2	-	1.1	1.3	-	-	1.4	-
기타	2.1	-	-	0.2	1.1	-	-	-	0.6
(수)	(211)	(116)	(52)	(795)	(125)	(23)	(4)	(148)	(463)

주: 복수 응답임.

균형있는 발달이나 자유놀이 중심활동보다 인지교육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강조할 경우 보육·교육과정이 특정 분야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보육시설 22.5%, 유치원 26.1%, 반일제이상 학원 43.7%가 인지교육이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기관장이 강조하고 있다(표 V-3-2 참조).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육·교육에서 1순위와 2순위로 지적한 경우 기관장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표 V-3-4 참조).

기관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52.7%가 영어 프로그램이며, 교구 이용 프로그램 15.6%, 미술 9.5%이다. 영어 교과에 대한 강조는 영아와 유아의 구분도 없고 모든 보육·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서 보면, 영아에 대한 특별활동으로 강조하는 교과목은 영어, 교구이용 프로그램, 음악, 미술, 한글, 체육, 기타외국어 및 기타 등 8종이다. 주로 영어와 교구이용 프로그램, 음악, 미술, 한글이 강조된다. 유아 대상으로는 과학, 수학, 한자가 덧붙여져 11종의 교과목이 강조되며, 주로 영어, 교구이용프로그램, 미술을 강조한다.

기관 유형별로는 보육시설은 11종, 유치원 9종, 반일제이상 학원 6종의 교과를 강

조한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영어, 교구이용, 미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일제이상 학원은 영어, 미술, 체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표 V-3-4 참조).

〈표 V-3-4〉 제 특성별 시설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전체	연령구분		유형별			
		영아	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
미술	9.5	8.8	9.7	8.4	9.1	25.0	-
음악	5.3	11.8	4.4	6.6	2.6	6.3	-
체육	5.0	5.9	4.8	4.8	3.9	12.5	-
과학	0.8	-	0.9	1.2	-	-	-
수학	1.1	-	1.3	1.8	-	-	-
한글(국어)	5.3	8.8	4.8	6.0	5.2	-	-
컴퓨터	-	-	-	-	-	-	-
교구이용프로그램	15.6	11.8	16.7	14.4	19.5	6.3	50.0
한자	0.8	-	0.9	0.6	1.3	-	-
영어	52.7	47.1	53.3	52.1	55.8	43.8	50.0
기타 외국어	0.8	2.9	0.4	0.6	1.3	-	-
기타	3.1	2.9	2.8	3.5	1.3	6.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62)	(34)	(227)	(167)	(77)	(06)	(2)

나. 부모서비스 및 참여

부모서비스는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 자녀발달평가 등 정보의 제공과 부모상담에 대해서 제공여부와 도움되는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보육·교육 주제 및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보육·교육 계획표와 급·간식단은 자녀가 보육·교육기관에서 어떤 활동과 식사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부모들은 보육·교육기관을 통하여 영유아기에 적절한 균형잡힌 발달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정보 역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고 부모상담 등을 통해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육기관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부모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정보제공

가) 기관 비교

먼저, 보육·교육 계획표는 기관에서 아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보육·교육 계획 제공 빈도는 매일 3.4%, 매주 79.8%로 가장 많고, 15.5%는 월 1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 큰 차이 없이 모두 주 1회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급간식단 제공은 월 1회 53.6%이고 매주 39.1%이며 4.7%가 매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2004년에 비하여 월 1회 제공은 증가하고 매주 제공은 감소하였다.

가정통신은 매주 제공 49.0%, 매일 제공 40.6%이며 월 1회 제공은 6.4%이다. 2004년도에 비해 매일 제공한다는 비율은 19.6%에서 40.6%로 20% 이상 증가하고 매주 제공이나 월 1회 제공은 감소하여 가정통신문의 제공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3-5 참조).

〈표 V-3-5〉 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여부 및 빈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2004년조사
보육·교육계획						
매일 제공	3.5	3.1	1.3	10.0	3.4	0.9
매주 제공	77.8	84.3	82.7	70.0	79.8	81.5
월 1회 제공	17.1	11.8	14.7	20.0	15.5	15.4
기타, 모름	1.6	0.9	1.3	-	1.4	2.1
급간식단						
매일 제공	4.5	5.1	6.7	4.8	4.7	1.6
매주 제공	36.7	44.8	33.3	42.9	39.1	49.0
월 1회 제공	56.0	47.7	58.7	47.6	53.6	40.8
기타, 모름	2.8	2.4	1.3	4.8	2.6	8.7
가정통신						
매일 제공	48.1	25.6	30.7	28.6	40.6	19.6
매주 제공	42.3	63.5	52.0	42.9	49.0	60.7
월 1회 제공	6.1	5.9	16.0	4.8	6.4	11.9
분기 1회 제공	0.5	0.5	-	4.8	0.4	1.5
연 1~2회 제공	0.2	0.3	-	-	0.2	0.7
기타, 모름	2.8	4.3	1.3	19.0	3.3	5.6

(표 V-3-5 계속)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2004년조사
아동발달평가통지						
매일 제공	12.7	2.0	2.7	-	9.0	1.7
매주 제공	5.4	7.8	12.0	5.0	6.4	5.8
월 1회 제공	10.4	10.5	13.3	-	10.4	10.0
분기 1회 제공	17.1	17.2	20.0	25.0	17.3	13.7
연 1~2회 제공	18.5	21.7	13.3	15.0	19.2	19.7
제공 안함	24.6	24.7	20.0	45.0	24.6	49.1
모름	11.3	16.2	18.7	10.0	13.0	
부모상담						
매일 제공	2.3	0.2	1.3	5.0	1.7	-
매주 제공	2.0	2.1	2.6	-	2.1	-
월 1회 제공	10.0	9.5	10.5	5.0	9.8	-
분기 1회 제공	19.7	22.5	22.4	5.0	20.5	-
연 1~2회 제공	40.0	44.1	35.5	30.0	41.0	-
제공 안함	13.7	9.8	11.8	40.0	12.7	-
모름	12.3	11.8	15.8	15.0	12.3	-
계(수)	100.0(1,344)	100.0(611)	100.0(75)	100.0(20)	100.0(2,050)	100.0(1,61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발달평가에 대한 통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4.6%로 다른 정보 제공에 비하여 높고 부모가 발달평가에 대해서 보육·교육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는 비율 또한 13.0%이다. 반면, 9.0%가 매일, 10.4%가 월 1회, 19.2%가 연 1~2회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유사하지만, 보육시설은 매일 제공한다는 비율이 12.7%로 다른 기관들 보다 높다. 부모 상담은 연 1~2회 제공한다고 가장 많다. 분기 1회가 20.5%, 월 1회가 9.8%이며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2.7%,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는 비율 또한 12.3%이다(표 V-3-5 참조).

나) 보육시설 부모서비스

(1) 유형별

보육시설 유형별로 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은 다음의 <표 V-3-6>과 같다. 먼저, 보육계획안은 기타법인보육시설 96.2%, 국공립보육시설 80.4%가 주 1회, 가정보육시설은 73.8%가 주 1회 제공하고 있다.

〈표 V-3-6〉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보육·교육계획								
매일	3.7	0.8		4.1	1.6	8.0	-	3.5
주 1회	80.4	79.7	96.2	76.9	73.8	68.0	25.0	77.8
월 1회	13.6	18.6	3.8	17.5	21.4	24.0	75.0	17.1
기타, 모름	2.4	0.9	-	1.5	3.2	-	-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8)	(53)	(802)	(126)	(25)	(4)	(1,342)
급·간식단								
매일	3.3	1.7	3.7	4.4	9.4	8.0	-	4.5
주 1회	34.1	42.7	66.7	35.8	29.1	36.0	25.0	36.7
월 1회	60.3	53.8	29.6	56.8	56.7	56.0	75.0	56.0
기타, 모름	2.3	1.8	-	3.0	4.8	-	-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7)	(54)	(801)	(127)	(25)	(4)	(1,342)
가정통신문								
매일	48.4	36.2	42.6	48.1	59.5	48.1	100.0	48.1
주 1회	45.1	57.8	50.0	41.3	29.4	33.3	-	42.3
월 1회	3.3	4.3	5.6	6.6	7.9	14.8	-	6.1
기타, 모름	3.2	1.7	1.8	4.0	3.2	3.8	-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5)	(116)	(54)	(802)	(126)	(27)	(4)	(1,344)
아동발달평가통지								
매일	9.8	22.2	5.7	11.2	21.4	20.0	-	12.7
주 1회	5.1	9.4	5.7	5.4	2.4	4.0	-	5.4
월 1회	13.0	4.3	15.1	10.4	11.9	-	25.0	10.4
분기 1회	20.9	12.0	18.9	17.4	11.9	24.0	-	17.1
연 1-2회	19.5	14.5	17.0	20.0	11.9	20.0	-	18.5
제공안함	21.9	28.2	18.9	24.3	27.8	20.0	75.0	24.6
모름	9.8	9.4	18.7	11.3	12.7	12.0	-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5)	(117)	(53)	(801)	(126)	(25)	(4)	(1,341)
부모상담								
월 1회 이상	3.3	1.7	3.7	4.5	7.2	7.7	-	4.3
월 1회	9.8	6.0	7.4	10.2	14.3	7.7	-	10.0
분기 1회	20.6	13.7	25.9	19.9	20.6	19.2	-	19.7
연 1-2회	50.0	52.1	33.3	39.5	15.1	53.8	50.0	40.0
제공안함	7.5	11.1	13.0	13.6	27.0	11.6	50.0	13.7
모름	8.8	15.4	16.7	12.3	15.8	-	-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7)	(54)	(801)	(126)	(26)	(4)	(1,342)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반면, 가정통신문은 59.5%의 가정보육시설과 48% 가량의 국공립, 민간, 직장 보육 시설이 매일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수의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보육과정 운영과 급·간식 계획은 적어도 주 및 월별 단위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에게 보육시설에서의 일과 등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모에게 알려주거나 상담 등의 활동은 보육계획안이나 급·간식 계획안보다는 정보 제공 주기가 길고 제공하지 않는 비율 또한 크다. 아동 발달평가 통지의 경우 시설 유형보다는 개별 보육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아동 발달평가 통지를 매일 받아보는 부모가 20%이지만 동시에 받아본 적이 없는 부모도 27~28%이다.

부모 상담은 전체적으로 연 1~2회가 가장 빈도가 높고, 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27.0%는 부모 상담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타법인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16.7%와 가정보육시설 아동 부모의 15.8% 등은 부모 상담이 어떤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표 V-3-6 참조).

(2) 도움되는 정도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 자녀발달평가 등 정보 제공과 부모상담이 부모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별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 됨의 5가지 보기를 주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표 V-3-7>의 도움된다는 비율은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다. 부모 서비스 5개 항목 중에서 도움 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연락장 등의 가정통신문 제공이다. 가정 통신문의 도움되는 비율은 85.6%이며, 급식·간식 식단제공 83.3%, 보육·교육계획표 제공 81.6%, 자녀발달평가 통지 제공 78.8%, 부모 상담참석 66.4% 순이다. 보육시설 기관별로는 가정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은 보육·교육계획표 제공의 도움정도가 낮고, 급간식 식단제공과 가정통신문 제공은 민간보육시설이 다소 낮다.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법인 이용 아동 부모는 아동발달 평가 통지와 부모상담의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V-3-7>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부모서비스 도움된다는 비율 및 5점 정도

단위: %(명)

구분	도움된다는 비율					5점 척도				
	보육·교육 계획표	급식·간식 식단	가정 통신	자녀발 달평가	부모 상담	보육·교육 계획표	급식·간식 식단	가정 통신	자녀발 달평가	부모 상담
전체	81.6	83.3	85.6	78.8	66.4	3.91	3.91	4.01	3.93	3.68
국공립	86.7	89.5	87.1	79.4	66.4	3.97	4.01	3.97	3.92	3.69
사회복지법인	88.0	88.7	91.3	78.4	59.3	4.02	3.99	4.11	4.00	3.55
기타법인	94.3	98.2	98.1	75.8	71.8	4.05	4.12	4.22	3.95	3.91
민간	79.9	79.6	82.7	78.7	65.5	3.88	3.85	3.97	3.90	3.64
가정	73.2	83.3	88.6	76.0	70.4	3.83	3.91	4.09	3.95	3.89
직장	76.9	88.4	92.0	94.4	91.3	4.09	4.22	4.28	4.35	4.04
부모협동	100.0	100.0	100.0	100.0	100.0	4.00	4.00	4.00	4.00	4.00
(수)	(1,322)	(1,305)	(1,305)	(861)	(993)	(1,322)	(1,305)	(1,305)	(861)	(993)
F						2.5*	4.3**	3.1**	1.3	2.9**

주: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를 합산한 비율임.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

이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보면 가정통신문의 도움정도는 4.01점, 자녀발달 평가 통지 제공이 3.93점, 급식·간식 식단과 보육·교육계획표 제공이 3.91점, 부모 상담참여의 도움정도는 3.68점이다. 응답 사례수가 작은 부모협동 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부모들이 평가한 서비스의 도움 정도는 기타법인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동발달 평가 통지를 제외하고 기관유형에 따라 부모들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보육계획안에 대해서는 법인보육시설의 도움정도가 높고, 식단제공은 기타 법인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 가정통신문은 법인보육시설, 부모상담에 대해서는 기타법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였다(표 V-3-7 참조).

(3) 만족도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 자녀발달평가 등 정보의 제공과 부모상담 등과 같은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 비율과 5점 평균은 <표 V-3-8>과 같다. 여기서 비율은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을 합산한 것이다.

5개 서비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연락장 등의 가정통신 제공으로 77.9%이며, 보육·교육계획표 제공 77.4%, 급식·간식 식단제공 77.0%, 자녀발달평가

통지 제공 71.7%, 부모 상담참석 59.5%순이다.

〈표 V-3-8〉 기관유형별 만족한다는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척도				
	보육·교육 계획표	급식·간식 식단	가정 통신	자녀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보육·교육 계획표	급식·간식 식단	가정 통신	자녀 발달 평가	부모 상담
전체	77.4	77.0	77.9	71.7	59.5	3.86	3.84	3.90	3.83	3.62
국공립	83.8	86.1	81.9	74.1	62.2	3.96	3.99	3.90	3.86	3.65
사회복지법인	82.7	72.1	79.8	69.8	57.4	3.96	3.78	3.94	3.90	3.59
기타법인	94.3	96.2	90.5	75.8	75.7	4.03	4.13	4.10	3.91	3.90
민간	75.0	74.5	75.4	70.3	57.4	3.82	3.79	3.88	3.80	3.60
가정	69.7	73.6	80.3	75.0	62.5	3.80	3.84	3.93	3.92	3.81
직장	70.4	70.4	73.0	77.8	60.9	3.58	3.58	3.63	3.68	3.22
부모협동	100.0	100.0	100.0	100.0	100.0	4.00	4.59	4.22	5.00	4.00
(수)	(1,324)	(1,307)	(1,306)	(863)	(994)	(1,322)	(1,305)	(1,305)	(861)	(993)
F						3.4**	5.4**	1.7	1.0	2.8**

주: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합산한 비율임.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이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보면 가정통신문 만족도는 3.90점, 보육·교육계획표 제공이 3.86점, 급식·간식 식단제공 3.84점, 자녀발달평가 통지 제공 3.83점, 부모 상담참석 만족도 3.62점이다.

응답 사례수가 작지만 부모협동 보육시설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 부모 협동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기타법인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육·교육계획표 제공, 급식·간식 식단제공, 부모 상담참석에 대한 만족도는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보육·교육계획표 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법인시설과 국공립 시설이 상대적으로 높다. 급식·간식 식단제공에 대해서도 기타법인과 국공립시설이 부모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기타법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V-3-8 참조).

2) 부모 지원

가) 보육·교육기관의 부모 도움

보육·교육기관에 아동을 보내는 것이 가정 또는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 및 구직활동, 업무 또는 가사의 능률 향상, 여가·취미활동, 육아기

술·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 학업 및 취업훈련의 여섯 가지 영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V-3-9>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사를 포함한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경우가 71.6%로 가장 높았고, 육아기술·지식 확대 43.5%, 가족갈등 완화 40.9%, 여가·취미활동 38.6%, 취업 및 구직 34.9%의 순서로 도움된다고 하였다. 기관유형별로 여가·취미활동을 제외하고 도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육시설 이용 아 부모는 평균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 반면 유치원 취원아 부모는 평균 이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5점 척도화하여 평균값을 비교하면, 미취업모와 저소득층에서 업무(가사)능력 향상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부모와 취업모들에게 자녀를 보육·교육기관에 보낸 것이 학업 및 취업훈련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더 많이 주었고,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와 200만원~400만원 사이의 가구소득 층의 여가·취미활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표 V-3-9> 기관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수)	X ² (df)/F
도움된다는 비율							
취업 및 구직	34.9	39.4	28.1	13.1	23.8	(2,049)	53.9(12)**
업무(가사)능력 향상	71.6	75.6	64.0	58.7	85.0	(2,049)	64.1(12)*
여가·취미활동	38.6	38.9	37.1	44.0	45.0	(2,050)	19.6(12)
육아기술·지식확대	43.5	45.4	39.6	42.1	35.0	(2,048)	22.2(12)*
가족갈등 완화	40.9	43.2	35.0	41.9	55.0	(2,046)	22.9(12)**
학업 및 취업훈련	18.4	20.9	14.3	13.6	5.0	(2,047)	22.8(12)**
평균	35.8	38.1	36.4	35.6	41.5	-	-
5점 척도							
취업및구직	2.5	2.6	2.3	1.7	2.0	(2,049)	16.8**
업무(가사)능력 향상	3.7	3.8	3.5	3.4	3.8	(2,049)	17.2**
여가활동	2.9	2.9	2.9	2.9	3.0	(2,050)	0.1
육아지식확대	3.2	3.2	3.1	3.1	2.9	(2,048)	1.6
가족갈등완화	3.0	3.0	2.9	3.0	3.2	(2,046)	2.9*
학업 및 취업훈련	2.2	2.2	2.1	2.0	1.8	(2,047)	2.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유의도 검증은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 차이 유의도임.

나) 보육·교육기관별 부모 도움

(1) 보육시설의 부모 도움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가 시설 이용으로 인하여 취업이나 학업 또는 가사 및 여가에 도움 받는 정도는 다음의 <표 V-3-10>과 같다. 도움된다는 비율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도움된다는 응답을 합산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는 업무(가사)능률향상 75.5%, 육아지식 확대 45.3%, 가족갈등 완화 43.2%, 취업 및 구직 39.4%, 취업 훈련 20.8%의 도움을 받았다. 보육시설 이용이 신규 취업이나 직업 훈련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거나 양육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주로 한다.

시설유형별로는 취업 및 구직에 대한 도움은 직장보육시설 부모 59.2%, 가정보육시설 부모 45.2%, 사회복지법인시설 부모 43.1%, 국공립보육시설 부모 43.0%로 평균보다 높다. 여가 활동은 민간보육시설 부모 40.4%, 육아지식 확대는 가정보육시설 48.8%, 가족갈등 완화는 기타법인 56.6%, 학업 및 직업훈련은 직장보육시설 25.9%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V-3-10> 보육시설 기관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률 향상	여가활동	육아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	학업 및 취업훈련	(수)
전체	39.4	75.5	38.9	45.3	43.2	20.8	(1,340)
국공립	43.0	78.1	38.6	39.2	49.3	18.2	(214)
사회복지법인	43.1	78.5	36.7	45.3	43.6	23.9	(116)
기타법인	35.9	75.5	32.0	46.3	56.6	16.9	(53)
민간	36.6	75.0	40.4	46.4	41.0	21.4	(800)
가정	45.2	72.5	35.2	48.8	41.6	19.9	(126)
직장	59.2	69.2	34.6	46.1	37.0	25.9	(27)
부모협동	-	75.0	50.0	50.0	75.0	-	(4)

주: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는 합산한 비율임.

다음의 <표 V-3-11>은 도움정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보육시설 유형별로 취업 및 구직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의 차이가 있다.

직장 보육시설 취원 아동 부모는 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가정보육시설,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아동 부모의 순서로 도움을 받았다는 비

율이 높았다. 그 밖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 관련 도움은 직장 보육시설이 가족 갈등 완화와 육아지식 및 여가 활동 관련은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상대적 도움정도가 크다(표 V-3-11 참조).

〈표 V-3-11〉 보육시설 기관유형별 도움정도(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여가활동	육아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	학업 및 취업훈련	(수)
전체	2.64	3.81	2.87	3.20	3.04	2.21	(1,341)
국공립	2.71	3.86	2.88	3.13	3.19	2.16	(215)
사회복지법인	2.71	3.78	2.79	3.23	3.02	2.13	(117)
기타법인	2.52	3.66	2.59	3.16	3.26	2.09	(53)
민간	2.55	3.81	2.90	3.19	2.99	2.23	(800)
가정	2.90	3.81	2.82	3.33	3.04	2.20	(126)
직장	3.35	3.91	2.70	3.35	2.96	2.63	(26)
부모협동	1.59	3.81	3.16	3.59	4.02	1.81	(4)
F	2.6*	0.4	0.9	0.8	1.8	0.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다음은 아동의 연령 구분, 거주 지역, 모취업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도움정도를 살펴보았다(표 V-3-12 참조).

먼저 자녀 연령 구분에 따르는 보육시설의 도움 정도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 부모의 취업 및 구직에는 보통 수준 이하의 도움을 준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업무 능력의 향상 및 여가 활동, 육아 지식 확대 그리고 가족 갈등 완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 보다도 읍·면 지역 거주 부모가 도움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취업 또는 학업을 위한 교육 훈련에는 중소도시 거주 부모가 대도시에 비하여 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취업모는 미취업모 보다 취업 및 구직에 더 도움을 받았고, 미취업모는 취업모보다 여가 활동에 더 도움을 받았다. 그 밖에 업무 능력 향상, 육아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와 취업 훈련 등에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가구소득 수준별 차이는 취업 및 구직활동, 업무능력향상, 여가활동, 가족갈등완화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V-3-12 참조).

〈표 V-3-12〉 제 특성별 보육시설 도움정도(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취업 및 구직	업무능률 향상	여가활동	육아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	취업훈련
연령구분						
영아	2.7	3.9	2.8	3.2	3.1	2.1
유아	2.6	3.8	2.9	3.2	3.0	2.3
<i>t</i>	3.7	2.9	1.1	0.2	0.1	2.1
지역						
대도시	2.7	3.8	2.6	3.1	2.9	2.1
중소도시	2.6	3.8	3.0	3.3	3.1	2.3
읍·면	2.6	3.9	3.1	3.3	3.1	2.1
<i>F</i>	2.0	3.4*	18.2**	6.9*	3.2*	5.2**
모취업						
모취업	3.4	3.8	2.5	3.2	3.0	2.3
미취업	2.0	3.8	3.2	3.2	3.1	2.1
부재	2.8	3.7	2.4	3.2	2.9	2.3
<i>F</i>	184.3**	0.9	49.5**	-	1.0	2.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8	4.0	2.7	3.3	3.2	2.2
100~149만원 이하	2.8	3.9	3.0	3.3	2.8	2.2
150~199만원 이하	2.2	3.9	2.8	3.2	3.2	2.1
200~249만원 이하	2.8	3.9	3.0	3.3	3.2	2.3
250~299만원 이하	2.4	3.7	3.0	3.2	2.9	2.1
300~349만원 이하	2.6	3.7	2.9	3.2	3.0	2.2
350~399만원 이하	2.7	3.9	3.0	3.2	3.1	2.1
400~499만원 이하	3.0	3.7	2.6	3.1	3.1	2.3
500~599만원 이하	2.8	3.8	2.7	3.2	2.9	2.1
600만원 이상	2.9	3.5	2.6	2.9	3.0	2.2
<i>F</i>	3.9**	2.6**	2.1*	1.1	1.9*	0.7
(수)	(1,341)	(1,341)	(1,341)	(1,341)	(1,341)	(1,34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2) 유치원의 부모 도움

〈표 V-3-13〉은 유치원 이용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비율과 5점척도를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업무능률향상에 64.0%, 육아지식 확대 39.5%, 여가활동 37.1%, 가족갈등 완화 35.0%, 취업 및 구직 28.1%, 취업 훈련에 14.3%가 도움을 받았다고 조사되었다.

유치원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냈을 때와 유사하게 업무능력향상과 육아지식확대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지만 보호자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큼 도움정도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취업 및 업무관련 도움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 부모가 도움을 다소 많이 받았고, 여가활동과 육아지식 확대에는 사립 유치원 취원 부모의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표 V-3-13 참조).

〈표 V-3-13〉 유치원 기관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및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취업및 구직	업무능력 향상	여가활동	육아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	취업 훈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전체	28.1	64.0	37.1	39.5	35.0	14.3	(612)
국공립	31.1	68.5	43.9	41.5	41.5	14.9	(148)
사립	27.2	62.6	34.9	38.9	33.0	13.9	(464)
5점 척도							
전체	2.28	3.50	2.86	3.13	2.88	2.08	(612)
국공립	2.31	3.52	2.95	3.10	3.00	2.05	(148)
사립	2.27	3.50	2.83	3.14	2.84	2.08	(464)
t	0.09	0.05	1.28	0.24	2.34	0.09	

주: 1) 도움된다는 비율은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를 합산한 비율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정도가 높음.

(3) 반일제이상 학원의 부모 도움

〈표 V-3-14〉는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와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비율과 5점 척도이다.

전체적으로 업무능력향상에 60.0%, 여가활동 45.0%, 육아지식 확대 42.7%, 가족갈등 완화 41.9%, 취업 훈련에 14.5%, 취업 및 구직 12.0%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유치원보다 부모의 여가활동과 육아지식 및 가족갈등 완화 등의 가족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해준다(표 V-3-14 참조).

〈표 V-3-14〉 반일제이상 학원 유형별 도움된다는 비율 비교

단위: %(명), 점

구분	취업및 구직	업무능률 향상	여가활동	육아지식 확대	가족갈등 완화	취업 훈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전체	12.0	60.0	45.0	42.7	41.9	14.5	(612)
영어학원	11.1	44.4	40.7	35.7	33.3	21.5	(148)
미술학원 등	12.3	68.8	45.8	46.8	46.8	10.4	(464)
5점 척도							
전체	1.71	3.36	2.86	3.11	2.97	1.98	(27)
영어학원	1.67	2.91	2.71	2.92	2.68	2.14	(48)
미술학원 등	1.73	3.62	2.95	3.22	3.14	1.89	(75)
t	0.05	6.0**	0.5	1.3	2.4	0.9	

주: 1) 도움된다는 비율은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된다를 합산한 비율임
 2)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정도가 높음.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보면 미술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업무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을 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취업훈련 문제를 제외하고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학원 이용으로부터 부모가 도움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표 V-3-14 참조).

다. 취약보육41)

현재 하루 12시간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의 시간연장형 보육과, 일정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필요성, 현재 및 과거 이용, 앞으로의 이용의사를 제 특성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이용경험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9.0%이고, 야간보육이 4.9%이며,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 이용경험은 1% 내외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과 보육

41)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종전에 특수보육으로 불리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취약보육으로 명명하였음.

시설 이용경험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용한다는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시간제 보육 1.1%, 야간보육 0.9%이고, 그 이외는 미미하다 (표 V-3-15 참조).

〈표 V-3-15〉 취약보육의 이용

단위: %(명)

구 분	현재			보육시설 이용 경험		계(수)
	상시	가끔	미이용	있음	없음	
시간제보육	1.1	7.3	91.6	9.0	91.0	100.0(3,304)
야간보육	0.9	3.8	95.3	4.9	95.1	100.0(3,304)
24시간제보육	0.1	0.6	99.3	0.7	99.3	100.0(3,304)
휴일보육	0.1	1.2	98.7	1.3	98.7	100.0(3,304)

〈표 V-3-16〉은 취약보육 유형별 이용 현황을 연령과 지역, 모의 취업상태별로 제시한 것이다. 영유아의 이용을 보면, 시간제 보육 이용경험에 있어 유아가 영아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취약보육 형태별 영유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 모 취업별로는 역시 취약보육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부재, 취업모, 미취업모의 순으로 이용경험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야간제, 휴일 보육 이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의 거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취약보육 이용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3-16〉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

단위: %(명)

구 분	시간제		야간제		24시간제		휴일보육		(수)
	상시	가끔	상시	가끔	상시	가끔	상시	가끔	
전체	1.1	7.3	0.9	3.8	0.1	0.6	0.1	1.2	(3,304)
아동특성별									
영아	0.9	5.8	0.8	3.2	-	0.4	0.1	1.0	(1,743)
유아	1.4	9.0	1.0	4.5	0.1	0.8	0.1	1.3	(1,560)
X ² (df)	15.4(2)**		4.2(2)		na		na		
지역규모별									
대도시	1.0	6.4	0.8	3.9	-	0.3	-	1.2	(1,317)
중소도시	1.0	7.2	1.2	4.0	0.1	0.6	0.1	0.9	(1,436)
읍·면	1.6	9.6	0.5	3.1	-	1.5	-	1.6	(551)
X ² (df)	7.7(4)		3.4(4)		na		na		

(표 V-3-16 계속)

구 분	시간제		야간제		24시간제		휴일보육		(수)
	상시	가끔	상시	가끔	상시	가끔	상시	가끔	
모취업별									
모취업	2.2	7.1	2.1	6.6	-	1.0	0.2	1.8	(1,113)
미취업	0.6	7.6	0.2	2.2	-	0.4	-	0.9	(2,115)
모부재	-	3.9	3.9	7.9	2.6	1.3	-	-	(76)
$X^2(df)$		18.0(4)**		na		na		na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0.6	8.2	0.6	7.0	-	-	-	0.6	(159)
100~149만원	1.3	10.9	1.3	3.9	-	0.3	-	2.0	(304)
150~199만원	1.1	9.3	0.5	3.6	0.4	0.5	-	1.1	(261)
200~249만원	1.0	7.1	0.8	3.4	-	1.6	0.2	1.2	(496)
250~299만원	2.2	7.3	1.2	2.7	-	0.7	0.2	0.7	(410)
300~349만원	0.2	4.7	0.7	2.8	-	0.5	-	0.9	(426)
350~399만원	0.5	8.2	-	3.9	-	-	-	0.5	(207)
400~499만원	1.6	7.4	2.3	5.5	-	0.6	-	1.9	(309)
500~599만원	1.5	6.0	1.0	4.5	-	1.5	-	1.5	(201)
600만원 이상	0.9	2.6	0.4	3.5	-	-	-	0.9	(227)
$X^2(df)$		na		na		na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V-3-17〉 긴급 상황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기타	전체	$X^2(df)$
전체	4.8	45.6	45.9	2.8	0.9	100.0(3,302)	
아동특성별							
영아	3.3	46.2	47.4	2.6	0.5	100.0(1,744)	29.5(4)**
유아	6.5	44.9	44.2	2.9	1.6	100.0(1,560)	
지역규모별							
대도시	3.9	46.5	46.3	2.7	0.6	100.0(1,317)	
중소도시	5.2	41.5	48.4	3.2	1.7	100.0(1,435)	44.5(8)**
읍·면	5.6	54.3	38.3	1.5	0.4	100.0(549)	
모취업별							
모취업	7.2	33.2	55.6	3.2	0.8	100.0(1,112)	
미취업	3.3	53.6	39.4	2.6	1.1	100.0(2,115)	
모부재	9.3	4.0	85.3	1.4	-	100.0(75)	

(표 V-3-17 계속)

구 분	보육시설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기타	전체	X ² (df)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5.1	53.8	38.0	1.9	1.2	100.0(158)	156.8(36)**
100~149만원	3.6	48.8	46.6	1.0	-	100.0(303)	
150~199만원	6.0	51.2	39.3	2.1	1.4	100.0(562)	
200~249만원	4.4	50.0	43.8	1.4	0.4	100.0(496)	
250~299만원	3.4	45.3	46.7	2.9	1.7	100.0(411)	
300~349만원	5.2	48.4	43.0	2.3	1.3	100.0(426)	
350~399만원	4.3	34.8	57.0	3.4	0.5	100.0(207)	
400~499만원	7.4	42.3	48.1	0.6	1.6	100.0(310)	
500~599만원	4.5	38.3	52.2	4.5	0.5	100.0(201)	
600만원 이상	1.8	28.5	56.6	11.4	1.7	100.0(22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표 V-3-18〉 아이가 아플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기타	전체	X ² (df)
전체	2.8	67.8	27.6	1.7	0.1	100.0(3,303)	
아동특성별							
영아	2.0	68.4	27.9	1.7	-	100.0(1,744)	10.1(4)*
유아	3.6	67.2	27.3	1.8	0.1	100.0(1,559)	
지역규모별							
대도시	1.9	68.4	28.2	1.4	0.1	100.0(1,317)	na
중소도시	2.9	65.8	28.7	2.5	0.1	100.0(1,435)	
읍·면	4.4	71.8	23.3	0.5	-	100.0(550)	
모취업별							
모취업	5.5	51.8	40.2	2.5	-	100.0(1,113)	
미취업	1.2	78.4	19.1	1.2	0.1	100.0(2,114)	
모부채	7.9	10.5	78.9	2.7	-	100.0(76)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3.8	71.7	22.6	1.9	-	100.0(159)	na
100~149만원	3.0	72.4	24.3	0.3	-	100.0(304)	
150~199만원	3.4	73.0	21.9	1.6	0.1	100.0(562)	
200~249만원	1.8	74.0	22.9	1.3	-	100.0(497)	
250~299만원	1.7	69.4	28.1	0.5	0.2	100.0(409)	
300~349만원	3.1	70.1	25.6	1.2	-	100.0(425)	
350~399만원	1.9	62.3	33.9	1.9	-	100.0(207)	
400~499만원	4.8	62.9	31.6	0.7	-	100.0(310)	
500~599만원	4.0	54.0	40.0	2.0	-	100.0(202)	
600만원 이상	1.3	50.2	40.1	8.4	-	100.0(22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또한 보육시설은 긴급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에도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긴급상황시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이 누구냐는 질문에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이며, 아이가 아플 때 돌보아 주는 사람이나 시설이 누구냐는 질문에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에 불과하다(표 V-3-17, 표 V-3-18 참조).

아동 및 부모 특성별 차이는 보육시설 이용률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긴급상황과 아이가 아플 때 모두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이 높고 영아보다는 유아가 높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차이는 조부모 친인척 및 비혈연의 이용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2) 취약보육의 필요성

<표 V-3-19>는 전체 조사대상 중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의 필요성을 종류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의 절반이 넘는 52.8%가 시간제 보육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외 야간보육 필요성 34.9%, 24시간 보육 필요성 11.4%, 휴일보육 필요성 23.4%로 조사되어서, 취약보육 중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필요 정도는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시간제 보육 12.5%, 야간보육 7.1%, 24시간보육 1.5%이다. 최다 빈도는 시간제는 1주일에 1~2번, 야간보육은 한달에 1~2번, 24시간제보육은 1년에 1~2번이다.

<표 V-3-19> 취약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전체	2004년조사 '없음' 비율
시간제보육	12.5	23.6	14.6	2.1	47.2	100.0(3,302)	36.6
야간보육	7.1	9.3	14.4	4.1	65.1	100.0(3,303)	58.7
24시간제보육	1.5	1.1	3.2	5.6	88.6	100.0(3,303)	79.4
휴일보육	-	5.0	11.6	6.8	76.6	100.0(3,303)	75.3

본 조사결과를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04년도에는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시간제 보육 63.4%, 야간보육 41.3%, 24시간 보육 20.6%, 휴일보육 24.7%로, 휴일보육은 본 조사와 2004년도 조사결과가 유사하지만 그 이외는 모두 2009년 본 조사가 낮았다.

다음은 네 가지 종류의 취약보육 필요성의 제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시간제보육에 대한 필요성의 특성별 차이는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유아보다는 영아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특히 상시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영아가 15.0%로 유아 9.7%보다 현저하게 높다. 지역별로는 읍·면보다는 도시에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모의 상태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의 시간제 보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45.6%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57.3%가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시간제 보육 필요성은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V-3-20 참조).

<표 V-3-20>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전체	X ² (df)
전체	12.5	23.6	14.6	2.1	47.2	100.0(3,302)	
아동특성별							
영아	15.0	27.6	14.7	2.1	40.6	100.0(1,744)	77.4(4)**
유아	9.7	19.2	14.4	2.1	54.6	100.0(1,560)	
지역규모별							
대도시	12.6	24.3	13.4	1.3	48.4	100.0(1,317)	23.7(8)**
중소도시	12.7	23.1	13.7	2.9	47.6	100.0(1,436)	
읍·면	11.6	23.4	19.8	1.8	43.4	100.0(551)	
모취업별							
모취업	13.2	19.4	12.0	1.3	54.1	100.0(1,112)	74.2(8)**
미취업	12.5	26.1	16.2	2.5	42.7	100.0(2,115)	
모부재		16.0	9.3	-	74.7	100.0(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음으로 야간보육 필요성을 <표 V-3-21>에서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필요성 약 34.7%에 비해 읍·면부가 28.9%로 대도시의 필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소도시는 그 중간이다. 취업여부별로는 시간제 보육과 달리 야간보육은 미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13.2% 포인트 가량 높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야간보육 필요성은 양극화 현상으로 월 소득 99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그 중간 집단보다 높다.

24시간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낮는데 모부재 가정 자녀의 필요성이 높고, 지역이나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일정한

추세를 찾기 어려웠다(표 V-3-22 참조).

〈표 V-3-21〉 제 특성별 야간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전체	$X^2(df)$
전체	7.1	9.3	14.4	4.1	65.1	100.0(3,303)	
아동특성별							
영아	7.9	9.8	14.7	3.5	64.0	100.0(1,744)	8.3(4)
유아	6.3	8.7	14.0	4.7	66.3	100.0(1,559)	
지역규모별							
대도시	7.5	10.8	13.2	3.2	65.3	100.0(1,318)	29.9(8)**
중소도시	7.7	8.6	16.6	4.6	62.6	100.0(1,436)	
읍·면	4.7	7.4	11.6	5.1	71.1	100.0(551)	
모취업별							
모취업	10.2	12.4	16.9	4.0	56.5	100.0(1,113)	72.3(8)**
미취업	5.3	7.6	13.2	4.1	69.7	100.0(2,114)	
모부재	10.5	9.2	10.5	6.6	63.2	100.0(7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V-3-22〉 제 특성별 24시간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전체	$X^2(df)$
전체	1.5	1.1	3.2	5.6	88.6	100.0(3,303)	
아동특성별							
영아	1.7	1.3	3.8	5.8	87.4	100.0(1,744)	na
유아	1.3	0.8	2.6	5.4	89.9	100.0(1,559)	
지역규모별							
대도시	1.0	0.9	3.2	5.5	89.4	100.0(1,317)	13.1(8)
중소도시	2.3	1.1	3.1	6.1	87.4	100.0(1,437)	
읍·면	0.7	1.3	3.6	4.7	89.6	100.0(549)	
모취업별							
모취업	1.3	1.0	3.3	6.5	88.0	100.0(1,114)	
미취업	1.6	1.1	3.2	5.3	88.8	100.0(2,113)	
모부재	3.9	-	1.3	3.9	90.8	100.0(76)	

주: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휴일보육 역시 영아의 휴일보육 필요성 25.5%, 유아의 필요도 21.0%로 다른 취약 보육과 마찬가지로 영아가 유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읍·면, 중소도시의 순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약간 필요하다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소득 계층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표 V-3-23 참조).

〈표 V-3-23〉 제 특성별 휴일보육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없음	전체	$\chi^2(df)$
전체	-	5.0	11.6	6.8	76.6	100.0(3,303)	
아동특성별							
영아	-	5.7	12.7	7.1	74.5	100.0(1,744)	10.7(3)*
유아	-	4.2	10.3	6.5	79.0	100.0(1,560)	
지역규모별							
대도시	-	4.6	12.4	7.1	75.9	100.0(1,318)	10.8(6)
중소도시	-	5.6	10.0	7.2	77.3	100.0(1,435)	
읍·면	-	4.4	13.7	5.1	76.9	100.0(549)	
모취업별							
모취업	-	5.0	12.8	8.1	74.1	100.0(1,113)	12.4(6)
미취업	-	5.0	10.9	6.4	77.7	100.0(2,115)	
모부재	-	4.0	12.0	-	84.0	100.0(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3) 앞으로 취약보육 서비스 이용 의사

〈표 V-3-24〉는 미취학 아동의 앞으로의 취약보육 향후 이용의사 조사 결과이다. 취약보육의 유형별 이용의사는 필요도와 거의 유사하게 조사되었는데, 시간제 보육 49.3%, 야간보육 32.5%, 24시간 보육 9.9%, 휴일보육 21.1%이다. 이러한 이용의사는 필요성과 비교하면 대체적 경향은 필요성과 유사하지만 비율은 전반적으로 조금 낮음을 알 수 있다.

취약보육 이용의사를 서비스 유형, 연령, 지역, 모취업상태별 차이를 보면, 취약보육의 유형에 상관없이 영아의 이용의사가 유아에 비해 모두 높으며, 특히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용의사는 영아가 유아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간보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간제는 읍·면이 도시보다 높고, 야간보육은 읍·면이 도시보다 높은 차이를 보인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야간 및 휴일보육은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표 V-3-2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시 보육시설 이용 의사

					단위: %(명)
구 분	시간제	야간	24시간	휴일	수
전체	49.3	32.5	9.9	21.1	(3,304)
아동특성별					
영아	56.2	33.7	10.9	23.2	(1,743)
유아	41.6	31.2	8.9	18.7	(1,560)
X ² (df)	71.1(2)**	2.5(2)	10.2(2)**	12.2(2)**	
지역규모별					
대도시	49.3	33.3	9.6	22.1	(1,317)
중소도시	47.7	34.3	10.4	20.4	(1,436)
읍·면	53.5	26.4	9.5	20.4	(551)
X ² (df)	9.1(4)	13.4(4)**	1.7(4)	5.2(4)	
모취업별					
모취업	43.4	41.3	10.9	23.6	(1,113)
미취업	53.2	27.8	9.5	20.0	(2,115)
모부재	26.3	35.5	9.2	14.5	(76)
X ² (df)	47.5(4)**	63.7(4)**	2.4(4)	12.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그림 V-3-1] 취약보육 종류별 필요성, 현재이용, 이용할 의사 비교

[그림 V-3-1]은 네 가지 유형의 취약보육의 현재 이용여부, 필요성, 앞으로 이용할 의사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필요성이나 이용의사 비율에 비하여 현재 이용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취약보육은 의사와 필요성의 상시성의 담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애로가 있다.

라. 특별활동

1) 특별활동 이용

가) 종류 및 개수

<표 V-3-25>는 보육·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나타낸 것이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은 41.5%인 반면, 58.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활동 과목수는 1개는 16.7%, 2개 16.6%, 3개 12.8%, 4개 6.4%의 순이다.

<표 V-3-25> 특별활동 종류 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1개	계	(수)
전체	41.5	16.7	16.6	12.8	6.4	2.8	1.1	0.9	0.7	0.5	-	100.0	(2,048)
연령구분													
영아	56.8	13.7	12.1	10.2	5.1	1.1	0.4	0.2	0.2	-	0.2	100.0	(562)
유아	35.7	17.8	18.2	13.8	7.0	3.5	1.3	1.1	0.9	0.7	-	100.0	(1,486)
지역													
대도시	38.2	16.9	17.9	13.9	6.8	3.8	0.9	0.6	0.8	0.1	0.1	100.0	(783)
중소도시	42.9	16.2	16.8	12.3	6.2	2.5	1.3	0.9	0.6	0.3	-	100.0	(906)
읍·면	44.6	17.5	13.3	11.4	6.6	1.7	0.8	1.4	0.8	1.9	-	100.0	(361)
시설유형													
보육시설	39.4	15.3	16.8	14.4	7.7	3.4	1.0	0.9	0.7	0.3	0.1	100.0	(1,341)
유치원	44.4	20.3	16.9	9.8	3.6	1.5	1.3	0.3	0.8	1.1	-	100.0	(611)
반일제이상 학원	45.3	13.3	12.0	8.0	9.4	4.0	1.3	5.4	1.3	-	-	100.0	(75)
기타	75.0	10.0	10.0	5.0	-	-	-	-	-	-	-	100.0	(20)
2004년조사													
전체	55.7	21.4	13.3	5.9	2.2	0.4	1.0	-	-	-	-	100.0	(1,605)
보육시설	52.9	22.4	16.0	6.7	1.0	0.2	0.7	-	-	-	-	100.0	(82)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2004년 조사 6개는 6개 이상을 포함함.

아동이 이용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종류는 연령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은 종류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55.4% 중소도시 57.1%, 대도시 61.8%의 아동이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3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2004년 5.9%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다.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V-3-25 참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주체별로 이용하는 특별활동 종류를 분석하였다. 먼저,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이용률은 부모협동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가장 높고 가정보육시설에서 가장 낮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이용률이 높으며, 국·공립 유치원의 71.9%는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3-26 참조).

<표 V-3-26>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주체별 특별활동 실시 및 종류 수

단위: %(개소)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1개	계 (수)	2004년조사 '없음'비율
보육시설													
국·공립	35.5	12.1	7.8	21.5	8.9	3.7	0.5	-	-	-	-	100.0 (214)	42.5
사회복지법인	34.2	6.2	8.8	16.2	6.0	3.4	2.6	-	2.6	-	-	100.0 (117)	52.2
기타법인	52.8	9.4	18.9	7.5	7.5	1.9	1.9	-	-	-	-	100.0 (53)	44.9
민간	36.2	7.5	6.6	13.6	8.9	3.7	0.9	1.4	0.6	0.5	0.1	100.0 (801)	55.3
가정	60.9	1.7	2.5	9.4	2.3	0.8	1.6	0.8	-	-	-	100.0 (128)	75.0
직장	48.1	3.7	22.2	14.8	-	7.4	-	-	3.7	-	-	100.0 (27)	60.0
부모협동	-	-	-	-	-	-	-	-	-	-	-	100.0 (4)	-
유치원													
국·공립	71.9	10.3	8.9	1.4	0.7	1.4	0.7	0.7	-	4.1	-	100.0 (146)	78.9
사립	35.6	23.4	19.3	12.4	4.5	1.5	1.5	0.4	1.1	0.2	-	100.0 (466)	51.5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표 V-3-27>은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에서는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이용프로그램, 기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실시하는 특별활동은 영어 38.8%, 체육 23.1%, 미술 21.1% 순이다. 반면, 한자는 2.6%, 외국어 1.1%, 컴퓨터는 0.5%로 실시율이 낮다.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컴퓨터 특별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특별활동 과목의 이용 비율이 증가되었다. 특히 음악과 체육, 교구이용 프로그램은 2004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이용하고 있다. 영어(기타 외국어 포함) 역시 2004년 21.4%가 이용하였으나 2009년 39.9%로 증가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보육시설과 반일제이상 학원은 영어, 체육, 미술 과목을, 유치원은 영어, 미술을 2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음악, 체육, 교구프로그램, 영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표 V-3-27 참조).

〈표 V-3-27〉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종류 실시 비율

단위: %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프로 그램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21.1	15.7	23.1	9.2	8.1	10.4	0.5	16.1	2.6	38.8	1.1	2.7
보육시설	21.1	17.6	25.9	8.5	7.8	10.1	0.1	18.6	2.7	41.8	1.1	3.1
유치원	21.1	11.6	16.8	10.5	7.7	10.5	1.5	11.8	2.1	33.6	1.1	2.1
반일제이상 학원	26.7	17.3	28.0	13.3	17.3	17.3	-	10.7	5.3	33.3	1.3	2.7
기타	5.0	5.0	10.0	-	5.0	-	-	5.0	-	15.0	-	-
2004년 조사												
전체	17.0	7.6	8.3	6.8	4.7	8.0	1.9	8.0	na	21.4		1.4
보육시설	15.0	6.6	8.0	8.3	3.9	5.6	2.1	8.4	na	26.2		1.1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나) 선택 여부

다음은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무조건 이용해야하는지 부모가 가계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컴퓨터와 한자는 80% 이상이 무조건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은 아동이 교육을 받는 영어, 체육, 음악 과목의 경우, 체육 70.1%, 음악 62.2%, 영어 58.7%가 선택의 여지없이 해당기관에 다니는 한 무조건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28 참조).

기관별 차이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비교하면, 과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체육과 한자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외국어가 43.8%로 가장 낮다. 영어도 60.1%가 무조건 수강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치원은 음악, 과학, 수학, 컴퓨터, 한자, 기타 외국어가 보육시설에 비하여 무조건 수강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표 V-3-28 참조).

〈표 V-3-28〉 시설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수)
미술	48.5	51.9	41.9	45.0	-	(433)
음악	62.2	59.7	69.4	76.9	-	(324)
체육	70.1	72.1	62.1	72.7	50.0	(474)
과학	66.4	60.5	76.6	70.0	-	(189)
수학	57.1	56.7	57.4	61.5	-	(165)
한글(국어)	59.8	62.5	51.6	69.2	-	(213)
컴퓨터	86.2	50.0	88.9	-	-	(11)
교구이용프로그램	54.7	56.0	48.6	62.5	100.0	(332)
한자	88.6	83.3	100.0	100.0	-	(52)
영어	58.7	60.1	55.3	52.0	66.7	(795)
기타 외국어	54.5	43.8	85.7	-	-	(24)
기타	64.7	66.7	61.5	50.0	-	(57)

다) 특별활동 시간

특별활동이 주당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운영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V-3-29>와 같다.

〈표 V-3-29〉 기관별 특별활동 평균 이용시간

단위: 분(명)

구분	전체					기관별					F	(수)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보육 시설	유치 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미술	89.9	77.8	60	20	800	81.1	109.6	88.4	40.0	4.2**	(432)	
음악	63.1	52.5	30	10	300	60.2	69.6	71.7	150.0	2.1	(322)	
체육	56.2	39.1	30	10	300	52.2	62.9	88.5	62.3	7.4**	(473)	
과학	50.8	40.4	30	15	300	46.7	58.5	48.6	-	1.2	(188)	
수학	77.9	64.1	40	10	300	74.8	87.0	71.1	40.0	0.5	(165)	
한글(국어)	82.1	70.1	40	10	540	80.0	84.4	93.5	-	0.2	(212)	
컴퓨터	78.9	30.8	100	30	100	40.7	88.4	-	-	1.7	(11)	
교구프로그램	65.4	47.3	40	15	300	61.2	81.9	57.2	30.0	4.0**	(330)	
한자	47.5	26.6	50	10	160	46.2	49.5	53.7	-	0.1	(52)	
영어	80.7	66.8	60	10	998	70.4	102.7	129.9	89.0	17.5**	(793)	
기타 외국어	60.1	63.3	60	10	300	75.4	31.6	40.0	-	0.8	(24)	
기타	54.3	38.1	30	10	200	48.2	75.3	47.3	-	1.8	(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과목별로 평균 이용시간이 80분 이상인 과목은 미술과 한글(국어), 영어이고,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50분 이하인 경우는 한자이다.

구체적으로, 미술 수업은 평균 89.9분이며 한 주에 최소 20분에서 최대 800분까지 한다. 영어는 평균 80.7분으로 한 주에 최소 10분에서 998분, 한글(국어)는 평균 82.1분으로 한 주에 최소 10분에서 540분까지 수업을 한다.

보육·교육기관별로 수업 시간의 차이가 있는 과목은 미술, 체육과 영어 및 교구이용 프로그램이다. 미술과 교구이용 프로그램은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이 길고, 영어와 체육은 반일제이상 학원의 수업시간이 길다.

2) 특별활동 교사

특별활동 수업 담당자는 파견된 외부 강사와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또는 원장)로 구분된다. <표 V-3-30>은 과목별 외부 강사 비율을 나타낸다.

외부강사에 의존하여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과목마다 상이한데 외국어와 영어, 체육은 각각 93.6%, 89.3%, 80.4%로 외부강사 비율이 높고, 컴퓨터 26.5%, 한글 26.6%, 수학 27.1%로 외부강사 비율이 낮다. 즉, 컴퓨터 73.5%, 한글 73.4%, 수학 72.9%가 보육·교육기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미술과 교구이용 프로그램은 외부강사와 보육·교사 모두에 의해 진행되는데, 미술은 외부강사 51.1%, 교사 48.9%이며, 교구이용프로그램도 외부강사 54.7%, 내부 교사 45.3%이다.

<표 V-3-30> 특별활동 외부강사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수)
미술	51.1	49.5	55.4	45.0	-	(433)
음악	68.8	71.5	63.9	53.8	-	(324)
체육	80.4	83.6	78.6	38.1	50.0	(474)
과학	44.3	50.9	35.9	27.3	-	(189)
수학	27.1	28.3	23.4	38.5	-	(165)
한글(국어)	26.6	28.7	23.4	15.4	-	(213)
컴퓨터	26.5	100.0	11.1	-	-	(11)
교구프로그램	54.7	57.8	43.1	50.0	100.0	(332)
한자	34.6	41.7	25.0	-	-	(52)
영어	89.3	90.2	88.8	72.0	100.0	(795)
기타 외국어	93.6	86.7	100.0	100.0	-	(24)
기타	76.3	76.7	76.9	50.0	-	(57)

모든 특별활동 과목에서 외부 강사 비율은 보육·교육기관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보육·교육기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 보육시설은 컴퓨터, 영어, 기타 외국어, 체육, 교구이용 프로그램, 과학 등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외부 강사 비율이 높다. 반면, 유치원은 기타 외국어, 영어, 체육, 음악, 미술이 높고, 반일제이상 학원은 기타 외국어, 영어, 음악, 교구프로그램에서 외부 강사 비율이 높다(표 V-3-30 참조).

3) 특별활동 비용

가) 비용 별도 지불

<표 V-3-31>은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부모가 보육·교육비 이외에 별도 비용 지불여부에 대한 결과이다.

<표 V-3-31>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단위: %(명)
						(수)
미술	75.6	78.8	70.5	60.0	100.0	(433)
음악	73.6	79.4	59.7	38.5	100.0	(324)
체육	71.0	78.1	52.4	45.5	100.0	(474)
과학	72.9	81.7	59.4	60.0	-	(189)
수학	62.7	67.3	55.3	46.2	100.0	(165)
한글(국어)	67.9	72.8	64.1	38.5	-	(213)
컴퓨터	33.0	100.0	12.5	-	-	(11)
교구이용프로그램	72.9	75.7	65.3	50.0	100.0	(332)
한자	37.9	47.2	23.1	-	-	(52)
영어	86.5	88.1	85.4	60.0	100.0	(795)
기타 외국어	71.4	93.3	42.9	-	-	(24)
기타	81.0	81.4	76.9	100.0	-	(57)

보육·교육기관에서는 관례적으로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특별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2009년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료 등 수납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장은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기타 필요경비 속에 특별활동 관련 비용을 명시하여 포함시킨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한자와 컴퓨터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기존 보육·교육비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반면, 다른 과목들은 60%이상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어 86.5%, 미술 75.6%, 음악 73.6%, 교구이용 프로그램과 과학 각각 72.9%가 별도의 교육비를 내고 수업을 해야 한다. 반면, 한자는 62.1%의 보육·교육기관이 무료로 특별활동을 한다(표 V-3-31 참조).

시설유형별로 모든 과목에서 보육시설이 별도 비용 지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시설이 외부 강사를 이용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것이지만, 이보다는 보육시설 보육료가 상한선을 두고 있고, 유치원 교육비는 자율화되어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나) 특별활동 비용

다음 <표 V-3-32>는 특별활동 과목별로 지불하는 월평균 이용 비용에 관한 것이다. 월평균 이용 비용은 영어가 가장 높은 23,000원이며, 최대 23만원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의 월 평균 비용은 19,200원이고 최대 16만원까지 교육비를 내고 있으며, 교구프로그램의 월 평균 비용은 16,600원, 최대 10만원을 내고 있다. 음악은 월 평균 16,000원, 최대 10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있다.

<표 V-3-32>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기관별				F	(수)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최대값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미술	19.2	19.8	20	160	15.8	25.9	23.5	15.0	85**	(433)
음악	16.0	16.4	10	100	15.7	17.7	7.3	40.0	2.6	(324)
체육	13.0	16.0	10	160	12.0	15.4	16.8	20.8	1.8	(474)
과학	11.1	11.5	10	70	10.7	11.6	12.2	-	0.2	(189)
수학	12.6	15.0	20	90	12.7	12.0	13.3	15.0	0.1	(165)
한글(국어)	13.1	13.8	20	115	12.8	14.8	7.3	-	1.7	(213)
컴퓨터	6.2	13.9	8	50	14.3	4.4	-	-	0.9	(12)
교구프로그램	16.6	17.0	10	100	16.0	19.1	15.1	10.0	0.7	(332)
한자	4.8	7.6	10	35	5.4	4.5	-	-	0.8	(52)
영어	23.0	22.6	20	230	18.6	34.0	28.2	40.0	265**	(795)
기타 외국어	11.9	12.2	10	40	16.7	3.9	-	-	4.3*	(24)
기타	15.2	12.6	10	60	13.7	17.9	30.9	-	2.2	(57)

주: 1)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2) 비용 미지불 아동이 포함된 평균비용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비는 과목별로 그 금액이 다양하다. 영어, 미술, 교구이용프로그램, 음악은 월평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한자나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월평균 비용이 적다. 이 중에서 영어와 미술 과목은 기관유형에 따라 월평균 비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영어는 전체적으로 월 평균 23,000원이나 기타 시설에는 월평균 40,000원, 유치원 34,000원을 내는 반면, 보육시설은 월 평균 18,600원을 내고 있다. 미술은 전체적으로 월 평균 19,200원의 비용을 내고 있으나 유치원에서 미술 교육을 받을 때는 월 평균 25,900원을 내고 있고 보육시설에서는 15,800원을 평균적으로 내야 한다(표 V-3-32 참조).

<표 V-3-33>은 특별활동 과목 중 가장 많은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를 받고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어 교육비를 제 특성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V-3-33> 영어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명)점

구분	빈도							평균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3.6	4.1	29.0	24.9	18.3	10.1	100.0	(796)	23.0	22.6	-
연령구분											
영아	17.7	3.4	35.1	20.9	18.2	4.7	100.0	(148)	17.9	14.0	9.4**
유아	12.6	4.3	27.6	25.8	18.4	11.3	100.0	(648)	24.1	24.0	
지역											
대도시	10.7	4.6	23.5	24.1	23.5	13.6	100.0	(324)	27.1	27.3	10.8**
중소도시	16.4	2.6	31.7	25.4	15.0	8.9	100.0	(347)	21.2	19.8	
읍·면	12.1	6.5	37.1	25.8	14.5	4.0	100.0	(124)	17.2	12.9	
기관유형											
보육시설	11.9	4.8	35.2	27.9	16.6	3.6	100.0	(560)	18.6	13.9	26.5**
유치원	14.6	2.9	16.6	16.6	23.4	25.9	100.0	(205)	34.0	33.5	
반일제이상 학원	40.0	-	-	28.0	8.0	24.0	100.0	(25)	28.1	35.0	
기타	-	-	-	33.4	33.3	33.3	100.0	(3)	40.0	40.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영어 과목은 29.0%가 1만원~2만원미만의 교육비, 24.9%가 2만원~3만원미만, 18.3%가 3만원~5만원미만, 13.6%가 무료이며 10.1%는 5만원 이상이며, 4.1%가 1만원 미만의 교육비를 내고 있다.

연령 구분에 따라, 영아 35.1%와 유아 27.6%가 1만원~2만원미만의 교육비를 내고 있으며 영아에 비해서 유아의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2만

원~3만원미만이 24.1%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1만원~2만원미만이 상대적으로 많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 가장 많은 영어 교육비를 내고 있는데, 25.9%가 5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35.2%가 1만원~2만원미만의 교육비를 내고 있다(표 V-3-33 참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지역별 특별활동 월 평균 비용은 다음의 <표 V-3-34>와 같다. 영어의 월평균 비용이 가장 높아 월 18,600원이고, 외국어 16,800원, 교구이용 프로그램 16,000원, 음악 15,700원, 미술 15,800원, 컴퓨터 14,300원, 한글 12,800원, 수학 12,700원, 과학 10,700원 순이고 한자는 가장 낮은 5,400원이다.

<표 V-3-34> 보육시설 특별활동 지역별 평균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이용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전체	15.8	15.7	12.0	10.7	12.7	12.8	14.3	16.0	5.4	18.6	16.7	13.7
대도시	19.2	17.0	13.2	15.0	19.8	15.1	30.0	22.0	5.8	21.8	23.7	17.4
중소도시	14.4	16.0	11.6	9.0	8.7	13.0	8.0	12.4	7.5	16.4	8.6	11.0
읍·면	12.1	11.1	10.0	6.2	9.4	8.7	6.0	13.3	1.8	17.1	7.0	12.5
F	5.9**	2.4	1.4	8.6**	8.3**	2.3	n.a	10.3**	1.6	9.6**	4.2*	1.6
(수)	(283)	(238)	(347)	(114)	(104)	(136)	(3)	(251)	(36)	(561)	(15)	(4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 비용이 높음.

이 중 영어, 교구이용프로그램, 미술, 수학, 과학, 외국어 과목은 지역별로 월 평균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5천원~1만원 가량 비용이 높다. 예를 들어 교구이용 프로그램은 대도시 22,000원 중소도시 12,400원으로 9,6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영어 역시 대도시 월 평균 비용은 21,800원인 반면 읍·면지역은 17,100원, 중소도시는 16,400원으로 약 5,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의 <표 V-3-35>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월 평균 비용에 대한 것이다. 월 평균 비용은 3~5만원 미만이 33.6%로 가장 많고, 5~10만원 미만이 29.4%로 전체 아동의 63%가 3~10만원 사이의 특별활동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2~3만원의 비용을 내는 아동은 13.9%, 무료 프로그램을 하는 아동도 10.8%이며 10만원 이상의 특별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도 3.8%이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총 비용은 아동의 연령과 지역, 보육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먼저, 연령 구분에 따른 특별활동 월 평균 총 비용은 영아 32,800원, 유아 42,400

이며, 특별활동비가 10만원 이상인 아동은 유아 4.4%로 영아 2.4%보다 높다. 지역별로 대도시 47,000원, 중소도시 35,500원, 읍·면 지역 32,900원이다. 10만원 이상도 대도시 5.3%로 읍·면 1.4%보다 높다. 시설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평균은 민간보육시설 44,200원, 직장보육시설 38,100원, 기타법인 36,900원, 국공립 31,400원, 가정 30,700원,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30,200원이다. 무료 이용은 가정보육시설 22.4%, 직장보육시설 15.4%이고 그 이외 시설은 약 10% 정도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직장 보육시설은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내는 아동이 없으나 가정보육시설은 6.1%이고 민간시설은 4.9%이다.

〈표 V-3-35〉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빈도								평균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8	1.1	7.4	13.9	33.6	29.4	3.8	100.0	(813)	39.6	28.40	
연령구분												
영아	19.6	1.7	10.4	13.8	27.5	24.6	2.4	100.0	(240)	32.8	27.25	19.9**
유아	7.2	0.9	6.1	14.0	36.1	31.3	4.4	100.0	(573)	42.4	28.42	
지역												
대도시	6.5	1.5	5.9	8.0	30.7	42.1	5.3	100.0	(323)	47.0	29.66	19.3**
중소도시	14.0	1.1	7.1	17.1	35.3	21.9	3.5	100.0	(351)	35.5	27.80	
읍·면	12.1	0.7	11.4	20.0	35.7	18.7	1.4	100.0	(140)	32.9	22.81	
시설유형별												
국공립	10.1	1.4	8.6	17.3	45.4	16.5	0.7	100.0	(139)	31.4	18.20	8.1**
사회복지법인	10.4	2.6	9.1	22.1	40.3	15.6	-	100.0	(77)	30.2	17.15	
기타법인	3.8	3.8	15.4	15.4	38.5	19.2	3.8	100.0	(26)	36.9	23.43	
민간	10.2	0.6	6.1	12.4	28.8	37.0	4.9	100.0	(511)	44.2	31.07	
가정	22.4	4.1	12.2	4.2	36.7	14.3	6.1	100.0	(49)	30.7	28.71	
직장	15.4	-	-	23.1	38.4	23.1	-	100.0	(13)	38.1	30.3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 비용이 높음.

4) 특별활동 만족도

기관 이용 아동은 상당수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무료 또는 유료로 참여하고 있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체로 3.6~3.9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과목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컴퓨터 3.9점이다. 기관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영어과목에서 유치원이 3.7점, 보육시설이 3.6점, 반일제이상

학원 3.3점, 기타 2.4점으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표 V-3-36 참조).

〈표 V-3-36〉 특별활동 만족도(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F	(수)
미술	3.8	3.7	3.9	4.0	3.7	0.9	(433)
음악	3.7	3.7	3.8	3.0	3.8	1.1	(324)
체육	3.7	3.8	3.7	3.3	3.7	0.4	(474)
과학	3.7	3.7	3.7	-	3.7	0.1	(189)
수학	3.7	3.7	3.6	4.0	3.7	0.1	(165)
한글(국어)	3.8	3.7	3.8	-	3.8	0.5	(213)
컴퓨터	3.7	3.9	-	-	3.9	0.8	(11)
교구이용프로그램	3.7	3.8	3.5	3.0	3.7	1.3	(332)
한자	3.7	3.7	3.3	-	3.7	0.4	(52)
영어	3.6	3.7	3.3	2.4	3.6	3.7	(795)
기타 외국어	3.6	3.9	4.0	-	3.7	0.4	(24)
기타	3.9	3.8	3.6	-	3.9	0.6	(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5)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의견

가) 비용 추가 수납에 대한 의견

본 조사에서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52.9%는 찬성, 43.7% 반대, 3.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유치원 부모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다(표 V-3-37 참조).

다음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의견은 <표 V-3-38>과 같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할 수 없으나, 기타법인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찬성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표 V-3-37〉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계	(수)	$\chi^2(df)$
전체	52.9	43.7	3.4	100.0	(1,998)	18.4(6)**
보육시설	52.0	44.1	3.9	100.0	(1,343)	
유치원	56.3	41.4	2.3	100.0	(11)	
반일제이상 학원	25.7	71.4	2.9	100.0	(35)	
기타	44.4	44.4	11.2	100.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V-3-38〉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찬성	51.9	57.3	67.9	52.4	42.1	38.5	25.0	52.0
반대	43.5	36.8	30.2	44.1	53.2	57.7	75.0	44.1
잘 모름	4.6	6.0	1.9	3.5	4.7	3.8	-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7)	(53)	(801)	(126)	(26)	(4)	(1,343)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영아와 유아 부모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영아 부모는 47.1%가 찬성하는 반면 유아 부모는 55.4%가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서는 찬성이 62.1%이지만, 대도시는 53.4%, 중소도시는 46.7%가 찬성하여 읍·면보다 낮다. 읍·면 지역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학원 등 교육기관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의 찬성 비율이 더 높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 비율이 높다. 그러나 낮은 소득 집단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태도의 비율이 높다(표 V-3-39 참조).

유치원 아동 부모의 의견은 유치원 운영주체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국공립 유치원 취원 아동 부모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부모보다 찬성 의견이 높다(표 V-3-40 참조).

〈표 V-3-39〉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제 특성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계	(수)	$\chi^2(df)$
전체	52.0	44.1	3.9	100.0	(1,342)	-
연령구분						
영아	47.1	47.3	5.6	100.0	(552)	13.2(2)**
유아	55.4	41.8	2.8	100.0	(790)	
지역						
대도시	53.4	42.8	3.8	100.0	(697)	17.8(4)**
중소도시	46.7	48.7	4.6	100.0	(591)	
읍·면	62.1	35.5	2.4	100.0	(53)	
모취업						
취업	54.7	42.5	2.8	100.0	(576)	13.2(4)*
미취업	51.3	43.9	4.8	100.0	(716)	
부재	32.0	64.0	4.0	100.0	(5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1.2	49.4	9.4	100.0	(85)	36.4(18)**
100~149만원 이하	49.1	44.4	6.5	100.0	(169)	
150~199만원 이하	49.6	46.4	4.0	100.0	(252)	
200~249만원 이하	52.3	45.2	2.5	100.0	(197)	
250~299만원 이하	46.0	49.1	4.9	100.0	(161)	
300~349만원 이하	49.4	46.8	3.8	100.0	(154)	
350~399만원 이하	64.9	35.1	-	100.0	(117)	
400~499만원 이하	64.3	34.8	0.9	100.0	(188)	
500~599만원 이하	52.9	44.3	2.8	100.0	(125)	
600만원 이상	65.2	31.8	3.0	100.0	(13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V-3-40〉 유치원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반

단위: %(명)

구분	공립	사립	전체	$\chi^2(df)$
찬성	64.9	53.4	56.3	7,6(2)*
반대	31.8	44.4	41.4	
잘모름	3.3	2.2	2.3	
계(수)	100(148)	100(464)	100.0(61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나) 찬성이유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부모들의 찬성 이유는 다음의 <표 V-3-41>과 같다. 부모의 41.9%는 아동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39.8%는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18.2%가 일반학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는 아동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유치원 취원 아동 부모는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선호한 비율이 높다.

<표 V-3-41> 보육·교육기관 유형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찬성 이유

단위: %(명)

구분	아동 발달도움	저렴한 이용	이동하지 않고 교육	기타	계	(수)
전체	41.9	18.2	39.8	0.1	100.0	(1,056)
보육시설	44.1	17.7	38.1	0.1	100.0	(699)
유치원	37.8	19.8	42.4	-	100.0	(344)
반일제이상 학원	33.3	-	66.7	-	100.0	(9)
기타	25.0	25.0	50.0	-	100.0	(4)

<표 V-3-42>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이유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아동발달에 도움	45.0	46.3	44.4	43.2	44.2	50.0	100.0	44.1
저렴한 이용료	18.9	19.4	19.4	18.1	11.5	-	-	17.7
이동하지 않고 교육받아서	36.1	32.8	36.2	38.7	44.3	50.0	-	38.1
기타	-	1.5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	(67)	(36)	(419)	(52)	(10)	(1)	(699)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보육시설 유형별로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V-3-42>와 같다. 아동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가운데, 보육시설 유형별 견해 차이는 크지 않다. 단, 가정보육시설 부모들만이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비용보다도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보육기관에서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들이 적절하게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다음의 <표 V-3-43>과 같다.

<표 V-3-43> 제 특성별 보육시설 특별활동 적정 비용

단위: %(명)

구분	1만원 미만	1만원~2만원 미만	2만원~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미만	5만원~7만원 미만	7만원~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	수	X ² (df)
전체	1.9	11.6	22.0	32.1	22.3	2.7	7.4	100.0	(700)	
국공립	0.9	9.0	18.1	47.7	16.2	3.6	4.5	100.0	(111)	
사회복지법인	5.9	13.2	17.6	44.1	16.2	1.5	1.5	100.0	(68)	
기타법인	-	30.6	36.1	11.0	16.7	-	5.6	100.0	(36)	
민간	1.7	10.0	22.0	29.9	24.9	3.1	8.5	100.0	(422)	69.6(36)**
가정	1.9	11.5	28.8	19.2	23.2	1.9	13.5	100.0	(52)	
직장	-	30.0	10.0	10.0	40.0	-	10.0	100.0	(10)	
부모협동	-	-	-	100.0	-	-	-	100.0	(1)	
지역										
대도시	0.4	10.7	23.3	29.8	26.3	3.0	6.5	100.0	(262)	
중소도시	2.5	12.8	20.6	28.4	24.4	2.4	8.9	100.0	(282)	25.7(12)*
읍·면	3.3	10.5	22.9	43.1	11.7	2.0	6.5	100.0	(153)	
모취업										
취업	2.9	14.3	19.1	29.9	22.3	1.9	9.6	100.0	(314)	
미취업	0.8	9.6	23.2	34.7	22.7	3.3	5.7	100.0	(366)	27.0(12)**
모부재	-	-	60.0	20.0	13.3	-	6.7	100.0	(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	17.1	22.9	34.3	25.7	-	-	100.0	(35)	
100~149만원 이하	2.4	13.1	31.0	33.3	16.7	1.2	2.4	100.0	(84)	
150~199만원 이하	5.6	12.8	22.4	29.6	25.6	2.4	1.6	100.0	(125)	
200~249만원 이하	1.0	5.8	19.2	41.3	22.2	3.8	6.7	100.0	(104)	
250~299만원 이하	1.4	6.8	23.0	37.8	18.8	-	12.2	100.0	(74)	107.6(54)**
300~349만원 이하	2.6	21.1	19.7	21.1	15.8	10.5	9.2	100.0	(76)	
350~399만원 이하	-	14.0	20.0	28.0	28.0	-	10.0	100.0	(50)	
400~499만원 이하	-	9.6	21.9	28.8	30.1	1.4	8.2	100.0	(73)	
500~599만원 이하	-	2.8	16.7	47.2	11.0	5.6	16.7	100.0	(36)	
600만원 이상	-	7.0	18.6	20.9	30.3	2.3	20.9	100.0	(4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를 의미하고, **는 p<.01을 의미함.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전체적으로 적정 비용은 3만원~5만원 미만인 32.1%, 5만원~7만원 미만 22.3%, 2만원~3만원 미만 22.0%로 2만원~7만원 미만이 76.4%이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정 비용은 시설 유형, 지역, 모취업,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시설유형별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부모는 3만원~5만원 미만이 각각 47.7%, 44.1%이고 민간보육시설 부모는 3만원~5만원 미만이 29.9%, 5만원~7만원 미만 24.9%, 2만원~3만원 미만 22.0%로 선호하는 적정 비용의 분포가 넓다. 가정보육시설은 2만원~3만원 미만이 28.8%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상도 13.5%가 되었다.

지역별로도 2만원~7만원 미만 사이에 70%가 넘게 몰려있으나, 중소도시에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읍·면 지역 부모는 43.1%가 3만원~5만원 미만을 선호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취업모와 미취업모는 10만원 이상 이용 부담에 대해 각각 9.6%, 5.7%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수준별로 10만원 이상 높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태도 차이가 있는데,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은 1~2%, 250만원~499만원 계층은 10% 내외, 6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은 20%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장 많은 부모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비는 3만원~5만원 미만이었다(표 V-3-43 참조).

한편, <표 V-3-44>는 유치원 취원 아동 부모의 특별활동 찬성 이유이다. 이 표를 보면 자녀들이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아동발달에 동무이 된다는 점인데,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즉, 국공립 유치원 부모는 아동발달에 도움되어서를 더욱 선호하였고 사립 유치원 부모는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선호하였다.

<표 V-3-44> 유치원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이유

구분	단위: %(명)		
	공립	사립	전체
아동발달에 도움	42.2	36.1	37.8
저렴한 이용료	18.9	20.1	19.8
이동하지 않고 교육받아서	38.9	43.8	42.4
기타	-	-	-
계(수)	100(95)	100(249)	100.0(344)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다) 반대이유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64.9%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고 17.3%가 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리고 16.9%가 아이에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대한다는 전체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표 V-3-45 참조).

〈표 V-3-45〉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추가비용 반대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에게 부담	경제적 부담	교육 수준 낮음	기타	계	(수)
전체	16.9	64.9	17.3	0.9	100.0	(869)
보육시설	17.1	64.9	17.0	1.0	100.0	(599)
유치원	17.6	63.2	18.8	0.4	100.0	(250)
반일제이상 학원	4.0	84.0	12.0	-	100.0	(25)
기타	20.0	60.0	-	20.0	100.0	(5)

보육시설 유형별로 보면 보육시설 아동 부모의 일반적인 반대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 직장보육시설 아동 부모는 46.7%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부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질은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부모협동 보육시설 부모는 아동에게 부담을 주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표 V-3-46 참조).

〈표 V-3-46〉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반대이유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아동에게 부담주어서	22.6	9.5	31.3	14.2	20.9	26.7	66.7	17.1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61.3	57.1	56.3	67.6	70.1	46.7	-	64.9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16.1	31.0	12.4	17.3	7.5	26.6	-	17.0
기타	-	2.4	-	0.9	1.5	-	33.3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93)	(42)	(16)	(352)	(67)	(15)	(3)	(599)

유치원 원아 부모 역시 유치원 유형과 무관하게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반대이유로 들었으나 국공립 유치원 부모는 사립 유치원 부모에 비해 아동의 부담과 낮은 교육 수준을 더 많이 지적하였다(표 V-3-47 참조).

〈표 V-3-47〉 유치원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반대이유

단위: %(명)			
구분	공립	사립	전체
아동에게 부담주어서	23.9	15.7	17.6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50.0	66.7	63.2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26.1	17.2	18.8
기타	-	0.5	0.4
계(수)	100.0(46)	100.0(204)	100.0(250)

마. 건강검진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 경험 및 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49.6%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고 50.4%는 받은 적이 없다. 보육시설은 52.5%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유치원은 45.2%이며 기타 기관에서는 33.3%, 반일제이상 학원은 24.3%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표 V-3-48 참조).

〈표 V-3-48〉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X^2(df)$
전체	49.6	50.4	100.0	(1,998)	
보육시설	52.5	47.5	100.0	(1,341)	19.7(3)**
유치원	45.2	54.8	100.0	(611)	
반일제이상 학원	24.3	75.7	100.0	(37)	
기타	33.3	66.7	100.0	(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보육시설에서도 시설유형별로 건강검진율은 차이가 있다. 직장보육시설 아동이 61.5%로 가장 높고, 가정보육시설은 29.9%, 부모협동보육시설은 25.0%만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보육시설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제도화 및 비용지원 때문이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48.6%로 공립유치원 34.7% 보다 건강검진율이 높았다(표 V-3-49 참조).

〈표 V-3-49〉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공립	사립
있다	58.9	53.0	60.4	53.6	29.9	61.5	25.0	34.7	48.6
없다	41.1	47.0	39.6	46.4	70.1	38.5	75.0	65.3	5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7)	(53)	(801)	(127)	(26)	(4)	(147)	(463)
$X^2(df)$	33.2(6)**							8.7(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V-3-50〉 제특성별 건강검진 비용

단위: %(명)

구분	무료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1만5 천원 미만	2만원 미만	2만5천 원미만	2만5천 원이상	계	수	$X^2(df)$
전체	31.1	0.3	4.1	11.8	1.6	1.3	49.8	100.0	(1,953)	
지역										
대도시	27.6	0.4	5.8	13.7	2.2	1.8	48.5	100.0	(730)	26.802(12)**
중소도시	33.8	0.2	3.6	9.7	1.3	0.7	50.7	100.0	(866)	
읍·면	31.4	0.3	2.2	12.9	1.1	1.7	50.4	100.0	(357)	
기관유형										
보육시설	30.0	0.4	4.9	13.8	1.8	1.3	47.8	100.0	(1,341)	29.806(6)**
유치원	33.7	0.2	2.3	7.2	1.1	1.1	54.4	100.0	(61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검진비용으로 부모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V-3-50>과 같다. 전체적으로 49.8%가 25,000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였고 31.1%가 무료로 검진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검진비용은 지역 및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소도시와 읍·면이 대도시보다 무료검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25,000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 비율 또한 높아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건강검진 비용은 개별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징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유형별로는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이 무료 검진율과 25,000원 이상 비용 징수율이 모두 높다.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가. 보육료·교육비 면제 및 감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고, 미술학원 등 일부 반일제이상 학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표 V-4-1>은 기관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아동의 29.9%가 전액을 면제 받고 있고 31.4%가 일부를 감면 받으며 38.7%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교육기관 취원 아동 중 영아 35.6% 유아 27.7%가 보육료·교육비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42.8% 대도시 35.6% 중소도시 28.0%가 전액 면제받고 있다.

<표 V-4-1>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실태

구분				계	(수)	X ² (df)
	전액면제	일부감면	혜택없음			
전체	29.9	31.4	38.7	100.0	(2,051)	
연령구분						
영아	35.6	31.6	32.8	100.0	(564)	15.5(2)**
유아	27.7	31.4	40.9	100.0	(1,487)	
지역						
대도시	35.6	31.6	32.8	100.0	(783)	50.2(4)**
중소도시	28.0	32.5	39.5	100.0	(905)	
읍·면	42.8	32.3	24.9	100.0	(362)	
시설유형						
보육시설	35.0	36.0	29.0	100.0	(1,343)	207.8(6)**
유치원	22.7	25.5	51.8	100.0	(612)	
반일제이상 학원	4.0	6.7	89.3	100.0	(75)	
기타	4.8	-	95.2	100.0	(2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이용하는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보육시설 이용자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다. 보육시설은 35.0%가 전액을 면제 받고 36.0%가 일부 감면 대상이며 29.0%가 미지원으로 조사되었고, 유치원은 각각 22.7%, 25.5%, 51.8%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기관은 지원 비율이 10% 내외이다(표 V-4-1 참조).

지원을 받는 경우에 지원 조건을 조사하였다. 조사시 제시된 지원 조건 중에서 셋

째아 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이다. 조사에서 지원 조건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가장 많은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기타 저소득층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만5세 무상과 차상위계층이다. 이용하는 기관별 차이를 보면 보육시설은 기타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유치원은 만5세 무상교육과 기타저소득층의 비율이 유사하다(표 V-4-2 참조).

〈표 V-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이유

단위: %(명)

구 분	연령		시설유형				전체
	영아	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	4.6	5.1	2.4	-	-	4.5
모부자가정	0.4	2.7	2.0	2.0	-	-	2.0
차상위 저소득층	23.7	15.2	19.1	12.9	37.5	-	17.7
기타 저소득층	43.0	39.8	42.3	36.3	25.0	-	40.8
만5세아	-	25.6	12.8	34.2	25.0	100.0	18.0
세 번째 자녀	4.2	2.4	2.9	2.7	12.5	-	2.9
두 자녀 이용	17.9	4.3	10.0	3.7	-	-	8.4
장애아동	1.1	1.5	1.8	-	-	-	1.4
농어민자녀	3.4	2.8	2.4	5.1	-	-	3.0
기타(직장 등)	1.8	1.1	1.6	0.7	-	-	1.3
계(수)	100.0 (379)	100.0 (879)	100.0 (954)	100.0 (295)	100.0 (8)	100.0 (1)	100.0 (1,258)

기관이용 아동의 61.3%가 보육료 및 교육비를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액은 월평균 173,800원으로 조사되었다. 감면액은 작게는 월 8,000원에서 많게는 505,000원까지 편차가 있지만, 평균은 월 173,800원이다(표 V-4-3 참조). 2009년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만5세아 취원율이 93.3%에 이르고 있고 만5세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과 소득하위 50%이하 만4세아 사립 유치원 차등교육비 지원액이 월 172,000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료 및 교육비가 연령별로 책정되고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액은 유아보다는 영아가 월 평균 감면액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감면액이 많아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V-4-3>에서 보듯이 영아의 월평균 감면액이 239,400원인 반면 유아는 월평균 145,500원이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영아의 비율이 높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감면액

이 상대적으로 많다.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보육시설 이용자의 월평균 감면액은 187,600원이며, 유치원 이용자는 월평균 129,200원이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월평균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감면액이 높은 영아가 다수 취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4-3〉 보육료·교육비 감면아동의 감면액수

단위: 천원(명)

구분	감면액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F
전체	173.8	79.0	8	505	(1,267)	
연령						
영아	239.4	84.4	57	505	(378)	531.1**
유아	145.5	56.6	8	383	(879)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195.3	65.5	57	337	(99)	10.4**
100~149만원	197.5	74.5	34	383	(191)	
150~199만원	192.2	77.2	48	383	(274)	
200~249만원	171.2	84.5	25	505	(223)	
250~299만원	157.0	75.7	50	383	(161)	
300~349만원	156.2	81.5	13	383	(142)	
350~399만원	135.8	69.0	12	383	(64)	
400~499만원	142.0	68.9	13	371	(65)	
500~599만원	137.7	69.7	8	278	(19)	
600만원 이상	132.8	55.8	46	300	(17)	
기관유형						
보육시설	187.6	79.9	50	505	(959)	45.9(3)**
유치원	129.2	57.4	8	224	(296)	
반일제학원	155.0	30.5	115	191	(9)	
기타	270.0	-	270	270	(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1) 기관별 이용 비용

가) 순 비용 및 총 비용

본 실태조사에서는 기관이용시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이용 부모에게 지난 1개월 동안 지불한 비용을 조사하였다. 부모 부담 비용은 일정한

월 보육비나 교육비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추가비용으로는 현장 학습비, 특기 교육비, 급간식비, 교재비, 차량이용비, 기타로 나누어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얼마를 수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분기나 반기별로 내는 비용은 월 단위로 환산하도록 하였다.⁴²⁾

〈표 V-4-4〉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단위: %(명)

구 분	총비용					순 보육·교육비용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보육 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타	전체
안녕	7.3	2.7	-	-	5.6	30.6	15.1	-	4.5	24.6
1~5만원	14.1	11.6	-	4.8	12.7	8.8	21.3	-	4.5	12.1
51~10만원	17.0	12.6	-	4.7	15.0	14.3	8.0	-	9.1	11.9
10~15만원	12.9	10.9	1.3	14.3	11.9	10.1	10.2	8.1	22.7	10.1
15~20만원	11.0	8.8	1.3	14.3	10.0	12.1	9.2	17.3	36.4	11.8
20~25만원	9.5	8.2	14.7	28.6	9.4	9.7	22.7	17.3	4.5	13.9
25~30만원	9.9	12.7	10.7	19.0	10.9	8.3	6.7	9.3	13.6	7.9
30~35만원	8.9	11.4	12.0	4.8	9.7	4.5	3.0	8.0	4.7	4.1
35~40만원	6.1	9.8	16.0	9.5	7.6	1.2	1.8	10.7	-	1.7
41만원~	3.3	11.3	44.0	-	7.2	0.4	2.0	29.3	-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44)	(612)	(75)	(21)	(2,052)	(1,343)	(610)	(75)	(22)	(2,050)

〈표 V-4-4〉는 보육료 감면, 면제에 대한 구분이나 아동 연령 구별 없이 이러한 총 보육·교육비 및 순보육·교육비의 기관별로 백분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무 비용도 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6%이다. 순수한 보육료나 교육비를 전혀 안낸다는 비율이 24.6%이므로 19%는 면제 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총 비용 5만원~10만원을 지출하는 아동 비율이 15.0%로 가장 많고 24.5%가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보육 시설과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이용아동은 각각 18.3%, 32.5%, 72.0%의 아동이 지출비용이 월 30만원이 넘는다. 순보육·교육비를 기준으로 보면 안내거나 월 5만원 이하가 36.7%로 조사되었고, 7.7%가 30만원 이상을 부담한다.

〈표 V-4-5〉는 이러한 전체 아동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든 월 평균 총비용을 나타낸다. 실제로 낸 금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197,900원이다. 이는 소득대비 7.7%

42) 보육시설에 따라 항목별로 수납하는 시설도 있고 이를 모두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하는 시설도 있으나, 수납하는 방식대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은 132,400원이고 65,500원은 추가로 내는 비용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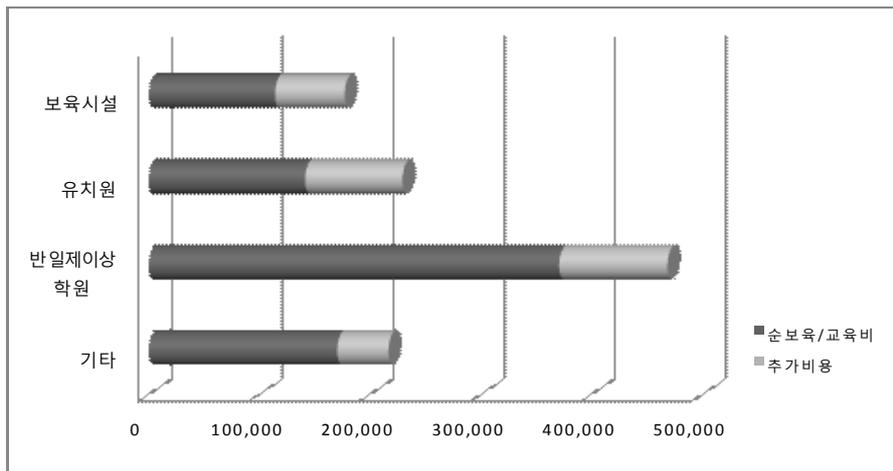
부모 부담 비용은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약간씩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비용은 학원이 468,6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치원 229,300원, 보육시설 168,100원이고 기타는 216,700원이다. 그러나 순보육·교육비는 조금 차이를 나타내어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평균 114,300원, 141,400원이고, 학원이 370,800원이다. 선교원이나 사설기관 등 기타 기관도 170,400원으로 제도권 기관보다 많다. 추가로 받는 비용은 평균 65,500원 수준이지만, 유치원과 학원이 보육시설보다 많다. 소득대비 비율도 보육시설은 7.4%인데 비하여 유치원은 8.0%이고 학원은 12.0% 수준이다(표 V-4-5 참조).

<표 V-4-5>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단위: 천원, %(명)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97.9	132.4	65.5	(2,050)	7.7
보육시설	168.1	114.3	53.8	(1,342)	7.4
유치원	229.3	141.4	87.9	(612)	8.0
반일제이상 학원	468.6	370.8	97.7	(75)	12.0
기타	216.7	170.4	46.3	(20)	8.7
F	118.0**	109.8**	54.9**		15.8**
2004년 조사	171.0	135.0	36.0	(1,607)	8.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그림 V-4-1]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이러한 기관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2004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은 월 평균 3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총 비용 171,000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은 135,000원이고 36,000원은 추가로 내는 비용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소득대비 8.3%로 2009년에 다소 낮아졌다(표 V-45 참조).

부모 부담 비용의 변화는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그 원인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두드러진 변화가 반일제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이다. 먼저 2004년도 조사에서는 전체비용은 학원이 가장 높았으나 193,200원이고 선교원 등이 141,9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선교원은 비용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용의 소득대비 비율은 9.2%로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용자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나타냈다.⁴³⁾ 그러나 2009년조사에서 반일제이상 학원의 비용은 크게 증가하였고 선교원 등 기타 기관도 비용이 보육시설보다 높았다. 둘째로 추가 비용이 2004년도에는 평균 36,000원이었고 가장 많은 유치원도 47,000원 수준이었다(표 V-45 참조).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보육료·교육비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제도권 이외 기관 이용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영아 등 고급화된 특별 프로그램 중심의 반일제 학원 및 기타 기관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표 V-46>은 순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항목별, 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아동 기준으로 현장학습비는 전체 월 평균 5,500원, 특기교육비는 25,300원, 급간식비 13,000원, 교재비 11,600원, 종일반 비용 5,000원, 차량운행비 2,100원, 행사비 1,9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급간식비와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이 가장 높고 그 이외는 모두 반일제이상 학원이 가장 높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비용을 제시하였다. 이 비용이 실제 수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평균적으로 특기교육비 49,700원, 급간식비 32,700원, 교재비 23,100원, 차량이용비 17,500원 정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기교육비의 경우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이 각각 60,900원, 70,100원으로 조사되었고, 급간식비, 교재비 역시 학원이 가장 비용이 높고 다음이 유치원이다.

43) 이러한 1인당 비용은 영아의 비율이 차이가 많고, 특히 보육시설과 선교원에 비하여 유치원과 학원은 주로 유아로 구성된다는 점과 이용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표 V-4-6〉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현장학습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차량운행	행사	기타
전체 아동								
전체	5.5	25.3	11.6	13.0	5.0	2.1	1.9	1.1
보육시설	5.4	24.0	9.5	6.6	4.3	1.6	1.7	0.8
유치원	5.5	28.1	14.6	26.2	7.1	2.8	2.2	1.5
반일제이상학원	8.1	29.5	26.5	19.1	1.5	5.0	4.2	3.8
기타	2.8	12.8	11.5	14.2	1.5	1.0	2.4	-
F	2.4	3.1*	29.8**	194.9**	4.3**	8.3**	5.3**	3.8*
(수)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2,050)
비용지불아동								
전체	13.3	49.7	23.1	32.7	49.5	17.5	8.2	13.7
보육시설	12.9	44.4	19.9	27.3	46.3	15.3	7.1	10.0
유치원	13.3	60.9	26.8	35.8	55.6	19.4	10.0	17.1
반일제이상학원	23.7	70.1	38.3	42.8	30.2	33.1	13.0	71.4
기타	6.8	49.7	19.6	35.1	40.0	8.9	8.2	-
F	9.1**	19.2**	20.8**	23.5**	1.3	10.2**	5.3**	13.6**
(수)	(844)	(1,044)	(1,034)	(815)	(206)	(246)	(482)	(16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나) 아동 연령별 기관 이용 비용

다음은 아동연령별 보육·교육비 부모 부담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 영아에 비하여 유아의 부모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는 16만 6천원, 유아는 약 21만원 수준이다. 순 보육료는 영아 13만원, 유아 13만 4천원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유아는 추가비용이 7만 6천원이고 영아는 3만 7천원으로 유아가 영아의 2배이다(표 V-4-7 참조).

각 세별로는 <표 V-4-7>과 같이 만5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부담 비용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순수한 보육료와 교육비는 0세아와 만5세아가 10~11만원 수준으로 다소 낮고 그 이외 연령은 별 차이 없이 13~14만원선이다. 추가비용은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만1세아는 15,000원 수준이지만 만4, 5세는 8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기관을 이용하는 1~4세 아동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해진 비용 기준은 유사하지만 추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는 비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4-7〉 아동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연령구분					
영아	166.3	129.2	37.1	(563)	7.1
유아	209.9	133.6	76.3	(1,487)	8.0
<i>t</i>	-5.7**	-0.7	-13.4**		-2.8**
연령구분					
0세	116.5	101.9	14.7	(45)	7.5
1세	159.0	134.0	25.1	(179)	6.8
2세	176.8	130.3	46.4	(339)	7.2
3세	211.7	142.7	69.1	(465)	8.3
4세	225.0	146.4	78.6	(497)	8.8
5세	193.9	113.3	80.6	(524)	6.9
<i>F</i>	10.0**	4.6**	43.4**		6.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V-4-8〉 아동연령별 기관별 월평균 보육·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보육시설							
총비용	116.5	157.3	175.5	180.9	179.2	144.9	168.1
순보육비	101.9	132.6	129.3	120.5	110.3	75.0	114.3
(수)	(45)	(178)	(329)	(317)	(256)	(217)	(1,342)
유치원							
총비용	-	-	181.3	247.1	258.4	201.6	229.3
순교육비	-	-	116.8	164.3	166.2	114.0	141.4
(수)	-	-	(8)	(118)	(207)	(278)	(612)
반일제이상 학원							
총비용	-	480.0	680.0	453.5	403.3	547.9	468.6
순교육·보육비	-	400.0	680.0	329.9	329.6	444.8	370.8
(수)	-	(1)	(1)	(23)	(26)	(24)	(75)
기타							
총비용	-	-	170.0	212.8	236.4	198.3	216.7
순교육·보육비	-	-	170.0	160.2	187.7	157.8	170.4
(수)	-	-	(1)	(7)	(8)	(5)	(20)

다음은 총 보육·교육비의 아동연령별 차이를 기관별로 알아보고자 <표 V-4-8>에 제시하였다. 먼저 보육시설은 순 보육료는 0세아를 제외하고는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총비용은 2~4세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다소 높다. 유치원 교육비는 순교육비 및 총비용 모두 3, 4세가 2세 및 만5세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향이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시레수가 하나에 불과한 1, 2세를 제외하고 총비용은 만5세가 54만 8천원으로 가장 많고, 순교육비도 평균 44만 5천원 수준이다. 기타 기관 이용시에도 소요되는 총 비용은 만4세가 23만 6천원으로 가장 많고 순교육비는 18만 8천원 수준이다(표 V-4-8 참조).

다)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기관 이용 비용

다음 <표 V-4-9>는 부모와 가구 특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표 V-4-9>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교육비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단위: 천원, %(명)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233.0	155.6	77.5	(782)	8.4
중소도시	197.1	132.9	64.2	(906)	8.0
읍·면	123.7	80.8	42.9	(362)	5.7
F	65.0**	42.7**	40.9**		26.1**
모취업별					
취업	221.9	148.7	73.2	(857)	7.1
미취업	185.4	124.6	60.7	(1,125)	8.3
모부재	102.9	54.0	48.9	(68)	6.7
F	27.2**	21.5**	12.7**		11.0**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78.0	36.8	41.2	(114)	12.3
100~149만원	99.4	49.7	49.7	(208)	9.2
150~199만원	123.1	72.6	50.5	(324)	8.2
200~249만원	171.9	107.6	64.3	(298)	8.7
250~299만원	197.9	131.5	66.5	(251)	7.9
300~349만원	212.4	149.4	63.0	(262)	7.1
350~399만원	241.5	164.3	77.1	(121)	6.7
400~499만원	270.7	186.7	83.9	(194)	6.5
500~599만원	338.1	250.1	88.0	(136)	6.5
600만원 이상	365.0	273.8	91.2	(142)	4.9
F	86.0**	83.5**	13.6**		15.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지역별로는 읍·면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취업모는 추가비용도 미취업모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역시 부담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하는 기관이용 비용이 순 비용 및 추가 비용 모두 많다. 보육·교육 비용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을 제외하더라도 200만원대 수입은 17만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350만원인 가구는 평균 24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은 절대액수는 적지만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의 비율이 전체가 7.7%인데 비하여 99만원 이하는 12.3%, 100~149만원은 9.2%, 150~249만원은 8%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아 저소득 가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낸다(표 V-4-9 참조).

2) 보육시설 이용 비용

가) 전체 아동 보육료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을 구별하지 않은 보육시설 이용 비용은 전체 평균 168,100원으로 2004년 조사결과 164,700원과 다르지 않다.

〈표 V-4-10〉 보육시설 유형 및 지원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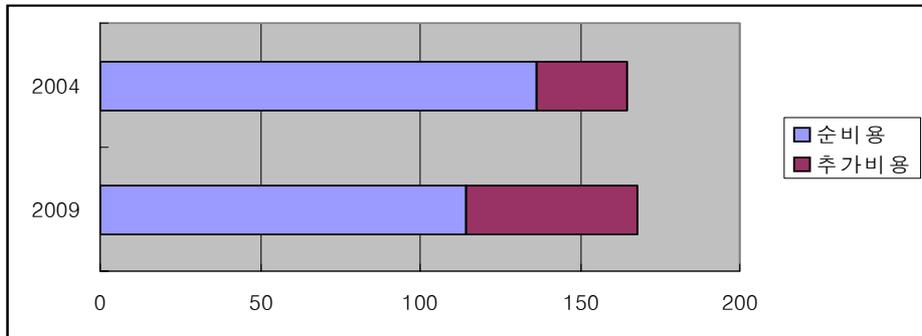
단위: 천원, %(명)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68.1	114.3	53.8	(1,342)	7.4
시설유형					
국·공립	126.6	86.7	39.8	(215)	6.1
사회법인	110.9	69.5	41.5	(117)	5.4
기타법인	143.7	103.2	40.5	(53)	6.6
민간	188.4	124.5	63.9	(801)	8.1
가정	163.0	133.1	29.9	(126)	7.3
직장	229.2	164.3	64.9	(26)	5.4
부모협동	99.5	96.9	2.6	(4)	6.1
F	13.8**	8.4**	18.6**		6.2**
감면여부					
면제	55.0	10.7	44.3	(470)	4.6
감면	165.2	108.5	56.7	(484)	7.8
일반	308.6	246.8	61.8	(389)	9.6
F	1239.1**	1728.6**	16.0**		78.4**
2004년 조사	164.7	136.4	28.3	(818)	8.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이 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평균 7.4%로 2004년 8.3% 수준에 비하여 0.9% 포인트가 낮아졌다.

2009년 보육시설에 내는 비용 중 순수 보육비는 114,300원이고 추가 비용이 53,800원이다. 2004년 조사에서는 순 비용이 136,400원이고 그 이외는 추가 비용 28,300원으로 총비용이 164,700원이었다. 두 조사 모두 총액은 유사하지만 2009년에는 2004년 대비 순비용은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영향으로 볼 수 있다(그림 V-4-2 참조).



[그림 V-4-2]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순비용과 추가비용 비교: 2004, 2009

시설유형별로는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 총 비용과 추가비용 모두 직장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많고, 추가비용은 부모협동 이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이 가장 적다. 보육료 감면여부별로 보면 일반아동 보육료는 평균 308,600원으로 가구소득대비 9.6% 수준이다. 면제 및 감면아동은 보육료 이외 추가비용으로 44,300원, 56,700원을 낸다. 면제 아동도 가구소득대비 4.6%에 해당되는 평균 55,000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4-10 참조).

<표 V-4-11>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액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전체 아동 기준으로 연령별 시설유형별 총비용과 순수 보육료를 제시한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평균값이 달라진다. 사례수가 가장 많은 민간보육시설의 사례를 보면 2~4세가 평균 20만원 내외를 부모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4-11〉 아동 연령 및 시설유형별 전체 아동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116.5	157.3	175.5	180.9	179.2	144.9	168.1
순보육비	101.9	132.6	129.3	120.5	110.3	75.0	114.3
(수)	(45)	(178)	(329)	(317)	(256)	(217)	(1,342)
국·공립							
총비용	106.0	206.3	128.3	136.7	117.0	97.1	126.6
순보육비	106.0	198.1	108.0	86.0	73.4	44.4	86.7
(수)	(3)	(17)	(40)	(58)	(46)	(50)	(215)
사회복지법인							
총비용	289.1	156.5	114.2	104.5	112.5	83.4	110.9
순보육비	278.5	124.6	84.2	66.7	63.0	29.9	69.5
(수)	(3)	(4)	(24)	(33)	(31)	(23)	(117)
기타법인·단체							
총비용	-	13.0	150.4	177.6	157.4	114.9	143.7
순보육비	-	-	128.1	136.5	98.0	67.9	103.2
(수)	-	(4)	(8)	(20)	(10)	(11)	(53)
민간							
총비용	113.3	148.0	192.6	205.5	209.0	173.1	188.4
순보육비	96.8	122.7	137.1	134.5	127.8	91.2	124.5
(수)	(15)	(106)	(200)	(187)	(163)	(130)	(801)
가정							
총비용	98.4	163.1	194.6	158.5	214.3	188.0	163.0
순보육비	82.3	140.3	149.5	132.6	200.1	98.0	133.1
(수)	(24)	(43)	(45)	(11)	(3)	(1)	(126)
직장							
총비용	-	274.1	146.7	270.4	223.9	488.7	229.2
순보육비	-	178.8	107.4	186.8	150.1	441.1	164.3
(수)	-	(5)	(10)	(6)	(4)	(2)	(26)
부모협동							
총비용	-	-	-	500.0	-	12.0	99.5
순보육비	-	-	-	500.0	-	-	96.9
(수)	-	-	(2)	(1)	-	(1)	(4)

나) 보육료 미지원 아동 보육료

다음은 시설유형별 보육료를 미지원아동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표 V-4-12 참조).

〈표 V-4-12〉 보육비용 미지원 아동 연령별, 시설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329.8	329.9	318.4	294.8	292.4	307.4	308.6
순보육비	296.8	302.0	262.6	233.7	207.9	217.0	246.8
(수)	(8)	(55)	(114)	(99)	(65)	(48)	(389)
국·공립							
총비용	-	343.6	277.7	226.6	235.1	265.1	261.7
순보육비	-	330.3	263.0	186.5	184.1	179.4	220.1
(수)	-	(7)	(12)	(16)	(9)	(10)	(55)
사회복지법인							
총비용	371.2	357.9	324.9	231.8	226.5	301.8	282.2
순보육비	357.6	337.0	278.0	204.0	184.0	205.2	240.9
(수)	(2)	(1)	(3)	(7)	(3)	(3)	(19)
기타법인·단체							
총비용	-	-	277.7	235.6	245.0	237.1	246.8
순보육비	-	-	245.0	208.6	171.7	226.1	209.1
(수)	-	-	(3)	(6)	(4)	(3)	(16)
민간							
총비용	402.9	337.9	333.5	321.0	313.2	319.5	326.2
순보육비	343.8	303.7	267.9	249.3	215.8	219.0	252.7
(수)	(3)	(30)	(72)	(61)	(45)	(30)	(242)
가정							
총비용	213.8	329.3	307.5	330.0	230.0	-	307.0
순보육비	193.1	305.9	252.1	261.0	230.0	-	265.8
(수)	(3)	(13)	(19)	(3)	(3)	-	(40)
직장							
총비용	-	207.2	258.6	290.3	356.3	488.7	291.0
순보육비	-	184.6	225.0	204.8	244.9	441.1	233.6
(수)	-	(3)	(5)	(5)	(2)	(2)	(16)
부모협동							
총비용	-	-	-	500.0	-	-	500.0
순보육비	-	-	-	500.0	-	-	500.0
(수)	-	-	-	(1)	-	-	(1)

시설유형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비교해 보면 만3세아를 기준으로 순보육비는 국·공립과 법인 시설이 각각 186,500원, 204,000원 수준이고 법인의 및 단체 보육시설이 208,600원, 민간시설 249,300원, 가정시설 261,000원, 직장보육시설

224,800원으로 조사되었다. 총비용 기준으로는 가정보육시설이 330,000원으로 가장 많다(표 V-4-12 참조). 이 결과는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보호자의 인식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것이 기관이 공시한 보육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보육료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 항목별 추가 비용

<표 V-4-13>은 순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항목별, 기관별로 제시한 것이고, <표 V-4-14>는 전체아동 특성별 추가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V-4-13> 보육시설 유형별 및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현장학습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차량운행	행사	기타
전체 아동								
전체	5.4	24.0	9.5	6.6	4.3	1.6	1.7	0.8
국·공립	5.0	20.2	5.4	4.0	2.0	1.4	1.2	0.7
사회법인	3.3	19.8	9.3	1.9	4.0	1.5	1.2	0.5
기타법인	6.7	17.7	5.6	3.9	1.5	1.9	2.8	0.7
민간	6.2	28.2	11.9	8.3	4.5	2.0	1.9	0.9
가정	2.7	11.9	4.0	6.3	3.0	0.1	0.9	1.1
직장	2.5	18.9	3.2	7.3	28.9	-	2.9	1.2
부모협동	2.6	-	-	-	-	-	-	-
(수)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F	4.4**	8.6**	12.2**	5.9**	9.6**	3.3**	1.9	0.1
비용지불아동								
전체 대비 비율	41.7	47.5	54.0	24.2	9.2	10.7	23.7	8.3
전체	12.9	44.4	19.9	27.3	46.3	15.3	7.1	10.0
국·공립	11.9	34.9	16.9	30.3	44.1	14.4	6.8	9.6
사회법인	12.5	33.8	19.4	11.6	41.5	15.8	6.0	6.1
기타법인	11.3	37.8	11.6	23.8	25.7	15.3	7.6	6.7
민간	13.3	49.2	21.2	27.9	40.3	15.5	7.0	9.4
가정	12.8	39.6	18.0	31.4	56.3	10.0	7.2	27.2
직장	10.9	46.5	11.0	31.6	238.0	-	18.8	20.0
부모협동	12.0	-	-	-	-	-	-	-
(수)	(560)	(638)	(725)	(325)	(123)	(144)	(318)	(111)
F	0.4	9.7**	3.5**	4.9**	43.2**	0.2	1.5	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V-4-14〉 제 특성별 보육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 분	현장학습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차량운행	행사	기타
연령구분								
영아	3.6	14.3	5.7	6.2	4.1	1.2	1.1	0.7
유아	6.6	30.7	12.1	6.9	4.4	1.9	2.1	0.9
<i>t</i>	-5.9**	-10.5**	-8.3**	-1.0	-3	-2.5*	-3.7**	-8
지역규모								
대도시	6.7	30.8	9.3	6.7	3.4	2.5	1.8	0.6
중소도시	4.3	20.6	10.6	7.6	5.9	1.4	1.8	1.1
읍·면	5.2	18.5	7.1	4.2	2.0	0.5	1.2	0.5
<i>F</i>	8.9**	22.2**	5.5**	5.2**	5.1**	12.2**	1.2	2.1
모취업별								
취업	5.3	26.1	8.6	7.3	7.1	1.3	1.8	0.8
미취업	5.2	22.6	10.3	6.3	1.9	2.0	1.7	0.7
모부재	8.8	19.1	8.4	4.6	4.9	0.9	0.4	1.8
<i>F</i>	3.5*	2.9	2.5	1.3	14.1**	3.8*	1.8	1.0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4.7	19.5	6.1	4.3	2.3	1.6	1.2	0.5
100~149만원	5.1	22.2	9.5	3.4	3.4	1.7	1.7	1.0
150~199만원	5.2	18.4	8.7	6.5	2.6	1.8	1.3	1.4
200~249만원	5.0	23.4	8.7	7.3	3.9	1.4	1.3	0.3
250~299만원	5.8	24.6	10.9	5.6	4.3	1.7	2.3	0.3
300~349만원	4.3	22.9	8.8	5.8	3.5	1.7	1.5	0.2
350~399만원	8.2	24.5	9.7	8.4	6.0	1.6	1.5	1.1
400~499만원	7.1	31.2	12.0	9.6	12.3	1.7	1.9	1.1
500~599만원	4.4	32.3	10.2	11.8	4.9	2.0	1.7	1.2
600만원 이상	4.9	36.5	11.6	8.4	1.9	0.9	3.5	2.1
<i>F</i>	1.6	4.1**	1.5	3.3**	3.2**	0.3	1.5	1.7
(수)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1,34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전체아동 기준으로 현장학습비는 전체 월 평균 5,400원, 특기교육비는 24,000원, 급간식비 6,600원, 교재비 9,500원, 종일반 비용 4,300원, 차량운행비 1,600원, 행사비 1,700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수납한다(표 V4-13 참조).

또한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아동 중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아동은 항목별로 다르다. 비용을 내는 아동 비율은 교재비

가 5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특기교육비 47.5%, 현장학습비 41.7%이고, 급간식비 24.2%이고, 종일반비를 낸다는 응답도 9.2%이다.

추가 비용 액수는 보육시설에서의 실제 수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항목별로는 평균적으로 특기교육비 44,400원, 급간식비 27,300원, 종일 및 연장비용 46,300원을 수납하고 있다. 이외 현장학습비는 12,900원, 교재비 19,900원, 차량운행비 15,300원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기교육비는 민간보육시설이 5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다(표 V-4-13 참조).

다음 <표 V-4-14>는 부모부담 보육비용의 부모와 가구 특성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다. 영아와 유아는 대체로 유아의 비용이 높으나 급간식비와 연장 비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특기활동 비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표 V-4-14 참조).

가구소득은 부담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체로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등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유치원 교육비

가) 전체 아동 교육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V-4-15 참조). 먼저 연령을 구별하지 않은 전체적 교육비는 전체 평균 229,300원으로 산출되었고, 이는 가구소득의 8.0%이다. 2004년과 비교하여 55,000원 정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추가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교육비는 설치 운영주체별로 차이가 커서, 국공립유치원은 64,6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2.7%, 사립은 281,7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9.6%를 부담한다. 이 교육비 중 순수 교육비는 국공립 27,700원, 사립 177,600원이고 추가비용이 각각 36,800원, 104,200원이다.

교육비 감면여부별로 보면 일반아동 교육비는 평균 298,000원으로 가구소득대비 8.5% 수준이다. 면제 및 감면아동도 보육료 이외 추가비용으로 67,800원, 94,900원을 낸다. 이로써 면제 아동은 가구소득대비 5.2%에 해당되는 평균 98,200원을 부담하고, 감면아동은 평균 206,3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9.2%를 부담한다.

〈표 V-4-15〉 설립주체 및 지원여부별 유치원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229.3	141.4	87.9	(612)	8.0
운영주체별					
국·공립	64.6	27.7	36.8	(148)	2.7
사립	281.7	177.6	104.2	(464)	9.6
<i>t</i>	-18.0**	-14.8**	-11.0**		-15.4**
지원여부					
면제	98.2	30.4	67.8	(139)	5.2
감면	206.3	111.4	94.9	(156)	9.2
일반	298.0	204.7	93.3	(317)	8.5
<i>F</i>	107.3**	149.4**	7.4**		24.8**
2004년 조사	173.8	126.8	37.0	(485)	7.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음 <표 V-4-16>은 운영주체별, 연령별 교육비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부모 부담은 국공립은 만5세가 72,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은 만4세가 31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만4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부모 부담 차이는 25만원 수준에 이른다(표 V-4-16 참조).

〈표 V-4-16〉 연령 및 설립주체별 전체 아동 유치원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 분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181.3	247.1	258.4	201.6	229.3
순보육비	116.8	164.3	166.2	114.0	141.4
(수)	(8)	(118)	(207)	(278)	(612)
국·공립유치원					
총비용	61.0	32.9	62.1	72.2	64.6
순보육비	19.2	11.6	28.1	31.1	27.7
(수)	(4)	(16)	(45)	(83)	(148)
사립유치원					
총비용	293.6	280.5	313.0	256.3	281.7
순보육비	207.9	188.2	204.6	149.0	177.6
(수)	(4)	(102)	(162)	(195)	(464)

<표 V-4-17>은 부모와 가구 특성별 부모부담 교육비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읍·면에 국공립유치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추가 비용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더 많이 부담한다. 모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모가 추가비용을 미취업모보다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4-17> 제 특성별 유치원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229.3	141.4	87.9	(612)	8.0
지역규모					
대도시	276.2	172.0	104.3	(241)	9.0
중소도시	233.4	144.7	88.7	(264)	8.0
읍·면	114.5	65.1	49.4	(108)	5.4
F	44.9**	30.2**	24.0**		16.5**
모취업별					
취업	250.7	147.7	103.1	(243)	7.3
미취업	221.4	142.1	79.4	(351)	8.6
모부재	92.0	42.8	49.2	(18)	5.5
F	9.7**	6.0**	11.1**		5.7**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71.4	26.2	45.2	(28)	9.9
100~149만원	123.2	64.2	59.0	(37)	11.9
150~199만원	141.5	75.6	65.9	(63)	8.7
200~249만원	210.1	119.5	90.6	(90)	10.2
250~299만원	219.9	129.1	90.7	(80)	8.7
300~349만원	239.9	151.9	88.0	(96)	7.8
350~399만원	244.9	137.4	107.5	(35)	6.7
400~499만원	254.3	160.0	94.3	(71)	6.1
500~599만원	318.6	222.2	96.4	(48)	6.1
600만원 이상	366.3	253.2	113.1	(63)	5.0
F	18.2**	18.5**	4.0**	9.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하는 총 교육비, 순 교육비 및 추가부담 교육비 모두 높아진다. 그러나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감소한다. 저소득층은 절대액수는 적지만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의 비율은 전체 8.0%인데 비하여 99만원 이하는 9.9%, 100~149만원은 11.9% 등으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부담이 평균

보다 높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300~349만원 소득인 가구의 경우를 보면 순 교육비 151,900원에 88,000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239,900원을 부담하는데, 이는 가구소득 대비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표 V-4-17 참조).

나) 교육비 미지원 아동 교육비

다음은 교육비 미지원 아동 교육비로, 이는 실제로 유치원에서 책정한 교육비에 근사치이다. 3~5세 유아의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면 평균 373,000원이며, 4세가 397,60원으로 가장 높다(표 V-4-18 참조).

<표 V-4-18> 연령 및 설립주체별 교육비 미지원 아동 유치원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 분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209.1	340.1	329.6	267.8	303.9
순교육비	138.2	249.6	226.7	183.2	211.6
(수)	(5)	(60)	(115)	(142)	(316)
국·공립유치원					
총비용	88.7	53.7	76.1	89.7	83.9
순교육비	28.0	20.7	36.4	46.2	42.1
(수)	(3)	(4)	(24)	(54)	(80)
사립유치원					
총비용	373.1	354.8	397.6	359.2	373.0
순교육비	278.5	259.3	276.9	250.5	262.8
(수)	(2)	(55)	(89)	(86)	(230)

주: 전체는 3~5세 유아의 평균임.

다) 항목별 추가 비용

다음 <표 V-4-19>는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운영주체별로 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체 아동을 평균으로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특기교육비 35,800원, 급간식비 27,400원, 종일 및 연장비용 8,500원을 수납하고 있다. 이외 현장학습비는 6,200원, 교재비 18,100원, 차량운행비 3,600원 수준이다.

또한 비용을 내는 아동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용을 내는 아동 비율은 급간식비가 73.2%로 가장 높고, 교재비 54.4%, 특기교육비 46.1%, 현장학습비

40.8%이고, 종일반비와 차량비 부담 아동 비율은 12~14% 정도이다.

이러한 비용은 비용을 내는 아동의 실제 수납 기준이다.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면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항목별로는 평균적으로 특기교육비 64,800원 수준, 급간식비 36,500원, 종일 및 연장비용 60,800원을 수납하고 있다. 또한 현장학습비는 14,900원, 교재비 28,300원, 차량운행비 19,300원 수준이다. 국공립유치원도 대체로 사립유치원보다는 낮지만 급간식비는 사립유치원과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표 V-4-19 참조).

〈표 V-4-19〉 유치원 설립주체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 분	현장학습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차량비	행사	기타	(수)
전체 아동									
전체	5.5	28.1	14.6	26.2	7.1	2.8	2.2	1.5	
국·공립	3.0	3.9	3.4	22.4	2.7	0.3	0.6	0.6	(148)
사립	6.2	35.8	18.1	27.4	8.5	3.6	2.7	1.8	(464)
(수)	(612)	(612)	(612)	(612)	(612)	(612)	(612)	(612)	
t	-3.6**	-8.1**	-7.8**	-2.6*	-2.8**	-4.5**	-3.6**	-1.7	
비용지불아동									
전체대비 아동비율	40.8	46.1	54.4	73.2	12.7	14.4	21.7	8.8	
전체	13.3	60.9	26.8	35.8	55.6	19.4	10.0	17.1	
국·공립	8.0	22.1	14.3	33.4	30.1	24.0	6.7	9.9	(139)
사립	14.9	64.8	28.3	36.5	60.8	19.3	10.4	18.4	(462)
(수)	(250)	(282)	(333)	(448)	(78)	(88)	(133)	(54)	
t	-4.4**	-4.6**	-3.6**	-1.8	-3.1**	0.5	-1.3	-1.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다음 <표 V-4-20>은 부모부담 보육비용의 부모와 가구 특성별 평균의 차이를 나타낸다. 영아와 유아를 비교하면 유아의 비용이 높으나 급간식비와 시간연장 비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읍·면보다 도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특기활동과 종일반 비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가구소득은 부담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체로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등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V-4-20〉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 분	현장학습	특기교육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 비용	차량 운행	행사	기타	(수)
지역규모									
대도시	6.6	35.3	18.2	27.6	8.5	4.0	2.8	1.3	(241)
중소도시	5.3	27.2	14.4	28.1	8.0	2.3	1.6	1.8	(264)
읍·면	3.4	14.1	7.0	18.4	1.7	1.4	2.3	1.3	(108)
F	4.3*	9.0**	11.0**	10.0**	4.0*	5.0**	2.3	0.3	
모취업별									
취업	5.8	34.8	16.6	26.3	13.1	3.1	2.3	1.1	(243)
미취업	5.2	24.3	13.7	26.4	3.1	2.6	2.2	1.9	(351)
모부재	5.2	10.0	4.6	20.8	4.3	2.1	2.1	-	(18)
F	0.3	5.7**	3.5*	0.6	15.4**	0.4	0.1	1.0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2.7	11.7	5.6	20.4	3.6	1.0	0.2	-	(28)
100~149만원	2.6	17.2	7.9	22.9	3.8	2.2	1.3	1.2	(37)
150~199만원	4.3	18.1	13.4	23.7	1.2	1.0	3.9	0.4	(63)
200~249만원	5.1	31.2	13.4	27.1	9.2	2.4	2.0	0.4	(90)
250~299만원	5.6	38.2	12.9	25.2	5.4	1.3	1.3	0.9	(80)
300~349만원	5.6	23.7	14.3	27.0	10.3	4.1	1.5	1.6	(96)
350~399만원	6.0	36.0	22.0	26.8	10.6	2.9	2.3	1.0	(35)
400~499만원	6.5	29.3	14.0	26.0	10.5	4.3	2.2	1.5	(71)
500~599만원	6.3	29.5	16.6	29.9	1.9	2.6	2.4	7.3	(48)
600만원 이상	7.5	34.1	22.9	29.2	9.0	4.6	4.2	1.7	(63)
F	1.2	2.0*	2.8**	0.9	1.7	1.8	2.0*	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하고, **는 $p < 0.01$ 을 의미함.

4)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다음은 학원 중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처럼 반일제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을 살펴보았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평균 비용은 468,600원인데 영어학원과 미술학원 등 기타 학원의 차이가 크다. 영어학원은 순교육비 590,100원, 추가비용 116,900원으로 총 비용은 707,100원이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5.1%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비하여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약 2배가 된다. 한편 미술학원 등 일반학원은 순교육비 246,900원, 추가비용 86,900원으로 총 비용은 333,800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금액은 가구소득 대비 비율 10.3%이다(표 V-4-21 참조).

<표 V-4-21> 반일제이상 학원 종류별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468.6	370.8	97.7	(75)	12.0
영어학원(유치원)	707.1	590.1	116.9	(27)	15.1
미술학원 등	333.8	246.9	86.9	(48)	10.3

이러한 학원 이용 비용을 아동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표 V-4-22>와 같다. 사례 수가 적어서 통계라기보다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영아는 1세아도 미술학원에 48만원을 내고 다니는 경우와 만2세아가 영어학원에 68만원을 내고 다니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유아는 이용비용은 연령별로 만4세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V-4-22> 연령 및 반일제이상 학원 종류별 월평균 학원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전체						
총비용	480.0	680.0	453.5	403.3	547.9	468.6
순보육비	400.0	680.0	329.9	329.6	444.8	370.8
(수)	(1)	(1)	(23)	(26)	(24)	(75)
영어학원(유치원)						
총비용	-	680.0	823.6	557.5	783.9	707.1
순보육비	-	680.0	614.4	483.1	667.5	590.1
(수)	(0)	(1)	(6)	(10)	(11)	(27)
미술학원 등						
총비용	480.0	-	336.2	311.8	348.3	333.8
순보육비	100.0	-	239.7	238.5	256.5	246.9
(수)	(1)	(0)	(18)	(17)	(13)	(48)

<표 V-4-23>은 부모와 가구 특성별 부모부담 교육비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비용이 다소 낮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취업모 8.5%, 미취업모 11.2%로 취업모가 오히려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로서의 한계가 있고 소득구간별로 굴곡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가구소득 350~400만원 미만에서는 8.5% 이하로 낮아진다.

〈표 V-4-23〉 제 특성별 월평균 반일제이상 학원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전체비용(A)	순보육·교육비 (B)	추가비용(A-B)	(수)	소득대비 총비용 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337.0	242.2	94.8	(25)	10.0
중소도시	343.2	269.3	74.0	(19)	11.4
읍·면	271.6	174.7	96.8	(4)	7.1
F	0.5	1.7	0.5	1.4	
모취업별					
취업	386.1	271.9	114.2	(16)	8.5
미취업	306.9	234.1	72.8	(32)	11.2
모부재	-	-	-	(0)	-
F	3.8	1.6	4.3*		3.4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234.0	200.0	34.0	(1)	29.0
100~149만원	117.0	104.0	13.0	(1)	10.1
150~199만원	297.8	209.8	88.0	(4)	17.7
200~249만원	323.6	241.6	82.0	(6)	14.9
250~299만원	252.5	170.2	82.3	(4)	10.1
300~349만원	266.4	214.5	51.9	(8)	8.2
350~399만원	404.1	296.1	108.0	(6)	11.2
400~499만원	339.2	266.0	73.2	(6)	8.4
500~599만원	382.6	274.0	108.6	(8)	7.7
600만원 이상	468.8	323.9	144.9	(4)	4.5
F	1.8	1.4	1.0		12.9**

다. 비용 부담

1) 부담에 대한 인식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내는 비용이 가정경제에 비추어 부담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6.0%, 부담 안됨 9.7%으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15.7%이며 적당하다는 20.1%이다. 반면, 매우 부담 17.7%, 부담 46.5%으로 64.2%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부담이 안된다는 비율은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이 가장 낮고,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높다. 200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보육·교육비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육·교육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도 소폭 증가하였다(표 V

4-24 참조)

〈표 V-4-24〉 보육·교육비 부담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안됨	전혀부담 안됨	전체	(수)
전체	17.7	46.5	20.1	9.7	6.0	100.0	(1,910)
보육시설	15.9	46.1	21.8	10.1	6.1	100.0	(1,223)
유치원	20.4	47.0	16.4	9.5	6.7	100.0	(593)
반일제이상학원	22.4	51.3	19.7	6.6	-	100.0	(76)
기타	25.0	35.0	30.0	5.0	5.0	100.0	(20)
2004년	12.7	45.4	31.2	7.6	3.1	100.0	(1,609)

〈표 V-4-25〉는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의 응답을 기관, 지역, 모 취업여부 및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영주체별로는 인건비 지원의 차이로 보육료가 높은 보육시설 이용 부모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부담된다는 비율이 낮다. 소득수준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의 부담이 안 된다는 비율이 20.3%로 매우 높다. 이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현재의 보육·교육비가 적당하다는 경우는 21.8%에 지나지 않았고 62.0%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개별 가정의 보육·교육비용의 부담정도는 거주지역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 읍·면 지역의 경우가 부담스럽다는 가구가 도시 지역보다 작다. 이는 보육·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대비 월평균 보육·교육비 지출비율도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용지원 여부에 따라서는 면제아동의 경우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이 35.9%로 가장 높지만 37.4%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보육료는 전액지원되지만 기타 비용 등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보육료 감면아동은 66.4%가 부담스럽다고 하였고,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26.6%가 매우 부담된다, 53.3% 부담되는 편이다로 모두 79.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4-25 참조).

〈표 V-4-2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 안됨	전혀부담 안됨	전체	(수)	$\chi^2(df)$
전체	15.9	46.1	21.8	10.1	6.1	100.0	(1,223)	-
기관								
국·공립	11.9	37.8	29.1	11.9	9.3	100.0	(193)	na
사회복지법인	12.6	22.3	36.9	13.6	14.6	100.0	(103)	
기타법인	9.8	35.3	29.4	11.8	13.7	100.0	(51)	
민간	17.8	52.7	16.8	9.4	3.3	100.0	(747)	
가정	16.0	51.0	21.0	7.0	5.0	100.0	(100)	
직장	18.5	18.5	33.4	11.1	18.5	100.0	(27)	
부모협동	-	-	100.0	-	-	100.0	(2)	
지역								
대도시	16.5	46.4	21.1	11.7	4.3	100.0	(461)	28.2(8)**
중소도시	16.0	50.1	19.4	9.2	5.3	100.0	(545)	
읍·면	14.9	35.8	29.3	8.8	11.2	100.0	(215)	
취업								
모취업	13.6	45.5	24.2	11.8	4.9	100.0	(536)	22.3(8)**
미취업	17.9	47.7	18.5	8.9	7.0	100.0	(642)	
모 부재	18.6	30.2	39.5	7.0	4.7	100.0	(4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7.6	44.6	17.5	14.9	5.4	100.0	(74)	68.9(36)**
100~149만원	14.0	41.3	19.3	12.7	12.7	100.0	(150)	
150~199만원	13.9	41.7	24.0	11.1	9.3	100.0	(216)	
200~249만원	16.0	50.3	18.3	9.7	5.7	100.0	(175)	
250~299만원	22.1	48.3	18.6	6.9	4.1	100.0	(145)	
300~349만원	23.1	44.1	18.2	11.2	3.5	100.0	(143)	
350~399만원	15.8	51.3	18.4	7.9	6.6	100.0	(76)	
400~499만원	13.0	50.0	30.5	2.8	3.7	100.0	(108)	
500~599만원	8.8	52.9	28.0	8.8	1.5	100.0	(68)	
600만원 이상	9.1	42.4	30.3	18.2	-	100.0	(66)	
비용지원여부								
면제	5.6	31.8	26.7	18.9	17.0	100.0	(359)	231.1(8)**
감면	15.1	51.3	24.0	7.5	2.1	100.0	(478)	
무혜택	26.6	53.3	14.1	5.2	0.8	100.0	(38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유치원 비용에 대한 제 특성별 부담 정도는 <표 V-4-26>과 같다. 유치원 비용에 대해서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부모의 부담 정도가 낮다.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 부모의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읍·면 지역 부모의 부담정

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구소득과 부담 정도는 반비례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계층의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V-4-26〉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 안됨	전혀부담 안됨	전체	(수)	X ² (df)
전체	20.4	47.1	16.4	9.5	6.6	100.0	(592)	-
기관								
국·공립	3.8	15.0	33.0	22.6	25.6	100.0	(133)	214.9(4)**
사립	25.3	56.4	11.5	5.7	1.1	100.0	(459)	
지역								
대도시	27.0	49.0	12.3	7.1	4.6	100.0	(241)	45.0(8)**
중소도시	17.4	51.2	16.7	9.7	5.0	100.0	(258)	
읍·면	12.8	29.8	25.5	14.9	17.0	100.0	(94)	
취업								
모취업	20.5	45.7	15.5	11.5	6.8	100.0	(234)	n.a
미취업	21.4	48.7	16.7	7.9	5.3	100.0	(341)	
모 부재	-	29.4	23.6	17.6	29.4	100.0	(1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6.0	52.0	4.0	4.0	24.0	100.0	(25)	61.1(36)**
100~149만원	12.1	48.5	21.2	12.1	6.1	100.0	(33)	
150~199만원	25.0	41.7	21.6	10.0	1.7	100.0	(60)	
200~249만원	23.0	46.0	23.0	5.7	2.3	100.0	(87)	
250~299만원	28.9	48.7	14.5	6.6	1.3	100.0	(76)	
300~349만원	25.3	40.0	12.6	12.6	9.5	100.0	(95)	
350~399만원	11.1	55.6	19.4	8.3	5.6	100.0	(36)	
400~499만원	21.4	47.1	15.8	8.6	7.1	100.0	(70)	
500~599만원	12.8	63.8	14.8	4.3	4.3	100.0	(47)	
600만원 이상	11.1	42.9	14.3	19.0	12.7	100.0	(63)	
비용지원여부								
면제	12.4	38.0	24.8	12.4	12.4	100.0	(121)	32.0(8)**
감면	19.5	56.5	13.0	9.7	1.3	100.0	(154)	
무혜택	23.9	45.9	14.8	8.2	7.2	100.0	(31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주요한 과제가 된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 보호자에게 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더 낼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체 26.6%는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73.4%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기관별로 추가부담을 하겠다는 비율은 반일제이상 학원이 가장 높고,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시설 이용자의 순서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추가 비용 지불의사 비율이 2.4% 가량 감소되었다(표 V-4-27 참조).

〈표 V-4-27〉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부담 의사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수)	비용 평균	표준편 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6.6	73.4	100.0	(2,050)	109.6	96.6	10	900	(546)
보육시설	27.5	72.5	100.0	(1,343)	97.1	80.3	10	900	(368)
유치원	23.7	76.3	100.0	(612)	129.9	109.9	10	800	(148)
반일제이상학원	37.3	62.7	100.0	(75)	171.1	164.8	30	700	(28)
선교원	15.0	85.0	100.0	(20)	76.2	30.2			(4)
2004년	29.0	71.0	100.0	(1,608)					

가구특성별로는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정은 40% 이상이 추가부담 의사가 있고, 미취업모 보다는 취업모의 추가부담 의사가 더 높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은 12.3%, 100만원~150만원 미만인 가정은 18.3%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가부담 의사를 밝혔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는 10.3%만이 비용을 더 내더라도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받겠다는 의견이다(표 V-4-28 참조).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한 얼마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추가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보육·교육기관 이용아동의 26.6%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월 평균 109,6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아동모의 취업여부와 가구소득 및 자녀가 취원한 보육·교육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표 V-4-27 참조).

취업모는 추가로 월 평균 128,100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미취업모는 월 평균 93,500원까지 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최대한 월 평균 59,400원을 300만원 이상의 가정에서는 월 평균 10만 여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V-4-28 참조).

<표 V-4-28> 제 특성별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부담 의사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26.6	73.4	100.0	(2,050)	109.6	96.6	10	900	(546)
모 취업여부									
취업	29.7	70.3	100.0	(856)	128.1	111.9	10	800	(254)
미취업	25.3	74.7	100.0	(1,126)	93.5	78.4	15	900	(285)
부재	10.3	89.7	100.0	(68)	87.5	281	50	120	(7)
$X^2(df) / F$	14.4(2)**				9.1(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2.3	87.7	100.0	(114)	59.4	35.4	15	100	(14)
100~149만원 이하	18.3	81.7	100.0	(208)	67.1	35.2	20	200	(38)
150~199만원 이하	20.7	79.3	100.0	(324)	79.3	57.7	20	500	(67)
200~249만원 이하	20.1	79.9	100.0	(298)	69.6	35.0	20	200	(60)
250~299만원 이하	21.5	78.5	100.0	(251)	85.4	43.5	10	200	(54)
300~349만원 이하	25.6	74.4	100.0	(262)	99.9	78.7	10	500	(67)
350~399만원 이하	33.9	66.1	100.0	(121)	110.4	82.1	10	500	(41)
400~499만원 이하	39.2	60.8	100.0	(194)	97.3	53.7	10	300	(76)
500~599만원 이하	47.8	52.2	100.0	(136)	178.1	156.8	20	900	(65)
600만원 이상	44.4	55.6	100.0	(142)	191.1	134.5	50	800	(63)
$X^2(df) / F$	108.3(9)**				15.2(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5.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 및 요구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이용 만족도와 개선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술하였다.

가. 이용기관 전반에 대한 만족도

1) 기관유형별 비교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하여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의 13가지 항목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가지 보기를 주어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표 V-5-1>은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여 기관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V-5-1〉 기관유형별 만족한다는 비율 비교

단위: %(명)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수)	$\chi^2(df=12)$
원장	75.3	78.1	70.8	64.0	65.0	(2,043)	34.7**
교사	78.8	79.0	79.3	75.0	73.7	(2,047)	10.7
주변환경	54.9	52.9	60.5	46.1	52.7	(2,048)	15.7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62.0	59.1	70.9	50.0	30.0	(2,050)	74.3**
교재교구 및 장비	61.2	58.6	67.9	57.3	47.4	(2,046)	26.5**
내부분위기	72.4	70.8	76.8	68.0	63.2	(2,046)	15.5
비용	44.9	46.1	42.9	32.0	61.9	(2,049)	27.8**
건강관리	65.5	64.7	68.1	58.6	61.9	(2,048)	19.2
급·간식관리	70.2	70.7	70.7	54.1	75.0	(2,047)	22.9*
안전관리	72.0	71.9	73.2	62.2	76.2	(2,047)	14.5
교육내용	71.1	69.7	73.9	76.0	63.2	(2,047)	8.5
부모참여	48.6	45.6	55.5	49.4	38.1	(2,049)	40.4**
부모교육 및 상담	53.0	52.5	54.4	53.4	45.0	(2,049)	26.2**
전체 평균	63.8	63.1	66.5	57.4	57.9	(2,043)	(2,04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유의도 검증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 차이 유의도임.

〈표 V-5-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3개 항목 중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사 78.8%이며 원장 75.3%, 내부분위기 72.4% 순이다.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비용 44.9%이고 이외 부모참여, 부모상담 역시 만족도가 낮다. 이용하는 기관별로는 전반적으로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가 가장 떨어진다. 13개 항목 만족 비율 평균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60%를 넘고 학원과 기타 기관은 57%수준이다. 항목별로는 특히 원장,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급·간식관리,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육시설의 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유치원의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

〈표 V-5-2〉에서는 만족정도를 5점 척도화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전체 기관 13개 항목 전체 평균은 3.69로 항목별로는 교사 3.96, 원장 3.91, 내부 분위기 3.81, 안전관리 3.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용과 부모참여는 각각 3.32, 3.47로 3.5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유치원 3.72, 보육시설 3.68, 반일제이상 학원(미술 등) 3.60, 반일제이상 영어학원 3.51, 선교원 3.47로 나타났다.

<표 V-5-2> 5점 평균 기관별 이용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	보육 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반일제	(수)	F
					이상 학원(영어)	이상 학원(미술 등)		
원장	3.91(.72)	3.97	3.81	3.72	3.43	3.99	(2,042)	8.8**
교사	3.96(.68)	3.97	3.95	3.84	3.89	3.95	(2,045)	0.4
주변환경	3.53(.80)	3.50	3.61	3.42	3.22	3.46	(2,045)	3.3*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66(.78)	3.61	3.79	2.90	3.62	3.44	(2,045)	10.5**
교재교구 및 장비	3.66(.70)	3.63	3.75	3.31	3.66	3.53	(2,045)	4.4**
내부 분위기	3.81(.65)	3.79	3.76	3.67	3.72	3.72	(2,045)	1.6
비용	3.32(1.01)	3.37	3.27	3.34	2.63	3.14	(2,045)	4.6**
건강관리	3.71(.69)	3.70	3.75	3.57	3.51	3.62	(2,045)	1.4
급간식관리	3.78(.74)	3.80	3.77	3.68	3.67	3.44	(2,045)	2.9*
안전관리	3.80(.68)	3.80	3.81	3.76	3.50	3.63	(2,045)	2.1
교육내용	3.78(.65)	3.77	3.81	3.67	3.92	3.94	(2,045)	1.0
부모참여	3.47(.76)	3.42	3.58	3.09	3.42	3.53	(2,045)	5.8**
부모교육 및 상담	3.53(.76)	3.52	3.57	3.11	3.43	3.52	(2,045)	2.0
전체 평균	3.69	3.68	3.72	3.47	3.51	3.60	(2,042)	-
2004년 조사(환산)	3.58	3.58	3.64	3.63	3.46		(2,04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2004년 실태조사를 5점 척도로 환산해 보면 유치원에 이어 선교원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2004년에 비하여 선교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 차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원장, 주변환경,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 급간식관리, 부모참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선교원과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선교원은 주로 시설, 환경, 부모참여 등에서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은 비용, 주변환경, 원장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2004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기관별 만족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2004년은 4점 척도, 2009년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두 100점으로 환산하여 환산한 점수로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V-5-3>과 같다. 기관 만족도는 2004년 대비 2009년 평균 2.30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을 제외한 12개 항목 모두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으로 4.2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이 3.85점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보육료·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증가한 데 반하여,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 것은 지원

에 대한 기대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기관유형이나 지역, 모취업 등 제 특성에 따라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5-3〉 기관별 이용 만족도 변화(2004, 2009)

단위: %(가구), 점

구분	2004년(수=1,042)		2009년(수=2,042)		100점 환산 변화량
	4점 척도	100점 환산	5점 척도	100점 환산	
원장	3.08(0.48)	77.0	3.91(0.72)	78.2	△ 1.20
교사	3.06(0.52)	76.5	3.96(0.68)	79.2	△ 2.70
주변환경	2.80(0.60)	70.0	3.53(0.80)	70.6	△ 0.6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2.76(0.60)	69.0	3.66(0.78)	73.2	△ 4.20
교재교구 및 장비	2.84(0.56)	71.0	3.66(0.70)	73.2	△ 2.20
내부 분위기	2.94(0.52)	73.5	3.81(0.65)	76.2	△ 2.70
비용	2.69(0.65)	67.3	3.32(1.01)	66.4	▽ 0.85
건강관리	2.88(0.54)	72.0	3.71(0.69)	74.2	△ 2.20
급간식관리	2.91(0.55)	72.8	3.78(0.74)	75.6	△ 2.85
안전관리	2.94(0.49)	73.5	3.80(0.68)	76.0	△ 2.50
교육내용	2.97(0.49)	74.3	3.78(0.65)	75.6	△ 1.35
부모참여	2.70(0.62)	67.5	3.47(0.76)	69.4	△ 1.90
부모교육 및 상담	2.67(0.65)	66.8	3.53(0.76)	70.6	△ 3.85
평균	2.86	71.5	3.69	73.8	△ 2.30

2) 보육시설 만족도

〈표 V-5-4〉는 보육시설 만족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비용, 주변환경, 부모참여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고 불만인 비율이 높다. 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13.4%, 만족 32.8%, 보통 33.9%, 불만 16.9%, 매우 불만족 3.0%로, 불만족 비율이 2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환경이나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부모참여나 부모교육 및 상담은 2004년 실태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의 만족도에서 점수가 낮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보육시설과의 교류 및 참여 등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 데 반해 보육시설의 변화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참여를 활성화하거나 부모교육 및 상담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점 척도 평균으로 볼 때, 13개 항목 모두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원장, 교사 등 인력에 대한 만족이 4점에 가까운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고 급·간식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원장과 교사 등 인력, 안전 및 내부 분위기, 교육내용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2004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 낮아서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일부의 평가와는 다르게 객관적 기준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비용으로 3.37점이다(표 V-5-4 참조).

〈표 V-5-4〉 보육시설 만족도 백분율 분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원장	0.2	2.0	19.7	57.1	21.0	100.0(1,340)	3.97(.71)
교사	0.3	1.9	18.7	58.6	20.5	100.0(1,341)	3.97(.70)
주변환경	0.6	9.7	36.8	45.1	7.8	100.0(1,341)	3.50(.80)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0.7	6.9	33.2	48.6	10.6	100.0(1,341)	3.61(.79)
교재교구 및 장비	0.2	3.5	37.6	50.2	8.5	100.0(1,341)	3.63(.70)
내부 분위기	0.1	2.5	26.7	59.4	11.3	100.0(1,341)	3.80(.67)
비용	3.0	16.9	33.9	32.8	13.4	100.0(1,341)	3.37(1.01)
건강관리	0.2	4.0	31.1	54.3	10.4	100.0(1,341)	3.71(.71)
급간식관리	0.5	4.5	24.3	56.3	14.4	100.0(1,341)	3.80(.76)
안전관리	0.4	2.8	24.9	59.9	12.0	100.0(1,341)	3.80(.69)
교육내용	0.1	2.5	27.8	59.9	9.7	100.0(1,341)	3.77(.65)
부모참여	0.8	9.0	44.6	38.8	6.8	100.0(1,341)	3.42(.78)
부모교육 및 상담	0.7	7.8	39.0	44.0	8.5	100.0(1,341)	3.52(.79)

보육시설 만족도를 조사한 항목 중, 비용 만족도를 보육비 감면여부 및 감면이유 별로 살펴보았다(표 V-5-5 참조). 감면여부별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한 비율은 전액 면제의 경우 60%, 일부 감면 40%, 혜택없음 30% 수준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면이유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조사수급자와 만5세 아 무상보육대상자, 셋째자녀, 장애아동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한 비율은 대부분 10% 미만이었으나, 기타 저소득층은 21% 수준으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저소득층은 일부 감면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으며, 이는 감면여부별 응답경향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아동은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었다. 즉, 비용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5-5〉 보육시설 만족도 백분율 분포(비용)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감면 여부						
전체	3.1	16.9	33.9	32.8	13.4	100.0(1,343)
전액면제	0.9	5.3	28.9	39.8	25.1	100.0(470)
일부 감면	2.7	18.2	38.6	32.9	7.6	100.0(484)
혜택없음	6.2	29.3	33.9	24.2	6.4	100.0(389)
감면 이유						
전체	1.9	11.8	33.8	36.3	16.3	100.0(95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0	2.0	34.7	49.0	14.3	100.0(49)
모·부자가정자녀	0.0	10.5	42.1	47.4	0.0	100.0(19)
차상위 저소득층	1.6	8.2	31.8	34.6	24.7	100.0(182)
기타 저소득층	2.5	18.6	37.2	32.3	9.4	100.0(403)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	1.7	2.5	27.3	52.1	16.5	100.0(121)
세 번째 자녀	3.4	6.9	24.1	31.0	34.5	100.0(29)
두 자녀 이용	2.1	6.2	36.1	30.9	24.7	100.0(97)
장애아동	0.0	0.0	33.3	38.9	27.8	100.0(18)
농어민 자녀	0.0	33.3	29.2	12.5	25.0	100.0(24)
기타(직장 등)	0.0	6.7	26.7	60.0	6.7	100.0(15)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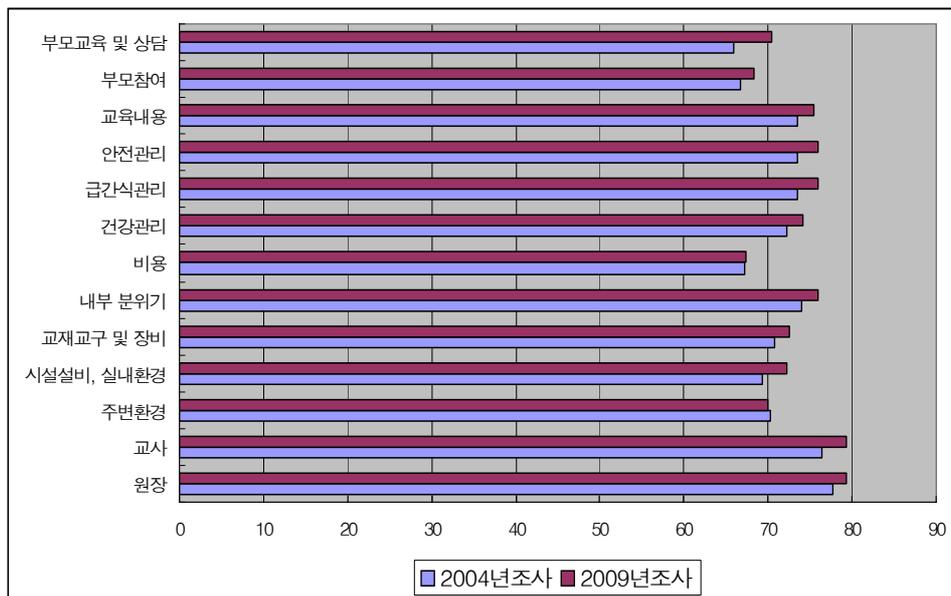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2004년과 비교해 보았다.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004년과 비교하여 평균 1.80점 증가하였다. 13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변환경만 제외하고 12개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전체 기관 만족도에서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의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0.15점이나마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및 상담이 4.40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교사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이 각각 2.90, 2.95 증가하였다(표 V-5-6 참조). 부모교육 및 상담의 경우 2004년에 비하여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불만족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것을 볼 때 부모교육 및 상담에 대한 정부 정책마련과 보육시설의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5-6〉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비교(2004, 2009)

단위: 점

구분	2004년(수=816)		2009년(수=1,341)		100점 환산 변화량
	4점 척도	100점 환산	5점 척도	100점 환산	
원장	3.11(.48)	77.75	3.97(.71)	79.40	△ 1.65
교사	3.06(.54)	76.50	3.97(.70)	79.40	△ 2.90
주변환경	2.81(.60)	70.25	3.50(.80)	70.00	▽ 0.25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2.77(.59)	69.25	3.61(.79)	72.20	△ 2.95
교재교구 및 장비	2.83(.57)	70.75	3.63(.70)	72.60	△ 1.85
내부 분위기	2.96(.52)	74.00	3.80(.67)	76.00	△ 2.00
비용	2.69(.67)	67.25	3.37(1.01)	67.40	△ 0.15
건강관리	2.89(.54)	72.25	3.71(.71)	74.20	△ 1.95
급간식관리	2.94(.56)	73.50	3.80(.76)	76.00	△ 2.50
안전관리	2.94(.50)	73.50	3.80(.69)	76.00	△ 2.50
교육내용	2.94(.50)	73.50	3.77(.65)	75.40	△ 1.90
부모참여	2.67(.61)	66.75	3.42(.78)	68.40	△ 1.65
부모교육 및 상담	2.64(.66)	66.00	3.52(.79)	70.40	△ 4.40
평균	2.87	71.8	3.68	73.6	△ 1.80



[그림 V-5-1]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비교(2004, 2009)

보육시설 만족도의 보육시설 운영 주체별 차이를 보면 전체 만족도 점수 평균은

부모협동보육시설 4.40점, 직장보육시설 3.98점, 기타법인보육시설 3.93점, 가정보육시설 3.81점, 국공립보육시설 3.73점, 사회복지법인시설 3.71점, 민간보육시설 3.61점 순이다(표 V-5-7 참조). 기타법인보육시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에 포함된 기타법인보육시설의 수는 적은 데 반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타법인보육시설들 조사에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의 시설유형별 만족도 순서는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단체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었다. 민간보육시설은 2004년과 2009년 모두 만족도가 낮아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회복지법인시설은 2009년 민간보육시설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항목별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13개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과 교사 등 인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비용과 안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이 낮고, 건강관리와 급간식관리,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은 민간보육시설이 낮게 나타났다(표 V-5-7 참조).

〈표 V-5-7〉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F	(수)
원장	3.90	4.03	4.15	3.93	4.13	4.01	4.59	3.97(.71)	3.1**	(1,340)
교사	4.01	4.07	4.19	3.90	4.09	4.16	4.59	3.97(.70)	4.2**	(1,341)
주변환경	3.42	3.59	3.74	3.46	3.73	3.33	4.37	3.50(.80)	4.7**	(1,341)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58	3.65	3.81	3.57	3.76	3.92	3.59	3.61(.79)	2.4*	(1,341)
교재교구 및 장비	3.66	3.48	3.81	3.61	3.72	3.97	3.59	3.63(.70)	3.1**	(1,341)
내부 분위기	3.81	3.80	4.13	3.73	3.91	4.17	4.59	3.80(.67)	6.7**	(1,341)
비용	3.64	3.55	3.81	3.17	3.69	3.78	4.61	3.37(1.01)	15.0**	(1,341)
건강관리	3.71	3.71	3.97	3.63	3.82	3.93	4.37	3.71(.71)	5.2**	(1,341)
급간식관리	3.92	3.86	4.02	3.69	3.99	4.20	4.57	3.80(.76)	8.1**	(1,341)
안전관리	3.86	3.75	3.99	3.95	3.92	4.20	4.59	3.80(.69)	4.9**	(1,341)
교육내용	3.75	3.81	4.07	3.74	3.72	4.09	4.59	3.77(.66)	4.6**	(1,341)
부모참여	3.55	3.44	3.70	3.34	3.43	3.93	4.59	3.42(.78)	7.1**	(1,341)
부모교육 및 상담	3.61	3.51	3.70	3.45	3.59	3.95	4.59	3.52(.79)	4.6**	(1,341)
전체 평균	3.73	3.71	3.93	3.61	3.81	3.99	4.40	3.68(.50)	-	-
2004년조사(전환)	3.61	3.70	3.66	3.55	3.54	3.69	-	3.59	-	(81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직장보육시설과 기타법인시설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두 유형의 보육 시설은 주변환경이나 시설설비 등 보육시설 설비 관련 부분, 운영 부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교육내용이나 부모 참여 등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원장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실내 환경과 교재교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민간 시설 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표 V-5-7 참조).

다음은 아동의 연령별, 지역별, 모취업여부별로 구분하여 보육시설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아에 비해 영아의 만족도 평균이 높고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만족도 평균이 높다.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와 모부재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5-8 참조).

〈표 V-5-8〉 보육시설 제 특성별 만족도 5점 평균

단위: %(명)

구분	연령별			지역별				모취업여부별			
	영아	유아	t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미취업	부재	F
원장	4.04	3.92	3.03**	3.95	3.94	4.07	3.56*	0.98	3.94	4.12	1.73
교사	4.03	3.93	2.72**	3.93	3.97	4.05	2.56	3.99	3.95	4.04	0.95
주변환경	3.58	3.45	2.97**	3.43	3.55	3.50	2.96	3.49	3.50	3.49	0.04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65	3.59	1.23	3.60	3.60	3.66	0.62	3.67	3.59	3.52	1.73
교재교구 및 장비	3.62	3.64	-0.41	3.60	3.63	3.68	1.09	3.66	3.60	3.75	2.01
내부 분위기	3.82	3.77	1.43	3.78	3.78	3.81	4.05	3.86	3.74	3.79	5.95**
비용	3.43	3.32	1.84	3.40	3.29	3.50	4.32*	3.39	3.34	3.42	0.36
건강관리	3.73	3.69	1.19	3.70	3.66	3.82	4.49*	3.77	3.66	3.62	3.99*
급간식관리	3.85	3.76	2.05*	3.78	3.74	3.96	7.23**	3.84	3.75	3.92	3.26*
안전관리	3.85	3.77	2.19*	3.80	3.79	3.85	0.79	3.84	3.77	3.86	1.86
교육내용	3.77	3.76	0.30	3.77	3.75	3.81	0.63	3.50	3.74	3.82	1.21
부모참여	3.37	3.45	-1.78	3.40	3.40	3.50	1.63	3.45	3.40	3.29	142
부모교육 및 상담	3.52	3.52	-0.07	3.47	3.50	3.65	4.82**	3.55	3.50	3.43	0.84
평균 (수)	3.71 (551)	3.66 (789)	-	3.66 (490)	3.66 (602)	3.76 (249)	-	3.72 (574)	3.65 (716)	3.70 (50)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는 교재교구 및 장비와 부모참여에서만 영아보다 만족도가 높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영아가 높았다. 원장과 교사, 주변환경, 급

간식관리, 안전관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아와 유아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사후검증 결과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하여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항목들이 많다. 원장, 비용,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부모교육 및 상담은 읍·면지역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모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취업자인 경우 내부 분위기와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모부재인 경우 유의성은 없으나 급간식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V-5-8 참조).

3) 유치원 만족도

<표 V-5-9>은 유치원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V-5-9> 유치원 만족도 백분율 분포

구분	단위: %(명)					계(수)	5점 척도 (표준편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원장	0.7	2.3	26.2	57.0	13.8	100.0(609)	3.81(.52)
교사	-	1.3	19.6	62.2	16.9	100.0(612)	3.95(.42)
주변환경	0.6	8.3	30.6	50.2	10.3	100.0(612)	3.61(.65)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0.4	3.5	25.1	59.0	12.0	100.0(612)	3.79(.51)
교재교구 및 장비	0.2	2.9	29.1	57.6	10.2	100.0(612)	3.75(.46)
내부 분위기	0.1	1.3	21.8	66.2	10.6	100.0(612)	3.86(.37)
비용	3.1	21.6	32.3	31.5	11.5	100.0(612)	3.27(1.05)
건강관리	-	2.0	30.1	59.0	8.9	100.0(612)	3.75(.41)
급간식관리	0.1	4.9	24.2	59.8	11.0	100.0(612)	3.77(.51)
안전관리	0.1	2.8	23.9	62.8	10.5	100.0(612)	3.81(.43)
교육내용	-	2.6	23.7	63.5	10.2	100.0(612)	3.81(.41)
부모참여	0.2	4.4	39.9	48.6	6.9	100.0(612)	3.58(.49)
부모교육 및 상담	0.4	3.9	41.3	46.7	7.7	100.0(612)	3.57(.51)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장, 교사와 같은 인력과 내부분위기, 안전관리, 교육내용 등 질적 측면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용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이 3.1%, 불만족이 21.5%이다. 비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도 보육시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비용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19.9%인 것에 반하여 유치원은 24.7%로 불만족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이용 만족도 변화를 2004년과 비교해 보았다. 2004년과 비교하여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1.65점 만족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는 주변환경과 비용을 제외한 11개의 항목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용은 2.35점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비용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전체 기관 만족도에서 비용 만족도가 0.85점 감소한 것은 유치원 비용 만족도가 감소한 것과 크게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은 4.30점 증가하여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내부분위기 3.20점, 교재교구 및 장비 2.75점 순이다(표 V-5-10 참조).

<표 V-5-10> 유치원 이용 만족도 변화(2004, 2009)

단위: 점

구분	2004년(수=486)		2009년(수=612)		100점 환산 변화율
	4점 척도	100점 환산	5점 척도	100점 환산	
원장	3.04 (.48)	76.00	3.81(.52)	76.20	△ 0.20
교사	3.06 (.53)	76.50	3.95(.42)	79.00	△ 2.50
주변환경	2.89 (.56)	72.25	3.61(.65)	72.20	▽ 0.05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2.86 (.59)	71.50	3.79(.51)	75.80	△ 4.30
교재교구 및 장비	2.89 (.56)	72.25	3.75(.46)	75.00	△ 2.75
내부 분위기	2.96 (.50)	74.00	3.86(.37)	77.20	△ 3.20
비용	2.71 (.65)	67.75	3.27(1.05)	65.40	▽ 2.35
건강관리	2.90 (.50)	72.50	3.75(.41)	75.00	△ 2.50
급간식관리	2.93 (.53)	73.25	3.77(.51)	75.40	△ 2.15
안전관리	2.99 (.46)	74.75	3.81(.43)	76.20	△ 1.45
교육내용	3.01 (.48)	75.25	3.81(.41)	76.20	△ 0.95
부모참여	2.83 (.60)	70.75	3.58(.49)	71.60	△ 0.85
부모교육 및 상담	2.77 (.64)	69.25	3.57(.51)	71.40	△ 2.15
평균	2.91	72.75	3.72	74.40	△ 1.65

<표 V-5-11>에서 운영주체별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5점 기준으로 국·공립 3.80점, 사립 3.69점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부모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비용에서 사립유치원에 비하여 월등하게 만족도가 높고, 교사와 급간식관리와 건강 관리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반면 원장에 대

해서는 사립 유치원의 만족도가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시설설비·실내환경과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 분위기와 교육 내용, 부모 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또한 사립유치원의 만족도가 높다. 그런 점에서 국공립 유치원은 안정된 근무 조건을 갖춘 교사와 저렴한 비용이 강점인 반면, 시설 설비나 교육 내용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표 V-5-11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교사와 비용 측면에서 만족도 수준이 높아 지역별 차이를 나타냈다. 읍·면지역에서 비용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읍·면지역에 공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변환경이나 건강관리 및 급·간식관리, 안전 관리 등에서 다소 만족도가 높다. 모취업여부별로는 모부재인 경우 비용과 급간식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V-5-11 참조).

〈표 V-5-11〉 유치원 제 특성별 만족도 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운영주체별			지역별				모취업여부별			
	국공립	사립	t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미취업	부재	F
원장	3.69	3.85	-2.32*	3.78	3.85	3.76	0.88	3.79	3.82	3.86	0.19
교사	4.06	3.91	2.43*	3.87	3.93	4.15	7.19**	3.92	3.96	4.07	0.71
주변환경	3.62	3.61	0.05	3.59	3.59	3.71	1.00	3.59	3.63	3.64	0.16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3.75	3.80	-0.74	3.77	3.80	3.79	0.07	3.73	3.72	3.58	1.28
교재교구 및 장비	3.72	3.75	-0.45	3.74	3.75	3.76	0.03	3.71	3.77	3.75	0.57
내부 분위기	3.84	3.86	-.35	3.81	3.90	3.86	1.39	3.83	3.88	3.86	0.38
비용	4.21	2.97	15.14**	3.10	3.23	3.74	15.59**	3.23	3.26	3.95	4.16*
건강관리	3.97	3.68	4.84**	3.68	3.77	3.86	3.33*	3.65	3.80	4.07	6.61**
급간식관리	3.87	3.73	2.02*	3.73	3.74	3.90	2.33	3.75	3.79	3.44	2.19
안전관리	3.88	3.78	1.52	3.75	3.83	3.88	1.63	3.78	3.82	3.93	0.67
교육내용	3.76	3.83	-1.17	3.79	3.84	3.82	0.40	3.79	3.84	3.56	1.92
부모참여	3.52	3.60	-1.23	3.62	3.54	3.58	0.82	3.59	3.56	3.68	0.25
부모교육 및 상담	3.51	3.59	-1.27	3.56	3.58	3.59	0.06	3.58	3.58	3.39	0.59
전체 평균	3.80	3.69	-	3.68	3.72	3.80	-	3.69	3.73	3.75	-
(수)	(145)	(464)	-	(241)	(264)	(105)	-	(243)	(348)	(18)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4) 선교원 만족도

선교원 이용 부모의 선교원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교사, 내부분위기, 급간식관리, 안전관리 등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부모교육 및 상담, 비용, 부모참여 등은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설비·실내환경은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45.0%로 매우 높아 선교원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표 V-5-12 참조).

〈표 V-5-12〉 선교원 만족도 백분율 분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원장	-	-	36.6	54.8	8.6	100.0(17)	3.72(.40)
교사	-	-	24.9	66.5	8.6	100.0(17)	3.83(.33)
주변환경	-	17.5	31.1	42.8	8.6	100.0(17)	3.42(.81)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	45.0	28.3	18.1	8.6	100.0(17)	2.90(1.02)
교재교구 및 장비	-	17.6	42.3	31.5	8.6	100.0(17)	3.31(.78)
내부 분위기	-	4.9	31.5	55.0	8.6	100.0(17)	3.67(.52)
비용	-	28.0	13.8	54.4	3.8	100.0(17)	3.34(.92)
건강관리	-	9.7	32.2	49.4	8.8	100.0(17)	3.57(.65)
급간식관리	-	8.5	24.1	58.6	8.8	100.0(17)	3.68(.60)
안전관리	-	-	27.9	68.3	3.8	100.0(17)	3.76(.28)
교육내용	-	-	36.4	59.8	3.8	100.0(17)	3.67(.31)
부모참여	-	27.3	40.7	28.2	3.8	100.0(17)	3.09(.75)
부모교육 및 상담	-	31.6	29.2	35.4	3.8	100.0(17)	3.11(.86)

5) 반일제이상 학원 만족도

〈표 V-5-13〉은 반일제이상 영어학원 만족도를 나타낸다.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의 경우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80.2%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급간식관리, 내부분위기도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49.5%로 불만족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영어학원 이용자는 비싼 비용에는 불만족하지만 교육내용이 좋아서 이에 만족하기 때문에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5-13 참조).

영어학원이 아닌 미술 등의 반일제이상 학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원장, 교사, 교육내용, 내부분위기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70%로 높게 나타났다. 반일제 영어

학원과 비교하여, 영어학원의 경우 교사에 대한 만족도에 비하여 원장 만족도는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미술학원 등의 반일제 학원은 교사와 함께 원장에 대한 만족비율이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영어학원과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한 불만족은 높게 나타났다(표 V-5-14 참조).

〈표 V-5-13〉 반일제이상 학원(영어) 만족도 백분율 분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원장	-	2.6	54.5	40.2	2.7	100.0(27)	3.43(.37)
교사	-	2.8	19.4	64.1	13.7	100.0(27)	3.89(.45)
주변환경	2.7	22.4	28.0	44.5	2.6	100.0(27)	3.22(.86)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2.8	2.7	35.7	47.0	11.8	100.0(27)	3.62(.72)
교재교구 및 장비	-	6.4	35.5	43.8	14.3	100.0(27)	3.66(.66)
내부 분위기	-	-	37.1	54.0	8.9	100.0(27)	3.72(.40)
비용	5.5	44.0	32.2	18.3	-	100.0(27)	2.63(.74)
건강관리	-	7.3	36.8	53.3	2.6	100.0(27)	3.51(.46)
급간식관리	-	2.6	30.1	64.7	2.6	100.0(27)	3.67(.34)
안전관리	-	10.2	31.9	55.3	2.6	100.0(27)	3.50(.53)
교육내용	-	-	19.8	68.4	11.8	100.0(27)	3.92(.32)
부모참여	-	6.4	47.5	43.5	2.6	100.0(27)	3.43(.44)
부모교육 및 상담	-	6.4	43.9	49.7	-	100.0(27)	3.43(.39)

〈표 V-5-14〉 반일제이상 학원(미술 등) 만족도 백분율 분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수)	5점 척도 (표준편차)
원장	-	-	24.2	52.7	23.1	100.0(48)	3.99(.48)
교사	-	1.6	23.7	52.7	22.0	100.0(48)	3.95(.53)
주변환경	-	4.5	50.8	38.5	6.2	100.0(48)	3.46(.47)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	6.2	48.1	41.4	4.3	100.0(48)	3.44(.47)
교재교구 및 장비	-	7.9	36.2	51.2	4.7	100.0(48)	3.53(.51)
내부 분위기	-	1.6	27.6	67.6	3.2	100.0(48)	3.72(.30)
비용	4.7	19.2	36.4	36.5	3.2	100.0(48)	3.14(.87)
건강관리	-	-	39.4	59.0	1.6	100.0(48)	3.62(.27)
급간식관리	-	5.2	48.3	43.6	2.9	100.0(48)	3.44(.42)
안전관리	-	3.1	32.3	63.2	1.4	100.0(48)	3.63(.33)
교육내용	-	-	26.3	63.7	10.0	100.0(48)	3.84(.34)
부모참여	-	5.7	44.0	41.9	8.4	100.0(48)	3.53(.54)
부모교육 및 상담	-	5.7	39.6	51.6	3.1	100.0(48)	3.52(.44)

나. 개선 요구 사항

본 조사에서는 기관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13가지 항목을 보기로 주고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V-5-15>는 이러한 조사 결과 중 1순위로 응답한 사항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개선사항은 비용으로 24.9%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주변환경 15.7%, 시설 설비 13.9%이다.

이용하는 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변환경과 시설설비가 각각 17.0%, 14.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비용은 전체보다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났다(표 V-5-15 참조).

<표 V-5-15> 기관별 개선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영어)	반일제이상 학원(미술 등)
원장	2.1	1.7	3.1	-	3.8	-
교사	3.0	3.3	2.6	-	-	2.2
주변환경	15.7	17.0	13.8	5.6	7.7	10.9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13.9	14.4	10.7	44.4	23.1	26.1
교재교구 및 장비	7.7	8.2	7.6	-	-	6.5
내부 분위기	3.0	3.0	3.1	-	-	2.2
비용	24.9	21.5	32.6	16.7	38.5	19.6
건강관리	4.2	4.5	3.6	-	3.8	4.3
급간식관리	6.2	5.5	6.8	5.6	11.7	15.2
안전관리	4.4	4.1	4.9	11.1	3.8	2.2
교육내용	4.2	4.5	3.5	5.5	3.8	2.2
부모참여	7.5	8.8	4.8	11.1	3.8	6.4
부모교육 및 상담	3.2	3.5	2.9	-	-	2.2
계(수)	100.0(2,022)	100.0(1,325)	100.0(607)	100.0(18)	100.0(26)	100.0(46)

유치원의 경우, 비용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원장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시설설비는 10.7%로 다른 보육·교육 기관 보다는 비율이 낮았다. 선교원은 앞서 살펴본 만족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설비·실내환경이 44.4%로 가장 높았다.

안전관리나 부모참여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비용과 원장 비율이 높았으며, 급간식관리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다.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만족도 조사에서 급간식관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술 등 반일제이상 학원은 시설설비/실내환경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학원과 같이 급간식관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V-5-15 참조).

1순위 개선사항을 <표 V-5-16>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한하여 운영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V-5-16> 보육시설과 유치원 운영주체별 개선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원장	24	34	20	15	-	-	-	17	68	20	31
교사	19	17	-	39	56	42	-	34	14	28	25
주변환경	269	231	235	136	112	250	500	170	151	133	137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146	145	98	148	104	208	500	144	151	93	107
교재교구 및 장비	99	85	117	64	160	83	-	82	116	63	75
내부 분위기	42	09	-	29	56	-	-	30	41	28	31
비용	113	154	196	252	224	208	-	215	48	415	327
건강관리	28	51	98	50	16	83	-	46	27	37	35
급간식관리	42	43	20	60	56	42	-	53	89	61	68
안전관리	57	17	39	39	64	-	-	41	75	41	50
교육내용	85	60	20	38	16	42	-	44	68	26	36
부모참여	52	94	118	94	112	-	-	88	103	33	50
부모교육 및 상담	24	60	39	36	24	42	-	35	48	22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2)	(117)	(51)	(75)	(125)	(24)	(4)	(1,328)	(146)	(460)	(606)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주변환경과 시설설비·실내환경, 비용을,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주변환경, 교재교구 및 장비, 비용을 1순위 개선사항으로 주로 답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은 1순위 개선사항으로 주변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유형별 개선사항 응답 비율 및 양상은 2004년도 실태조사와 거의 똑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이후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유치원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41.5%가 비용을 1순위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여 국공립유치원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비용 이외에 교사와 건강관리를 개선사항으로 응답한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높았으며 3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V-5-16 참조).

다음 <표 V-5-17>은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조사결과를 하나로 합하여 그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V-5-17> 기관별 개선 요구 사항(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영어 미술 모두 포함)	선교원
원장	3.4	2.5	5.7	1.0	-
교사	5.6	6.1	5.0	3.3	4.2
주변환경	24.1	25.1	22.0	23.2	21.3
시설설비	23.8	24.8	19.6	34.8	46.4
교재교구 및 장비	18.1	18.7	16.6	17.3	24.4
내부분위기	6.7	6.7	6.9	6.0	5.2
비용	34.4	31.4	41.3	32.1	29.9
건강관리	10.7	10.7	11.5	6.4	3.3
영양관리	13.8	13.3	13.7	25.2	7.3
안전관리	11.3	10.9	11.7	14.0	11.5
교육내용	10.8	11.0	11.0	6.6	8.1
부모참여	14.5	16.3	10.5	14.6	11.1
부모교육 및 상담	11.6	12.3	10.2	7.8	19.8
(수)	(2,026)	(1,325)	(606)	(74)	(20)

주: 복수응답임.

가장 많이 응답한 개선사항은 비용, 주변환경,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임은 앞의 표와 같다. 그러나 이외에도 부모 참여, 영양관리를 문제로 지적한 비율은 높다. 보육시설은 전체적인 이러한 경향과 유사하며 부모 참여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높다. 유치원은 비용, 주변환경,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를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였고, 반일제이상 학원은 시설설비와 비용 이외에 영양관리를 지적한 비율이 25.2% 정도가 된다. 선교원은 시설설비와 비용 및 교재교구 및 장비에서 개선의 요구가 많

았다. 부모 교육 및 상담에 대해서도 19.8%가 개선을 요구하였다.

6.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및 앞으로 이용 의사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경험

1) 최초 기관 이용 경험

가) 최초 이용 기관 유형

본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경험은 영아 33.7%, 유아 97.8%로 2004년 조사는 영아 15.7%, 유아 88.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36.1%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특히 영아의 66.3%가 아직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V-6-1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실태조사 결과 영아의 84.3%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은 보육시설 61.7%, 유치원 15.4%, 반일제이상 학원 4.1%, 선교원 2.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보육시설이 높고 반일제이상 학원이 낮게 나타났다. 모취업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업의 경우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23.8%로 취업모에 비해 현격히 높게 나타나 취업하지 않은 모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볼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600만원 이상 가구일 경우 다른 소득수준의 가구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별로 처음 이용한 기관에 차이를 나타냈다(표 V-6-1 참조).

〈표 V-6-1〉 최초 이용 기관(반일제이상)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반일제 이상)	공부방	기타	기관 이용 없음	계	(수)	2004년조사 기관이용 없음
전체	61.7	15.4	2.1	4.1	-	0.2	16.5	100.0	(7,457)	(19.3)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53.3	8.2	0.8	1.5	-	0.1	36.1	100.0	(3,303)	(40.3)
취학아동	68.3	21.2	3.1	6.2	-	0.3	0.9	100.0	(4,152)	(1.2)
연령구분2										
영아	33.2	0.3	0.1	0.1	-	-	66.3	100.0	(1,743)	(84.3)
유아	75.7	17.0	1.7	3.1	0.1	0.2	2.2	100.0	(1,560)	(11.6)
초등저학년생	70.9	20.3	2.4	5.2	-	0.4	0.8	100.0	(1,930)	(1.0)
초등고학년생	66.0	22.0	3.9	7.0	-	0.2	0.9	100.0	(2,224)	(1.4)
지역										
대도시	58.9	15.9	2.4	5.0	-	0.3	17.5	100.0	(3,017)	(19.4)
중소도시	63.0	14.8	2.0	3.8	-	0.2	16.2	100.0	(3,175)	(19.4)
읍·면	65.2	15.8	1.5	2.5	0.1	0.2	14.7	100.0	(1,262)	(18.7)
모 취업여부										
취업	72.2	14.2	2.4	3.0	-	0.2	8.0	100.0	(3,121)	
미취업	52.5	16.4	2.2	5.0	-	0.1	23.8	100.0	(4,021)	
부재	74.5	15.6	0.3	2.9	-	1.0	5.7	100.0	(3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8.0	14.2	2.4	3.4	-	0.5	11.5	100.0	(416)	
100~149만원 이하	68.3	11.0	1.6	2.6	0.2	0.2	16.1	100.0	(627)	
150~199만원 이하	62.1	11.3	2.5	2.9	0.0	0.1	21.1	100.0	(1,086)	
200~249만원 이하	62.5	14.5	2.3	2.5	-	-	18.2	100.0	(1,044)	
250~299만원 이하	60.1	14.7	3.0	4.0	0.1	0.8	17.3	100.0	(865)	
300~349만원 이하	59.0	18.3	1.6	5.1	-	0.1	15.9	100.0	(997)	
350~399만원 이하	63.5	14.2	2.3	3.8	-	-	16.2	100.0	(520)	
400~499만원 이하	60.1	17.4	2.0	5.9	-	-	14.6	100.0	(774)	
500~599만원 이하	60.9	17.4	2.2	5.9	-	0.4	13.2	100.0	(522)	
600만원 이상	55.9	23.0	0.9	6.0	-	0.2	14.0	100.0	(605)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나) 최초 기관 이용 이유

자녀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4.3%,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22.9%로 47.2%가 아동발달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은 35.4%로 나타났다(표 V-6-2 참조).

〈표 V-6-2〉 최초 이용기관별 기관 최초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사회성 발달	주위에 놀이 상대없어	기타	계	(수)
전체	22.9	6.7	1.4	35.4	24.3	9.1	0.2	100.0	(6,227)
보육시설	20.0	4.0	0.5	43.7	22.5	9.0	0.3	100.0	(4,597)
유치원	33.3	18.4	1.6	9.4	28.9	8.3	0.1	100.0	(1,150)
선교원	25.9	3.8	0.6	27.2	28.5	12.7	1.3	100.0	(158)
학원(반일제이상)	25.6	4.3	13.8	13.4	31.5	11.4	-	100.0	(305)
공부방	-	50.0	-	-	50.0	-	-	100.0	(2)
기타	26.7	13.3	6.7	33.3	20.0	-	-	100.0	(15)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004년 실태조사에는 없던 문항인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기 때문에는 9.1%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6.7%나 특기교육을 위해 1.4%보다 높았다. 요즘 특기교육이나 조기교육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최초 이용은 그러한 교육을 위해 기관에 보내기보다는 아동의 발달이나 또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음 기관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초로 이용한 기관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보육시설은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대리보호를 위해 보내는 경향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유치원이나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아동의 발달을 위해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V-6-2 참조). 이는 현재 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아동의 연령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이의 발달이나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았다(표 V-6-3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대도시일수록 취업모가 많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비율이 낮은 현 실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취업모이거나 모가 부재한 경우 미취업모보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기관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모의 경우 사회성 발달 29.5%,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 12.0%로 취업모에 비하여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나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6-3 참조).

〈표 V-6-3〉 제 특성별 기관 최초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사회성 발달	주의에 놀이 상대 없어	기타	계	(수)
전체	22.9	6.7	1.4	35.4	24.3	9.1	0.2	100.0	(6,229)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20.4	1.3	0.5	42.9	23.2	11.2	0.5	100.0	(2,112)
취학아동	24.1	9.5	1.8	31.6	24.9	7.9	0.2	100.0	(4,116)
연령구분2									
영아	14.2	0.2	0.2	58.0	15.9	10.5	1.0	100.0	(586)
유아	22.8	1.8	0.7	37.0	26.1	11.4	0.2	100.0	(1,526)
초등저학년생	22.9	8.1	1.6	34.3	24.1	8.8	0.2	100.0	(1,915)
초등고학년생	25.2	10.7	2.0	29.3	25.5	7.1	0.2	100.0	(2,202)
지역									
대도시	22.5	5.4	1.6	36.2	25.6	8.6	0.1	100.0	(2,489)
중소도시	23.7	8.0	1.2	35.1	23.2	8.5	0.3	100.0	(2,662)
읍·면	21.8	6.7	1.1	34.4	24.1	11.5	0.4	100.0	(1,075)
모 취업여부									
취업	20.0	6.3	0.9	46.6	19.7	6.4	0.1	100.0	(2,869)
미취업	25.5	6.6	1.9	24.2	29.5	12.0	0.3	100.0	(3,063)
부재	23.6	12.5	0.7	43.9	14.9	4.1	0.3	100.0	(29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0.7	10.3	0.5	40.2	21.7	6.6	-	100.0	(368)
100~149만원 이하	20.7	11.4	1.0	40.1	17.1	9.5	0.2	100.0	(526)
150~199만원 이하	21.9	9.6	1.1	34.9	22.9	9.5	0.1	100.0	(855)
200~249만원 이하	24.5	5.5	1.3	35.6	22.8	9.8	0.5	100.0	(854)
250~299만원 이하	25.1	6.8	1.1	32.5	22.6	11.6	0.3	100.0	(717)
300~349만원 이하	24.2	5.4	2.1	30.8	29.4	7.7	0.4	100.0	(839)
350~399만원 이하	20.0	5.0	1.4	37.4	26.8	9.4	-	100.0	(436)
400~499만원 이하	23.6	5.2	1.8	35.0	25.5	8.8	0.1	100.0	(660)
500~599만원 이하	20.0	4.6	1.3	39.0	26.0	8.8	0.3	100.0	(454)
600만원 이상	24.6	4.0	1.7	35.1	27.1	7.1	0.4	100.0	(521)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기관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표 V-6-3 참조),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가계수입을 위하여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는 이유로 초등학교 준비가 높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학원이나 학습지 등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비용이 지원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통해 자녀의 발달이나 학업 준비를 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최초 기관 이용 시기

반일제이상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는 평균 37.6개월로, 분포는 생후 12개월 미만 3.7%, 12~23개월 13.2%, 24~35개월 24.5%, 36~47개월 32.8% 48~59개월 18.8%, 60개월 이상 7.0%이다.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취학아동은 36~47개월 35.9% 48~59개월 24.4%로 높은 데 반하여, 미취학아동은 24~35개월 33.0%, 36~47개월 26.7%, 12~23개월 23.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24개월 이전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비율은 영아 64.1%, 유아 18.2%, 초등저학년 10.6%, 초등고학년 8.8%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빠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연도가 최근일수록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V-6-4 참조).

〈표 V-6-4〉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7	13.2	24.5	32.8	18.8	7.0	100.0 (628)	37.6	14.4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8.0	23.0	33.0	26.7	8.1	1.2	100.0 (2113)	30.0	13.0	-31.9**
취학아동	1.5	8.2	20.1	35.9	24.4	9.9	100.0 (4115)	14.4	13.5	
연령구분2										
영아	21.3	42.8	32.0	3.9	-	-	100.0 (587)	19.5	9.2	567.0**
유아	2.8	15.4	33.4	35.5	11.3	1.6	100.0 (1,525)	34.1	11.9	
초등저학년생	1.7	8.9	22.3	37.1	22.2	7.8	100.0 (1,914)	40.2	13.4	
초등고학년생	1.3	7.5	18.3	34.8	26.3	11.8	100.0 (2,201)	42.5	13.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미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 기관을 처음 이용한 시기는 평균 30.0개월로 2004년 실태조사 결과 41.4와 비교하면 1년 가까이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36개월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2009년 실태조사는 36개월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월령별로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은 2004년 1.8%에서 8.0%, 12~23개월 8.3%에서 23.0%, 24~35개월 19.8%에서 33.0%로 개월수가 낮을수록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이용시기가 빨라진

것은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금 증가, 특히 영아기본보조금 등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아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한 이유로 볼 수 있다(표 V-6-5 참조).

〈표 V-6-5〉 미취학 아동의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8.0	23.0	33.0	26.7	8.1	1.2	100.0	(2112)	30.0	13.0	-
지역											
대도시	8.3	23.5	33.1	26.7	6.9	1.5	100.0	(808)	29.9	13.0	
중소도시	7.8	23.9	31.7	26.6	8.9	1.1	100.0	(933)	30.1	13.1	0.1
읍·면	8.1	19.7	35.8	27.2	8.4	0.8	100.0	(371)	30.2	12.9	
모 취업여부											
취업	11.8	28.9	33.5	19.7	5.4	0.7	100.0	(872)	26.7	0.4	
미취업	5.5	18.7	32.9	31.4	10.0	1.5	100.0	(1,173)	32.4	0.4	51.1**
부재	2.9	22.1	27.9	35.3	8.9	2.9	100.0	(68)	32.7	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0	28.4	29.3	27.6	7.8	0.9	100.0	(116)	26.7	12.4	
100~149만원 이하	9.5	26.5	32.2	23.2	7.2	1.4	100.0	(212)	28.5	13.4	
150~199만원 이하	8.4	25.4	30.7	27.2	7.7	0.6	100.0	(335)	29.6	12.9	
200~249만원 이하	11.5	21.2	31.4	23.1	10.6	2.2	100.0	(312)	30.0	14.4	
250~299만원 이하	6.5	19.9	34.9	28.7	9.6	0.4	100.0	(261)	30.9	12.1	0.7
300~349만원 이하	8.5	18.1	33.3	33.0	5.6	1.5	100.0	(269)	30.9	12.8	
350~399만원 이하	6.5	25.0	36.3	24.2	6.4	1.6	100.0	(124)	59.5	12.6	
400~499만원 이하	7.0	24.0	34.5	23.0	10.0	1.5	100.0	(200)	30.1	13.6	
500~599만원 이하	6.4	24.3	32.9	30.0	5.7	0.7	100.0	(139)	29.9	12.2	
600만원 이상	4.8	20.7	37.2	26.9	9.7	0.7	100.0	(144)	31.0	12.0	
2004년 조사	1.8	8.3	19.8	35.2	25.3	9.6	(100.0)	(5,171)	41.4	13.7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V-6-5 참조).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12개월 미만 11.8%, 12~23개월 28.9%, 24~35개월 33.5%로 미취업모에 비하여 36개월 미만에 기관을 처음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취업모의 경우에도 12개월 미만 5.5%, 12~23개월 18.7%로 나타나,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가 24개월이 되기 전부터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업모의 자녀들도 일찍부터 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이동별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

야 한다.

최초 기관 이용시기는 이용 이유 및 기관 유형별로도 차이를 나타낸다. <표 V-6-6>을 보면, 최초 이용 기관이 보육시설인 아동은 평균 27.4개월, 유치원 44.3개월, 선교원 37.7개월, 반일제이상 학원 39.3개월, 공부방 36.0개월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기관별 주요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6-6> 미취학 아동의 최초 이용 기관별 최초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8.0	23.0	33.0	26.7	8.1	1.2	100.0	(2112)	30.0	13.0	
보육시설	9.5	27.3	37.2	20.9	4.4	0.7	100.0	(1,760)	27.4	12.1	108.3**
유치원	-	1.1	8.9	55.4	30.1	4.5	100.0	(270)	44.3	8.3	
선교원	3.3	-	33.3	46.7	16.7	-	100.0	(29)	37.7	9.4	
학원(반일제이상)	2.0	-	20.4	65.3	10.3	2.0	100.0	(49)	39.3	8.3	
공부방	-	-	-	100.0	-	-	100.0	(1)	36.0	-	
기타	-	33.3	-	33.3	33.4	-	100.0	(3)	35.2	20.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V-6-7> 미취학 아동의 기관 최초 이용 이유별 최초 이용 월령

단위: %(명), 개월

구분	12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개월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8.0	23.0	33.0	26.7	8.0	1.3	100.0	(2112)	30.0	13.0	
전인적 발달	0.5	14.8	30.2	40.4	11.6	2.5	100.0	(431)	35.6	11.3	119.9**
초등학교 준비	-	-	14.3	32.1	42.9	10.7	100.0	(28)	46.8	9.4	
특기교육	-	-	27.3	45.5	27.2	-	100.0	(11)	43.6	9.1	
부모대리보호	16.6	36.8	32.9	11.4	2.0	0.3	100.0	(905)	22.8	11.7	
사회성 발달	1.6	10.6	33.6	39.9	12.6	1.7	100.0	(491)	35.7	10.8	
놀이상대	2.1	15.2	40.1	32.1	10.1	0.4	100.0	(237)	33.4	10.7	
기타	50.0	10.0	30.0	10.0	-	-	100.0	(9)	16.8	10.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이용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23개월,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놀이상대 33~35개월, 초등학교 준비, 특기활동 43~46개월이다. 즉 20~30개월에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 대리 보호로 보육시설에 보내고 30개월 이상부터는 아동의 발달이나 학교준비 등을 위하여 유치원이나 학원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반일제이상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은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는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은 아동의 발달과 초등학교 준비가 가장 높았으며, 학원은 아동의 발달과 특기교육이 가장 높았다. 결국 아동이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와 처음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모두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V-6-7 참조).

2) 연령대별 기관 및 개인서비스 이용 경험 및 모 취업상태

가) 기관 이용 및 모 취업상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이용한 기관과 개인서비스를 조사하였다.

〈표 V-6-8〉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1순위)

구분	보육 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특기 및 보습 학원	초등 학교 보육	초등 특기 적성	공적 기관	사설 기관	다년 적 없음	단위: %(명)		
											계	취업, 학업 모 비율	
6개월 미만	1.6	-	-	-	-	-	-	-	0.2	98.2	100.0	(5,228)	19.0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4.0	-	-	-	-	-	-	-	1.0	95.0	100.0	(4,943)	21.6
만 1세 이상 2세 미만	17.4	0.1	-	-	-	-	-	-	2.6	79.9	100.0	(4,666)	25.9
만 2세 이상 3세 미만	40.5	1.5	0.6	0.7	0.1	-	-	-	2.0	54.6	100.0	(4,095)	30.7
만 3세 이상 4세 미만	59.2	12.4	1.5	3.1	0.2	-	-	0.1	0.9	22.6	100.0	(3,560)	34.7
만 4세 이상 5세 미만	58.4	28.0	1.7	4.0	0.4	-	-	0.1	0.3	7.1	100.0	(3,034)	37.8
만 5세 이상 취학전	41.9	51.3	1.4	3.8	0.6	-	-	-	0.1	0.9	100.0	(2,523)	40.7
초등 1학년	1.1	0.2	-	0.6	64.2	4.5	12.0	4.5	0.6	12.3	100.0	(1,920)	43.3
초등 2학년	1.0	0.4	-	0.3	69.4	3.1	12.1	4.5	0.5	8.7	100.0	(1,328)	47.7
초등 3학년	0.6	0.1	-	0.6	69.8	1.1	13.3	4.4	1.9	8.2	100.0	(698)	48.8

그 결과를 보면, 만 1세 미만까지의 이용 1순위 기관은 보육시설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 1.6%, 6~12개월 미만 4.0%, 만1세~2세 미만 17.4%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만2세~3세 미만이 되면 40.5%로 기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다. 이용률이 낮은 하지만 6개월 미만부터 문화센터 등의 기타 사설기관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2세 이상부터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기타 특기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만3세 이상부터 유치원 이용도 증가하며 만5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

보다 유치원이 이용 1순위 기관이 된다. 초등학생이 되면 특기 및 보습학원이 주된 1순위 기관이 되며 그 다음이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다(표 V-6-8 참조).

특이한 점은 초등학생이 되면 공적기관이나 기타 사설기관 조차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 12.3%, 2학년 8.7%, 3학년 8.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긴 하지만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세 이상 유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 집에서 학습지를 하거나 방문교사 등 집에서 하는 또 다른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령대별 이용 기관 2순위를 살펴보면, 만1세 이상부터 취학전까지는 특기 및 보습학원과 문화센터 등 기타 사설기관이 2순위 기관으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2순위 기관으로 이용비율이 높다(표 V-6-9 참조).

〈표 V-6-9〉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특기 및 보습학원	초등학교 보육	초등 특기 적성	공적 기관	사설 기관	다년적 없음	계	(수)
6개월 미만	-	-	-	-	-	-	-	-	-	-	100.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	-	-	-	-	-	-	-	-	100.0	
만 1세 이상 2세 미만	17.3	-	-	-	20.9	-	-	9.8	52.0	-	100.0	(7)
만 2세 이상 3세 미만	16.6	10.6	4.7	-	19.5	-	-	5.2	43.4	-	100.0	(31)
만 3세 이상 4세 미만	19.5	29.5	1.2	6.4	17.5	-	-	4.1	21.8	-	100.0	(139)
만 4세 이상 5세 미만	16.8	32.5	1.6	4.0	30.2	-	-	3.7	11.2	-	100.0	(268)
만 5세 이상 취학전	15.9	12.5	0.6	2.9	56.4	-	-	5.1	6.6	-	100.0	(457)
초등 1학년	0.9	0.1	-	0.3	18.7	3.0	64.0	7.2	5.8	-	100.0	(474)
초등 2학년	0.6	-	-	-	17.2	3.3	67.2	7.6	4.1	-	100.0	(401)
초등 3학년	1.1	0.5	-	-	16.9	1.4	67.3	7.6	5.2	-	100.0	(218)

아동의 연령대별 모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표 V-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일제와 시간제 취업중 비율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하거나 교육비 등의 자녀양육비를 위하여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V-6-10〉 자녀 연령대별 모의 취업상태

단위: %(명)

구분	전일제 취업중	시간제 취업중	학업 및 취업 훈련중	전업주부	휴직 및 출산 휴가중	계	(수)
6개월 미만	16.8	2.1	0.1	78.0	3.0	100.0	(5,187)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8.9	2.6	0.1	77.2	1.2	100.0	(4,886)
만 1세 이상 2세 미만	22.5	3.2	0.2	73.6	0.5	100.0	(4,587)
만 2세 이상 3세 미만	25.7	4.8	0.2	69.0	0.4	100.0	(4,000)
만 3세 이상 4세 미만	29.0	5.5	0.1	64.8	0.4	100.0	(3,453)
만 4세 이상 5세 미만	31.0	6.8	0.1	61.9	0.2	100.0	(2,917)
만 5세 이상 취학전	32.8	7.7	0.2	59.1	0.2	100.0	(2,412)
초등 1학년	34.5	8.7	0.2	56.3	0.3	100.0	(1,827)
초등 2학년	37.6	9.8	0.3	52.3	-	100.0	(1,261)
초등 3학년	39.6	9.2	-	51.2	-	100.0	(666)

연령대별 이용 기관과 모의 취업상태를 비교해 보면, 만2세 미만까지 취업이나 학업, 교육훈련중인 어머니의 비율에 비하여 기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표 V-6-8 참조). 이는 기관 이외에 조부모나 기타 인력 등의 개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개인서비스 이용 및 모 취업상태

이용 기관에 이어 개인서비스 이용을 살펴보았다. 개인서비스 이용 비율은 연령대별로 전반적으로 12~16%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중에서는 1순위는 동거 조부모와 비동거 조부모가 대부분이었으나 동거 조부모와 비동거 조부모의 이용 양상은 반대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동거 조부모의 이용 비율은 차츰 높아졌으나 비동거 조부모의 이용 비율은 낮아졌다(표 V-6-11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양육이나 조부모의 연령, 건강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던 조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초등학생이 되면 아이의 형제, 자매가 개인서비스 1순위라는 비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아동들끼리만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12>의 개인서비스 이용 2순위를 살펴보면, 여전히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동거조부모와 비동거 조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 1순위에서는 1% 수준이었던 친인척의 비율도 3~7% 수준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V-6-11〉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개인서비스 (1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	아이의 형제 자매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	동거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타 비혈연	계	(수)	취업, 학업 취업훈련 모 비율
6개월 미만	87.9	-	3.7	6.0	1.0	0.2	0.4	0.8	100.0	(5,230)	19.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86.4	-	4.6	6.6	1.0	0.2	0.3	0.9	100.0	(4,942)	21.6
만 1세 이상 2세 미만	85.8	0.1	5.1	6.6	1.1	0.2	0.2	0.9	100.0	(4,665)	25.9
만 2세 이상 3세 미만	85.8	0.1	5.9	6.3	0.9	0.2	0.2	0.6	100.0	(4,093)	30.7
만 3세 이상 4세 미만	85.5	0.3	6.6	5.7	1.0	0.2	0.3	0.4	100.0	(3,560)	34.7
만 4세 이상 5세 미만	85.5	0.6	6.8	5.2	1.1	0.1	0.3	0.4	100.0	(3,036)	37.8
만 5세 이상 취학전	85.5	0.7	6.9	4.8	1.1	0.2	0.3	0.5	100.0	(2,525)	40.7
초등 1학년	85.3	2.1	7.4	3.6	0.9	0.3	0.2	0.2	100.0	(1,918)	43.3
초등 2학년	84.0	2.8	8.2	3.7	0.5	0.4	0.2	0.2	100.0	(1,329)	47.7
초등 3학년	86.9	1.9	6.7	3.5	0.5	0.1	0.1	0.3	100.0	(697)	48.8

〈표 V-6-12〉 연령대별 이용 경험이 있는 개인서비스(2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	아이의 형제 자매	동거조 부모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	동거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타 비혈연	계	(수)
6개월 미만	43.2	1.5	20.7	27.9	4.5	0.1	0.6	1.5	100.0	(1,238)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48.0	1.6	18.8	24.8	4.6	0.1	0.4	1.7	100.0	(1,183)
만 1세 이상 2세 미만	47.7	2.0	18.4	25.4	4.6	0.1	0.5	1.3	100.0	(1,132)
만 2세 이상 3세 미만	46.5	2.6	17.9	24.7	6.1	0.1	0.6	1.5	100.0	(1,012)
만 3세 이상 4세 미만	46.7	4.6	16.4	24.3	5.9	0.1	0.4	1.6	100.0	(871)
만 4세 이상 5세 미만	44.3	8.0	14.8	24.0	6.7	-	0.2	2.0	100.0	(773)
만 5세 이상 취학전	40.6	10.5	15.8	23.6	7.3	-	0.2	2.0	100.0	(674)
초등 1학년	41.5	16.5	16.9	18.4	5.3	-	-	1.4	100.0	(476)
초등 2학년	42.7	18.7	16.5	17.4	3.3	-	-	1.4	100.0	(328)
초등 3학년	37.6	21.9	17.0	17.3	4.8	-	-	1.4	100.0	(166)

3)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중단 경험 및 이유

가)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아동 중 16.2%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중간에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4년 실태조사 결과 16.8%와 비슷하다.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영아 4.9%에 비하여 유아 23.8%, 초등저학년 20.2%로 영아의 중단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용 기간이 짧은만큼 아직 중단한 경험이 없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표 V-6-13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의 중단경험 비율이 낮고, 미취업모보다는 취업모가, 취업모보다는 모가 부재한 경우 중단경험이 많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아질수록 보육시설 중단 경험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서 2004년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표 V-6-13 참조).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중단경험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6-13〉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중단 경험 유무

구분	단위: %(명)		계	(수)	X ² (df)
	있다	없다			
전체	16.2	83.8	100.0	(5,227)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13.9	86.1	100.0	(3,303)	35.5(1)**
취학아동	20.2	79.8	100.0	(1,925)	
연령구분2					
영아	4.9	95.1	100.0	(1,743)	251.9(2)**
유아	23.8	76.2	100.0	(1,559)	
초등저학년생	20.2	79.8	100.0	(1,925)	
지역					
대도시	16.4	83.6	100.0	(2,095)	10.4(2)**
중소도시	17.3	82.7	100.0	(2,246)	
읍·면	12.6	87.4	100.0	(886)	
모 취업여부					
취업	18.4	81.6	100.0	(1,954)	32.8(2)**
미취업	14.1	85.9	100.0	(3,103)	
부재	27.5	72.5	100.0	(17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3.7	76.3	100.0	(262)	21.7(9)*
100~149만원 이하	20.2	79.8	100.0	(460)	
150~199만원 이하	14.9	85.1	100.0	(824)	
200~249만원 이하	15.3	84.7	100.0	(758)	
250~299만원 이하	15.4	84.6	100.0	(637)	
300~349만원 이하	15.1	84.9	100.0	(701)	
350~399만원 이하	17.7	82.3	100.0	(355)	
400~499만원 이하	15.4	84.6	100.0	(505)	
500~599만원 이하	16.0	84.0	100.0	(337)	
600만원 이상	13.4	86.6	100.0	(38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를 의미하고, **는 p<.01을 의미함.

보육시설을 중간에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표 V-6-14>와 같이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 22.8%, 프로그램이 별로라 다른 데 다니려고 19.7%,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16.3% 비용이 비싸서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6-14〉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환경	원장	교사	거리	비용	부 적응	프로 그램	시간	이사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9.1	4.0	5.3	3.2	11.5	16.3	19.7	3.1	22.8	5.0	100.0	(846)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7.9	4.4	6.1	4.1	13.5	17.9	16.8	3.5	19.0	6.8	100.0	(458)	29.6(9)**
취학아동	10.6	3.9	4.4	1.8	9.6	14.7	23.0	2.3	27.1	2.6	100.0	(387)	
연령구분2													
영아	10.2	9.1	4.5	6.8	13.6	20.5	8.0	5.7	12.5	9.1	100.0	(88)	na
유아	7.3	3.5	6.5	3.8	13.5	17.3	18.9	2.7	20.5	6.0	100.0	(371)	
초등저학년생	10.6	3.9	4.4	1.8	9.6	14.7	23.0	2.3	27.1	2.6	100.0	(387)	
지역													
대도시	8.1	3.8	3.8	2.9	8.7	16.8	23.2	2.6	27.2	2.9	100.0	(345)	na
중소도시	10.3	4.4	6.9	3.3	12.9	16.7	17.7	2.6	18.3	6.9	100.0	(389)	
읍·면	8.1	4.5	5.4	3.6	17.1	13.5	15.3	5.4	23.4	3.7	100.0	(111)	
모 취업여부													
취업	10.6	3.6	5.0	3.9	14.2	14.8	18.7	3.3	20.6	5.2	100.0	(359)	na
미취업	8.2	4.8	5.5	2.7	9.8	18.2	22.1	1.1	22.6	5.0	100.0	(439)	
부재	6.4	4.3	6.4	0.0	10.6	10.6	6.4	17.0	38.3	0.0	100.0	(4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8	6.5	1.6	4.8	9.7	24.2	14.5	6.5	22.6	4.8	100.0	(62)	na
100~149만원 이하	6.4	4.3	2.1	8.5	14.9	13.8	12.8	1.1	30.9	5.2	100.0	(94)	
150~199만원 이하	9.8	5.7	3.3	1.6	16.3	13.0	14.6	8.1	23.6	4.0	100.0	(123)	
200~249만원 이하	12.2	4.3	7.8	3.5	13.9	16.5	13.0	0.9	20.9	7.0	100.0	(115)	
250~299만원 이하	14.3	1.0	6.1	1.0	10.2	17.3	26.5	2.0	18.4	3.2	100.0	(98)	
300~349만원 이하	4.8	3.8	2.9	2.9	14.3	19.0	22.9	1.9	21.0	6.9	100.0	(105)	
350~399만원 이하	14.3	3.2	15.9	1.6	6.3	9.5	19.0	0.0	25.4	4.8	100.0	(63)	
400~499만원 이하	6.5	3.9	9.1	5.2	11.7	13.0	23.4	5.2	19.5	2.7	100.0	(77)	
500~599만원 이하	7.3	7.3	0.0	0.0	3.6	12.7	38.2	1.8	27.3	1.8	100.0	(55)	
600만원 이상	9.8	0.0	5.9	2.0	2.0	27.5	21.6	2.0	19.6	10.0	100.0	(51)	

주: **는 $p<.01$ 을 의미하며,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아이의 부적응, 이사, 프로그램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2004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아이의 적응 문제는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었으며, 반일제이상의 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새로운 환경이나 엄마와의 분리 등에 대한 아이들의 두려움이 과거에 비해 감

소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2004년과 2009년 모두 보육시설이나 이용하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나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로 어쩔 수 없이 기관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는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이의 적응으로 인한 비율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고,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읍·면지역의 경우 프로그램 때문은 낮고 비용이나 운영 시간은 높아 읍·면지역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와 많이 관계됨을 알 수 있다. 모가 부재한 경우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 때문에 보육시설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경우 기관보다는 가정의 이사 때문일 확률이 높다. 가구소득별로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의 경우 아이의 부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249만원 이하는 이사가 가장 높았으며, 250~599만원 이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중단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소득수준 집단은 없었다(표 V-6-14 참조).

나) 유치원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아동은 3.1%로, 보육시설 중단경험 16.2%보다 훨씬 낮았으며 2004년 실태조사 결과 5.4%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지역이나 모취업여부에 따라서 유치원을 그만둔 경험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소득에 따라서 살펴볼 경우,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와 400만원 이상일 경우 5% 전후로 다른 소득수준에 비하여 유치원을 그만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6-15 참조).

〈표 V-6-15〉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중단 경험 유무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단위: %(명)
					$X^2(df)$
전체	3.1	96.9	100.0	(5,228)	
연령구분1					
유아	3.5	96.5	100.0	(1,560)	99.1(2)**
초등저학년생	5.7	94.3	100.0	(1,925)	
지역					
대도시	2.9	97.1	100.0	(2,095)	3.7(2)
중소도시	3.6	96.4	100.0	(2,247)	
읍·면	2.5	97.5	100.0	(886)	

(표 V-6-15 계속)

구분	있다	없다	계	(수)	X ² (df)
모 취업여부					
취업	3.3	96.7	100.0	(1,954)	2.4(2)
미취업	3.1	96.9	100.0	(3,103)	
부재	1.2	98.8	100.0	(170)	
가구소득					43.6(9)**
99만원 이하	5.4	94.6	100.0	(261)	
100~149만원 이하	1.3	98.7	100.0	(460)	
150~199만원 이하	1.2	98.8	100.0	(824)	
200~249만원 이하	2.9	97.1	100.0	(758)	
250~299만원 이하	1.6	98.4	100.0	(636)	
300~349만원 이하	3.3	96.7	100.0	(702)	
350~399만원 이하	3.9	96.1	100.0	(356)	
400~499만원 이하	5.3	94.7	100.0	(505)	
500~599만원 이하	5.6	94.4	100.0	(337)	
600만원 이상	4.7	95.3	100.0	(38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표 V-6-16〉 제 특성별 유치원 중단 이유

단위: %(명)

구분	환경	원장	교사	거리	비용	부적응	프로 그램	시간	이사	기타	계	(수)
전체	12.7	2.4	9.1	5.5	9.7	11.5	10.3	4.2	27.3	7.3	100.0	(166)
연령구분												
유아	12.7	-	9.1	3.6	10.9	14.5	18.2	7.3	18.2	5.5	100.0	(55)
초등저학년생	12.6	3.6	9.0	5.4	9.0	9.9	7.2	2.7	32.4	8.2	100.0	(111)
지역												
대도시	19.0	1.7	6.9	1.7	8.6	10.3	15.5	5.2	25.9	5.2	100.0	(58)
중소도시	9.9	1.2	12.3	6.2	12.3	13.6	4.9	1.2	28.4	9.9	100.0	(81)
읍·면	4.2	8.3	4.2	4.2	4.2	4.2	20.8	16.7	29.2	4.6	100.0	(24)
모 취업여부												
취업	15.6	1.6	9.4	7.8	6.3	9.4	6.3	7.8	25.0	10.9	100.0	(64)
미취업	11.3	3.1	9.3	2.1	12.4	12.4	13.4	2.1	29.9	4.1	100.0	(97)
부재	-	-	-	-	33.3	33.3	-	-	33.3	-	100.0	(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7	-	-	7.7	7.7	23.1	7.7	-	46.1	-	100.0	(13)
100~149만원 이하	16.7	-	16.7	-	-	-	-	33.3	33.2	-	100.0	(6)
150~199만원 이하	11.1	-	22.2	-	11.1	-	22.2	-	22.2	11.2	100.0	(9)
200~249만원 이하	9.1	4.5	4.5	-	18.2	4.5	4.5	4.5	40.9	9.3	100.0	(22)
250~299만원 이하	10.0	-	-	20.0	-	-	-	10.0	60.0	-	100.0	(10)
300~349만원 이하	8.3	4.2	12.5	4.2	8.3	16.7	12.5	-	33.3	-	100.0	(24)
350~399만원 이하	-	-	13.3	13.3	6.7	6.7	20.0	6.7	6.7	26.6	100.0	(15)
400~499만원 이하	23.1	3.8	7.7	7.7	19.2	7.7	3.8	3.8	15.4	7.8	100.0	(26)
500~599만원 이하	25.0	5.0	-	-	5.0	30.0	15.0	-	10.0	10.0	100.0	(20)
600만원 이상	10.0	-	20.0	5.0	5.0	10.0	15.0	5.0	25.0	5.0	100.0	(20)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중간에 유치원을 그만둔 이유로는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 27.3%,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12.7%,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11.5%, 프로그램이 별로라 다른 데 다니려고 10.3%, 비용이 비싸서 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보다 프로그램 때문에 중단하는 비율은 낮고 환경이나 교사 때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6-16 참조).

연령구분이나 모 취업여부, 소득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하여 대도시의 경우 환경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V-6-16 참조). 그러나 읍·면지역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4.2%로 보육시설과는 다르게 낮게 나타났다.

나. 앞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의사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한정하여 앞으로의 이용 의사를 질문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표 V-6-17>에 의하면 현재 영유아 중 25.7%는 보육시설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7.9%는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3.9%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2.5%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계속 이용한다면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2004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보육시설만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19.9%에서 증가하였으며,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4.1%에서 감소하였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은 37.6%에서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는 비율은 7.5%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의 의견 변화는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2004년 93만명에서 2008년 113만으로 약 20만 명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보육시설에만 보내겠다는 비율이 읍·면지역이 도시에 비하여 다소 높다.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앞으로는 유치원에만 보내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V-6-17〉 지역, 연령별 앞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의사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에만 보냄	유치원에만 보냄	보육시설과 유치원 보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안보냄	계(수)
전체					
전체	25.7	27.9	43.9	2.5	100.0(3,301)
0세아	8.9	13.9	76.3	0.9	100.0(641)
1세아	17.2	14.8	67.8	0.2	100.0(576)
2세아	28.8	14.2	55.8	1.2	100.0(528)
3세아	31.0	31.8	34.9	2.3	100.0(516)
4세아	32.0	44.6	19.1	4.3	100.0(512)
5세아	40.7	52.8	0.2	6.3	100.0(531)
대도시					
전체	24.7	27.5	43.9	3.9	100.0(1,269)
0세아	11.0	11.9	75.8	1.3	100.0(236)
1세아	16.0	14.3	69.3	0.4	100.0(231)
2세아	25.1	14.1	58.3	2.5	100.0(199)
3세아	30.6	33.2	30.6	5.6	100.0(196)
4세아	29.8	44.4	20.7	5.1	100.0(198)
5세아	39.2	51.2	0.5	9.1	100.0(209)
중소도시					
전체	25.9	29.0	43.2	1.9	100.0(1,397)
0세아	8.8	15.0	75.3	0.9	100.0(227)
1세아	18.1	15.4	66.5	-	100.0(254)
2세아	27.4	13.0	59.2	0.4	100.0(223)
3세아	28.9	33.2	37.5	0.4	100.0(232)
4세아	34.8	41.4	19.4	4.4	100.0(227)
5세아	38.0	56.4	-	5.6	100.0(234)
읍·면					
전체	31.3	29.4	38.4	0.9	100.0(534)
0세아	6.9	20.8	70.8	1.5	100.0(72)
1세아	17.4	15.2	66.3	1.1	100.0(92)
2세아	39.0	18.1	42.9	-	100.0(105)
3세아	37.1	24.7	38.2	-	100.0(89)
4세아	29.5	53.4	15.9	1.2	100.0(88)
5세아	52.3	45.5	-	2.2	100.0(88)

1) 보육시설

가) 추가 이용 희망

〈표 V-6-18〉은 앞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언제 보육시설에 보낼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0세아는 6개월 이내가 3.0%, 1년 이내가 4.7%이다. 만2세는 각각 3.4%, 1.9%이며 만3세는 6개월 이내가 1.6%, 1년 이내가 0.2%이며, 만4세는 각각 0.6%, 0.2%, 만5세는 추가 이용의사가 없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0세아와 만1세아에 대한 1년 이내 추가 이용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다소 높다(표 V-6-18 참조).

〈표 V-6-18〉 보육시설 추가 이용 시기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전체							
6개월 이내	3.0	5.9	3.4	1.6	0.6	-	2.5
6개월 초과~1년 이내	4.7	3.1	1.9	0.2	0.2	-	1.7
1년초과~1년 6개월 이내	12.3	26.2	14.8	2.7	0.4	-	9.7
1년 6개월~2년이내	3.9	1.6	-	-	-	-	0.9
2년 초과~ 3년 이내	31.0	14.4	1.5	0.2	-	-	8.0
3년 초과	21.5	2.8	0.6	-	-	-	4.2
현재 다님	8.1	30.7	62.4	61.0	50.1	41.2	41.9
기타	15.5	15.3	15.4	34.3	48.7	58.8	3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41)	(576)	(528)	(516)	(512)	(531)	(3,301)
대도시							
6개월 이내	2.1	6.5	3.0	1.5	1.5	-	2.5
6개월 초과~1년 이내	7.2	4.8	1.0	0.5	-	-	2.4
1년초과~1년 6개월 이내	14.8	28.1	18.0	2.1	0.5	-	11.1
1년 6개월~2년이내	3.4	1.3	-	-	-	-	0.9
2년 초과~ 3년 이내	33.5	16.5	1.0	-	-	-	9.3
3년 초과	18.2	0.9	-	-	-	-	3.5
현재 다님	7.7	27.3	60.5	56.9	48.0	39.3	38.6
기타	13.1	14.6	16.5	39.0	50.0	60.9	3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6)	(231)	(199)	(196)	(198)	(209)	(1,269)
중소도시							
6개월 이내	4.4	5.9	3.1	2.2	-	-	2.7
6개월 초과~1년 이내	3.1	2.0	2.7	-	-	-	1.3
1년초과~1년 6개월 이내	9.7	23.3	14.3	3.4	0.4	-	8.8
1년 6개월~2년이내	4.4	2.4	-	-	-	-	1.1
2년 초과~ 3년 이내	29.5	11.5	1.8	-	-	-	7.2
3년 초과	26.0	4.7	0.4	-	-	-	5.2
현재 다님	7.0	34.8	64.3	60.8	54.5	38.6	43.0
기타	15.9	15.4	13.4	33.6	45.1	61.4	3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7)	(254)	(223)	(232)	(227)	(234)	(1,397)

(표 V-6-18 계속)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읍·면							
6개월이내	1.4	4.3	4.8	-	-	-	1.9
6개월 초과~1년 이내	1.4	3.3	1.9	-	1.1	-	1.3
1년초과~1년 6개월이내	14.1	29.3	10.5	2.3	-	-	9.4
1년 6개월~2년이내	4.2	1.1	-	-	-	-	0.8
2년 초과~ 3년 이내	26.8	16.3	1.9	1.1	-	-	7.0
3년 초과	16.9	2.2	1.9	-	-	-	3.0
현재 다님	12.7	28.3	61.0	71.6	44.4	52.3	46.4
기타	22.5	15.2	18.0	25.0	54.5	47.7	3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2)	(92)	(105)	(89)	(88)	(88)	(534)

나)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및 이유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할 때 선호하는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시설이 38.9%이다. 민간이 45.5%로 국공립시설보다 높고, 비영리법인이 7.9%이다. 이러한 선호도는 2004년 조사에서 나타난 선호도 국공립시설 56.2%, 민간시설이 29.3%와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로 인식된다. 국공립보육시설 선호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시설 유형 선호도는 아동 연령구분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고 반대로 민간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다.⁴⁴⁾ 아동이 어릴수록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2004년 조사에서와 같은 경향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은 법인 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소도시는 민간시설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가 민간 및 가정시설을 선호하고 미취업모가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선호도는 일정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표 V-6-19 참조).

44) 가정보육시설의 낮은 선호도는 가정이 영아 중심의 보육시설이라는 점과 민간어린이집과의 구분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V-6-19〉 보육시설 이용 희망자의 보내고 싶은 시설 형태

단위: %(명)

구 분	국공립	비영리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기타	전체	X ² (df)
전체	38.9	7.9	45.5	4.6	0.5	1.8	0.8	100.0(2,297)	
지역규모별									
대도시	42.4	5.6	44.7	4.2	0.6	1.8	0.7	100.0(907)	56.0(12) **
중소도시	35.7	7.1	48.6	5.2	0.2	2.3	0.9	100.0(1,002)	
읍·면	38.5	15.4	39.7	3.8	1.0	0.5	1.1	100.0(390)	
모취업별									
모취업	32.5	8.4	47.6	6.5	0.8	3.8	0.4	100.0(782)	na
미취업	42.9	7.4	43.9	3.8	0.3	0.6	1.1	100.0(1,460)	
모부재	23.6	12.7	60.0	-	-	3.7	-	100.0(55)	
아동특성별									
영아	46.2	4.7	39.0	6.7	0.5	1.7	1.2	100.0(1,477)	199.8(6) **
유아	25.7	13.7	57.4	0.9	0.5	1.8	-	100.0(820)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35.6	8.5	49.2	4.2	1.7	-	0.8	100.0(118)	na
100~149만원	35.9	9.7	51.2	3.2	-	-	-	100.0(2,248)	
150~199만원	41.5	8.2	45.5	3.3	0.2	0.7	0.6	100.0(429)	
200~249만원	39.9	6.5	45.0	3.7	0.8	2.3	1.6	100.0(353)	
250~299만원	42.3	6.5	43.3	6.9	-	0.7	0.3	100.0(291)	
300~349만원	41.4	7.8	42.5	6.0	0.4	0.7	1.0	100.0(268)	
350~399만원	36.6	13.4	43.7	4.2	0.7	0.7	0.7	100.0(142)	
400~499만원	39.0	9.0	40.0	4.5	1.0	5.0	1.5	100.0(200)	
500~599만원	26.5	3.4	59.8	5.1	-	4.3	0.9	100.0(117)	
600만원 이상	36.9	6.2	42.3	6.2	1.5	6.9	-	100.0(130)	
2004년 조사	56.2	6.9	29.3	0.5	1.7	1.5	3.9	100.0(96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여서가 5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신뢰가 가서는 38.5%이다.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신뢰라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신뢰보다는 비용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표 V-6-20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4년 조사결과와도 유사하다. 아동 및 부모 특성별로는 중소도시나 읍·면보다는 대도시, 유아보다는 영아,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신뢰를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소득계층별로는 99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소득계층이 높아지면서 신뢰를 이유로 든 비율이 높아진다.

〈표 V-6-20〉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이유

단위: %(명)

구 분	비용 저렴	신뢰	가까움	교사자질	보육 내용	기타	계(수)	$X^2(df)$
전체	52.0	38.5	2.5	3.8	2.9	0.3	100.0(886)	
지역규모별								
대도시	46.7	44.9	1.3	3.7	3.1	0.3	100.0(383)	na
중소도시	57.8	33.7	1.4	4.0	2.8	0.3	100.0(353)	
읍·면	52.7	32.7	7.3	4.7	2.7	0.1	100.0(150)	
모취업별								
모취업	46.0	44.4	2.4	4.4	2.8	-	100.0(250)	23.1(10)*
미취업	54.3	36.5	2.6	3.5	2.9	0.2	100.0(624)	
모부재	58.3	16.7	-	8.3	8.3	8.4	100.0(12)	
아동특성별								
영아	51.0	40.0	2.1	3.8	2.9	0.2	100.0(680)	na
유아	55.9	33.3	3.4	3.9	2.9	0.6	100.0(204)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44.2	51.2	2.3	-	2.3	-	100.0(43)	na
100~149만원	72.2	22.2	-	4.4	1.2	-	100.0(90)	
150~199만원	61.7	33.1	1.1	2.9	1.2	-	100.0(175)	
200~249만원	49.3	37.3	3.5	4.9	3.5	1.4	100.0(142)	
250~299만원	56.2	33.1	2.5	3.3	5.9	-	100.0(121)	
300~349만원	54.5	40.0	3.6	0.9	1.0	-	100.0(110)	
350~399만원	44.0	40.0	6.0	4.0	6.0	-	100.0(50)	
400~499만원	41.6	42.9	1.3	10.4	3.8	-	100.0(77)	
500~599만원	30.0	53.3	3.3	6.7	6.7	-	100.0(30)	
600만원 이상	17.0	72.3	2.1	4.3	4.3	-	100.0(47)	
2004년 조사	54.1	43.1	2.0	비해당	비해당	0.8	100.0(54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유치원

가) 추가 이용 희망

〈표 V-6-21〉은 앞으로 보육시설에 다니겠다는 응답자에게 언제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를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0~1세아는 대부분이 3년 이후이고, 만2세아도 1년 이후가 대부분으로 영아기에 유치원을 다닐 의사는 미미한 수준이다. 3세아도 1년내 추가 수요는 2.7%이며 4세아는 2.6%, 5세아는 0.4%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만3세아가 대도시에서 6개월 초과 1년내 이용 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4.1%로 비교적 높고, 그 외는 별 차이가 없다.

〈표 V-6-21〉 연령별 유치원 추가 이용 시기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전체							
6개월이내	-	-	0.2	1.0	1.4	0.4	0.5
6개월 초과~1년 이내	-	0.3	0.8	1.7	1.2	-	0.7
1년초과~1년 6개월이내	0.2	3.7	18.6	23.1	21.1	-	10.9
1년 6개월~2년이내	0.2	0.7	0.4	0.8	-	-	0.3
2년 초과~ 3년 이내	5.2	17.7	31.3	17.1	-	-	11.8
3년 초과	83.7	61.0	17.3	0.2	0.2	-	27.9
현재다님	-	-	1.7	22.9	38.9	51.6	19.8
기타	10.7	16.6	29.7	33.2	37.2	48.0	28.1
계(수)	100.0 (640)	100.0 (576)	100.0 (528)	100.0 (515)	100.0 (513)	100.0 (524)	100.0 (3,296)
대도시							
6개월이내	-	-	-	2.1	1.0	-	0.5
6개월 초과~1년 이내	-	0.9	1.5	4.1	1.5	-	1.3
1년초과~1년 6개월이내	0.4	3.0	22.0	20.5	21.8	-	10.6
1년 6개월~2년이내	0.4	1.7	1.0	1.0	-	-	0.7
2년 초과~ 3년 이내	5.1	18.2	30.5	9.7	-	-	11.5
3년 초과	81.8	59.7	16.5	0.5	-	-	28.8
현재다님	-	-	1.5	22.9	40.0	49.7	18.0
기타	12.3	16.4	27.0	39.2	35.7	50.3	28.6
계(수)	100.0 (284)	100.0 (231)	100.0 (200)	100.0 (196)	100.0 (198)	100.0 (204)	100.0 (1,313)
중소도시							
6개월이내	-	-	0.4	-	1.8	0.4	0.4
6개월 초과~1년 이내	-	-	0.9	0.4	1.3	-	0.4
1년초과~1년 6개월이내	-	4.7	18.3	29.2	21.6	-	12.2
1년 6개월~2년이내	-	-	-	0.9	-	-	0.1
2년 초과~ 3년 이내	5.7	16.6	36.2	19.4	-	-	12.9
2년 6개월초과~3년이내	2.2	2.4	-	0.9	-	-	0.9
3년 초과	84.6	60.6	15.6	-	-	-	27.2
현재다님	-	-	0.9	22.8	39.0	53.2	18.1
기타	7.5	15.7	27.7	26.4	36.3	46.4	27.8
계(수)	100.0 (267)	100.0 (254)	100.0 (223)	100.0 (231)	100.0 (226)	100.0 (234)	100.0 (1,435)
읍·면							
6개월이내	-	-	-	1.1	1.1	1.1	0.6
6개월 초과~1년 이내	-	-	-	-	-	-	-
1년초과~1년 6개월이내	-	3.3	12.4	12.4	18.0	-	8.0
1년 6개월~2년이내	1.4	1.1	-	-	-	-	0.4
2년 초과~ 3년 이내	2.7	13.0	22.0	27.0	-	-	11.4
3년 초과	86.3	64.1	22.9	-	1.1	-	27.4
현재다님	-	-	4.5	23.1	36.2	52.1	20.0
기타	9.6	18.5	38.2	36.4	43.6	46.8	32.2
계(수)	100.0 (89)	100.0 (91)	100.0 (104)	100.0 (89)	100.0 (87)	100.0 (86)	100.0 (546)

나) 국공립유치원 선호 및 이유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할 때 선호하는 유치원 유형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42.9%, 공립단설이 15.4%이고 사립유치원이 41.3%이다(표 V-6-22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이 중소도시, 대도시에 비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71.7%로 다소 높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가구소득은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선호도는 2004년 조사에서의 선호도 국공립유치원 57.4%, 사립유치원 41.2%와 거의 같은 결과이다(표 V-6-22 참조).

〈표 V-6-22〉 유치원에 다니겠다고 보내고 싶은 유치원 형태

단위: %(명)

구 분	학교 병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42.9	15.4	41.3	0.4	100.0(2,373)	
지역규모별						
대도시	35.9	19.4	44.3	0.4	100.0(953)	na
중소도시	42.5	13.7	43.2	0.6	100.0(1,044)	
읍·면	61.6	10.1	28.0	0.3	100.0(375)	
모취업별						
모취업	40.9	15.0	43.2	0.9	100.0(768)	21.8(6)**
미취업	43.1	15.6	41.0	0.3	100.0(1,569)	
모부재	72.2	16.7	11.1	-	100.0(36)	
아동특성별						
영아	47.4	21.1	31.1	0.4	100.0(1,423)	179.3(3)**
유아	36.2	6.9	56.4	0.5	100.0(950)	
가구소득별						
99만원 이하	53.5	10.9	34.7	0.9	100.0(101)	
100~149만원	50.8	17.7	30.9	0.6	100.0(181)	
150~199만원	54.1	16.8	28.8	0.3	100.0(375)	
200~249만원	37.8	19.9	42.0	0.3	100.0(357)	
250~299만원	44.2	12.5	43.2	0.1	100.0(303)	na
300~349만원	44.2	13.8	41.7	0.3	100.0(326)	
350~399만원	44.4	13.9	41.1	0.6	100.0(151)	
400~499만원	38.8	16.7	42.7	1.8	100.0(227)	
500~599만원	33.5	13.2	52.1	1.2	100.0(167)	
600만원 이상	24.1	13.4	62.5	-	100.0(187)	
2004년조사	57.4		41.2	1.4	100.0(1,67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여서가 52.2%, 신뢰가 가서 33.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V-6-23 참조).

유치원 운영주체 선호 이유는 제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영아와 유아를 비교하면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영아는 유아보다 신뢰 때문이라는 비율은 높고 비용이 저렴하여서라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 차이는 대도시에서 신뢰를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모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는 신뢰, 미취업모는 비용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가구소득은 다소 굴곡은 있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신뢰, 낮은 집단은 비용을 이유로 드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V-6-23〉 국·공립 유치원 선호 이유

단위: %(명)

구 분	비용 저렴	신뢰	가까움	교사 자질	보육 내용	기타	계(수)	$\chi^2(df)$
전체	52.2	33.6	2.6	4.8	5.7	1.1	100.0(1,373)	
지역규모별								
대도시	50.0	39.3	1.0	5.0	4.4	0.3	100.0(522)	27.4(10)**
중소도시	53.2	29.7	3.8	5.0	6.7	1.6	100.0(583)	
읍·면	54.7	31.8	3.4	3.7	6.0	0.4	100.0(267)	
모취업별								
모취업	46.3	40.4	3.5	4.7	4.0	1.1	100.0(423)	na
미취업	53.7	31.3	2.3	5.0	6.6	1.1	100.0(920)	
모부재	90.0	10.0	-	-	-	-	100.0(30)	
아동특성별								
영아	49.1	37.0	1.9	5.2	6.5	0.3	100.0(970)	41.3(5)**
유아	59.8	25.8	4.5	3.7	3.7	2.5	100.0(403)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51.6	32.8	6.3	-	9.3	-	100.0(64)	na
100~149만원	61.2	25.6	-	4.1	7.4	1.7	100.0(121)	
150~199만원	66.3	23.9	1.5	2.7	5.3	0.3	100.0(264)	
200~249만원	56.1	29.8	2.4	5.4	4.9	1.4	100.0(205)	
250~299만원	51.7	32.6	3.5	5.8	4.1	2.3	100.0(172)	
300~349만원	48.9	36.6	3.8	4.8	5.4	0.5	100.0(186)	
350~399만원	51.7	27.6	1.1	4.6	13.8	1.2	100.0(87)	
400~499만원	42.1	44.4	1.6	9.5	0.8	1.6	100.0(126)	
500~599만원	38.2	47.4	3.9	6.6	3.9	-	100.0(76)	
600만원 이상	16.9	63.4	4.2	7.0	8.5	-	100.0(7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를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 현재 다니는 기관 이용 관련 의견

1) 기관유형별 지속 이용 예상기간

본 조사에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향후 언제까지 보낼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그만 보내겠다는 경우에 다른 보육·교육기관으로 보낼 의향이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표 V-6-24〉 지속이용 예상 기간

단위: %(명)

구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계	(수)	$X^2(df)$
전체	3.4	43.3	27.8	16.8	6.8	2.0	100.0	(2,049)	
기관유형									
보육시설	4.0	39.4	25.7	18.1	9.9	3.1	100.0	(1,339)	n.a.
유치원	2.0	49.7	32.2	15.0	1.1	-	100.0	(612)	
반일제이상학원	5.3	56.6	27.6	9.2	1.3	-	100.0	(76)	
기타	-	55.0	35.0	10.0	-	-	100.0	(20)	
연령									
만0세	2.3	4.7	18.6	41.9	20.9	11.6	100.0	(43)	n.a.
만1세	6.2	14.6	20.8	25.8	12.9	19.7	100.0	(178)	
만2세	3.0	26.6	26.6	12.4	31.4	-	100.0	(338)	
만3세	5.7	23.7	19.4	51.2	-	-	100.0	(465)	
만4세	1.4	29.7	68.9	-	-	-	100.0	(498)	
만5세 이상	2.3	97.7	-	-	-	-	100.0	(522)	

주: **: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그 결과 <표 V-6-24>에서와 같이 전체 아동의 43.3%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을 12개월~23개월, 27.8%는 24개월~35개월, 16.8%는 36개월~47개월간은 더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1년 미만은 3.4%로 비율이 낮는데, 이는 조사 시점이 3~4월인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연령별로 보면, 취학 전까지 현재의 보육·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다닐 아동은 만5세 이상은 97.7%, 만4세 아동은 68.9%, 만3세 아동은 51.2% 등으로 취학전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취학전에 기관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어떤 기관으로 이동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4.9%는 유치원으로, 11.3%가 보육시설로, 2.1%가 반일제이

상 학원으로, 1.2%는 아무 곳도 안 보낼 예정이다. 현재 보육·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을 보육·교육기관이 아닌 특기교육을 하는 학원으로 보낼 예정인 경우는 0.4%에 그쳤다(표 V-6-25 참조).

〈표 V-6-25〉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단위: %(명)

구분	아무곳도 안보낼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특기학원	계	(수)
전체	1.2	11.3	84.9	2.1	0.1	0.4	100.0	(727)
보육시설	0.9	11.7	86.1	0.9	0.2	0.2	100.0	(648)
유치원	6.8	6.8	65.9	15.9	0.1	4.5	100.0	(44)
반일제이상학원	-	3.8	88.5	7.7	-	-	100.0	(26)
기타	-	22.2	77.8	-	-	-	100.0	(9)

2) 보육시설 지속이용 예상기간

다음은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향후 이용 예상기간을 나타낸다(표 V-6-26 참조).

현재의 보육시설을 취학전까지 계속 이용할 예정인 경우를 연령별로 보면 만5세 아동은 모두 취학전까지 현재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며, 만4세는 55.9%, 만3세는 43.8%, 만 2세는 30.1%, 만1세는 19.8% 그리고 만 0세는 11.6%이다

〈표 V-6-26〉 향후 지속이용 예상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	계	수	평균	F
전체	3.9	39.3	25.7	18.1	9.8	3.2	100.0	(1,342)	24.5	
0세	2.3	4.7	18.6	41.9	20.9	11.6	100.0	(43)	38.6	
만1세	6.2	14.7	20.9	25.4	13.0	19.8	100.0	(177)	34.8	
만2세	3.0	27.4	27.1	12.4	30.1	-	100.0	(329)	29.1	
만3세	7.3	28.1	20.8	43.8	-	-	100.0	(317)	24.8	94.8(6)**
만4세	2.3	41.8	55.9	-	-	-	100.0	(256)	18.6	
만5세	-	100.0	-	-	-	-	100.0	(213)	12.0	
만6세	50.0	-	-	-	25.0	25.0	100.0	(4)	38.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취학전에 기관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86.0%는 유치원으로, 11.7%가 다른 보육시설로, 0.9%가 다른 반일제이상 학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0.8%는 보육·교육기관이용

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취업여부나 지역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유치원으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다른 보육시설로 이동할 계획을 가진 집단은 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직장보육시설 아동 각각 23.2%, 15.4%와 만0세아와 만1세, 만2세아 등 영아들의 경우 각각 30.8%, 18.9%, 12.7%이다. 이처럼 영아와 직장 보육시설 아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육시설 아동은 유치원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표 V-6-27 참조).

〈표 V-6-27〉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단위: %(명)

구분	아무곳도 안보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 상학원	기타	특기학원	계	(수)
전체	0.8	11.7	86.0	0.9	0.3	0.3	100.0	(649)
연령								
만0세	-	30.8	66.7	2.5	-	-	100.0	(39)
만1세	0.8	18.9	79.5	-	0.8	-	100.0	(132)
만2세	-	12.7	85.4	0.9	0.5	0.5	100.0	(213)
만3세	1.8	6.7	89.1	1.8	-	0.6	100.0	(165)
만4세	1.0	-	99.0		-	-	100.0	(97)
지역								
대도시	2.0	11.1	85.7	0.8	-	0.4	100.0	(244)
중소도시	-	12.1	86.2	1.3	0.4	-	100.0	(298)
읍·면	0.9	12.1	85.0	-	1.1	0.9	100.0	(107)
모취업								
취업	0.3	11.6	86.0	1.4	0.4	0.3	100.0	(292)
미취업	1.2	11.9	85.8	0.6	0.2	0.3	100.0	(345)
모부재	-	8.3	91.7	-	-	-	100.0	(12)
시설유형								
국공립	1.7	8.3	88.3	1.7	-	-	100.0	(60)
복지법인	-	9.1	90.9	-	-	-	100.0	(33)
기타법인	-	-	100.0	-	-	-	100.0	(18)
민간	1.0	9.7	87.7	1.2	0.2	0.2	100.0	(413)
가정	-	23.2	75.0	0.9	0.9	-	100.0	(112)
직장	-	15.4	84.6	-	-	-	100.0	(13)

3) 유치원 지속이용 예상기간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현재의 유치원을 취학전까지 계속 이용할 예

정인 경우를 연령별로 보면 만6세 아동은 모두 취학전까지 현재의 유치원에 다닐 계획이며, 만5세는 97.8%, 만4세는 87.4%, 만3세는 77.1%, 만2세는 77.8%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이동할 계획을 가진 아동이 많지는 않다(표 V-6-28 참조).

취학전에 다른 기관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경우, 66.7%는 다른 유치원으로, 15.6%는 반일제이상 학원, 6.7%가 보육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6.7%는 기관이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표 V-6-29 참조).

〈표 V-6-28〉 유치원 향후 지속이용 예상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계	수	평균
전체	2.0	49.6	32.1	15.2	1.1	100.0	(613)	24.5
만2세	-	-	11.1	11.1	77.8	100.0	(9)	44.7
만3세	1.7	8.5	12.7	77.1	-	100.0	(118)	31.9
만4세	-	12.6	87.4	-	-	100.0	(207)	22.7
만5세	2.2	97.8	-	-	-	100.0	(275)	11.9
만6세	100.0	-	-	-	-	100.0	(4)	9.6

〈표 V-6-29〉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단위: %(명)

구분	아무곳도 안보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특기학원	계	(수)
전체	6.7	6.7	66.7	15.6	-	4.3	100.0	(45)
만2세	-	-	50.0	50.0	-	-	100.0	(2)
만3세	4.0	12.0	60.0	20.0	-	4.0	100.0	(25)
만4세	-	-	85.7	7.1	-	7.1	100.0	(14)
만5세	50.0	-	50.0	-	-	-	100.0	(4)

4) 반일제이상 학원 지속이용 예상기간

현재 반일제이상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만5세 아동의 95.8%, 만4세의 51.9%, 만 3세의 26.1%는 다니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취학전까지 다닐 예정이다(표 V-6-30 참조).

취학전 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이들 역시 88.9%가 유치원으로 이동할 계획이다(표 V-6-31 참조).

〈표 V-6-30〉 연령별 반일제이상 학원 지속 이용 예상기간

단위: %(명)개월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계	수	평균
전체	5.2	56.6	27.8	9.2	1.2	100.0	(75)	17.8
만1세	-	-	-	100.0	-	100.0	(1)	36.0
만2세	-	-	-	-	100.0	100.0	(1)	48.0
만3세	8.7	34.8	30.4	26.1	-	100.0	(23)	22.3
만4세	3.7	44.4	51.9	-	-	100.0	(26)	18.0
만5세	4.2	95.8	-	-	-	100.0	(24)	11.7

〈표 V-6-31〉 연령별 다른 기관으로 이동 계획

단위: %(명)

구분	아무곳도 안보낼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특기학원	계	(수)
전체	-	3.7	88.9	7.4	-	-	100.0	(27)
만1세	-	-	100.0	-	-	-	100.0	(1)
만3세	-	6.7	86.7	6.6	-	-	100.0	(15)
만4세	-	-	90.0	10.0	-	-	100.0	(10)
만5세	-	-	100.0	-	-	-	100.0	(1)

라. 양육수당 지급시 보육시설 지속 이용 의사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월 1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자녀를 보육시설에 계속 보낼 것인가를 조사하였다.

영아 부모는 94.9%는 양육수당을 지급해도 아동을 계속 보육시설에 보낼 것이라고 하였고, 4.9%가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용시설 유형별로는 영아가 많이 이용하는 가정보육시설이 11% 수준으로 가장 높다(표 V-6-32 참조).

지역차이는 보육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직접 자녀를 돌볼 의사를 가진 부모의 50.5%는 중소도시 거주자이고 29.1%가 대도시 20.4%가 읍·면 지역 거주자이며, 65.3%는 미취업모이고 34.7%는 취업모이다. 아동의 연령은 11개월 미만 아동이 30.9%,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34.8%, 24개월에서 35개월 아동이 34.2%이다. 소득 수준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인 경우가 46.3%이다.

〈표 V-6-32〉 양육수당 제공시 보육시설 지속 의향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전체
계속 보냄	98.1	96.4	100.0	96.1	88.6	100.0	94.9
집에서 돌봄	1.9	3.6	-	3.5	11.4	-	4.9
모름	-	-	-	0.4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3)	(28)	(12)	(284)	(105)	(9)	(491)

7. 소결

제5장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기관의 보육·교육기관의 이용과 요구 조사 내용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취학 아동 중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아동의 기관 이용 시기 역시 빨라졌다. 조사된 유아 중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경험이 97.8%로 2004년 88.4%에 비해 9.4%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2%만을 제외하고 모두 반일제이상 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다. 영아는 2004년 15.7%에서 2009년 33.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이 평균 30.0개월에 기관을 처음 이용하여 2004년 실태조사 결과 41.39 개월과 비교할 때, 1년 가까이 단축되었다. 이는 연령별로 만2세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과 더 같은 맥락이다.

둘째, 아동 모의 취업여부와 소득계층에 따라 기관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어서, 보육정책 수립시 취업여부와 소득계층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모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부모 대리보호가 51.9%인 반면 미취업모는 71.8%가 아동 발달이다. 기관 이용 시간에서도 하루 9시간 이상 이용하는 취업모는 39.7%인 반면 미취업모는 7.2%이며 1일 이용 시간도 취업모 아동이 평균 1시간 41분 길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 0세아는 조부모나 비혈연인이 아이를 돌본다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친정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셋째, 보육·교육 기관의 부모서비스 수준이 2004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다. 2004년에 비하여 보육·교육 기관에서 보육 및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문 등의 정보와 자녀발달평가에 대해서 통지해주거나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제공 주기는 다소 짧아졌다.

넷째,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유사한 점이 많지만 두 기관의 역할 차이 또한 있다. 아동의 부모가 보육·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집과의 거리 및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고 조사되었으나, 보육시설 선택시에는 집과의 거리를 우선하는 반면,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을 선택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우선시 하고 있다. 기관장이 강조하는 내용 역시 인성지도가 주류이나 여기에 덧붙여 보육시설장은 안전한 보호에, 유치원장은 균형있는 발달 또한 강조하는 내용으로 들었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은 유사함을 나타냈다. 기관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3만2천원, 추가비용 6만5천원으로 총 19만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7%로 2004년과 비교하여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은 월 평균 3만원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8.3%로 2009년에는 다소 낮아졌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비용은 순 비용 11만 4천원, 추가비용 5만 4천원으로 총 16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4%이다. 이는 2004년 순 보육비용 136,000원, 추가 비용 28,300원으로 총 비용 164,300원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추가 비용의 증가로 보육료 면제아동의 37.4%, 보육료 감면아동도 66.4%, 비용 미지원 아동의 79.9%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좋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는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2.4% 가량 감소되었다.

부모 부담 비용의 두드러진 변화는 반일제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이다. 반일제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은 보육료·교육비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기타 기관 이용자가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영어 등 고급 특별프로그램 중심의 학원이나 기타 기관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의 추가 비용도 항목도 많고 액수도 크게 상승하였다. 특별활동의 경우도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증가하여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3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2004년 5.9%에서 2009년 12.8%로,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추가비용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유아 부모와 읍·면 지역, 취업모 및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다.

여섯째,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는 2004년 조사에 비해 비용을 제외하고는 제

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여, 그간의 보육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보육시설 3.68점, 유치원 3.72점, 미술학원 3.60점이다. 한편 지난 5년 간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이다. 보육시설 이용자는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만족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일곱째, 부모의 개선 요구 사항은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아직 재정 확충정책이 필요하며, 이외 시설설비와 주변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국공립과 법인, 직장보육시설은 개선 사항으로 주변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였으나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비용을 지적하였다. 유치원 역시 국공립 유치원은 시설설비와 주변환경을 지적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비용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

여덟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양상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의견조사 결과와 같이 연령별 패턴을 나타내서 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즉 만 1세 미만까지의 이용 1순위 기관은 보육시설이지만, 6개월 미만부터 문화센터 등의 기타 사설기관도 소수 이용하고 만 2세 이상부터 반일제이상 학원이나 기타 특기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만 3세 이상부터 유치원 이용도 증가하며 만 5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이 이용 1순위 기관이 된다.

아홉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경우 국공립에 대한 요구는 과거보다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상당수가 이를 요구한다. 보육시설 이용시 아동이 어릴수록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2004년 조사에서와 같지만 선호하는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시설 38.9%로 2004년 56%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는 비용 요인이 가장 크고 대도시, 미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 및 가정시설은 중소도시와 취업모에게서 높다. 유치원에 대한 선호 요구도 유사한 경향이다.

보육시설 운영 주체별 만족도 점수 평균은 부모협동 4.40점, 직장보육시설 3.98점, 기타법인보육시설 3.93점, 가정보육시설 3.81점, 국공립보육시설 3.73점, 사회복지법인시설 3.71점, 민간보육시설 3.61점 순으로 나타나서 국공립시설의 만족도가 민간시설보다 높기는 하지만 환경 개선 등으로 부모 만족도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열째, 취약보육의 필요도는 시간제 보육 52.8%, 야간보육 34.9%, 휴일보육 23.4%, 24시간 보육 11.4%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나 휴일보육을 제외하고는 2004년도에 비하여 소폭 감소되었다. 이러한 취약보육 수요는 실제 발생 빈도가 간헐적이어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VI.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외에 조부모나 친인척, 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등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동거하는 조부모, 친인척, 비동거 조부모 등의 친인척과 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등 비혈연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비혈연 중 탁아모는 아동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주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웃이나 주변사람 또는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소개받으며 통상 월 단위로 고용되고,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동의 집과 탁아모의 집 등이다. 베이비시터는 베이비시터회사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베이비시터회사로부터 소개받아 주로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용 희망자는 연 회원으로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여 이용한 시간 단위 비용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파출부는 아동 돌보기보다는 가사일이나 우선인 가정 고용인으로 가사를 하면서 아동도 함께 돌보게 되고, 주로 인력회사나 주변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는다.

제6장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아동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실태와 만족도 및 욕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특성

가. 이용 아동 비율

전체 조사대상 아동 7,456명 중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1,468명으로 전체 아동의 19.7%에 해당한다. 이들을 아동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영아의 경우 전체 아동 1,743명 중 483명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27.7%에 해당되며, 유아는 23.6%, 초등학교 저학년은 18.0%, 초등학교 고학년은 12.2%로, 영유아는 25.8%, 초등학생은 14.8%가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표 VI-1-1 참조).

또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개인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기관과 함께 이용하는 아동이 있다. 영아의 17.1%는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

용 아동이다. 유아는 0.8%가 단독이용 아동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1.6%는 단독, 16.4%는 중복이용이고, 고학년생은 0.9%는 단독 11.2%는 기관에도 다니면서 개인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이다(표 VI-1-1 참조).

〈표 VI-1-1〉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전체	2004년 조사
	영아	유아	소계	저학년	고학년	소계		
전체 보육대상아동(a)	1,743	1,560	3,304	1,929	2,223	4,152	7,456	6,412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	483	368	852	347	270	615	1,468	1,079
비율(b/a)	27.7	23.6	25.8	18.0	12.2	14.8	19.7	16.8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298	13	312	31	21	52	363	398
비율(c/a)	17.1	0.8	9.4	1.6	0.9	1.3	4.9	6.2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 이용 아동(d)	185	355	540	316	249	563	1,105	682
비율(d/a)	10.6	22.8	16.2	16.4	11.2	13.6	14.8	10.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을 기관이용과 병행하여 이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단독 이용에 한하여 산출해 보면 다음 <표 VI-1-2>, <표 VI-1-3>과 같다.

〈표 VI-1-2〉 아동구분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초등학생			전체	2004년 조사
	영아	유아	전체	초저	초고	전체		
혈연	15.6	0.8	8.7	1.6	0.9	1.2	4.5	6.0
동거조부모	5.9	0.3	3.2	0.9	0.8	0.8	1.9	2.9
비동거조부모	8.6	0.5	4.8	0.6	0.1	0.3	2.3	2.4
동거친인척	0.2	0.1	0.2	0.1	-	-	0.1	0.2
비동거친인척	0.9	-	0.5	0.1	-	-	0.2	0.5
비혈연	1.8	0.1	0.9	0.1	0.04	0.02	0.4	0.5
동거비혈연	0.2	0.1	0.2	0.1	-	-	0.1	-
육아전문 파견인력	0.5	-	0.2	0.0	-	-	0.1	-
기타 비혈연	1.1	-	0.6	0.0	-	-	0.3	-
(수)	(1,743)	(1,560)	(3,304)	(1,929)	(2,223)	(4,152)	(7,456)	(6,412)

주: 영아에 2009년 출생아 포함됨.

먼저 아동 전체를 보면, 혈연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4.5%,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0.4%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는 혈연 6.0%, 비혈연 0.5%로, 본 조사결과가

2004년에 비해서 낮다.

아동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혈연 15.6%, 비혈연 1.8%이다. 유아는 혈연 0.8%, 비혈연 0.1%이며, 초등학교 전체는 혈연이 1.2%이고, 비혈연은 한 사례가 조사되었다(표 VI-1-2 참조).

영유아만 살펴볼 경우,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단독이용률은 혈연 8.0%, 비혈연 1.0%로 2004년 조사결과 보다 약간 낮다. 세부적으로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0세아는 혈연의 비율이 25.2%이며, 동거조부모 9.3%, 비동거 조부모 11.7%로 다수이고 비동거 친인척도 1.1%이다. 비혈연은 3.4%이다. 만1세아는 혈연의 비율이 13.8%, 비혈연 1.4%로 0세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만2세아는 혈연 7.2%, 비혈연 0.8%로 혈연이 돌보는 아동이 많다. 그러나 3세가 되면 혈연의 비율은 1.8%로 급격하게 감소한다(표 VI-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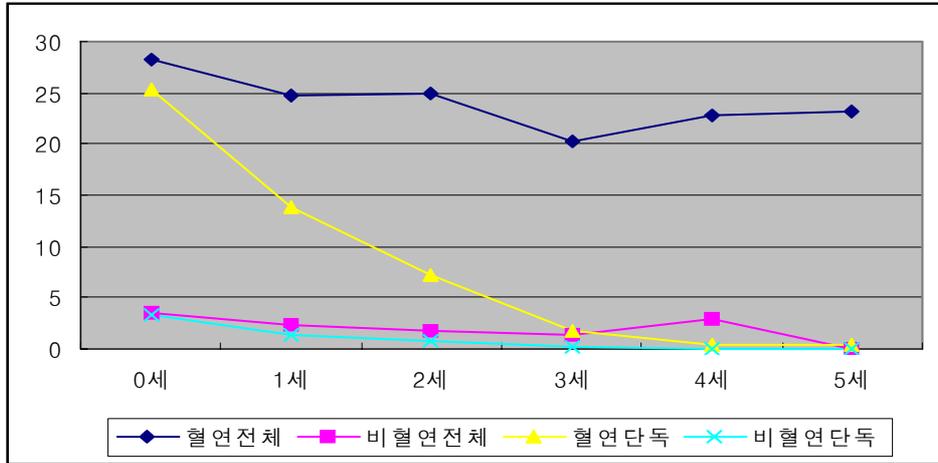
<표 VI-1-3>과 [그림 V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이용률을 전체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0세아의 이용 대부분은 단독이용률이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기관과 중복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VI-1-3〉 영유아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률

단위: %(명)

구분	0 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2004년 조사
전체	28.0	15.0	7.6	1.8	0.4	0.4	9.1	-
혈연	25.2	13.8	7.2	1.8	0.4	0.4	8.0	9.4
동거조부모	9.3	6.3	2.1	1.0	-	-	3.1	4.1
비동거조부모	11.7	6.8	3.8	0.8	-	0.2	4.2	4.6
동거친인척	0.3	0.3	-	-	-	0.2	0.2	0.3
비동거친인척	1.1	0.3	1.1	-	-	-	0.5	0.9
비혈연	3.4	1.4	0.8	0.2	-	-	1.0	1.1
동거비혈연	0.5	0.2	-	0.2	-	-	0.2	-
육아전문과견인력	0.9	0.2	0.2	-	-	-	0.2	-
기타 비혈연	1.4	1.0	0.6	-	-	-	0.5	-
(수)	(535)	(573)	(527)	(513)	(510)	(521)	(3179)	(2,963)
중복이용 포함								
혈연전체	28.2	24.7	25.0	20.3	22.7	23.1	23.2	-
비혈연전체	36	23	17	14	29	-	1.2	-

한편, 개인서비스만을 중복하여 이용하는 아동은 소수이다. 앞에서(제4장) 본 바와 같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 1,468명 중 0.1%인 10명만이 2개의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I-1-1] 이용형태별 개인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혈연인이 돌보고 있는 아동수는 2명을 돌보고 있는 혈연인이 4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명으로 38.3%이다. 아동의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혈연인이 1명 돌보는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데 비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은 2명 돌보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혈연인이 돌보는 아동수는 평균 1.78명이며,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고, 초등학교 고학년 1.84명보다는 저학년이 1.91명으로 더 많다(표 VI-1-4 참조).

<표 VI-1-4>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혈연인이 돌보는 총 아동 수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계(수)	평균
전체	38.3	48.2	11.0	1.8	0.7	100.0(1,528)	1.78
영아	50.0	39.6	9.6	0.8	-	100.0(500)	1.81
유아	33.9	52.7	10.0	2.3	1.0	100.0(389)	1.84
초등저학년	29.8	53.1	13.8	2.5	0.8	100.0(356)	1.91
초등고학년	34.3	51.2	11.3	2.1	1.1	100.0(283)	1.84

나. 이용아동 특성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제 특성 분포를 보면 <표 VI-1-5>와 같다.

동거 조부모가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유아보다는 영아가, 초등학교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많다. 지역별로는 읍·면보다는 대도시에서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67.5%로 2/3 이상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거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유아가 가장 높았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영아의 비율이 더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동거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더 높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나 모부재인 경우보다 동거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다(표 VI-1-5 참조).

〈표 VI-1-5〉 아동구분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제공자

단위: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동거 비혈연	육아전문 파견인력	기타 비혈연	전체
연령구분								
영아	26.5	36.4	22.2	29.9	41.7	75.0	40.3	31.9
유아	20.7	28.7	30.6	26.2	16.7	25.0	35.8	25.4
초등학교저학년	26.0	22.4	30.6	29.0	33.3	-	10.4	24.0
초등학교고학년	26.7	12.6	16.7	15.0	8.3	-	13.4	18.7
지역								
대도시	43.1	49.9	51.4	54.2	81.8	33.3	55.9	46.8
중소도시	37.8	39.3	48.6	41.1	18.2	50.0	25.0	38.5
읍·면	19.1	10.8	-	4.7	-	16.7	19.1	14.7
모취업 여부								
취업	67.5	73.3	74.3	63.6	90.9	90.9	77.6	70.5
미취업	21.7	23.0	14.3	32.7	9.1	9.1	11.9	23.3
모부재	8.8	3.7	11.4	3.7	-	-	10.4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603)	(621)	(35)	(107)	(11)	(12)	(68)	(1,448)

비동거조부모는 미취학아동의 비율이 65.1%로 다수이고, 동거 조부모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으며, 취업모의 비율이 73.3%이다. 이는 2004년 조사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동거 친인척은 제 특성별로 뚜렷한 차이는 없다. 비동거 친인척은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율은 낮은 편이나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취업모가 영유아를 돌보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 비혈연 역시 사례수가 11개에 불과하지만 대도시의 취업모가 영아 보육을 위하여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전문파견인력은 취업모의 이용이 90% 이상이며, 대도시나 읍·면보다 중소도시 비율이 높다(표 VI-1-5 참조).

다. 이용 이유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이유로는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라는 응답이 30.6%, 비용부담이 14.7%,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이 13.2%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해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와 비용부담은 비율이 낮았으나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들,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은 2004년에 비해 높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영아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서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이 7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아의 경우에는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 26.7%, 비용부담 때문이 20.0%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다는 비율은 6.7%이다. 환경변화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13.3%이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비용부담이 23.5%, 1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도 각각 23.1%, 17.0%로 비율이 높다(표 VI-1-6 참조).

<표 VI-1-6> 아동 연령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전체	2004년 조사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	72.8	26.7	0.4	0.5	30.6	53.0
비용부담	6.0	20.0	23.5	17.5	14.7	30.8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들	7.5	13.3	12.2	10.8	9.9	2.0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0.9	6.7	0.4	0.5	0.7	-
시설 환경 열악	0.9	-	0.4	0.5	0.6	-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함	4.2	-	2.4	1.9	2.9	2.5
환경변화로 정서적으로 안 좋을까봐	1.8	13.3	3.1	1.9	2.4	4.0
이용희망 기관대기자가 많아서	1.2	-	0.4	-	0.6	-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3.6	6.7	23.1	17.0	13.2	3.7
기타	1.2	13.3	34.1	49.5	24.2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5)	(15)	(255)	(212)	(817)	(402)

2004년 조사와 비교하여 유아가 비용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2004년에는 62.3%이었으나 2009년 20.0%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VI-1-7>은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이용 이유를 조사한 것인데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모두 아이가 어려 기관 적응에 힘들까봐가 각

각 69.6%와 75.2%, 57.4%로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지역별 차이를 보여 대도시는 원하는 시간 이용이 힘들어, 그리고 중소도시와 읍·면은 비용부담이었으며, 특히 읍·면의 비율이 10.6%로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어려 기관 적응에 힘들기 때문 을 우선 이유로 지적하고, 그 외 취업모는 비용부담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조사 되었다.

〈표 VI-1-7〉 지역 및 모 취업별 영유아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			모취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미취업	부재	
너무 어려 기관적응 힘들까봐	69.6	75.2	57.4	67.8	76.1	-	70.9
비용부담	4.7	8.1	10.6	8.2	3.5	50.0	6.6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들	10.5	4.5	6.4	7.7	7.7	-	7.7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1.2	0.7	2.1	1.9	-	-	1.1
시설 환경 열악	1.8	-	-	1.4	0.7	-	0.9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함	4.1	3.6	6.4	3.4	4.9	-	4.0
환경변화로 정서적으로 안 좋을까봐	1.8	3.6	2.1	3.4	0.7	-	2.3
이용희망 기관대기자가 많아서	-	-	8.5	1.0	-	50.0	1.1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3.5	3.6	6.4	2.9	5.6	-	3.7
기타	2.9	0.7	-	2.4	0.7	-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1)	(137)	(47)	(208)	(142)	(4)	(350)

2. 혈연인에 의한 지원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제2절은 혈연인에 의한 개인 양육 지원으로 이용행태, 비용,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각 주제별로 전체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제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이용 행태

1) 주로 돌보는 사람

아동을 돌보는 동거 또는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인 중 아이를 가장 많

이 돌봐주는 사람은 동거 친조부모 31.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비동거 외조부모로 25.8%이며 비동거 친조부모가 19.4%, 동거 외조부모 13.5%의 순이다. 2004년 조사결과는 동거조부모 53.8%, 동거친인척 36.7%로, 2009년 본 조사가 이용비율이 2004년보다 낮다(표 VI-2-1 참조).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영아와 유아는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각각 34.6%, 29.2%의 순으로 높고, 초등학생은 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저학년 34.3%, 고학년 46.2%로 가장 높다.

〈표 VI-2-1〉 아이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전체	X ² (df)
전체	31.2	13.5	19.4	25.8	2.4	7.6	100.0(1,448)	
영아	26.5	11.6	18.7	34.6	1.5	7.1	100.0(465)	
유아	23.1	13.8	22.3	29.2	3.9	7.7	100.0(363)	83.0(15)**
초등저학년	34.3	13.3	19.9	20.2	2.9	9.5	100.0(347)	
초등고학년	46.2	16.8	16.1	13.6	1.5	5.9	100.0(273)	
2004년 조사	53.8		2.4		36.7	7.1	100.0(1,009)	38.5(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다음 <표 VI-2-2>는 영유아만 대상으로 제 특성별 혈연인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시한 것으로 비동거 외조부모 32.2%, 동거 친조부모 25.0%, 비동거 친조부모 20.3%, 동거외조부모 12.6% 등의 순으로 높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거 친조부모 및 비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높고, 도시는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높다. 이외 비동거 친인척의 경우에도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지역에서 비율이 높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나 미취업모 모두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취업모는 동거 외조부모 및 비동거 친조부모의 이용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다. 모 부재일 경우 동거 및 비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높다.

이용유형별로는 뚜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혈연 단독이나 기관이용 보완 시에 비동거 친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표 VI-2-2 참조).

초등학생의 경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높고, 도시는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비율이 높다(표 VI-2-3 참조).

〈표 VI-2-2〉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2(df)$
전체	25.0	12.6	20.3	32.2	2.5	7.4	100.0(828)	
지역규모								
대도시	24.4	10.4	20.3	34.8	2.9	7.3	100.0(385)	
중소도시	20.6	13.7	18.5	34.9	3.0	9.3	100.0(335)	38.1(10)**
읍·면	40.4	16.5	25.7	14.7	-	2.8	100.0(109)	
모취업 여부								
취업	20.8	16.0	22.6	31.5	2.4	6.7	100.0(549)	
미취업	30.2	6.3	13.9	37.3	2.8	9.5	100.0(252)	59.1(10)**
모부재	57.1	-	32.1	-	7.1	3.6	100.0(28)	
이용유형								
혈연 단독	25.5	8.5	27.4	33.0	-	5.7	100.0(106)	
반일제 보완	20.4	14.7	21.2	32.2	4.2	7.3	100.0(382)	na
비혈연 보완	-	-	14.3	28.6	-	57.1	100.0(7)	
부모 보완	30.0	11.7	17.4	32.1	1.5	7.2	100.0(33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VI-2-3〉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2(df)$
전체	39.5	14.8	18.2	17.3	2.3	7.9	100.0(620)	
지역규모								
대도시	30.9	19.6	17.5	18.2	1.8	11.9	100.0(285)	
중소도시	42.0	12.7	19.6	16.7	3.7	5.3	100.0(245)	42.8(10)**
읍·면	60.0	5.6	15.6	16.7	-	2.2	100.0(90)	
모취업 여부								
취업	37.3	16.0	18.3	19.4	2.3	6.6	100.0(469)	
미취업	40.6	15.1	13.2	15.1	1.9	14.2	100.0(106)	34.5(10)**
모부재	61.4	-	29.5	-	4.5	4.5	100.0(44)	
이용유형								
혈연 단독	35.8	13.8	17.0	22.9	2.8	7.8	100.0(218)	
기관 보완	37.8	17.1	14.4	19.8	3.6	7.2	100.0(111)	na
비혈연 보완	-	-	-	100.0	-	-	100.0(1)	
부모 지원	43.1	14.8	20.7	11.7	1.7	7.9	100.0(29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외 비동거 친인척의 경우에도 도시지역, 특히 중소도시에서 비율이 높다. 현재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나 미취업모 모두 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취업모는 비동거 친조부모 및 비동거 외조부모의 이용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다. 모 부재일 경우 동거 및 비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높다. 한편으로 이용 유형별로는 뚜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혈연 단독이나 기관이용 보완 부모지원 시에 동거 친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표 VI-2-3 참조).

<표 VI-2-4>는 영유아 중에서 어머니가 취업 중인 아동만을 선택하여 특성별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영아는 비동거 외조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아는 동거 친조부모와 비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영아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영유아 전체와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및 비동거 친조부모의 비율이 높고, 도시는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높다. 이용유형별 차이는 혈연 단독이 비동거 친조부모 및 비동거 외조부모가 지원한다는 비율이 높다.

<표 VI-2-4> 모취업의 영유아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가족이나 친인척

단위: %(명)

구 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 ² (df)
전체	20.9	16.0	22.7	31.5	2.2	6.7	100.0(550)	
아동특성								
영아	19.6	16.4	21.8	34.3	1.1	6.8	100.0(280)	5.4(5)
유아	22.2	15.6	23.7	28.5	3.3	6.7	100.0(270)	
지역규모								
대도시	18.0	11.3	24.1	35.7	4.1	6.8	100.0(266)	
중소도시	19.9	19.4	18.0	33.5	1.0	8.3	100.0(206)	39.4(10)**
읍·면	32.1	23.1	30.8	11.5	-	2.6	100.0(78)	
이용유형								
혈연 단독	20.8	9.4	27.1	36.5	-	6.3	100.0(96)	
반일제 보완	18.7	17.3	21.8	30.6	4.4	7.1	100.0(294)	na
비혈연 보완	-	-	14.3	28.6	-	57.1	100.0(7)	
부모 보완	25.5	18.3	22.2	30.1	-	3.9	100.0(15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중복 이용 여부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다른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결과 22.4%만이 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34.0%는 기관 이용을 보완하여 이용하며, 43.1%는 부모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연령구분별로는 혈연단독이라는 응답이 영아 19.6%, 유아 4.1%이고 초등학생이 30% 이상으로 초등학생이 혈연단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보다 높았다.⁴⁵⁾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보완한다는 응답이 영아 24.5%, 유아 73.8%로 유아가 높게 조사되었다. 보육서비스 제공자별로는 동거친인척이 기관 이용 보완 비율이 다소 높고 이외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표 VI-2-5 참조).

〈표 VI-2-5〉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 분	혈연 단독	기관이용 보완	비혈연 보완	부모 양육지원	기타	계(수)
전체	22.4	34.0	0.5	43.1	0.1	100.0(1,448)
연령구분						
영아	19.6	24.5	0.6	55.1	0.2	100.0(465)
유아	4.1	73.8	0.8	21.3	-	100.0(362)
초등저학년	33.7	19.9	0.3	46.1	-	100.0(347)
초등고학년	36.9	15.3	-	47.8	-	100.0(274)
돌보는 사람						
동거 친조부모	23.6	26.7	-	49.8	-	100.0(450)
동거 외조부모	19.9	38.3	-	41.8	-	100.0(196)
비동거 친조부모	23.4	34.4	0.4	41.8	-	100.0(2,820)
비동거 외조부모	22.7	38.8	0.3	38.0	0.3	100.0(274)
동거 친인척	16.7	52.8	-	30.6	-	100.0(36)
비동거 친인척	20.9	32.7	3.6	42.7	-	100.0(110)

〈표 VI-2-6〉은 영유아 특성별 중복이용 여부로, 영아와 유아가 차이를 나타내지만, 영유아 전체로는 12.8%만이 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46.1%는 기관 이용을 보완하여 이용하며, 40.3%는 부모양육을 지원한다. 지역 및 모의 취업여부별로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되는지를 보면,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반일제이상 기관 보완 비율이 54.6%로 도시보다 높고 도시에서는 부모 양육 지원이 40% 이상으로 30% 수준인 읍·면보다 높게 조사되었다(표 VI-2-6 참조).

45)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등은 교육이므로 양육지원 중복이용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표 VI-2-6〉 영유아 특성별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 분	혈연 단독	기관이용 보완	비혈연 보완	부모양육 지원	기타	계(수)
전체	12.8	46.1	0.7	40.3	0.1	100.0(827)
지역규모						
대도시	11.9	47.3	0.5	40.0	0.3	100.0(385)
중소도시	12.8	42.1	1.2	43.9	-	100.0(335)
읍·면	15.7	54.6	-	29.6	-	100.0(108)
모취업여부						
취업	17.5	53.5	0.9	27.9	0.2	100.0(548)
미취업	1.2	30.7	-	68.1	-	100.0(251)
모부재	25.9	40.7	-	33.3	-	100.0(27)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는 혈연단독이라는 응답이 17.5%, 기관 이용보완이 53.5%이고 부모양육 지원은 27.9%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혈연단독이 1.2%에 불과하고 다수인 68.1%가 부모양육 지원이며, 30.7%가 기관 이용을 보완으로 혈연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VI-2-6 참조).

초등학생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큰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35.1%가 혈연단독 이용이고 17.9%가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과 중복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표 VI-2-7 참조).

〈표 VI-2-7〉 초등학생 특성별 혈연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 분	혈연 단독	기관이용 보완	비혈연 보완	부모 양육 지원	계(수)
전체	35.1	17.9	0.2	46.9	100.0(621)
지역규모					
대도시	41.1	16.1	0.4	42.5	100.0(285)
중소도시	27.9	23.4	-	48.8	100.0(244)
읍·면	36.7	7.8	-	55.6	100.0(90)
모취업여부					
취업	42.8	20.2	0.2	36.8	100.0(470)
미취업	0.9	10.3	-	88.8	100.0(107)
모부재	36.4	11.4	-	52.3	100.0(44)

지역 및 모의 취업여부별로 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중복 이용 여부를 보면, 먼저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반일제이상 기관 보완 비율이 7.8%로 낮고 부모양육 지원이 55.6%로 높다. 특히 중소도시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보완한다는 비율이 23.4%로 비교적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는 혈연단독이라는 응답이 42.8%, 기관

이용보완이 20.2%이고 부모 지원은 36.8%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혈연단독이 0.9%로 거의 없고 다수인 88.8%가 부모 양육지원의 보완이며, 10.3%가 기관 이용을 보완으로 혈연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모 부재 아동은 혈연 단독 36.4%, 부모 양육 지원 52.3%이다.

다음 <표 VI-2-8>은 영유아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아동연령구분, 지역 및 소득수준별로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중복 이용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영아와 유아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영아는 30.8%가 혈연 단독이고 30.5%가 기관 이용 보완이며 37.3%가 부모 양육 지원인 반면에 유아는 76.8%가 기관 이용 보완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I-2-8> 영유아 취업모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혈연 단독	반일제이상 기관이용 보완	비혈연 보육 보완	부모 양육 지원	기타	계(수)
전체	17.6	53.3	1.1	27.8	0.2	100.0(550)
아동특성						
영아	30.8	30.5	1.1	37.3	0.4	100.0(279)
유아	4.1	76.8	1.1	18.1	-	100.0(271)
지역규모						
대도시	16.9	53.9	0.7	28.1	0.4	100.0(267)
중소도시	18.5	47.3	2.0	32.2	-	100.0(205)
읍·면	17.7	67.1	-	15.2	-	100.0(7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3.1	30.8	-	46.2	-	100.0(13)
100~149만원	14.8	63.0	-	22.2	-	100.0(27)
150~199만원	8.8	52.9	-	35.3	2.9	100.0(34)
200~249만원	5.6	52.8	-	41.7	-	100.0(36)
250~299만원	8.6	69.0	-	22.4	-	100.0(58)
300~349만원	17.7	50.0	-	32.3	-	100.0(62)
350~399만원	22.2	47.2	-	30.6	-	100.0(36)
400~499만원	28.9	48.9	1.1	21.1	-	100.0(90)
500~599만원	15.8	48.7	-	35.5	-	100.0(76)
600만원 이상	19.2	55.8	3.3	21.7	-	100.0(120)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반일제이상 기관 보완 비율이 67.1%로 도시보다 높고 도시에서는 부모 양육 지원이 28.1%, 32.2%로 읍·면 15.2%보다 높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혈연단독 응답이 소득수준 150만원~299만원 사이가 10% 미만으로 다른 수준에 비하여 낮다. 즉, 소득수준이 높거나 낮을 경우 중간집단에 비하여 단독 이용보다는

기관 이용 보완으로 중복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이용일수 및 시간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의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이 24.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이 12.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 27.0%이고, 이외 36.1%는 간헐적 또는 불규칙하게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2-9 참조).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영아가 불규칙하게 돌본다는 비율이 36.6%로 다소 높으나 연령별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표 VI-2-9〉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단위: %(명)

구 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24.3	12.6	27.0	5.4	30.4	0.3	100.0(1,450)	
영아	17.6	12.9	27.5	5.2	36.6	0.2	100.0(465)	
유아	28.4	11.3	30.0	6.3	23.7	0.3	100.0(363)	36.2(15)**
초등저학년	23.1	14.4	27.4	5.8	29.1	0.3	100.0(347)	
초등고학년	31.6	11.6	21.8	4.0	30.5	0.4	100.0(2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특성별 차이를 보면, 영유아의 경우 지역별로는 읍·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이 42.2%로 돌보는 일수도 길고 또한 상시적으로 돌보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간헐 또는 불규칙하게 돌보는 비율이 19.1%로 상시적으로 돌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미취업모는 77.7%가 간헐 또는 불규칙하게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유형별로는 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 상시이용 비율이 높는데, 요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이 49.1%로 가장 비율이 높다(표 VI-2-10 참조).

초등학생의 경우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별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주 7일이 읍·면과 중소도시가 35.6%, 32.2%로 대도시보다 길고 대도시는 주 5일이 상대적으로 길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영유아와 비슷하게 취업모가 간헐 또는 불규칙하게 돌보는 비율이 21.9%로 상시적으로 돌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미취업모는 71.7%가 간헐 또는 불규칙하게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유형별로 보면 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 상시이용 비율이 높는데, 이 역시 영유아와 유사하게 요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이 37.4%로 가장 비율이 높다(표 VI-2-11 참조).

〈표 VI-2-10〉 영유아 특성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단위: %(명)

구 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2.3	12.2	28.6	5.7	30.9	0.2	100.0(828)	
지역규모								
대도시	15.6	12.7	35.8	6.2	29.4	0.3	100.0(385)	
중소도시	23.6	11.9	23.9	4.2	36.1	0.3	100.0(335)	55.1(10)**
읍·면	42.2	11.0	16.5	9.2	20.2	0.9	100.0(109)	
모취업 여부								
취업	23.7	16.4	40.9	5.7	13.0	0.4	100.0(548)	
미취업	15.1	3.2	4.0	6.3	71.0	0.4	100.0(252)	
모부재	57.1	10.7	10.7	-	21.4	-	100.0(28)	
이용유형								
혈연 단독	27.4	14.2	49.1	3.8	4.7	0.9	100.0(106)	
기관 보완	23.4	12.3	31.2	6.6	26.2	0.3	100.0(381)	na
비혈연 보완	-	-	16.7	16.7	66.7	-	100.0(6)	
부모 지원	19.8	11.7	19.5	5.4	43.7	-	100.0(3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VI-2-11〉 초등학생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단위: %(명)

구 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전체	26.8	13.2	24.9	5.0	29.7	0.3	100.0(622)
지역규모							
대도시	19.6	12.3	31.2	4.2	32.3	0.4	100.0(285)
중소도시	32.2	15.1	20.4	5.3	26.5	0.4	100.0(245)
읍·면	35.6	11.1	17.8	5.6	30.0	-	100.0(90)
모취업 여부							
취업	23.8	15.7	31.9	6.2	21.9	0.4	100.0(470)
미취업	22.6	1.9	1.9	1.9	71.7	-	100.0(106)
모부재	72.1	11.6	4.7	-	11.6	-	100.0(43)
이용유형							
혈연 단독	27.9	14.2	37.4	2.7	17.4	0.5	100.0(219)
기관 보완	28.2	17.3	23.6	7.3	23.6	-	100.0(110)
부모 지원	25.8	10.7	16.2	5.8	41.2	0.3	100.0(291)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표 VI-2-12>는 영유아 중에서 어머니가 취업 중인 아동만을 선택하여 제 특성별 차이를 제시하였다.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유아가 주 7일을 돌본다는 비율이 높고 영아는 주 6일 및 5일이 유아에 비하여 높다. 지역별로는 주 7일은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높고 주5일은 그 반대이다. 이용유형별로는 주 5일 비율이 혈연단독에서 가장 높다.

<표 VI-2-12> 영유아 특성별 취업모의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단위: %(명)

구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23.7	16.4	40.9	5.8	12.8	0.4	100.0(548)	
아동특성								
영아	17.6	19.8	43.2	4.3	14.7	0.4	100.0(278)	17.4(5)**
유아	30.0	13.0	38.5	7.4	10.7	0.4	100.0(270)	
지역규모								
대도시	15.0	16.2	50.0	5.6	12.8	0.4	100.0(266)	
중소도시	29.4	17.2	36.8	3.9	12.3	0.5	100.0(204)	na
읍·면	38.0	15.2	21.5	10.1	15.2	-	100.0(79)	
이용유형								
혈연 단독	25.0	15.6	51.0	4.2	3.1	1.0	100.0(96)	
기관 보완	23.9	14.3	39.6	7.2	14.7	0.3	100.0(293)	na
비혈연 보완	-	-	16.7	16.7	66.7	-	100.0(6)	
부모 지원	23.5	21.6	37.9	3.9	13.1	-	100.0(15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4) 장소 및 집과의 거리

가) 장소

조부모나 친인척 등 혈연이 돌보아 주는 경우에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는 72.4%가 보육대상 아동의 집이며, 27.6%가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에서는 아이의 집이 34.4%로 돌보는 사람의 집이 65.6%로 2009년 조사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아동의 연령구분별로는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미취학아동은 영아 33.4%, 유아 28.3%이고, 취학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26.0%, 19.0%이다(표 VI-2-13 참조).

〈표 VI-2-13〉 혈연인이 주로 돌보는 장소

구 분	단위: %(명)			X ² (df)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전체	72.4	27.6	100.0(1,448)	
영아	66.6	33.4	100.0(464)	
유아	71.7	28.3	100.0(364)	18.5(3)**
초등저학년	74.0	26.0	100.0(346)	
초등고학년	81.0	19.0	100.0(274)	
2004년 조사	34.4	65.6	100.0(442)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영유아 전체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에 31.2%가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높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는 아이 돌보는 집이 36.1%인데 비해 미취업모는 21.9%이며, 모 부재일 경우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취업모나 미취업모에 비해 높다. 이용유형별로는 혈연단독 이용시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반일제 보완 시에도 돌보는 장소는 31.4%가 돌보는 사람의 집이다(표 VI-2-14 참조).

〈표 VI-2-14〉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특성별 혈연인이 주로 돌보는 장소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X ² (df)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X ² (df)
전체	68.8	31.2	100.0(828)		77.1	22.9	100.0(620)	
지역규모								
대도시	65.7	34.3	100.0(385)		73.8	26.2	100.0(286)	
중소도시	69.8	30.2	100.0(334)	5.3(2)	81.2	18.8	100.0(245)	4.2(2)
읍·면	77.1	22.9	100.0(109)		75.6	24.4	100.0(90)	
모취업 여부								
취업	63.9	36.1	100.0(548)		76.6	23.4	100.0(470)	
미취업	78.1	21.9	100.0(251)	18.6(2)**	77.6	22.4	100.0(107)	0.2(2)
모부재	82.1	17.9	100.0(28)		79.5	20.5	100.0(44)	
이용유형								
혈연 단독	50.0	50.0	100.0(104)		72.9	27.1	100.0(218)	
반일제 보완	68.6	31.4	100.0(382)	na	82.9	17.1	100.0(111)	na
비혈연 보완	83.3	16.7	100.0(6)		100.0	-	100.0(1)	
부모 보완	74.8	25.2	100.0(333)		77.9	22.1	100.0(29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초등학생 전체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에 22.9%가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로 이동을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하여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높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며, 이용유형별로는 혈연단독 이용시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27.1%로 높고, 반일제 보완 시에도 돌보는 장소는 17.1%가 돌보는 사람의 집이다(표 VI-2-14 참조).

취업모의 영유아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에 36.1%가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로 이동을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별로는 돌보는 사람의 집이라는 비율이 영아 41.4%, 유아 30.6%로 영아가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으로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높다. 이용유형별로는 혈연단독 이용시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52.6%로 가장 높고, 반일제 보완 시에도 33.4%가 돌보는 사람의 집이다(표 VI-2-15 참조).

〈표 VI-2-15〉 취업모의 영유아 혈연인 보육시 주로 돌보는 장소

구 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전체	단위: %(명) $X^2(df)$
전체	63.9	36.1	100.0(549)	
아동특성별				
영아	58.6	41.4	100.0(278)	6.9(1)**
유아	69.4	30.6	100.0(271)	
지역규모별				
대도시	59.2	40.8	100.0(265)	
중소도시	65.2	34.8	100.0(204)	7.6(2)*
읍·면	75.9	24.1	100.0(79)	
이용유형				
혈연 단독	47.4	52.6	100.0(95)	
반일제 보완	66.6	33.4	100.0(293)	na
비혈연 보완	83.3	16.7	100.0(6)	
부모 보완	68.6	31.4	100.0(15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는 $p<.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나)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볼 경우 집과의 거리

아이를 돌보는 장소가 아이의 집이 아니고 조부모나 친인척의 집에서 돌봐주는 경우에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 거주지는 대부분이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살지만,

승용차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 9.0%이고, 승용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아동을 맡기는 경우는 4.9%이다(표 VI-2-16 참조). 2004년 조사결과에서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인 경우가 63.0%이었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에 아동을 맡기는 경우가 20.0%나 되었다. 조부모, 친인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집과의 거리는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가 초등학생보다 먼거리에 있는 혈연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다. 영아는 14.2%가 30분 이상 1시간 이내이고, 9.1%가 차로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혈연이 돌보고 있다. 차로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혈연이 돌본다는 비율은 유아는 2.9%에 불과하다(표 VI-2-16 참조).

〈표 VI-2-16〉 아이를 맡긴 장소와 집과의 거리

단위: %(명)

구 분	차로 30분 이내	차로 30분~1시간	차로 1~2시간	차로 2시간 이상	계(수)
전체	86.0	9.0	2.2	2.7	100.0(401)
영아	76.8	14.2	3.9	5.2	100.0(155)
유아	89.4	7.7	1.9	1.0	100.0(104)
초등저학년	96.7	2.2	1.1	-	100.0(90)
초등고학년	88.5	7.7	-	3.8	100.0(52)
2004년 조사	63.0	17.1	12.9	7.1	100.0(170)

영유아는 전체적으로 11.6%는 30분 이상 1시간 이내 거리에, 6.6%는 승용차로 1시간 이상 거리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아동을 돌보게 한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특히 중소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아동을 맡기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인 경우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 지원유형별로는 혈연 단독인 경우에 원거리에 맡긴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표 VI-2-17 참조).

초등학생의 경우는 93.7%인 대부분이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이고, 4.2%가 승용차로 30분에서 1시간이고, 승용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아동을 맡기는 경우도 2.1%가 된다. 영유아보다는 먼거리에 맡기는 비율이 낮다. 지역별로는 읍·면에서 먼거리에 있는 혈연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오히려 높고, 지원유형별로는 혈연 단독인 경우에 원거리에 맡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경향이다(표 VI-2-17 참조).

〈표 VI-2-17〉 영유아 및 초등학생 특성별 아이를 맡긴 곳과 집과의 거리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차로 30분 이내	차로 30분~1 시간	차로 1~2 시간	차로 2시간 이상	계(수)	차로 30분 이내	차로 30분~1 시간	차로 1~2 시간	차로 2시간 이상	계(수)
전체	81.9	11.6	3.1	3.5	100.0(259)	93.7	4.2	0.7	1.4	100.0(142)
지역규모										
대도시	84.1	12.1	2.3	1.5	100.0(132)	93.2	4.1	-	2.7	100.0(74)
중소도시	79.0	12.0	4.0	5.0	100.0(100)	97.8	2.2	-	-	100.0(46)
읍·면	88.0	4.0	4.0	4.0	100.0(25)	85.7	9.5	4.8	-	100.0(21)
모취업 여부										
취업	85.9	8.6	2.0	3.5	100.0(198)	94.5	3.7	-	1.8	100.0(109)
미취업	74.5	16.4	5.5	3.6	100.0(55)	87.5	8.3	4.2	-	100.0(24)
모부채	40.0	60.0	-	-	100.0(5)	100.0	-	-	-	100.0(9)
이용유형										
혈연 단독	74.1	14.8	3.7	7.4	100.0(54)	91.4	3.4	1.7	3.4	100.0(58)
반일제 보완	85.8	8.3	1.7	4.2	100.0(120)	94.7	5.3	-	-	100.0(19)
비혈연 보완	-	-	100.0	-	100.0(1)	-	-	-	-	-
부모 보완	82.1	13.1	3.6	1.2	100.0(84)	95.3	4.7	-	-	100.0(64)

다)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볼 경우 아동 접촉 빈도

비동거인 조부모나 친인척이 그들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일 보러가거나 데려오는 등으로 매일 보는 경우가 76.0%이고, 가끔 데려온다가 19.0%이며, 가끔 아이를 만나러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5.0%이었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는 매일 만나는 비율이 67.6%로 2009년 본 조사결과가 2004년보다 높았다.

아동의 연령구분별로도 영아는 26.5%가 가끔 데려 오고 6.5%는 가끔 가서 보는 것으로 부모가 매일 본다는 비율이 67.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매일 본다는 비율은 유아 77.7%이고 초등학생은 85% 정도이다. 매일 만나지 않는 경우에 만나는 주기는 평균 8.5일이다. 최소는 2일, 최대 30일로 조사되었는데, 이 기간은 영아가 평균 6.7일로 비교적 짧다(표 VI-2-18 참조).

〈표 VI-2-18〉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이를 데려오는 주기

단위: %(명), 일

구 분	만나는 빈도				만나는 주기				
	매일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봄	계(수)	$X^2(df)$	평균	표준 편차	(수)	F
전체	76.0	19.0	5.0	100.0(400)		8.5	7.5	(94)	
영아	67.1	26.5	6.5	100.0(155)	14.9(6)*	6.7	4.6	(49)	2.7*
유아	77.7	15.5	6.8	100.0(103)		10.2	7.8	(23)	
초등저학년	84.4	14.4	1.1	100.0(90)		9.2	9.7	(15)	
초등고학년	84.6	11.5	3.8	100.0(52)		13.6	13.3	(8)	
2004년 조사	67.6	21.0	11.4	100.0(290)	10.0(2)**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표 VI-2-19〉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영유아를 데려오는 주기

단위: %(명), 일

구 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주기				
	매일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봄	계(수)	$X^2(df)$	평균	표준 편차	(수)	F
전체	71.3	22.1	6.6	100.0(258)		7.8	6.0	(72)	
지역규모									
대도시	74.0	22.9	3.1	100.0(131)	7.6(4)	5.5	2.5	(33)	5.2**
중소도시	68.3	19.8	11.9	100.0(101)		9.9	7.7	(32)	
읍·면	72.0	24.0	4.0	100.0(25)		9.3	5.2	(7)	
모취업 여부									
취업	75.3	20.7	4.0	100.0(198)		7.2	5.3	(48)	
미취업	63.6	23.6	12.7	100.0(55)		9.5	7.7	(20)	1.1
모부재	-	40.0	60.0	100.0(5)		7.0	-	(5)	
이용유형									
혈연 단독	56.6	34.0	9.4	100.0(53)	na	7.9	7.1	(22)	0.0
반일제 보완	75.6	16.8	7.6	100.0(119)		7.8	4.8	(28)	
부모 보완	74.1	21.2	4.7	100.0(85)		7.8	6.4	(2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영유아의 경우, 비동거인 조부모나 친인척이 그들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를 만나는 빈도는 매일 보는 경우 71.3%, 가끔 22.1%이며, 아이를 만나러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6.6%이었다. 지역별 차이는 매일 안 만난다는 비율은 도시가 높으나 가끔 만날 경우 주기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대도시에 비하여 길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미취업모가 매일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고, 이용유형별로는 반일제 보완이나 부모 양육 지원시 매일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다(표

VI-2-19 참조).

<표 VI-2-20>은 취업모 영유아의 경우 아동 및 지역특성별로 만나는 빈도 및 만나는 주기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영아와 유아를 비교하면 유아보다는 영아를 매일 안 만난다는 비율이 높고,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혈연단독 이용시에 매일 집으로 안 데려오거나 안보는 비율이 높다.

<표 VI-2-20>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취업모의 영유아를 데려오는 주기
단위: %(명), 일

구 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주기			
	매일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수)	F
전체	75.3	20.7	4.0	100.0(198)	7.2	5.3	(48)	
아동특성								
영아	69.6	27.0	3.5	100.0(50)	6.8	5.0	(33)	-0.8
유아	82.9	13.4	3.7	100.0(99)	8.2	6.2	(14)	
지역규모								
대도시	75.2	22.0	2.8	100.0(109)	5.6	2.7	(25)	
중소도시	76.1	18.3	5.6	100.0(71)	9.2	7.6	(17)	2.5
읍·면	72.2	22.2	5.6	100.0(18)	8.3	4.0	(6)	
이용유형								
혈연 단독	58.0	36.0	6.0	100.0(53)	6.3	3.6	(21)	
반일제 보완	79.8	15.2	5.1	100.0(119)	7.7	5.6	(18)	
비혈연 보완	100.0	-	-	100.0(1)	-	-	-	0.7
부모 보완	81.3	18.8	-	100.0(85)	8.5	8.0	(9)	

주: 만나는 빈도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나. 비용

1) 비용 지불여부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육비용 지불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68.0%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2.0%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25.5%, 부정기적으로 지불 4.5%이었으며, 현물지급이 2.0%이었다.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해 지불하지 않는 비율과 현물지불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아동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지불비율은

낮아진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은 영아가 31.0%, 유아 30.4%로 유사하고, 초
 등저학년은 22.8%, 고학년은 13.1%이다(표 VI-2-21 참조)

서비스 제공자별로는 정기적 지불은 비동거 친조부모가 44.3%로 가장 많고 다음
 이 비동거 외조부모 36.5%이다. 반면에 지불 안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거 친
 조부모, 동거 친인척, 동거 외조부모의 순이다

〈표 VI-2-21〉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chi^2(df)$
연령구분	25.5	4.5	2.0	68.0	100.0(1,446)	
영아	31.0	4.7	2.8	61.4	100.0(464)	54.9(9)**
유아	30.4	6.9	1.4	61.3	100.0(362)	
초등저학년	22.8	4.0	1.7	71.4	100.0(346)	
초등고학년	13.1	1.5	1.8	83.6	100.0(274)	
돌보는 사람						
동거 친조부모	8.9	1.6	-	89.6	100.0(450)	230.5(15)**
동거 외조부모	22.4	3.6	0.5	73.5	100.0(196)	
비동거 친조부모	44.3	6.8	3.2	45.7	100.0(280)	
비동거 외조부모	36.5	7.2	2.9	53.3	100.0(275)	
동거 친인척	13.9	2.8	-	83.3	100.0(36)	
비동거 친인척	17.3	3.6	8.2	70.9	100.0(110)	
2004년 조사	26.6	9.2	1.5 ¹⁾	62.7	100.0(1,018)	

주: 2004년 현물지불에는 숙식제공(0.3%) 포함됨.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VI-2-22〉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특성별 비용 지불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영유
 아는 전체적으로 30.8%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61.4%가 지불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으로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정기적으로 지불
 하는 비율은 낮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51.4%가 비용을 지불하며, 이
 중 정기적 지불이 42.6%이다. 미취업모는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89.2%이며, 모 부재
 인 경우는 63.0%로 미취업모 보다 낮다. 이용유형별로는 혈연단독 이용시에 61.5%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30.8%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이용을 보완
 하는 경우에는 32.5%가 정기적으로 6.3%가 부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약 60%는 지불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표 VI-2-22> 영유아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정기 지불	부정기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정기 지불	부정기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전체	30.8	5.7	2.2	61.4	100.0(826)	18.5	2.9	1.8	76.8	100.0(620)
지역규모										
대도시	32.9	5.5	3.9	57.7	100.0(383)	22.1	2.5	2.5	73.0	100.0(285)
중소도시	31.0	5.4	0.9	62.7	100.0(335)	13.9	3.7	0.8	81.6	100.0(245)
읍·면	22.4	6.5	-	71.0	100.0(107)	20.0	2.2	2.2	75.6	100.0(90)
X ² (df)			15.9(6)*					na		
모취업 여부										
취업	42.6	6.9	1.8	48.6	100.0(549)	23.2	3.6	1.9	71.3	100.0(470)
미취업	5.2	2.8	2.8	89.2	100.0(251)	0.9	0.9	2.8	95.4	100.0(108)
모부재	25.9	7.4	3.7	63.0	100.0(27)	13.6	-	-	86.4	100.0(44)
X ² (df)			131.5(6)**					na		
이용유형										
혈연 단독	61.5	7.7	-	30.8	100.0(104)	27.5	4.1	1.4	67.0	100.0(218)
반일제 보완	32.5	6.3	1.8	59.4	100.0(382)	14.4	7.2	0.9	77.5	100.0(111)
비혈연 보완	-	57.1	-	42.9	100.0(7)	-	-	-	100.0	100.0(1)
부모 보완	19.5	3.3	3.3	73.9	100.0(333)	13.4	0.7	2.4	83.5	100.0(291)
X ² (df)			na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는 $p < .01$ 을 의미하고,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초등학생은 영유아보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18.5%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76.8%가 지불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이 중소도시보다 지불한다는 비율이 높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28.7%가 지불하며, 이 중 정기적 지불이 23.2%이다. 미취업모는 지불하지 않는 비율이 95.4%로 다수이며, 모 부재인 경우는 13.6%가 비용을 지불한다. 이용유형별로는 혈연단독 이용시에 27.5%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67.0%는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이용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14.4%가 정기적으로, 7.2%가 부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약 77.5%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표 VI-2-22 참조).

<표 VI-2-23>은 영유아 취업모의 비용지불여부를 나타낸다. 영유아의 차이는 영아가 지불 57.3% 중 정기적 지불 48.0%로 유아의 지불 비율 45.4% 중 정기적 지불비율인 36.9%보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 지역별로는 도시와 읍·면지역이 차이를 보인다. 도시에 비하여 읍·면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으

며,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28.2%로 도시의 45%보다 많이 낮다.

〈표 VI-2-23〉 취업모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전체	42.6	6.9	1.8	48.6	100.0(549)	
아동특성						
영아	48.0	6.5	2.9	42.7	100.0(279)	11.8(3)**
유아	36.9	7.7	0.7	54.6	100.0(271)	
지역규모						
대도시	44.9	6.0	2.6	46.4	100.0(265)	na
중소도시	44.9	7.8	1.5	45.9	100.0(205)	
읍·면	28.2	7.7	-	64.1	100.0(78)	
지원유형						
혈연 단독	67.4	8.4	-	24.2	100.0(95)	na
반일제 보완	38.8	6.8	1.4	53.1	100.0(294)	
비혈연 보완	-	57.1	-	42.9	100.0(7)	
부모 보완	36.6	3.9	3.9	55.6	100.0(15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7	23.1	-	69.2	100.0(13)	na
100~149만원	11.1	3.7	-	85.2	100.0(27)	
150~199만원	17.1	11.4	14.3	57.1	100.0(35)	
200~249만원	20.0	-	-	80.0	100.0(35)	
250~299만원	31.0	6.9	-	62.1	100.0(58)	
300~349만원	33.3	3.2	1.6	61.9	100.0(63)	
350~399만원	61.1	11.1	-	27.8	100.0(36)	
400~499만원	54.5	3.4	2.3	39.8	100.0(88)	
500~599만원	47.4	10.5	1.3	40.8	100.0(76)	
600만원 이상	61.3	6.7	1.7	30.3	100.0(1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지원유형별로는 혈연단독시에도 24.2%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부정기적 지불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지불한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VI-2-23 참조).

2) 비용지불 시 금액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기적, 부정기적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을 하

는 경우 지불비용을 알아본 결과, 10만원 미만이 8.8%,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29.5%,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20.9%로 비율이 높고, 다음이 30~39만원 15.1%이고 50~59만원이 10.7%이고, 60만원 이상은 7.8%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는 10~19만원 이하가 27.7%, 10만원 미만이 18.4%, 30~39만원 미하 15.3%, 20~29만원 이하 14.8%, 50~59만원 이하 11.9% 등의 순으로, 2004년에 비해 10만원 미만이 감소하였다. 2004년과 2009년 모두 10~19만원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평균으로 보면 284,800원이고, 표준편차가 235,300원이다. 2004년의 조사결과인 247,400원보다 37,400원이 더 많다.

서비스 제공자별로는 비동거 친인척이 평균 392,000원으로 가장 많고 동거친인척이 214,000원으로 가장 적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도 비동거 친인척이 평균 355,600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장 적은 사람은 동거조부모 191,4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분포상으로 보면 동거 친조부모의 경우 28.5%가 20만원 미만이다. 월 80만원 이상은 비동거 친인척이 12.5%이다. 특히 비동거 친인척은 10만원 미만의 비율도 31.3%로 높고 80만원 이상도 12.5%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표 VI-2-24 참조).

〈표 VI-2-24〉 서비스제공자별 비용 지불시 비용 분포와 평균

단위: %(명), 천원

구 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전체	2004년 조사
10만원 미만	16.3	2.0	4.6	8.6	-	31.3	8.8	18.4
10-19만원 이하	12.2	31.4	37.5	28.0	80.0	15.6	29.5	27.7
20-29만원 이하	26.5	31.4	19.1	20.6	-	9.4	20.9	14.8
30-39만원 이하	16.3	15.7	19.7	13.7	-	-	15.1	15.3
40-49만원 이하	10.2	3.9	7.2	4.6	20.0	3.1	6.0	6.3
50-59만원 이하	12.2	7.8	6.6	16.6	-	18.8	11.9	10.7
60-69만원 이하	4.1	2.0	2.0	1.7	-	3.1	2.2	6.8 ¹⁾
70-79만원 이하	-	2.0	-	1.7	-	6.3	1.3	-
80만원 이상	2.0	3.9	3.3	4.6	-	12.5	4.3	-
계(수)	100.0(49)	100.0(51)	100.0(152)	100.0(175)	100.0(5)	100.0(32)	100.0(464)	100.0(367)
평균	277.4	292.9	254.2	293.3	214.0	392.0	284.8	247.4
표준편차	180.3	251.5	181.1	222.1	130.7	463.1	235.3	197.6
최저	20	50	10	17	100	10	10	8
최고	1,000	1,500	1,000	1,000	400	2,005	2,005	998

주: 1)은 60만원 이상을 의미함.

아동연령별 평균 지불비용은 영아 362,400원으로 가장 많고, 유아 244,600원, 초등학교 저학년 235,700원, 초등학교 고학년 210,8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지

불비용은 점차 적어졌다. 최저 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조사결과와 아동연령별 평균 지불비용은 영아 340,000원, 유아 195,000원, 초등학교 저학년 152,100원, 고학년 200,000원으로 2009년이 전체적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아동연령에 따른 평균 비용의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VI-2-25〉 연령구분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284.8	235.3	10	2005	(463)	
영아	362.4	270.4	10	1500	(179)	11.5**
유아	244.6	226.8	10	2005	(140)	
초등저학년	235.7	159.6	10	1000	(99)	
초등고학년	210.8	160.8	50	900	(4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VI-2-26〉 비용 지불하는 경우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310.7	258.5	10	2,005	(319)		227.8	159.8	10	1000	(144)	
지역규모						1.0						1.3
대도시	326.6	263.6	10	1,500	(162)		247.3	172.1	10	1000	(77)	
중소도시	303.4	269.5	15	2,005	(125)		202.6	142.9	50	500	(45)	
읍·면	258.2	172.4	30	1,000	(32)		210.5	144.2	20	600	(22)	
모취업여부						8.1**						1.9
취업	331.3	265.0	10	2,005	(282)		231.1	161.2	10	100	(135)	
미취업	153.4	128.2	14	500	(27)		79.4	121.8	14	300	(4)	
모부재	150.5	70.3	50	300	(10)		254.8	104.9	150	400	(6)	
이용유형						8.2**						2.6
혈연 단독	420.2	234.8	20	1,200	(73)		248.4	150.8	50	900	(72)	
반일제 보완	263.6	239.8	15	2,005	(155)		248.9	204.0	50	1000	(25)	
비혈연 보완	15.0	-	15	15	(4)		-	-	-	-	-	
부모 보완	315.5	282.6	10	1500	(87)		185.1	143.5	10	600	(4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VI-2-26〉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특성별 비용 차이를 나타낸다. 영유아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310,700원인데, 지역별로는 대도시 326,600원, 중소도시 303,400원, 읍·면지역 258,200원 순으로 차이를 보여, 도시일수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지출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는 도사에서 26만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도 차이를 보여 취업모가 331,300원이며, 그 이외는 15만원선으로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평균 지불비용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지원유형별로는 혈연단독이라는 경우 평균 420,200원으로 수준이 높고 다음이 부모 양육 지원이 315,500원이고, 반일제 보완시 263,600원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은 전체적으로는 평균 227,800원인데,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도시가 247,300원으로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모부재와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낮지만, 조사대상 대부분이 취업모이고 그 이외는 사례수가 적다. 지원유형별로는 혈연단독과 기관 이용보완 시 비용이 25만원 수준으로 유사하다(표 VI-2-26 참조).

〈표 VI-2-27〉 취업모 영유아의 제 특성별 비용 지불하는 경우,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331.3	265.0	10	2,005	(282)	
아동특성						
영아	386.8	272.3	10	1,500	(159)	4.1**
유아	259.1	237.4	10	2,005	(122)	
지역규모						
대도시	354.2	367.2	10	1,500	(142)	
중소도시	317.6	279.4	15	2,005	(111)	1.4
읍·면	270.3	174.9	75	1,000	(28)	
이용유형						
혈연 단독	422.5	234.9	20	1,200	(72)	
반일제 보완	281.1	247.8	50	2,005	(138)	6.8**
비혈연 보완	15.0	-	15	15	(4)	
부모 보완	353.4	299.6	10	1,500	(6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5.3	213.3	10	500	(4)	
100~149만원	121.8	49.0	100	200	(3)	
150~199만원	156.1	165.5	17	600	(15)	
200~249만원	250.2	160.5	100	600	(7)	
250~299만원	195.6	111.3	100	500	(22)	
300~349만원	251.4	141.7	20	550	(24)	4.2**
350~399만원	291.7	159.7	50	700	(25)	
400~499만원	337.1	236.6	38	1000	(53)	
500~599만원	367.4	251.1	50	1,200	(45)	
600만원 이상	436.1	341.4	15	2,005	(8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음 <표 VI-2-27>은 취업모 영유아의 경우 아동 및 가구 특성별로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영아와 유아를 비교하면 영아는 386,800원, 유아 259,100원으로 127,000원이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으로 비용이 높다. 중복 이용 등 지원유형별로는 혈연단독, 부모양육지원, 기관 보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 차이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지불하는 비용도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구소득 99만원 이하는 115,300원을 지불하지만 600만원 이상은 436,100원을 지불한다.

다. 만족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돌보게 하면서 보육시간, 비용, 양육방식 및 양육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표 VI-2-28 참조).

<표 VI-2-28>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만족도						5점 척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계(수)	점수	F
시간	0.2	1.5	9.8	50.2	38.3	100.0(1,441)	4.3	
영아	0.2	2.0	10.0	49.5	38.4	100.0(461)	4.2	
유아	0.6	1.1	10.0	53.1	35.3	100.0(360)	4.2	0.80
초등저학년	-	1.4	9.8	50.0	38.7	100.0(346)	4.3	
초등고학년	-	1.5	9.1	47.8	41.6	100.0(274)	4.3	
비용	0.5	1.6	9.1	36.6	52.2	100.0(1,444)	4.4	
영아	1.1	1.7	10.8	34.8	51.5	100.0(462)	4.3	
유아	0.6	1.7	11.0	40.3	46.4	100.0(362)	4.3	6.44**
초등저학년	-	1.7	9.2	36.4	52.6	100.0(346)	4.4	
초등고학년	-	1.1	3.3	35.0	60.6	100.0(274)	4.6	
양육방식	0.4	7.0	25.5	46.4	20.7	100.0(1,446)	3.8	
영아	0.2	6.1	27.7	47.6	18.4	100.0(462)	3.8	
유아	1.1	7.5	19.1	50.0	22.4	100.0(362)	3.9	0.65
초등저학년	0.3	8.4	23.3	47.3	20.7	100.0(347)	3.8	
초등고학년	-	6.2	33.1	38.5	22.2	100.0(275)	3.8	
양육환경	0.4	5.3	18.2	51.5	24.6	100.0(1,442)	4.0	
영아	0.4	5.0	19.3	52.3	23.0	100.0(461)	3.9	
유아	0.8	5.5	16.9	52.4	24.4	100.0(361)	3.9	0.27
초등저학년	0.3	6.1	14.5	55.5	23.7	100.0(346)	4.0	
초등고학년	-	4.4	23.0	43.8	28.8	100.0(274)	4.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전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다. 시간과 비용은 불만족 비율이 각각 1.7%, 2.1%인데 비하여 양육방식은 7.4%, 양육환경은 5.7% 정도가 불만이다. 5점 척도로도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는 비용 4.4점, 시간 4.3점, 양육환경 4.0점, 양육방식 3.8점으로 차이를 잘 나타낸다. 특히 양육방식의 불만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아동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인성 등 아동발달이나 인지도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포함한 포괄적 보육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연령구분별로는 네 가지 문항 모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용에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차이를 보인다(표 VI-2-28 참조).

다음 <표 VI-2-29>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만족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구분하여도 시간과 비용 만족도나 양육방식이나 양육환경 만족도 보다 높은 것은 공통적이다.

<표 VI-2-29>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도					계(수)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영유아							
시간	0.4	1.6	10.0	51.0	37.0	100.0(821)	4.2
비용	0.8	1.7	10.9	37.3	49.3	100.0(824)	4.3
양육방식	0.6	6.7	23.9	48.7	20.1	100.0(824)	3.8
양육환경	0.6	5.2	18.2	52.3	23.6	100.0(822)	3.9
초등학생							
시간	-	1.5	9.5	49.0	40.0	100.0(620)	4.3
비용	-	1.5	6.6	35.8	56.1	100.0(620)	4.5
양육방식	0.2	7.4	27.7	43.4	21.4	100.0(622)	3.8
양육환경	0.2	5.3	18.2	50.3	26.0	100.0(620)	4.0

<표 VI-2-30>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특성별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다. 영유아는 지역별 차이는 없고,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시간, 비용, 양육방식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지원유형별로는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에서 혈연 단독 및 반일제 보완 시가 비혈연 및 부모 지원시보다 만족도가 높다. 초등학생은 양육환경에서만 모부재에 비하여 그 이외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I-2-30〉 가족이나 친인척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시간	비용	양육 방식	양육 환경	(수)	시간	비용	양육 방식	양육 환경	(수)
전체	4.2	4.3	3.8	3.9	(824)	4.3	4.5	3.8	4.0	(620)
지역규모										
대도시	4.3	4.4	3.8	4.0	(382)	4.3	4.4	3.8	4.0	(285)
중소도시	4.2	4.3	3.8	3.9	(332)	4.3	4.5	3.8	4.0	(244)
읍·면	4.2	4.4	3.9	4.0	(108)	4.3	4.6	3.7	3.9	(90)
F	2.7	1.0	0.9	1.3		0.2	2.5	1.5	0.7	
모취업 여부										
모취업	4.3	4.3	3.9	4.0	(546)	4.3	4.5	3.8	4.0	(469)
미취업	4.0	4.4	3.7	3.8	(250)	4.2	4.5	3.7	4.0	(106)
모부제	4.3	4.4	3.9	3.9	(27)	4.4	4.5	3.7	3.6	(43)
F	13.4**	3.2*	3.9*	2.2		2.7	0.1	0.5	5.3**	
이용유형										
혈연 단독	4.3	4.3	3.9	4.0	(105)	4.3	4.5	3.8	4.0	(219)
반일제 보완	4.2	4.3	3.9	4.0	(380)	4.2	4.4	3.8	4.0	(110)
비혈연 보완	4.7	4.7	3.0	3.3	(5)	4.0	4.0	4.0	4.0	(1)
부모 보완	4.2	4.4	3.8	3.9	(332)	4.3	4.5	3.7	4.0	(289)
F	2.5	0.1	2.8*	3.1*		0.9	1.4	1.8	0.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는 $p<.01$ 을 의미함

영유아의 취업모만 따로 살펴보면, 영유아의 차이는 시간 만족도가 영아가 높고, 이용형태별로는 양육환경에서 비혈연 보완시 만족도가 낮고,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시간만족도가 저소득층이 낮으며 양육환경 역시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VI-2-31 참조).

〈표 VI-2-31〉 취업모 개인양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점(명)

구 분	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환경	(수)
전체	4.3	4.3	3.9	4.0	
영아	4.4	4.3	3.8	4.0	(277)
유아	4.3	4.3	3.9	4.0	(269)
t	2.0*	0.1	0.6	0.1	

(표 계속)

구 분	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환경	(수)
지역규모					
대도시	4.4	4.3	3.9	4.0	(265)
중소도시	4.3	4.2	3.8	3.9	(203)
읍·면	4.2	4.3	3.9	4.0	(78)
F	25	13	03	07	
이용유형					
혈연 단독	4.4	4.3	4.0	4.1	(95)
반일제 보완	4.3	4.3	3.9	4.0	(292)
비혈연 보완	4.7	4.7	3.0	3.3	(5)
부모 보완	4.3	4.3	3.8	3.9	(153)
F	1.1	0.5	2.3	3.3 [*]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6	4.4	3.5	3.8	(31)
100~149만원	4.1	4.5	3.7	3.6	(26)
150~199만원	4.4	4.4	3.8	3.8	(25)
200~249만원	4.3	4.3	4.0	3.9	(24)
250~299만원	4.3	4.3	3.9	4.0	(53)
300~349만원	4.3	4.4	3.7	4.1	(47)
350~399만원	4.4	4.4	4.0	4.0	(53)
400~499만원	4.4	4.3	3.9	4.1	(70)
500~599만원	4.3	4.2	3.8	3.8	(90)
600만원 이상	4.4	4.1	4.0	4.1	(126)
F	2.4 [*]	0.7	1.7	2.6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는 $p < .01$ 을 의미함

3. 비혈연인에 의한 지원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가. 이용실태

1) 주로 돌보는 사람

가) 돌보는 사람 유형

비혈연인 중 아동을 주로 돌보는 비혈연인은 이웃보육모 37.0%, 파출부 21.7%, 동거비혈연 14.1%이고 이외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가 각각 7.6%, 5.4%, 3.3%이다.

〈표 VI-3-1〉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

단위: %(명)

구 분	동거 비혈연	아이 돌보미	베이비 시터	가정보육 교사	과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기타	계(수)
전체	14.1	5.4	7.6	3.3	21.7	37.0	10.9	100.0(92)
영아	14.3	9.5	11.9	2.4	14.3	38.1	9.5	100.0(42)
유아	10.3	3.4	6.9	6.9	24.1	37.9	10.3	100.0(29)
초등저학년	25.0	-	-	-	25.0	33.3	16.7	100.0(12)
초등고학년	11.1	-	-	-	44.4	33.3	11.1	100.0(9)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는 동거 비혈연,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이웃보육모가 유아보다 비율이 높고 유아는 과출부·가사도우미와 가정보육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웃보육모는 유아와 영아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초등학생은 영유아에 비하여 이웃보육모 비율이 다소 낮으며 과출부의 비율은 높다.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 이용자는 없다(표 VI-3-1 참조).

다음 <표 VI-3-2>와 <표 VI-3-3>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표 VI-3-2〉 영유아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

단위: %(명)

구 분	동거 비혈연	아이 돌보미	베이비 시터	가정보육 교사	과출부·가사도우미	이웃 보육모	기타	계(수)
전체	12.7	7.0	9.9	4.2	18.3	38.0	9.9	100.0(71)
지역규모								
대도시	22.2	2.8	8.3	-	19.4	44.4	2.8	100.0(36)
중소도시	10.0	10.0	15.0	15.0	25.0	20.0	5.0	100.0(20)
읍·면	-	13.3	-	6.7	6.7	40.0	33.3	100.0(15)
모취업 여부								
취업	14.0	7.0	10.5	5.3	15.8	43.9	3.5	100.0(57)
미취업	12.5	12.5	12.5	-	50.0	12.5	-	100.0(8)
모부재	-	-	-	-	16.7	-	83.3	100.0(6)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15.4	-	23.1	7.7	-	46.2	7.7	100.0(13)
반일제 보완	11.1	5.6	5.6	5.6	25.0	30.6	16.7	100.0(36)
혈연 보완	-	40.0	20.0	-	-	40.0	-	100.0(5)
부모 보완	22.2	5.6	5.6	-	22.2	44.4	-	100.0(18)

〈표 VI-3-3〉 초등학생을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

단위: %(명)

구 분	동거 비혈연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웃보육모	기타	계(수)
전체	18.2	36.4	31.8	13.6	100.0(22)
지역규모					
대도시	25.0	37.5	25.0	12.5	100.0(16)
중소도시	-	33.3	50.0	16.7	100.0(6)
모취업 여부					
취업	23.5	29.4	35.3	11.8	100.0(17)
미취업	-	66.7	-	33.3	100.0(3)
모부재	-	-	100.0	-	100.0(1)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30.0	40.0	30.0	-	100.0(10)
반일제 보완	-	-	-	100.0	100.0(1)
부모 보완	9.1	36.4	36.4	-	100.0(11)

주: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는 보기로 주었으나 응답빈도는 없었음.

먼저 영유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이웃보육모와 동거비혈연의 비율이 높고 중소도시가 파출부·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의 비율이 높으며 읍·면은 이웃보육모의 비율이 높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이웃보육모가, 미취업은 파출부·가사도우미 비율이 높다. 이용유형별로는 아이돌보미를 혈연에 의한 보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표 VI-3-2 참조).

초등학생은 대도시는 파출부·가사도우미가, 취업모의 경우 이웃보육모가, 그리고 비혈연 단독시 파출부·가사도우미의 비율이 높다(표 VI-3-3 참조).

나) 소개 경로

비혈연인을 알게 된 경위를 보면,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43.0%로 가장 많고, 평소 알던 사람 30.1%, 지역신문·인터넷 광고가 12.9%이고 인력전문기관 소개도 11.8%이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도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56.1%, 평소 알던 사람 26.3%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지역신문·인터넷 광고는 사설 인력전문기관 보다 낮은 비율로 차이를 보였다(표 VI-3-4 참조).

〈표 VI-3-4〉 소개 경로

단위: %(명)

구 분	평소 알던 사람입	주변의 소개	지역신문· 인터넷 광고	사설 인력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30.1	43.0	12.9	11.8	2.2	100.0(93)
영아	26.2	35.7	16.7	19.0	2.4	100.0(42)
유아	36.7	50.0	6.7	3.3	3.3	100.0(30)
초등저학년	27.3	54.5	9.1	9.1	-	100.0(11)
초등고학년	30.0	40.0	20.0	10.0	-	100.0(10)
2004년 조사	26.3	56.1	3.5	14.0	-	100.0(56)

영유아만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주변의 소개가 59.5%로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평소 알던 사람의 비율이 각각 30.0%와 53.3%로 가장 높다. 취업모는 주변 소개의 비율이 높으며 혈연보육을 보완할 경우 주변의 소개나 사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율이 높다(표 VI-3-5 참조). 초등학생을 돌보는 비혈연은 역시 취업모는 평소 알던 사람 비율이 높았다.⁴⁶⁾

〈표 VI-3-5〉 영유아 돌봐주는 비혈연인의 소개 경로

단위: %(명)

구 분	평소 알던 사람	주변의 소개	지역신문· 인터넷 광고	사설 인력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30.6	41.7	12.5	12.5	2.8	100.0(72)
지역규모						
대도시	24.3	59.5	5.4	10.8	-	100.0(37)
중소도시	30.0	20.0	20.0	25.0	5.0	100.0(20)
읍·면	53.3	26.7	13.3	-	6.7	100.0(15)
모취업 여부						
취업	29.8	40.4	12.3	14.0	3.5	100.0(56)
미취업	-	75.0	12.5	12.5	-	100.0(8)
모부재	83.3	16.7	-	-	-	100.0(6)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42.9	21.4	7.1	21.4	7.1	100.0(14)
반일제 보완	40.0	45.7	11.4	-	2.9	100.0(35)
혈연 보완	-	40.0	20.0	40.0	-	100.0(5)
부모 보완	11.1	50.0	16.7	22.2	-	100.0(18)

46) 표 제시 생략함.

다) 자격 및 특성

다음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자격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먼저 결혼상태는 92.4%가 기혼자로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고, 미혼은 5.4%이다. 자격은 사설 업체 시터 이외에 7.6% 정도가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이고 5.4%가 아이돌보미 자격자이다(표 VI-3-6 참조).

〈표 VI-3-6〉 아이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단위: %(명)

구 분	결혼상태 등			자격						계(수)
	미혼	기혼, 양육경험 유	기혼, 양육경험 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아이돌보미	사설업체 시터	기타	없음	
전체	5.4	92.4	2.2	5.4	2.2	5.4	8.7	2.2	76.1	100.0(92)
영아	4.9	95.1	-	4.9	-	9.5	12.2	-	73.4	100.0(41)
유아	10.3	89.7	-	6.9	-	3.4	10.0	-	79.7	100.0(29)
초등저학년	-	83.3	16.7	8.3	16.7	-	-	9.1	65.9	100.0(12)
초등고학년	-	100.0	-	-	-	-	-	11.1	88.9	100.0(10)

〈표 VI-3-7〉은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제 특성을 제시하였다. 결혼상태는 92.9%가 기혼으로 양육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미혼은 7.1%이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미혼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자격은 아이돌보미 11.3%, 유치원교사 7.0%, 보육교사 5.7% 등이다.

〈표 VI-3-7〉 영유아를 돌봐 주는 사람의 결혼 상태, 자녀양육경험 및 자격

단위: %(명)

구 분	결혼상태 등			자격				계(수)
	미혼	기혼, 양육경험 유	기혼, 양육경험 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아이돌보미	특별한 자격없음	
전체	7.1	92.9	-	5.7	7.0	11.3	76.0	100.0(70)
대도시	2.8	97.2	-	5.6	2.8	8.3	83.3	100.0(36)
중소도시	-	100.0	-	10.5	10.0	25.0	54.5	100.0(20)
읍·면	33.3	66.7	-	6.3	13.3	-	80.4	100.0(15)

2) 중복이용 여부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다른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결과 24.7%만이 비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38.7%는 기관 이용을 보완하여 이용하며, 31.2%은 부모양육을 지원하고, 5.4%는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영아는 비혈연단독 31.0%, 부모 양육 지원 35.7%, 기관 이용 보완 23.8%,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 보완 9.5% 등 이유가 다양한 반면에 유아는 86.2%가 기관 이용 보완이고 그 이외 이유는 소수이다. 초등학생 중 저학년은 부모 양육 지원 33.3%보다 비혈연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58.3%로 높은 반면, 고학년은 비혈연 단독이용 30.0%보다 부모양육 지원 비율 70.0%로 2배 이상 높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크다(표 VI-3-8 참조).

〈표 VI-3-8〉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 분	비혈연 단독	반일제이상 기관이용 보완	조부모·친인척 보육 보완	부모 양육 지원	계(수)
전체	24.7	38.7	5.4	31.2	100.0(93)
영아	31.0	23.8	9.5	35.7	100.0(42)
유아	-	86.2	3.4	10.3	100.0(29)
초등저학년	58.3	8.3	-	33.3	100.0(12)
초등고학년	30.0	-	-	70.0	100.0(10)

〈표 VI-3-9〉 영유아 기관이나 다른 개인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비혈연 단독	기관 보완	혈연 보완	부모 지원	계(수)	비혈연 단독	기관 보완	부모 지원	계(수)
전체	18.3	49.3	7.0	25.4	100.0(71)	42.9	4.8	52.4	100.0(21)
대도시	18.9	51.4	8.1	21.6	100.0(37)	46.7	-	53.3	100.0(15)
중소도시	23.8	38.1	9.5	28.6	100.0(21)	33.3	16.7	50.0	100.0(6)
읍·면	13.3	60.0	-	26.7	100.0(15)				

〈표 VI-3-9〉는 영유아의 지역 및 부모취업별 차이를 제시한 것인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비혈연 단독 이용이 많고 읍·면에서 기관과 중복 이용하는 비율이 높

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도 비혈연 단독 이용이 22.8%이고 과반수는 기관과 중복 이용하며 21.1%가 부모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 비혈연 단독과 부모 양육 지원이 다수이고 보육기관 이용을 보완한다는 비율은 소수이다.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비혈연 단독이용과 부모양육 지원 비율이 모두 높고, 취업모가 단독이용비율이 높다.

3) 일수 및 시간

비혈연인이 아동을 돌보는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 5일이 51.1%로 가장 많다. 아동연령별로는 영아는 불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

주당 평균 시간은 35.1시간으로 영아 45.9시간으로 가장 길고, 유아는 23.2시간으로 초등학생 약 30시간보다 적다. 2004년 조사결과에서도 주당 평균 시간은 40.6시간으로 유아보다 영아의 주당 평균 시간이 길다. 시간분포로는 최소 1시간부터 최대는 144시간이다(표 VI-3-10 참조).

〈표 VI-3-10〉 아동의 연령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 분	분포							돌보는 시간		2004년 조사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기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	28.7	51.1	11.7	5.3	0.3	100.0(94)	35.1	30.0	40.6	17.5
영아	4.7	32.6	51.2	11.6	-	0.2	100.0(43)	45.9	32.8	45.1	16.7
유아	3.4	20.7	51.7	13.8	10.3	0.3	100.0(29)	23.2	22.2	30.5	16.9
초등저학년	-	33.3	50.0	8.3	8.3	0.3	100.0(12)	30.8	29.9	45.3	12.8
초등고학년	-	30.0	50.0	10.0	10.0	0.4	100.0(10)	29.6	25.6	48.0	0.0
F								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영유아만 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높다. 주당 평균 시간도 중소도시가 45.7시간으로 많고 읍·면은 18.1시간이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모의 주당 평균시간이 25.0시간으로 취업모 41.1시간에 비하여 짧다. 이용유형별 차이는 비혈연 단독 이용시 주 5일로 주당 59.1시간을 이용하며, 다음은 부모양육 지원으로 주당 46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VI-3-11 참조).

〈표 VI-3-11〉 영유아 특성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및 평균 돌보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 분	빈도						돌보는 시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	27.8	51.4	12.5	4.2	100.0(72)	36.6	30.8
지역규모								
대도시	2.8	38.9	47.2	8.3	2.8	100.0(36)	39.3	34.8
중소도시	9.5	4.8	76.2	4.8	4.8	100.0(21)	45.7	26.1
읍·면	-	31.3	31.3	31.3	6.3	100.0(16)	18.1	17.1
F							4.1*	
모취업 여부								
모취업	3.5	28.1	63.2	3.5	1.8	100.0(57)	41.1	29.2
미취업	-	50.0	12.5	25.0	12.5	100.0(8)	25.0	37.5
모부재	16.7	-	-	83.3	-	100.0(6)	7.2	17.8
F							4.0*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	28.6	71.4	-	-	100.0(14)	59.1	34.0
반일제 보완	2.8	27.8	44.4	16.7	8.3	100.0(36)	25.1	23.0
혈연 보완	-	-	80.0	20.0	-	100.0(5)	22.2	10.8
부모 보완	11.1	33.3	44.4	11.1	-	100.0(18)	46.2	34.3
F							5.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표 VI-3-12〉 초등학생 일주일 동안 아이를 맡기는 형태

단위: %(명), 시간

구 분	빈도						돌보는 시간	
	월~일	월~토	월~금	주 2~3회	불규칙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33.3	57.1	4.8	4.8	100.0(21)	30.2	26.7
지역규모								
대도시	-	40.0	46.7	6.7	6.7	100.0(15)	33.4	30.5
중소도시	-	16.7	83.3	-	-	100.0(6)	21.4	8.0
모취업 여부								
취업	-	31.3	62.5	6.3	-	100.0(16)	35.5	28.3
미취업	-	-	33.3	33.3	33.3	100.0(3)	8.3	2.6
모부재	-	100.0	-	-	-	100.0(1)	24.0	-

초등학생은 지역별로 도시가 평균 시간이 중소도시보다 길고, 취업모가 35.5시간으로 미취업모보다 길지만 영유아 취업모에 비하여 짧다(표 VI-3-12 참조).

4) 장소

비혈연인이 아동을 돌봐주는 장소는 아이 집 70.0%, 돌보는 사람의 집 30.0%이다. 아동의 연령구분별로는 돌보는 사람의 집인 경우는 영아 29.3%, 유아 37.9%이고, 취학아동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18.2%, 22.2%로 유아가 가장 높은 비율이다. 혈연과 마찬가지로 2004년 조사결과에 비해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낮아졌다(표 VI-3-13 참조).

〈표 VI-3-13〉 아동연령별 주로 돌보는 장소

단위: %(명)

구 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전체	70.0	30.0	100.0(90)
영아	70.7	29.3	100.0(41)
유아	62.1	37.9	100.0(29)
초등저학년	81.8	18.2	100.0(11)
초등고학년	77.8	22.2	100.0(9)
2004년 조사	44.8	55.2	100.0(58)

〈표 VI-3-14〉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장소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전체	67.1	32.9	100.0(70)	80.0	20.0	100.0(20)
지역규모						
대도시	63.9	36.1	100.0(36)	93.3	6.7	100.0(15)
중소도시	70.0	30.0	100.0(20)	40.0	60.0	100.0(5)
읍·면	68.8	31.3	100.0(16)			
모취업 여부						
취업	59.6	40.4	100.0(57)	81.3	18.8	100.0(16)
미취업	100.0	-	100.0(8)	100.0	-	100.0(3)
모부재	100.0	-	100.0(6)	-	100.0	100.0(1)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53.8	46.2	100.0(13)	80.0	20.0	100.0(10)
반일제 보완	63.9	36.1	100.0(36)	-	100.0	100.0(1)
혈연 보완	100.0	-	100.0(4)			
부모 보완	76.5	23.5	100.0(17)	80.0	20.0	100.0(10)

영유아 전체로는 비혈연이 돌봐주는 경우에 32.9%가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집인데,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높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는 아이 돌보는 집이 40.4%인데 비해 미취업모나 모 부재는 100% 아이 집이다. 이용유형별로는 비혈연단독 이용시 돌보는 사람의 집 비율이 46.2%로 가장 높고, 반일제 보완 시에도 돌보는 장소는 36.1%가 돌보는 사람의 집이다.

초등학생 전체로는 비혈연이 돌봐주는 경우에 20.0%가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집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아이의 집 비율이 높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며, 지원유형별로는 비혈연단독 이용 시 아이의 집 비율이 높고, 부모 보완의 경우에도 아이의 집 비율이 높다(표 VI-3-14 참조).

5) 결근 및 대처방법

<표 VI-3-15>는 아이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제시한 표이다. 전체 조사 대상의 평균 13.0% 정도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경우에 50% 정도는 부모가 돌보고 41.7%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보다는 초등학생을 돌보는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5〉 자녀 돌보는 비혈연인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빈도 및 대처방안
단위: %(명)

구 분	빈도			대처방안			
	가끔 있음	거의 없음	계(수)	자녀의 부모가 돌봄	조부모·친인척에게 부탁	기타	계(수)
전체	13.0	87.0	100.0(92)	50.0	41.7	8.3	100.0(12)
영아	11.9	88.1	100.0(41)	40.0	40.0	20.0	100.0(5)
유아	6.9	93.1	100.0(29)	100.0	-	-	100.0(2)
초등저학년	27.3	72.7	100.0(12)	33.3	66.7	-	100.0(3)
초등고학년	20.0	80.0	100.0(10)	50.0	50.0	-	100.0(2)

주: 대처방안으로 아이의 형제·자매에게 부탁, 이웃에게 부탁, 보육시설 일시보육은 보기로 주었으나 응답이 없어서 표에서 삭제함.

다음 <표 VI-3-16>은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역 및 모의 취업상태별로 차이를 본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9.9%가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취업모의 40.0%는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3-16> 영유아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의 빈도

단위: %(명)

구 분	빈도			대처방안			
	가끔 있음	거의 없음	계(수)	부모가 돌봄	조부모·친인척 부탁	기타	계(수)
전체	9.9	90.1	100.0(71)	57.1	28.6	14.3	100.0(7)
지역규모							
대도시	5.6	94.4	100.0(36)	66.7	33.3	-	100.0(3)
중소도시	10.5	89.5	100.0(19)	-	50.0	50.0	100.0(2)
읍·면	18.8	81.3	100.0(16)	100.0	-	-	100.0(3)
모취업 여부							
취업	8.8	91.2	100.0(57)	40.0	40.0	20.0	100.0(5)
미취업	25.0	75.0	100.0(8)	100.0	-	-	100.0(2)
모부재	-	100.0	100.0(6)	-	-	-	-

나. 비용

1) 비용 지불여부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82.6%로,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아동은 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기도 하지만, 미취학아동 중 영아는 대부분인 97.6%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유아는 79.3%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그 외 부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현물을 지급하며 10.3%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서비스 제공자 별로는 아이돌보미와 베이비시터는 모두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지불 안하는 경우는 파출부·가사도우미가 가장 많다(표 VI-3-17 참조).

영유아는 지역별로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대도시 88.6%, 중소도시 95.0%, 그리고 읍·면은 93.3%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다. 부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중소도시가 높고, 현물지급은 대도시에서, 그리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읍·면지역에서 많다(표 VI-3-18 참조).

초등학생은 지역별로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많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이용유형별로는 비혈연 단독보다 부모 보완의 경

우에 많다(표 VI-3-18 참조).

〈표 VI-3-17〉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연령구분별	82.6	3.3	1.1	13.0	100.0(92)
영아	97.6	2.4	-	-	100.0(42)
유아	79.3	6.9	3.4	10.3	100.0(29)
초등저학년	63.6	-	-	36.4	100.0(11)
초등고학년	50.0	-	-	50.0	100.0(10)
제공자					
동거 비혈연	84.6	-	-	15.4	100.0(13)
아이돌보미	100.0	-	-	-	100.0(5)
베이비시터	100.0	-	-	-	100.0(6)
가정보육교사	75.0	-	-	25.0	100.0(4)
파출부·가사도우미	65.0	-	-	35.0	100.0(33)
이웃보호모	84.8	6.1	3.0	6.1	100.0(20)
기타	90.0	-	-	10.0	100.0(10)

주: 빈도수 분표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표 VI-3-18〉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급	지불 안함	계(수)	정기적 지불	지불 안함	계(수)
전체	90.1	4.2	1.4	4.2	100.0(71)	54.5	45.5	100.0(22)
지역규모								
대도시	88.6	2.9	2.9	5.7	100.0(35)	43.8	56.3	100.0(16)
중소도시	95.0	5.0	-	-	100.0(20)	83.3	16.7	100.0(6)
읍·면	93.3	-	-	6.7	100.0(15)			
모취업 여부								
취업	91.1	3.6	1.8	3.6	100.0(57)	62.5	37.5	100.0(16)
미취업	87.5	-	-	12.5	100.0(8)	33.3	66.7	100.0(3)
모부재	100.0	-	-	-	100.0(6)	-	100.0	100.0(1)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92.9	7.1	-	-	100.0(14)	44.4	55.6	100.0(9)
반일제 보완	82.9	5.7	2.9	8.6	100.0(35)	-	100.0	100.0(1)
혈연 보완	100.0	-	-	-	100.0(4)			
부모 보완	100.0	-	-	-	100.0(18)	63.6	36.4	100.0(11)
2004년 조사	88.2	3.9	3.9	3.9	100.0(51)	100.0	-	100.0(5)

주: 1) 빈도수 분표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2) 2004년 조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없음.

2) 지불 금액

비용 지불시 금액은 전체 평균 449,9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편차는 329,300원 수준이다.⁴⁷⁾ 분포로 보면 10만원 미만이 22.5%이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7.4%, 30~39만원 8.8%, 40~49만원이 15.0%이며 50~59만원이 8.8%, 70만원 이상은 27.6%이다.

서비스 제공자별로 월 평균 비용을 구분해 보면, 동거비혈연 739,100원, 베이비시터 743,700원으로 가장 비싸다. 이 경우 표준편차가 28만~29만원으로 커서 개인간의 차이는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가 648,900원이고, 과출부 558,400원, 이웃보육모 387,500원으로 추정되었다. 분포상으로 보면 베이비시터를 쓰는 경우 83.3%가 70만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표 VI-3-19 참조). 이러한 비용의 개인 차이는 이용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VI-3-19〉 (지불하는 경우) 지불금액 평균 액수

단위: %(명), 천원

구 분	동거비혈연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정보육교사	과출부 가사도우미	이웃보육모	기타	전체	2004년 조사
10만원 미만	-	66.7	-	-	7.7	15.6	88.9	22.5	1.9
10-19만원 이하	-	16.7	16.7	-	-	3.1	-	3.7	13.0
20-29만원 이하	-	16.7	-	-	15.4	9.4	-	7.4	113.0
30-39만원 이하	-	-	-	-	15.4	15.6	-	8.8	18.5
40-49만원 이하	27.3	-	-	-	7.7	25.0	-	15.0	9.3
50-59만원 이하	-	-	-	66.7	15.4	6.3	11.1	8.8	16.7
60-69만원 이하	9.1	-	-	-	7.7	9.4	-	6.2	11.1
70-79만원 이하	36.4	-	50.0	-	-	6.3	-	11.3	16.7
80만원 이상	27.3	-	33.3	33.3	30.8	9.4	-	16.3	
계(수)	100.0(11)	100.0(5)	100.0(6)	100.0(13)	100.0(3)	100.0(2)	100.0(9)	100.0(79)	100.0(54)
평균	739.1	130.1	743.7	648.9	558.4	387.5	105.1	449.9	445.2
표준편차	289.3	109.8	279.9	192.9	360	243.4	183.3	329.3	258.6
최저	400	54	108	550	50	30	20	20	20
최고	1300	294	1000	882	1300	1000	500	1300	998

아동연령구분별로는 영아가 평균 554,600원으로 유아나 초등학생 30만원대보다 20만원 이상이 비싸다(표 VI-3-20 참조).

47) 최소 2만원이고 최대는 100만원 이상임.

〈표 VI-3-20〉 아동 연령별 지불하는 경우, 평균 액수

단위: 천원(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전체	449.9	329.3	20	1,300	(79)	
영아	554.6	345.6	20	1,300	(42)	
유아	336.9	294.2	20	1,000	(26)	3.3*
초등저학년	339.4	182.1	50	650	(7)	
초등고학년	300.0	278.3	40	800	(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영유아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가장 많으며, 읍·면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그리고 지원유형별로는 비혈연 단독, 부모 보완 등이 반일제 보완이나 혈연보완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중소도시보다 대도시가 지불하는 비용이 많으나 영유아보다는 적다. 취업모와 비혈연 단독일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 VI-3-21 참조).

〈표 VI-3-21〉 영유아와 초등학생 비용 지불시 평균 액수

단위: 천원(명)

구 분	영유아					초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71.6	341.7	20	1,300	(68)	323.6	213.7	40	800	(12)
지역규모										
대도시	534.6	371.1	30	1,300	(34)	326.2	277.8	40	800	(7)
중소도시	512.6	292.0	50	1,300	(20)	319.8	100.7	200	400	(5)
읍·면	260.5	257.5	20	800	(14)	-	-	-	-	-
F/t	3.7*					0.0				
모취업여부										
취업	511.6	323.5	30	1,300	(55)	358.7	198.9	50	800	(10)
미취업	412.3	370.8	56	1,000	(7)	40.0	-	40	40	(1)
모부재	146.7	363.0	20	1,000	(6)	-	-	-	-	-
F/t	3.2*					2.8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668.8	292.5	300	1,300	(13)	463.7	181.0	300	800	(4)
반일제 보완	348.1	293.9	20	1,000	(32)	--	-	-	-	-
혈연 보완	379.7	402.4	54	1,000	(4)	-	-	-	-	-
부모 보완	569.8	367.6	50	1,300	(18)	239.5	195.1	40	650	(7)
F/t	3.9*					3.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다. 만족도

비혈연인에 의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성실성 88.9%, 이용시간 87.0%, 양육환경 74.2%로 매우 높고, 비용 만족도는 62.0%이며 양육방식 만족도는 58.1%,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42.9%로 만족도가 떨어진다. 5점 척도로도 성실성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이용시간이 4.0점이며,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이 각각 3.9점, 3.7점이고, 비용과 전문성은 각각 3.5점, 3.4점이다(표 VI-3-22 참조).

이러한 비혈연인에 대한 만족도를 혈연인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 보면,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은 유사하나 이용시간과 비용에 있어서는 비혈연인 보다 혈연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표 VI-2-28 참조).

〈표 VI-3-22〉 현재 자녀를 돌보는 사람(비혈연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만족정도					계(수)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점수	F
이용시간	3.3	3.3	6.5	69.6	17.4	100.0(92)	4.0	1.9
영아	2.4	2.4	7.1	69.0	19.0	100.0(42)	4.1	
유아	3.3	3.3	3.3	70.0	20.0	100.0(30)	4.1	
초등저학년	-	-	10.0	80.0	10.0	100.0(10)	4.0	
초등고학년	10.0	10.0	10.0	60.0	10.0	100.0(10)	3.4	
비용	5.4	13.0	19.6	50.0	12.0	100.0(92)	3.5	1.5
영아	4.8	21.4	23.8	40.5	9.5	100.0(42)	3.3	
유아	3.4	10.3	13.8	51.7	20.7	100.0(29)	3.8	
초등저학년	9.1	-	27.3	63.6	-	100.0(11)	3.5	
초등고학년	10.0	-	10.0	70.0	10.0	100.0(10)	3.8	
양육방식	-	5.4	36.6	43.0	15.1	100.0(93)	3.7	2.0
영아	-	4.8	33.3	42.9	19.0	100.0(42)	3.8	
유아	-	-	31.0	55.2	13.8	100.0(29)	3.8	
초등저학년	-	16.7	41.7	33.3	8.3	100.0(12)	3.3	
초등고학년	-	10.0	60.0	20.0	10.0	100.0(10)	3.3	
양육환경	-	3.2	22.6	59.1	15.1	100.0(93)	3.9	5.0**
영아	-	-	11.9	69.0	19.0	100.0(42)	4.1	
유아	-	3.3	20.0	66.7	10.0	100.0(30)	3.9	
초등저학년	-	9.1	45.5	36.4	9.1	100.0(11)	3.3	
초등고학년	-	10.0	50.0	20.0	20.0	100.0(10)	3.5	

(표 계속)

구 분	만족정도					계(수)	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점수	F
전문성	-	11.0	46.2	31.9	11.0	100.0(91)	3.4	0.8
영아	-	14.3	42.9	28.6	14.3	100.0(42)	3.4	
유아	-	6.9	44.8	34.5	13.8	100.0(29)	3.6	
초등저학년	-	9.1	63.6	27.3	-	100.0(11)	3.2	
초등고학년	-	11.1	44.4	44.4	-	100.0(9)	3.3	
성실성	-	-	11.1	62.2	26.7	100.0(90)	4.2	0.6
영아	-	-	9.8	70.7	19.5	100.0(41)	4.1	
유아	-	-	13.8	55.2	31.0	100.0(29)	4.2	
초등저학년	-	-	9.1	72.7	18.2	100.0(11)	4.1	
초등고학년	-	-	11.1	33.3	55.6	100.0(9)	4.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를 의미함.

연령구분별로는 혈연인에 있어서는 양육방식을 제외한 이용시간, 비용, 양육환경 모두 영유아보다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높으나 비혈연인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영유아의 만족도가 높다(표 VI-3-22 참조).

2004년 조사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⁴⁸⁾ 경향만을 비교해 보면, 2004년에는 성실성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본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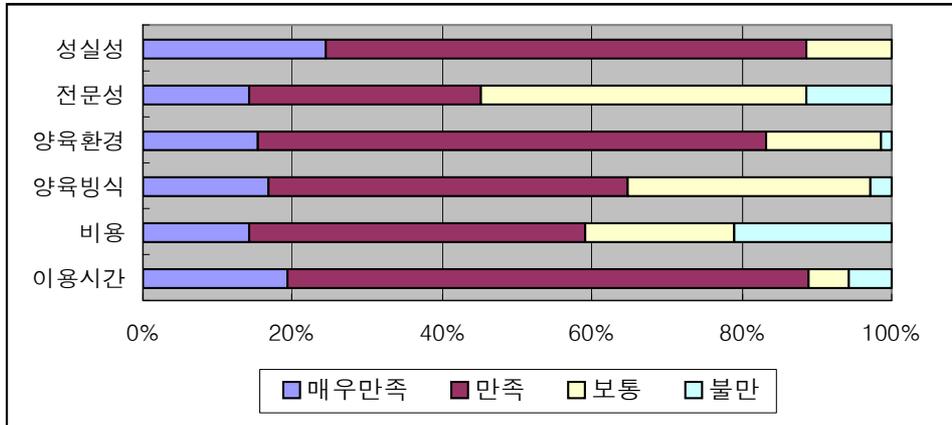
다음 <표 VI-3-23>과 [그림 VI-3-1]은 영유아의 비혈연인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용시간 88.8%, 성실성 88.6%, 양육환경 83.4% 순으로 만족도가 높고, 전문성은 45.1%로 만족도가 가장 낮다. 평균 만족도로 볼 경우에도 이용시간과 성실성이 각각 4.1점이고, 비용과 전문성은 각각 3.5점이다.

<표 VI-3-23> 영유아를 돌보는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척도
이용시간	2.8	2.8	5.6	69.4	19.4	100.0(72)	4.1
비용	4.2	16.9	19.7	45.1	14.1	100.0(71)	3.5
양육방식	-	2.8	32.4	47.9	16.9	100.0(71)	3.8
양육환경	-	1.4	15.3	68.1	15.3	100.0(72)	4.0
전문성	-	11.3	43.7	31.0	14.1	100.0(71)	3.5
성실성	-	-	11.4	64.3	24.3	100.0(70)	4.1

48) 2004년 조사에서는 4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함.



[그림 VI-3-1] 영유아 비혈연인 서비스 만족도

<표 VI-3-24> 영유아의 특성별 비혈연인의 양육지원 항목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환경	전문성	성실성	(수)
전체	4.1	3.5	3.8	4.0	3.5	4.1	(72)
아동특성							
영아	4.1	3.3	3.8	4.1	3.4	4.1	(42)
유아	4.1	3.8	3.8	3.9	3.6	4.2	(30)
F	-	1.9	0.1	1.5	0.7	0.5	
지역규모							
대도시	4.2	3.6	3.9	4.0	3.4	4.1	(35)
중소도시	4.0	3.3	3.8	4.0	3.6	4.2	(19)
읍·면	3.7	3.4	3.6	3.9	3.5	4.2	(15)
F	2.8	0.5	0.7	0.3	0.4	0.5	
모취업 여부							
취업	4.1	3.4	3.9	4.0	3.6	4.2	(56)
미취업	3.9	3.7	3.7	3.9	3.3	3.7	(9)
모부재	3.9	3.9	3.0	3.9	3.0	3.9	(6)
F	0.4	0.5	4.0**	0.2	1.2	2.9*	
지원유형							
비혈연 단독	4.1	3.3	4.2	4.3	3.6	4.3	(12)
반일제 보완	4.0	3.6	3.7	3.9	3.5	4.2	(35)
혈연 보완	3.6	3.4	3.6	3.6	3.4	3.6	(5)
부모 보완	4.2	3.4	3.6	4.0	3.4	4.0	(18)
F	0.7	0.3	1.7	1.5	0.2	1.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는 $p<.01$ 을 의미함.

영유아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용시간은 지역별로는 읍·면보다 도시지역에서, 이용유형별로는 비혈연 단독 이용이 각각 4.1점으로 가장 높다. 비용은 취업모와 미취업모 보다 모 부재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고, 양육방식은 읍·면보다 도시지역이, 취업모 그리고 비혈연 단독이용일 경우 가장 높다. 양육환경은 비혈연 단독이용일 경우, 전문성은 유아, 중소도시, 취업모, 비혈연 단독 이용일 경우 각각 가장 높고, 성실성은 영아보다 유아가,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이 다소 높고, 취업모일수록, 비혈연 단독 이용일 경우 각각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육방식 뿐으로 취업모, 미취업모, 모 부재의 순이다(표 VI-3-24 참조).

4. 소결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양육서비스는 주된 또는 보조적인 양육지원 기능을 한다. 영아는 17.1%가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며, 유아는 0.8%가 단독이용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1.6%가 단독, 16.4%는 중복 이용이고, 고학년생 0.9%는 단독, 11.2%는 기관에도 다니면서 개인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이다. 2004년과 비교하여 단독이용비율이 감소하고 기관 병행 이용이 증가하였다.

둘째, 이용이유는 상반된 현상을 나타낸다.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하는 이유로는 영아는 어려서 기관 적응에 힘들까 봐가 7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아의 경우에는 어려서 26.7%와 비용부담이 20.0%로 비교적 높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이나 고학년 모두 기타를 제외하고는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유아의 비용 부담 비율은 2004년 62.3%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가 비용부담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부모 등 혈연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 25.5%, 부정기적으로 지불 4.5%, 현물 지급 2.0%, 68.0%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셋째, 혈연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비용은 평균 284,800원으로 2004년 247,400원

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고, 비혈연인에 의한 보육 비용은 영아 55만 5천원, 유아 33만7천원으로 2004년 영아 55만 5천원, 유아 27만원에 비하여 유아가 다소 증가하였다.

넷째, 혈연인에 의한 보육 만족도는 매우 높다. 양육방식과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각각 3.8, 4.0점으로 비용이나 시간 만족도 4.4점, 4.3점보다 낮다. 비혈연인 보육 만족도는 5점 척도로도 성실성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이용시간이 4.0점이며, 양육환경과 양육방식이 각각 3.9점, 3.7점이고, 비용과 전문성은 각각 3.5점, 3.4점이다. 이는 전문성과 비용이 정책과제가 됨을 나타낸다.

다섯째, 비혈연인을 알게 된 경위가 주변의 소개로 알게 된 비율이 43.0%로 가장 많고, 평소 알던 사람 30.1%, 지역신문·인터넷 광고가 12.9%이고 인력전문기관 소개도 11.8%이다. 2004년에 비하여 주변의 소개가 감소하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였다.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의 수월성을 위하여 이용자와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연계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VII.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제7장에서는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시간제 학원은 반 일제이상 학원 이외에 아동의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하여 다니는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 이용기관 포함하며, 여기에는 교과목 학습 이외에 예체능, 컴퓨터,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과 영유아 교육 전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지도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교과목 과외, 학습지 활용교육 등이 모두 해당된다. 개인지도의 경우 주로 개인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이 개인가정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룹지도는 2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집이나 교사의 집, 다른 아동의 집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시간제 학원은 한 아동이 여러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아동들도 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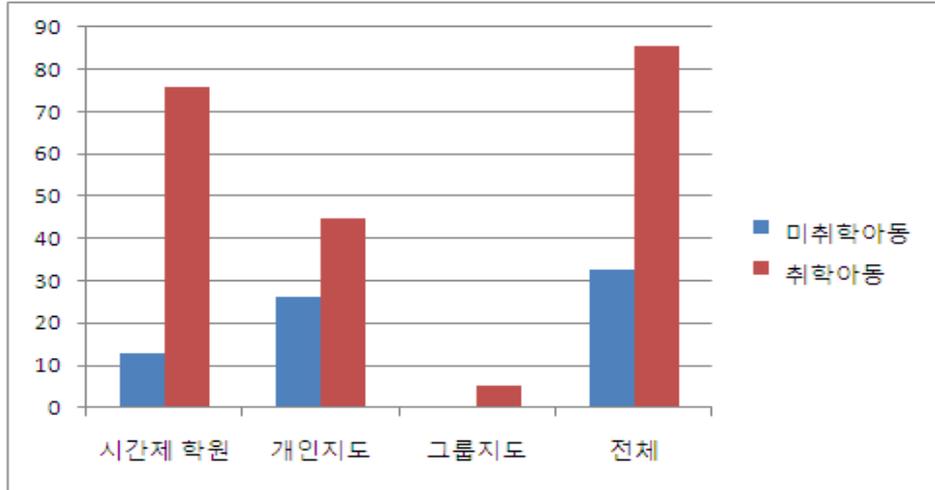
1.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제1절에서는 전체 아동 중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특성 분포를 기술하였다.

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정도

먼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아동의 연령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VII-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취학 아동의 32.8%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취학아동은 85.6%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시간제 학원이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은 개인지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취학아동은 시간제 학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그룹지도의 경우 시간제 학원이나 개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취학 아동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VII-1-1] 아동 연령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

나.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다음 <표 VII-1-1>은 연령별, 지역별, 모취업별, 가구소득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취학아동과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을 보면, 미취학 아동은 개인지도, 시간제 학원, 그룹지도 순으로 이용률이 높고, 취학아동은 시간제 학원, 개인지도, 그룹지도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연령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전체적으로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이 14.3%로 저조하며, 특히 그룹지도 이용은 전무하다. 한편 유아의 경우 시간제 학원과 그룹지도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나, 개인지도의 경우 이용률이 44.4%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상당수 아동들이 유아기에 처음으로 개인지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학원의 이용률은 초등학생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은 초등저학년생과 고학년생에게서 비슷하였다. 개별교육의 경우, 개인지도는 저학년생의 이용률이 높았으나, 그룹지도는 고학년생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전체적인 시간제 교육 및 개별교육 이용률은 초등저학년과 고학년생 모두 약 85%로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시간제 학원과 개별지도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특히 개별교육에 있어 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는 큰 차이를 보

여 개별교육 서비스 이용 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전체적인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이 모두 60%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의 이용률은 56.4%였다. 취업모 자녀들은 전체적인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시간제 학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부재인 아동들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표 VII-1-1 참조).

〈표 VII-1-1〉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시간제 학원	개인지도	그룹지도	전체(수)
전체	47.9	36.6	3.1	62.2(4,637)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12.8	26.3	0.3	32.8(1,084)
취학아동	75.8	44.9	5.4	85.6(3,553)
연령구분2				
영아	8.4	8.3	-	14.3(238)
유아	17.2	44.4	0.5	51.5(847)
초등저학년생	75.3	49.3	4.7	85.4(1,647)
초등고학년생	76.2	41.1	6.0	85.7(1,906)
지역규모				
대도시	50.9	38.4	3.5	64.6(1,948)
중소도시	46.6	37.7	3.1	62.3(1,977)
읍·면	43.8	29.8	2.3	56.4(712)
모취업여부				
취업	54.7	37.2	3.5	68.2(2,128)
미취업	43.2	37.9	2.9	58.7(2,362)
부재	40.1	14.6	2.3	46.7(14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7.5	18.0	1.1	39.5(164)
100~149만원	33.2	21.8	0.5	44.3(278)
150~199만원	32.3	29.6	1.8	50.3(546)
200~249만원	42.6	31.2	1.7	57.4(599)
250~299만원	47.1	38.9	3.0	65.5(567)
300~349만원	55.5	40.2	3.0	70.3(701)
350~399만원	57.4	39.5	4.8	69.6(362)
400~499만원	58.8	46.1	5.2	72.3(559)
500~599만원	64.5	53.1	5.9	76.4(399)
600만원 이상	66.1	48.7	5.8	76.5(463)
2004년 조사	43.2	4.6	4.9	-

주: 1)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2) 전체는 시간제 학원, 개인지도, 그룹지도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전체 아동 비율임.

한편,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 이용률이 40% 미만인 반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6.5%에 달했다. 가구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서면,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률은 거의 70%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VII-1-1 참조).

2.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다음으로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기관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의 12.8%, 취학아동의 75.8%가 현재 한 가지 이상의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아동의 시간제 학원 이용 현황과 만족도, 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이용 수

<표 VII-2-1>은 조사대상 아동들의 연령, 지역, 모 취업특성, 가구소득에 따라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총 수의 분포를 보여준다.⁴⁹⁾ 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반일반 이상 학원 이외에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하여 다니는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시간제 학원을 분야별로 몇 종류씩 다니고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분야는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교과목(수학, 과학, 언어, 한자), 외국어(영어, 기타 외국어), 컴퓨터, 종합보습, 영유아교육전문 등 기타를 포함하여 총 13개로 구분하였다.

<표 VII-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은 87.2%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용 아동의 대다수도 1개 프로그램만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초등학생은 대다수 아동이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개 이상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1개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보다 높았다. 3개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도 전체 초등학생의 15%를 육박했다. 한편, 영아보다는 유아들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차이가 미취학-취학 아동만큼 크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시간제 학원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용 프로그램의 수도 대도시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도시의 경우 프로그램을 3개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10% 이상인 반면, 그 외 지역

49) 한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내용과 시간 등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간주함(예: 한 문화센터에서 두 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에서는 6~7%에 불과했다. 취업모 자녀들이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350만원을 넘어서면 30% 이상의 아동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가구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가구에서는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을 3개 이상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20% 안팎이었다.

〈표 VII-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수)	$\chi^2(df)$
전체	52.1	24.3	15.2	5.9	2.5	100.0	(7,455)	-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87.2	9.9	2.2	0.5	0.2	100.0	(3,303)	2987.1(4)**
취학아동	24.2	35.9	25.5	10.1	4.3	100.0	(4,152)	
연령구분2								
영아	91.6	7.1	1.1	0.1	0.1	100.0	(1,658)	3030.3(12)**
유아	82.7	12.8	3.3	0.9	0.3	100.0	(1,644)	
초등저학년생	24.7	34.7	24.4	11.2	5.0	100.0	(1,929)	
초등고학년생	23.8	36.8	26.5	9.2	3.7	100.0	(2,223)	
지역규모								
대도시	49.1	23.7	16.5	7.5	3.2	100.0	(3,018)	57.4(8)**
중소도시	53.4	24.8	14.8	4.9	2.1	100.0	(3,175)	
읍·면	56.2	25.0	13.0	4.4	1.4	100.0	(1,262)	
모취업여부								
취업	45.3	26.9	17.8	7.0	3.0	100.0	(3,210)	121.4(8)**
미취업	56.8	22.1	13.6	5.3	2.2	100.0	(4,022)	
부재	59.9	28.3	9.6	1.6	0.6	100.0	(31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2.4	21.6	4.3	1.2	0.5	100.0	(415)	753.4(36)**
100~149만원	66.7	24.2	7.7	1.1	0.3	100.0	(626)	
150~199만원	67.7	19.7	8.7	2.8	1.1	100.0	(1,086)	
200~249만원	57.4	23.7	14.4	3.4	1.1	100.0	(1,044)	
250~299만원	53.0	27.8	14.1	4.3	0.8	100.0	(866)	
300~349만원	44.4	28.3	18.6	6.2	2.5	100.0	(998)	
350~399만원	42.5	25.3	20.4	8.7	3.1	100.0	(520)	
400~499만원	41.2	25.3	20.9	8.9	3.7	100.0	(773)	
500~599만원	35.6	23.1	22.9	13.4	5.0	100.0	(523)	
600만원 이상	33.9	23.5	20.8	12.9	8.9	100.0	(60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1)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학원 이용 수

가) 미취학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 수

시간제 학원 이용현황을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내에서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 수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표 VII-2-2 참조). 아동의 연령이 0세일 때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3% 미만으로 소수였으나, 아동이 성장하면서 이용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6세 아동의 경우 3분의 1 가량의 아동들이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이용 개수도 만4세까지는 이용아동 대다수가 1개였으나, 만5세를 넘어서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상당수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II-2-2〉 미취학 아동의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이용 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수)
전체	87.2	9.9	2.2	0.5	0.2	100.0	(3,303)
연령							
만0세	97.1	2.5	0.2	0.2	-	100.0	(547)
만1세	87.6	10.7	1.7	-	-	100.0	(581)
만2세	90.2	7.7	1.7	0.2	0.2	100.0	(531)
만3세	93.0	5.2	1.4	0.4	-	100.0	(511)
만4세	88.4	9.4	1.4	0.6	0.2	100.0	(508)
만5세	70.7	21.4	6.2	1.3	0.4	100.0	(547)
만6세	65.8	21.5	7.6	3.8	1.3	100.0	(79)
지역규모							
대도시	85.8	10.4	2.6	0.8	0.4	100.0	(1,318)
중소도시	86.8	10.6	2.2	0.4	-	100.0	(1,435)
읍·면	91.5	6.8	1.3	0.2	0.2	100.0	(550)
모취업여부							
취업	87.6	9.7	2.1	0.4	0.2	100.0	(1,113)
미취업	86.9	10.1	2.3	0.6	0.1	100.0	(2,114)
부재	89.5	9.2	1.3	-	-	100.0	(76)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나)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표 VII-2-3>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들의 반일제 기관 이용현황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들의 반일제 기관 이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영아들이 시간제 학원 외에 다른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유아들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는 5.7%에 불과했다. 영아들이 이용하는 반일제 기관은 대부분 보육시설이었고, 유아들은 유치원, 보육시설, 반일제 학원, 선교원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특히 유치원 이용률이 57.2%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의 반일제 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보육시설 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읍·면 지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률을 합치면 80%에 가깝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반일제 기관의 이용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 자녀들의 반일제 기관 이용률은 80% 이상인 반면, 미취업모 자녀들은 54.3%에 불과했다. 소수이긴 하나 모가 부재인 영유아들은 모두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VII-2-3> 시간제 학원 이용 미취학 아동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이용안함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학원	계	(수)
전체	35.3	20.1	38.4	0.5	5.7	100.0	(422)
연령구분							
영아	95.7	3.6	-	-	0.7	100.0	(139)
유아	5.7	28.3	57.2	0.7	8.1	100.0	(283)
지역규모							
대도시	37.1	18.3	35.5	1.1	8.0	100.0	(186)
중소도시	37.8	17.0	41.0	-	4.2	100.0	(189)
읍·면	19.1	38.3	40.4	-	2.2	100.0	(47)
모취업여부							
취업	16.5	23.0	53.2	0.7	6.6	100.0	(138)
미취업	45.7	18.1	30.1	0.7	5.4	100.0	(276)
부재	-	37.5	62.5	-	-	100.0	(8)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2) 초등학생 시간제 학원 이용 수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초등학생이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저학년생과 고학년생 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60% 가량의 초등학생이 1~2개 정도의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 이용하는 아동도 상당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프로그램 이용률과 이용 프로그램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지역에서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5.5%로 읍·면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이용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모가 부재인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2-4 참조).

〈표 VII-2-4〉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이용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수)	$X^2(df)$
전체	24.2	35.9	25.5	10.1	4.3	100.0	(4,152)	
학년								
초등저학년	24.7	34.7	24.4	11.2	5.0	100.0	(1,929)	11.778(4)*
초등고학년	23.8	36.9	26.5	9.1	3.7	100.0	(2,223)	
지역규모								
대도시	20.6	33.8	27.4	12.7	5.5	100.0	(1,700)	58.595(8)**
중소도시	25.8	36.6	25.1	8.6	3.9	100.0	(1,740)	
읍·면	28.9	38.8	22.1	7.7	2.5	100.0	(712)	
모취업여부								
취업	21.9	36.3	26.6	10.7	4.5	100.0	(2,007)	113.092(8)**
미취업	23.3	35.6	26.1	10.5	4.5	100.0	(1,907)	
부재	50.2	34.7	12.1	2.2	0.8	100.0	(2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는 $p < .01$ 을 의미함.

나. 이용 프로그램 종류

1) 아동연령별 이용 프로그램 종류

〈표 VII-2-5〉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종류별 이용비율을 보여준다. 분야는 예체능(미술, 음악, 체육), 교과목(수학, 과학, 언어, 한자), 외국어(영어, 기타외국어), 컴퓨터, 종합보습, 영유아교육전문 등 기타를 포함하여 총 13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와 음악, 체육, 종합보습의 순으로 이용률이 높으나, 프로그램의 이용 양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을 비교해 보면, 미취학 아동은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분야와 영유아 교육전문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초등학생은 영어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악, 체육 프로그램, 종합보습학원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영아의 경우 영유아 교육전문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유아는 체육,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은 12.4%로 일부 아동들은 유아기에 이미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등저학년생의 경우에는 음악과 체육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영어 프로그램 이용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학년이 되면 예체능 프로그램의 이용률은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반면,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목 학원과 종합보습 학원 이용률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영아기에는 영유아 교육전문 프로그램을, 유아기와 초등저학년 때에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초등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종합보습 등 학교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의 이용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II-2-5 참조).

〈표 VII-2-5〉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종류	연령구분 1		연령구분 2				전체
	미취학	취학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미술	23.8	12.6	13.8	28.8	19.4	6.7	13.9
음악	20.7	36.3	14.8	23.5	51.4	23.4	34.5
체육	31.6	33.2	13.7	40.3	41.6	26.0	33.0
과학	1.7	2.4	-	2.6	2.2	2.5	2.3
수학	2.3	16.5	-	3.5	9.7	22.3	14.8
언어	3.5	4.5	1.2	4.6	4.5	4.5	4.4
컴퓨터	-	0.9	-	-	0.3	1.5	0.8
영유아 교육전문	21.1	-	51.3	6.3	0.1	-	2.5
한자	0.3	1.7	1.0	-	1.3	2.0	1.5
영어	8.8	38.4	1.5	12.4	29.8	45.8	34.9
기타 외국어	0.2	0.5	-	0.2	0.2	0.8	0.5
종합보습	1.5	26.9	0.7	1.9	17.0	35.4	23.9
기타	9.2	2.2	14.4	6.6	3.1	1.4	3.0
(수)	(422)	(3147)	(139)	(238)	(1453)	(1694)	(3569)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2) 부모 및 가구 특성별 이용 프로그램 종류

다음 <표 VII-2-6>은 부모 및 가구 특성별 이용 프로그램의 종류를 보여준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영어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종합보습학원은 반대로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특히 영어 프로그램과 종합보습학원의 이용률은 지역규모 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영유아 프로그램과 종합보습학원 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개 문화센터 등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는 영유아 교육전문 프로그램의 경우 미취업모의 이용률이 취업모의 4배에 가까웠으며, 모가 부재인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이 전무했다. 반면, 종합보습학원의 이용은 취업모와 모 부재 가구에서 이용률이 두 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종합보습학원이 초등학생 아동들을 방과후에 장시간 보호하면서 사실상 보육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VII-2-6>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유아 전문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종합보습	기타	(수)
지역규모														
대도시	16.6	30.9	33.8	3.3	19.2	5.8	0.9	2.6	2.2	40.8	0.4	19.1	3.7	(1536)
중소도시	13.0	36.8	33.4	1.7	11.1	3.7	0.8	3.1	0.7	31.5	0.5	25.8	2.7	(1480)
읍·면	8.8	38.2	29.7	1.0	12.6	2.3	0.6	1.0	1.8	27.9	0.5	32.3	2.1	(553)
모 취업여부														
취업	11.7	34.0	32.4	1.8	16.8	4.0	1.1	1.1	1.9	36.0	0.7	30.1	2.4	(1705)
미취업	16.5	36.0	33.2	2.9	13.3	5.0	0.6	4.2	1.3	35.1	0.2	16.7	3.8	(1738)
부재	6.8	20.2	37.1	1.2	9.3	1.1	-	-	-	18.7	-	39.8	0.7	(12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1	27.8	32.6	-	13.7	1.3	-	0.7	-	13.6	-	29.8	-	(114)
100~149만원	3.6	26.3	36.0	1.7	9.5	2.7	-	0.4	1.1	15.8	-	32.0	3.0	(208)
150~199만원	13.6	32.4	32.2	1.9	10.4	5.7	1.3	2.1	1.8	22.3	0.4	26.7	2.2	(351)
200~249만원	8.9	37.8	29.3	0.8	10.6	2.6	1.7	3.3	0.9	24.1	0.2	33.6	1.9	(445)
250~299만원	10.6	35.1	28.3	2.0	11.9	1.9	0.1	4.0	1.5	25.8	0.9	27.7	1.9	(407)
300~349만원	16.8	34.9	33.2	2.3	11.8	3.7	0.9	3.0	1.2	35.8	0.2	22.2	3.1	(554)
350~399만원	11.7	33.4	34.6	1.1	15.0	6.4	0.3	3.7	3.1	39.0	0.5	24.1	5.1	(298)
400~499만원	17.3	36.2	34.3	2.3	17.1	4.2	0.7	2.3	1.8	40.7	0.5	22.9	3.8	(455)
500~599만원	19.3	34.7	38.3	5.4	17.3	6.2	1.4	1.9	0.6	52.7	0.8	14.6	3.8	(337)
600만원 이상	19.4	36.2	33.5	3.9	28.9	7.7	0.7	1.7	2.5	57.6	0.6	12.3	3.8	(400)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가구소득 따른 차이는 특히 영어 프로그램의 이용에서 두드러졌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이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최저소득계층 이용률의 4배 이상이었다. 반면, 이들 상위소득 가구의 종합보습학원 이용률은 나머지 가구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게 나타나,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영어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고, 보습학원 이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VII-2-6 참조).

다.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

<표 VII-2-7>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 한 명의 일주일간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을 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의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은 1~5시간 이용이 가장 많았고, 6~10시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11~15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아동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대다수가 시간제 학원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영아의 경우 97.1%가 5시간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6~10시간 동안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초등저학년보다는 초등고학년에서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의 주당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은 평균 3.9시간인 반면, 초등학생은 9.6시간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미취학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긴 시간 동안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값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생, 초등고학년생의 집단별 평균 차이는 네 집단 모두 각각 다른 집단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의 취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모의 자녀는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평균 시간제 학원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모가 부재한 가정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미취업모와 모가 부재인 가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월 가구소득이 149만원 이하 가구는 7~8시간, 150~349만원인 가구는 8~9시간, 350만원 이상인 가구는 9~10시간 정도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월소득 100~149만원인 가구와 400~499만원인 가구, 그리고 600만원 이상인 가구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아동의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의 차이는

주로 아동의 연령과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II-2-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주당 총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5 시간	6~10 시간	11~15 시간	16~20 시간	21~25 시간	26~30 시간	31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39.0	33.3	19.4	6.5	1.2	0.3	0.3	100.0(3,569)	8.9(5.4)	
연령구분1										
미취학	85.1	11.4	2.1	0.7	0.2	-	0.5	100.0(422)	3.9(4.4)	-21.758**
취학	32.8	36.3	21.7	7.4	1.3	0.3	0.2	100.0(3,147)	9.6(5.2)	
연령구분2										
영아	97.1	2.2	-	-	-	-	0.7	100.0(139)	1.7(3.0)	179.765**
유아	79.2	15.8	3.2	1.1	0.4	-	0.3	100.0(283)	4.9(4.6)	
초등저학년생	38.5	34.5	18.9	6.3	1.2	0.3	0.3	100.0(1,453)	9.2(5.2)	
초등고학년생	27.9	37.8	24.1	8.3	1.4	0.4	0.1	100.0(1,694)	10.0(5.1)	
지역										
대도시	37.2	34.4	19.9	6.8	1.1	0.2	0.4	100.0(1,536)	8.9(5.3)	.198
중소도시	40.3	32.2	19.7	6.0	1.3	0.3	0.2	100.0(1,480)	8.9(5.7)	
읍·면	40.7	33.5	17.0	7.2	0.9	0.4	0.3	100.0(553)	9.0(5.0)	
모취업여부										
취업	31.6	36.5	21.5	7.9	1.8	0.4	0.3	100.0(1,705)	9.8(5.7)	48.307**
미취업	45.1	30.8	17.6	5.5	0.6	0.2	0.2	100.0(1,738)	8.1(5.1)	
부재	55.6	25.3	14.3	4.8	-	-	-	100.0(126)	8.0(4.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6.1	28.9	8.8	6.2	-	-	-	100.0(114)	7.7(4.1)	4.778**
100~149만원	52.9	30.3	12.5	3.8	-	0.5	-	100.0(208)	7.7(4.3)	
150~199만원	49.1	28.3	14.9	6.5	0.3	0.9	-	100.0(351)	8.4(5.0)	
200~249만원	38.6	37.7	15.2	6.0	0.9	0.7	0.9	100.0(445)	9.1(5.7)	
250~299만원	41.8	36.1	17.2	3.9	1.0	-	-	100.0(407)	8.4(4.6)	
300~349만원	40.0	31.5	20.0	6.1	2.2	-	0.2	100.0(554)	8.8(5.2)	
350~399만원	34.9	33.2	24.8	5.8	1.3	-	-	100.0(298)	9.1(4.8)	
400~499만원	35.8	30.0	23.3	7.1	2.4	0.7	0.7	100.0(455)	9.7(7.1)	
500~599만원	30.5	38.2	22.7	8.3	0.3	-	-	100.0(337)	9.1(4.7)	
600만원 이상	28.4	35.1	24.4	10.9	1.0	-	0.2	100.0(400)	9.6(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한편, <표 VII-2-8>은 조사대상 아동들의 시간제 학원 이용시간을 분야별로 살펴본 것으로, 전체적으로 종합보습학원 이용시간이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로 가장 높았고, 영어와 수학 관련 프로그램을 주당 약 5시간씩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일 기준으로 종합보습학원의 경우 매일 2시간씩, 영어와 수학 프로그램의 경우 매일 1시간씩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이용시간의 차이를 보면, 영아의

경우 체육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이 주당 평균 2.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분야의 프로그램의 평균 이용시간은 모두 주당 2시간 이내였다. 그러나 유아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이용 시간이 긴 것은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종합보습학원이었다. 유아의 경우 응답자가 5명에 불과하지만 종합보습학원의 평균 이용시간은 12.8시간이었고, 초등학교의 경우 10시간 정도라고 응답했다. 이는 2004년도 초등학교의 평균 보습학원 이용시간에 비해 약 2시간 증가한 것이다. 2004년도 초등학교의 평균 보습학원 이용시간은 저학년의 경우 7.9시간, 고학년은 8.5시간이었다⁵⁰⁾. 따라서 지난 5년간 초등학교의 종합보습학원 이용시간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검증 결과⁵¹⁾, 연령집단별로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분야와 영어 프로그램이었다. 집단 간 차이는 미취학 집단과 초등학교 집단보다는 주로 영아와 나머지 집단들 간에 나타나 유아들의 시간제 학원 이용 양상이 영아보다는 초등학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2-8〉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분야별 프로그램 이용 시간

단위: 시간(명)

프로그램 종류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전체			F/t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미술	1.3	0.8	(19)	3.8	3.5	(81)	3.9	2.1	(282)	3.2	1.7	(114)	3.6	2.4	(497)	10.8**
음악	1.0	0.2	(21)	4.5	1.7	(67)	4.9	1.3	(747)	4.6	1.8	(397)	4.7	1.6	(1231)	45.8**
체육	2.5	7.5	(19)	4.3	5.3	(114)	4.6	2.0	(604)	4.7	1.5	(440)	4.6	2.6	(1177)	5.0**
과학	-	-	(0)	1.6	1.3	(7)	2.1	1.5	(32)	2.7	1.7	(42)	2.4	1.6	(81)	1.9
수학	-	-	(0)	3.0	1.8	(10)	4.6	4.3	(141)	5.0	3.0	(378)	4.9	3.4	(529)	2.2
언어	1.0	0.0	(2)	1.8	1.2	(13)	3.6	2.1	(65)	2.9	1.7	(76)	3.1	1.9	(156)	4.5**
컴퓨터	-	-	(0)	-	-	(0)	2.8	1.4	(5)	3.7	1.5	(25)	3.6	1.5	(29)	n.a
영유아 교육전문	1.4	1.3	(71)	1.5	1.3	(18)	-	-	-	-	-	-	1.4	0.2	(89)	1.7
한자	1.0	-	(1)	-	-	(0)	3.5	1.6	(19)	4.4	1.8	(34)	4.0	1.8	(54)	3.8*
영어	1.0	-	(2)	3.1	2.1	(35)	4.9	2.0	(434)	5.2	1.9	(776)	5.1	2.0	(1247)	18.3**
기타 외국어	-	-	(0)	5.0	-	(1)	4.0	1.2	(3)	4.4	1.5	(13)	4.3	1.4	(16)	0.1
종합보습	1.0	-	(1)	12.8	5.8	(5)	9.7	5.9	(248)	10.0	4.6	(600)	9.9	5.0	(854)	1.8
기타	1.6	1.6	(20)	1.6	0.9	(19)	4.2	5.3	(46)	2.8	2.1	(24)	3.0	3.8	(108)	3.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는 $p<0.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50) 유아의 경우 응답 사례수가 적으므로 비교하지 않음.

51) 일부 프로그램은 집단의 사례수가 하나 이하여서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없었음. 기타 프로그램은 F값은 유의미하나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집단이 없었음.

라.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고려한 점

시간제 학원을 이용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시간제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을 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 <표 VII-2-9>와 같다.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난 것은 교육내용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사(선생님), 집과의 거리, 주변의 평판 순이었다. 이러한 주요 고려사항들은 자녀의 취학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모두에 대해 시간제 학원을 선택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듯하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취학아동에 비해 교육내용이나 분위기(내부환경)를 1순위로 꼽은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에 비해 집과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부모가 기관에 동행하거나 차량 운행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과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혼자서 시간제 학원을 찾아다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VII-2-9> 취학여부에 따른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원장	5.2	2.0	5.7	3.1	5.6	2.9
강사(선생님)	15.0	18.3	17.9	18.6	17.6	18.6
이용시간	3.7	5.3	2.9	6.5	2.9	6.4
비용	5.9	10.0	6.1	10.2	6.2	10.0
교육내용	41.1	21.0	34.3	21.1	35.1	21.1
주변환경	0.5	3.7	1.6	2.9	1.5	3.0
분위기(내부환경)	4.9	7.8	1.7	5.3	2.1	5.6
안전(시설, 차량 등)	2.2	5.1	2.6	3.9	2.6	4.1
집과의 거리	12.6	16.1	17.2	18.7	16.6	18.4
주변의 평판	8.4	10.0	9.5	9.3	9.3	9.4
기타	0.5	0.7	0.5	0.4	0.5	0.5
계(수)	100.0(406)	100.0(409)	100.0(3076)	100.0(3076)	100.0(3482)	100.0(3485)

시간제 학원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을 아동 연령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영아는 유아 및 초등학생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표 VII-2-10 참조). 즉, 영아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도 교육내용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이 5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나머지 요인들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은 모두 10% 미만이었

다. 유아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교육내용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영아에 비해 교육내용 이외에도 강사(선생님), 집과의 거리, 비용 등 기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생과 고학년생 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초등저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내용을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이 적고, 집과의 거리를 1순위로 고려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초등저학년 아동의 경우 초등고학년 아동보다도 혼자서 이동하는 거리가 긴 것에 대한 부모의 우려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VII-2-10〉 아동 연령별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원장	-	-	7.6	2.9	6.6	4.4	4.9	1.9
강사(선생님)	9.9	14.4	17.4	19.8	17.9	19.0	18.0	18.3
이용시간	4.6	6.8	3.3	4.3	3.3	6.2	2.3	6.9
비용	3.1	13.6	7.2	8.6	5.8	9.3	6.4	11.0
교육내용	55.7	18.2	34.1	22.3	31.0	20.7	37.2	21.4
주변환경	-	5.3	0.7	2.9	2.0	2.8	1.3	3.0
분위기(내부환경)	6.9	9.8	4.3	7.2	1.8	4.6	1.7	6.0
안전(시설,차량 등)	1.5	3.1	2.6	6.1	3.2	5.9	2.0	2.0
집과의 거리	9.2	15.9	14.1	16.2	19.3	17.8	15.4	19.4
주변의 평판	7.6	11.4	8.7	9.0	8.5	8.7	10.3	9.9
기타	1.5	1.5	-	0.7	0.6	0.6	0.5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31)	(132)	(276)	(278)	(1417)	(1419)	(1660)	(1658)

마.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표 VII-2-11〉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출하는 월간 총 이용비용의 분포와 평균 금액을 연령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제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이 월간 5~10만원이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20만원, 10~15만원, 20~25만원 순이었다. 아동들이

시간제 학원에 지출하는 월 평균 이용비용은 약 20만원이었다.

연령별 이용비용의 차이를 보면, 영아는 5만원 미만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은 반면, 유아와 초등학생은 5~1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영아가 5만6천원, 유아는 10만원, 초등저학년은 19만원, 초등고학년은 23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유아는 영아의 두 배, 초등학생은 영아의 3~4배 가량의 비용을 시간제 학원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VII-2-11 참조).

〈표 VII-2-11〉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별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연령구분 1		연령구분 2				전체
	미취학	취학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5만원 미만	32.6	3.1	63.0	18.0	3.3	3.0	6.6
5~10만원	38.8	20.0	23.2	46.5	27.3	13.8	22.2
10~15만원	15.6	13.3	9.4	18.3	14.1	12.7	13.6
15~20만원	6.1	16.1	2.2	8.1	17.3	15.1	14.9
20~25만원	3.1	14.8	0.8	4.5	11.8	17.1	13.4
25~30만원	0.9	9.1	-	1.4	7.8	10.2	8.1
30~35만원	1.2	8.4	1.4	0.7	6.8	9.9	7.6
35~40만원	0.5	5.2	-	0.7	4.8	5.5	4.7
40만원 이상	1.2	10.0	-	1.8	6.8	12.7	8.9
계(수)	100.0(422)	100.0(3147)	100.0(139)	100.0(283)	100.0(1453)	100.0(1694)	100.0(3569)
평균 비용	86.3	213.1	56.2	101.0	190.2	232.8	198.1
표준편차	74.7	141.2	45.4	81.6	131.2	146.4	141.1
F/t	-28.691**		142.229(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한편,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별 이용비용의 차이를 보면, 동일한 분야의 프로그램이라도 아동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프로그램별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월간 총 이용비용이 가장 많은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은 영어로 월 평균 17만2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종합보습, 기타 외국어, 수학 프로그램 순이었다.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은 한자와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용비용은 월 평균 5만8천원 정도였다(표 VII-2-12 참조).

〈표 VII-2-12〉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연령구분 1		연령구분 2				전체
		미취학	취학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미술	평균	68.5	77.6	53.6	72.0	78.1	76.3	75.7
	SD	34.8	36.7	32.3	34.7	36.4	37.5	36.5
	(수)	(101)	(396)	(19)	(81)	(282)	(114)	(496)
음악	평균	69.5	89.5	40.3	78.5	87.0	94.1	88.1
	SD	35.3	34.9	17.2	34.7	26.5	46.5	35.3
	(수)	(87)	(1144)	(21)	(67)	(747)	(397)	(1231)
체육	평균	72.3	82.4	41.5	77.4	83.3	81.1	81.2
	SD	44.4	34.0	19.0	45.3	37.2	29.1	35.5
	(수)	(133)	(1044)	(19)	(114)	(604)	(440)	(1177)
과학	평균	83.2	88.5	-	83.2	85.0	91.2	88.0
	SD	34.0	71.3	-	46.3	53.3	83.0	69.2
	(수)	(7)	(74)	-	(7)	(32)	(42)	(81)
수학	평균	59.4	132.1	-	59.4	107.7	141.2	130.7
	SD	39.7	65.4	-	39.7	52.1	67.6	65.7
	(수)	(10)	(519)	-	(10)	(141)	(378)	(529)
언어	평균	61.3	90.7	60.6	61.4	86.0	94.7	87.9
	SD	68.8	68.5	56.7	72.1	57.8	76.7	68.9
	(수)	(15)	(142)	(2)	(13)	(65)	(76)	(156)
컴퓨터	평균	-	71.8	-	-	53.2	75.2	71.8
	SD	-	44.9	-	-	29.2	46.9	44.9
	(수)	-	(29)	-	-	(5)	(25)	(29)
영유아 전문	평균	54.9	275.5	53.8	59.2	350.0	200.0	58.6
	SD	44.5	130.5	45.3	42.1	0.0	0.0	53.2
	(수)	(89)	(2)	(71)	(18)	(1)	(1)	(91)
한자	평균	33.0	59.3	33.0	-	46.3	66.4	58.6
	SD	0.0	35.1	0.0	-	28.8	36.6	34.9
	(수)	(1)	(53)	(1)	-	(19)	(34)	(54)
영어	평균	99.3	173.7	30.4	103.4	169.2	176.3	171.5
	SD	68.1	87.5	4.7	67.9	85.7	88.4	87.8
	(수)	(37)	(1210)	(2)	(35)	(434)	(776)	(1247)
기타 외국어	평균	150.0	144.0	-	150.0	99.9	154.1	144.2
	SD	0.0	84.7	-	0.0	8.7	91.4	82.8
	(수)	(1)	(16)	-	(1)	(3)	(13)	(16)
종합 보습	평균	106.4	167.0	30.0	120.1	151.9	173.2	166.5
	SD	49.2	78.2	0.0	37.9	78.2	77.4	78.2
	(수)	(6)	(847)	(1)	(5)	(248)	(600)	(854)
기타	평균	60.0	68.0	54.8	65.5	70.6	63.2	65.2
	SD	58.0	46.8	68.8	44.9	42.6	54.6	51.0
	(수)	(39)	(70)	(20)	(19)	(46)	(24)	(108)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비용을 주당 평균 이용시간 및 비용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보면, 이용시간 대비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과학과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3만7천 원이었고, 영어와 기타 외국어는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영어와 기타 외국어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절대적인 지출비용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보습학원의 경우 월평균 이용비용은 두 번째로 높았으나 이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용시간 대비 비용은 낮은 편에 속했으며, 비용에 대한 의견도 중간 정도였다(표 VII-2-13 참조).

〈표 VII-2-13〉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이용비용,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비교

단위: 천원, 시간, 점

구분	월 평균 이용비용(A)		주당 이용시간(B)		이용시간 대비 비용(A/B)	비용 만족도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술	75.7	36.5	3.6	2.4	21.0	3.09(0.76)
음악	88.1	35.3	4.7	1.6	18.7	3.23(0.75)
체육	81.2	35.5	4.6	2.6	17.7	3.19(0.75)
과학	88.0	69.2	2.4	1.6	36.7	3.27(0.93)
수학	130.7	65.7	4.9	3.4	26.7	3.38(0.72)
언어	87.9	68.9	3.1	1.9	28.4	3.20(0.93)
컴퓨터	71.8	44.9	3.6	1.5	19.9	3.05(0.86)
영유아교육전문	58.6	53.2	1.6	0.2	36.6	3.13(0.91)
한자	58.6	34.9	4.0	1.8	14.7	2.94(0.88)
영어	171.5	87.8	5.1	2.0	33.6	3.47(0.77)
기타 외국어	144.2	82.8	4.3	1.4	33.5	3.33(0.73)
종합보습	166.5	78.2	9.9	5.0	16.8	3.22(0.86)
기타	65.2	51.0	3.0	3.8	21.7	3.12(0.87)

주: 비용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함. 1-매우 저렴 5-매우 비쌈.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다음으로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부모 및 가구특성별 이용비용을 분석하였다. <표 VII-2-14>를 보면,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모든 지역에서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으로 5~10만원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평균 이용비용은 대도시가 22만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18만6천원, 읍·면은 16만5천원으로 세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값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대도시의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당 시간제 학원 이용시간이 세 지역 모두 9시간 내외로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

다는 점을 고려할 때(표 VII-2-7 참조), 이는 대도시의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평균 이용비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취업모의 이용비용이 가장 높고, 모가 부재한 아동의 이용비용이 가장 낮았으며, 이용비용의 차이는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했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또한 유의미했는데, 월 평균 이용비용은 대략 10만~30만원 범위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월 평균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F값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와, 그리고 중위소득 가구는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구소득과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r = .362(p<.00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VII-2-14 참조).

〈표 VII-2-14〉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특성별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	25~30만원	30~35만원	35~40만원	4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지역											
대도시	6.5	19.0	12.6	13.4	13.1	9.3	7.4	5.7	13.0	100.0(1,536)	221.4
중소도시	8.1	22.1	13.4	16.5	12.9	7.8	8.2	4.4	6.6	100.0(1,480)	186.4
읍·면	2.9	31.9	16.6	14.8	15.8	5.4	6.3	2.3	4.0	100.0(553)	164.9
$X^2(df)/F$					132.8(16)**						42.26**
모 취업여부											
취업	4.1	19.4	14.1	14.8	16.4	9.1	8.3	4.9	8.9	100.0(1,705)	207.5
미취업	9.1	23.9	12.9	14.9	10.8	7.4	7.0	4.5	9.5	100.0(1,738)	193.3
부재	5.6	39.2	16.0	16.8	8.0	6.4	5.6	2.4	-	100.0(126)	137.5
$X^2(df)/F$					102.8(16)**						16.53**
가구소득											
99만원이하	22.8	34.2	19.3	8.8	6.1	6.2	2.6	-	-	100.0(114)	102.0
100~149만원	10.5	36.4	19.6	15.3	9.6	3.3	4.3	0.5	0.5	100.0(208)	124.5
150~199만원	4.8	35.6	13.4	17.7	12.5	9.8	3.1	2.0	1.1	100.0(351)	150.2
200~249만원	6.5	25.0	16.0	18.0	16.0	7.2	4.1	3.8	3.4	100.0(445)	166.8
250~299만원	5.4	26.7	15.8	16.3	18.8	6.4	6.9	1.7	2.0	100.0(407)	162.7
300~349만원	6.1	19.9	13.0	17.0	16.2	7.9	8.7	5.2	6.1	100.0(554)	192.0
350~399만원	6.7	19.5	13.5	14.1	13.5	10.4	10.1	4.4	7.7	100.0(298)	199.9
400~499만원	6.4	16.5	12.3	14.7	11.9	6.8	10.1	7.7	13.6	100.0(455)	224.4
500~599만원	3.0	16.6	10.1	11.0	11.3	11.2	12.5	7.1	17.2	100.0(337)	256.8
600만원이상	6.5	9.2	9.7	10.2	9.2	10.1	8.7	8.5	27.9	100.0(400)	304.8
$X^2(df)/F$					637.7(72)**						64.7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한편, 가구특성에 따른 월 평균 이용비용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지불하는 비용이 높았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예체능 과목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비용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기타 외국어, 종합보습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지역별 이용비용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종합보습학원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이용비용 차이가 월 5만원 이상이었고, 수학은 4만4천원 가량이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이용비용은 대체로 취업모, 미취업모, 모 부재 가정 순으로 높았으나, 영어, 언어, 기타 외국어 등의 분야에서는 미취업모 자녀의 지출비용이 취업모 자녀에 비해 월 1만원 이상 더 높았다.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체능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시간제 학원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지역규모나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VII-2-15 참조).⁵²⁾

〈표 VII-2-15〉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의 가구특성별 프로그램별 월 평균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유아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종합보습	기타
전체	평균	75.7	88.1	81.2	88	130.7	87.9	71.8	58.6	58.6	171.5	144.2	166.5	65.2
지역														
대도시	평균	75.9	90.1	80.4	100.8	141.7	100.1	86.5	66.2	68.9	184.7	164.4	184.9	67.3
	SD	35.6	45.1	42.9	77.9	69.8	76.8	50.5	71.5	32.0	98.5	79.1	82.6	54.9
	(수)	(255)	(475)	(519)	(50)	(295)	(89)	(14)	(39)	(33)	(626)	(7)	(294)	(56)
중소도시	평균	74.9	86.3	82.1	68.5	124.9	69.9	59.1	52.9	37.6	164.4	141.3	168.1	63.2
	SD	40.6	26.9	29.5	50.1	60.6	52.4	31.6	33.6	29.1	75.8	101.2	76.3	40.2
	(수)	(192)	(544)	(494)	(26)	(164)	(55)	(12)	(46)	(11)	(466)	(7)	(381)	(40)
읍·면	평균	78.1	88.0	81.4	62.6	97.9	80.2	52.8	50.3	47.2	139.4	104.3	133.0	61.8
	SD	21.6	28.5	24.5	26.5	43.7	57.9	53.4	25.8	38.9	61.1	35.4	62.7	65.6
	(수)	(49)	(211)	(164)	(5)	(70)	(13)	(3)	(5)	(10)	(154)	(3)	(179)	(13)
모취업여부														
취업모	평균	83.3	88.4	81.5	95.9	128.3	79.7	83.1	50.8	54.8	162.4	134.4	169.9	73.9
	SD	36.7	38.2	26.1	91.3	66.4	56.8	50.3	36.4	31.6	79.1	81.8	77.6	60.2
	(수)	(200)	(580)	(553)	(30)	(286)	(68)	(18)	(18)	(32)	(614)	(13)	(514)	(41)
미취업모	평균	70.5	87.9	81.0	84.1	134.7	94.9	53.5	60.5	64.3	182.3	179.0	168.3	59.4
	SD	35.5	32.8	43.5	53.3	65.5	77.1	27.8	56.7	39.3	95.6	89.9	78.4	44.2
	(수)	(287)	(626)	(577)	(50)	(232)	(87)	(11)	(73)	(22)	(610)	(4)	(290)	(66)
모부재	평균	76.0	84.6	81.2	60.0	110.1	55.0	-	-	-	129.6	-	121.8	90.0
	SD	36.1	26.5	19.2	-	50.7	9.3	-	-	-	46.2	-	70.4	-
	(수)	(9)	(25)	(47)	(2)	(12)	(1)	-	-	-	(24)	-	(50)	(1)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고,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52) 가구소득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의 분석은 사례수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생략함.

바. 시간제 학원 이용 만족도

자녀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이용하고 있는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시설 설비, 강사, 교육내용, 비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임, 높은 편, 매우 높음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비용은 매우 저렴, 저렴한 편, 적절, 비싼 편, 매우 비쌌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1) 전반적 만족도

분야별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VII-2-16>과 같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척도 평균은 모두 3.5~3.7점 정도로 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만족도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낮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으나, '매우 높음'이라는 응답도 소수였다.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이 '높은 편' 또는 '보통임'이라고 응답해,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은 중상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VII-2-16>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임	높은 편	매우 높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술	-	3.0	38.9	53.5	4.6	100.0(496)	3.60(.62)
음악	-	3.0	44.6	48.3	4.1	100.0(1,228)	3.55(.67)
체육	-	1.9	36.6	55.9	5.6	100.0(1,175)	3.66(.64)
과학	-	-	38.9	54.7	6.4	100.0(81)	3.67(.59)
수학	-	2.0	39.0	53.5	5.5	100.0(528)	3.63(.66)
언어	-	1.7	36.3	58.4	3.6	100.0(155)	3.66(.69)
컴퓨터	-	8.5	28.9	56.4	6.2	100.0(29)	3.60(.74)
영유아교육전문	-	4.8	28.4	62.4	4.4	100.0(91)	3.66(.64)
한자	-	6.1	33.0	56.9	4.0	100.0(54)	3.59(.67)
영어	0.1	2.3	38.5	54.9	4.2	100.0(1,247)	3.61(.61)
기타 외국어	-	4.7	41.0	49.2	5.1	100.0(16)	3.55(.69)
종합보습	0.1	3.5	42.7	50.8	2.9	100.0(853)	3.53(.64)
기타	-	0.7	32.1	61.8	5.4	100.0(108)	3.72(.57)

2) 영역별 만족도

분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고, 강사와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의 강사 및 교육내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보다 높은 반면, 비용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동이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시설 설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표 VII-2-17>에 제시되었다. 시설 설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3.2~3.6점 사이로 위에 제시한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도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과학 분야의 기관에 대한 시설 설비 만족도가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 영어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3.48점, 3.45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별다른 기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종합보습, 언어, 한자 분야 기관의 시설 설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컴퓨터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족도 수준이 '보통임'이라는 응답이 50%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 분야의 경우 시설 설비 수준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전무했다.

<표 VII-2-17>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임	높은 편	매우 높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술	1.3	11.2	53.0	31.5	3.0	100(496)	3.24(.74)
음악	0.8	8.6	58.2	29.6	2.8	100(1,228)	3.25(.68)
체육	1.2	5.2	56.5	33.3	3.8	100(1,175)	3.34(.69)
과학	-	-	47.2	45.5	7.3	100(81)	3.60(.63)
수학	0.6	5.0	52.6	39.4	2.4	100(528)	3.38(.65)
언어	3.2	8.9	52.0	33.9	2.0	100(155)	3.23(.77)
컴퓨터	-	8.7	37.4	51.3	2.6	100(29)	3.48(.70)
영유아교육전문	3.4	6.3	53.0	31.1	6.2	100(91)	3.31(.82)
한자	1.4	11.9	51.1	32.8	2.8	100(54)	3.24(.75)
영어	0.7	5.4	46.7	42.8	4.4	100(1,247)	3.45(.70)
기타 외국어	9.2	0.0	45.4	45.4	0.0	100(16)	3.27(.89)
종합보습	1.1	10.2	56.8	29.8	2.1	100(853)	3.21(.70)
기타	-	10.0	43.1	39.1	7.8	100(108)	3.45(.78)

둘째, <표 VII-2-18>은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 준다.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의 범위는 분야별로 3.4~3.8점으로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과학 관련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3.75점으로 가장 높고, 수학과 영어 관련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그 뒤를 이어서, 주요 교과목과 관련된 시간제 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의 수준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타 외국어 분야의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I-2-18>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임	높은 편	매우 높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술	0.1	1.6	41.3	52.7	4.3	100.0(496)	3.60(.61)
음악	0.1	2.4	45.6	47.8	4.1	100.0(1,228)	3.54(.62)
체육	-	1.3	39.9	53.3	5.5	100.0(1,175)	3.63(.61)
과학	-	-	36.7	51.8	11.5	100.0(81)	3.75(.65)
수학	-	0.9	37.3	56.1	5.7	100.0(528)	3.67(.60)
언어	-	0.8	39.6	55.2	4.4	100.0(155)	3.63(.58)
컴퓨터	-	5.8	33.7	54.3	6.2	100.0(29)	3.61(.70)
영유아교육전문	-	4.8	36.6	54.4	4.2	100.0(91)	3.58(.66)
한자	-	7.7	37.0	47.7	7.6	100.0(54)	3.55(.75)
영어	0.1	2.0	35.7	56.3	5.9	100.0(1,246)	3.66(.62)
기타 외국어	-	-	54.4	45.6	0.0	100.0(16)	3.46(.51)
종합보습	0.2	3.1	41.1	51.8	3.8	100.0(853)	3.56(.63)
기타	-	0.6	37.6	56.4	5.4	100.0(108)	3.67(.59)

셋째,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표 VII-2-19 참조). 과학 분야의 교육내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학, 언어, 영어 등 주요 과목의 교육내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강사의 수준은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범위는 3.5~3.8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음악과 기타 외국어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매우 소수였으며, 음악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답하였다.

〈표 VII-2-19〉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교육내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임	높은 편	매우 높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술	0.1	2.9	40.5	53.4	3.1	100.0(496)	3.57(.61)
음악	0.1	2.8	45.6	47.5	4.0	100.0(1228)	3.53(.62)
체육	-	2.6	39.1	52.4	5.9	100.0(1175)	3.62(.64)
과학	-	-	27.1	63.7	9.2	100.0(81)	3.82(.58)
수학	-	1.1	33.3	60.1	5.5	100.0(528)	3.70(.58)
언어	-	0.8	31.2	61.8	6.2	100.0(155)	3.73(.58)
컴퓨터	-	-	42.0	51.8	6.2	100.0(29)	3.64(.61)
영유아교육전문	-	5.5	24.8	67.2	2.5	100.0(91)	3.67(.62)
한자	-	6.0	35.2	52.3	6.5	100.0(54)	3.59(.71)
영어	0.1	1.6	34.2	59.3	4.8	100.0(1247)	3.67(.59)
기타 외국어	-	-	45.6	54.4	-	100.0(16)	3.54(.51)
종합보습	0.2	2.3	38.9	56.0	2.6	100.0(853)	3.58(.60)
기타	-	1.2	37.9	56.1	4.8	100.0(108)	3.65(.59)

넷째,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VII-2-20>과 같다.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비쌌, 비싼 편, 적절, 저렴, 매우 저렴한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⁵³⁾

〈표 VII-2-20〉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의 비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비쌌	비싼 편	적절	저렴한 편	매우 저렴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술	1.9	25.6	54.6	15.4	2.5	100.0(496)	2.91(.76)
음악	1.3	33.4	53.8	10.0	1.5	100.0(1228)	2.77(.75)
체육	2.1	31.0	53.7	10.6	2.6	100.0(1175)	2.81(.75)
과학	5.2	38.3	41.1	9.4	6.0	100.0(81)	2.73(.93)
수학	2.8	42.4	46.3	7.2	1.3	100.0(528)	2.62(.72)
언어	4.3	34.2	45.1	9.4	7.0	100.0(155)	2.80(.93)
컴퓨터	-	30.4	52.6	8.8	8.2	100.0(29)	2.95(.86)
영유아교육전문	5.4	27.1	47.6	14.8	5.1	100.0(91)	2.87(.91)
한자	-	23.3	58.7	6.6	11.4	100.0(54)	3.06(.88)
영어	5.2	46.6	39.8	6.7	1.7	100.0(1247)	2.53(.77)
기타 외국어	-	42.3	53.0	-	4.7	100.0(16)	2.67(.73)
종합보습	3.0	37.3	42.4	13.1	4.2	100.0(853)	2.78(.86)
기타	3.3	28.2	52.1	10.5	5.9	100.0(108)	2.88(.87)

53) 다른 부문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비교하기 위해 조사표를 역채점하였음.

비용 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야별로 약 2.5~3.1점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거나 약간 비싼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영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50% 안팎으로 가장 많았으나,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싼 편이라는 의견이 46.6%로 가장 많았다.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역채점한 점수를 보면, 대부분 3점 미만으로 다른 부문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분야별로는 한자 관련 프로그램이 3.06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 미술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다. 영어와 수학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53점, 2.62점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학교 성적에서 영어와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VII-2-20 참조).

3. 개별교육 이용과 비용

개별교육 이용은 개인지도와 그룹지도의 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지도의 종류는 교재교구 교육, 예체능 지도, 교과목 과외, 학습지 네 종류가 포함된다.

전체 아동의 연령별 개별교육 이용실태는 다음 <표 VII-3-1>과 같다. 개인지도나 그룹지도 중 한 가지 이상의 개별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38.3%였으며,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 아동은 35.2%, 그룹지도를 받고 있는 아동은 1.6%,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1.5%로 그룹지도의 이용률은 개인지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

<표 VII-3-1> 전체 아동의 연령별 개별교육 이용 현황

구분	이용 안 함	개인지도만	그룹지도만	개인지도+그룹지도	단위: %(명)
					전체(수)
전체	61.7	35.2	1.6	1.5	100.0(7,455)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73.6	26.1	0.1	0.2	100.0(3,303)
취학아동	52.2	42.4	2.9	2.5	100.0(4,152)
연령구분2					
영아	91.7	8.3	-	-	100.0(1,658)
유아	55.4	44.1	0.2	0.3	100.0(1,645)
초등저학년생	48.3	47.0	2.4	2.3	100.0(1,929)
초등고학년생	55.6	38.4	3.3	2.7	100.0(2,223)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26.3%가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 반면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아동은 0.3%에 불과했다. 취학아동은 44.9%가 개인지도를, 5.4%가 그룹지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하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의 0.2%, 초등학교생의 2.5%를 차지했다(표 VII-3-1 참조).⁵⁴⁾

가. 개별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

먼저 전체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취학 여부에 따라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초등학교생 이하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 현황

<표 VII-3-2>는 조사대상 아동들의 연령, 지역, 모 취업특성, 가구소득에 따른 개별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먼저 전체 아동의 38.4%가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총 4종류의 개별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34.1%가 1개, 3.7%가 2개, 0.6%가 3개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아동 대다수가 1개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교육 프로그램 이용 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의 경우 91.7%가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유아와 초등학교생은 절반에 가까운 아동들이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 더 많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모가 부재인 아동들은 대부분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개별교육의 이용 차이를 보면, 월소득 99만원 이하인 가구는 80% 이상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하는 개별교육의 종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별교육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쌀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간제 학원의 이용을 병행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개별교육까지 이용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표 VII-3-2 참조).

54) 그룹지도 이용 아동수가 소수이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교육으로 묶어서 함께 분석함.

〈표 VII-3-2〉 이용하는 총 개별교육 프로그램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수)	$\chi^2(df)$
전체	61.6	34.1	3.7	0.6	100.0	(7,455)	-
연령구분1							
미취학아동	73.6	24.9	1.3	0.2	100.0	(3,303)	389.4(3)**
취학아동	52.2	41.4	5.6	0.8	100.0	(4,152)	
연령구분2							
영아	91.7	8.0	0.3	-	100.0	(1,658)	884.6(9)**
유아	55.4	41.9	2.3	0.4	100.0	(1,644)	
초등저학년생	48.2	45.3	5.8	0.7	100.0	(1,929)	
초등고학년생	55.6	38.0	5.4	1.0	100.0	(2,223)	
지역규모							
대도시	60.1	34.4	4.5	1.0	100.0	(3,017)	61.1(6)**
중소도시	60.5	35.5	3.7	0.3	100.0	(3,176)	
읍·면	68.6	29.5	1.7	0.2	100.0	(1,262)	
모취업여부							
취업	60.7	35.5	3.4	0.4	100.0	(3,119)	71.8(6)**
미취업	60.9	34.3	4.1	0.7	100.0	(4,021)	
부재	83.2	16.2	0.6	-	100.0	(3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0.9	19.1	-	-	100.0	(414)	518.6(27)**
100~149만원	77.8	21.6	0.6	-	100.0	(626)	
150~199만원	69.1	29.7	1.2	-	100.0	(1,086)	
200~249만원	67.7	30.8	1.4	0.1	100.0	(1,043)	
250~299만원	59.3	36.7	3.5	0.5	100.0	(867)	
300~349만원	58.0	38.5	3.3	0.2	100.0	(997)	
350~399만원	57.7	36.1	5.4	0.8	100.0	(521)	
400~499만원	51.7	42.4	5.4	0.5	100.0	(774)	
500~599만원	44.2	44.9	9.2	1.7	100.0	(523)	
600만원 이상	49.1	37.5	10.4	3.0	100.0	(60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2) 미취학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 현황

가) 미취학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 수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개별교육 이용 현황을 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별교육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아동이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개별교육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만2세의 경우 개별교육 이용률이

20% 미만이나, 만3세가 되면 33.1%의 아동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만5세가 되면 과반수의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모가 부재인 아동들의 개별교육 이용률이 크게 낮았다(표 VII-3-3 참조).

〈표 VII-3-3〉 미취학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수)
전체	73.7	24.8	1.3	0.2	100.0	(3,303)
연령						
만0세	99.1	0.9	-	-	100.0	(547)
만1세	93.2	6.5	0.3	-	100.0	(581)
만2세	82.6	16.8	0.6	-	100.0	(531)
만3세	66.9	31.9	1.2	-	100.0	(511)
만4세	57.1	39.6	3.1	0.2	100.0	(508)
만5세	44.3	52.2	2.6	0.9	100.0	(547)
만6세	46.3	48.8	2.5	2.5	100.0	(79)
지역규모						
대도시	73.5	24.6	1.4	0.5	100.0	(1,318)
중소도시	71.7	26.7	1.5	0.1	100.0	(1,435)
읍·면	78.4	20.9	0.5	0.2	100.0	(550)
모취업여부						
취업	71.0	27.5	1.3	0.2	100.0	(1,113)
미취업	74.3	24.1	1.3	0.3	100.0	(2,114)
부재	92.0	8.0	-	-	100.0	(76)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나) 개별교육 이용 미취학 아동의 타 서비스 이용 현황

개별교육은 단독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주로 다른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 <표 VII-3-4>는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들의 반일제 기관 및 시간제 학원 이용현황을 보여준다.

<표 VII-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교육만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7.3%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아동들이 다른 서비스와 함께 개별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 개별교육과 반일제 기관을 병행하는 사례가 68.7%로 가장 많았으며, 반일제

기관과 시간제 학원을 모두 이용하면서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19.3%였다. 반면,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었다.

〈표 VII-3-4〉 개별교육 이용 미취학 아동의 기타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개별교육만	개별교육+ 반일제 기관	개별교육+ 시간제 학원	개별교육+반일제 기관+시간제 학원	계(수)
전체	7.3	68.7	4.7	19.3	100.0(871)
연령구분					
영아	32.1	40.1	26.3	1.5	100.0(137)
유아	2.7	74.0	0.7	22.6	100.0(734)
지역규모					
대도시	7.2	68.1	4.6	20.1	100.0(348)
중소도시	7.2	69.0	5.7	18.1	100.0(405)
읍·면	7.6	68.9	2.5	21.0	100.0(118)
모 취업여부					
취업	5.0	71.1	1.9	22.0	100.0(323)
미취업	8.7	67.2	6.5	17.6	100.0(541)
부재	-	66.7	-	33.3	100.0(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0	76.0	4.0	16.0	100.0(25)
100~149만원	1.8	76.4	3.6	18.2	100.0(55)
150~199만원	9.9	77.1	3.1	9.9	100.0(130)
200~249만원	7.4	76.9	5.6	10.2	100.0(110)
250~299만원	9.0	71.4	4.5	15.0	100.0(134)
300~349만원	4.7	68.2	3.1	24.0	100.0(129)
350~399만원	5.6	55.6	7.4	31.5	100.0(53)
400~499만원	12.4	58.8	7.2	21.6	100.0(96)
500~599만원	1.4	64.3	5.7	28.6	100.0(69)
600만원 이상	8.7	55.1	4.3	31.9	100.0(69)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지역규모나 모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취업모의 경우 개별교육만 이용하거나 개별교육과 시간제 학원을 병행하기 보다는 반일제 기관을 주로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별교육과 반일제 기관, 시간제 학원을 모두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VII-3-4 참조).

3) 초등학생 개별교육 이용 현황

가) 초등학생의 개별교육 이용 수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개별교육의 수 분포는 다음 <표 VII-3-5>와 같다. 초등저학년생이 고학년생보다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초등학생의 개별교육 이용률이 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의 자녀가 개별교육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가 부재인 경우, 개별교육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개별교육의 특성상 교사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가 집에 있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듯하다.

<표 VII-3-5> 초등학생의 개별교육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수)	X ² (df)
전체	52.2	41.4	5.6	0.8	100.0(4,152)	
학년						
초등저학년생	48.2	45.3	5.8	0.7	100.0(1,929)	25.580(3)**
초등고학년생	55.6	38.0	5.4	1.0	100.0(2,223)	
지역규모						
대도시	49.6	42.0	6.9	1.5	100.0(1,700)	53.525(6)**
중소도시	51.2	42.8	5.5	0.5	100.0(1,740)	
읍·면	61.3	36.1	2.5	0.1	100.0(712)	
모취업여부						
취업	55.1	39.8	4.6	0.5	100.0(2,007)	123.901(6)**
미취업	45.7	45.8	7.2	1.3	100.0(1,907)	
부재	80.3	18.9	0.8	-	100.0(2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개별교육 이용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이용

한편,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시간제 학원 이용을 살펴보면, 다른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교육만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약 20%였으며,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 1개를 병행하고 있었다. 초등학생 9.3%는 시간제 학원 외에 2개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을 3개 이상 병행하는 초등학생도 소수 있었다(표 VII-3-6 참조).

〈표 VII-3-6〉 개별교육 이용 초등학생의 시간제 학원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개별교육만 이용	시간제 학원+ 개별교육 1개	시간제 학원+ 개별교육 2개	시간제 학원+ 개별교육 3개 이상	계(수)
전체	20.5	68.9	9.3	1.3	100.0(1,984)
학년					
초등저학년생	19.4	70.3	9.1	1.2	100.0(998)
초등고학년생	21.5	67.4	9.7	1.4	100.0(986)
지역규모					
대도시	17.5	68.8	11.4	2.3	100.0(858)
중소도시	22.3	68.1	9.0	0.7	100.0(849)
읍·면	24.2	71.5	4.3	-	100.0(277)
모취업여부					
취업	19.2	71.5	8.0	1.0	100.0(902)
미취업	20.0	66.8	11.2	1.7	100.0(1035)
부재	36.2	63.8	-	-	100.0(4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2.7	47.3	-	-	100.0(55)
100~149만원	31.3	67.5	1.2	-	100.0(84)
150~199만원	39.3	57.3	3.4	-	100.0(206)
200~249만원	27.3	67.8	4.4	0.5	100.0(228)
250~299만원	23.7	66.2	9.3	0.8	100.0(218)
300~349만원	18.3	75.5	5.9	0.3	100.0(290)
350~399만원	18.2	70.3	10.9	0.6	100.0(166)
400~499만원	13.1	75.8	10.1	1.0	100.0(277)
500~599만원	7.7	73.8	16.8	1.7	100.0(223)
600만원 이상	7.5	67.4	19.2	5.4	100.0(238)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아동들이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시간제 학원과 2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비해 대도시가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모가 부재인 경우에는 시간제 학원과 2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병행하는 사례가 전무했다. 가구소득에 따른 이용 양상을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개별교육만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줄어들고, 시간제 학원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학원과 2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시간제 학원과 더불어 3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5.4%였다(표 VII-3-6 참조).

나. 이용 프로그램 종류

개별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교재교구 이용 프로그램, 예체능 교육, 교과목 과외, 학습지 네 종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지도 형태는 개인지도와 그룹지도를 구분하였다.

<표 VII-3-7>은 개별교육 이용아동의 프로그램 종류별 이용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 VII-3-7〉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종류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재교구		예체능		교과목 과외		학습지		(수)
	개인	그룹	개인	그룹	개인	그룹	개인	그룹	
전체	5.1	0.2	5.3	1.1	5.8	6.7	88.0	0.3	(2,855)
연령									
미취학	12.8	0.4	1.9	0.2	1.1	0.3	89.9	0.2	(871)
취학	1.7	0.2	6.8	1.6	7.9	9.5	87.2	0.4	(1,984)
지역규모									
대도시	5.2	0.1	6.8	1.1	7.8	7.5	87.9	0.4	(1,206)
중소도시	5.5	0.1	4.6	1.3	4.9	6.1	87.8	0.4	(1,254)
읍·면	3.7	1.1	3.2	0.5	3.0	6.1	88.8	-	(395)
모 취업여부									
취업	3.9	0.4	4.1	0.8	5.6	7.5	88.4	0.2	(1,226)
미취업	6.2	0.2	6.5	1.4	5.8	5.9	88.0	0.3	(1,577)
부재	-	-	-	-	11.1	10.9	78.6	2.5	(53)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대체로 그룹지도보다는 개인지도의 이용률이 높았으나, 교과목 과외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재교구, 예체능 교육, 교과목 과외 등은 이용비율이 개별교육 이용아동의 5~6%에 불과했으나, 이들에 비해 학습지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개별교육 이용아동의 대다수가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교재교구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이용률이 훨씬 높았으며, 취학아동은 예체능 교육과 교과목 과외의 이용률이 미취학 아동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아동들이 읍·면 지역 아동들에 비해 교과목 및 예체능 개인지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VII-3-7 참조).

한편, 전체 아동의 프로그램 종류별 이용 개수를 살펴보면, 학습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용아동들의 경우 대부분 1~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학습지는 이용아동 비율이 전체의 1/3

이상이며, 이용아동의 상당수가 2개 이상의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도 가장 높지만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수인 경우가 많았다(표 VII-3-8 참조).

〈표 VII-3-8〉 전체 아동의 개별교육 종류별 프로그램 이용 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수)
교재교구	98.0	1.8	0.2	-	-	100.0(7,455)
예체능	97.6	2.1	0.3	-	-	100.0(7,455)
교과목 과외	95.1	3.5	0.6	0.2	0.6	100.0(7,455)
학습지	66.2	14.5	10.5	5.8	3.0	100.0(7,455)

다음 <표 VII-3-9>는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아동 연령별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보면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생에 비해 교재교구 이용 교육 및 학습지 이용비율이 더 높은 반면, 초등학생은 예체능과 교과목 과외에서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아의 경우 교재교구의 이용비율이 전체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35.7%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유아와 초등저학년생의 경우에는 이용아동의 90% 이상이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표 VII-3-9〉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연령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종류	연령구분 1		연령구분 2				전체
	미취학	취학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교재교구	13.2	1.9	35.7	9.0	2.9	0.8	5.3
예체능	2.1	8.4	0.6	2.3	7.9	8.9	6.5
교과목 과외	1.4	17.5	0.6	1.5	11.8	23.2	12.5
학습지	90.1	87.5	66.6	94.4	91.3	83.7	88.3
(수)	(871)	(1,984)	(139)	(734)	(998)	(986)	(2,855)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한편, 초등학생이 되면, 교과목 과외의 이용 비율이 급증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초등학교학년이 되면 더 심해져서 초등학교학년생의 경우 학습지 이용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교과목 과외 이용 비율은 높아진다(표 VII-3-9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개별교육의 형태이며, 위 <표 VII-3-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주로 개인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부모 및 가구 특성에 따른 개별교육 프로그램 종류는 다음 <표 VII-3-10>과

같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예체능 및 교과목 과외를 상대적으로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소득별로는 학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학습지는 월소득이 150~300만원인 가구에서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학습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중위소득계층에서 학습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I-3-10>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재교구	예체능	교과목 과외	학습지	(수)
지역규모					
대도시	5.3	7.9	15.3	88.3	(1,206)
중소도시	5.6	6.0	11.0	88.2	(1,254)
읍·면	4.7	3.7	9.1	88.8	(395)
모취업여부					
취업	4.3	4.9	13.1	88.6	(1,226)
미취업	6.3	7.9	11.8	88.3	(1,577)
부재	-	-	22.1	81.1	(5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9	2.1	13.1	81.8	(79)
100~149만원	4.4	0.9	8.2	89.3	(139)
150~199만원	4.2	0.9	8.1	90.6	(336)
200~249만원	3.7	1.2	7.3	93.0	(338)
250~299만원	4.2	5.2	9.2	91.9	(351)
300~349만원	4.0	4.3	10.7	89.8	(419)
350~399만원	5.9	6.7	17.3	86.3	(219)
400~499만원	6.5	6.8	13.2	87.0	(374)
500~599만원	6.5	12.4	19.0	84.8	(292)
600만원 이상	9.6	20.0	21.0	82.1	(308)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음.

다. 개별교육 이용 시간

개별교육 이용시간은 각 프로그램별로 주 평균 이용시간을 분 단위로 조사하였다. 아동의 개별교육 이용시간을 총합한 결과는 <표 VII-3-1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아동들의 개별교육 이용 시간은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30분~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3.5%를 차지해 대다수의

아동들이 1시간 미만으로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들 가운데에는 편차가 매우 커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4.5%나 되었다(표 VII-3-11 참조).

〈표 VII-3-11〉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주당 총 이용시간 분포

단위: %(명)

구분	30분 미만	30~59 분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수)	$X^2(df)$
전체	34.6	33.5	13.8	6.8	4.9	1.9	4.5	100.0(2,855)	
연령구분1									
미취학	50.8	33.0	9.0	2.0	0.7	0.2	4.3	100.0(870)	220.3(6)**
취학	27.6	33.8	15.9	8.7	6.8	2.6	4.6	100.0(1 985)	
연령구분2									
영아	55.4	23.0	5.8	2.2	1.4	-	12.2	100.0(139)	296.1(18)**
유아	49.9	34.9	9.5	2.0	0.5	0.3	2.9	100.0(734)	
초등저학년생	29.0	37.5	15.6	7.4	5.1	1.4	4.0	100.0(997)	
초등고학년생	26.1	30.0	16.0	10.3	8.5	3.9	5.2	100.0(986)	
지역규모									
대도시	34.9	31.0	13.4	8.2	6.1	2.2	4.2	100.0(1,206)	21.5(12)*
중소도시	34.6	35.0	14.1	6.3	4.0	1.4	4.6	100.0(1,253)	
읍·면	34.2	36.7	13.7	4.0	4.3	2.5	4.6	100.0(395)	
모취업여부									
취업	32.3	34.7	13.9	5.4	6.2	2.0	5.5	100.0(1,226)	n.a
미취업	36.3	33.1	13.5	7.7	3.7	1.8	3.9	100.0(1,577)	
부재	40.4	21.2	17.3	9.6	11.5	-	-	100.0(5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3.0	32.9	6.3	6.3	2.5	2.5	6.3	100.0(79)	192.2(54)**
100~149만원	37.9	36.4	12.9	3.6	3.5	0.7	5.0	100.0(40)	
150~199만원	42.6	33.0	10.1	3.0	3.0	0.6	7.7	100.0(336)	
200~249만원	44.5	34.7	11.3	3.2	3.3	-	3.0	100.0(337)	
250~299만원	36.6	34.7	14.5	4.2	3.4	2.3	4.3	100.0(352)	
300~349만원	34.4	37.2	12.2	5.0	5.5	1.4	4.3	100.0(419)	
350~399만원	34.4	26.6	18.3	9.6	4.6	2.8	3.7	100.0(218)	
400~499만원	31.1	37.8	13.7	6.7	4.8	2.7	3.2	100.0(373)	
500~599만원	26.0	29.5	20.2	11.3	7.5	2.4	3.1	100.0(292)	
600만원 이상	22.1	29.0	15.3	15.1	9.1	3.9	5.5	100.0(30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는 $p<.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의 절반 이상이 30분 미만동안 개별교육을 이용한다고 답한 반면, 초등학생은 30분~1시간 미만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영아의 경우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아동들이 대다수인 반면, 10시간 이

상인 아동도 12.2%나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아의 경우 다른 시간제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집단에서 개별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표 VII-3-11 참조).

한편, 연령집단별로 주당 평균 개별교육 이용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표 VII-3-12 참조), F값에 대한 사후 검증결과 영아-유아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연령집단별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는 각각 31.9분, 34.7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초등학생 저학년은 영유아의 두 배 이상, 고학년은 세 배 이상의 시간 동안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평균 이용시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 취업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들은 개별교육을 주당 평균 82.1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주당 14분 더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VII-3-12 참조).

〈표 VII-3-12〉 아동연령, 지역 및 모 취업별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분(명)

구분	아동연령				지역			모 취업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미취업	모부재
평균	31.9	34.7	74.9	108.2	79.4	71.3	67.7	82.1	68.1	77.5
표준편차	38.4	46.8	120.5	155.9	123.6	123.4	116.9	138.0	109.9	94.7
(수)	(120)	(714)	(973)	(964)	(1172)	(1218)	(381)	(1187)	(1532)	(53)
F	57.5**				1.9			4.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는 $p<.01$ 을 의미함.

〈표 VII-3-13〉 가구소득별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분(명)

구분	~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0~499	500~599	600~
평균	73.8	57.0	61.3	48.2	61.9	68.7	80.7	80.6	92.3	116.6
표준편차	148.9	95.3	132.0	79.8	99.0	111.7	124.2	133.1	126.6	157.8
(수)	(79)	(139)	(336)	(338)	(351)	(419)	(219)	(374)	(292)	(308)
F	7.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는 $p<.01$ 을 의미함.

개별교육 이용시간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별교육을 30분 미만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높고 가구소득이 높아 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개별교육 이용시간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들의 경우 30분 미만 이용자 비율도 높지만, 한편으로 10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비율도 중간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개별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집단은 가구소득 150~199만원인 집단과 99만원 이하 집단, 그리고 6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순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교육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학습지와 교과목 개인과외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동특성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시간의 차이는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집단별 이용아동의 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예체능의 경우 아동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프로그램들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간에 이용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VII-3-14 참조). 지역규모에 따른 교과목 과외의 이용시간과 소득계층에 따른 학습지 이용시간의 차이는 F값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이 없었다.

〈표 VII-3-14〉에 나타난 프로그램별 개별교육 이용시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별 평균 이용시간은 교과목 과외의 이용시간이 가장 길었고, 이어서 예체능, 교재교구, 학습지 순이었다. 교과목 과외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256분으로 4시간 이상인 반면, 학습지는 30분 남짓으로 차이가 8배에 가까웠다. 교재교구와 예체능의 평균 이용시간은 각각 54분과 129분이었다. 교재교구와 교과목 과외, 학습지의 경우 미취학 아동보다 초등학생의 이용시간이 더 길었으며, 교과목 과외의 경우 그 차이가 2배 이상이었다.

〈표 VII-3-14〉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분야별 프로그램 이용 시간

단위: 분(명)

구분	교재교구			예체능			교과목 과외			학습지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전체	53.7	73.8	(142)	129.0	100.7	(184)	256.0	196.8	(356)	33.2	25.3	(2441)
미취학	46.7	74.5	(108)	100.8	73.8	(18)	112.1	112.8	(12)	27.2	20.2	(752)
취학	76.2	67.5	(34)	132.1	102.9	(166)	261.0	197.3	(344)	35.9	26.8	(1688)
t		-2063*			-1.252			-2.593**			-8.88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는 $p < .01$ 을 의미하고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라. 이용 비용

1) 아동연령별 개별교육 이용비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개별교육 이용비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평균 비용은 9만 9천원 정도로 이는 시간제 학원의 월 이용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약 90%의 아동들이 개별교육 이용비용을 20만원 미만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표 VII-3-15>에 제시된 연령별 개별교육 이용비용의 차이를 보면, 영아와 유아는 5만원 미만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초등학생은 5~10만원을 지불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는 영아가 5만 6천원, 유아는 6만 6천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은 평균 이용비용이 10만원 이상이였다.

<표 VII-3-15>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연령별 이용비용

단위: %, 천원(명)

구분	연령구분 1		연령구분 2				전체
	미취학	취학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5만원 미만	49.1	21.7	57.7	47.3	22.2	21.2	30.1
5~10만원	34.9	34.2	29.2	35.9	38.9	29.5	34.4
10~15만원	10.2	20.5	8.8	10.5	21.4	19.5	17.3
15~20만원	3.3	10.3	1.5	3.8	7.9	12.8	8.2
20~25만원	0.9	5.4	1.5	1.0	4.3	6.4	4.0
25~30만원	0.8	2.7	0.7	0.8	1.8	3.6	2.1
30~40만원	0.4	3.1	0.6	0.3	2.0	4.2	2.2
40만원 이상	0.4	2.1	-	0.4	1.5	2.8	1.7
계(수)	100.0(871)	100.0(1984)	100.0(137)	100.0(734)	100.0(998)	100.0(986)	100.0(2855)
평균 비용	64.1	114.0	55.6	65.7	102.3	125.9	98.8
표준편차	56.9	101.2	49.0	58.2	82.6	116.0	92.9
F/t	-16.741**		74.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영아의 경우 개별교육 이용비용이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과 유사한 반면, 나머지 집단은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보다 개별교육 이용비용이 훨씬 적었다. 집단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F값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영아-유아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집단과 유아집단은 개별교육 이용비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집단과 초등저학년 및 고학년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했다.

<표 VII-3-16>에 제시된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이용비용의 차이를 보면, 교과목 과외의 평균 이용비용이 약 1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 개별교육도 11만 9천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교재교구와 학습지의 평균 이용비용은 7만 6천원 안팎으로 비슷했다. 교재교구는 미취학 아동의 이용이 편중되어 있는 반면, 예체능과 교과목 과외는 취학아동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용비용도 초등학생이 더 높았다. 학습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모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개별교육의 형태로 영아의 경우 4만 1천원, 유아는 5만 9천원,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은 각각 8만 1천원, 8만 9천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과목 과외와 학습지 이용비용은 증가하며, 초등학생은 미취학 아동에 비해 약 50%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반면, 교재교구와 예체능 프로그램은 초등저학년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16>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연령구분 1		연령구분 2				전체	
	미취학	취학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교재 교구	평균	71.7	91.7	77.1	67.7	96.5	74.0	76.6
	SD	51.6	70.5	63.8	40.4	75.7	46.8	57.2
	수	(115)	(37)	(49)	(66)	(29)	(8)	(152)
예체능	평균	91.5	122.3	100.0	91.1	126.8	118.2	119.3
	SD	48.0	103.3	0.0	49.1	109.7	97.6	99.6
	수	(18)	(166)	(1)	(17)	(79)	(88)	(184)
교과목 과외	평균	108.7	161.2	50.0	113.2	134.0	175.2	159.5
	SD	80.6	123.8	0.0	82.0	88.5	136.5	122.9
	수	(12)	(346)	(1)	(11)	(117)	(229)	(358)
학습지	평균	56.9	84.4	40.8	59.0	80.7	88.6	75.9
	SD	43.6	52.7	23.6	45.2	45.2	59.7	51.6
	수	(785)	(1737)	(91)	(693)	(911)	(826)	(2521)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개별교육 이용비용

<표 VII-3-17>은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부모 및 가구특성별 이용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대도시의 평균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10만 8천원으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평균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각각 9만 5천원, 8만 3천원으로 이들 두 지역 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비용의 표준편차가 커서, 개별교육에 대한 이용비용의 개인차가 타 지역에 비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I-3-17〉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특성별 이용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25만원	25~30만원	30~40만원	4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대도시	30.3	31.3	17.5	7.7	4.7	2.6	3.3	2.6	100.0(1206)	108.5(112.7)
중소도시	29.0	36.7	18.0	7.7	4.0	2.0	1.6	1.0	100.0(1254)	94.6(78.3)
읍·면	32.8	36.6	14.9	11.4	1.7	1.3	1.0	0.3	100.0(395)	82.7(60.1)
$\chi^2(df)/F$	49.371(14)**									13.846**
모 취업여부										
취업	27.5	34.5	18.7	9.1	4.0	2.9	2.0	1.3	100.0(1226)	100.6(88.7)
미취업	32.0	34.2	16.4	7.6	4.0	1.5	2.5	1.8	100.0(1577)	97.8(96.4)
부재	32.1	39.6	15.1	7.5	-	-	1.9	3.8	100.0(53)	88.1(84.6)
$\chi^2(df)/F$	na									0.672
가구소득										
99만원이하	48.1	29.1	15.2	5.1	1.2	1.3	-	-	100.0(79)	67.2(51.0)
100~149만원	45.7	38.6	10.7	1.4	2.2	-	0.7	0.7	100.0(139)	64.9(59.9)
150~199만원	38.8	34.0	15.8	7.2	3.6	0.3	0.3	-	100.0(336)	75.9(52.1)
200~249만원	37.1	39.8	15.7	5.9	1.2	-	0.3	-	100.0(338)	72.8(45.2)
250~299만원	31.9	34.2	18.8	9.1	3.7	1.4	0.6	0.3	100.0(351)	87.1(63.6)
300~349만원	29.7	36.8	17.7	7.4	4.1	1.9	1.4	1.0	100.0(419)	92.4(80.0)
350~399만원	29.5	28.2	21.8	10.0	3.7	1.8	3.2	1.8	100.0(219)	102.7(85.7)
400~499만원	24.0	37.9	16.0	9.1	4.7	2.9	4.3	1.1	100.0(374)	105.9(83.2)
500~599만원	18.2	31.8	19.9	12.7	4.7	5.8	4.8	2.1	100.0(292)	127.1(108.0)
600만원이상	18.8	28.5	18.4	8.7	8.1	4.2	5.2	8.1	100.0(308)	159.8(167.2)
$\chi^2(df)/F$	324.898(93)**									29.61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지역규모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는 이용시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는데, 지역규모별 평균 개별교육 이용시간은 대도시가 79분, 중소도시가 71분, 읍·면 지역이 68분으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표 VII-3-12 참조). 따라서 주당 이용시간 대비 비용을 계산해본 결과, 여전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으로 나타나, 이용시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대도시의 이용비용이 다소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별교육 이용비용을 가장 적게 지출하는 집단은 월소득 100~149만원인 가구로 월 평균 약 6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장 많이 지출하는 집단은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약 1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2.5배 정도였다. F값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다른 모든 가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VII-3-17 참조). 가구소득과 개별교육 이용비용 간의 상관관계는 0.272⁵⁵⁾로,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에 비해 상관관계의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 <표 VII-3-18>과 <표 VII-3-19>는 개별교육 이용아동의 부모 및 가구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표 VII-3-18>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특성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지역규모									
교재교구	86.0	(72.5)	(64)	74.4	(43.3)	(70)	52.7	(34.1)	(19)
예체능	142.8	(116.0)	(95)	97.8	(74.8)	(75)	76.3	(44.1)	(15)
교과목 과외	171.5	(139.0)	(184)	157.8	(106.5)	(138)	103.9	(68.1)	(36)
학습지	75.3	(51.6)	(1065)	76.2	(51.6)	(1105)	76.5	(52.1)	(351)
구분									
			취업			미취업			모부재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모취업									
교재교구	90.8	(68.5)	(52)	69.1	(49.0)	(100)	-	-	-
예체능	99.1	(81.4)	(60)	128.9	(106.2)	(125)	-	-	-
교과목 과외	166.4	(131.5)	(161)	153.8	(115.8)	(186)	152.9	(114.6)	(12)
학습지	79.0	(53.0)	(1086)	73.7	(50.3)	(1392)	67.1	(56.4)	(43)

주: 각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는 복수응답임. 빈도수 분포 특성상 유의도 검증은 적절하지 않고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지역규모에 따른 월 평균 이용비용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학습지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순으로 이용비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VII-3-18 참조). 특히 예체능과 교과목 과외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비용차이가 6만원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학습지의 이용비용은 지역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이용비용이 높았다. 이는 학습지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프로

55) Pearson's $r = .272(p < .001)$

그램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모 취업에 따라서는 예체능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체능 분야에서는 미취업모의 자녀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표 VII-3-18 참조). 가구 소득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을 보면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은 월소득 350~399만원인 가구의 이용비용이 1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2만 4천원 정도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표 VII-3-19 참조).

〈표 VII-3-19〉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에 따른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교재교구			예체능			교과목 과외			학습지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4.4	23.6	(2)	33.0	0.0	(2)	69.6	69.0	(10)	69.2	48.7	(65)
100~149만원	51.0	35.6	(6)	20.0	0.0	(1)	157.9	102.8	(11)	55.4	41.6	(124)
150~199만원	90.4	86.3	(14)	102.6	5.4	(3)	124.1	46.6	(27)	67.5	44.3	(304)
200~249만원	60.8	40.6	(13)	90.6	31.0	(4)	103.1	43.6	(25)	66.5	37.8	(314)
250~299만원	50.3	26.7	(15)	79.4	53.4	(18)	131.9	64.0	(32)	74.7	47.6	(323)
300~349만원	71.6	47.7	(17)	90.6	41.3	(18)	141.4	98.8	(45)	78.4	62.1	(377)
350~399만원	110.1	87.3	(13)	92.4	68.5	(15)	160.9	101.7	(38)	72.0	44.4	(189)
400~499만원	67.7	39.1	(24)	109.5	45.0	(26)	168.4	86.2	(49)	82.6	49.0	(325)
500~599만원	83.3	49.2	(19)	120.5	69.8	(36)	158.6	138.4	(56)	90.3	54.6	(247)
600만원이상	90.1	60.8	(30)	156.4	145.4	(62)	230.1	187.5	(65)	87.2	64.3	(253)
Pearson's r	.152(p=.061)			.281(.000)			.270(.000)			.160(.000)		

주: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그러나 가구소득과 교재교구 프로그램 이용비용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r=.061$). 반면, 예체능과 교과목 과외, 학습지의 이용비용과 가구소득 간의 관계는 상관관계의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체능의 경우 월소득 100~149만원인 가구의 이용비용이 2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이용비용은 15만6천원으로 8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교과목 과외의 경우 월소득 99만원 이하 가구의 이용비용이 7만원 정도였으며,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월 평균 23만원을 아동 한 명당 교과목 과외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지 이용비용은 가구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가장 낮은 비용을 지출하는 월소득 100~149만원인 가구는 5만 5천원을, 가장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월소득 500~599만원의 가구는 9만원 가량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이용비용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표 VII-3-19 참조).

4. 소결

전체 미취학 아동의 32.8%와 취학아동의 85.6%가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시간제 학원이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은 개인지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취학아동은 시간제 학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의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의 이용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이용률과 이용시간,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시간이 더 길고 이용비용도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시간제 학원과 개별교육을 나누어 이용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제 학원에 대한 결과이다. 첫째,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원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의 12.8%, 취학아동의 75.8%가 현재 한 가지 이상의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영아들은 대부분 시간제 학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유아들은 시간제 학원과 반일제 기관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영아기에는 영유아 전문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유아기와 초등저학년 때에는 예체능 프로그램을, 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종합보습 등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시간제 교육의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길었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이용시간이 더 길었다.

둘째, 이용 중인 시간제 학원에 대한 만족도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시설 설비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고, 강사와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간제 학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5~3.7점(5점 만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제 학원의 이용비용은 영아가 평균 5만6천원, 유아는 10만원, 초등저학

년은 19만원, 초등고학년은 23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연령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간제 학원의 이용비용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많았으며,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 개별교육에 대한 결과이다. 첫째, 영아의 경우 91.7%가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유아와 초등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 더 많이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별교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교육은 단독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주로 다른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용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의 90% 이상과 초등학생의 80% 가량이 다른 반일제 기관이나 시간제 학원과 병행하여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대다수는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예체능 교육, 교과목 과외 등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개별교육 이용아동의 5~6%에 불과했다. 개별교육 이용시간은 초등고학년, 초등저학년, 영유아 순으로 길었으며, 취업모의 자녀들이 미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주당 14분 더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평균 9만9천원 정도로 시간제 학원의 평균 이용비용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었으며, 영아와 유아는 각각 5만6천원, 6만6천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의 평균 비용은 10만원 이상이었다. 개별교육 이용비용은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VIII.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욕구

제8장에서는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초등학생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방과후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장소 선호도 등을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 특성,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3절에서는 보육시설과 공부방의 이용 특성, 비용,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아동학년, 지역,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1.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욕구

가. 초등학생 방과후 주 이용 기관

<표 VIII-1-1>은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가 끝난 후 주로 이용하는 기관으로,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68.5%로 가장 높고, 다음은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의 이용이 12.8%이며, 이외에는 5% 미만으로 미미하다. 또한, 방과후에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10.3%로 적지 않다. 이는 2004년도 조사결과에 비하여 학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집에서 보내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공부방/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학년을 구분해 보면 저학년생이 학교 방과후보육,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년생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구립/시립기관,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학교 방과후 보육,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방과후에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읍·면지역보다 높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초등학생의 경우 미취업보다 학교방과후 보육,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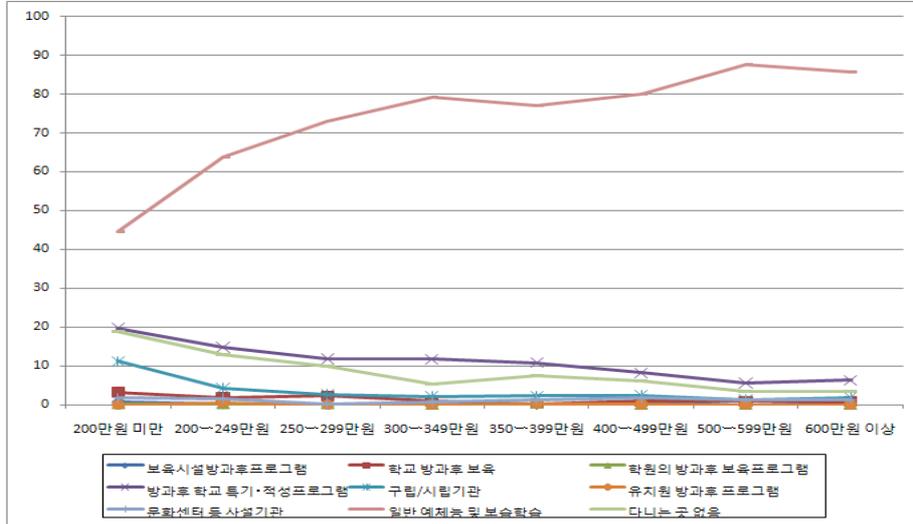
가정보다 학교 방과후보육,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구립/시립기관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으나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9.5%로 상당히 낮고,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16.0%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집단임에도 이용률은 낮은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은 학교 방과후 보육,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구립/시립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동은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표 VIII-1-1〉 아동, 모취업상태 및 가구소득별 귀가 후 시간 보내는 방법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학원 방과후 보육	학교 특기· 적성프 로그램	구립/ 시립 기관	유치원	사설 기관	일반 학원	다니는 곳 없음	계	(수)
전체	0.4	1.7	0.1	12.8	4.8	0.1	1.3	68.5	10.3	100.0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0.7	3.2	0.2	13.5	4.8	0.1	1.1	66.7	9.7	100.0	(1,930)
초등고학년생	-	0.5	-	12.2	4.8	0.1	1.5	70.0	10.9	100.0	(2,222)
지역											
대도시	0.4	1.3	0.2	10.1	4.9	-	1.4	72.2	9.5	100.0	(1,700)
중소도시	0.4	1.8	-	11.9	5.3	0.3	1.0	67.5	11.8	100.0	(1,741)
읍·면	0.1	2.4	-	21.5	3.4	-	1.8	61.9	8.9	100.0	(711)
모 취업											
취업	0.5	2.0	0.1	12.8	4.8	0.1	1.4	70.6	7.7	100.0	(2,007)
미취업	0.3	1.0	0.1	11.9	3.4	-	1.3	69.8	12.2	100.0	(1,907)
부재	-	5.5	0.8	21.0	15.5	1.3	0.4	39.5	16.0	100.0	(23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0.4	4.7	-	26.3	19.6	-	1.2	29.4	18.4	100.0	(255)
100~149만원	-	3.7	0.6	16.4	10.8	-	1.9	46.1	20.5	100.0	(323)
150~199만원	1.3	2.1	-	18.5	7.4	-	1.9	50.9	17.9	100.0	(525)
200~249만원	0.2	1.8	0.2	14.8	4.2	0.5	1.6	63.8	12.7	100.0	(547)
250~299만원	-	2.2	0.2	11.8	2.6	-	0.2	73.1	9.7	100.0	(457)
300~349만원	-	0.9	-	11.7	2.1	-	0.7	79.2	5.4	100.0	(572)
350~399만원	-	0.3	0.3	10.8	2.2	0.3	1.3	77.1	7.7	100.0	(314)
400~499만원	0.6	0.9	-	8.2	2.4	0.2	1.7	79.9	6.1	100.0	(462)
500~599만원	-	0.9	-	5.6	1.3	-	1.3	87.5	3.4	100.0	(320)
600만원 이상	0.5	0.8	-	6.3	1.9	-	1.3	85.7	3.5	100.0	(378)



[그림 VIII-1-1] 가구소득수준별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한편, 방과후에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18~20%로 높다.

<표 VIII-1-2>는 이용하는 기관수를 나타낸다. 초등학생 중에 방과후에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10.6%이었고, 기관을 하나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89.4%이다. 그 중에서 1개의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56.7%로 과반수 이상이고, 2개는 30.2%이며 이외에 3개 기관 이상을 이용하는 아동은 2.5%에 불과하다.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평균기관수는 1.25개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도 조사결과인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7.6%, 기관을 하나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82.4%와 비교할 때 기관이용 비율이 7.0% 포인트 증가하였다.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학년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차이가 없으나 중·소도시는 87.9%로 읍·면지역의 90.9%보다 다소 낮다. 또한 모가 취업한 가정의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9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미취업 가정의 아동, 모부재 아동의 순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평균기관수는 아동의 학년, 지역 및 모 취업, 가구소득별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표 VIII-1-2 참조).

〈표 VIII-1-2〉 초등학교 기관 이용 수

단위: %(명), 개

구분	0	1	2	3	4	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6	56.7	30.2	2.4	0.1	100.0	(4,152)	1.25	0.67
초등학생									
저학년	10.0	54.9	31.9	3.1	0.1	100.0	(1,929)	1.28	0.68
고학년	11.1	58.3	28.7	1.9	-	100.0	(2,223)	1.21	0.66
지역									
대도시	9.6	55.4	32.0	2.9	0.1	100.0	(1,699)	1.28	0.67
중소도시	12.1	60.3	25.7	1.8	0.1	100.0	(1,741)	1.17	0.65
읍·면	9.1	51.3	36.8	2.8	-	100.0	(712)	1.33	0.67
현재 모취업									
취업	8.1	58.3	31.0	2.5	0.1	100.0	(2,007)	1.28	0.64
미취업	12.4	54.4	30.8	2.3	0.1	100.0	(1,907)	1.23	0.69
모부재	16.0	62.4	18.6	3.0	-	100.0	(237)	1.08	0.6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8.3	59.0	21.5	1.2	-	100.0	(256)	1.06	0.67
100~149만원	20.5	51.7	23.5	4.3	-	100.0	(323)	1.12	0.77
150~199만원	17.9	55.8	25.2	1.1	-	100.0	(524)	1.10	0.68
200~249만원	13.2	55.8	28.6	2.4	-	100.0	(548)	1.20	0.68
250~299만원	10.4	57.2	30.9	1.5	-	100.0	(456)	1.23	0.64
300~349만원	5.7	58.4	34.3	1.4	0.2	100.0	(572)	1.32	0.60
350~399만원	7.9	56.5	31.3	4.2	-	100.0	(313)	1.32	0.67
400~499만원	6.3	56.0	34.5	3.2	-	100.0	(464)	1.35	0.64
500~599만원	3.8	55.9	36.9	3.1	0.3	100.0	(320)	1.40	0.62
600만원 이상	3.7	61.0	32.1	2.9	0.3	100.0	(377)	1.35	0.62
2004년조사	17.6	62.7	19.1	0.6	-	100.0	(3,448)	1.03	0.63

나. 기관 이용 이유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3,714명을 대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동의 과반수 이상인 52.2%가 학습지도 때문이고, 특기·적성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은 34.7%이고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은 6.8%, 돌볼 사람이 없어서는 5.0%에 불과하여 아동의 약 87%가 학습·특기 교육 등 교육적인 이유로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였다. 2004년도 조사결과인 학습지도 55.2%, 정서 및 사회성 발달 21.0%, 돌볼기관/사람이 없어서 12.8%, 집의 학습환경이 열악해서 10.9%와 비교할 때 학습지도는 비슷한 수준이고, 이외에 다른 이유는 감소한 반면 특기·적성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저학년생은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 특기·적성교육,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때문이 높은 반면, 고학년생은 과반수 이상인 64.5%가 학습지도 때문이다. 대도시지역은 전체보다 학습지도 때문이 56.2%로 높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특기·적성교육 때문이 전체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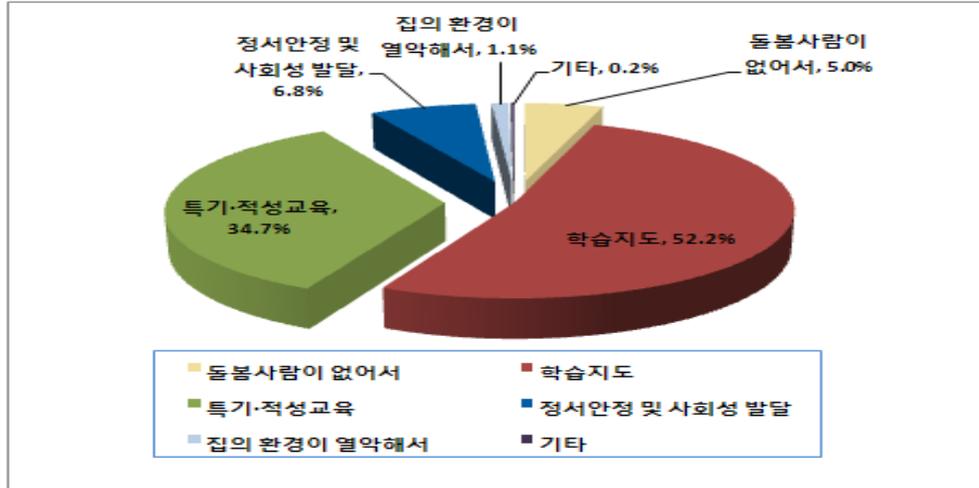
모의 유무 및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모가 있는 경우는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학습지도 이외에 특기·적성교육 때문인 비율이 높은 반면, 모가 부재한 경우는 학습지도 때문이 65.0%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모가 취업 중이거나 부재한 경우는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도 전체보다 높다.

〈표 VIII-1-3〉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구분	돌볼 사람이 없어서	학습 지도	특기·적성교육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집의 환경이 열악해서	기타	계	(수)	$X^2(df)$
전체	5.0	52.2	34.7	6.8	1.1	0.2	100.0	(3,714)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7.8	38.4	43.8	8.5	1.3	0.2	100.0	(1,740)	264.5(5)**
초등고학년생	2.6	64.5	26.7	5.3	0.8	0.1	100.0	(1,973)	
지역									
대도시	4.4	56.2	32.9	5.6	0.9	-	100.0	(1,533)	35.7(10)**
중소도시	5.9	49.0	35.0	8.1	1.6	0.4	100.0	(1,535)	
읍·면	4.6	50.3	38.1	6.3	0.5	0.2	100.0	(646)	
현재 모취업									
취업	8.5	53.1	31.3	5.6	1.3	0.2	100.0	(1,847)	na
미취업	0.8	49.9	40.3	8.1	0.7	0.2	100.0	(1,669)	
모부재	7.6	65.0	18.8	6.1	2.5	-	100.0	(19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9.1	45.0	31.1	9.1	5.7	-	100.0	(209)	na
100~149만원	10.1	46.7	29.2	10.9	2.3	0.8	100.0	(257)	
150~199만원	5.2	52.7	31.6	7.5	2.3	0.7	100.0	(427)	
200~249만원	6.1	48.4	38.6	6.1	0.8	-	100.0	(477)	
250~299만원	6.1	52.3	35.0	6.1	0.5	-	100.0	(411)	
300~349만원	3.3	51.5	37.5	6.8	0.9	-	100.0	(538)	
350~399만원	2.4	56.1	34.8	6.4	-	0.3	100.0	(287)	
400~499만원	3.2	52.3	36.4	8.1	-	-	100.0	(434)	
500~599만원	4.2	55.0	37.2	3.3	0.3	-	100.0	(309)	
600만원 이상	3.8	60.2	30.2	5.5	-	0.3	100.0	(364)	
2004년 조사	12.8	55.2	-	21.0	10.9	0.1	100.0	(204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그림 VIII-1-2] 방과후 프로그램 필요 이유

가구소득별로는 공통적으로 학습지도와 특기·적성교육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외에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은 돌봄 사람이 없어서,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집의 환경이 열악해서 등도 전체보다 높다.

전반적으로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학습지도·특기교육 등 교육적인 이유에 집중되고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때문은 저학년생, 중소도시 아동, 모가 미취업인 가정, 저소득 가정의 경우 높고, 돌봄 사람이 없기 때문은 모가 취업인 가정과 저소득 가정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표 VIII-1-3 참조).

다.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이용 기관 기능에 대한 의견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3,722명을 대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부모 대신 보호하고 지도하는 대리보호와 아동 능력 개발인 교육의 비중에 대해 각각 조사한 결과, 부모대리 기능의 평균 비중은 30.4%, 아동능력 개발 기능은 69.6%로 교육적 기능의 비중이 대리보호 기능보다 약 2배 높다.

부모대리 기능의 평균 비중은 저학년생 32.5%, 중소도시 아동 31.4%, 모가 취업중인 가정 33.0%, 모 부재인 가정은 36.0%로 높다. 아동능력 개발 기능의 평균 비중은 고학년생이 71.5%,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은 각각 70.4%, 70.1%이고, 모가 미취업인 가정은 73.1%로 높다(표 VIII-1-4, VIII-1-5 참조).

〈표 VIII-1-4〉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부모대리 비중

단위: %(명)

구분	부모대신 보호하고 지도								통계량		
	0	~24	25~49	50~74	75~99	100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12.1	31.2	29.6	24.1	2.8	0.2	100.0	(3,722)	30.4	20.8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1.1	28.2	30.4	26.2	3.7	0.4	100.0	(1,740)	32.5	21.5	59**
초등고학년생	13.1	33.8	28.9	22.1	2.1	0.1	100.0	(1,981)	28.5	20.0	
지역											
대도시	11.2	34.2	29.3	22.6	2.5	0.1	100.0	(1,539)	29.6	20.4	2.9
중소도시	12.2	29.5	29.6	24.7	3.5	0.5	100.0	(1,536)	31.4	21.5	
읍·면	14.1	28.0	30.8	25.1	2.0	-	100.0	(647)	29.4	20.1	
현재 모취업											
취업	10.3	28.0	29.6	28.2	3.6	0.3	100.0	(1,851)	33.0	21.3	46.4**
미취업	14.3	35.8	30.0	18.2	1.6	0.1	100.0	(1,671)	26.9	19.4	
모부재	10.6	23.1	26.6	33.2	5.5	1.0	100.0	(199)	36.0	23.0	
2004년 조사	28.5	25.3	18.7	23.6	2.5	0.6	100.0	(839)	25.7	23.6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VIII-1-5〉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에서 아동능력 개발 비중

단위: %(명)

구분	아동 능력 개발								통계량		
	0	~24	25~49	50~74	75~99	100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0.2	2.8	7.0	46.5	31.4	12.1	100.0	(3,722)	69.6	20.8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0.4	3.7	8.3	48.2	28.3	11.1	100.0	(1,742)	67.5	21.5	-59**
초등고학년생	0.1	2.1	6.0	44.6	34.1	13.1	100.0	(1,982)	71.5	20.0	
지역											
대도시	0.1	2.5	7.5	44.3	34.4	11.2	100.0	(1,538)	70.4	20.4	3.0
중소도시	0.5	3.5	7.0	47.0	29.8	12.2	100.0	(1,536)	68.6	21.5	
읍·면	-	2.0	6.0	49.6	28.3	14.1	100.0	(647)	70.1	20.1	
현재 모취업											
취업	0.3	3.6	8.5	49.2	28.1	10.3	100.0	(1,851)	67.0	21.3	46.1**
미취업	0.1	1.6	5.0	42.9	36.1	14.3	100.0	(1,671)	73.1	19.4	
모부재	1.0	5.5	10.1	49.7	23.1	10.6	100.0	(199)	64.1	23.0	
2004년 조사	0.7	2.6	6.7	35.8	25.6	28.6	100.0	(839)	74.1	23.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라. 이용 기관 만족도

1)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 만족도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63.7%, 보통이 32.8%,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합친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3.5%에 불과하였다. 5점 척도 평균은 3.75점으로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 중간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1-6 참조).

〈표 VIII-1-6〉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의 만족도(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5점 척도
전체	0.4	3.1	32.8	48.6	15.1	100.0	(3,722)	3.75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0.3	3.8	32.5	48.8	14.6	100.0	(1,742)	3.74
초등고학년생	0.5	2.6	33.0	48.4	15.5	100.0	(1,981)	3.76
지역								
대도시	0.3	2.6	32.6	52.6	11.9	100.0	(1,539)	3.73
중소도시	0.4	3.6	33.6	45.2	17.2	100.0	(1,535)	3.75
읍·면	0.6	3.6	31.1	47.0	17.8	100.0	(647)	3.77
현재 모취업								
취업	0.4	3.1	33.1	48.8	14.6	100.0	(1,852)	3.74
미취업	0.4	3.4	33.1	48.9	14.2	100.0	(1,673)	3.73
모부재	0.5	2.0	26.8	43.4	27.3	100.0	(198)	3.9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9	3.3	26.2	46.2	22.4	100.0	(210)	3.84
100~149만원	-	3.9	31.9	49.0	15.2	100.0	(257)	3.75
150~199만원	-	4.0	28.6	49.1	18.4	100.0	(430)	3.82
200~249만원	-	3.1	33.9	47.5	15.5	100.0	(478)	3.76
250~299만원	0.5	4.1	33.7	47.3	14.4	100.0	(410)	3.71
300~349만원	0.7	2.8	36.0	48.9	11.6	100.0	(542)	3.68
350~399만원	1.0	1.0	31.6	52.4	13.9	100.0	(288)	3.77
400~499만원	0.2	2.5	32.8	53.2	11.2	100.0	(436)	3.72
500~599만원	-	4.2	34.2	46.1	15.5	100.0	(310)	3.73
600만원 이상	-	3.3	34.2	44.9	17.5	100.0	(365)	3.77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친 만족한다는 비율은 고학년생이 63.9%로 저학년생보다 높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64.8%로 타 지역보다 약간 높고, 모 부재 가정

이 70.7%로 모가 있는 가정보다 높고, 모가 취업중인 가정이 63.4%로 모가 미취업인 가정보다 다소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평균만족도는 아동의 학년, 모취업, 가구소득별로 동일한 경향을 보이거나 지역별로는 다르게 나타나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표 VIII-1-6 참조).

2)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불만족 이유

방과후에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 기관 서비스에 매우 불만족, 불만족으로 응답한 아동 133명을 대상으로 불만족스러운 점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이 부적절 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28.8%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교사자질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26.9%, 비용이 너무 높다는 17.2%이다. 이외에 이용시간이 부적절, 아동이 피곤해함, 환경이 좋지 않음, 거리가 가깝지 않음,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 등도 불만족 이유로 지적되었다(표 VIII-1-7 참조).

저학년생은 이용시간의 부적절, 거리가 가깝지 않음,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 환경이 좋지 않음, 프로그램이 부적절 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고, 고학년생은 비용이 너무 높음, 간식제공이 되지 않음, 아이가 피곤해 함, 교사자질이 만족스럽지 않음의 응답이 많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이용시간의 부적절, 비용이 너무 높음을 응답한 비율이 높고, 교사자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이 높고, 프로그램이 부적절 또는 부족하다는 응답은 대도시와 읍·면이 높다. 모가 미취업인 가정은 비용이 너무 높다, 프로그램이 부적절 또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모가 취업중인 가정과 부재한 가정은 이용시간의 부적절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이외에도 모가 부재인 가정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을 응답한 비율이 높다. 저소득층인 가정은 이용시간의 부적절,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 환경이 좋지 않음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인 가정은 비용이 너무 높음, 교사자질이 만족스럽지 않음, 프로그램이 부적절 또는 부족을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방과후에 이용하는 기관의 불만족한 점으로 저학년아동, 도시지역 아동, 모가 취업중인 가정과 모 부재 가정, 저소득층인 가정 등은 이용시간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고학년 아동, 도시지역 아동, 모가 미취업인 가정, 고소득 가정은 비용이 높은 점을 응답하였다. 이외에 교사자질 및 프로그램 등 질적인 측면은 모가 있는 가정, 고소득층 가정에서 지적한 비율이 높다(표 VIII-1-7 참조).

〈표 VIII-1-7〉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의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용 시간 부적절	비싼 비용	먼거리	차량 미운행	간식 미제공	아이가 파해함	환경 열악	교사 자질	프로그램 부적절 /부족	기타	계	(수)
전체	6.9	17.2	3.0	3.2	1.0	6.4	5.8	26.9	28.8	0.8	100.0	(133)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8.3	12.5	5.4	4.2	1.4	5.6	5.6	26.4	30.6	-	100.0	(72)
초등고학년생	4.9	23.0	-	3.3	1.6	6.6	4.9	27.9	26.2	1.6	100.0	(61)
지역												
대도시	8.9	17.8	-	-	2.2	13.3	-	20.0	37.8	-	100.0	(45)
중소도시	8.3	20.0	6.7	5.0	-	1.7	10.0	31.7	15.0	1.6	100.0	(60)
읍·면	3.6	10.7	-	3.4	3.6	3.6	3.6	28.6	42.9	-	100.0	(28)
현재 모취업												
취업	9.0	16.4	3.0	-	1.5	7.5	6.0	26.9	28.4	1.3	100.0	(67)
미취업	3.2	19.0	3.2	4.8	1.6	4.8	6.3	27.0	30.1	-	100.0	(63)
모부재	20.0	-	-	40.0	-	-	-	20.0	20.0	-	100.0	(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9.1	-	9.1	18.2	-	-	36.4	9.1	18.1	-	100.0	(11)
100~149만원	18.2	-	-	-	-	27.3	-	27.3	27.2	-	100.0	(11)
150~199만원	-	17.6	-	5.9	-	-	-	29.4	47.1	-	100.0	(17)
200~249만원	13.3	13.3	-	-	-	-	-	60.0	13.4	-	100.0	(15)
250~299만원	5.0	20.0	-	10.0	-	10.0	5.0	25.0	25.0	-	100.0	(20)
300~349만원	10.0	5.0	5.0	5.0	5.0	-	-	45.0	25.0	-	100.0	(20)
350~399만원	14.3	28.6	-	-	-	-	14.3	-	42.8	-	100.0	(7)
400~499만원	-	30.8	-	-	-	-	23.1	15.4	23.0	7.7	100.0	(13)
500~599만원	-	30.8	7.7	-	-	-	-	23.1	38.4	-	100.0	(13)
600만원 이상	7.7	23.1	7.7	-	7.7	23.1	-	7.7	23.0	-	100.0	(13)

마. 가정 내 돌봄자

초등학생 아동 4,152명을 대상으로 평일 낮 동안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주로 돌보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55.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조부모 12.8%, 형제자매 11.6%이고,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 9.9%, 아동이 낮에 집에 있지 않는 경우도 9.3%이다. 따라서, 아동의 약 10%는 보호자 없이 집에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1-8 참조).

저학년생은 부모,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고학년생은 이외에도 형제자매가 돌보는 경우도 높으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는 저학년생보다 2배 이상 높다. 대도시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중소도시는 부모와 조부모 외에 형제자매가 돌보는 비율이 14.1%로 높은 반면, 읍·면지역은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도

16.7%로 높다. 또한,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VIII-1-8 참조).

〈표 VIII-1-8〉 방과후 가정 내 돌봄자

단위: %(명)

구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비혈연인	혼자 지냄	집에 있지 않음	계	(수)	$\chi^2(df)$
전체	55.1	12.8	11.6	0.8	0.4	9.9	9.4	100.0	(4,152)	
연령구분										
초등학생	61.2	13.8	9.4	1.0	0.5	6.0	8.1	100.0	(1,929)	108.6(6)**
중고학생	49.8	12.0	13.5	0.6	0.3	13.4	10.4	100.0	(2,223)	
지역										
대도시	57.4	11.8	9.2	1.1	0.6	9.6	10.3	100.0	(1,701)	44.6(12)**
중소도시	54.1	12.3	14.1	0.7	0.3	10.0	8.5	100.0	(1,739)	
읍·면	52.0	16.7	11.0	0.1	0.1	10.5	9.6	100.0	(712)	
현재 모취업										
취업	23.0	18.7	22.1	1.5	0.7	18.8	15.2	100.0	(2,006)	26720(12)**
미취업	95.2	0.7	0.6	-	-	0.2	3.3	100.0	(1,907)	
모부재	4.2	61.2	11.4	0.8	0.4	13.5	8.5	100.0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3.1	16.4	10.2	1.2	-	9.4	9.7	100.0	(256)	na
100~149만원	53.9	15.9	9.0	1.2	0.9	10.6	8.5	100.0	(321)	
150~199만원	60.9	9.5	11.8	0.8	-	10.5	6.5	100.0	(524)	
200~249만원	59.6	11.2	9.0	0.7	0.2	10.6	8.7	100.0	(547)	
250~299만원	58.3	12.1	10.5	0.7	-	9.2	9.2	100.0	(456)	
300~349만원	59.4	11.7	14.5	0.3	-	6.6	7.5	100.0	(572)	
350~399만원	49.5	9.9	14.7	0.3	0.3	12.1	13.2	100.0	(313)	
400~499만원	51.0	15.1	11.7	0.6	0.2	10.2	11.2	100.0	(463)	
500~599만원	57.8	13.0	10.2	0.6	0.3	9.3	8.8	100.0	(322)	
600만원 이상	40.2	16.9	13.5	1.6	2.9	12.2	12.7	100.0	(37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모의 취업 및 부재여부에 따라서 방과후 가정 내 돌봄자는 차이를 보인다. 모가 취업중인 가정은 조부모와 형제자매가 돌보는 비율이 높으나 아동이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18.8%로 전체보다 2배 높다. 모가 미취업인 가정은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95.2%로 대다수가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가 부재인 가정은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61.2%로 과반수 이상이 해당되고 이외에 형제자매도 11.4%이나, 아동이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방치되는 경우도 13.5%이다.

소득계층에 따른 일관성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저소득층 가정은 부모가 돌보는 경우 외에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도 많고, 돌보는 사람 없이 아동 혼자 지내는 경우도 일부 나타난다. 고소득층 가정은 부모와 조부모 외에 형제자매가 돌보는 비율이 높고, 아동이 낮에 집에 있지 않은 경우도 높다(표 VIII-1-8 참조).

바.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장소 선호도

부모가 돌보지 못할 경우에 초등학생 저학년의 방과후 보육장소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먼저 <표 VIII-1-9>에서 1순위 응답결과를 보면 방과후에도 초등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아동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3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방과후 학교의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26.6%로 초등학교가 모두 58.4%이다. 이어서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 등 일반학원이 18.2%,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11.5%로 조사되었고, 이외에 보육프로그램 제공학원 5.4%,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3.5%, 보육시설 2.6% 등으로 다양하다. 2004년도 조사결과인 초등학교 47.2%, 학원 15.2%, 지역아동센터 7.7%, 보육시설 4.4% 등과 비교할 때 방과후 이용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학원에 대한 선호도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학년구분별 차이는 저학년 아동이 보육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고학년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등이 높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초등학교 보육, 사설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읍·면에서는 초등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모가 취업인 가정은 미취업 가정에 비하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과 학원을 선호하였고, 미취업 가정은 학교 방과후 보육,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모가 부재인 가정은 보육시설과 학교 방과후 보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표 VIII-1-9 참조).

방과후 보육장소로 선호하는 2순위로는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이 30.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예체능 및 보습학원으로 22.0%가 선호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이 17.1%, 학교 방과후 보육은 12.3%이다(표 VIII-1-10 참조).

〈표 VIII-1-9〉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공공 기관	유치 원	학교 특기· 적성	사설 기관	학원 보육	일반 학원	기타	계	(수)	$X^2(df)$
전체	2.6	31.8	11.5	0.3	26.6	3.5	5.4	18.2	0.1	100.0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3.2	32.5	11.3	0.3	25.6	3.1	5.4	18.6	-	100.0	(1,930)	11.9(8)
초등고학년생	2.2	31.2	11.7	0.3	27.4	3.7	5.5	17.9	0.1	100.0	(2,224)	
지역												
대도시	3.1	29.5	12.2	0.5	27.1	2.9	5.9	18.7	0.1	100.0	(1,699)	na
중소도시	2.4	34.0	11.5	0.2	24.4	4.1	5.7	17.6	0.1	100.0	(1,740)	
읍·면	2.4	31.8	9.9	-	30.5	2.9	3.8	18.5	0.2	100.0	(714)	
현재 모취업												
취업	2.9	30.4	12.5	0.3	24.1	4.2	5.6	19.8	0.2	100.0	(2,007)	41.0(16)**
미취업	2.3	32.1	10.5	0.2	29.3	2.8	5.5	17.1	0.2	100.0	(1,907)	
모부재	3.3	41.4	11.3	-	25.1	2.5	3.3	13.0	0.1	100.0	(2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9	28.4	21.0	-	22.2	2.7	5.1	16.7	-	100.0	(257)	na
100~149만원	1.9	36.1	14.3	-	26.8	2.2	4.0	14.6	0.1	100.0	(321)	
150~199만원	2.5	37.2	9.5	0.2	24.0	2.9	5.2	18.5	-	100.0	(524)	
200~249만원	0.9	31.0	12.9	0.2	26.4	3.5	6.0	18.8	0.3	100.0	(549)	
250~299만원	1.8	30.7	11.2	0.4	25.7	3.9	5.3	21.0	-	100.0	(456)	
300~349만원	4.0	29.7	8.9	0.2	26.5	3.7	6.1	20.8	0.2	100.0	(573)	
350~399만원	3.5	35.4	8.0	-	30.5	3.5	4.5	14.5	0.1	100.0	(311)	
400~499만원	2.4	32.8	10.1	1.1	28.7	4.5	4.3	16.1	-	100.0	(464)	
500~599만원	2.8	29.1	9.4	-	27.2	4.4	6.9	20.0	0.2	100.0	(320)	
600만원 이상	3.4	27.1	14.1	0.3	27.9	2.7	6.4	17.8	0.3	100.0	(37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아동 특성별로 방과후 이용기관으로 바람직한 곳 2순위는 1순위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학년별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저학년생은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고학년생은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 등 일반학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대도시지역의 아동은 학교 방과후 보육, 중소도시는 공공기관, 사설기관, 보육프로그램 제공 학원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모가 취업중인 가정은 사설기관, 미취업은 공공기관, 모가 부재인 가정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특기·적성프로그램, 중산층 가정에서 학교 방과후 보육, 고소득층 가정에서는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편이다(표 VIII-1-10 참조).

〈표 VIII-1-10〉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공공 기관	유치 원	학교 특기·적성	사설 기관	학원 보육	일반 학원	기타	계	(수)	X ² (df)
전체	2.3	12.3	17.1	0.6	30.6	8.2	6.8	22.0	0.1	100.0	(4,053)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2.8	13.0	18.0	0.7	30.8	7.3	6.7	20.6	0.1	100.0	(1,882)	13.8(8)
초등고학년생	1.8	11.6	16.4	0.6	30.4	8.9	6.8	23.2	0.3	100.0	(2,171)	
지역												
대도시	2.3	14.1	16.4	1.0	31.1	7.9	6.5	20.7	-	100.0	(1,667)	30.6(16)*
중소도시	2.4	10.7	18.1	0.5	29.6	8.8	7.8	21.9	0.2	100.0	(1,685)	
읍·면	2.0	11.8	16.5	0.3	32.1	7.4	4.7	25.2	-	100.0	(702)	
현재 모취업												
취업	2.4	11.0	17.0	0.5	30.4	9.8	6.1	22.8	-	100.0	(1,957)	27.9(16)*
미취업	2.3	13.3	17.3	0.8	30.4	7.1	7.2	21.5	0.1	100.0	(1,866)	
모부재	2.2	14.7	16.8	0.4	34.5	3.4	8.6	19.4	-	100.0	(23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0	19.7	14.5	0.4	34.9	9.2	4.4	14.9	-	100.0	(249)	na
100~149만원	2.5	10.8	16.1	-	32.3	8.2	7.6	22.5	-	100.0	(316)	
150~199만원	2.0	11.5	17.8	0.4	34.8	6.4	7.0	20.1	-	100.0	(512)	
200~249만원	1.9	12.6	18.0	0.2	28.0	8.7	9.1	21.2	0.3	100.0	(539)	
250~299만원	2.3	13.6	13.6	1.8	33.6	6.9	3.9	24.2	0.1	100.0	(434)	
300~349만원	2.4	12.4	18.9	0.7	29.9	6.9	7.1	21.7	-	100.0	(549)	
350~399만원	3.2	10.0	22.9	1.6	28.1	6.8	8.4	18.7	0.3	100.0	(310)	
400~499만원	1.5	9.4	19.7	0.2	28.4	9.0	7.9	23.8	0.1	100.0	(458)	
500~599만원	2.9	12.5	14.5	0.3	29.9	12.9	4.8	22.2	-	100.0	(311)	
600만원 이상	3.2	12.6	13.7	0.5	27.6	8.8	5.4	28.2	-	100.0	(37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방과후에 적절한 보육 장소로 부모의 과반수 이상인 56.4%가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다음은 학교 방과후 보육이 43.8%, 일반 예체능 및 보습 학원은 39.7%로 높고,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은 28.3%로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 보육프로그램 제공 학원은 12.0%의 선호도를 보여 1순위, 2순위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아동연령, 지역, 모취업 및 가구소득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바람직한 아동보호 장소에 대해서는 비슷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단, 모가 부재인 경우 학교 방과후 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55.6%로 전체보다 높다(표 VIII-1-11 참조).

〈표 VIII-1-11〉 방과후 적절한 보육장소 선호비율(종합)

단위: %(명)

구분	보육 시설	학교 방과후 보육	공공 기관	유치원	학교 특기· 적성	사설 기관	학원 보육	일반 학원	기타	(수)
전체	4.9	43.8	28.3	0.9	56.4	11.4	12.0	39.7	0.2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5.9	45.2	28.9	0.9	55.6	10.3	11.9	38.7	0.1	(1,930)
초등고학년생	4.0	42.5	27.7	0.9	57.1	12.5	12.1	40.5	0.3	(2,224)
지역										
대도시	5.3	43.4	28.4	1.4	57.6	10.7	12.3	39.0	0.1	(1,699)
중소도시	4.7	44.4	29.0	0.6	53.0	12.7	13.3	38.8	0.3	(1,740)
읍·면	4.3	43.4	26.2	0.3	62.0	10.2	8.4	43.3	0.1	(714)
현재 모취업										
취업	5.2	41.1	29.1	0.8	53.7	13.7	11.6	42.0	0.2	(2,007)
미취업	4.5	45.1	27.5	1.0	59.1	9.8	12.5	38.2	0.2	(1,907)
모부재	5.4	55.6	27.6	0.4	58.6	5.9	11.7	31.8	-	(2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8	47.5	35.0	0.4	56.0	11.7	9.3	31.1	-	(257)
100~149만원	4.4	46.7	30.2	-	58.6	10.3	11.5	36.8	-	(321)
150~199만원	4.4	48.5	26.9	0.6	58.0	9.2	12.0	38.2	-	(524)
200~249만원	2.7	43.4	30.6	0.4	53.9	12.0	14.9	39.5	0.7	(549)
250~299만원	3.9	43.6	24.1	2.2	57.7	10.5	9.0	44.1	-	(456)
300~349만원	6.3	41.5	27.1	0.9	55.1	10.3	12.9	41.5	0.2	(573)
350~399만원	6.8	45.3	30.9	1.6	58.5	10.3	12.9	33.1	0.3	(311)
400~499만원	3.9	42.0	29.5	1.3	56.7	13.4	12.1	39.7	0.2	(464)
500~599만원	5.6	41.3	23.4	0.3	56.3	16.9	11.6	41.6	0.3	(320)
600만원 이상	6.6	39.5	27.6	0.8	55.2	11.4	11.7	45.6	0.5	(377)

사.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내용 선호도

부모가 돌보지 못할 경우에 초등저학년 아동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표 VIII-1-12>는 1순위 조사 결과이다. 이를 보면 학습보충활동이 28.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안전한 보호와 휴식이 22.4%, 숙제지도가 21.0%로 높다. 이외에 특기적성 교육이 9.9%, 급식·간식 9.0%, 놀이 및 신체활동 3.7%, 문화현장체험 3.7%, 등교준비 및 조식이 2.3% 등도 선호하였다

〈표 VIII-1-12〉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구분	숙제 지도	특기 적성 교육	학습보충 활동	놀이 및 신체 활동	문화현장 체험	급식·간식	보호와 휴식	등교준비 및 조식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21.0	9.9	28.6	3.7	3.1	9.0	22.4	2.3	0.1	100.0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20.5	10.5	25.9	3.5	2.9	9.3	25.1	2.1	0.2	100.0	(1,928)	24.7(8)**
초등고학년생	21.3	9.4	31.0	3.8	3.3	8.7	20.0	2.4	0.1	100.0	(2,222)	
지역												
대도시	20.0	9.1	27.9	4.6	2.9	9.8	23.2	2.4	0.1	100.0	(1,699)	35.9(16)**
중소도시	20.9	10.1	28.1	3.7	3.4	8.0	23.3	2.4	0.1	100.0	(1,741)	
읍·면	23.3	11.4	31.7	1.3	2.9	9.4	18.2	1.8	-	100.0	(713)	
현재 모취업												
취업	20.9	8.9	28.7	4.3	3.1	10.3	22.0	1.7	0.1	100.0	(2,008)	85.7(16)**
미취업	19.4	10.7	28.6	3.2	3.1	7.9	24.5	2.3	0.3	100.0	(1,908)	
모부재	33.8	11.4	27.8	2.1	2.5	7.2	8.4	6.8	-	100.0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6.5	9.3	30.7	4.3	3.1	6.6	17.1	2.3	0.1	100.0	(257)	184.9(72)**
100~149만원	28.3	12.4	30.4	2.5	3.4	7.1	12.1	3.4	0.4	100.0	(322)	
150~199만원	21.7	8.8	33.9	2.3	2.1	10.1	18.3	2.7	0.1	100.0	(525)	
200~249만원	21.9	10.2	30.2	4.2	3.7	8.2	17.9	3.7	-	100.0	(547)	
250~299만원	23.0	9.2	30.2	1.5	3.3	9.2	22.8	0.8	-	100.0	(457)	
300~349만원	19.0	9.9	31.1	2.3	3.7	8.2	22.9	2.8	0.1	100.0	(573)	
350~399만원	22.0	7.7	26.5	4.5	2.2	9.9	26.2	1.0	-	100.0	(313)	
400~499만원	15.1	10.4	27.4	5.8	4.3	9.5	24.8	2.4	0.3	100.0	(463)	
500~599만원	17.8	12.5	20.9	6.3	2.8	11.3	27.5	0.9	-	100.0	(320)	
600만원 이상	17.7	9.3	19.8	5.3	2.1	9.3	35.2	1.3	-	100.0	(37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를 의미함.

2004년 조사결과인 학습보충 활동 29.9%, 특기 적성교육 29.4%, 숙제·자율활동 24.2%와 비교할 때 학습보충과 숙제활동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특기적성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56) 이는 특기적성교육이 현 방과후 보육에서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표 VIII-1-12 참조).

이러한 요구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여서, 저학년생은 특기적성교육, 급식·간식, 안전한 보호와 휴식 등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고학년생은 숙제지도, 학습보충활동, 놀이 및 신체활동, 문화현장체험, 등교준비 및 조식의 필요도가 높다. 지역별로는 도시 아동은 놀이 및 신체활동, 안전한 보호와 휴식, 등교준비 및 조식에 대한 필요도가 높고, 읍·면지역은 숙제지도와 특기적성교육, 학습보충활동에 대한 필요도

56) 2004년도 조사는 2009년도 조사시와는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가 높다.

취업모 가구에서 급간식 요구가 높으며, 모가 부재한 가정에서는 숙제지도와 특기 적성교육에 대한 필요도가 각각 33.8%, 11.4%로 높고 등교준비 및 조식도 6.8%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가정은 숙제지도와 등교준비 및 조식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중산층 가정은 학습보충활동, 고소득층 가정은 안전한 보호와 휴식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표 VIII-1-12 참조).

<표 VIII-1-13>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2순위)

단위: %(명)

구분	숙제 지도	특기 적성 교육	학습 보충 활동	놀이 및 신체 활동	문화 장 체험	급식· 간식	보호 와 휴식	등교 준비 및 조식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14.0	9.7	26.4	7.2	6.7	13.4	18.9	3.6	0.1	100.0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3.3	8.4	26.9	7.7	6.0	14.9	19.0	3.7	0.1	100.0	(1,924)	19.0(8)*
초등고학년생	14.7	10.8	25.9	6.8	7.3	12.1	18.8	3.4	0.2	100.0	(2,216)	
지역												
대도시	16.1	10.6	26.5	6.2	5.7	12.9	18.9	3.0	0.1	100.0	(1,697)	45.9(16)**
중소도시	12.5	7.8	26.9	8.7	6.8	13.7	19.5	4.1	-	100.0	(1,733)	
읍·면	12.8	12.0	24.8	6.3	9.2	13.8	17.3	3.5	0.3	100.0	(709)	
현재 모취업												
취업	14.0	9.6	24.8	7.6	7.7	13.9	19.1	3.0	0.3	100.0	(2,001)	39.0(16)**
미취업	13.8	10.3	26.9	7.5	5.6	12.6	19.1	4.2	-	100.0	(1,902)	
모부재	16.0	5.5	35.0	2.1	7.6	15.2	15.6	3.0	-	100.0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6.9	8.2	32.5	6.7	6.3	12.9	12.9	3.6	-	100.0	(255)	137.8(72)**
100~149만원	14.3	9.0	32.4	4.4	5.9	10.6	18.7	4.7	-	100.0	(321)	
150~199만원	15.0	12.1	27.6	4.2	6.7	13.4	17.5	3.5	-	100.0	(521)	
200~249만원	12.1	9.9	24.4	7.9	8.6	14.0	18.4	4.4	0.3	100.0	(544)	
250~299만원	12.9	7.4	33.0	7.4	4.6	11.4	20.1	3.2	-	100.0	(457)	
300~349만원	10.9	10.9	22.6	7.0	7.7	14.9	22.8	3.2	-	100.0	(571)	
350~399만원	13.1	8.3	26.6	6.4	5.8	18.9	16.3	4.6	-	100.0	(312)	
400~499만원	18.0	10.2	23.4	9.1	7.1	10.4	17.7	4.1	-	100.0	(462)	
500~599만원	14.3	9.7	22.1	10.6	7.8	13.4	19.3	1.9	0.9	100.0	(321)	
600만원 이상	15.2	9.0	22.6	8.5	5.6	14.6	21.8	2.7	-	100.0	(376)	
2004년 조사	18.6	18.5	26.4	14.4	16.7	5.3	-	-	0.1	100.0	(3,4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는 $p < .01$ 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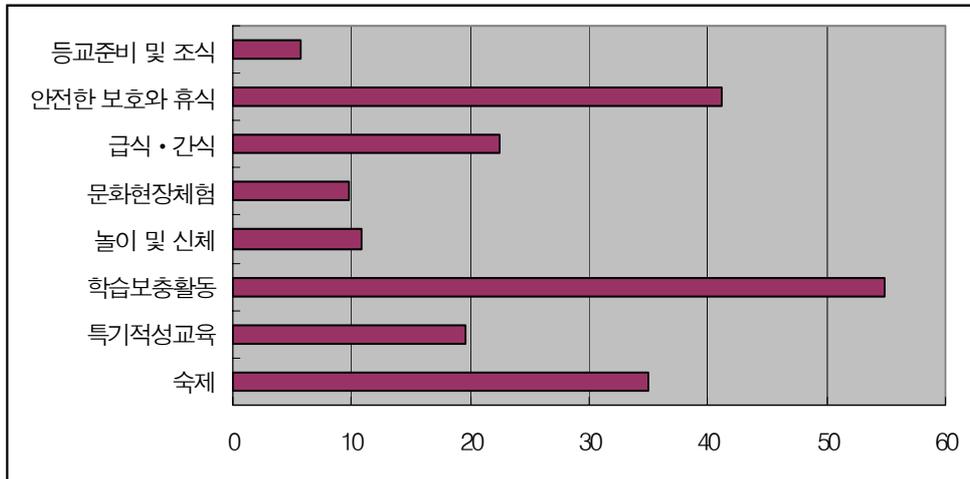
다음 <표 VIII-1-13>은 방과후 보육에 필요한 2순위 프로그램 응답결과인데, 학습보충활동이 26.4%, 안전한 보호와 휴식 18.9%, 숙제지도 14.0%로 1순위와 비슷한 경향

을 보이나 필요도는 낮아졌다. 반면, 놀이 및 신체활동, 문화현장체험, 급식·간식, 등교준비 및 조식 등의 필요도는 1순위보다 높아졌다.

아동 특성별로 저학년생은 학습보충활동과 놀이 및 신체활동, 고학년생은 특기적성교육에 상대적으로 높다. 대도시지역의 아동은 숙제지도에 16.1%, 읍·면은 문화현장체험에 9.2%의 비율을 보인다. 모가 부재인 가정은 학습보충활동이 35.0%이고, 급식·간식도 15.2%로 모가 있는 가정에 비해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저소득층 가정은 학습보충활동에 비교적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 가정은 급식·간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표 VIII-1-13 참조).

<표 VIII-1-14>와 [그림 VIII-1-3]은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종합응답으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방과후 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과반수 이상인 54.9%가 학습보충활동을 희망하고 다음은 안전한 보호와 휴식이 41.2%, 숙제지도 34.9%, 급식·간식 22.4%, 특기적성교육 19.6%이다. 이외에 놀이 및 신체활동 10.9%, 문화현장체험 9.8%, 등교준비 및 조식 5.8%이다.

아동연령, 지역, 모취업 및 가구소득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방과후 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가 부재한 가정은 다른 경향을 보여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휴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숙제지도와 학습보충활동에만 필요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VIII-1-3]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순위 종합

〈표 VIII-1-14〉 방과후 보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 순위 종합

단위: %(명)

구분	숙제 지도	특기적 성교육	학습보 충활동	놀이 및 신체 활동	문화현 장체험	급식·간 식	보호와 휴식	등교준 비 및 조식	기타	(수)
전체	34.9	19.6	54.9	10.9	9.8	22.4	41.2	5.8	0.2	(4,152)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33.8	18.9	52.7	11.3	8.9	24.2	44.0	5.9	0.1	(1,928)
초등고학년생	36.0	20.2	56.8	10.6	10.6	20.7	38.8	5.8	0.2	(2,222)
지역										
대도시	36.1	19.7	54.3	10.8	8.6	22.7	42.1	5.4	0.2	(1,699)
중소도시	33.3	17.9	54.9	12.3	10.1	21.7	42.7	6.5	0.1	(1,741)
읍·면	36.0	23.3	56.4	7.6	12.1	23.1	35.5	5.3	0.1	(713)
현재 모취업										
취업	34.9	18.5	53.4	11.9	10.8	24.2	41.0	4.7	0.2	(2,008)
미취업	33.2	21.0	55.5	10.7	8.7	20.4	43.6	6.5	0.2	(1,908)
모부재	49.8	16.9	62.9	4.2	10.1	22.4	24.1	9.7	-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3.2	17.5	63.0	10.9	9.3	19.5	30.0	5.8	-	(257)
100~149만원	42.5	21.4	62.7	6.8	9.3	17.7	30.7	8.1	0.3	(322)
150~199만원	36.6	20.8	61.3	6.5	8.8	23.4	35.6	6.1	0.2	(525)
200~249만원	34.0	20.1	54.5	12.1	12.2	22.1	36.2	8.0	0.2	(547)
250~299만원	35.9	16.6	63.2	9.0	7.9	20.6	42.9	3.9	-	(457)
300~349만원	29.8	20.8	53.6	9.2	11.3	23.0	45.5	6.1	0.2	(573)
350~399만원	35.1	16.0	53.0	10.9	8.0	28.8	42.5	5.4	-	(313)
400~499만원	33.0	20.5	50.8	14.9	11.4	19.9	42.5	6.5	0.2	(463)
500~599만원	32.2	22.2	43.1	16.9	10.6	24.7	46.9	2.8	0.9	(320)
600만원 이상	32.8	18.3	42.3	13.8	7.7	23.8	56.9	4.0	-	(378)
2004년 조사	43.0	47.6	56.2	22.1	22.5	7.6	-	-	0.2	(3,431)

2.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할 경우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가. 특기적성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을 일컫는데,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해 사교육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 목표 하에 실시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1,652명을 대상으로 참여시간,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의 내용, 비용,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1) 이용 여부

본 조사결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은 99.0%로,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 4,092명을 대상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용률은 40.4%로 과반수에 못 미쳤다. 이는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인 25.2%에 비해 15.2%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학년별로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저학년생이 42.0%로 고학년생보다 높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55.3%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도시 39.4%, 중소도시 35.2% 순이다. 이는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연령구분별로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

〈표 VIII-2-1〉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학년구분		지역			전체
	저학년용	고학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이용	42.0	39.0	39.4	35.2	55.3	40.4
미이용	58.0	61.0	60.6	64.8	44.7	59.6
계(수)	100.0(1,897)	100.0(2,195)	100.9(1681)	100.0(1,706)	100.0(705)	100.0(4,092)
$\chi^2(df)$	3.7(1)		85.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2) 특기적성 이용 횟수와 시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 주당 평균 몇 회를 이용하는지, 주당 총 이용시간은 몇 시간인지를 조사하였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아동은 주당 2회를 이용하는 비율이 39.9%로 가장 높고, 4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도 29.3%이고, 평균은 3.0회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결과인 평균 2.7회와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VIII-2-2 참조).

방과후 다른 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읍·면지역과 어머니가 없어 가정 내의 교육 지도가 어려운 모부재 가정에서 이용률과 주당 평균 이용횟수가 높다. 이는 2004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VIII-2-2〉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당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주당 횟수							평균통계		
	1회	2회	3회	4-7회	8-9회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13.9	39.9	16.9	26.7	2.6	100.0	(1,652)	3.0	0.3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4.4	39.6	16.5	27.2	2.3	100.0	(795)	3.0	1.7	0.1
초등고학년생	13.1	40.3	17.4	26.3	2.9	100.0	(857)	3.0	1.7	
지역										
대도시	18.7	43.2	15.9	21.6	0.6	100.0	(662)	2.6	1.5	52.2**
중소도시	12.5	44.7	17.0	24.0	1.8	100.0	(600)	2.9	1.6	
읍·면	7.7	27.2	18.7	39.2	7.2	100.0	(390)	3.7	1.9	
현재 모취업										
취업	13.5	39.7	18.3	26.2	2.3	100.0	(826)	3.0	1.7	4.5*
미취업	14.7	40.9	15.0	27.4	2.0	100.0	(738)	2.9	1.6	
모부재	10.2	34.1	20.5	26.1	9.1	100.0	(88)	3.5	2.1	
2004년 조사	9.7	45.7	28.7	13.9	-	100.0	(839)	2.7	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는 $p < .01$ 을 의미함.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1,652명의 이용아동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3.2시간이다. 분포로는 59.6%인 과반수 이상이 2~3시간을 이용하고, 4~5시간은 22.8%, 6시간 이상은 9.5%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결과인 평균 2.9시간보다 0.3시간이 늘어났다(표 VIII-2-3 참조).

〈표 VIII-2-3〉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당 총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주당 총 시간							평균통계		
	1시간	2시간	3시간	4~5시간	6~10시간	11시간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8.1	43.7	15.9	22.8	9.0	0.5	100.0 (1,651)	3.2	1.9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6.6	45.3	15.8	23.2	8.8	0.3	100.0 (797)	3.2	1.9	0.2
초등고학년생	9.3	42.3	16.1	22.4	9.2	0.7	100.0 (856)	3.2	2.0	
지역										
대도시	8.6	52.1	12.5	20.1	6.2	0.5	100.0 (662)	2.9	1.6	43.2*
중소도시	7.2	45.0	19.4	22.1	6.0	0.3	100.0 (598)	3.0	1.7	
읍·면	8.5	27.4	16.5	28.3	18.5	0.8	100.0 (389)	3.9	2.5	
현재 모취업										
취업	9.3	41.2	17.2	22.2	9.4	0.7	100.0 (826)	3.2	2.0	3.0
미취업	6.8	47.2	14.8	23.2	7.7	0.3	100.0 (738)	3.1	1.9	
모부재	8.0	37.5	13.6	25.0	15.9	-	100.0 (88)	3.7	2.3	
2004년 조사	10.6	40.4	28.5	14.5	6.0	-	100.0 (839)	2.9	1.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 이용시간도 이용률과 이용 횟수가 높은 읍·면지역과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경우 4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47.6%, 40.9%로 전체 보다 높고,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각각 3.9시간과 3.7시간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2-3 참조).

3)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내용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1,652명의 아동이 어떤 내용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세 개까지 중복응답을 하여 응답분포를 집계하였다. 집계결과, 컴퓨터에 참여하는 비율이 49.4%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국어 23.6%, 음악 11.7%, 미술 10.6%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외에 10% 미만이나 체육, 수학, 과학, 영어, 언어 등에도 참여하였다(표 VIII-2-4 참조).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인 컴퓨터 55.4%, 외국어 11.7%, 음악 11.3%와 비교할 때 컴퓨터에 참여하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외국어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음악, 미술 등도 증가하였다.

〈표 VIII-2-4〉 특기적성 프로그램 내용(종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어	기타 외국어	연극, 뮤지컬	기타	(수)
전체	10.6	11.7	8.5	8.8	9.1	4.4	49.4	6.1	23.6	1.3	5.3	(1,651)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4.6	10.3	7.5	10.2	10.4	4.8	42.5	6.5	26.3	1.3	6.2	(796)
초등고학년생	6.8	13.0	9.7	7.5	7.8	4.0	55.8	5.6	21.1	1.5	4.3	(856)
지역												
대도시	8.0	9.1	7.1	8.6	7.9	3.6	52.3	3.2	17.4	0.6	6.7	(661)
중소도시	10.6	8.8	6.2	8.3	8.3	3.8	51.6	4.7	21.8	0.7	4.8	(601)
읍·면	14.6	20.5	15.3	10.0	12.3	6.4	40.7	13.0	37.3	3.6	3.8	(391)
현재 모취업												
취업	10.1	12.7	9.1	9.7	8.4	4.8	51.2	5.5	23.2	1.7	4.5	(825)
미취업	11.3	10.2	7.2	8.5	9.2	4.1	47.4	6.1	23.2	1.1	6.1	(737)
모부재	9.1	15.9	15.9	3.4	14.8	2.3	52.3	11.4	34.1	-	5.7	(88)
2004년 조사	9.7	11.3	7.0	5.9	3.4	4.8	55.4	11.7	-	-	7.5	(1,678)

주: 2004년조사에서는 외국어로만 조사함.

저학년생은 미술, 과학, 기타 외국어 교육 참여율이 높고, 고학년생은 음악, 체육, 컴퓨터 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도시지역 아동은 컴퓨터 교육 참여율만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해, 읍·면지역은 컴퓨터 외에도 외국어와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교육 등에도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모가 부재인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표 VIII-2-4 참조). 특히 2004년 조사결과 읍·면지역의 경우 컴퓨터와 음악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낮은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4) 특기적성 프로그램 월비용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용을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는 아동이 20.2%로 5분의 1에 해당된다. 또한 5만원 미만인 아동은 58.5%로 과반수 이상이고,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은 21.3%이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월 평균 비용은 3만 2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2-5 참조). 이는 2004년 조사결과인 월 평균 비용 2만 9천원보다 3천원이 높다.

아동 특성별로는 비용 없이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학년구분별로는 고학년생이 21.4%로 저학년 18.8%보다 높고, 도시지역 10% 내외에

비하여 읍·면은 55.0%로 약 5배 정도가 높다. 취업모 가정이 21.4%로 미취업모 가정 13.3%보다 높고, 모 부재인 가정은 66.3%로 전체보다 3배 높다. 그리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을 안 낸다는 비율이 높아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은 54.0%, 100~149만원 가정은 40.0%가 비용 부담이 없다(표 VIII-2-5 참조).

〈표 VIII-2-5〉 특기적성 프로그램 월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비용								통계량			
	없음	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20.2	7.5	23.8	27.2	16.9	3.9	0.5	100.0	(1,652)	32.1	31.3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8.8	7.2	23.5	28.8	17.1	4.0	0.6	100.0	(796)	33.5	33.6	1.7
초등고학년생	21.4	7.9	24.1	25.8	16.6	4.0	0.2	100.0	(856)	30.87	28.9	
지역												
대도시	8.8	3.3	26.3	32.3	21.9	6.6	0.8	100.0	(662)	41.2	34.7	120.9**
중소도시	10.2	6.2	31.8	29.3	19.4	2.8	0.3	100.0	(600)	34.8	27.7	
읍·면	55.0	16.7	7.2	15.2	4.9	1.0	-	100.0	(389)	12.6	19.7	
현재 모취업												
취업	21.4	7.6	23.6	28.3	14.9	3.9	0.3	100.0	(827)	30.8	30.2	25.8**
미취업	13.3	7.2	26.4	27.8	20.3	4.5	0.5	100.0	(738)	36.0	32.4	
모부재	66.3	10.1	3.4	11.2	7.9	1.1	-	100.0	(89)	11.8	21.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4.0	11.5	10.6	14.2	8.8	0.9	-	100.0	(113)	15.6	22.2	13.0**
100~149만원	40.0	15.8	10.0	14.2	17.5	2.5	-	100.0	(120)	23.0	29.9	
150~199만원	23.4	7.6	24.9	23.3	17.7	3.0	-	100.0	(197)	29.0	26.3	
200~249만원	34.6	6.1	18.2	24.8	15.0	1.4	-	100.0	(214)	26.7	27.6	
250~299만원	12.4	9.7	31.4	26.5	14.0	4.9	1.1	100.0	(185)	34.6	34.4	
300~349만원	10.5	7.7	31.6	27.1	18.7	4.0	0.4	100.0	(247)	35.0	28.7	
350~399만원	17.2	8.6	25.0	28.1	17.2	3.9	-	100.0	(128)	31.5	25.8	
400~499만원	10.5	3.7	27.4	37.9	16.3	3.7	0.5	100.0	(190)	35.2	27.6	
500~599만원	7.1	7.1	20.5	40.2	18.8	6.3	-	100.0	(127)	39.2	27.8	
600만원 이상	3.8	1.5	25.8	32.6	24.3	9.9	2.4	100.0	(132)	50.3	48.1	
2004년 조사	6.1	12.9	41.3	28.9	8.7	1.8	-	100.0	(839)	28.7	24.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은 저학년생이 3만 4천원으로 고학년생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 아동이 4만 천원, 중소도시 3만 5천원, 읍·면지역이 만 3천원으로 지역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모가 미취업 가정은 3만 6천원, 모가 취업인 가정은 3

만 천원, 모가 부재인 가정은 만 2천원으로 모의 취업 및 부재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15,600원 수준인 반면에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정은 평균 5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특기적성 비용은 이용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회수 및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음을 시사한다(표 VIII-2-5 참조).

5) 특기적성 프로그램 만족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가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77점으로 만족도가 중간보다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VIII-2-6, 표 VIII-2-7 참조).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분야별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비용이 75.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간이 70.3%, 프로그램 내용이 68.1%, 교사수준이 66.1% 순이다. 5점 평균은 약간 다르게 나타나서 비용이 3.96점으로 가장 높고, 프로그램 내용과 교사수준이 3.72점이며 시간이 3.68점으로 비용 이외에는 모두 유사한 수준이다.

〈표 VIII-2-6〉 특기적성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5점 평균
프로그램내용	0.1	3.2	28.6	60.8	7.3	100.0	(1,651)	3.72
시간	0.4	6.9	22.4	65.1	5.2	100.0	(1,652)	3.68
비용	0.5	7.1	17.2	46.3	28.9	100.0	(1,652)	3.96
교사수준	0.2	2.4	31.3	57.2	8.9	100.0	(1,651)	3.72
2004년 조사 전체	0.3	11.3	-	78.6	8.4	100.0	(3,356)	3.70

주: 1)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2) 2004년 조사는 4점 척도를 5점으로 환산하였음.

2004년 조사에서는 총괄 만족도만을 조사하였는데 3.70점으로 비용을 제외하고는 본 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표 VIII-2-6 참조).

아동 특성별로 5점 평균은 저학년생과 고학년생이 3.77점으로 동일하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3.98점으로 도시보다 만족도가 높다. 또한 모가 부재인 가정은 4.03점, 모가 취업인 가정은 3.78점, 그리고 모가 미취업인 가정은 3.73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정적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로 소득이 낮은 가정이 높은 가

정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률,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표 VIII-2-7 참조).

〈표 VIII-2-7〉 특기적성 프로그램 평균 만족도(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프로그램 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수)	5점 평균	F/t
전체	3.72	3.68	3.96	3.72	(1,652)	3.77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3.71	3.71	3.94	3.71	(796)	3.77	
초등고학년생	3.73	3.65	3.98	3.74	(856)	3.77	-0.1
지역							
대도시	3.70	3.68	3.75	3.68	(662)	3.70	
중소도시	3.67	3.66	3.82	3.67	(600)	3.70	40.6**
읍·면	3.84	3.72	4.52	3.87	(390)	3.98	
현재 모취업							
취업	3.71	3.69	3.97	3.73	(826)	3.78	
미취업	3.70	3.66	3.88	3.69	(738)	3.73	11.6**
모부재	3.97	3.69	4.52	3.93	(88)	4.0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74	3.76	4.46	3.82	(115)	3.94	
100~149만원	3.73	3.67	4.27	3.69	(119)	3.84	
150~199만원	3.73	3.65	3.92	3.74	(197)	3.76	
200~249만원	3.79	3.67	4.05	3.78	(215)	3.82	
250~299만원	3.68	3.63	3.74	3.70	(184)	3.69	
300~349만원	3.69	3.66	3.83	3.68	(247)	3.72	3.6**
350~399만원	3.81	3.77	4.10	3.79	(126)	3.86	
400~499만원	3.72	3.69	3.84	3.68	(189)	3.73	
500~599만원	3.67	3.79	3.92	3.74	(127)	3.78	
600만원 이상	3.66	3.58	3.77	3.63	(133)	3.66	

주: 1)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2)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프로그램 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4개 분야와 아동 특성별로 5점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 학년별로 다르게 나타나 고학년생은 프로그램 내용, 비용, 교사수준 등 3개 분야에서 저학년생보다 만족도가 높고, 저학년생은 시간에서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4개 분야에서 도시보다 만족도가 높으나, 도시 간에는 차이를 보여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프로그램 내용, 시간, 교사수준 등 3개 분야에서 중소도시보다 만족도가 높고, 중소도시는 비용에서만 만족도가 약간 높다. 모 취업과 가구소득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VIII-2-7 참조).

아동 특성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거나 고학년생과 모가 부재인 가정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고학년생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부적절한 경우 외에 아이의 거부, 내용 부적절한 순으로 많다. 모가 부재인 가정은 비용부담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이의 거부, 시간 부적절한 순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은 아이의 거부와 비용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높은 편이고, 중산층 이상은 시간 및 내용 부적절을 지적한 경우가 많다(표 VIII-2-8 참조).

7) 방과후 서비스로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방과후 서비스로 실시하기 바라는 특기적성 활동을 2순위까지 조사하였다. 1순위로는 영어 28.6%, 컴퓨터 12.9%가 높고, 10% 미만이나 미술, 현장체험, 수학, 체육, 음악, 연극·뮤지컬, 과학, 언어, 기타 외국어 등도 희망하였다(표 VIII-2-9 참조).

〈표 VIII-2-9〉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1순위

구분	단위: %(명)												X ² (df)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어	기타 외국어	연극 뮤지컬	기타	현장 체험		계 (수)
전체	9.7	6.7	7.9	5.4	8.4	3.0	12.9	28.6	2.9	5.5	0.5	8.5	100.0 (4149)	
연령구분														
저학년생	10.8	7.5	6.7	5.8	7.9	3.6	11.5	29.1	2.4	5.2	0.7	8.8	100.0 (1,927)	30.0(1)**
고학년생	8.7	6.0	8.9	5.0	8.9	2.5	14.0	28.1	3.3	5.8	0.5	8.3	100.0 (2,224)	
지역														
대도시	9.7	6.9	9.8	5.5	7.8	2.8	11.0	26.6	3.4	6.2	0.7	9.4	100.0 (1,700)	68.3(22)**
중소도시	9.3	7.2	7.0	5.8	8.8	2.6	15.1	28.0	2.6	5.5	0.3	7.8	100.0 (1,740)	
읍·면	10.7	4.9	5.8	4.1	9.0	4.6	12.0	34.5	2.3	3.7	0.2	8.2	100.0 (711)	
현재 모취업														
취업	9.3	6.6	8.1	5.6	7.9	3.1	11.5	29.6	2.8	5.0	0.7	9.8	100.0 (2,005)	98.0(22)**
미취업	10.5	7.1	7.7	5.6	7.8	3.0	13.0	27.8	3.2	6.5	0.6	7.2	100.0 (1,906)	
모부재	5.9	4.2	8.0	1.3	18.6	2.1	23.6	25.7	0.8	1.3	0.1	8.4	100.0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5	5.1	5.1	3.9	14.9	5.9	16.5	29.0	1.5	5.9	-	6.7	100.0 (255)	273.3(99)**
100~149만원	10.6	4.0	6.5	3.7	16.8	0.9	16.1	31.7	1.9	2.8	-	5.0	100.0 (322)	
150~199만원	9.4	6.7	5.6	5.0	11.1	3.1	13.2	32.2	1.9	4.6	0.3	6.9	100.0 (522)	
200~249만원	11.2	6.4	7.5	4.9	8.4	3.5	15.5	28.7	3.1	2.2	0.9	7.7	100.0 (547)	
250~299만원	8.8	6.1	7.2	2.9	5.7	1.5	14.7	36.0	2.2	5.7	0.9	8.3	100.0 (456)	
300~349만원	8.9	6.3	6.6	5.4	9.1	2.6	13.6	28.8	3.7	5.8	0.3	8.9	100.0 (573)	
350~399만원	11.8	8.3	7.0	8.0	6.1	4.5	8.3	24.3	6.4	6.7	0.3	8.3	100.0 (313)	
400~499만원	9.7	7.5	11.0	6.2	5.2	2.8	10.8	25.6	2.6	6.0	0.8	11.8	100.0 (465)	
500~599만원	10.7	7.2	8.8	7.2	5.6	4.1	11.3	22.6	2.8	9.1	1.2	9.4	100.0 (319)	
600만원이상	9.3	9.0	13.5	6.6	4.5	2.9	8.0	23.6	2.9	8.2	0.4	11.1	100.0 (37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아동 특성별로는 저학년생은 미술, 음악, 과학, 언어, 영어, 현장체험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고학년생은 체육, 수학, 컴퓨터, 기타 외국어, 연극·뮤지컬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도시지역의 아동은 음악, 체육, 과학, 컴퓨터, 기타 외국어, 연극·뮤지컬,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미술, 수학, 언어, 영어를 희망하였다. 모가 부재인 가정에서는 수학과 컴퓨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18.6%, 23.6%로 높고, 체육도 8.0%로 상대적으로 높다. 저소득층인 가정은 수학, 컴퓨터, 영어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 가정은 음악, 체육, 과학, 연극·뮤지컬, 현장체험에 대한 희망도가 높다(표 VIII-2-9 참조).

<표 VIII-2-10>은 방과후 서비스로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2순위를 나타낸다.

<표 VIII-2-10>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2순위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어	가타 외국어	연극 뮤지컬	기타	현장 체험	계	(수)	X ² (df)
전체	7.8	8.5	6.9	6.7	13.4	5.6	9.9	17.2	3.6	8.0	0.5	11.9	100.0	(4,091)	
연령구분															
저학년생	8.8	9.0	7.7	7.1	12.4	5.9	8.8	16.4	2.8	8.2	0.6	12.3	100.0	(1,901)	25.5(11)**
고학년생	6.9	8.0	6.3	6.3	14.2	5.3	10.8	17.9	4.2	7.9	0.7	11.5	100.0	(2,191)	
지역															
대도시	7.3	8.8	7.6	7.5	13.2	6.1	8.7	16.3	4.5	7.7	0.8	11.5	100.0	(1,680)	53.9(22)**
중소도시	7.8	8.7	7.5	6.7	12.8	5.1	10.2	17.8	3.0	7.2	0.4	12.8	100.0	(1,714)	
읍·면	9.1	7.2	4.0	4.9	15.1	5.3	12.4	18.0	2.7	10.8	-	10.5	100.0	(696)	
현재 모취업															
취업	7.4	8.0	6.7	6.6	13.4	6.5	9.8	17.1	3.6	8.1	0.6	12.2	100.0	(1,977)	66.5(22)**
미취업	8.2	9.3	7.1	7.1	12.8	4.7	9.8	15.6	3.7	8.8	0.9	12.0	100.0	(1,879)	
모부재	7.3	5.6	7.3	4.3	17.5	5.1	12.0	30.3	1.6	1.7	-	7.3	100.0	(23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7	7.9	6.3	4.3	15.8	8.3	6.7	24.5	3.2	4.0	0.8	9.5	100.0	(253)	220.9(99)**
100~149만	8.7	9.0	3.7	5.3	16.5	5.0	10.3	24.6	2.5	4.0	1.1	9.3	100.0	(321)	
150~199만	6.6	9.5	4.8	6.6	19.3	5.6	10.4	18.4	3.1	4.8	0.3	10.6	100.0	(517)	
200~249만	7.6	7.2	5.4	7.6	13.5	5.9	10.9	16.1	4.6	9.1	0.1	12.0	100.0	(540)	
250~299만	7.2	6.5	3.1	5.4	15.5	4.7	14.2	14.8	4.0	7.2	1.0	16.4	100.0	(445)	
300~349만	7.8	9.2	9.6	5.9	9.4	6.6	8.5	19.1	3.7	7.1	0.7	12.4	100.0	(564)	
350~399만	9.2	10.1	9.5	6.2	10.1	5.6	10.8	15.4	3.9	8.5	0.9	9.8	100.0	(306)	
400~499만	8.9	8.9	8.1	7.8	12.0	4.8	8.7	12.4	4.4	12.0	0.5	11.5	100.0	(459)	
500~599만원	7.9	7.0	7.3	9.8	9.5	5.1	8.9	16.2	1.6	13.0	0.4	13.3	100.0	(315)	
600만원 이상	6.2	9.8	11.9	7.9	11.4	4.9	7.9	13.8	3.5	10.3	0.5	11.9	100.0	(36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2순위로도 영어가 17.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수학 13.4%, 현장체험 11.9%로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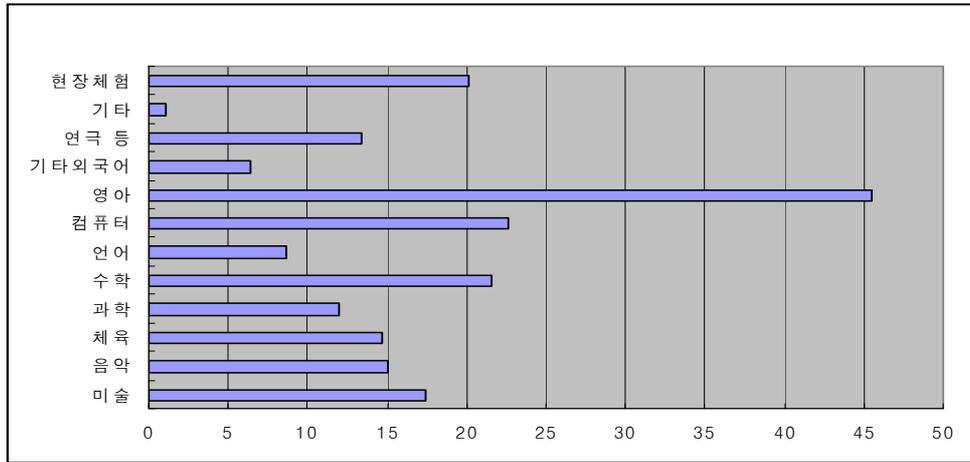
적으로 높고, 컴퓨터, 음악, 연극·뮤지컬, 미술, 체육, 과학, 언어, 기타 외국어 등은 미미하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가장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은 영어로 나타났고, 수학과 현장체험은 1순위보다 높아진 반면, 컴퓨터는 낮아졌다(표 VIII-2-10 참조).

아동 특성별로 2순위는 1순위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저학년생은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언어, 연극·뮤지컬 등을 희망하였고, 고학년생은 수학, 컴퓨터, 영어, 기타 외국어를 선호하였다. 도시지역의 아동은 음악, 체육, 과학, 언어, 기타 외국어를 희망하는 반면, 읍·면지역은 미술, 수학, 컴퓨터, 영어, 연극·뮤지컬에 대한 욕구가 높다. 모가 부재인 가정에서는 체육, 수학, 컴퓨터, 영어를 희망하는 비율이 모가 있는 가정에 비해서 높다. 저소득층 가정은 수학, 영어를 희망하였고, 중산층 이상 가정은 음악, 체육, 컴퓨터, 연극·뮤지컬, 현장체험 등에 대한 욕구가 높다(표 VIII-2-10 참조).

〈표 VIII-2-11〉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종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언어	컴퓨터	영어	기타 외국어	연극, 뮤지컬	기타	현장 체험	(수)
전체	17.4	15.1	14.7	12.0	21.6	8.6	22.6	45.5	6.4	13.4	1.1	20.2	(4,149)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9.5	16.4	14.4	12.8	20.2	9.4	20.2	45.3	5.1	13.2	1.2	20.9	(1,927)
초등고학년생	15.5	13.9	15.0	11.2	22.9	7.8	24.7	45.8	7.5	13.6	1.1	19.6	(2,224)
지역													
내도시	16.9	15.5	17.3	12.9	20.9	8.9	19.6	42.8	7.8	13.9	1.6	20.8	(1,700)
중소도시	17.0	15.8	14.3	12.4	21.4	7.7	25.1	45.5	5.6	12.6	0.9	20.4	(1,740)
읍·면	19.5	12.0	9.7	8.9	23.8	9.8	24.1	52.0	5.1	14.2	0.4	18.4	(711)
현재 모취업													
취업	16.6	14.6	14.7	12.2	21.1	9.5	21.1	46.5	6.4	13.0	1.1	21.8	(2,005)
미취업	18.7	16.2	14.7	12.6	20.4	7.7	22.7	43.2	6.9	15.1	1.3	19.1	(1,906)
모부재	13.1	9.7	15.2	5.5	35.9	7.2	35.4	55.7	2.5	3.0	-	15.6	(23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4.1	12.9	11.4	8.2	30.6	14.1	23.1	53.3	4.7	9.8	0.8	16.1	(255)
100~149만원	19.3	13.0	10.2	9.0	33.2	5.9	26.4	56.2	4.3	6.8	0.9	14.3	(322)
150~199만원	15.9	16.1	10.3	11.5	30.3	8.6	23.6	50.4	5.0	9.4	0.6	17.4	(522)
200~249만원	18.6	13.5	12.8	12.4	21.8	9.3	26.3	44.6	7.7	11.2	0.9	19.6	(547)
250~299만원	15.8	12.5	10.3	8.1	20.8	6.1	28.5	50.4	6.1	12.7	1.8	24.3	(456)
300~349만원	16.6	15.4	16.1	11.2	18.3	9.1	22.0	47.6	7.3	12.7	1.0	21.1	(573)
350~399만원	20.8	18.2	16.3	14.1	16.0	9.9	18.8	39.3	10.2	15.0	1.3	17.9	(313)
400~499만원	18.5	16.3	18.9	14.0	17.0	7.5	19.4	37.8	6.9	17.8	1.3	23.2	(465)
500~599만원	18.5	14.1	16.0	16.9	15.0	9.1	20.1	38.6	4.4	21.9	1.6	22.6	(319)
600만원 이상	15.4	18.6	25.2	14.3	15.6	7.7	15.6	37.1	6.4	18.3	0.8	22.8	(377)



[그림 VIII-2-1] 희망하는 특기적성활동 종합(중복)

<표 VIII-2-11>과 [그림 VIII-2-1]은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종합응답으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방과후 서비스로 희망하는 특기적성 활동으로 영어를 희망하는 비율이 45.5%로 월등하게 높다. 다음은 컴퓨터 22.6%, 수학 21.6%, 현장체험 20.2%, 미술 17.4%, 음악 15.1%, 체육 14.7%, 연극·뮤지컬 13.4%, 과학 12.0% 순으로 부모들의 욕구가 높다. 이외에 언어 8.6%, 기타 외국어 6.4% 등이다. 이러한 순위 종합은 1순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아동연령, 지역, 모취업 및 가구소득별로도 전체와 비슷하여 방과후에 희망하는 특기적성 활동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읍·면지역 아동은 도시보다 미술, 수학, 언어, 컴퓨터, 영어, 연극·뮤지컬에 대한 욕구가 높고, 모가 부재인 가정은 체육, 수학, 컴퓨터, 영어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

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이용 및 욕구

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만이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4.4%만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이용자는 87명에 불과하다.⁵⁷⁾ 아래에서는 87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균 방과후 보육 이용시간,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이해, 월 평균 비용, 만족도 등을 살펴

57)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실시 비율은 응답자 단위의 인식에 따른 비율로 실제 학교의 실시 비율과는 다른 개념임.

보고자한다.

1)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

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실시와 이용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은 51.9%로 2004년 조사결과인 3.9%보다 13.3배가 높아져서 5년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 괄목할만하게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표 VIII-2-12 참조).

〈표 VIII-2-12〉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실시					실시시 이용				
	실시	미실시	계	(수)	$X^2(df)$	이용	미이용	계	(수)	$X^2(df)$
전체	51.9	48.1	100.0	(3,839)		4.4	95.6	100.0	(1,993)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53.3	46.7	100.0	(1,805)	2.6(1)	7.6	92.4	100.0	(963)	46.2(1)**
초등고학년생	50.7	49.3	100.0	(2,033)		1.4	98.6	100.0	(1,031)	
지역										
대도시	45.8	54.2	100.0	(1,597)	99.2(2)**	3.6	96.4	100.0	(732)	2.7(2)
중소도시	50.9	49.1	100.0	(1,555)		4.4	95.6	100.0	(792)	
읍·면	68.4	31.6	100.0	(687)		5.5	94.5	100.0	(470)	
2004년 조사	3.9	96.1	100.0	(3,431)		8.9	91.1	100.0	(1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VIII-2-13〉 모 취업여부별 방과후보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	(수)	$X^2(df)$
취업	4.8	95.2	100.0	(983)	22.9(2)**
미취업	2.8	97.2	100.0	(885)	
모부재	12.0	88.0	100.0	(125)	
2004년 조사	3.9	96.1	100.0	(3,4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 1,993명을 대상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용률은 4.4%로 5%에도 못 미쳤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저학년생이 7.6%로 고학년생보

다 약 7배 높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5.5%로 도시지역보다 높다(표 VIII-2-12 참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다소 높은 비율이지만, 비율 자체가 낮은 수준이고, 모 부재인 가정의 아동은 12.0%로 모가 있는 가정보다 2.5~4.3배 높은 특성을 보인다(표 VIII-2-13 참조). 이는 이용기관이 다양하지 않거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계층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이 중요한 아동보육 수단임을 시사한다.

2004년 조사에서는 실시한다는 수가 132명에 불과하여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용률은 8.9%로 산출된 바 있고, 이에 비하여 4.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이다(표 VIII-2-13 참조). 또한 연령구분 및 지역별로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모 취업여부별로는 모가 부재인 가정의 이용률이 현격히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비율이 낮아진 것은 해당 아동의 증가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의 증가 때문으로 이해된다.

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용시간 및 비중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87명 아동이 1일 이용한 시간의 분포는 1시간을 이용한 비율은 7.9%, 2~3시간은 61.1%, 4~5시간은 31.1%이고 평균 이용시간은 3.0시간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사결과인 평균 2시간 13분에 비해서 47분이 늘어났다(표 VIII-2-14 참조).

〈표 VIII-2-14〉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1일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주당 총 시간						평균통계		
	1시간	2시간	3시간	4~5 시간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7.9	21.9	39.2	31.0	100.0	(87)	3.00	1.03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8.2	16.4	43.8	31.5	100.0	(73)	3.04	0.99	0.8
초등고학년생	7.1	50.0	14.3	28.6	100.0	(14)	2.81	1.24	
지역									
대도시	12.0	4.0	44.0	40.0	100.0	(25)	3.12	1.08	1.6
중소도시	2.9	20.6	44.1	32.4	100.0	(34)	3.14	0.92	
읍·면	11.2	37.0	29.6	22.2	100.0	(27)	2.70	1.09	
현재 모취업									
취업	8.3	12.5	35.4	43.8	100.0	(48)	3.31	1.08	5.5**
미취업	8.0	24.0	52.0	16.0	100.0	(25)	2.78	0.83	
모부재	6.7	53.3	26.7	13.3	100.0	(15)	2.42	0.8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저학년생이 31.5%,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은 각각 40.0%, 32.4%이고, 모가 취업한 가정은 43.8%로 전체보다 높고, 1일 평균 이용시간도 저학년생은 3.04시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3.12시간, 3.14시간이고 모가 취업한 가정은 3.31시간으로 조사되어 초등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2-14 참조).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87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부모대신 보호하고 지도하는 대리보호와 아동 능력 개발인 교육의 비중에 대해 100%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대리 기능의 평균 비중은 52.3%, 아동능력 개발 비중은 47.7%로 보호기능 비중이 4.6%포인트 높다(표 VIII-2-15, 표 VIII-2-16 참조).

〈표 VIII-2-15〉 방과후 보육에서 부모대리 비중

단위: %(명)

구분	부모대신 보호하고 지도							통계량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미만	100%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0.8	10.6	19.6	52.5	13.0	3.5	100.0 (87)	52.3	22.0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1.4	8.2	17.8	53.4	15.1	4.1	100.0 (73)	54.2	22.2	1.8
초등고학년생	-	21.4	28.6	50.0	-	-	100.0 (14)	42.7	18.2	
지역										
대도시	-	-	12.0	64.0	20.0	4.0	100.0 (25)	59.8	16.1	6.5**
중소도시	-	11.4	14.3	57.1	11.4	5.7	100.0 (35)	55.7	22.5	
읍·면	3.8	19.2	34.6	34.6	7.7	-	100.0 (26)	40.4	22.1	
현재 모취업										
취업	-	2.1	17.0	59.6	17.0	4.3	100.0 (47)	59.8	18.9	8.6**
미취업	3.8	23.1	26.9	46.2	-	-	100.0 (26)	39.0	18.8	
모부재	-	20.0	13.3	40.0	20.0	6.7	100.0 (15)	51.2	26.2	
2004년 조사	28.7	25.5	18.8	23.7	2.7	0.6	100.0 (839)	25.7	23.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부모대리 기능의 평균 비중이 25.7%, 아동능력 개발 비중은 74.1%와 비교할 때,⁵⁸⁾ 방과후 보육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비해 부모대리 비중이 2배 높은 반면, 아동능력 개발 비중은 50%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부모를 대신한 보호 기능이 높은 데 반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기능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58) 표 제시는 생략함.

부모대리 기능의 평균 비중은 저학년생이 54.2%, 대도시 아동 59.8%, 모가 취업중인 가정 59.8%, 모 부재인 가정이 51.2%로 높다. 한편, 아동능력 개발 기능의 평균 비중은 고학년생이 57.3%, 읍·면지역 아동이 59.6%, 모가 미취업인 가정이 61.0%로 높다(표 VIII-2-15, 표 VIII-2-16 참조).

〈표 VIII-2-16〉 방과후 보육에서 아동능력 개발 비중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으로 아동 능력 개발							통계량		
	0%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미만	100%	계 (수)	평균	표준 편차	F/t
전체	3.5	13.0	21.7	50.4	10.6	0.8	100.0 (87)	47.7	22.0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4.1	15.1	21.9	49.3	8.2	1.4	100.0 (73)	45.9	22.3	-1.8
초등고학년생	-	-	21.5	57.1	21.4	-	100.0 (14)	57.3	18.2	
지역										
대도시	3.8	19.2	30.8	46.2	-	-	100.0 (26)	40.2	16.1	6.5**
중소도시	5.7	11.4	25.8	45.7	11.4	-	100.0 (35)	44.3	22.5	
읍·면	-	7.7	7.8	61.5	19.2	3.8	100.0 (26)	59.6	22.1	
현재 모취업										
취업	4.3	17.0	29.8	46.8	2.1	-	100.0 (47)	40.2	18.9	8.6**
미취업	-	-	15.4	57.7	23.1	3.8	100.0 (26)	61.0	18.8	
모부재	6.7	20.0	6.6	46.7	20.0	-	100.0 (15)	48.7	26.2	
2004년 조사	0.7	2.6	6.7	35.8	25.6	28.6	100.0 (839)	74.1	23.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용 비용

〈표 VIII-2-17〉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비용 없이 이용하는 아동은 60.5%로 5분의 3에 해당된다. 또한 5만원 미만인 아동은 35.7%로 3분의 1 수준이고, 5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은 3.8%에 불과하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월 평균 비용은 만 3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조사결과인 월 평균 비용 2만 1천원 보다 8천원이 낮아졌다.

아동 특성별로는 비용을 내지 않고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고학년생이 92.9%로 저학년생에 비해 약 2배 높고, 읍·면 지역 아동은 78.6%로 도시지역 보다 높다. 모 부재인 가정은 93.3%로 모가 있는 가정보다 높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정은 93.8%, 100~150만원 미만은 78.9%로 대체로 저소득 가정인 경우가 높다.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월 평균 비용은 저학년생이 만 5천원으로 고학년생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 아동이 2만 2천원, 중소도시 1만 1천원, 읍·면지역이 5천원으로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인다. 모가 취업인 가정은 2만원, 모가 미취업인 가정은 6천원, 모가 부재인 가정은 3천원으로 모의 취업 및 부재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표 VIII-2-17 참조).

〈표 VIII-2-17〉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월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비용							통계량		
	0원	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이상	계 (수)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60.5	5.3	9.9	20.5	2.3	1.5	100.0 (87)	12.7	19.4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53.4	6.8	11.0	24.7	2.7	1.4	100.0 (73)	14.9	20.3	5.1**
초등고학년생	92.9	-	7.1	-	-	-	100.0 (14)	1.1	4.7	
지역										
대도시	44.0	-	16.0	32.0	4.0	4.0	100.0 (25)	22.1	25.8	5.6**
중소도시	57.1	14.3	2.9	25.7	-	-	100.0 (35)	11.3	15.1	
읍·면	78.6	-	14.2	3.6	3.6	-	100.0 (28)	5.2	13.0	
현재 모취업										
취업	42.6	10.6	8.5	31.9	4.3	2.1	100.0 (47)	19.7	22.7	7.8**
미취업	76.0	-	20.0	4.0	-	-	100.0 (25)	5.5	10.0	
모부재	93.3	-	-	6.7	-	-	100.0 (15)	2.7	8.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93.8	-	-	6.2	-	-	100.0 (16)	2.5	8.5	6.1**
100~149만원	78.9	10.5	5.3	-	-	5.3	100.0 (19)	9.5	26.1	
150~199만원	72.7	-	27.3	-	-	-	100.0 (11)	5.3	9.2	
200~249만원	80.0	-	10.0	10.0	-	-	100.0 (10)	6.3	11.6	
250~299만원	36.4	18.2	-	45.4	-	-	100.0 (11)	16.7	14.4	
300만원 이상	15.0	10.0	15.0	50.0	10.0	-	100.0 (20)	29.8	17.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만족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용가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97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VIII-2-18, 표 VIII-2-19 참조).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분야별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비용이 94.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간이 76.6%, 교사수준이 69.2%, 보육내용이 65.1% 순이다. 5점 평균도 이를 반영하여 비용이 4.6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간, 교사수준, 보육내용 순으로 높다(표 VIII-2-18 참조).

〈표 VIII-2-18〉 방과후 보육 전체 만족도(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5점 평균
보육내용	-	8.1	26.8	55.8	9.3	100.0	(87)	3.66
시간	0.9	5.6	16.9	62.4	14.2	100.0	(87)	3.83
비용	-	1.4	3.7	22.5	72.4	100.0	(87)	4.66
교사수준	2.0	4.7	24.1	58.6	10.6	100.0	(87)	3.71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표 VIII-2-19〉 방과후 보육 만족도 평균(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수)	5점 평균	F/t
전체	3.66	3.83	4.66	3.71	(87)	3.97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3.66	3.83	4.60	3.72	(73)	3.95	-0.6
초등고학년생	3.66	3.87	4.94	3.67	(14)	4.04	
지역							
대도시	3.92	4.11	4.43	3.92	(25)	4.10	
중소도시	3.68	3.76	4.66	3.64	(35)	3.94	1.3
읍·면	3.38	3.66	4.87	3.60	(28)	3.88	
현재 모취업							
취업	3.78	3.86	4.45	3.94	(47)	4.01	
미취업	3.40	3.71	4.89	3.43	(25)	3.86	0.8
모부재	3.74	3.95	4.91	3.48	(15)	4.0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44	3.73	4.92	3.67	(16)	3.94	
100~149만원	3.75	3.83	4.85	3.70	(19)	4.03	
150~199만원	3.55	3.75	4.93	3.74	(11)	3.99	
200~249만원	3.06	3.50	4.75	2.99	(11)	3.58	
250~299만원	4.08	3.98	4.68	3.84	(10)	4.15	
300~349만원	4.00	4.00	3.52	4.00	(6)	3.88	1.0
350~399만원	4.00	4.00	4.00	4.00	(1)	4.00	
400~499만원	3.53	4.01	4.53	4.16	(4)	4.06	
500~599만원	4.08	4.08	4.08	4.08	(4)	4.08	
600만원 이상	4.11	4.26	4.27	4.11	(5)	4.19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아동 특성별로 고학년생이 4.04점으로 저학년생보다 높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4.10점, 3.94점으로 읍·면보다 만족도가 높고, 모 부재인 가정과 모가 취업인 가정은 각각 4.02점, 4.01점으로 모가 미취업인 가정 3.86점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보육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4개 분야 및 아동 특성별로 5점 평균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학년별로는 보육내용은 저학년생과 고학년생이 동일하고 고학년생은 시간, 비용 등 2개 분야에서 저학년생보다 만족도가 높고, 저학년생은 교사수준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도시지역은 보육내용, 시간, 교사수준 등 3개 분야에서 읍·면보다 만족도가 높고, 비용은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보육내용과 교사수준은 모가 취업인 가정과 모 부재인 가정이 모가 미취업인 가정보다 만족도가 높고, 시간과 비용은 모가 부재인 가정이 가장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보육내용, 시간, 교사수준 등 3개 분야에서 대체로 고소득인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비용은 저소득 가정인 경우 만족도가 높다(표 VIII-2-19 참조).

다)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미이용 이유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도 이용하지 않는 1,9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26.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 26.0%, 아이의 거부 15.2% 순이다. 10% 미만이나 내용 부적절과 비용 등도 방과후 보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났다(표 VIII-2-20 참조).

이는 2004년 조사결과인 아이의 거부 30.6%, 집에서 돌봐줄 사람 존재 27.0%, 비용 20.0%, 시간 부적절 10.7%, 내용 부적절 2.7%와 비교할 때 보육시간 및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이 증가한 반면, 아이의 거부와 비용 때문은 감소하였고,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동 특성별로는 아동 학년과 지역별로는 별 차이가 없고, 모 취업과 가구소득별로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모가 취업인 가정은 시간 부적절 다음으로 아이의 거부와 내용 부적절이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보다 비율이 높다. 한편, 모가 미취업인 가정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 41.7%로 전체보다 15.7%포인트 높고, 다음은 시간 부적절, 아이의 거부, 내용 부적절 순으로 높다. 모가 부재인 가정은 아이의 거부가 가장 높고, 다음은 비용과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

문은 동일하고, 시간 부적절 순으로 높다. 특히 모가 부재인 가정은 비용이 전체보다 3.4배 높아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비용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중산층 이상은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저소득층은 시간 부적절, 아이의 거부,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 높고, 이외에도 비용을 지적인 비용이 전체보다 1.8~3.2배로 높아서 비용이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표 VIII-2-20〉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적절	아이의 거부	내용 부적절	시설 설비	비용	교사	집에 돌봐줄 사람 있음	기타	계	(수)	$X^2(df)$
전체	26.7	15.2	9.9	0.8	5.8	0.7	26.0	14.9	100.0	(1,914)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25.6	14.5	8.6	0.8	6.0	1.2	33.3	10.0	100.0	(894)	73.9(7)**
초등고학년생	27.7	15.8	11.1	0.8	5.6	0.3	19.5	19.2	100.0	(1,021)	
지역											
대도시	25.5	14.9	11.5	0.6	5.0	0.8	25.4	16.3	100.0	(706)	17.9(14)
중소도시	28.9	14.6	9.7	0.8	7.3	0.7	24.3	13.7	100.0	(765)	
읍·면	25.0	16.7	7.9	0.9	4.5	0.9	29.7	14.4	100.0	(444)	
현재 모취업											
취업	32.4	18.1	13.1	1.3	5.1	1.1	12.3	16.6	100.0	(941)	279.2(14)**
미취업	22.7	10.8	7.0	0.3	4.8	0.5	41.7	12.2	100.0	(863)	
모부재	10.0	25.5	5.5	-	20.0	-	20.0	19.0	100.0	(11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1.4	16.7	3.2	3.2	18.3	-	17.5	19.7	100.0	(126)	na
100~149만원	13.5	17.3	8.3	-	16.0	1.3	29.5	14.1	100.0	(156)	
150~199만원	20.7	17.9	7.5	-	10.7	1.4	27.1	14.7	100.0	(280)	
200~249만원	29.6	16.6	9.8	-	4.6	1.0	22.5	15.9	100.0	(307)	
250~299만원	25.0	12.3	14.7	1.0	2.9	0.5	30.4	13.2	100.0	(204)	
300~349만원	35.1	15.4	7.5	0.7	2.9	0.4	26.2	11.8	100.0	(279)	
350~399만원	23.1	12.6	16.1	1.4	2.8	-	23.8	20.2	100.0	(143)	
400~499만원	34.4	11.0	11.0	0.6	-	1.2	28.8	13.0	100.0	(163)	
500~599만원	26.8	15.7	11.8	1.6	0.8	0.8	26.8	15.7	100.0	(127)	
600만원 이상	34.4	14.1	10.9	0.8	-	0.8	25.8	13.2	100.0	(128)	
2004년 조사	10.7	30.6	2.7		20.0		27.0	7.8	100.0	(12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VIII-2-20>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2,146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을 실시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이어서 앞으로의 이용의사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25.3%의 가정이 앞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새로운 이용자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2-21 참조). 이는 2004년 조사결과인 43.0%와 비교할 때 17.7%가 감소한 수치이다.

아동 특성별로 저학년생이 33.8%로 고학년보다 높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이 각각 26.1%, 28.5%로 대도시 23.8%보다 높다. 모가 취업인 가정은 28.2%로 미취업가정보다 높고, 모가 부재인 가정은 42.7%로 이의 가정보다 월등하게 높다. 가구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다.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과 150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 43.8%, 34.7%로 대체로 저소득층인 가정이 중산층 이상보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잠재수요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III-2-21〉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용할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수)	$\chi^2(df)$
전체	25.3	70.5	4.2	100.0	(2,146)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33.8	61.7	4.5	100.0	(962)	68.3(2)**
초등고학년생	18.5	77.6	3.9	100.0	(1,184)	
지역						
대도시	23.8	73.1	3.1	100.0	(966)	9.9(4)*
중소도시	26.1	68.5	5.4	100.0	(937)	
읍·면	28.5	68.2	3.3	100.0	(242)	
현재 모취업						
취업	28.2	68.5	3.3	100.0	(1,023)	37.9(4)**
미취업	20.6	74.7	4.7	100.0	(1,013)	
모부재	42.7	50.9	6.4	100.0	(11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3.8	51.8	4.4	100.0	(112)	64.7(18)**
100~149만원	34.7	60.5	4.8	100.0	(147)	
150~199만원	31.1	64.7	4.2	100.0	(238)	
200~249만원	27.5	69.9	2.6	100.0	(229)	
250~299만원	26.4	68.2	5.4	100.0	(242)	
300~349만원	23.7	70.0	6.3	100.0	(287)	
350~399만원	22.8	73.7	3.5	100.0	(167)	
400~499만원	19.5	76.5	4.0	100.0	(293)	
500~599만원	22.6	72.6	4.8	100.0	(190)	
600만원 이상	15.7	83.1	1.2	100.0	(242)	
2004년 조사	43.0	51.3	3.5	100.0	(3,4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향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54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이용 시기를 조사한 결과, 당장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0.9%, 3개월 이내가 14.6%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아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III-2-22 참조). 이는 2004년 조사결과인 당장이 71.8%, 3개월 이내가 14.2%와 비교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향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아동 특성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희망하는 이용 시기로 전체보다 당장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응답한 경우는 고학년생,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 모가 취업인 가정과 모 부재인 가정, 저소득층 가정으로 나타나서 방과후 보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대상으로 파악된다.

〈표 VIII-2-22〉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이용 희망 시기

구분	당장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후에	2년 후에	계	(수)	X ² (df)
전체	70.9	14.6	8.6	2.9	2.4	0.6	100.0	(544)	
연령구분									
초등저학년생	68.3	15.4	8.3	4.3	2.8	0.9	100.0	(325)	8.8(5)
초등고학년생	74.5	13.6	9.2	0.9	1.8	-	100.0	(220)	
지역									
대도시	72.2	14.8	9.0	2.2	0.9	0.9	100.0	(230)	na
중소도시	69.7	12.7	9.0	4.1	4.1	0.4	100.0	(244)	
읍·면	71.4	20.0	4.4	1.4	1.4	1.4	100.0	(70)	
현재 모취업									
취업	71.5	16.7	7.7	2.4	1.4	0.3	100.0	(288)	na
미취업	66.8	13.5	10.6	3.8	4.3	1.0	100.0	(208)	
모부재	85.1	8.5	6.4	-	-	-	100.0	(47)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7.8	2.0	8.2	2.0	-	-	100.0	(49)	na
100~149만원	84.3	9.8	2.0	3.9	-	-	100.0	(51)	
150~199만원	65.3	23.6	5.5	1.4	2.8	1.4	100.0	(72)	
200~249만원	79.0	8.1	9.7	-	3.2	-	100.0	(62)	
250~299만원	69.2	18.5	4.6	3.1	4.6	-	100.0	(65)	
300~349만원	70.6	4.4	14.6	7.4	1.5	1.5	100.0	(68)	
350~399만원	60.5	23.7	13.2	-	2.6	-	100.0	(38)	
400~499만원	70.2	19.3	7.0	1.7	1.8	-	100.0	(57)	
500~599만원	54.8	21.4	11.9	4.7	4.8	2.4	100.0	(42)	
600만원 이상	65.8	15.8	10.5	5.3	-	2.6	100.0	(38)	
2004년 조사	71.8	14.2	9.0	2.0	2.1	0.9	100.0	(1472)	

주: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3. 보육시설 및 공부방 이용 및 욕구

제3절은 초등학생이 보육시설과 공부방에서의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본 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아동 15명, 공부방 이용아동 199명⁵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서 이들의 특성,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이용아동 특성

보육시설과 공부방 이용아동을 보면 학년은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그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86.1%인 대다수가 저학년아동이고, 공부방은 고학년 아동이 53.3%로 과반수 이상이고, 저학년은 46.7%이다(표 VIII-3-1 참조).

〈표 VIII-3-1〉 학년별 보육시설·공부방 이용 취학아동 분포

구분	보육시설	공부방	전체	단위: %(명)	
				X ²	(df)
1학년	53.3	13.5	16.4	20.5(5)**	
2학년	26.7	17.6	18.2		
3학년	6.1	15.6	15.4		
4학년	6.2	22.6	21.0		
5학년	2.6	18.6	17.8		
6학년	5.1	12.1	11.2		
계(수)	100.0(15)	100.0(199)	100.0(2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지역별로는 보육시설과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은 도시지역이 각각 93.4%, 87.9%로 대다수가 해당되고,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분포가 낮다. 모의 취업상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취업모 자녀 비율이 66.7%로 높고 공부방도 취업모 자녀비율이 높으나 모 부재인 아동의 비율도 18.6%나 된다. 가구소득별로는 공부방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표 VIII-3-2 참조).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저학년 아동이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공부방은 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59) 공부방 외에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됨.

〈표 VIII-3-2〉 보육시설·공부방 이용 취학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공부방	전체	$X^2(df)$
지역				
대도시	46.7	41.7	42.1	0.4(2)
중소도시	46.7	46.2	46.3	
읍·면	6.7	12.1	11.7	
모 취업				
취업	66.7	48.7	50.0	3.7(2)
미취업	33.3	32.7	32.7	
모부재	-	18.6	17.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1	25.0	23.8	21.2(9)*
100~149만원	-	17.5	16.4	
150~199만원	50.0	19.5	21.5	
200~249만원	7.1	11.5	11.2	
250~299만원	-	6.0	5.6	
300~349만원	-	6.0	5.6	
350~399만원	-	3.5	3.3	
400~499만원	21.4	5.5	6.5	
500~599만원	-	2.0	1.9	
600만원 이상	14.3	3.5	4.2	
계(수)	100.0(15)	100.0(199)	100.0(21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나. 이용행태

방과후 보육은 1일 4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아동이 46.7%로 과반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표 VIII-3-3〉 보육시설·공부방 방과후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공부방	전체	$X^2(df)$
1시간	-	4.8	4.4	11.0(4)*
2시간	6.7	27.9	25.5	
3시간	20.0	23.8	23.4	
4~5시간	53.3	40.2	41.6	
6시간 이상	20.0	3.3	5.1	
계(수)	100.0(15)	100.0(122)	100.0(13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보육시설은 1일 4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73.3%로 3분 2 이상이 해당되는 반면, 공부방은 4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은 43.5%로 과반수 미만이나 3시간 이하를 이용하는 아동은 56.6%로 과반수를 넘는다(표 VIII-3-3 참조).

다. 비용

보육시설과 공부방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아동의 월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는 아동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부방은 46.3%인 반면, 보육시설은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중 5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아동은 공부방이 37.5%로 높고, 보육시설은 6.7%로 낮으나, 5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86.6%, 공부방 16.2%로 상대적으로 낮다. 월 평균 비용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14만 9천원이고, 공부방은 만 9천원으로 보육시설이 공부방 보다 8배 높으나, 보육시설은 실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는 적다(표 VIII-3-4 참조).

〈표 VIII-3-4〉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 비용

구분	단위: %(명), 천원			X ² (df)
	보육시설	공부방	전체	
0원	6.7	46.3	42.0	62.7(7)**
2만원 미만	-	17.1	15.2	
2~3만원 미만	6.7	10.6	10.1	
3~5만원 미만	-	9.8	8.7	
5~10만원 미만	33.3	14.6	16.7	
10~20만원 미만	26.7	0.8	3.6	
20~30만원 미만	13.3	0.8	2.2	
30만원 이상	13.3	-	1.5	
계(수)	100.0(15)	100.0(123)	100.0(138)	
평균	148.79	18.59	32.5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라. 만족도

보육시설과 공부방 이용가정의 보육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4개 분야별로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서 만족한다는 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내용, 시간, 교사수준 등 3개 분야에서 66.7%~73.4%로 높으나 비용만은 28.5%로 낮은 반면, 공부방은 4개 분야에서 65.8%~89.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5점 평균점수는

보육시설은 비용이 3점 미만으로 가장 낮고, 공부방은 비용이 4.51점으로 가장 높다(표 VIII-3-5 참조).

〈표 VIII-3-5〉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 만족도 비교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공부방		전체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보육내용	66.7	3.77	68.0	3.77	67.9	3.77
시간	73.4	3.79	84.6	3.95	83.3	3.93
비용	28.5	2.93	89.4	4.51	83.1	4.34
교사 수준	73.3	3.75	65.8	3.80	66.7	3.79

보육시설과 공부방 이용아동 중에서 보육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4개 분야에서 불만족인 아동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부적절 또는 부족하다가 3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음, 환경이 좋지 않음, 교사자질이 만족스럽지 않음, 거리가 가깝지 않음, 간식제공이 되지 않은 순으로 높다(표 VIII-3-6 참조).

〈표 VIII-3-6〉 보육시설·공부방 이용아동의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거리	차량 미운행	간식 미제공	환경이 열악	교사 자질부족	프로그램 부적절	기타	계(수)
전체	7.7	15.4	7.7	15.4	15.4	30.7	7.7	100.0(13)

4. 소결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은 초등학생 부모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에 균형적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부모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실효성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이 요청된다.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부모의 56.4%는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선호하나, 실제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에 대해서는 39.7%만이 선호하나, 초등학생의 68.5%가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에서 주로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프로그램의 이용은 40.4%에 그친다.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주당 평균 3.18시간을 이용하며 비용은 월 평균 3만2천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가정은 비용부담으로, 중산층 가정은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만족도에서도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 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4개 분야에서 중간보다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가 희망하는 특기·적성 활동은 2004년도에 비해 영어, 수학, 현장체험, 체육, 연극·뮤지컬 등에 욕구가 높아져서, 이들 분야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특화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실시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 3.9%에 그치던 것이 2009년에는 51.9%로 높아졌지만, 해당 아동의 이용률은 8.9%에서 4.4%로 감소하였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귀가 후 주로 일반 예체능 및 보습학원과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학교가 끝난 후에 다니는 기관 없이 집에 있는 아동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비율이 높다. 하지만,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저소득층 아동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고 아이가 거부한다는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낙인감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보육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다른 계층에 비해 보육내용, 시간 및 교사수준 등 3개 분야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이 방과후 보육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학습보충활동과 숙제지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으며, 안전한 보호와 휴식에 대한 욕구가 새롭게 나타나서 이들 분야에 프로그램의 개선과 강화가 요구된다.

IX. 보육정책 관련 인지 및 의견

제9장에서는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의견을 분석하였다. 가구조사 및 아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제1절에서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설치·질적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 주변 시설의 충분성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다루었다. 제2절은 보육·교육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제시하였고, 제3절에서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1.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련 의견

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1) 개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인근 지역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주변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양적으로 충분한지를 질문하였고, 이어서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충분한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표 IX-1-1>에 요약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 일반적 충분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35.7%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4.1%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10.2%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서 주변에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유치원에 대해서도 일반적 충분성에 대해서는 47.6%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0%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11.4%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주변에 아동을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는 53.6%가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1~2곳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2.7%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주변에 자녀들을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의견도 19.9%이고 잘 모른다는 경우도 13.8%의 비율을 보였다. 주변에 아동을 보낼만한 유치원이 충분히 있는가하는 질문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응답과 거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X-1-1〉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단위: %(명)

구분	일반			아동을 보낼만 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모름	없음	1~2곳	많음	잘 모름	
보육시설	35.7	54.1	10.2	19.9	53.6	12.7	13.8	100.0(4,896)
유치원	41.0	47.6	11.4	19.9	53.3	11.1	15.7	100.0(4,900)

2) 제 특성별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다음은 보육시설의 충분성에 대하여 제 특성별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구분별로 보면 영유아 가구 부모가 보면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비율이 55.9%,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36.7%이고 잘 모른다는 비율은 7.4%이었다.⁶⁰⁾ 초등학생 가구도 영유아 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 아동을 보낼만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유아 가구가 초등학생 가구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IX-1-2 참조).

〈표 IX-1-2〉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보육시설 일반적 설치

단위: %(명)

구분	일반			보낼만한 보육시설				계
	불충분	충분	모름	없음	1~2곳	많음	잘 모름	
전체	35.7	54.1	10.2	19.9	53.6	12.7	13.8	100.0(4,896)
연령구분 1								
영유아	36.7	55.9	7.4	20.7	57.2	11.9	10.2	100.0(2,547)
초등학생	34.6	52.3	13.1	18.8	49.7	13.7	17.8	100.0(2,351)
$X^2(df)$		43.9(2)**			69.5(3)**			-
연령구분 2								
영아	36.3	53.7	10.0	21.1	54.9	10.8	13.2	100.0(1,564)
유아	37.5	59.2	3.3	20.2	60.7	13.5	5.6	100.0(985)
초등저학년	36.7	55.4	7.9	20.7	53.7	14.7	10.9	100.0(1,175)
초등고학년	32.4	49.1	18.5	16.9	45.7	12.7	24.7	100.0(1,176)
$X^2(df)$		146.8(6)**			196.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60) 200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선택할 만한 보육시설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55.3%이고, 충분하다는 비율은 44.7%로 2009년 조사에서 충분하다는 비율이 높아졌음. 2004년도에는 아동이 없는 가구도 조사하였으므로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음.

다음 <표 IX-1-3>은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일반적인 태도는 지역별로는 읍·면이 도시보다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은 취업여부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수준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 한편 아동을 보낼만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없다는 비율이 도시보다 읍·면이 높지만 읍·면은 많다는 비율도 높다. 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

<표 IX-1-3> 최연소 자녀 보육시설 일반적 설치

단위: %(명)

구분	일반			보낼만한 보육시설				계
	불충분	충분	모름	없음	1~2곳	많음	잘 모름	
전체	36.7	55.9	7.4	20.7	57.2	11.9	10.2	100.0(2,547)
지역규모별								
대도시	33.1	58.6	8.3	18.5	58.1	11.9	11.5	100.0(1,135)
중소도시	37.1	55.0	8.0	21.4	57.3	10.2	11.1	100.0(977)
읍·면	45.2	50.7	4.1	25.2	54.4	15.4	5.0	100.0(436)
$X^2(df)$		24.2(4)**			28.5(6)*			
모취업별								
모취업	37.1	56.2	6.7	20.3	58.0	12.8	8.9	100.0(912)
미취업	36.1	55.9	8.0	20.4	57.1	11.3	11.2	100.0(1,572)
모부재	47.7	49.2	3.1	35.9	45.3	12.5	6.3	100.0(64)
$X^2(df)$		5.9(4)			14.2(6)*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40.6	53.1	6.3	24.1	56.3	10.2	9.4	100.0(128)
100~149만원	39.6	53.6	6.8	23.4	55.7	12.8	8.1	100.0(235)
150~199만원	33.6	57.4	9.0	15.1	60.8	11.8	12.3	100.0(423)
200~249만원	37.7	57.3	5.0	18.5	56.1	15.6	9.8	100.0(378)
250~299만원	36.7	54.4	8.9	21.8	54.1	12.7	11.4	100.0(316)
300~349만원	34.8	59.1	6.1	22.3	63.1	6.1	8.5	100.0(328)
350~399만원	39.4	54.2	6.5	21.8	57.1	11.5	9.6	100.0(156)
400~499만원	34.4	54.5	11.1	22.4	52.4	12.6	12.6	100.0(246)
500~599만원	39.4	53.5	7.1	20.6	59.4	11.6	8.4	100.0(155)
600만원 이상	37.4	55.9	6.7	25.1	52.0	12.8	10.1	100.0(179)
$X^2(df)$		16.9(18)			37.9(2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3) 제 특성별 유치원 충분성 인식

다음은 유치원의 충분성에 대하여 제 특성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X-1-4〉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유치원 일반적 설치

단위: %(명)

구분	일반			보낼만한 유치원				계
	불충분	충분	모름	없음	1~2곳	많음	잘 모름	
전체	41.0	47.6	11.4	19.9	53.3	11.1	15.7	100.0(4,899)
연령구분 1								100.0(2,548)
영유아	44.4	44.8	10.8	21.5	54.3	9.7	14.5	100.0(2,351)
초등학생	37.4	50.6	12.0	17.9	52.4	12.6	17.1	
$X^2(df)$		24.9(2)**			24.2(3)**			
연령구분 2								
영아	43.3	41.6	15.1	21.4	50.3	8.4	19.9	100.0(1,564)
유아	46.1	49.8	4.1	21.8	60.6	11.8	5.8	100.0(984)
초등저학년	40.6	52.5	6.9	20.2	55.2	14.1	10.5	100.0(1,175)
초등고학년	34.1	48.9	17.0	15.7	49.5	11.1	23.7	100.0(1,175)
$X^2(df)$		159.9(6)**			199.4(9)**			

〈표 IX-1-5〉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유치원 일반적 설치

단위: %(명)

구분	일반			보낼만한 유치원				계
	불충분	충분	모름	없음	1~2곳	많음	잘 모름	
전체	44.4	44.8	10.8	21.5	54.3	9.7	14.5	100.0(2,351)
지역규모별								
대도시	40.6	48.5	10.9	19.5	55.2	10.7	14.6	100.0(1,135)
중소도시	43.2	43.5	13.3	21.1	52.0	9.1	17.8	100.0(976)
읍·면	57.1	37.6	5.3	28.3	57.0	8.3	6.4	100.0(435)
$X^2(df)$		46.9(4)**			42.8(6)**			
모취업별								
모취업	45.3	44.5	10.2	20.7	55.9	10.1	13.3	100.0(911)
미취업	43.5	45.2	11.3	21.7	53.7	9.2	15.4	100.0(1,572)
모부재	50.7	38.5	10.8	29.7	45.3	17.2	7.8	100.0(64)
$X^2(df)$		2.3(4)			11.7(6)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43.0	45.3	11.7	23.5	52.3	9.4	14.8	100.0(128)
100~149만원	44.7	41.7	13.6	23.4	51.5	10.6	14.5	100.0(235)
150~199만원	41.5	45.3	13.2	18.4	53.7	10.4	17.5	100.0(423)
200~249만원	49.7	42.1	8.2	24.3	52.9	9.8	13.0	100.0(378)
250~299만원	47.1	41.8	11.1	23.4	53.8	7.0	15.8	100.0(316)
300~349만원	44.4	45.6	10.0	22.2	53.8	8.5	15.5	100.0(329)
350~399만원	48.7	43.5	7.8	23.8	53.8	9.6	12.8	100.0(156)
400~499만원	40.0	46.5	13.5	19.9	55.3	10.2	14.6	100.0(246)
500~599만원	44.6	47.7	7.7	21.3	61.9	9.7	7.1	100.0(155)
600만원 이상	37.8	52.8	9.4	15.6	57.0	14.0	13.4	100.0(179)
$X^2(df)$		23.1(18)			27.1(2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연령구분별로 보면 영유아 가구 부모가 양적으로 유치원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44.4%로 초등학생 가구 비율보다 높다. 아동을 보낼만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영유아 가구가 초등학생 가구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IX-1-4 참조).

<표 IX-1-5>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별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일반적인 태도는 지역별로는 읍·면이 도시보다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은 취업여부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수준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 한편 아동을 보낼만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없다는 비율이 도시보다 읍·면이 높다. 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

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차이 인식

한편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에 대하여 이용 아동 연령, 모의 취업특성, 비용, 프로그램, 교사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 아동 연령에 대해서는 19.6%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20.3%는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용하는 아동 모의 취업 특성은 31.5%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19.4%는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IX-1-6).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도 15.6%가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38.2%는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9.8%가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30.0%는 차이가 많다고 응답하였다(표 IX-1-7).

<표 IX-1-6> 최연소 자녀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 이용 아동 연령 및 모의 취업

단위: %(명)

구 분	아동 연령			모의 취업			계(수)
	별 차이 없음	약간 차이	차이가 많음	별 차이 없음	약간 차이	차이가 많음	
전체	19.6	60.1	20.3	31.5	49.1	19.4	100.0(4,895)
영유아	18.1	59.8	22.1	30.3	49.7	20.0	100.0(2,546)
초등학생	21.4	60.3	18.3	32.7	48.5	18.8	100.0(2,348)
$X^2(df)$	14.9(2)**			3.4(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IX-1-7〉 최연소 자녀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 비용

단위: %(명)

구 분	비용			프로그램			계(수)
	별 차이 없음	약간 차이	차이가 많음	별 차이 없음	약간 차이	차이가 많음	
전체	15.6	46.2	38.2	19.8	50.2	30.0	100.0(4,895)
영유아	17.2	44.1	38.7	20.5	48.9	30.6	100.0(2,546)
초등학생	13.8	48.6	37.6	19.1	51.5	29.4	100.0(2,349)
$X^2(df)$		15.2(2)**			3.7(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IX-1-8〉 최연소 자녀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 교사

단위: %(명)

구 분	교사			시설 및 환경			전체
	별 차이 없음	약간 차이	차이가 많음	별 차이 없음	약간 차이	차이가 많음	
전체	27.7	48.4	23.9	26.5	49.2	24.3	100.0(4,896)
영유아	28.3	47.6	24.1	26.3	48.5	25.2	100.0(2,547)
초등학생	27.0	49.4	23.6	26.7	50.1	23.3	100.0(2,349)
$X^2(df)$		1.7(2)			2.6(2)		

마지막으로 교사는 27.7%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23.9%는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설 및 환경은 차이가 있다와 없다가 각각 26.5%, 24.3%이다(표 IX-1-8 참조).

영유아와 초등학생 가구의 차이는 이용 아동연령과 비용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나, 그 이외 항목은 차이가 거의 없다(표 IX-1-6, 표 IX-1-7, 표 IX-1-8 참조).

〈표 IX-1-9〉는 아동연령 구분별로 차이가 많다는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연령구분을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보아도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X-1-9〉 최연소 자녀 연령구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차이가 많다는 비율

단위: %(명)

구 분	아동연령	모 취업	비용	프로그램	교사	시설환경	(수)
전체	20.3	19.4	38.2	30.0	23.9	24.3	(4,895)
영아	22.2	20.3	38.5	30.1	23.7	25.3	(1,564)
유아	21.8	19.6	39.0	31.3	24.9	25.3	(983)
초등저학년	18.8	19.2	35.6	27.4	23.8	22.6	(1,175)
초등고학년	17.9	18.4	39.6	31.4	23.4	24.0	(1,173)

다음은 영유아 가구에 한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이를 지역, 모의 취업여부 및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X-1-10〉은

차이가 많다는 응답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이용아동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과 모의 취업상태가 다르다는 응답은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취업 모는 미취업모나 모부재보다 많다고 응답하는 높은 편이고,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아 질수록 차이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용비용, 시설환경에 대해서도 취업모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행이다.

〈표 IX-1-10〉 영유아 가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가 많다는 비율

단위: %(명)

구 분	아동연령	모 취업	비용	프로그램	교사	시설환경	(수)
전체	22.1	20.0	38.7	30.6	24.1	25.3	(2,547)
지역규모별							
대도시	21.7	20.3	38.8	31.0	23.2	23.3	(1,134)
중소도시	22.1	19.1	37.8	31.6	26.7	28.8	(977)
읍·면	23.0	21.3	40.7	27.4	20.7	22.5	(436)
모취업별							
모취업	24.6	23.3	40.0	31.8	23.3	27.2	(911)
미취업	20.7	18.2	38.2	29.6	24.8	24.4	(1,573)
모부재	20.6	18.8	34.4	39.1	18.8	17.2	(64)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18.8	15.5	39.1	31.8	23.6	25.0	(128)
100~149만원	24.4	19.6	39.6	32.9	23.9	27.8	(235)
150~199만원	21.9	18.9	40.2	26.7	22.9	24.3	(423)
200~249만원	22.2	19.6	37.3	26.5	23.3	20.1	(378)
250~299만원	20.6	18.4	40.5	30.0	22.8	22.5	(316)
300~349만원	20.4	22.6	36.9	32.3	25.8	25.0	(328)
350~399만원	23.9	18.1	42.3	27.7	22.6	29.0	(155)
400~499만원	24.1	21.2	37.8	32.7	26.1	29.0	(245)
500~599만원	24.5	23.4	41.9	41.9	27.7	35.7	(154)
600만원 이상	20.8	21.9	32.6	32.2	24.0	23.5	(183)

2. 보육·유아교육비 지원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가. 비용 지원정책 인식

1) 비용 지원정책 인지

가) 초등학생 이하 가구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IX-2-1>은 영유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부에서 지원중인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지원, 두자녀 이상 이용시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 각각에 대한 인지와 실제 수혜 여부를 나타낸다.

소득계층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은 잘 앎 46.1%, 대략 앎 42.3%, 잘 모름 11.6%로 다른 비용 지원정책에 비해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아 기본보조금과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모른다는 비율은 두 지원 모두 39% 수준이었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5%로 장애아 보육 지원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은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이 35.3%, 영아 기본보조금 9.0%,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16.4%, 두 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9.2%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은 1% 수준이었다 (표 IX-2-1 참조).

수혜경험이 높은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정책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수혜경험이 낮은 장애아 무상보육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를 받은 경험이 높은 지원정책일수록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 지원정책 수혜경험과 인지 간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영아 기본보조금의 경우 알고 있는 비율은 60% 이상인데 반해, 수혜경험은 10%미만이다.

<표 IX-2-1> 초등학교 이하 아동가구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은	과거 받은 경험 있음	한 번도 받지 않음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46.1	42.3	11.6	16.2	19.1	64.7	100.0(4,897)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25.8	35.5	38.7	3.1	5.9	91.0	100.0(4,897)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30.2	31.6	38.2	5.1	11.3	83.6	100.0(4,900)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30.4	37.0	32.7	3.2	6.0	90.8	100.0(4,897)
장애아 무상 보육	22.3	25.2	52.5	0.4	0.4	99.2	100.0(4,898)

나) 영유아 가구

다음은 영유아기구를 최연소 아동의 연령구분에 따라 각 지원정책별 인지 및 수혜 여부를 살펴보았다(표 IX-2-2 참조).

먼저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정책의 인지 및 수혜 여부를 나타낸다. 영유아 가구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52.4%, 잘 모름 8.0%인데 반해, 초등학생 가구는 39.3%, 15.7%로 초등학생 가구보다 영유아 가구가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정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영아 가구의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이 10.7%로 유아 가구 3.7%보다 높아 영아 가구보다 유아 가구에서 감면 정책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경험은 영유아 가구 중에서도 영아보다 유아 가구가 높았다.

〈표 IX-2-2〉 영유아 가구의 교육비 감면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받은 경험 있음	한 번도 받지 않음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전체	52.4	39.6	8.0	31.0	11.0	57.9	100.0(2,548)
영아	48.4	40.9	10.7	25.9	7.7	66.4	100.0(1,563)
유아	58.6	37.7	3.7	39.3	16.2	44.5	100.0(984)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전체	28.7	34.9	36.4	6.0	7.7	86.3	100.0(2,548)
영아	26.3	35.7	38.0	8.6	4.7	86.7	100.0(1,564)
유아	32.5	33.6	33.9	-	14.2	85.8	100.0(984)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전체	31.5	28.0	40.5	9.9	6.7	83.4	100.0(2,547)
영아	24.2	26.0	49.8	4.3	4.3	91.4	100.0(1,563)
유아	43.0	31.2	25.8	18.8	10.7	70.5	100.0(985)
두자녀 이상 감면							
전체	36.5	35.5	28.0	6.1	6.6	87.3	100.0(2,548)
영아	33.8	35.3	30.9	6.9	3.3	89.8	100.0(1,563)
유아	40.5	36.0	23.5	4.9	12.0	83.1	100.0(984)
장애아 무상 보육							
전체	23.1	24.8	52.1	0.8	0.2	99.0	100.0(2,548)
영아	21.6	24.0	54.4	0.3	-	99.7	100.0(1,563)
유아	25.4	26.0	48.6	1.5	0.5	98.0	100.0(984)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는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정책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가구보다 영유아 가구가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고, 영아 가구보다 유아 가구가 높았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지원 대상이 영아인데, 영아 가구보다 유아 가구에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정책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보다 시설 이용이 많은 유아 부모가 시설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와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원정책 수혜와

인지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아 기본보조금 수혜 경험을 보면, 영아 가구는 현재 받음 8.6%, 과거 받은 경험 있음 4.7%이며, 유아 가구는 과거 14.2%로 영아와 유아 14%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아 가구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정책 인지 비율이 높은 것은 과거 수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아 가구 중 기본보조금 현 수혜비율이 13% 수준으로, 영아 중 민간 시설 이용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는 부모들이 기본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응답한 수혜여부는 실제로 수혜를 받았다고 보다는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비용지원 수혜 여부 결과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유아 74.2%, 영아 50.2%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받은 경험이 있는 유아에 비하여 아직 지원대상이 아닌 영아 가구의 인지 비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두자녀 이상 기관 이용 시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유아 76.5%, 영아 69.1%로, 앞서 살펴본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유아 가구의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혜 경험은 영유아 가구 12.7%이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과 잘 모른다는 응답은 50% 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영유아 가구와 초등학교 가구 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연령을 세분화하여 보면 유아 가구가 51.4% 장애아 무상보육에 대해 알고 있어 영아가구보다 높았고, 수혜 비율도 유아 가구 2.0%로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높았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정책은 앞서 살펴본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알고 있다는 인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자인 장애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수혜경험이 없어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별로 자녀 연령구분에 따라 정책 인지 및 수혜 여부를 비교한 결과, 거의 대부분 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의 인지 및 수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유아인 자녀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영유아기에 있는 자녀수가 복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함께 지원 대상이거나 과거 지원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영아 가구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대상 형제·자매

가 없는 초등학교 가구에 비하여 유아 가구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나 인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다음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⁶¹⁾

〈표 IX-2-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부모의 보육료 지원 정책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받은 경험 있음	한 번도 받지 않음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전체	64.4	33.4	2.3	58.7	8.5	32.8	100.0(1,328)
영아	62.9	34.0	3.1	61.0	2.9	36.1	100.0(550)
유아	65.4	32.9	1.7	57.1	12.5	30.5	100.0(778)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전체	35.2	31.2	33.6	15.3	11.1	73.7	100.0(1,328)
영아	35.5	31.6	32.9	25.8	5.4	68.8	100.0(550)
유아	35.1	30.8	34.1	7.8	15.0	77.1	100.0(778)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전체	37.6	27.7	34.7	14.8	7.3	77.9	100.0(1,328)
영아	28.9	26.4	44.7	6.5	5.6	87.8	100.0(550)
유아	43.7	28.7	27.6	20.7	8.5	70.8	100.0(778)
두자녀 이상 감면							
전체	46.9	34.2	19.0	18.6	7.8	73.6	100.0(1,328)
영아	45.9	32.5	21.6	22.0	4.9	73.1	100.0(550)
유아	47.6	35.3	17.1	16.2	9.9	73.9	100.0(778)
장애아 무상 보육							
전체	26.5	25.7	47.9	1.7	-	98.3	100.0(1,328)
영아	24.1	26.1	49.7	0.9	-	99.1	100.0(550)
유아	28.1	25.3	46.5	2.2	-	97.8	100.0(778)

61) 보육시설 이용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모의 응답이 두 번 이상으로 중복 처리되었음. 따라서 분석 대상 아동이 영아, 유아이어도 형제 중 유아, 영아가 있으면 기본보조금이나 만5세아 무상 지원이 해당됨.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은 잘 앎 64.4%, 대략 앎 33.4%, 잘 모름 2.3%로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다.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두 자녀 이상 지원은 모른다는 비율이 19% 수준으로 전체 아동 부모 32.7% 수준에 크게 낮다. 영아 기본보조금과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모른다는 비율은 두 지원 모두 34% 수준으로 아동부모 전체의 39% 수준에 비하여 다소 낮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47.9%로 아동전체 52% 수준보다 다소 높다

한편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은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이 67.2%, 영아 기본보조금 26.4%,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22.1%, 두 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26.4%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은 1.7% 수준이었다. 각 지원별로 영아와 유아가 차이를 보였다.

2) 가정 경제에 효과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정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수혜받은 지원 정책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표 IX-2-4>는 소득계층별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두 자녀 이상 이용시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의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영아 기본보조금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각 지원정책별 가정경제 도움 비율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95.9%, 장애아 무상보육 92.7%,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92.1%,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91.1%, 영아 기본보조금 87.2%이다(표 IX-2-4 참조).

<표 IX-2-4> 보육료 및 교육비 정부지원 수혜자의 가정경제 영향 여부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7.8	48.1	44.1	1000(1,622)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12.8	50.1	37.1	100(409)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4.1	47.5	48.4	100(889)
두자녀 이상 이용 시 감면	8.9	45.1	46.0	100(448)
장애아 무상보육	7.3	41.5	51.2	100(41)

다음은 각 지원정책별로 영향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IX-2-5>는 보육료 및 교육

비 감면 정책의 가정경제 영향 여부를 나타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한편, 보육료 및 교육비가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은 자녀의 연령구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연령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X-2-6 참조).

〈표 IX-2-5〉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가정경제 영향 여부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전체	7.8	48.1	44.1	100.0(1,622)
연령구분 1				
영유아	8.7	46.6	44.7	100.0(988)
초등학생	6.5	50.3	43.2	100.0(633)
$X^2(df)$		3.7(2)		
연령구분 2				
영아	8.8	43.6	47.6	100.0(498)
유아	8.6	49.5	41.9	100.0(490)
초등 저학년	6.8	51.0	42.2	100.0(457)
초등 고학년	5.8	48.2	46.0	100.0(177)
$X^2(df)$		8.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함.

〈표 IX-2-6〉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가정경제 영향 여부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전체	12.8	50.1	37.1	100.0(409)
연령구분 1				
영유아	13.0	50.7	36.3	100.0(329)
초등학생	11.8	47.3	40.9	100.0(84)
$X^2(df)$		0.7(2)		
연령구분 2				
영아	12.1	48.3	39.6	100.0(193)
유아	14.3	54.3	31.4	100.0(133)
초등 저학년	15.7	45.7	38.6	100.0(64)
초등 고학년	0.0	54.5	45.5	100.0(19)
$X^2(df)$		6.6(6)		

주: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자녀 연령구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X

-2-7 참조).

두 자녀 이상 이용 시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 정책은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정책과 반대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연령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 가구는 90% 이상이 두자녀 이상 이용 시 보육료 및 교육비 감면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비율은 영아 5.0%, 유아 7.2%, 초등 저학년 16.0%, 초등 고학년 17.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다(표 IX-2-8 참조).

〈표 IX-2-7〉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가정경제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전체	4.1	47.5	48.4	100.0(889)
연령구분 1				100.0(424)
영유아	4.2	43.9	51.9	100.0(381)
초등학생	3.9	51.5	44.6	100.0(84)
$X^2(df)$		4.7(2)		
연령구분 2				
영아	6.0	45.9	48.1	100.0(133)
유아	3.4	43.0	53.6	100.0(291)
초등 저학년	3.7	49.4	46.9	100.0(294)
초등 고학년	4.6	58.6	36.8	100.0(87)
$X^2(df)$		9.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함.

〈표 IX-2-8〉 두자녀 이상 이용 시 보육료·교육비 감면 가정경제 영향 여부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전체	8.9	45.1	46.0	100.0(448)
연령구분 1				
영유아	5.9	44.4	49.7	100.0(324)
초등학생	16.4	47.5	36.1	100.0(122)
$X^2(df)$		15.0(2)**		
연령구분 2				
영아	5.0	40.9	54.1	100.0(159)
유아	7.2	47.6	45.2	100.0(166)
초등 저학년	16.0	51.0	33.0	100.0(100)
초등 고학년	17.4	30.4	52.2	100.0(23)
$X^2(df)$		19.6(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장애아 무상보육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가구에 비하여 영유아 가구가 높다(표 IX-2-9 참조).

〈표 IX-2-9〉 장애아 무상보육 가정경제 영향 여부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전체	7.3	41.5	51.2	100.0(41)
영유아	8.3	33.4	58.3	100.0(24)
초등학생	5.9	52.9	41.2	100.0(17)

나. 비용 적정 분담에 대한 의견

1) 정부의 적정 분담 비율

우리나라는 보육비용 중 직접 인건비 또는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총 보육 비용의 54%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6% 정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의 경우는 국·공립유치원은 교사 인건비를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교육비는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보육비용 중 어느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30.1%가 보육비용 중 91%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19.0%는 51~60%, 16.4%는 보육비용 중 41~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적정수준을 71%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가구의 47.9%이다(표 IX-2-10 참조). 즉, 현재 보다 많은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연소 아동이 초등학생보다는 영유아인 가구에서 정부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고, 영유아 중 영아와 유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영유아가구는 50% 이상이 정부 부담 적정수준을 71%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표 IX-2-10 참조).

2004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보육지원 확대와 더불어 그 이상으로 부모들의 기대 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정부가 90% 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4년 20% 내외에서 2009년 30% 수준으로 10%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고, 반면에 40~60%는 2004년 조사에서는 과반수이었으나 2009년에서 35% 수준으로 낮아졌다.

〈표 IX-2-10〉 초등학교 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연령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 의견

단위: %(명)

구 분	~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	모르겠음	전체	X ² (df)
전체	1.7	4.7	16.4	19.0	9.1	11.5	6.3	30.1	1.2	100.0(4,898)	
연령구분 1											
영유아	0.7	4.4	14.2	17.2	8.9	12.6	6.9	34.4	0.7	100.0(2,548)	105.8(8)**
초등학교	2.6	5.1	18.8	21.1	9.2	10.4	5.8	25.3	1.7	100.0(2,351)	
연령구분 2											
영아	0.4	4.3	14.4	17.9	9.5	13.4	6.8	32.6	0.7	100.0(1,563)	
유아	1.3	4.6	13.9	16.0	7.8	11.3	7.1	37.4	0.6	100.0(984)	151.1(24)**
초등학교학년	2.4	3.3	18.9	19.7	10.2	10.6	6.9	26.7	1.3	100.0(1,175)	
초등학교학년	2.9	6.7	18.6	22.5	8.3	10.1	4.7	23.9	2.3	100.0(1,175)	
2004년 조사											
영아	0.7	7.0	23.7	27.2	10.2	3.5	3.9	21.6	2.2	100.0	(961)
유아	0.8	10.4	24.7	23.3	10.6	4.9	2.3	20.6	2.4	100.0	(1,064)
초등학교	2.1	13.7	27.3	20.9	8.0	4.9	1.9	15.5	5.7	100.0	(1,6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표 IX-2-11〉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용의 적정 정부 부담 비율 의견

단위: %(명)

구 분	~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	모르겠음	전체	X ² (df)
전체	0.7	4.4	14.2	17.1	8.9	12.6	6.9	34.5	0.7	100.0(2,546)	
지역규모별											
대도시	0.6	4.5	15.5	17.0	10.1	12.2	4.9	34.4	0.8	100.0(1,134)	
중소도시	1.0	5.0	14.2	19.8	8.6	12.4	7.5	30.9	0.6	100.0(977)	58.7(16)**
읍·면	0.2	3.0	10.8	11.5	6.2	14.0	10.8	42.8	0.7	100.0(435)	
모취업별											
모취업	1.1	4.9	15.5	17.8	7.9	12.3	6.7	33.6	0.2	100.0(911)	
미취업	0.6	4.1	13.5	17.3	9.7	12.9	6.8	34.1	1.0	100.0(1,573)	32.6(16)**
모부재	-	4.6	12.3	4.7	3.1	9.2	12.3	53.8	-	100.0(65)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	0.8	9.4	7.8	5.5	14.8	10.9	50.8	-	100.0(128)	
100~149만원	1.3	.8	5.9	9.4	9.3	11.4	8.9	51.3	1.7	100.0(236)	
150~199만원	0.5	2.4	10.9	13.2	9.0	13.7	8.5	41.6	0.2	100.0(423)	
200~249만원	0.8	3.4	11.6	15.7	8.7	11.9	7.4	39.4	1.1	100.0(378)	
250~299만원	-	1.6	16.8	18.7	10.1	14.2	6.3	32.3	-	100.0(316)	na
300~349만원	1.2	5.8	15.6	20.6	10.1	12.8	6.7	26.3	0.9	100.0(327)	
350~399만원	-	8.3	16.7	21.2	9.6	11.5	4.5	27.6	0.6	100.0(156)	
400~499만원	0.4	7.8	15.1	22.1	10.6	12.2	7.3	24.5	-	100.0(245)	
500~599만원	2.6	9.7	21.9	21.2	5.8	9.7	3.9	23.9	1.3	100.0(155)	
600만원 이상	1.1	8.7	24.5	23.8	5.4	10.9	2.2	21.2	2.2	100.0(18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IX-2-11>은 영유아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특성별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보육비용 중 91%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중소도시 30.9%, 대도시 34.4%, 읍·면지역은 42.8% 순으로 높아서 농촌에서 정부 부담 인상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정부 부담 인상에 대한 욕구는 거의 차이가 없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91% 이상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다. 소득 150만원 미만은 50% 이상이 91% 이상을 희망하고 150~249만원은 40% 정도가 희망하며 300만원이 되면 20%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표 IX-2-11 참조).

2) 부모의 적정 부담 수준

본 조사에서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및 개인양육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등을 포함하는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월평균 가계 지출 대비 비율로 질문하였다.

<표 IX-2-12> 초등학생 이하 기구의 최연소 아동 연령 구분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적정 비율 의견

단위: %(명)

구분	~5%	6~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	모르겠음	전체	$\chi^2(df)$
전체	27.1	36.8	10.9	11.8	4.0	5.6	1.8	0.9	1.1	100.0(4,895)	
연령구분 1											
영유아	28.1	36.2	10.4	12.5	4.4	5.0	1.6	0.9	0.7	100.0(2,548)	16.4(8)*
초등학생	25.9	37.5	11.4	11.2	3.5	6.2	2.0	0.9	1.4	100.0(2,351)	
연령구분 2											
영아	26.6	37.4	10.2	13.6	4.4	4.7	1.6	0.7	0.8	100.0(1,563)	
유아	30.5	34.3	10.8	10.8	4.6	5.5	1.7	1.1	0.7	100.0(986)	39.8(24)*
초등저학년	26.9	38.7	10.7	10.8	2.7	5.9	2.0	1.2	1.1	100.0(1,174)	
초등고학년	25.0	36.2	12.0	11.6	4.3	6.5	2.1	0.6	1.7	100.0(1,176)	
2004년조사											
영아	19.3	34.8	13.3	17.6	3.5	6.3	1.1	2.4	1.7	100.0(961)	
유아	23.7	37.7	12.2	12.4	4.7	4.7	1.5	1.4	1.7	100.0(1,062)	
초등학생	21.5	38.4	11.8	13.6	3.1	4.9	1.0	2.3	3.4	100.0(1,630)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의미함.

조사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27.1%가 5% 이하, 36.8%가 6~10% 이하를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응답하였고, 10.9%는 월 평균 가계지출의 11~15% 이

하, 11.8%는 월 평균 가계지출의 16~20% 이하로 응답하여서, 응답가구의 87.4%가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용의 적정수준을 월평균 가계 지출의 20% 이하로 생각하였다(표 IX-2-12 참조). 이러한 응답은 2004년 유아 가구와 비교해 보면 5% 미만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영유아 가구를 특성별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별로는 양육비용의 적정수준을 월평균 가계 지출의 10%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비하여 읍·면지역이 다소 높은 경향이며, 현재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모부재인 경우에는 71.9%가 1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표 IX-2-13 참조).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의 적정수준이 월평균 가계지출의 1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6~10%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다.

〈표 IX-2-13〉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서비스 이용 비용의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적정 비율 의견

단위: %(명)

구 분	~5	6~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	모르겠음	전체	X ² (df)
전체	28.1	36.3	10.5	12.5	4.4	5.0	1.6	0.9	0.7	100.0(2544)	
지역규모별											
대도시	26.3	37.1	10.1	12.6	4.9	5.7	1.8	1.0	0.5	100.0(1,134)	20.9(16)
중소도시	27.7	37.1	10.3	13.1	4.6	4.1	1.4	0.8	0.7	100.0(976)	
읍·면	34.1	32.3	11.5	10.6	2.8	5.3	1.6	0.7	1.1	100.0(434)	
모취업별											
모취업	25.5	40.5	10.4	11.7	3.0	5.9	2.1	0.5	0.4	100.0(921)	44.9(16)**
미취업	28.9	34.2	10.2	13.0	5.4	4.7	1.5	1.1	1.0	100.0(1,573)	
모부재	46.9	25.0	15.6	9.4	1.6	-	-	-	1.5	100.0(6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0.6	29.7	11.7	7.0	3.1	3.9	0.8	3.2	-	100.0(128)	na
100~149만원	44.7	25.1	6.8	9.8	6.0	6.8	0.4	0.5	-	100.0(235)	
150~199만원	31.8	36.1	9.4	11.6	4.5	2.4	1.7	1.4	1.1	100.0(424)	
200~249만원	26.4	36.9	7.9	16.4	2.6	5.5	2.4	-	1.9	100.0(379)	
250~299만원	28.5	32.3	10.4	15.5	5.7	4.7	1.3	0.9	0.7	100.0(316)	
300~349만원	25.2	37.4	12.5	10.6	4.9	6.7	1.5	0.6	0.6	100.0(329)	
350~399만원	24.0	43.5	9.1	13.6	1.9	3.9	2.6	1.4	-	100.0(154)	
400~499만원	19.6	43.7	13.1	12.2	4.9	3.3	2.0	0.4	0.8	100.0(245)	
500~599만원	18.7	44.5	11.6	12.9	3.9	6.5	0.6	0.6	0.7	100.0(155)	
600만원 이상	20.1	34.8	14.7	10.9	6.5	8.7	2.7	1.1	0.5	100.0(184)	
2004년 조사 (유아가가구)	23.7	37.7	12.2	12.4	4.7	4.7	1.5	1.4	1.6	100.0	(1,06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3.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가. 주요 정책 인지

1)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인지 및 이용

성장·발달이 빠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와 예방적 개입효과가 높은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동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생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사이에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검진과 발달선별검사 그리고 3회의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표 IX-3-1〉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건강검진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잘알고,이용	알고, 미이용	들은적있음	전혀모름	계	(수)	$X^2(df)$
전체	43.1	43.7	5.8	7.4	100.0	(2,514)	
연령구분							
영아	50.1	40.6	3.5	5.9	100.0	(1,561)	105.490(3)**
유아	31.7	48.8	9.4	10.1	100.0	(953)	
지역규모							
대도시	41.3	44.7	5.2	8.8	100.0	(1,124)	15.744(6)*
중소도시	46.3	40.5	6.8	6.4	100.0	(962)	
읍·면	40.8	48.0	5.4	5.8	100.0	(429)	
모 취업여부							
취업	36.9	45.4	7.7	10.0	100.0	(894)	146.345(6)**
미취업	47.8	43.1	4.0	5.1	100.0	(1,557)	
부재	13.8	32.3	24.7	29.2	100.0	(6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9.7	34.9	11.1	14.3	100.0	(126)	58.398(27)**
100~149만원 이하	36.2	47.6	5.3	10.9	100.0	(229)	
150~199만원 이하	44.7	42.8	5.1	7.4	100.0	(418)	
200~249만원 이하	43.1	41.5	8.0	7.4	100.0	(376)	
250~299만원 이하	50.5	42.5	2.2	4.8	100.0	(315)	
300~349만원 이하	43.0	45.2	4.7	7.1	100.0	(323)	
350~399만원 이하	47.7	39.9	6.5	5.9	100.0	(153)	
400~499만원 이하	43.6	44.0	7.5	4.9	100.0	(243)	
500~599만원 이하	44.2	42.9	5.1	7.8	100.0	(154)	
600만원 이상	31.3	53.6	6.7	8.4	100.0	(17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5$ 를 의미하고, **는 $p<.01$ 을 의미함.

이와 같은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에 대해서 영유아 가구의 43.1%는 알고, 이용한 경험이 있고 43.7%는 알고 있으나 이용한 경험은 없으며, 7.4%는 전혀 모르고 5.8%는 들어본 적은 있다고 조사되었다.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에 대해서 이용한 경험은 영아가 50.1%로 유아 31.7%보다 높고, 중소도시 거주자와 미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높다 (표 IX-3-1 참조).

2) 표준보육과정 인지

<표 IX-3-2>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IX-3-2>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 표준보육과정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알고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모름	계	(수)	$X^2(df)$
전체	13.0	22.1	64.9	100.0	(1,155)	
연령구분						
영아	11.4	19.9	68.7	100.0	(638)	8.698(2)*
유아	14.9	24.8	60.3	100.0	(517)	
지역규모						
대도시	14.1	21.6	64.3	100.0	(482)	3.637(4)
중소도시	11.2	21.5	67.3	100.0	(456)	
읍·면	14.7	24.3	61.0	100.0	(218)	
모 취업여부						
취업	35.9	40.8	23.3	100.0	(507)	5.290(4)
미취업	32.3	43.0	24.7	100.0	(610)	
부채	24.4	39.0	36.6	100.0	(4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1	15.1	80.8	100.0	(73)	28.240(18)
100~149만원 이하	12.1	25.0	62.9	100.0	(140)	
150~199만원 이하	13.6	18.8	67.6	100.0	(213)	
200~249만원 이하	13.2	26.3	60.5	100.0	(167)	
250~299만원 이하	16.2	19.1	64.7	100.0	(136)	
300~349만원 이하	11.3	18.8	69.9	100.0	(133)	
350~399만원 이하	12.3	30.1	57.6	100.0	(73)	
400~499만원 이하	21.1	22.1	56.8	100.0	(95)	
500~599만원 이하	12.1	30.3	57.6	100.0	(66)	
600만원 이상	9.5	19.0	71.5	100.0	(6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보육시설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 계획을 편성하고 운영. 연간, 월간, 주간 보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별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표준보육과정에 대하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 64.9%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22.1%는 들어본 적이 있고 13.0%만이 잘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는 자녀 연령별로는 유아가구에서 인지 비율이 높으나 이외 거주지, 모의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별로는 관계없이 인지 수준이 낮다.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자녀의 어머니가 없는 경우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24.4%로 낮고,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와 600만원 이상의 가구가 각각 4.1%와 9.5%로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낮다(표 IX-3-2 참조).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인지

보육시설 이용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보육법」⁶²⁾에 따라 설치한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7개 영역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41.8%는 들어본 적이 있고, 33.6%는 잘 알고 있으며 24.6%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잘 알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 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부모가 보육시설을 평가하고 선택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점

62) 영유아보육법 제30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표 IX-3-3 참조).

〈표 IX-3-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알고있음	들어본 적 있음	전혀모름	계	(수)	X ² (df)
전체	33.6	41.8	24.6	100.0	(1,158)	
연령구분						
영아	33.7	43.1	23.2	100.0	(638)	1.740(2)
유아	33.5	40.2	26.3	100.0	(520)	
지역규모						
대도시	35.1	43.7	21.2	100.0	(482)	5.177(4)
중소도시	32.5	40.5	27.0	100.0	(456)	
읍·면	32.6	40.3	27.1	100.0	(218)	
모 취업여부						
취업	35.9	40.8	23.3	100.0	(507)	5.290(4)
미취업	32.2	43.0	24.8	100.0	(610)	
부재	24.4	39.0	36.6	100.0	(4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7.8	42.5	39.7	100.0	(73)	30.207(18)*
100~149만원 이하	27.3	45.3	27.4	100.0	(139)	
150~199만원 이하	34.6	41.2	24.2	100.0	(211)	
200~249만원 이하	35.3	43.7	21.0	100.0	(167)	
250~299만원 이하	33.3	43.0	23.7	100.0	(135)	
300~349만원 이하	34.1	37.0	28.9	100.0	(135)	
350~399만원 이하	34.7	51.4	13.9	100.0	(72)	
400~499만원 이하	37.9	35.8	26.3	100.0	(95)	
500~599만원 이하	36.4	43.9	19.7	100.0	(66)	
600만원 이상	46.9	34.4	18.7	100.0	(6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4) 양육수당

중앙정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 1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5.6%가 정확하게 알고 13.1%는 대략 알고 있으며, 81.3%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와 초등학생 가구상의 차이는 영유아 가구가 초등학생 가구에 비하여 안다는 비율이 높으며, 유아가구보다는 영아 가

구가 안다는 정확히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도 7.4%에 불과하다(표 IX-3-4 참조).

<표 IX-3-5>는 이러한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 양육수당 인지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지역, 모 취업 및 가구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3-4> 초등학생 이하 기구의 아동 연령구분별 양육수당 지급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정확히 앎	대략 앎	잘 모름	전체	$X^2(df)$
전체	5.6	13.1	81.3	100.0(4,898)	
연령구분 1					
영유아	6.6	14.3	79.1	100.0(2,547)	17.4(2)**
초등학생	4.6	11.8	83.6	100.0(2,351)	
연령구분 2					
영아	7.4	14.2	78.4	100.0(1,563)	
유아	5.2	14.5	80.3	100.0(984)	24.2(6)**
초등저학년	4.6	11.4	84.0	100.0(1,175)	
초등고학년	4.4	12.3	83.3	100.0(1,1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표 IX-3-5> 영유아 가구 제 특성별 양육수당 지급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정확히 앎	대략 앎	잘 모름	전체	$X^2(df)$
전체	6.6	14.3	79.1	100.0(2,548)	
지역규모별					
대도시	6.7	14.2	79.1	100.0(1135)	
중소도시	7.0	14.6	78.4	100.0(977)	1.3(4)
읍·면	5.5	14.0	80.5	100.0(436)	
모취업별					
모취업	5.9	14.5	79.6	100.0(910)	
미취업	6.9	14.5	78.6	100.0(1,572)	4.5(4)
모부채	6.3	6.3	87.5	100.0(64)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4.7	9.4	85.9	100.0(128)	
100~149만원	5.1	14.5	80.4	100.0(235)	
150~199만원	6.6	15.6	77.8	100.0(424)	
200~249만원	8.7	14.3	77.0	100.0(378)	
250~299만원	6.6	16.5	76.9	100.0(316)	18.6(18)
300~349만원	8.8	14.0	77.2	100.0(329)	
350~399만원	5.8	17.4	76.8	100.0(155)	
400~499만원	6.5	13.5	80.0	100.0(245)	
500~599만원	4.5	11.0	84.5	100.0(155)	
600만원 이상	3.8	13.1	83.1	100.0(183)	

5)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

정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 방과후 아동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시간제 가정보육사업을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비용은 소득계층이 낮은 가정에 지원한다. 본 조사에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12.1%가 정확하게 알고 22.4%는 대략 알고 있으며, 65.5%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가 초등학생 가구보다는 인지율이 높고, 영유아는 영아 가구가 유아 가구보다 인지율이 높다. 영아 가구도 14.7%이다.

영유아 가구의 아이돌보미 사업 인지 정도는 지역, 모 취업 및 가구 소득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이용 경험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⁶³⁾

〈표 IX-3-6〉 초등학생 이하 기구의 아동 연령구분별 아이돌보미 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잘 안다	대략 안다	모른다	전체	X ² (df)
전체	12.1	22.4	65.5	100.0(4,897)	
연령구분 1					
영유아	14.2	25.4	60.4	100.0(2,548)	60.9(2)**
초등학생	9.8	19.2	71.0	100.0(2,351)	
연령구분 2					
영아	14.7	26.3	59.0	100.0(1,564)	
유아	13.3	23.9	62.8	100.0(984)	68.3(6)**
초등저학년	10.1	20.6	69.3	100.0(1,174)	
초등고학년	9.5	17.8	72.7	100.0(1,17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1)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3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비 현금 지원이 18.6%이며, 국·공립기관의 확충이 14.1%, 보육의 다양성 확대

63) 표 제시는 생략함.

12.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10% 미만이나 서비스의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

아동연령구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 가구는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41.4%이고 초등학생 가구는 34.3%로 영유아 가구가 높은 반면에 국공립기관 확충 요구는 초등학생 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표 IX-3-7 참조).

〈표 IX-3-7〉 초등학생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단위: %(명)

구 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유아 교육비 지원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 서비스 질향상	육아 정보·상담 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 직제도 정착·확대	탄력 근무 제실 시	기타	전체	X ² (df)
전체	14.1	38.0	18.6	7.1	0.6	12.8	5.8	2.9	0.1	100.0(4,899)	
연령구분 1											
영유아	12.4	41.4	18.3	6.6	0.5	12.5	5.6	2.6	0.2	100.0(2,547)	32.7(8)**
초등학생	15.9	34.3	18.9	7.6	0.7	13.2	5.9	3.4	0.1	100.0(2,350)	
연령구분 2											
영아	12.3	40.9	18.9	6.3	0.5	12.1	6.3	2.6	0.1	100.0(1,562)	
유아	12.6	42.2	17.3	7.1	0.5	13.0	4.5	2.5	0.3	100.0(984)	50.1(24)**
초등저학년	14.6	36.2	19.6	7.9	0.8	12.1	5.3	3.4	0.1	100.0(1,175)	
초등고학년	17.1	32.5	18.2	7.3	0.6	14.3	6.6	3.2	0.2	100.0(1,174)	
2004년 조사	18.7	44.8		3.7	0.9	15.5	8.1	na	8.3	100.0(4,899)	

주: 2004년 조사에 기타에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 10.3%가 포함됨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004년 조사에서는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과 현금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비용지원으로 포함하였는데 44.8%가 이를 선호하였다. 공립시설 설치 비율은 2004년에 비하여 2009년 18.7%에서 14.1%로 낮아졌다.

영유아 가구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지역적으로는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서비스의 다양성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으로 높고, 보육료·교육비 및 현금수당 지원 요구는 읍·면에서 높다. 취업모는 보육서비스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비율이 미취업모보다 높다. 가구 소득수준은 낮을수록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크다(표 IX-3-8 참조).

〈표 IX-3-8〉 영유아 가구가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

단위: %(명)

구 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 유아 교육비 지원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기관 서비스 질향상	육아 정보·상담 제공	보육의 다양성 확대	육아휴 직제도 정착 확대	탄력 근무제 실시	기타	전체	X ² (df)
전체	12.4	41.4	18.2	6.6	0.5	12.5	5.6	2.6	0.2	100.0(2548)	
지역규모별											
대도시	12.2	39.2	16.3	9.0	0.6	13.8	5.7	2.8	0.4	100.0(1,139)	
중소도시	13.4	42.8	18.1	5.3	0.6	11.8	5.8	2.0	0.2	100.0(978)	42.0(16)**
읍·면	10.6	43.8	23.7	3.5	0.2	10.6	4.6	3.0	-	100.0(434)	
모취업별											
모취업	11.3	37.7	15.4	7.0	0.8	16.1	7.7	3.6	0.4	100.0(911)	na
미취업	13.0	43.4	19.4	6.6	0.4	10.6	4.5	2.0	0.1	100.0(1,572)	
모부재	13.6	43.9	31.8	3.0	-	6.1	-	1.6	-	100.0(66)	
소득계층별											
~99만원	7.0	43.0	31.3	3.1	0.8	11.7	1.6	1.5	-	100.0(128)	
100~149	6.0	44.7	30.6	5.1	0.4	8.1	3.8	1.3	-	100.0(235)	
150~199	10.8	46.9	21.0	3.5	0.2	11.1	4.0	2.5	-	100.0(424)	
200~249	12.4	43.0	18.2	8.4	0.5	11.1	5.5	0.9	-	100.0(379)	
250~299	11.4	45.6	17.1	7.0	-	13.3	4.1	1.6	-	100.0(316)	na
300~349	12.5	40.9	14.9	8.5	1.2	14.0	6.1	1.3	0.6	100.0(328)	
350~399	17.4	43.9	9.0	6.5	0.6	13.5	5.8	3.3	-	100.0(155)	
400~499	11.5	36.5	17.2	6.6	0.8	13.1	7.8	6.1	0.4	100.0(244)	
500~599	18.1	30.3	12.3	9.0	-	16.8	9.0	4.5	-	100.0(155)	
600만원~	21.3	26.2	10.4	9.8	1.1	14.8	9.8	6.1	0.5	100.0(18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하고, na는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국·공립, 법인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의 보육료 기준이 되고 있고,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은 각 시·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료 기준 제시 제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러한 상한선을 없애고 각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IX-3-9〉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이하 아동가구의 60.6%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료 완전 자율화를 선호한 비율은 5.5%이었다. 보육료의 자율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육료의 자

올화가 곧 보육료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영유아 가구와 초등학생 가구상의 차이가 없는데, 영유아 가구가 정부가 정해주는 것을 바라는 비율이 더 높다. 영아와 유아 가구의 차이는 거의 없다.

200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들의 의식이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자율화 찬성 비율은 15%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IX-3-9 참조).

〈표 IX-3-9〉 초등학생 이하 가구의 최연소 아동연령구분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정부가 정해야 함	정부가 상한선 제시 필요	보육료 완전 자율화 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X ² (df)
전체	30.3	60.6	5.5	3.6	100.0(4,897)	
연령구분 1						
영유아	32.5	58.6	5.8	3.1	100.0(2,548)	19.6(3)**
초등학생	27.8	62.7	5.1	4.4	100.0(2,351)	
연령구분 2						
영아	31.9	58.5	6.2	3.4	100.0(1,563)	
유아	33.5	58.8	5.2	2.5	100.0(983)	30.2(9)**
초등저학년	28.4	63.3	5.1	3.2	100.0(1,174)	
초등고학년	27.1	62.2	5.2	5.5	100.0(1,175)	
2004년 조사						
영아	31.6	50.7	15.7	2.0	100.0(961)	
유아	32.2	50.3	14.3	3.2	100.0(1,062)	
초등학생	27.3	51.8	15.6	5.3	100.0(1,62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다음 <표 IX-3-10>은 영유아 가구의 제 특성별로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정책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에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읍·면은 정부가 정해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차이도 거의 없으나 취업모가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미취업모는 정부가 정해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간씩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 비율은 높아지고 정부가 정해주는 방안 찬성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완전 자율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최고 8%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X-3-10〉 영유아 가구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정부가 정해야 함	정부가 상한선 제시 필요	보육료 완전 자율화 필요	잘 모르겠음	전체	$\chi^2(df)$
전체	32.5	58.6	5.8	3.1	100.0(2,548)	
지역규모별						
대도시	31.8	59.6	5.7	2.9	100.0(1,135)	2.2(6)
중소도시	32.2	58.9	5.8	3.1	100.0(977)	
읍·면	35.1	55.5	6.2	3.2	100.0(436)	
모취업별						
모취업	30.1	60.2	6.3	3.4	100.0(910)	5.1(6)
미취업	34.0	57.6	5.7	2.7	100.0(1,572)	
모부재	32.3	61.5	4.6	1.6	100.0(65)	
소득계층별						
99만원 이하	37.0	55.1	4.7	3.1	100.0(128)	50.9(27)**
100~149만원	36.2	53.6	4.7	5.5	100.0(235)	
150~199만원	32.6	56.3	8.0	3.1	100.0(423)	
200~249만원	37.6	55.6	4.2	2.6	100.0(378)	
250~299만원	35.6	55.2	7.3	1.9	100.0(317)	
300~349만원	30.1	61.4	4.0	4.5	100.0(329)	
350~399만원	35.5	58.7	4.5	1.3	100.0(155)	
400~499만원	26.8	65.4	6.1	1.7	100.0(246)	
500~599만원	25.2	67.1	7.1	0.6	100.0(154)	
600만원 이상	24.5	64.1	6.5	4.9	100.0(18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3) 운영위원회 참여

본 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보호자에 대하여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질문하고 참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표 IX-3-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보육시설의 21.1%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25.8%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는 부모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인 동시에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기관 운영과 관련된 물리적, 인적 환경의 질 제고와 관리를 위한 제도이자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53.1%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의 42.1%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직장보육시설의 34.6%에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7.9%에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X-3-11

참조).

〈표 IX-3-1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있다	42.1	32.5	24.0	15.2	7.9	34.6	50.0	21.1
없다	18.2	21.4	13.0	27.3	40.2	15.4	50.0	25.8
모름	39.7	46.1	63.0	57.5	52.0	50.0	-	5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7)	(54)	(802)	(127)	(26)	(4)	(1344)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운영위원회의 설치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에게 질문하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실제 설치·운영되고 있는 비율보다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40인 이상 보육시설만 의무이기 때문에 전체 응답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 자녀 부모의 40.1%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운영주체별로 차이가 나지만, 참여할 의향은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제외하고 32.1%에서 42.7% 사이로 참여 의향이 있다(표 IX-3-12 참조).

〈표 IX-3-12〉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전체
있다	38.3	42.7	32.1	40.4	42.5	42.3	25.0	40.1
없다	55.6	44.4	60.4	49.0	50.4	50.0	75.0	50.3
모름	6.1	12.9	7.5	10.6	7.1	7.7	-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4)	(117)	(53)	(802)	(127)	(26)	(4)	(1343)

주: 빈도수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운영위원회 참여의향은 지역별로는 도시보다 읍·면의 참여의향이 높고,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IX-3-13 참조).

〈표 IX-3-13〉 제특성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모름	계	수	X ² (df)
전체	40.2	50.3	9.5	100.0	(1,342)	
지역						
대도시	36.2	53.8	10.0	100.0	(492)	21.155(4)**
중소도시	39.7	48.8	11.5	100.0	(602)	
읍·면	49.6	46.8	3.6	100.0	(248)	
모취업						
취업	36.6	55.1	8.3	100.0	(577)	18.327(4)**
미취업	44.3	45.6	10.1	100.0	(716)	
모부재	23.5	60.8	15.7	100.0	(5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4) 보육시설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의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조금 허위 신청 또는 유용, 보육료, 종사자 및 회계 관련사항 뿐만 아니라 건강안전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X-3-14〉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의향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	(수)	X ² (df)
전체	42.0	48.8	9.2	100.0	(1,159)	
연령구분						
영아	45.5	46.2	8.3	100.0	(520)	7.508(2)*
유아	41.6	48.6	9.8	100.0	(639)	
지역규모						
대도시	39.6	51.5	8.9	100.0	(482)	10.170(4)*
중소도시	42.7	45.7	11.6	100.0	(457)	
읍·면	46.1	48.9	5.0	100.0	(219)	
모 취업여부						
취업	38.8	53.5	7.7	100.0	(508)	21.740(4)**
미취업	46.3	43.4	10.3	100.0	(611)	
부재	17.9	71.8	10.3	100.0	(3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7.4	56.2	16.4	100.0	(73)	35.842(18)**
100~149만원 이하	36.7	50.4	12.9	100.0	(139)	
150~199만원 이하	43.2	50.2	6.6	100.0	(213)	
200~249만원 이하	42.9	51.1	6.0	100.0	(168)	
250~299만원 이하	54.1	39.2	6.7	100.0	(135)	
300~349만원 이하	44.0	45.6	10.4	100.0	(134)	
350~399만원 이하	50.0	44.4	5.6	100.0	(72)	
400~499만원 이하	42.1	43.2	14.7	100.0	(95)	
500~599만원 이하	31.8	56.1	12.1	100.0	(66)	
600만원 이상	35.9	57.8	6.3	100.0	(6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하고, **는 $p < .01$ 을 의미함.

지금까지 일부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시 건강안전관련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에 부모를 참여시켜 왔다. 본 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부모에게 이와 같은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42.0%의 부모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참여 의향은 거주 지역의 규모와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읍·면 지역과 미취업 부모의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중간 수준의 가구 소득계층 부모의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99만원 이하 소득층은 27.4%의 의향을 보였으나 250~299만원 이하 소득층은 54.1%의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표 IX-3-14 참조).

5) 보육시설 여름 방학 운영에 대한 의견

현재 보육시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연중 운영은 취업 부모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근무 조건의 어려움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표 IX-3-15〉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보육시설 여름 방학 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반대	찬성	잘 모름	계	(수)	$\chi^2(df)$
전체	38.5	58.2	3.3	100.0	(1,158)	
연령구분						
영아	42.5	55.0	2.5	100.0	(638)	10.863(2)**
유아	33.7	62.1	4.2	100.0	(520)	
지역규모						
대도시	38.6	57.7	3.7	100.0	(482)	14.016(4)**
중소도시	41.5	54.4	4.1	100.0	(458)	
읍·면	32.4	67.1	0.5	100.0	(219)	
모 취업여부						
취업	44.9	51.4	3.7	100.0	(508)	17.729(4)**
미취업	33.4	63.7	2.9	100.0	(611)	
부재	35.0	60.0	5.0	100.0	(4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37.0	57.5	5.5	100.0	(73)	11.994(18)
100~149만원 이하	38.8	56.8	4.4	100.0	(139)	
150~199만원 이하	34.4	63.2	2.4	100.0	(212)	
200~249만원 이하	41.7	54.8	3.5	100.0	(168)	
250~299만원 이하	38.2	58.8	3.0	100.0	(136)	
300~349만원 이하	41.8	55.2	3.0	100.0	(134)	
350~399만원 이하	38.9	59.7	1.4	100.0	(72)	
400~499만원 이하	34.7	58.9	6.3	100.0	(95)	
500~599만원 이하	45.5	53.0	1.5	100.0	(66)	
600만원 이상	35.9	62.5	1.6	100.0	(6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1$ 을 의미함.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호자가 보육시설에서 여름 휴가기간에 5일 정도의 방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IX-3-15>에서와 같이 58.2%가 찬성하고 38.5%가 반대하였다. 여름 방학 운영에 대하여 영아보다는 유아의 부모가, 도시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보육시설의 방학에 민감한 집단으로 예상되는 취업모의 경우에도 미취업모 63.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51.4%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44.9%가 반대하였다. 찬성비율이 높으나 정책적으로는 반대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및 보호자의 의견 요약 및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충분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질 높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4년 대비 감소하여서 정책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그러나 아직 영유아 가구의 36.7%는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20.7%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은 44.4%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며 21.5%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모들은 다수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용 아동 연령, 모의 취업특성, 비용, 프로그램, 교사 면에서 다수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항목별 차이는 있지만 약간 있다는 응답이 다수이고, 차이가 있다는 응답과 많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 없다는 응답보다는 많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아동연령 19.6%, 이용하는 아동 모의 취업 특성 31.5%, 이용 비용 15.6%, 교사 27.7%이다.

셋째,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혜자의 경우, 경제적 지원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가구 중에서 소득계층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은 8.0% 정도이지만,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28~40% 수준이고, 장애아 무상보육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장애아 보육 지원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의 수혜자인 경우 영아 기본보조금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넷째, 국민들의 양육비용 지원 요구 및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 영유아의 경우 보육비용을 정부가 90% 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 내외에서 30% 수준으로 10%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고, 반면에 40~60%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는 과반수이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관 및 개인양육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등을 포함하는 양육지원서비스 비용의 월 평균 가계 지출 대비 적정 비율은 64.4%가 10% 이하이고 20% 이하가 응답가구의 87.4%이다. 이러한 응답은 2004년 유아 가구와 비교해 보면 5% 미만 비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비용 지원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지출은 자녀의 보육·교육 몫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섯째, 육아지원정책 중 가장 바라는 바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가구의 41.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양육비 현금 지원 18.3%이며, 국공립시설 확충은 12.4%이다. 2004년 조사결과와 대비하여 차이는 국공립시설 확충은 영유아 가구 17.8%에서 12.4%로 감소하였다.

여섯째,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응답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이하 아동가구의 60.6%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를 선호한 비율은 5.5%이었다. 200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들의 의식이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50% 수준에서 60% 수준을 증가하고 자율화 찬성 비율은 15%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일곱째,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는 비교적 낮다. 영유아 가구는 건강검진제도에 대하여 43.1%가 잘 안다고 하였고, 표준보육과정은 시설이용자의 64.9%가 전혀 모르며,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 이용 부모도 33.6%는 잘 알지만 24.6%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 안다는 비율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설의 참여가 곧 홍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한편, 양육수당제도도 초등학교 이하 아동 가구의 81.3%가 전혀 모르며, 아이돌보미는 65.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42.0%는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의사가 있으며, 38.5%는 보육시설 방학에 반대하였다.

X. 수요 추정

제10장에서는 보육·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추계하였다. 제1절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희망률을 파악하고 연령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육수요를 추정하였고, 제2절에서는 유치원 이용희망률에 기초하여 유아교육을 연령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하였다.

1. 보육시설 이용 수요

가. 보육시설 이용 희망

가구조사 결과로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여러 가지로 추정하였다. 제4장 5절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의사와 이용희망 시기를 제시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이용희망률을 1년내 이용희망률, 동일연령이용희망률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1년내 이용희망률은 그 이용시기가 1년 이내인 경우의 비율이며, 동일연령비율은 이용하겠다는 시기가 현재 연령과 동일한 아동 비율을 의미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의 이용희망 시작 월령을 산출하고 이를 다시 연령으로 환산하여 현재 연령과 동일 연령인 경우만을 특정 연령의 보육 추가수요로 파악하였다.⁶⁴⁾

따라서 동일한 연령에서 보육시설을 새로이 이용할 확률은 0세아 3.4%, 1세아 5.6%, 2세아 3.6%가 된다. 이 비율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비율 0세아 3.1%, 1세아 5.7%, 2세아 19.8%와 비교하여 0, 1세는 유사하지만 2세는 크게 낮아졌다. 유아의 경우도 동일연령 이용 비율이 만 3세아 1.2%, 만 4세아 0.6%, 만 5세아 0%인데, 이는 2004년 만 3세아 14.5%, 만 4세아 5.4%, 만 5세아 0.4%에 비하여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으며, 4세아도 많이 낮아졌다(표 X-1-1 참조).

지역별로는 0, 1세아는 도시에서 비율이 조금 높고 2세아는 읍·면이 도시보다 높다. 유아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읍·면보다는 도시의 비율이 높다(표 X-1-2 참조).

64) 이러한 이용월령 산출은 보육시설 이용을 최대한 경향이 있으므로 과소보다는 과대 추계 가능성이 있음.

〈표 X-1-1〉 보육시설 새로 다닐 시점 분포

단위: %(명)

시기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전체							
0세	3.4	-	-	-	-	-	0.6
1세	16.3	5.6	-	-	-	-	3.7
2세	31.8	29.0	3.6	-	-	-	11.1
3세	19.9	15.8	14.9	1.2	-	-	8.8
4세	4.5	3.7	3.2	2.9	0.6	-	2.5
5세	0.6	-	0.6	0.6	0.6	-	0.4
현재 다닐	8.0	30.6	62.3	61.0	50.1	41.2	41.9
안 다니겠음	15.5	15.3	15.4	34.3	48.7	58.8	31.0
계(수)	100.0(573)	100.0(528)	100.0(340)	100.0(317)	100.0(322)	100.0(492)	100.0(2,493)
2004	3.1	5.7	19.5	14.5	5.4	0.4	

〈표 X-1-2〉 지역별 동일연령 및 1년 이내 추가 이용 비율

단위: %(명)

시기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동일연령 추가							
전체	3.4	5.6	3.6	1.2	0.6	-	
대도시	3.8	7.4	3.5	1.5	1.5	-	0.7
중소도시	3.7	5.1	2.2	1.3	-	-	
읍·면	2.8	2.2	5.8	-	-	-	0.4
1년 이내 추가 이용							
전체	7.7	9.0	6.3	1.8	0.8	-	4.2
대도시	9.3	11.3	4.0	2.0	1.5	-	4.9
중소도시	7.5	7.9	5.8	2.2	-	-	4.0
읍·면	2.8	7.6	6.7	-	1.1	-	3.2
2004년 조사							
동일연령 추가	3.1	5.7	19.5	14.5	5.4	0.4	
1년이내 추가	7.8	13.8	29.6	19.6	6.3	0.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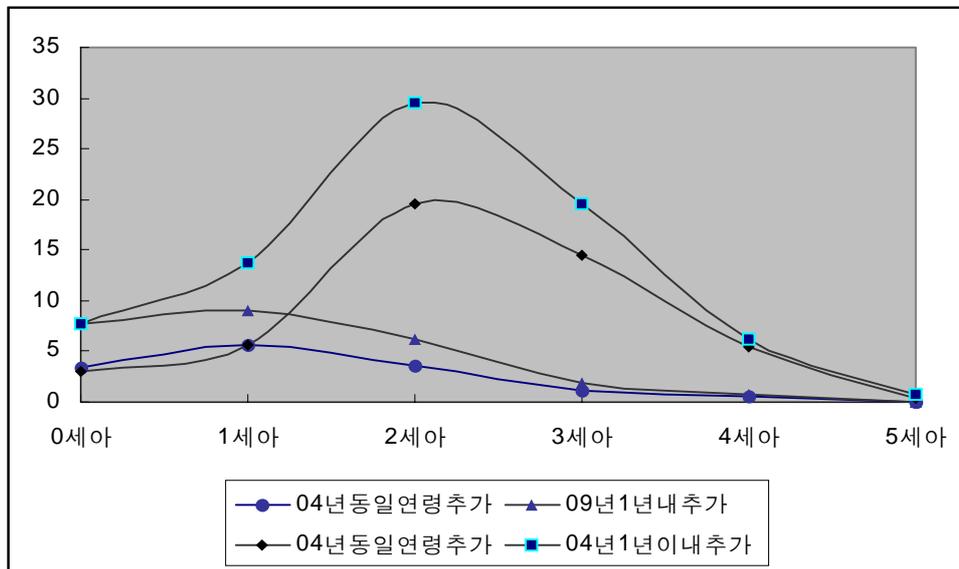
이러한 비율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2004년 93만명에서 2008년 113만명 수준으로 4년간 20만명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였음을 감안한다면 보육의 보편적 이용은 더 이상 중요한 과제는 아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X-1-3〉 지역별 아동구분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소계	3세아	4세아	5세아	소계	
전체									
2009.4이용률 ¹⁾	15.4	34.1	59.7	36.4	55.2	43.2	33.2	43.4	39.9
동일연령이용추가	18.8	39.7	63.3	40.6	56.4	43.8	33.2	44.0	42.3
1년내 이용희망 추가	23.1	43.1	66.0	44.1	57.0	44.0	33.2	44.3	44.1
대도시									
2009.4이용률 ¹⁾	13.2	30.2	54.9	32.7	51.0	38.4	29.5	39.2	36.0
동일연령이용추가	17.0	37.6	58.4	37.7	52.5	39.9	29.5	40.1	38.9
1년내 이용희망 추가	22.5	41.5	58.9	41.0	53.0	39.9	29.5	40.3	40.9
중소도시									
2009.4이용률 ¹⁾	18.0	36.9	62.0	39.0	55.6	43.9	33.5	43.9	41.4
동일연령이용추가	21.7	42.0	64.2	42.7	56.9	43.9	33.5	44.3	43.5
1년내 이용희망 추가	25.5	44.8	67.8	46.0	57.8	43.9	33.5	44.6	45.4
읍·면									
2009.4이용률 ¹⁾	14.8	37.7	67.0	39.8	65.5	54.4	42.5	53.7	46.8
동일연령이용추가	17.6	39.9	72.8	43.4	65.5	54.4	42.5	53.7	48.5
1년내 이용희망 추가	17.6	45.3	73.7	45.6	65.5	55.5	42.5	54.0	50.0

주: 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2009년 6월 표준보육행정시스템 보육통계로 산출



[그림 X-1-1] 보육시설 추가이용 희망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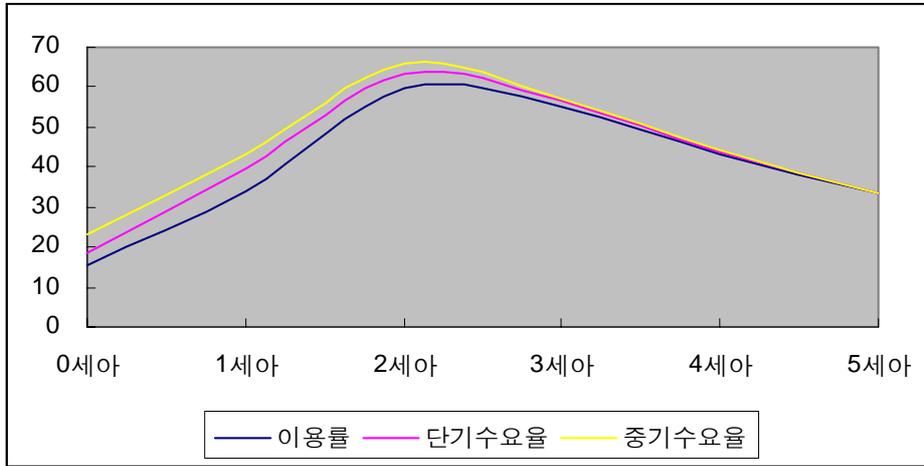
나. 수요 규모 추정

본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수요자의 두 가지 유형의 보육이용희망률에 기초하여 영유아 보육수요 규모를 추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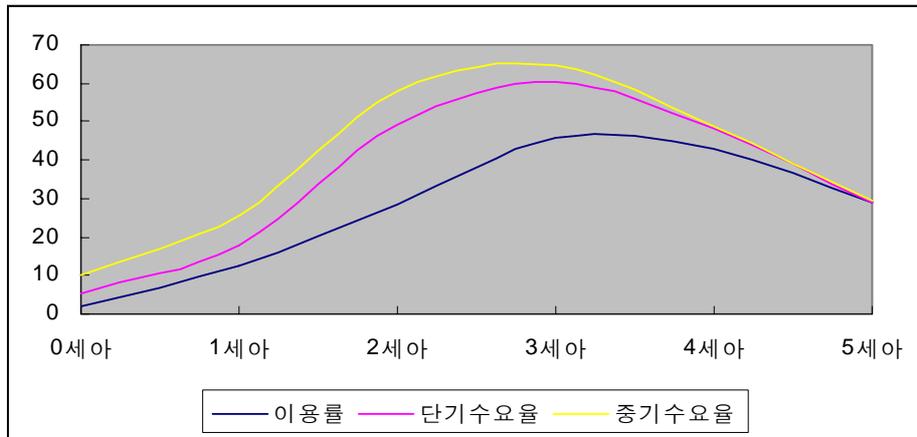
과거 보육수요 추계 방식을 보면 초기에는 대리적 관점에서 취업모 중심의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만을 보육수요로 고려하였으나(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금진호, 1996; 홍문식 외, 1994),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육시설을 계속 또는 새로 이용할 것느냐는 하나의 질문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할겠다는 비율을 보육수요로 간주하였고(홍문식 외, 1994; 정경희·김유경 1997; 김승권 외, 2001), 2000년 이후는 여기에 추가 이용시기를 질문하여 보육수요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서문희 외, 2002). 2004년 추계의 경우는 보편적 수요에 근거하였다. 취업모만을 고려하는 것은 잠재적 취업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또한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영아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유아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수요에 근거하였다. 즉, 이용희망률에 보호자의 취업, 사회활동, 육아부담 완화 등 보호자의 각종 욕구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요인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보호자의 기관 이용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추계의 의미를 세분화하였다. 2004년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단기 및 중기 보육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은 실제 보육이용률 증가치에 근접하였다.

본 추계는 이와 같은 2004년 추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구조사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겠다는 비율을 이용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단, 중기 수요율로 추정하였다. 현재 연령과 동일 연령인 경우의 비율을 추정한 동일연령이용률은 단기적인 보육 추가수요로 간주하고자 하였고, 1년 이내 추가 이용비율을 중기적 추가 수요로 보는 것이다. 중기적 추가수요는 잠재수요가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전자는 잠재수요를 최소화한 것이다. 현재 이용률에 이러한 추가 이용 비율을 합하면 수요율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수요율은 [그림 X-1-2]와 같은데, 2004년과 비교하여 2009년의 특성은 단기와 중기 수요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3세 이상 아 보육시설의 수요율은 단기와 중기 물론 이용률과의 차이도 크지 않다. 단기와 중기수요율의 차이가 적다는 것은 추가이용 희망자의 이용 욕구가 현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용률과의 차이가 적다는 것은 요구가 대부분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X-1-2] 2009년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정수요율



[그림 X-1-3] 2004년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정수요율

<표 X-1-4>는 2008년 12월 주민등록 각 세별 추계인구를 적용하여 보육 추가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보육 추가수요는 2009년 현재 영아는 106,476명, 유아는 11,201명으로 모두 116,885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X-1-4〉 연령별 아동구분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단위: 명(%)

구분	인구수 (A)	이용률 (B)	추가희망 이용률(C)	보육수요율 (D=B+C)	보육 충족률 (B/D×100)	추가수요 (A×C/100)
영아						
0세아	444,421	15.4	7.7	23.1	66.6	34,220
1세아	491,498	34.1	9.0	43.1	79.1	44,235
2세아	446,884	59.7	6.3	66.0	90.5	28,154
소계	1,382,803	36.4	7.7	44.1	82.5	106,476
유아						
3세아	434,320	55.2	1.8	57.0	96.8	7,818
4세아	472,935	43.2	0.8	44.0	98.2	3,783
5세아	492,914	33.2	-	33.2	100.0	-
소계	1,400,169	43.4	0.8	44.2	98.2	11,201
전체	2,782,972	39.9	4.2	44.1	90.5	116,885

주: 각 연령별 추가수요를 합한 추가수요 소계와 영아와 유아의 추가수요 추정치는 다를 수 있음.

〈표 X-1-5〉 지역별 아동구분별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A)	이용률 (B)	추가희망 이용률(C)	수요율 (D=B+C)	충족률 (B/D×100)	추가수요 (A×C/100)
영아						
대도시	607,051	32.7	8.3	41.0	79.8	50,373
중소도시	547,590	39.0	7.1	46.0	84.6	38,839
읍·면	228,162	39.8	5.8	45.6	87.3	13,157
계	1,382,803	36.4	7.7	44.1	82.5	106,609
0세아						
대도시	195,101	13.2	9.3	22.5	58.6	18,144
중소도시	175,991	18.0	7.5	25.5	70.6	13,199
읍·면	73,329	14.8	2.8	17.6	84.1	2,053
1세아						
대도시	215,768	30.2	11.3	41.5	72.8	24,382
중소도시	194,633	36.9	7.9	44.8	82.4	15,376
읍·면	81,097	37.7	7.6	45.3	83.2	6,163
2세아						
대도시	196,182	54.9	4	58.9	93.2	7,847
중소도시	176,966	62.0	5.8	67.8	91.4	10,264
읍·면	73,736	67.0	6.7	73.7	90.9	4,940

〈표 X-1-6〉 지역별 아동구분별 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A)	이용률 (B)	추가희망 이용률 (C)	수요율 (D=B+C)	충족률 (B/D×100)	추가수요 (A×C/100)
유아						
대도시	614,674	39.2	1.1	40.3	97.2	6,928
중소도시	554,467	43.9	0.7	44.6	98.5	3,784
읍·면	231,028	53.7	0.4	54.0	99.3	858
계	1,400,169	43.4	0.8	44.3	98.0	11,201
3세아						
대도시	190,666	51.0	2	53.0	96.2	3,813
중소도시	171,991	55.6	2.2	57.8	96.2	3,784
읍·면	71,663	65.5	-	65.5	100.0	-
4세아						
대도시	215,768	38.4	1.5	39.9	96.2	3,237
중소도시	194,633	43.9	-	43.9	100.0	-
읍·면	81,097	54.4	1.1	55.5	98.0	892
5세아						
대도시	196,182	29.5	-	29.5	100.0	-
중소도시	176,966	33.5	-	33.5	100.0	-
읍·면	73,736	42.5	-	42.5	100.0	-

2. 유치원 이용 수요

가. 유치원 이용 희망

유치원 이용희망률 역시 보육시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치원 이용 의사를 묻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유치원 이용희망률을 1년내 이용희망률과 동일연령이용희망률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동일연령 희망률은 현재 월령과 조사 응답에서 나타난 이용희망 시작 월령을 비교하여, 이들이 동일 연령인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⁶⁵⁾ 그 결과 동일연령 추가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X-2-1 참조).

65) 이러한 이용월령 산출은 유치원 이용을 최대화한 경향이 있으므로 과소보다는 과대 추계 가능성이 있음.

〈표 X-2-1〉 유치원 추가 이용희망 연령(1월 1일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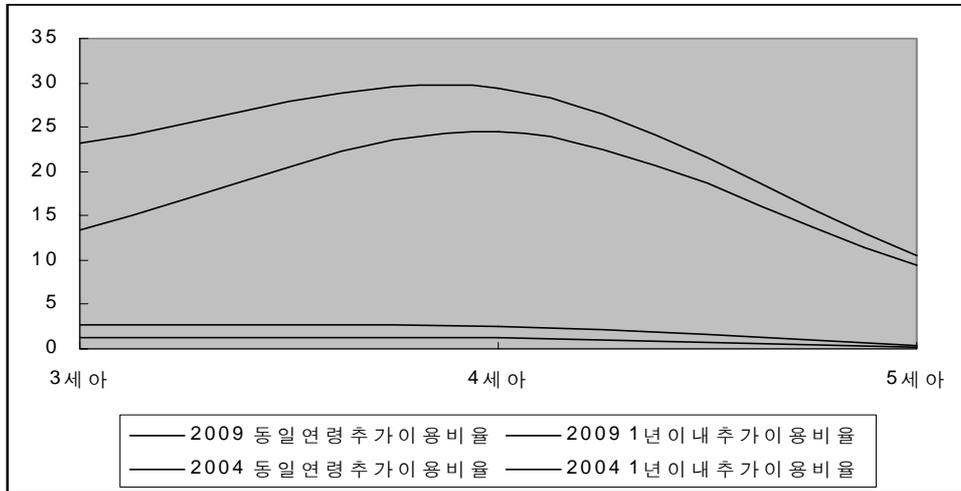
시기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전체							
0세	-	-	-	-	-	-	
1세	0.2	0.2	-	-	-	-	0.1
2세	2.2	3.6	-	-	-	-	1.0
3세	15.5	14.9	18.0	1.2	-	-	8.4
4세	41.9	36.7	31.3	22.5	1.2	-	22.6
5세	28.2	26.9	18.2	18.8	21.3	0.2	19.0
현재 다님	0.2		1.5	22.9	40.2	52.1	19.1
안 다니겠음	10.5	17.6	30.0	33.3	36.1	47.6	28.9
계	(573)	(538)	(340)	(317)	(322)	(492)	(2,493)

〈표 X-2-2〉는 이러한 동일연령 이용률을 포함한 유치원 이용희망률을 현재 이용률과 함께 제시하고,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유아교육 추가 이용희망률은 동일연령 0.9%, 1년 이내 1.8%로 매우 낮다. 2004년은 1년내 이용희망률 18.9%, 동일연령이용희망률 14.4%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이다.

〈표 X-2-2〉 지역별 동일연령 및 1년 이내 추가 이용 비율

단위: %

시기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동일연령 추가				
전체	1.2	1.2	0.2	0.9
대도시	2.6	1.5	-	1.4
중소도시	-	1.3	0.4	0.6
읍·면	1.1	1.1	-	0.7
1년 이내 추가 이용				
전체	2.7	2.6	0.4	1.8
대도시	6.1	2.5	-	2.8
중소도시	0.4	3.1	0.4	1.1
읍·면	1.1	1.1	1.1	1.1
2004년 조사				
동일연령 추가	13.4	24.4	9.5	14.4
1년 이내 추가	23.2	29.3	10.5	18.9



[그림 X-2-1] 유치원설 추가이용 희망률 비교

<표 X-2-3> 지역별 아동구분별 영유아 유치원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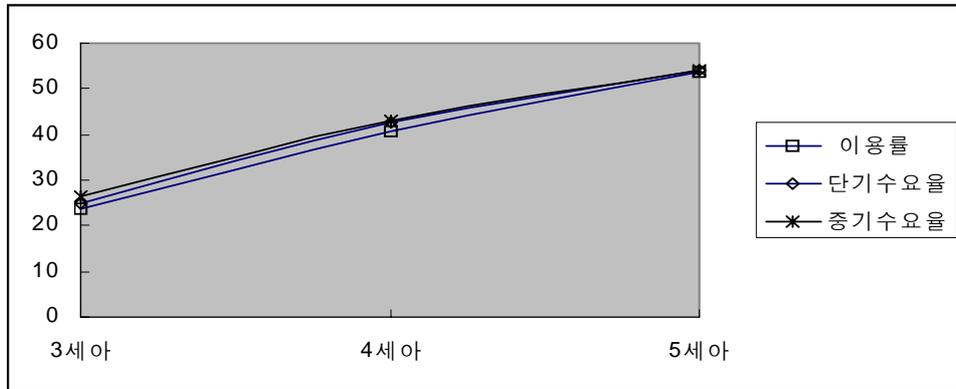
구분	3세아	4세아	5세아	소계
전체				
이용률 ¹⁾	22.9	38.9	51.6	38.4
동일연령 이용희망률	25.6	41.5	52.0	41.2
1년내 이용희망률	25.6	41.5	52.0	40.2
대도시				
이용률 ¹⁾	22.9	40.0	49.7	38.2
동일연령이용희망률	25.5	41.5	49.7	39.6
1년내 이용희망률	29.0	42.5	49.7	41.0
중소도시				
이용률 ¹⁾	22.8	39.0	53.2	39.0
동일연령이용희망률	22.8	40.3	53.6	39.6
1년내 이용희망률	23.2	42.1	53.6	40.1
읍·면				
이용률 ¹⁾	23.1	36.2	52.1	37.5
동일연령이용희망률	24.2	37.3	52.1	38.2
1년내 이용희망률	24.2	37.3	53.2	38.6

주: 1) 2008년 12월 주민등록 인구에 대비, 2008. 9월 유치원 통계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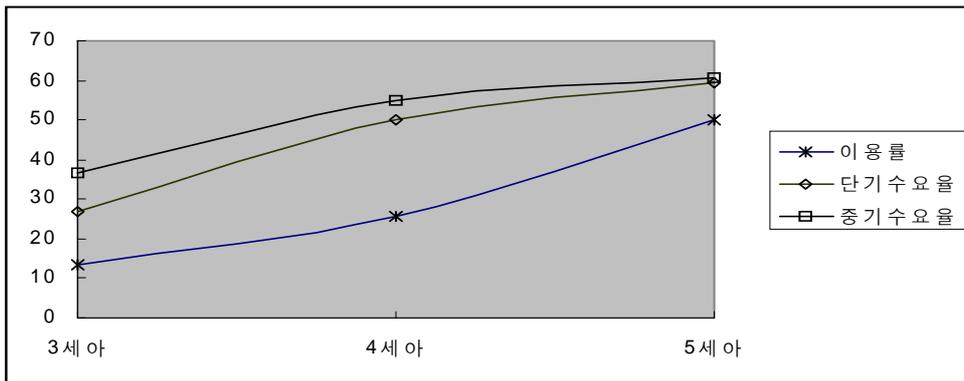
나. 수요 규모 추정

유치원 수요율도 앞에서 논의한 수요자의 두 가지 유형의 이용희망률에 기초하여 규모를 추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산출한 수요율은 [그림 X-2-2]와 같은데, 2004년과 비교하여 2009년의 특성은 이용률, 단기와 중기 수요율의 차이가 보육의 경우보다도 더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유아의 교육기관 이용 요구가 대부분 충족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림 X-2-2] 2009년 유치원 이용률과 수요율



[그림 X-2-3] 2004년 유치원 이용률과 수요율

증기수요율과 2008년 12월 주민등록 각 세별 추계인구를 적용하여 유아교육 추가 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추가수요는 2009년 현재 25,000명 정도가 수요 요구 미충족으로 추정되었다.

〈표 X-2-4〉 연령별 유치원 추가수요 규모

단위: 명, %

구분	인구수1) (A)	이용률 (B)	추가희망 이용률(C)	보육수요율 (D=B+C)	보육 총족률 (B/D×100)	추가수요 (A×C/100)
3세아	434,320	22.9	2.8	25.7	89.1	12,161
4세아	472,935	38.9	1.1	40.0	97.3	5,202
5세아	492,914	51.6	1.1	52.7	97.9	5,422
전체	1,400,169	38.4	1.8	40.2	95.5	25,203

〈표 X-2-5〉 지역 및 연령별 유치원 추가수요 규모

단위: 명, %

구분	인구수2) (A)	이용률3) (B)	추가희망 이용률(C)	수요율 (D=B+C)	총족률 (B/D×100)	추가수요(2004) (A×C/100)
유아						
대도시	589,087	38.2	2.8	41.0	93.2	16,494
중소도시	568,785	39.0	1.1	40.1	97.3	6,257
읍·면	242,297	37.5	1.1	38.6	97.2	2,665
계	1,400,169	38.4	1.8	40.2	95.5	25,203
3세아						
대도시	181,779	22.91	2.5	42.54	53.8	4544
중소도시	175,498	22.81	3.1	42.06	54.2	5440
읍·면	77,043	23.14	1.1	37.33	62.0	847
4세아						
대도시	199,149	40.04	1.5	42.54	94.1	2987
중소도시	192,004	38.96	-	42.06	92.6	-
읍·면	81,782	36.23	1.1	37.33	97.1	900
5세아						
대도시	208,159	49.75	-	49.75	100.0	-
중소도시	201,283	53.63	0.4	53.63	100.0	805
읍·면	83,472	53.16	1.1	53.16	100.0	918

3. 소결

보육수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을 추가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영아는 비교적 높고 유아는 매우 낮다. 보육시설 추가수요는 동일 연령에서 보육시설을 새로이 이용할 확률은 0세아 3.4%, 1세아 5.6%, 2세아 3.6%가 된다. 유아의 경우도 동일연령 이용 비율이 만 3세아 1.2%, 만 4세아 0.6%, 만 5세아 0%이다. 이 비율은 2004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산출된 비율 0세아 3.1%, 1세아 5.7%, 2세아 19.8%와 비교하여 0, 1세는 유사하지만 2세는 크게 낮아졌다. 유아도 2004년 만 3세아 14.5%, 만 4세아 5.4%, 만 5세아 0.4%에 비하여 2009년에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으며, 4세아도 많이 낮아졌다. 1년 이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은 0세아 7.7%, 1세아 9.0%, 2세아 6.3%가 된다. 유아는 3세아 1.8%, 4세아 0.8%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 역시 2004년 결과와 비교하면 만3세아가 크게 낮아졌다.

1년 이내 추가수요와 현재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율을 추정하면 전체 44.1%이다. 이러한 이용희망률과 현재 이용률을 이용하여 이용희망률은 산출하면 전체적으로는 44.1%이고 영아와 유아는 44.1%, 44.3%로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적으로 대도시 40.9%, 중소도시 45.4%, 읍·면 50.0%이다. 미충족 수요 아동수는 2009년 기준으로 영아는 106,476명, 유아는 11,201명으로 모두 116,885명으로 추정되었다.

유아교육 추가 이용희망률은 동일연령 0.9%, 1년 이내 1.8%로 매우 낮다. 이는 2004년은 이용희망률은 1년내 이용희망률 18.9%, 동일연령이용희망률 14.4%와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이다. 1년 이내 추가수요와 현재 이용률을 이용하여 수요율을 추정하면 전체 40.2%이다.

2008년 12월 주민등록 각 세별 추계인구를 적용하여 유아교육 추가이용 아동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 추가수요는 2009년 현재 25,000명 정도가 수요 요구 미충족으로 추정되었다.

XI. 정책제언 및 맺는 말

1. 정책 제언

본 조사는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자녀 보육 및 교육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하고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반 보육·교육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1장에서는 본 조사의 주요 결과가 지니는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각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던 내용을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 연령별 적절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부모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다양화, 비용 지원 확대 및 합리화, 질적 수준의 제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와 환경 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정책홍보 강화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지난 수년간 여성의 보육 등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아직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어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83.9%가 주된 양육자가 아동의 모라고 응답하였고, 취업모의 경우도 81.1%가 아동의 모를 주 양육자라고 응답하여, 모의 취업상태나 아동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양육부담은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 모의 취업률이 아동 연령과 함께 증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야 전체 여성취업률에 버금가는 비율이 된다.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경우 모의 취업률은 29.9%, 유아 44.9%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48.6%, 고학년은 55.0%로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아인 경우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57.8%,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는 30.3%이고, 유아는 각각 52.1%, 23.4%이다. 응답가구 중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6%로 2004년 실태조사에서 취업중단 비율이 38.4%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는데, 그러나 중단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 46.9%로 매우 높았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영유아를 둔 경우 과도한 직장일이 30.9%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20.2%,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21.2%, 근로시간과 보육시간의 불일치가 15.0%이다.

이처럼 여성 취업과 출산이 육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육아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물론 부분적으로 여성 취업과 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아동연령별 적절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아동발달 각 단계별로 부모 이외의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에 대한 의견은 영영아기 및 영유아기에는 조부모,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그리고 취학전에는 유치원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기관이며, 초등학생은 학원으로, 아동 발달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만1세 미만아는 조부모가 66.8%이고 친인척 5.7%, 비혈연 2.7%이다. 기관은 어린이집을 지정한 비율이 8.4%이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시설이나 조부모의 비율이 다소 변화하지만 만1세까지는 유지된다. 만2세가 되면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지정한 비율이 27.2%로 증가하고 조부모 및 부모의 비율은 감소한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되어 만4세가 되면 조부모는 10%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보육시설은 60.6%, 유치원은 25.1%로 증가한다. 취학전 만5세아는 76.3%가 유치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보육시설을 선택한 비율은 18.4%이다. 취학아동은 저학년은 방과후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55.4%, 학원이 34.0%이고 고학년은 그 순위가 바뀌어서 학원을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기관보다 선호한다.

최근 수년간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제도권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아의 경우 기관서비스는 보육시설 33.5%이고, 혈연이 모두 23.6%로 기관 이용률보다 조부모 등 비공식부문 이용자가 많았던 2004년 조사와 비교된다. 그러나 0세아는 여전히 비공식 서비스 이용비율이 높다. 기관 이용이 10% 미만인데 조부모 등 개인은 31% 수준이다. 개인양육서비스는 주된, 또는 보조적인 양육지원 기능을 한다. 영아는 17.1%가 단독이용이고 10.6%는 기관과 병행 이용 아동이며, 유아는 0.8%가 단독 이용 아동이고 22.8%는 기관도 다니는 아동이다.

이러한 연령별 이용기관의 차이는 아동연령별로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지원 기회의 확대도 연령별로 차별성 있게 접근하여야 하며, 영아 대상의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정보육 지원, 육아휴직의 정착 및 확대 등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 부모 특성과 요구에 적절한 지원 정책

부모의 보육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아동 가구의 모의 특성에 따라 기관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어서, 보육정책 수립시 모의 특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모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부모대리 보호가 51.9%인 반면 미취업모는 71.8%가 아동 발달이다. 기관 이용 시간에서도 하루 9시간 이상 이용하는 취업모는 39.7%인 반면 미취업모는 7.2%이며 1일 이용 시간도 취업모 아동이 평균 1시간 11분이 길다. 또한 취업모 가구의 소득 수준은 일반가구보다 높기 때문에 보육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모를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취약보육도 이를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필요도는 2004년도에 비하여 소폭 감소되었으나 시간제 보육 52.8%, 야간보육 34.9%, 휴일보육 23.4%, 24시간 보육 11.4%로 높은 편이고, 유형별 이용의사는 필요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제 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취약보육은 필요성 발생 빈도가 간헐적이어서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원 정책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일정 아동규모별로 보육시설을 취약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정 시설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취약보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기관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어서, 보육정책 수립시 소득계층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구소득수준별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기관 이용은 보육시설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 유치원과 학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다. 개별적 서비스도 비동거 조부모, 비혈연의 이용률이 가구소득과 관련성이 있어서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시설과 동거조부모의 이용비가 각각 40.3%, 11.1%로 비교적 높아서 저소득층이 상대

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초등학생 모두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는 줄어들지만 이 비용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14.1%인데,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구는 가구소득 대비 보육·교육 비용 비율은 23.1%이다.

라. 보육·교육 비용 지원 확대 및 합리화

부모 부담 비용의 두드러진 변화는 반일제이상 학원과 기타 기관들의 비용 상승과 추가비용의 증가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보육료·교육비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의 제도권 이외 기관 이용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감소하고, 그 대신에 영어 등 고가의 고급화된 특별프로그램 중심의 반일제 학원 및 기타 기관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용부담은 유사함을 나타냈다. 기관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3만2천원, 추가비용 6만 5천원으로 총 19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7%로 2004년과 비교하여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8.3%에서 다소 낮아졌다. 액수로는 순 보육료와 교육비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추가 비용은 월 평균 3만원 정도가 늘어났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1인당 총 비용은 순 비용 11만 4천원, 추가비용 5만 4천원으로 총 16만 8천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지출비는 7.4%이다. 추가 비용의 증가로 면제아동의 37.4%, 보육료 감면아동도 66.4%, 비용 미지원 아동의 79.9%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기관 이용자 만족도는 대체로 상승하였고 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역시 상승하였다. 그러나 아직 재정지원 확충 요구가 큼을 나타냈다. 부모의 개선 요구 사항은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특히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이용자가 비용을 지적하였으며, 육아지원정책 중 가장 바라는 바는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확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양육비 현금 지원이다. 유치원 역시 사립유치원 부모가 비용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크다.

정부 지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큰 것은 국민들의 양육비용 지원 요구 및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경우 보육비용을 정부가 90% 넘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004년 20% 내외에서 30% 수준으로 10% 포인트 가량 증가하였고, 반면에 40~60%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는

과반수이었으나 2009년 조사에서는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편 아직도 비용 부담 때문에 기관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양육 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유로는 아이가 어려서 기관 적응에 힘들까 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아의 경우에는 비용부담 때문이 20.0%가 된다. 유아의 비용 부담 비율은 2004년 62.3%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상당수가 비용부담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부모 등 혈연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가구당 아동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큼을 나타냈다.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는 14%인데, 아동수 1명이 10.1%, 2명이 15.6%, 3명 이상 18.3%로, 1명에 비해 2명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녀수를 고려한 비용 지원 방식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보육료 자율화를 선호하는 응답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60.6%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30.3%는 정부가 보육료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보육료를 완전 자율화를 선호한 비율은 5.5%이었다. 200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들의 의식이 보육료 상한선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50% 수준에서 60% 수준을 증가하고 자율화 찬성 비율은 15% 수준에서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마.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보육과 유아교육에서는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조사에서 일반적인 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기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2004년 조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영유아 가구의 20.8%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보육의 확충과 더불어 질적 수준 개선이나 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보육·교육기관 이용 만족도는 2004년 조사에 비해 비용을 제외하고는 제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였는데, 만족도가 가장 증가한 항목은 시설설비 및 실내환경 영역이다. 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부모의 개선 요구 사항은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용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이외에 시설설비와 주변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보육시설의 경우 비용 21.5%, 주변환경 17.0%, 시설 설비 14.4%이다. 특히

국공립과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은 개선 사항으로 주변환경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였다. 유치원 역시 국공립 유치원은 시설설비와 주변환경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접근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 부모는 집과의 거리 30.2%, 주변 평판 15.6%, 프로그램 내용 11.0%, 교사 9.2%, 비용 8.3% 순이다. 유치원 부모는 프로그램 내용이 22.7%로 집과의 거리 21.7%보다 근소한 비율로 높으며, 주변의 평판 17.6%, 비용 14.1%이다. 반일제이상 학원 부모는 프로그램 52.0%로 가장 높고 비용 14.7%, 집과의 거리 10.7%이다. 이처럼 보육·교육기관 유형별로 기관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은 거리, 비용,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평가 등 4가지 요인이 주된 선택 이유인 데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보육시설은 근거리 여부, 유치원 부모는 거리와 프로그램, 반일제이상 학원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를 따져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기관 선택 이유는 기관이 수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특히 아동발달 단계별로 유아기에는 보육시설에 보내고 취학전에는 유치원을 보내며,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 역시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아를 위한 교육내용이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유아 보육기관에서의 서비스 내용이 보다 질적으로 제고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특별활동은 200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 수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특별활동 개수 또한 증가하고, 평균 비용도 증가하여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아동의 비율이 2004년 44.3%에서 2009년 58.5%로 증가하였고, 3개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2004년 5.9%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다. 4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 또한 2004년에는 3.6%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추가비용으로 특기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유아 부모와 읍·면 지역, 취업모 및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의 찬성비율이 높다.

바. 지역 보육수요에 기초한 국·공립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본 조사 결과 유아의 보육수요는 대부분 충족되었고 앞으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지역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서 공급 부족 지역에 국공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국공립시설의 시설설비나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함을 나타냈다.

조사결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경우 국공립에 대한 요구는 과거보다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상당수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선호하는 보육시설 유형은 국공립시설이 38.9%로 2004년 56%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최우선적인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정한 비율은 2004년 17%에서 12% 수준으로 낮아졌다. 보육시설은 아동이 어릴수록 공공보육시설을 선호한다. 유치원에 대한 선호 요구도 유사한 경향이다.

한편 보육시설 운영 주체별 만족도 점수 평균은 부모협동보육시설 4.40점, 직장보육시설 3.98점, 기타법인보육시설 3.93점, 가정보육시설 3.81점, 국공립보육시설 3.73점, 사회복지법인시설 3.71점, 민간보육시설 3.61점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비용면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으나 환경이나 설비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으므로 국공립시설의 설비 투자로 부모의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사.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내실화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은 방과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음을 나타나, 초등학생 부모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균형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을 방과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모 55.1%, 형제자매 11.6% 순으로 높다. 취학아동의 경우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9.9%로 높았다. 방과후 기관 이용은 소득수준과 관계가 깊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과 사설학원 이용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다니는 곳이 없다는 비율은 가구소득과 부적인 상관성을 나타낸다. 방과후 학원 이용률은 평균 68.5% 수준인데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가정 아동의 학원 이용비율은 29.4%이고, 18%의 아동은 다니는 곳이 없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초등학생도 사설학원 이용은 39.5%로 평균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학습지도와 특기·적성교육 때문에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이외에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은 돌봄 사람이 없어서,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위하여, 집의 환경이 열악해서 등도 전체보다 높다. 저소득층 아동이 방과후 보육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학습보충활동과 숙제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안전한 보호와 휴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이들 분야에 프로그램의 개선과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에 방과후 보육 활성화가 요청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고 아이가 거부한다는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낙인감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부모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청된다.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프로그램의 이용은 40.4%에 그친다.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주당 평균 3.18시간을 이용하며 비용은 월 평균 3만 2천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가정은 비용부담으로, 중산층 가정은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 내용, 시간, 비용, 교사수준 등 4개 분야에서 중간보다 약간 넘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가 희망하는 특기·적성 활동은 2004년도에 비해 영어, 수학, 현장체험, 체육, 연극·뮤지컬 등에 욕구가 높아져서, 이들 분야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 정책 홍보 강화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유아 가구 중에서 소득계층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은 8.0% 정도이지만, 영아 기본보조금, 만5세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28~40% 수준이고, 장애아 무상보육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2.1%로 장애아 보육 지원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가구는 건강검진제도에 대하여 43.1%가 잘 안다고 하였고, 표준보육과정은 시설이용자의 64.9%가 전혀 모르며,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 이용 부모도 33.6%는 알지만 24.6%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인증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이를 시설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는 비율은 15.7%가 많은 영향을 주었고, 42.9%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58.6%의 부모만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인증을 잘 안다는 비율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비율과 유사한 수

준으로 시설의 참여가 곧 홍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한편, 양육수당 제도도 81.3%가 전혀 모르며, 아이돌보미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의 65.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용 지원의 경제적 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 지원 수혜자인 경우 영아 기본보조금만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 맺는 말

본 조사는 국가가 보육·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책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의 생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조사는 전국 257개 조사구에서 15,000가구를 대상으로 판별조사를 하여 이 중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는 가구조사와 아동개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특성, 모 취업 등 제 특성과 이들 아동의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기관 및 친인척, 탁아모 등 공식, 비공식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및 비용 현황과 보육·교육 요구 및 수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및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서 분석하여 보육·교육 공급, 보육·교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 현황 등 보육·교육관련 주요 통계를 생산하고, 이들 자료를 기초로 수요를 추정하였다.

보육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 노동력과 활용 필요성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욕구, 인적 자원개발 차원에서의 조기교육의 필요성,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 수준 등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육정책은 빠른 속도로 확대 추진되어 왔고, 본 조사에서도 2004년 조사와 비교하여 이러한 성과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비용지원 재정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타 비용의 증가로 부모의 실제 경제적 부담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고, 비용부담으로 시설 이용을 꺼리는 부모는 여전히 존재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과거보다는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설설비나 환경면에서 과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제한된다는 부모들의 평가는 지속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들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육 및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금진호(1996). 육아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인력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변용찬 외(2006).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창균(2009).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조애저·김유경 외(2005). 2004년도 보육·교육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행동과학연구소(1990).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 홍문식(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록

부록 1. 조사 지역

부록 2. 시·군·구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과 이용률

부록 3. 조사표

부록 1. 조사 지역

〈부표 1-1〉 조사지역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101	013-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102	042-A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103	10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104	033-A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2동
105	10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106	025-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107	036-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2동
108	008-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기1동
110	005-1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2동
111	049-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1동
112	07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113	013-A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115	092-A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116	080-A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17	088-1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1동
118	055-A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19	045-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120	033-A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본동
121	018-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122	061-A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23	085-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124	11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25	098-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126	076-A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127	058-A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7동
129	017-A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30	022-A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131	09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
132	081-A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6.7동
133	129-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34	122-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
135	02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137	11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138	054-A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139	11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동

〈부표 I-1 계속〉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140	026-A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141	04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142	085-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143	01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2동
144	097-A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145	104-A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146	009-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5동
147	054-A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149	079-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2동
150	052-A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1동
151	088-A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동
153	039-A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3동
201	004-A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02	047-1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203	041-A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204	017-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205	027-1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06	084-A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산동
207	077-A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208	011-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210	068-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12	134-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제4동
213	038-1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1동
215	092-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216	102-A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217	014-A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리3동
219	032-A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220	005-1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4동
221	126-A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1	055-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241	052-A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242	128-1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243	141-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2동
244	024-A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245	085-A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2동
246	038-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247	194-A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48	030-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249	045-A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50	037-A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251	069-A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부표 I-1 계속〉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252	07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573	036-A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171	128-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172	012-A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173	045-A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2동
174	282-A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75	013-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176	065-1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177	003-A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3동
178	109-1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
179	100-A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180	119-A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81	016-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182	039-A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183	017-A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동
184	1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191	030-1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92	116-A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193	043-A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194	107-A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95	051-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1동
196	087-A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197	059-A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198	072-A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161	060-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162	039-A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1동
163	084-1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64	055-A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65	060-A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166	084-A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168	032-A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231	202-A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232	043-A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33	069-1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234	128-1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35	057-A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572	008-A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331	027-A	경기도	일산시 서구	일산1동
332	027-1	경기도	일산시 동구	정발산동
333	120-A	경기도	일산시 서구	주엽1동
334	133-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부표 I-1 계속〉

연구원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335	052-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336	013-A	경기도	파주시	금촌1동
337	094-A	경기도	김포시	김포1동
338	052-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339	113-A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340	013-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341	064-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342	065-1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343	097-A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344	053-A	경기도	광명시	하안4동
345	07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346	162-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A
347	05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48	009-A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349	156-A	경기도	시흥시	정왕2동
350	033-1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351	006-A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352	068-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353	016-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354	175-A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355	015-A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356	089-A	경기도	군포시	재궁동
357	096-A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8	060-A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359	027-A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60	09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362	08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63	148-A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364	039-A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366	061-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67	088-A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동
368	133-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369	09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370	010-1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371	062-A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A
372	02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373	01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374	020-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375	013-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376	142-A	경기도	구리시	동구동
377	088-1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부표 I-1 계속〉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378	017-A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379	135-A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1동
380	030-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81	024-A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382	075-A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385	044-A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388	089-1	경기도	성남시 증원구	상대원2동
531	022-A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532	030-A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533	582-A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534	004-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535	016-1	경기도	이천시	율면
536	054-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537	128-A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538	225-A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539	006-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540	027-A	경기도	양주시	남면
301	213-A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02	071-A	강원도	강릉시	강남동
303	117-A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04	053-A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305	015-1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306	050-1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501	019-A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502	010-1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503	016-A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321	070-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3	147-A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미분장동
324	024-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325	043-1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326	038-A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동
327	027-A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
521	006-1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522	027-A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311	041-1	충청남도	공주시	중학동
312	088-A	충청남도	천안시	신용동
313	170-A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3동
314	101-A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6동
511	041-1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512	020-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513	063-A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부표 I-1 계속〉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514	001-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515	019-A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516	004-A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401	105-1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4동
402	055-A	전라북도	완산구	평화2동
403	024-A	전라북도	완산구	효자3동
404	036-A	전라북도	전주시	송천2동
405	093-A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1동
406	054-1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407	070-A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408	013-A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561	013-A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562	015-1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563	022-1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391	053-1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
392	047-A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동
393	002-A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
394	023-A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395	034-A	전라남도	여수시	만덕동
396	013-1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551	143-A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552	006-1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553	004-1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441	174-A	경상북도	경산시	서부1동
442	064-A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원남동
443	135-A	경상북도	구미시	양포동
444	055-A	경상북도	김천시	대곡동
445	001-1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2동
446	160-1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447	06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448	129-A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
591	003-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592	027-A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593	043-A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594	025-1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595	169-1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596	006-A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411	018-A	경상남도	김해시	회현동
412	024-A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413	005-A	경상남도	양산시	삼성동
414	077-A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2동

〈부표 I-1 계속〉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시·도	시·군·구	동·읍·면
416	096-A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417	177-A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418	164-1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동
419	030-A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동
420	043-1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421	014-1	경상남도	사천시	남양동
422	031-1	경상남도	창원시	사파동
581	031-A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582	016-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583	318-A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584	070-A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585	047-A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586	010-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587	015-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588	091-A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A
431	028-1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432	032-1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부록 2. 시·군·구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과 이용률

〈부표 II-1〉 2009년 시·군·구별 아동수 대비 보육시설·유치원 공급률과 이용률

단위: %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전국	55.85	6.91	42.63	34.26	48.42	38.78
서울특별시						
전체	45.31	11.49	36.92	28.83	41.48	31.89
종로구	61.69	26.69	50.30	36.40	56.61	33.90
중구	59.52	31.14	49.18	35.24	59.60	39.43
용산구	37.09	11.12	31.53	22.91	38.11	30.87
성동구	40.60	15.17	33.48	25.27	39.95	31.83
광진구	45.72	9.70	38.66	30.86	40.33	36.99
동대문구	50.27	11.83	39.59	31.02	43.75	34.23
중랑구	51.41	13.04	41.75	31.91	47.05	33.29
성북구	42.31	7.88	34.26	28.83	37.09	36.64
강북구	56.78	10.25	45.34	31.61	53.09	25.99
도봉구	53.59	7.26	41.38	34.83	44.60	33.79
노원구	43.14	9.23	34.58	33.84	32.72	45.40
은평구	50.77	5.04	40.02	31.48	44.25	31.37
서대문구	46.39	10.39	37.17	27.44	40.49	29.28
마포구	34.89	13.02	29.81	21.47	34.65	26.19
양천구	46.26	10.79	36.91	28.39	42.16	35.05
강서구	39.77	7.71	33.69	27.07	38.00	32.28
구로구	42.26	8.51	35.74	26.87	42.32	24.40
금천구	67.56	8.49	53.26	37.41	61.51	29.45
영등포구	38.43	7.40	32.56	25.39	36.39	34.71
동작구	39.60	12.55	32.93	24.74	37.86	30.50
관악구	40.89	10.91	33.70	27.50	37.02	35.13
서초구	32.72	8.98	27.32	23.48	29.90	23.54
강남구	36.30	14.41	29.08	24.65	32.66	24.70
송파구	33.11	7.99	27.62	25.00	28.78	25.48
강동구	41.66	7.79	33.12	27.16	37.99	32.89
부산광역시						
전체	56.26	9.38	41.81	33.36	45.15	46.53
중구	67.68	23.43	49.46	31.06	62.21	7.70
서구	53.91	14.33	40.65	31.48	42.49	50.13
동구	71.58	20.56	51.43	37.58	50.41	57.95
영도구	55.99	17.05	42.78	34.86	45.82	43.83
부산진구	37.27	6.32	29.96	25.25	33.81	54.61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동래구	44.29	4.82	36.23	30.25	40.39	57.57
남구	42.40	8.22	33.38	27.42	36.31	34.51
북구	58.24	3.92	40.49	38.97	37.54	46.44
해운대구	48.48	5.09	37.08	34.33	35.57	38.94
사하구	48.82	8.61	39.23	32.72	42.86	42.16
금정구	50.33	7.97	38.39	36.18	38.01	50.26
강서구	117.70	11.82	76.84	40.42	92.38	81.90
연제구	37.53	4.22	31.22	27.05	33.87	33.13
수영구	45.17	2.03	34.39	31.59	34.97	54.29
사상구	53.49	6.50	39.72	35.83	42.04	52.41
기장군	67.36	5.22	47.79	38.71	53.69	38.63
대구광역시						
전체	57.12	2.13	43.01	34.06	48.97	40.41
중구	53.81	3.70	38.03	27.45	48.56	49.84
동구	55.71	1.36	42.05	31.69	50.31	35.52
서구	78.15	4.95	62.40	46.40	72.84	23.32
남구	55.15	0.67	41.87	29.74	51.22	45.99
북구	55.40	0.76	40.35	35.51	42.26	44.43
수성구	51.50	1.12	39.56	32.16	43.20	40.24
달서구	54.36	1.46	39.78	34.32	43.40	46.16
달성군	52.85	2.98	40.02	35.21	40.00	37.77
인천광역시						
전체	42.60	7.05	34.42	29.67	37.90	43.26
중구	42.20	9.43	32.07	25.50	38.79	45.44
동구	41.92	13.83	35.57	31.93	39.13	40.52
남구	43.31	4.26	34.63	26.91	42.13	39.45
연수구	43.44	5.37	35.30	31.89	36.31	48.29
남동구	42.87	2.46	34.94	30.61	36.92	42.23
부평구	44.49	1.79	35.53	29.06	40.64	32.80
계양구	50.22	2.43	40.85	33.32	46.55	39.96
서구	39.58	1.50	32.19	31.03	33.06	41.51
강화군	46.49	19.27	37.52	32.85	37.83	52.55
옹진군	31.46	10.18	25.61	23.62	27.68	49.88
광주광역시						
전체	66.01	3.17	47.50	38.70	53.85	38.80
동구	70.19	2.99	46.09	31.51	56.07	29.45
서구	54.75	5.18	41.10	38.12	42.20	47.11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남구	65.14	2.16	49.46	40.23	55.78	50.80
북구	61.05	3.25	46.26	38.17	53.36	34.20
광산구	78.89	2.28	54.58	45.47	61.83	32.43
대전광역시						
전체	51.97	2.04	40.01	40.61	38.53	47.07
동구	61.09	2.20	45.04	40.73	48.22	41.23
중구	49.51	1.46	37.67	38.79	34.59	55.38
서구	49.11	1.85	38.38	41.31	35.01	48.79
유성구	43.38	0.19	34.23	37.16	31.27	40.89
대덕구	56.78	4.48	44.72	45.04	43.53	49.06
울산광역시						
전체	42.77	2.88	33.16	30.77	34.73	48.42
중구	42.99	2.58	33.28	30.62	34.39	43.97
남구	39.76	3.13	30.89	30.14	31.34	49.51
동구	38.47	3.41	32.08	27.93	36.21	44.40
북구	41.58	1.26	32.24	30.20	33.50	52.16
울주군	51.06	4.00	37.32	34.94	38.20	52.06
경기도						
전체	50.30	5.32	38.95	33.73	42.74	35.88
수원시	39.21	2.26	29.90	27.22	32.33	40.40
성남시	38.55	7.88	31.97	27.00	36.74	34.29
의정부시	60.97	3.47	44.32	44.73	42.81	40.91
안양시	41.32	5.36	33.12	30.73	33.64	38.15
부천시	39.34	3.59	32.69	30.48	33.82	38.34
광명시	36.62	5.61	30.55	28.58	32.47	36.79
평택시	52.19	3.95	37.75	30.78	43.18	46.95
동두천시	71.70	8.84	54.78	48.81	59.84	25.34
안산시	54.65	3.97	41.88	36.89	45.07	34.11
고양시	41.28	2.90	31.30	31.30	29.97	44.09
과천시	56.91	14.70	50.11	38.98	55.70	23.18
구리시	37.08	3.81	31.27	30.22	30.91	36.66
남양주시	50.60	1.54	39.54	37.15	40.81	34.72
오산시	34.17	5.14	29.39	25.79	32.72	44.76
시흥시	46.34	3.21	37.91	32.55	41.89	34.12
군포시	35.03	5.17	28.36	25.39	31.29	34.05
의왕시	43.48	6.05	36.02	30.54	40.60	40.48
하남시	41.24	4.12	32.97	30.09	34.91	34.99
용인시	44.54	1.27	31.81	32.19	31.14	34.34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과주시	62.23	1.99	45.44	42.11	43.07	32.94
이천시	58.40	4.46	43.21	34.32	51.34	38.12
안성시	65.55	4.30	47.05	36.99	52.47	33.37
김포시	50.68	5.13	37.22	34.29	39.63	40.97
화성시	40.65	1.18	32.11	30.83	33.24	34.24
광주시	52.16	3.40	40.35	31.16	49.14	28.13
양주시	76.37	7.40	54.38	47.17	59.45	22.86
포천시	70.98	9.66	52.93	40.26	64.23	33.87
여주군	56.33	1.30	42.66	33.95	49.40	39.92
연천군	60.35	13.43	46.92	38.36	51.30	31.24
가평군	54.72	8.55	42.89	31.35	53.90	41.50
양평군	45.78	11.19	36.76	25.30	47.89	38.39
강원도						
전체	57.16	10.29	45.12	32.72	55.17	38.75
춘천시	55.89	5.90	45.93	32.48	57.79	30.91
원주시	57.04	6.26	42.69	35.39	49.28	37.95
강릉시	73.71	2.41	54.20	40.79	64.18	27.01
동해시	52.85	3.10	43.29	35.87	47.50	40.75
태백시	44.88	25.77	41.48	32.67	50.83	43.30
속초시	67.60	6.47	53.97	40.97	64.76	22.74
삼척시	57.66	13.03	45.06	34.29	49.62	40.85
홍천군	65.17	5.04	46.85	33.86	58.00	40.92
횡성군	74.00	6.56	51.60	37.92	62.54	38.35
영월군	55.26	5.79	39.33	30.17	47.73	53.34
평창군	36.98	5.38	33.42	21.75	44.75	58.85
정선군	57.30	17.92	43.45	31.15	55.50	38.69
철원군	77.39	5.72	62.62	36.01	72.08	27.46
화천군	41.80	14.13	32.93	25.91	40.57	54.33
양구군	66.53	6.26	52.66	32.28	71.21	20.76
인제군	43.28	16.24	36.41	23.56	49.80	43.99
고성군	58.87	32.15	49.88	34.21	64.92	29.21
양양군	42.67	7.03	36.33	29.68	42.04	48.09
충청북도						
전체	63.42	6.99	48.08	36.10	57.58	38.68
청주시	64.60	2.13	46.04	34.69	56.64	33.77
충주시	70.66	5.83	50.06	38.64	57.96	38.65
제천시	54.60	12.29	45.05	37.41	49.33	48.26
청원군	60.14	0.00	43.32	27.11	57.66	26.23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보은군	48.05	7.54	38.61	31.99	45.02	53.18
옥천군	49.51	3.93	41.20	37.09	43.83	55.10
영동군	55.42	6.11	39.47	29.01	49.24	52.29
증평군	70.54	1.52	54.65	38.10	72.05	21.85
진천군	70.20	6.87	54.72	36.86	72.03	26.77
괴산군	71.21	10.12	52.90	37.15	61.91	46.21
음성군	60.72	6.18	48.08	36.22	57.72	35.63
단양군	85.39	21.33	62.91	48.93	67.54	26.20
충청남도						
전체	59.70	4.31	45.39	34.38	54.52	37.35
천안시	44.76	1.42	34.38	28.97	39.45	45.36
공주시	55.80	6.43	41.70	37.43	44.54	48.79
보령시	57.04	5.25	44.56	37.19	47.54	44.91
아산시	55.23	2.58	44.81	28.50	59.57	20.01
서산시	51.69	0.31	36.84	26.78	46.57	38.65
논산시	81.47	4.50	60.95	46.32	73.77	23.82
계룡시	43.93	1.87	39.90	39.38	39.38	53.83
금산군	53.97	7.50	43.51	31.71	56.57	34.28
연기군	67.28	6.80	51.99	35.74	69.09	24.79
부여군	71.52	0.00	51.35	44.13	56.58	42.90
서천군	90.62	7.79	57.36	38.87	70.93	29.60
청양군	71.83	9.88	49.59	34.91	51.41	43.09
홍성군	54.32	6.43	44.94	32.24	56.69	27.79
예산군	46.73	2.15	38.40	29.12	47.40	49.77
태안군	54.37	1.89	42.33	30.87	53.27	42.21
당진군	54.60	4.18	43.59	28.00	59.50	27.86
전라북도						
전체	65.13	4.61	50.09	38.99	54.89	35.81
전주시	79.60	1.02	57.07	49.86	58.08	35.70
군산시	64.05	4.08	49.49	37.23	59.01	29.66
익산시	66.43	3.19	47.71	45.06	47.38	47.35
정읍시	92.39	5.23	64.63	56.89	57.59	46.48
남원시	89.70	1.40	72.13	57.62	72.52	28.44
김제시	75.40	5.13	53.99	48.77	54.54	39.77
완주군	67.75	4.23	54.00	38.50	60.39	25.83
진안군	40.22	12.70	34.45	22.25	43.76	33.15
무주군	40.13	7.45	35.54	23.40	48.97	27.07
장수군	52.68	11.74	45.82	25.89	55.64	31.77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임실군	58.85	0.00	41.49	28.09	50.76	38.21
순창군	51.85	6.23	42.06	31.76	49.18	33.56
고창군	68.88	2.15	55.35	39.92	61.22	36.06
부안군	63.94	0.00	47.50	40.59	49.45	48.34
전라남도						
전체	64.67	4.22	46.97	35.91	56.59	35.20
목포시	70.63	1.88	54.23	46.98	60.38	43.63
여수시	59.09	6.38	45.81	32.37	57.06	39.98
순천시	64.12	4.15	49.73	44.76	53.83	39.64
나주시	80.88	13.48	57.04	44.08	58.96	35.39
광양시	64.66	6.82	52.11	38.97	65.69	37.23
담양군	51.42	0.00	38.27	27.54	47.83	39.37
곡성군	67.81	0.00	51.49	42.86	60.00	28.94
구례군	66.40	7.09	46.10	37.46	55.31	40.11
고흥군	65.73	1.67	49.12	34.80	62.45	36.92
보성군	45.37	15.78	34.22	19.05	53.57	38.66
화순군	85.12	1.61	66.53	54.49	69.86	26.76
장흥군	56.72	0.00	43.28	34.63	51.35	49.94
강진군	69.63	0.00	47.62	32.17	67.39	16.53
해남군	63.92	1.43	50.01	40.67	58.92	34.09
영암군	73.02	0.00	48.76	35.12	61.62	30.70
무안군	72.20	4.25	45.11	35.11	49.35	21.41
함평군	77.64	0.00	45.05	31.89	58.12	21.34
영광군	65.84	0.00	47.49	30.76	63.38	35.05
장성군	39.14	3.15	30.99	19.32	43.29	46.62
완도군	58.79	5.18	49.95	45.98	51.70	40.05
진도군	54.05	4.23	44.64	36.42	53.29	42.22
신안군	70.50	15.74	35.78	24.62	41.74	29.77
경상북도						
전체	56.06	10.08	41.59	32.79	48.39	43.70
포항시	63.86	2.43	46.41	40.80	47.91	42.32
경주시	65.43	1.66	47.15	40.83	47.64	43.56
김천시	58.04	5.24	40.04	35.79	40.86	52.18
안동시	50.85	7.27	43.22	33.77	52.54	43.02
구미시	50.71	2.06	37.06	34.28	38.08	51.81
영주시	57.99	5.56	47.12	37.23	54.20	42.35
영천시	58.11	6.04	47.71	38.45	52.93	39.85
상주시	42.06	0.97	31.69	32.30	28.40	65.85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문경시	58.84	8.12	43.83	42.55	45.03	50.77
경산시	68.93	2.24	48.80	39.24	49.37	47.45
군위군	44.48	0.00	24.65	13.40	40.97	32.29
의성군	50.66	5.23	40.07	21.86	61.17	31.69
청송군	63.59	21.34	41.03	31.43	50.66	39.65
영양군	49.41	29.65	31.32	22.80	36.90	60.34
영덕군	62.29	23.48	50.72	35.89	64.97	24.83
청도군	65.54	17.27	45.82	38.21	53.48	41.61
고령군	72.85	14.13	48.61	36.77	46.84	44.09
성주군	55.90	15.15	45.38	33.33	57.95	30.55
칠곡군	70.21	2.18	48.32	41.13	54.75	46.78
예천군	56.61	5.70	46.83	37.76	55.80	31.96
봉화군	40.95	20.47	31.47	20.44	44.10	40.65
울진군	60.12	21.83	49.92	31.20	63.45	39.35
울릉군	21.89	13.82	19.35	14.59	24.88	62.19
경상남도						
전체	57.31	6.77	43.31	37.70	46.22	41.29
창원시	47.17	4.33	36.90	34.01	37.76	52.15
마산시	57.46	5.07	44.08	38.95	44.26	50.80
진주시	72.26	6.12	53.27	47.23	57.44	40.17
진해시	47.44	3.74	34.73	33.96	34.76	42.76
통영시	38.15	4.96	32.31	29.08	35.60	50.39
사천시	66.76	5.45	48.54	43.22	52.44	41.86
김해시	56.63	3.19	39.90	44.32	33.86	48.23
밀양시	77.90	1.01	53.16	47.38	50.94	49.10
거제시	33.51	2.77	28.14	23.33	33.01	37.68
양산시	64.49	1.14	43.72	42.16	41.34	47.82
의령군	58.35	11.76	39.23	29.97	46.79	27.92
함안군	44.60	5.49	36.20	37.70	33.59	49.62
창녕군	56.53	6.95	42.49	40.13	43.14	56.30
고성군	55.82	5.53	46.45	32.88	56.79	28.05
남해군	65.55	6.28	51.27	37.77	63.29	28.11
하동군	73.10	7.33	49.32	34.46	62.54	18.44
산청군	71.41	21.29	55.66	48.00	63.39	26.13
함양군	53.14	10.60	43.63	42.57	44.00	48.63
거창군	69.24	11.60	57.79	45.45	50.72	43.73
합천군	36.72	10.73	29.49	21.52	38.70	37.98

〈부표 II-1 계속〉

지역	보육시설 공급률 (0~5세)	국공립보육 공급률 (0~5세)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영아보육 이용률 (0~2세)	유아보육 이용률 (3~5세)	유아유치원 이용률 (3~5세)
제주도						
전체	81.65	5.12	62.91	55.92	67.94	24.33
제주시	72.45	2.23	60.06	56.56	62.61	29.62
서귀포시	90.84	8.01	65.76	55.28	73.27	19.04

조사기관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 (예정시기)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년 12월)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조사표 종 류 1	조 사 구 번 호 2-4	거 처 번 호 5-6	거 처 내 가구번호 7-8	가구조사 일련번호 9-11
1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통/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아파트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집 () - H.P () -
방문횟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육 아 정 책 개 발 센 터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1. 가구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드 번호 **0 1** 조사구형태 응답자 가구원 번호 조사이동대상수 조사완료수

1. 가구원 일련번호	2. 이름		3. 가구구성		4. 성별		5. 연령				6. 교육정도		7. 건강상태		8. 결혼상태		9. 경제활동			
							5-1. 생년월일				5-2. 만나이		6-1. 학교	6-2. 졸업여부	장애 및 질병여부		이혼상태		활동분야	
							년	월	일	양력 음력	연령	개월수								
초등 학생 이하 아동	19-20	0 1	21-22		23	24-25	26-27			28-29	30-31		32	33-34	35					
	36-37	0 2	38-39		40	41-42	43-44			45-46	47-48		49	50-51	52					
	53-54	0 3	55-56		57	58-59	60-61			62-63	64-65		66	67-68	69					
	70-71	0 4	72-73		74	75-76	77-78			79-80	81-82		83	84-85	86					
카드번호		0 2	12-13																	
가구주	14-15	0 5	16-17	0 1	18	19-20	21-22			23-24			25	26-27	28	29	30-31			
기타 가구원	32-33	0 6	34-35		36	37-38	39-40			41-42			43	44-45	46	47	48-49			
	50-51	0 7	52-53		54	55-56	57-58			59-60			61	62-63	64	65	66-67			
	68-69	0 8	70-71		72	73-74	75-76			77-78			79	80-81	82	83	84-85			
	카드번호		0 3	12-13																
기타 가구원	14-15	0 9	16-17		18	19-20	21-22			23-24			25	26-27	28	29	30-31			
	32-33	1 0	34-35		36	37-38	39-40			41-42			43	44-45	46	47	48-49			
카드번호		1 1	12-13																	
별거부	50-51	1 1	52-53		54	55-56	57-58			59-60			61	62-63	64	65	66-67			
별거모	68-69	1 2	70-71		72	73-74	75-76			77-78			79	80-81	82	83	84-85			

(※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그 아동이 부모와 별거중이면 그 부모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5. 최연소 아동 부모의 평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무직, 비해당은 88, 모름은 99 를 기입하십시오.)	_____ 시간	_____ 시간
5-1. 그러면 1주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무직, 비해당은 888, 모름은 999 를 기입하십시오.)	_____ 시간	_____ 시간

35-38
5
부 모

39-41 42-44
5-1
부 모

6. 최연소 아동 부모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 평균을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직과 비 해당은 8888을, 모름은 9999 를 기입하십시오.)	_____ 만원	_____ 만원
---	----------	----------

45-52
6
부 모

7. 자녀의 연령 시기에 따라 부모 이외에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어디(누구)로부터 받아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령별로 아래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만1세 미만	② 만1세	③ 만2세	④ 만3세	⑤ 만4세	⑥ 취학전 (만 5세)	⑦ 초등학교 1~3학년생	⑧ 초등학교 4~6학년생
<input type="text"/>							

7

① 53-54
② 55-56
③ 57-58
④ 59-60
⑤ 61-62
⑥ 63-64
⑦ 65-66
⑧ 67-68

【보기】

01) 조부모	02) 친인척	03) 탁아모 등 비혈연인	04) 어린이집
05) 가정어린이집(놀이방)	06) 유치원	07) 선교원	08) (반일제)학원
09) 방과후프로그램기관	10) 기타()	11) 잘 모름	12) 부모만 가능함

8. (최연소 아동의 모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② 일을 하고 싶으나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③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④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⑤ 일을 하고 싶으나 주위의 반대로 ⑥ 건강상 이유로
⑦ 기타() ⑧ 비해당(취업 중)

69
8

9. (최연소 아동의 모가 취업중인 경우)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③ 근로시간과 아이를 맡기는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음
④ 과도한 직장일로 인하여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없음
⑤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⑥ 어려움이 없음
⑦ 기타() ⑧ 비해당(현재 비취업)

70
9

III. 보육·교육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카드번호 12-13
05

1.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 관련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 ① 집안어른 ② 친구 동료 ③ 육아관련 사이트 ④ 육아관련 전문가
⑤ 관련 서적 ⑥ 기타 ⑦ 없음

14
1

2.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육시설이나 육아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또한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이용 ② 가끔 이용 ③ 알고 있으나 미이용 ④ 잘 모름

15

2

3.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인척이외에 육아 등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시부모 ② 친정부모 ③ 남편 형제자매 ④ 부인 형제자매
⑤ 이웃 ⑥ 기타 ⑦ 없음

16

3

3-1.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귀하의 집과 차나 도보로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 ① 10분 거리 ② 10-20분 거리 ③ 20-30분 거리
④ 30분-1시간 거리 ⑤ 1-2시간 이상 거리 ⑥ 2시간 이상 거리

17

3-1

4. 귀하는 평소 자녀돌보기(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보아 주기, 등하교 도와주기 등)를 남편과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부인이 ② 대체로 부인이 ③ 부부가 함께
④ 대체로 남편이 ⑤ 전적으로 남편이 ⑥ 부부 이외 다른 사람이
⑧ 비해당

18

4

5. 귀하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이 있는 경우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또한 추가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구분	인지	수혜경험	가정경제 도움	출산에 미친 영향
	① 잘 앓 ② 대략 앓 ③ 잘 모름	① 현재받음 ② 과거 받은 경험있음 ③ 한번도 받지않음	① 별 도움 안됨 ② 어느 정도 도움 ③ 많은 도움 ⑧ 비해당	① 매우 큼 ② 어느 정도 ③ 별 영향 없음 ⑧ 비해당
1) 소득계층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2) (민간)영아 보육시설 이용시 기본보조금 지원				
3)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4) 두자녀 이상 이용시 보육료, 유아교육비 감면				
5) 장애아 무상보육				

1)					19-22
2)					23-26
3)					27-30
4)					31-34
5)					35-38

6. 귀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비용은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 이하 ② 31~40% ③ 41~50%
④ 51~60% ⑤ 61~70% ⑥ 71~80%
⑦ 81~90% ⑧ 91% 이상 ⑨ 잘 모르겠다

39

6

7.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및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료 등)에 드는 비용은 월평균 가계 지출의 몇 %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 미만 ② 6~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40% ⑧ 41% 이상 ⑨ 잘 모르겠다

40

7

8. 귀하는 정부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잘 모름

41

8

※ 조사원 확인사항

7. 현재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여 표시하십시오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및 빌라 ⑤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⑥ 기타(무엇:_____)

67
7

VII. 기타 질문입니다.

1.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1-1번 질문으로) ② 없다(1-3번 질문으로) ⑧ 비해당

68
8

1-1.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임신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현재 임신 중 ② 1년 이내 ③ 1년~2년 이내 ④ 2년~3년 이내
 ⑤ 3년 이후 ⑥ 잘 모르겠음 ⑧ 비해당

69
1-1

1-2 몇 명의 자녀를 더 두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명

70
1-2

1-3.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미취학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취학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생활로 바빠서 ④ 건강이 안 좋아서
 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⑥ 부모 나이가 많아서
 ⑦ 기타() ⑧ 비해당

71
1-3

2. 미취학 아동 보육교육료를 전액지원 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⑤ 잘 모르겠다 ⑧ 비해당

72
2

3. (영유아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한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잘 알고, 이용해봤다 ② 알고 있으나 이용해보진 적이 없다 ③ 들어본 적은 있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⑧ 비해당

73
3

※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4. 정부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을 제정하여 보육시설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안다 ② 들어본 적이 있어 대강 안다. ③ 모른다

74
4

5. 귀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안다 ② 들어본 적이 있어 대강 안다. ③ 모른다

75
5

6. 만약에 시·군·구청에서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면 이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77
7

7.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보육시설에서 여름 휴가기간에 5일 정도 방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대 ② 찬성 ③ 잘 모르겠다

78
8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기관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 (예정시기)	2009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2009년 12월)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표)

조사표 종 류	조 사 구 번 호	거 처 번 호	거 처 내 가 구 번 호	가구조사 일련번호	아동 가구원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1	2-4	5-6	7-8	9-11	12-13	14-16
2						

주 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_____동_____호)		
가구주성명	아동성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집 () - 핸드폰 - -
방문횟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육 아 정 책 개 발 센 터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조사원은 가구원 사항에서 아동의 가구원 번호와 이름 그리고 이 아동의 부와 모의 가구원 번호를 옮겨 적고 이 아동에 관하여 질문하십시오

아동 가구원 번호 () 이름 _____

아동 부의 가구원 번호 () 아동 모의 가구원 번호 ()

카드번호
11

17-18

	19-20
부	모

1. 보육·교육 이용 경험

※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이 자녀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명의 자녀 중, () 번째 자녀
- 현재 낮 시간동안에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 ② 모 ③ 아이의 형제자매 ④ 부모의 형제자매
⑤ 친조부모 ⑥ 외조부모 ⑦ 기타 친인척 ⑧ 비혈연
⑨ 주로 기관에 맡김 ⑩ 없음(혼자 지냄)
- 이 아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다니던 경제활동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3-1, 3-2 질문으로) ② 없다 (4번 질문으로) ③ 비해당(모 부재)(4번 질문으로)

25-26

1 명
 번째 자녀

27

2

28

3

3-1. (있다면) 경제활동을 그만둔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여러번 있을 경우는 이 아이 때문에 그만둔 최초의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① 임신했을 때 ② 출산휴가 후 바로
③ 생후 6개월 이전 ④ 6개월 이후~만 1세가 되기 이전
⑤ 만 1~2세 때 ⑥ 만 3~취학전까지
⑦ 초등학교 입학 후 ⑧ 비해당(없다/비해당)

3-2. (있다면) 경제활동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수입보다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③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 ④ 직장에서 성장가능성이 희박하여
⑤ 기타() ⑧ 비해당

29

3-1

30

3-2

- 아이가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선교원 ④ 학원(반일제 이상)
⑤ 공부방 ⑥ 기타() ⑦ 기관 이용경험 없음
-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것은 몇 개월 때부터입니까? (※ 이용 경험이 없는 아동은 비해당 88을 기입하십시오.)
() 개월 때

31

4

32-33

4-1 개월

- 이 아이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⑦ 기타() ⑧ 비해당

34

4-2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5. 이 아이의 각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주로 어디, 또는 누구를 이용했습(합)니까? 그리고 이때 모가 취업 중이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두 개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질문하며, 현재 연령대까지만 응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현재 연령 이후는 비해당 처리합니다. 2순위가 없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분	5-1. 기관		5-2 개인		5-3. 모의 취업상태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6개월미만						35-41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42-48
만 1세이상						49-55
만 2세이상						56-62
만 3세이상 4세 미만						63-69
만 4세이상 5세 미만						70-76
만 5세 이상 취학전						77-83

카드번호
12 17-18

초등 1학년						19-20
초등 2학년						21-22
초등 3학년						23-24

6. 이 아이가 전에 보육시설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6-1. 그때 다니던 보육시설을 중간에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시설을 중심으로 기입하십시오)

② 없다

01)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02) 원장이 마음에 안들어서
 03) 교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04) 너무 멀어서
 05) 비용이 비싸서 06)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07)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다니려고
 08) 시간이 안 맞아서 09) 기관이나 가정의 이사로
 10) 기타() 88) 비해당(없다)

25
6
26-27
6-1

7. 또한 이 아이가 전에 유치원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7-1. 그때 다니던 유치원을 중간에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6-1번 질문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유치원을 중심으로 기입하십시오)

② 없다

()번

28
7
29-30
7-1

II. 미취학 아동,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등

카드번호
13/14

17-18

이 아이는 평일에 보통 어떠한 보육 교육 기관과 누구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30분 간격으로 기입합니다.)

※ 기준일은 방문전날로 기입하며, 방문날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로**, 월요일인 경우 **전 주 월요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중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요일)

	기관	개인	기타 교육		기관	개인	기타 교육
오전 (카드번호 13)	01. 어린이집 02. 유치원 03. 선교회 04. 학원 I 반일제이상이용 05. 학원 II 특기, 보습학원 06.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주민센터 07. 문화센터 등 기타 사설기관	11. 부모 12. 형제, 자매 13. 동거조부모 14. 비동거조부모 15. 친인척 16. 동거 비혈연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18. 기타 비혈연	21. 교재교구 22. 예체능 23. 과외 24. 학습지	오후 (카드번호 14)	01. 어린이집 02. 유치원 03. 선교회 04. 학원 I 반일제이상이용 05. 학원 II 특기, 보습학원 06.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주민센터 07. 문화센터 등 기타 사설기관	11. 부모 12. 형제, 자매 13. 동거조부모 14. 비동거조부모 15. 친인척 16. 동거 비혈연 17. 육아전문 파견인력 18. 기타 비혈연	21. 교재교구 22. 예체능 23. 과외 24. 학습지
00:00 ~ 00:30			19-20	12:00 ~ 12:30			19-20
00:30 ~ 01:00			21-22	12:30 ~ 13:00			21-22
01:00 ~ 01:30			23-24	13:00 ~ 13:30			23-24
01:30 ~ 02:00			25-26	13:30 ~ 14:00			25-26
02:00 ~ 02:30			27-28	14:00 ~ 14:30			27-28
02:30 ~ 03:00			29-30	14:30 ~ 15:00			29-30
03:00 ~ 03:30			31-32	15:00 ~ 15:30			31-32
03:30 ~ 04:00			33-34	15:30 ~ 16:00			33-34
04:00 ~ 04:30			35-36	16:00 ~ 16:30			35-36
04:30 ~ 05:00			37-38	16:30 ~ 17:00			37-38
05:00 ~ 05:30			39-40	17:00 ~ 17:30			39-40
05:30 ~ 06:00			41-42	17:30 ~ 18:00			41-42
06:00 ~ 06:30			43-44	18:00 ~ 18:30			43-44
06:30 ~ 07:00			45-46	18:30 ~ 19:00			45-46
07:00 ~ 07:30			47-48	19:00 ~ 19:30			47-48
07:30 ~ 08:00			49-50	19:30 ~ 20:00			49-50
08:00 ~ 08:30			51-52	20:00 ~ 20:30			51-52
08:30 ~ 09:00			53-54	20:30 ~ 21:00			53-54
09:00 ~ 09:30			55-56	21:00 ~ 21:30			55-56
09:30 ~ 10:00			57-58	21:30 ~ 22:00			57-58
10:00 ~ 10:30			59-60	22:00 ~ 22:30			59-60
10:30 ~ 11:00			61-62	22:30 ~ 23:00			61-62
11:00 ~ 11:30			63-64	23:00 ~ 23:30			63-64
11:30 ~ 12:00			65-66	23:30 ~ 24:00			65-66

※ 기준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 조사원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조사할 내용의 해당여부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조사 하십시오. 해당되지 부분은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III.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학원 유형 I 등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15~18카드
IV. 미취학 아동 전체	① 해당 ⑧ 비해당	19, 20 카드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21, 22 카드
VI. 전체 아동 중, 현재 방문(개별/그룹)지도 및 과외 등 교육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23 카드
VI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24 카드
VIII. 초등학생 전체	① 해당 ⑧ 비해당	25 카드

III	67
IV	68
V	69
VI	70
VII	71
VIII	72

III.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선교원, 미술 학원, 영어유치원, 주민센터 등을 평일 반일제 이상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카드번호	17-18
15	

1.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01) 국·공립보육시설 02)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03) 기타법인·단체보육시설
 04) 민간보육시설 05) 가정보육시설(놀이방) 06) 직장보육시설
 07) 부모협동보육시설 08) 국공립유치원 09) 사립유치원
 10) 선교원 11) 반일제이상 영어학원(유치원) 12) 반일제이상 미술학원 등
 13)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주민센터 등 14) 문화센터 등 15) 기타()

19-20

1

2.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의 이름과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 소재지와 아동의 집이 서로 다른 동·읍·면에 위치합니까?

2-1. 기관명	()
2-2. 아동 거주지와 관계	① 기관과 같은 동·읍·면 ② 기관과 같은 시·군·구 내 다른 동·읍·면 (질문 2-2-1로) ③ 기관과 다른 시·군·구 (질문 2-2-1로)

21

2-2

2-2-1. 아동의 거주지와 기관이 다른 소재지일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②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③ 차량 운행을 해주어서 ④ 집근처이나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⑤ 기타() ⑧ 비해당

22

2-2-1

3.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 위치한 주변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영구임대아파트지역
 ④ 상가지역 ⑤ 공장(단)지역 ⑥ 농·어가지역
 ⑦ 공원·녹지지역 ⑧ 기타()

23

3

15. 이 아이는 국가로부터 월 보육료나 교육비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 영아 기본보조금, 학습바우처는 제외합니다)

- ① 전액 면제
- ② 일부 감면
- ③ 아무런 혜택 없음(질문 16로)

→

15-1. 면제나 감면받는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2) 모·부자가정자녀
- 03) 차상위 저소득층
- 04) 기타 저소득층
- 05)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 06) 세 번째 자녀
- 07) 두 자녀가 이용
- 08) 장애아동
- 09) 농어민 자녀
- 10) 기타(직장 등)
- 88) 비해당

15-2. 월 면제 또는 감면 액수는 얼마입니까?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월 ()천원

19
15

20-21
15-1

22-24
15-2 천원

16.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용을 전혀 안내는 아동은 비해당입니다.)

- ① 매우 부담된다
- ② 부담되는 편이다
- ③ 적당하다
- ④ 부담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⑧ 비해당

25
16

17.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질문 17-1로)
- ② 없다(질문 18로)

26
17

17-1.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다면) 월 최고 얼마까지 추가로 더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비해당은 888을 기입하십시오.)
현재보다 추가로 월 최고 ()천원까지 더 부담할 수 있음

27-29
17-1 천원

18. 이 아이는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등원시 ()	하원시 ()
---------	---------

【보기】

- ①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질문 18-1, 18-2로)
- ② 가족이 자가용으로(질문 19로)
- ③ 가족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질문 19로)
- ④ 자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질문 19로)
- ⑤ 자녀 혼자 걸어서(질문 19로)
- ⑥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질문 19로)

30-31
18
등원 하원

18-1.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경우, 교사가 차량에 동승하고 있습니까?

- ①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
- ② 등원시만 동승한다
- ③ 하원시만 동승한다
- ④ 동승하지 않는다
- ⑤ 모르겠다
- ⑧ 비해당(차량을 이용하지 않음)

32
18-1

18-2. 보육 또는 교육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관이 걸어서 가기는 먼 곳에 위치해서
- ②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편해서
- ③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서
- ④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 ⑤ 기타()
- ⑧ 차량을 이용하지 않음

33
18-2

19. 위의 방법으로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등원 ()분, 하원 ()분

34-37
19 분
등원 하원

20.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장이 보육 또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에서 강조하는 순서대로 가지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 01) 균형있는 발달 02) 인성지도(정서 및 사회성 발달)
- 03) 안전한 보호 04) 자유 놀이 중심 활동
- 05) 급간식을 포함한 건강관리 06)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 07)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08) 특별활동프로그램(질문 20-1로)
- 09) 충분한 휴식 10) 기타() ↓

38-43
20 1순위
 2순위

20-1.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답한 경우, 시설장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특별프로그램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 비해당 88 기입)

- 01) 미술 02) 음악 03) 체육 04) 과학 05) 수학 06) 한글(국어) 07) 컴퓨터
- 08) 교구이용프로그램 09) 한자 10) 영어 11) 기타 외국어 12) 기타

44-45
20-1

21. 다음은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 부모가 선택하는지 여부, 강사는 누구인지, 비용은 얼마이며, 일주일간 이용시간은 몇 시간이고.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0일 경우, 1) 문항에 프로그램수 0만 기입하고 2)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기교육	1)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를 기록 (미이용시 0을 기입)	2)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3) 별도로 비용을 지불합니까?	4) 강사는 누구입니까?	5)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6) 일주일간 몇 분 이용합니까?	7) 해당 특별 활동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①선택 가능 ②무조건 이용 ⑧ 비해당 (미이용)	①지불함 ②지불하지 않음 ⑧비해당 (미이용)	①외부 강사 ②보육 교사 ③기타 ④모름 ⑧비해당 (미이용)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록 (미이용 비해당 888)	*일주일 기준으로 시간 직접 기입 (미이용 비해당 888)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⑧비해당		
01) 미술					천원	분		46-56
02) 음악					천원	분		57-67
03) 체육					천원	분		68-78
04) 과학					천원	분		79-89
05) 수학					천원	분		90-100

카드번호 17-18
17

06) 한글(국어)					천원	분		19-29
07) 컴퓨터					천원	분		30-40
08)교구이용프로그램					천원	분		41-51
09) 한자					천원	분		52-62
10) 영어					천원	분		63-73
11) 기타 외국어					천원	분		74-84
12) 기타					천원	분		85-95

22.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01) 원장					
02) 교사					
03) 주변환경					
04) 시설설비, 실내환경					
05) 교재교구 및 장비					
06) 내부 분위기					
07) 비용					
08) 건강관리					
09) 급간식관리					
10) 안전관리					
11) 교육내용					
12) 부모참여					
13) 부모교육 및 상담					

22

- 01) 19
- 02) 20
- 03) 21
- 04) 22
- 05) 23
- 06) 24
- 07) 25
- 08) 26
- 09) 27
- 10) 28
- 11) 29
- 12) 30
- 13) 31

23. 현재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번 항목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제1순위 번, 제2순위 번)

32-35

23 1순위
 2순위

24.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인데 이 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비용 때문에
- 02) 집으로부터의 거리 때문에
- 03) 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 04)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고 있어서
- 05) 기관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아이 적응)
- 06) 운영시간 때문에
- 07) 교사가 좋아서
- 08) 특기교육 때문에
- 09) 차량이용 때문에
- 10) 시설환경 때문에
- 11) 주변 평판이 좋아서
- 12) 종교적인 이유로
- 13) 기타()
- 88) 비해당

36-37

24

25.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가정이나 부모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변화내용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그렇지 않음	③보통	④그러함	⑤매우 그러함
1) 취업 및 구직(신규)					
2) 업무(가사)능률 향상					
3) 여가·취미활동					
4) 육아기술·지식 확대					
5) 가족갈등 완화(해소)					
6) 학업 및 취업훈련					
7) 기타()					

25

- 1) 38
- 2) 39
- 3) 40
- 4) 41
- 5) 42
- 6) 43
- 7) 44

26. 귀하께서는 아이가 다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으시며, 이러한 서비스가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서비스 내용	제공/참석	도움정도	만족도
		① 매일 ② 매주 1회 ③ 월 1회 ④ 분기 1회 ⑤ 연 1~2회 ⑥ 제공 안함 ⑦ 모름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별 도움 안됨 ③ 보통임 ④ 도움되는 편 ⑤ 매우 도움 ⑧ 비해당 (제공 안함/모름)
1) 보육·교육 계획표 제공			
2) 급식·간식 식단제공			
3) 가정통신(연락장 등) 제공			
4) 자녀발달평가 통지 제공			
5) 부모 상담 참석			

26.

1)				45-47
2)				48-50
3)				51-53
4)				54-56
5)				57-59

제공 도움 만족

27. 이 아이를 현재 다니는 기관에 몇 살 때까지 보내시겠습니까? (* 조사원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기록하십시오.)

아이가 만 ()세 ()개월 될 때까지
현재부터 ()개월 더 이용

60-63

27

		개월
		개월

27-1.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만 보내겠다는 경우 그러면 다른 곳에 보내실 생각이 있습니까? (*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보내겠다는 미취학 아동은 비해당입니다.)

① 아무 곳도 안 보냄 ② (다른) 보육시설 ③ (다른) 유치원
④ (다른) 선교원 ⑤ (다른) 반일제 이상 학원 ⑥ 특기교육 학원
⑦ 기타() ⑧ 비해당

64

27-1

--

***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비해당입니다.)**

1.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질문 1-1, 1-2로) ② 반대(질문 1-3로) ③ 잘 모름(질문 2로)

65

1

--

1-1.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동발달에 도움을 주어서
② 일반학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③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④ 기타 ()

1-2. 찬성하는 경우 특별활동프로그램 교육비용으로 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천원

66

1-1

--

67-69

1-2

				천원
--	--	--	--	----

3-1.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저렴하여서 ② 신뢰가 가서 ③ 가까워서 ④ 교사자질
 ⑤ 보육내용 ⑥ 기타() ⑧ 비해당

34
3-1

4. 유치원에 보내겠다면 어느 유치원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 ① 학교 병설 유치원(질문 4-1로) ② 공립 단설 유치원(질문 4-1로)
 ③ 사립유치원 ④ 기타() ⑧ 비해당

35
4

4-1.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저렴하여서 ② 신뢰가 가서 ③ 가까워서 ④ 교사자질
 ⑤ 보육내용 ⑥ 기타() ⑧ 비해당

36
4-1

5. 현재 이 자녀의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필요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만약에 보육 시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과거에 보육 시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필요성 정도	보육시설 이용여부	보육시설 이용 의사	보육시설 이용 경험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없음	① 상시 이용 ② 가끔 이용 ③ 미이용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1) 하루 중 잠깐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2)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경우 (야간보육)				
3) 1박 2일 등 2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4시간보육)				
4) 휴일에 이용하는 경우(휴일보육)				

2

1)					37-40
2)					41-44
3)					45-48
4)					49-52

6. 긴급한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주로 어디(누구)에 돌보아 줍니까?

- 6-1. 긴급한 상황 ① 보육시설 ②부모 ③조부모 및 친인척 ④비혈연 ⑤기타
 6-2. 아이가 아플 때 ① 보육시설 ②부모 ③조부모 및 친인척 ④비혈연 ⑤기타

53-54
6-1
6-2

7. 만약에 보육시설에서 아래와 같이 공식화하여 운영할 경우 이 아이에게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7-1. 오전만 이용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7-2. 오후 2~3시까지 이용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55-56
7-1
7-2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카드번호 17-18
21

※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일반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의 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반일반 이상 학원 이외에 특기교육이나 보습을 위하여 다니는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은 종류별로 몇 개이며, 1주간 평균 이용시간과 1개월간 학원에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이용하지 않는 종류의 경우, 프로그램 수에는 0을 기입하고 이용시간과 비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용	프로그램 수	이용시간	비용
	()개	주 평균 시간	월 총()천원
1) 미술관련			
2) 음악관련			
3) 체육관련			
4) 과학관련			
5) 수학			
6) 언어(한글, 독서) 관련			
7) 컴퓨터			
8) 영유아교육전문			
9) 한자			
10) 영어			
11) 기타 외국어			
12) 종합보습			
13) 기타			
14) 총계			

1 개 시간 천원

1)				19-24
2)				25-30
3)				31-36
4)				37-42
5)				43-48
6)				49-54
7)				55-60
8)				61-66
9)				67-72
10)				73-78
11)				79-84
12)				85-90
13)				91-96
14)				97-102

개 시간 천원

2. 이 아이가 특기교육 또는 보습을 위하여 다니는 사설기관의 시설 강사,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교육내용에 비하여 비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이용하지 않는 종류의 학원의 경우는 비해당 처리합니다. 여러 사설기관을 이용할 경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설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용	시설설비 수준	강사 수준	교육내용 수준	전반적 만족도	비용
	① 매우 낮음 ③ 보통임 ⑤ 매우 높음	② 낮은 편 ④ 높은 편 ⑧ 비해당	① 매우 저렴 ③ 적절 ⑤ 매우 비쌌	② 저렴한 편 ④ 비싼 편 ⑧ 비해당	
1) 미술관련					
2) 음악관련					
3) 체육관련					
4) 과학관련					
5) 수학					
6) 언어(독서)관련					
7) 컴퓨터					
8) 영유아교육전문					
9) 한자					
10) 영어					
11) 기타외국어					
12) 종합보습					
13) 기타					

카드번호 17-18
22

2

1)					19-23
2)					24-28
3)					29-33
4)					34-38
5)					39-43
6)					44-48
7)					49-53
8)					54-58
9)					59-63
10)					64-68
11)					69-73
12)					74-78
13)					79-83

시설 교사 내용 전반 비용

※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가족이나 친인척은 누구입니까?

- ① 동거 친조부모 ② 동거 외조부모 ③ 비동거 친조부모
④ 비동거 외조부모 ⑤ 동거 친인척 ⑥ 비동거 친인척 ⑧ 비해당

21
1

2.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 ① 아이 집(질문 3번으로) ② 돌보는 사람 집(질문 2-1번으로) ⑧ 비해당

22
2

2-1.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이를 매일 데려오십니까?

- ①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봄 ② 가끔 데려옴(질문 2-1-1로)
③ 가끔 가서 봄(질문 2-1-1로) ⑧ 비해당

23
21

2-1-1. 며칠에 한 번씩 데려오거나 가서 보십니까? (※ 비해당은 88을 기입하십시오.)
평균 ()일에 한번

24-25
21-1

2-1-2. 아이를 맡긴 곳과 집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 ② 차로 30분~1시간 이내
③ 차로 1시간~2시간 이내 ④ 차로 2시간 이상 ⑧ 비해당

26
21-3

3. 일주일 동안 보통 어떻게 아이를 맡기십니까?

- ① 월요일~일요일 ② 월요일~토요일
③ 월요일~금요일 ④ 주 당 2-3회
⑤ 불규칙적으로(간헐적으로) ⑥ 기타()

27
3

4. 규칙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인 경우, 07시~ 19시)
()시~()시까지

28-31
4

부터 까지

5. **※ 조사원 확인: 기관이나 다른 개인 서비스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 ① 혈연 단독 ②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보완
③ 비혈연(파출부 등) 보육을 보완 ④ 부모 양육을 지원 ⑤ 기타()

32
5

6.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지불
② 부정기적으로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지불 안 함
⑧ 비해당

6-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주십시오.
(※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비해당은 888을 기입하십시오.)
월 () 천원

33
6

34-37
6-1 천원

7.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돌보게 하면서 시간, 비용, 양육방식 및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 비해당은 8을 기입하십시오.)

구분	만족도				
1) 시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비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양육방식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양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
 1) 38
 2) 39
 3) 40
 4) 41

*** 비혈연인이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 주는 비혈연은 누구입니까?
 ① 동거 비혈연(주5일 이상) ② 아이돌보미 ③ 베이비시터 ④ 가정보육교사
 ⑤ 파출부·가사도우미 ⑥ 이웃보육모 ⑦ 기타() ⑧ 비해당

42
 1

2.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아이 집 ② 돌보는 사람 집 ③ 비해당

43
 2

3. 일주일동안 보통 어떻게 아이를 맡기십니까?
 ① 월요일~일요일 ② 월요일~토요일
 ③ 월요일~금요일 ④ 주 당 2-3회
 ⑤ 불규칙적으로(간헐적으로) ⑥ 기타()

44
 3

4. 평소에 주로 돌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인 경우, 07시~ 19시)
 ()시~()시까지

45-48
 4 부터 까지

5. 돌보는 시간은 1주일에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1주일에 총 () 시간

49-51
 5 시간

6. *** 조사원 확인: 기관이나 다른 개인 서비스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① 비혈연 단독 ②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보완
 ③ 조부모·친인척 보육을 보완 ④ 부모 양육을 지원 ⑤ 기타()

52
 6

7. 이 아이를 돌보는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주로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지불 ② 부정기적으로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숙식만 제공
 ⑤ 지불 안 함 ⑥ 비해당

7-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모두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월 평균을 내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비해당은 888을 기입하십시오.)

월 () 천원

53
 7
 54-57
 7-1 천원

8. 이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평소 알던 사람임 ② 주변의 소개로 ③ 지역신문, 인터넷 등 광고로
 ④ 사설 인력전문기관의 소개로 ⑤ 기타() ⑧ 비해당

58
8

9. 이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은 결혼하셨습니까? 자녀 양육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자격 여부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기
9-1. 결혼상태 및 자녀양육경험	① 미혼 ② 기혼, 양육경험 유 ③ 기혼, 양육경험 무 ④ 모름 ⑧ 비해당
9-2. 자격(해당되면 1을 각각 표시)	① 보육교사 ② 유치원교사 ③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사설업체 교육 시터 ⑤ 기타()

9
9-1 59
9-2 60-64



9-2-1. 아이돌보미나 사설업체 시터의 경우 교육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충분 ② 불충분 ③ 보통 ④ 비교적 충분 ⑤ 매우 충분
 ⑥ 모름 ⑧ 비해당

65
9-2-1

10.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자주 있음(질문 10-1로) ② 가끔 있음(질문 10-1로)
 ③ 거의 없음(질문 11로)

66
10

10-1.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자녀의 부모가 돌봄 ② 아이의 형제자매에게 부탁
 ③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부탁 ④ 이웃에게 부탁
 ⑤ 보육시설의 일시보육 이용 ⑥ 기타()
 ⑧ 비해당

67
10-1

11. 현재 자녀를 돌보는 분에 대하여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환경, 전문성 및 성실성 측면에서 만족하십니까? (* 이용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 8을 기입하십시오.)

구분	만족도
1) 이용시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 비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양육방식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양육환경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5) 전문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 성실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1
1) 68
2) 69
3) 70
4) 71
5) 72
6) 73

7. 방과후 보육은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예시) 14:30~18:00

()시 ()분 ~ ()시 ()분까지

52-59

7					부터
					까지
					시 분

8. 방과후 보육 비용은 월 평균 얼마를 내십니까? (* 참여하지 않으면 비해당 888을 기입하십시오.)

월 () 천원

60-62

8				천원
---	--	--	--	----

9. 이 아이가 참여하는 방과후 보육의 내용, 시간, 비용, 교사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비해당 8을 기입하십시오.)

구분	만족도				
9-1. 보육내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2. 시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3. 비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4. 교사 수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

9-1		63
9-2		64
9-3		65
9-4		66

***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참여하지 않으면 비해당 8을 기입하십시오.)**

10. 참여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주당 몇 회, 몇 시간입니까?

주당 총 _____ 회, 주 _____ 시간

67-69

10				회
				시간

11.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 개까지 골라 주십시오.

- 01) 미술 02) 음악 03) 체육 04) 과학 05) 수학 06) 언어
 07) 컴퓨터 08) 한자 09) 영어 10) 기타 외국어 11) 기타 88) 비해당

11			70-71
			72-73
			74-75

12.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용은 월평균 얼마를 내십니까? (* 오른쪽 칸에 천원 단위로 기입하고, 특기적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해당 888을 기입하십시오.)

월 () 천원

76-78

12				천원
----	--	--	--	----

13.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내용, 시간, 비용, 교사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 참여하지 않으면 비해당 8을 기입하십시오.)

구분	만족도				
13-1. 프로그램내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2. 시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3. 비용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4. 교사 수준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3

13-1		79
13-2		80
13-3		81
13-4		82

*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서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보육정책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129 팩스: 02)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555-13